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724-12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CONTENTS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2. 조사 연혁	2
3. 조사 설계	3
4. 2019년 과업 특징	4
5. 조사표 구성	5
6. 실사 설계 및 자료 처리	7
1) 실사 설계	7
2) 자료 처리	8
7. 응답자 특성	9
8. 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9

제 2 장. 주요 결과 요약

1. 시계열 비교 항목	13
1) 전반적 행복도	13
2) 삶의 여러 항목에 대한 만족	15
3)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17
4) 결혼에 대한 인식	18
5) 배우자 선택 기준	19
6)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20
7) 가정 경제 수준	22
8)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	24
9) 노후 부담	25
10) 한국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27
1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30
12) 경제적 양극화 인식	32
13) 우리 사회 신뢰수준	33
14)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35
15)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36

CONTENTS

16) 한국/한국인의 정체성	38
17)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	41
18)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42
19) 북한에 대한 인식	44
20) 통일 시기	45
21)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46
22)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47
2. 신규 조사 항목	48
1) 하는 일의 가치	48
2)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49
3) 부정적 감정	51
4)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52
5)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53
6) 일과 여가	54
7)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	55
8) 노후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56
9)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57
10)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59
11)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61
12)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62
13)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63
14)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65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1. 개인생활	69
1) 전반적 행복도	69
2) 가족에 대한 만족	71
3) 친구에 대한 만족	73
4)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75
5)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77

CONTENTS

6) 건강에 대한 만족	79
7)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81
8) 하는 일의 가치	83
9)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85
10) 사소한 일에 대한 화	87
11) 이유 없는 우울	89
12) 소외감	91
13) 무시당하는 느낌	93
2. 결혼/가족생활	95
1) 결혼에 대한 인식	95
2) 배우자 선택 기준	97
3)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101
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혼전순결	103
5)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이혼	105
6)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107
7)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109
8)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낙태	111
9)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자녀	113
10)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부모 봉양	115
11) 가정 경제 수준	117
12)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119
3. 일/여가/노후생활	121
1)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	121
2) 일과 여가	125
3)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	127
4) 노후 부담	131
5) 노후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135
4. 사회적 지지/가치관 일반	137
1)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37
2) 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39
3)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41
4) 금전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43

CONTENTS

5) 긴급 혹은 재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145
6)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147
7) 생계-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149
8) 경쟁에 대한 인식	151
9)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153
10)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155
11)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157
5. 갈등/신뢰/공정	159
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 젊은세대	159
2)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자와 근로자	161
3)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163
4)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165
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167
6)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169
7)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171
8)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173
9)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175
10) 경제적 양극화 인식	177
11) 우리 사회 신뢰수준	179
12)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181
13)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이웃	183
14)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185
15)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국내 거주 외국인	187
16)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189
17)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191
18)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193
19)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195
6. 사회일반/참여	197
1)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197
2)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201
3)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203

CONTENTS

7. 문화/역사/정체성	205
1)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205
2)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충·효·예 및 정(情) 등)	207
3)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209
4)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211
5)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외국인의 인종·국가에 따른 차별	213
6)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215
7)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217
8)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219
9)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221
10)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	223
11)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227
8. 북한/통일	229
1) 북한에 대한 인식	229
2) 통일 시기	231
3)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233
4)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235

부록 1. 통 계 표

부록 2. 조 사 표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올해 7회차를 맞은 조사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을 파악하여 정부정책 추진 및 인문 사회과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처음 시작됨
- 제1차 조사가 시작된 1996년도부터 제3차 조사가 있던 2006년까지는 5년 주기의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4차는 건국 60주년 계기라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여 2008년에 실시됨. 5차는 다시 5년 후인 2013년에 실시되었으며 이 때 조사주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 6차는 3년 후인 2016년에 실시됨. 이번 7차 역시 3년의 간격을 둔 2019년에 실시하게 되었음
- 한편, ‘가치관’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쉽게 변하지 않는 신념임. 가치관은 세부적인 태도를 구성하며, 행동의 근간이 됨. 즉, 가치관은 인간의 생애에 있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험적 조사로는 변화의 양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가치관 변화가 눈에 띌 정도로 충분히 커서 경험적 조사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 가치관은 사람이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풀거나 대처하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함. 사회적인 범주에서 살펴보면, 결국 구성원들은 가치관을 토대로 의견 소통과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정치와 정부 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음

<가치관의 특성>

가치관이란 무엇인가?



※ 출처: 김석호, 2013,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틀 구축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 조사 연혁

- 올해 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의 만19~79세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함
- 집계구를 활용하여 **층화확률비례추출법**으로 조사지역 선정 후 **표본가구는 계통추출법, 응답자는 생월법을 적용**하여 응답자까지 완벽한 확률추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조사 연혁>

구 분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13년	2016년
조사지역	전국 (제주도 제외)	전국 16개 광역 시도	전국 16개 광역 시도	전국 16개 광역 시도	전국 16개 광역 시도	전국 17개 광역 시도(세종시 포함)
조사대상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만 19~79세 성인남녀	만 19~79세 성인남녀
표본크기	개인과 가정(1,500 명)사회 정치 경제 (1,500명)/한민족, 세계화 미래학(1,521 명)	유효표본 각 항목별 1,500명	총 2,580명	총 2,569명	총 2,537명	총 5,000명
표본추출	지역별 인구 비례 에 따른 다단 비례확률추출법	다단층화무작위 통계청(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잠정보고서)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 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지역별 다단층화 추출 후, 주민 등록 인구현황 기준(2005.12.31) 성별/연령별인구 구성비에 따라 무작위 추출	지역별 다단층화 추출 후,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준 (2007.12.31) 성별 /연령별인구구성 비에 따라 무작 위 추출	지역별 다단층화 추출 후, 주민등 록 인구현황 기준 (2012.12.31) 성별 /연령별인구구성 비에 따라 무작 위 추출	국가기초구역을 활용하여 지역별 다단층화추출 후, 주민등록인구현 황(2016.3월)을 기준으로 성, 연 령별 인구구성비 에 따라 추출
조사방법	일대일 개별면접	일대일 개별면접	일대일 개별면접	일대일 개별면접	일대일 개별면접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주관	공보처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	개인과 가정 -리서치앤리서치 사회, 정치, 경제 -월드리서치 한민족, 경쟁력, 미래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월드리서치

3.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만19세~79세의 성인 남녀
표본추출방법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집계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한 후 표본가구는 현장에서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응답자는 가구방문조사를 실시, 생일법을 활용하여 가구 내 적격자 1인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 실시 - 한 집계구에서 16가구(가구당 1명)를 조사하도록 설계하여 전국에서 총 314개의 집계구가 추출되었음
목표표본크기	5,000명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pm 1.4\%$) - 표본설계를 통해 한 집계구 당 16명 \times 314개 집계구 = 5,024명으로 목표표본크기가 수정되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조금 더 확보된 수준인 5,100명으로 조사가 마감되었음
조 사 방 법	가구방문 면접조사(TAPI 활용)
현장조사 기간	2019년 8월 27일 ~ 9월 27일
조 사 기 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 관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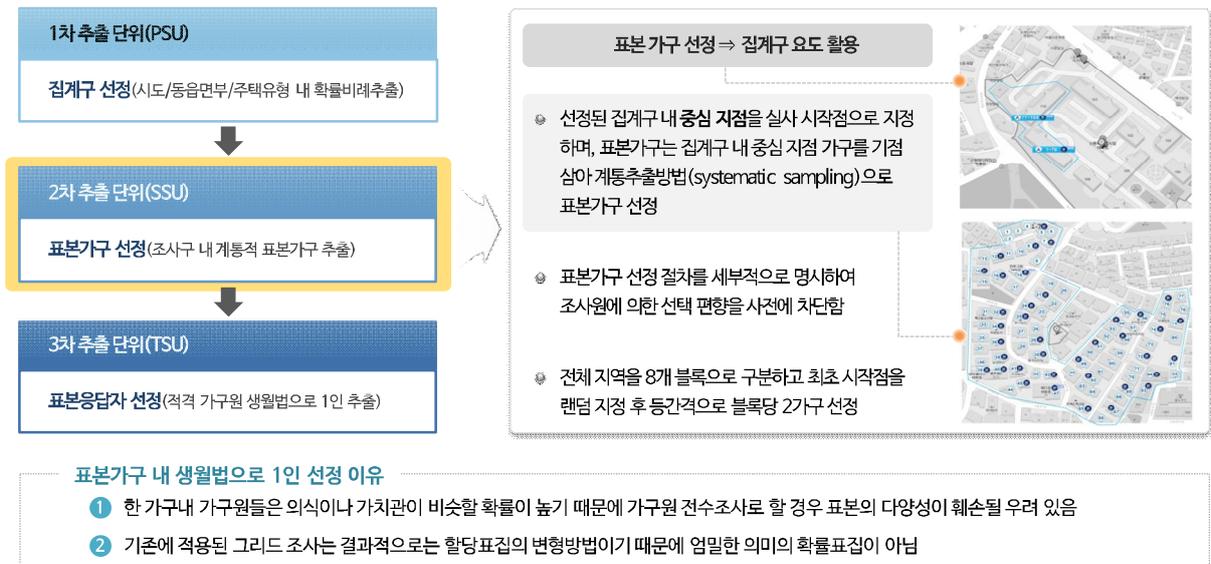
<조사 기본 설계>

	내 용	비 고
조사 모집단	☞ 조사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모집단 분석은 주민등록인구자료 활용
조사 대상	☞ 만19세~79세의 성인 남녀	5차('13년), 6차('16년) 조사와 동일
표본추출률	☞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집계구" ⇒ 행정자치부에서 생산하는 국가기초구역도 사용 가능하나, 집계구가 더 많은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담고있고, 크기의 변동이 작아서 더 유용함	한 개 집계구에서 16명씩 조사 총 314개 집계구 추출
표본크기	☞ 5,000 표본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4\%$	6차('16년) 조사부터 5천 표본으로 확대
표본추출방법	☞ 집계구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 ☞ 표본가구는 계통추출법 ☞ 응답자는 생일법으로 가구원 중 1인 선정	집계구-가구-응답자까지 무작위 표집 실시
조사 기준 시점	☞ 2019년 현재	-
조사방법	☞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1:1 면접조사	필요 시 유치(기록) 조사 병행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TAPI 원칙 + 유치 조사시 PAPI

○ 표본추출

- 시도, 성별, 연령대가 기본 층화변수임
- 추가 층화변수는 시도에서는 동/읍면부, 주택유형(일반가구/아파트가구)임. 거주지역과 도시 발전 정도, 주택유형은 생활수준과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성들이기 때문임
- 확률표집 강화: 집계구, 표본가구, 응답자까지 무작위표집(Random Sampling)을 실시. 집계구는 통계청 제공 명부를 통해 무작위 선정, 표본가구는 집계구 요도를 마련하여 사전 선정, 표본응답자는 생월법으로 1인 선정

<표본 가구 및 응답자 선정 과정>



4. 2019년 과업 특징

- 과업 특징: 차별성 강화, 조사표의 이론적 틀 확립, 결과의 학술적 가치 제고
 - 차별성 강화: ‘현상’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항목 최소화, ‘의식’이나 ‘가치관’과 같이 본질적인 속성을 측정하는 조사표 구성
 - 이론적 틀 확립: 과거 조사와 향후 조사가 시계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론적인 뼈대 구축 (조사표의 이론적 틀은 다음페이지 참고)
 - 결과의 학술적 가치 제고: 그간 본 조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낮은 인지도/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 논문 작성과 언론/일반 대중에게 홍보 강화
- 자문단 운영: 통계학, 사회학, 언론학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과물 산출 단계까지 참여토록 함. 특히 결과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4편의 논문을 생산하고 별도의 학술대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제공함

5. 조사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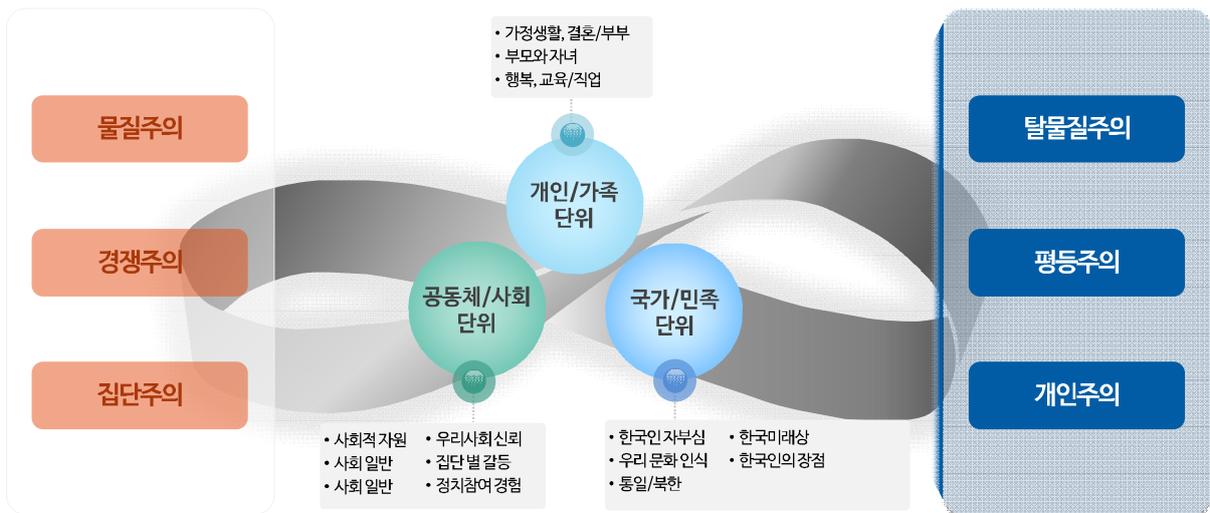
○ 조사표 구성 시 가장 큰 목표는 “이론적 틀 확립”

- 과거의 설문조사와 향후 조사의 기본 근간 마련 목적이며, 그간 ‘현상’이나 ‘실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삭제하고 ‘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하되 문항수 축소로 응답부담을 줄이고자 함. 또한 최근 시류를 반영,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시대상을 반영코자 하였음

○ 전문가 의견 및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수렴

- 자문단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빈번하게 회의를 실시하여 조사표의 구성을 체계화하고 조사항목의 내실화를 꾀하였음. 그 결과 ‘물질-탈물질주의’, ‘경쟁-평등주의’, ‘집단-개인주의’라는 세 개의 가치관 축을 설정하였으며, ‘개인/가족’, ‘공동체/사회’, ‘국가/민족’이라는 세 개의 설문 측정 단위를 갖추. 설문 항목도 기존 118문항에서 78문항으로 대폭 감소함
- 설문 최종 확정 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음(8.14~8.18 / 100명)

<조사표의 이론적 틀>



○ 조사표의 구성적 특징과 해당 문항의 예시를 집약하여 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음

- 물질-탈물질주의, 경쟁-평등주의, 집단-개인주의를 묻는 문항을 측정 단위별로 배치함. 다만, 하나의 문항이 완벽히 하나의 가치관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앞으로 원하는 나라상’은 하나의 질문이지만 물질-탈물질주의 또는 경쟁-평등주의에 모두 해당될 수 있음
- 한편, 조사표에는 가치관 요소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음(틀이나 단위가 응답자의 자유로운 사고에 영향을 미쳐 편향(bias)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자문진 의견 반영)

- 대신 조사표에는 ‘개인 생활’, ‘결혼/가족 생활’, ‘일/여가/노후 생활’, ‘사회적지지/가치관 일반’, ‘갈등/신뢰/공정’, ‘사회일반/참여’, ‘문화/역사/정체성’, ‘북한/통일’의 8가지 주제로 재분류하여 배치함

<조사표 구성의 이론적 틀과 측정 단위>

구 분	개인/가족 단위	공동체/사회 단위	국가/민족 단위
물질주의 - 탈물질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직업, 경제력 등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 배우자 선택 중요 요소 - 가정의 경제 수준 - 직업선택 중요요소 - 일과 여가 - 추가 여유시간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경제발전, 국가적 가치 추구 등 - 사회적으로 당면한 심각한 문제 - 앞으로 원하는 나라상
경쟁주의 - 평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행복, 만족 등 -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 가족, 친구 등 항목별 만족도 - 하고 있는 일의 가치 - 자유로운 선택 정도 - 우울/소외감 등 - 집안 의사결정권 실패 - 주위 대비 생활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사회에서의 경쟁-평등 가치 등 - 가치관 일반 공감정도 (소득, 복지, 경쟁, 기업 규제 교육환경) - 우리 사회 신뢰수준 - 집단별 신뢰수준 - 공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국가적 문제, 나라상 등 - 사회적으로 당면한 심각한 문제 - 앞으로 원하는 나라상
집단주의 - 개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가정생활, 결혼, 부모-자녀 관계 등 - 결혼(필요성)에 대한 의견 - 낙태, 이혼, 동거, 동성결혼 등에 대한 생각 - 노후생활 부담자, 노후 생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사회에서의 집단과 개인 등 - 사회적 지지 - 가치관 일반 공감 정도 (개인 자유 vs. 사회질서) - 집단별 갈등정도 - 1인 가구로 인한 변화 - 정치참여 경험 - 한국 문화 관련 생각 - 다문화/외국인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한국인 정체성, 통일 등 - 국가 또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 - 한국인의 장점 - 북한에 대한 생각 - 통일에 대한 생각 - 통일후 예상변화 - 통일 후 예상 어려움

6. 실사 설계 및 자료 처리

1) 실사 설계

구 분	내 용
설문항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항목 검토 및 신규항목 추가 등 수정·보완 • 예비조사 실시로 설문 초안의 타당성 검토 후 최종 확정
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b 기반의 조사표 개발, TAPI 구현 • 예비용 종이설문지 인쇄 • 예비조사 실시를 통한 조사표 구성 및 문구 오류 수정 • 조사원 교육자료 작성 및 인쇄
조사원 선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사와 유사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 선발·투입 • 조사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 거절 상황별 응대 시나리오 교육
실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지침서의 원칙에 따른 조사 • 담당 연구원 및 실사관리자가 응답데이터를 점검 • 조사 진행률 확인 및 응답 품질 관리

○ 방문 요일 및 시간대 관리

- 가구방문을 통해 1인의 응답자를 생월법으로 선정함에 있어 적격 응답자를 가구 방문 시점에서 만날 확률을 높이고자 조사 시간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21시까지로 하였으며, 오전(10~12시), 오후(12~17시), 저녁(18~21시)로 구분하여 각 시간대별로 2:5:3 정도의 비율로 조사되도록 방문 시간대 관리, 경제활동인구 특성을 감안하여 평일과 주말에 약 6:4의 비율로 조사하도록 관리

○ 1인 가구 응답률 제고 관리

- 1인 가구가 30%대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하여, 1인 가구도 응답 표본에 적절히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 1인 가구의 경우 최소 3회 이상으로 재방문을 실시하되 서로 다른 요일 과 시간대에 방문하였으며, 조사 안내문을 비치하여 응답자가 조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조사 안내문에는 온라인 참여 링크를 기재하여 스스로 편한 시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도 다양화하였으며, 결과도출 과정인 모수추정 단계에서 1인 가구 보정도 실시하였음

○ 엄격한 대체 기준 및 참여방법 다양화

- 조사 불능(고령, 심신장애 등)이거나 강력 거부인 경우에는 가구를 대체하여 진행하였으나, 약한 응답 거부나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조사 참여 설득과 재방문, 조사참여 다양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음
- 조사참여 다양화에서는 종이조사표 유치와 온라인조사 참여를 유도함. 조사원들이 가구 방문시 **Tablet PC를 소지하여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기기 오작동이나 네트워크 오류, 응답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거부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종이조사표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였음. 또한 **온라인 조사표도 개발**하여 응답자가 원하는 시·공간에서 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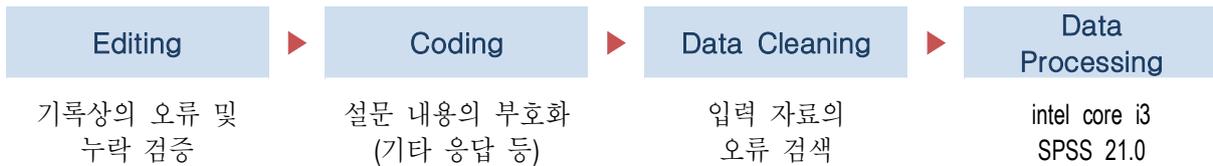
- 조사원은 가구방문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Tablet pc 조작에 능숙한 경험 조사원 110명을 선발하였으며, 담당연구원의 집체 교육과 실사관리자의 집체교육 및 화상을 통한 추가 교육 등 여러 단계의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점검(2회)

- 현장조사 준비 상황과 실제 조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회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함
- 1차: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내방, **실사 점검 회의**(9월 6일/주무관, 연구진, 실사관리자 참석)
- 2차: **현장 모니터링** 실시(9월 10일, 대구지역 일반 조사구/주무관, 실사관리자, 조사원 참석)

2)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Intel Core i3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21.0 프로그램으로 자료 처리됨



○ 가중치 부여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방식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집단의 구성비와는 다르게 응답 표본이 표집됨. 이를 보정하고자 결과 산출 시 설계효과를 반영하고, 모집단의 구성비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가중치와 사후층화보정가중치를 산출하여 모수추정을 실시
- **설계가중치**: 집계구 추출률, 가구 추출률, 1인 가구 보정, 무응답 가구 보정, 가구원 추출률 반영
- **사후층화 보정**: 사후층화는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실시
- 위의 단계로 모수추정 후 **표준화 가중치**를 한 번 더 부여하여 전체 응답 표본수가 실제 응답 사례 수(5,100명)로 환산되도록 함

7. 응답자 특성

구 분		합계	
		사례수(명)	%
전 체		(5,100)	100.0
성별	남자	(2,555)	50.1
	여자	(2,545)	49.9
연령	19~29세	(935)	18.3
	30~45세	(1,451)	28.4
	46~60세	(1,604)	31.5
	61~79세	(1,110)	21.8
지역	서울	(987)	19.4
	인천/경기	(1,576)	30.9
	대전/충청/세종	(536)	10.5
	광주/전라	(497)	9.7
	대구/경북	(504)	9.9
	부산/울산/경남	(786)	15.4
	강원	(151)	3.0
	제주	(64)	1.3
결혼상태	미혼	(1,493)	29.3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64.9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5.8
가족구성원	1인 가구	(617)	12.1
	1세대 가구	(874)	17.1
	2세대 가구	(3,393)	66.5
	3세대 가구	(212)	4.2
	비친족 가구	(5)	0.1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2018)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9.3%임. 위의 표에서 1인 가구가 12.1%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가구원' 단위의 비율을 의미함. '가구 단위'로만 계산하면, 본 조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임

8. 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수록된 통계 수치는 가중치가 부여된 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 값의 합이 총계(또는 전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위의 표 및 이후에 적힌 사례수 역시 모집단 비율에 맞도록 가중치 부여되어 재계산된 것이므로 실제로 응답된 표본수와는 다름

제 2 장

주요 결과 요약

1. 시계열 비교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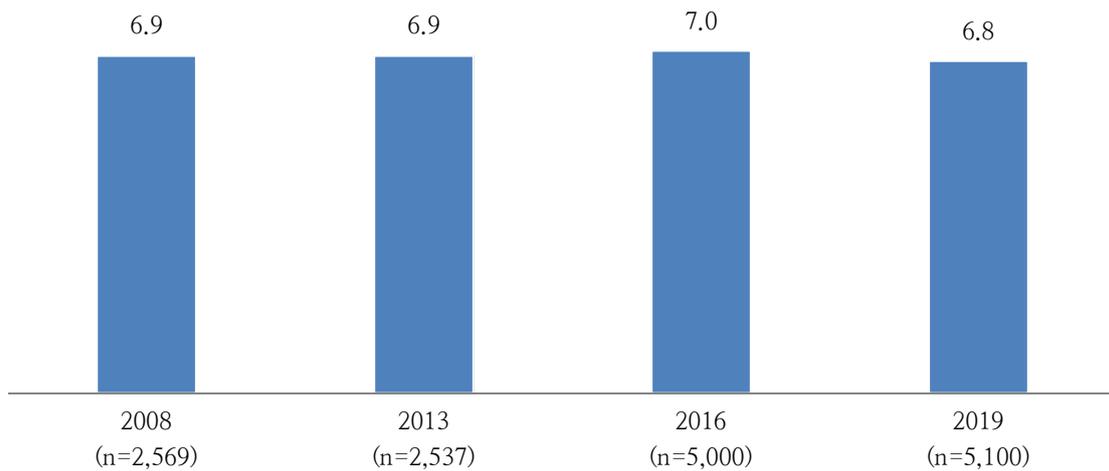
1) 전반적 행복도

2019년도 한국인의 63.6%는 '전반적으로 행복'

-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묻은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63.6%로 나타남
- 10점 만점으로는 6.8점으로, 2008년 7.0점에 비해 0.2점 하락한 상황임.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전반적으로 행복감은 10년간 '중상' 수준을 유지하면서 크게 변함이 없는 추세임

【 그림 2-1 】 전반적 행복도

(단위 : 점)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어제의 행복감'을 11점(0~10점)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은 6.6점으로 나타남

(단위: 점)

(단위: 점)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평균	문항	평균
전반적 행복도	(6.8)	어제의 행복감	(6.6)

- 2018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81.9%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7.4%로 나타남
- 2011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7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63.8%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는 ‘보통이다’(27.8%), ‘불행하다’(8.4%) 순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82.4%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는 11.1%가 ‘보통이다’, 6.5%가 ‘불행하다’고 응답하였음.
 - 중국의 경우(5점 척도) 79.6%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12.7%), ‘불행하다’(7.6%)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문항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한국	일본	중국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전반적 행복 또는 불행 (2018, 4점 척도)	81.9	-	-
전반적 행복 또는 불행 (2011, 7점 척도 중국 5점 척도)	63.8	82.4	79.6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한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행복하다’의 응답비율이 76.4%로 나타남. 반면 ‘불행하다’의 응답비율은 9.9%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행복하다’의 응답비율은 86.5%로 나타났으며, ‘불행하다’의 응답비율은 10.4%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행복하다’의 응답비율은 84.5%로 나타났으며, ‘불행하다’의 응답비율은 14.4%로 나타남

(단위: %)

문항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한지	76.4	86.5	84.5	83.6

2) 삶의 여러 항목에 대한 만족

가족, 친구, 건강에 만족도는 '중상', 소득/재산, 문화/여가생활은 '중'

- '가족', '친구', '소득/재산', '문화/여가', '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친구', '건강'에 대해서는 7점대의 '중상'에 해당하는 만족을, '소득/재산'과 '문화/여가생활'에서는 5점대의 '중'에 해당하는 만족을 보였음
-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족'에 대한 만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7.8점), 다음으로는 '친구'(7.2점), '건강'(7.1점), '문화/여가생활'(5.9점), '소득/재산'(5.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0점 만점의 점수로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가족'에 대한 만족은 0.1점 상승, '친구'에 대한 만족은 0.1점 하락,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은 0.3점 하락한 상황임
- 이를 요약하면, 2016년부터 우리나라의 삶의 여러 항목에 대한 만족은 크게 변함없이 '중 또는 중상' 수준으로 나타남

【 표 2-4 】 응답자 특성별 삶의 여러 항목에 대한 만족

(단위 : 점, %, %p)

구 분	2016년 (n=5,000)		2019년 (n=5,100)		차이 (2019년 - 2016년)	
	점수	만족비율	점수	만족비율	점수	만족비율
가족에 대한 만족	(7.7)	82.6	(7.8)	81.1	(0.1)	-1.5
친구에 대한 만족	(7.3)	75.5	(7.2)	72.8	(-0.1)	-2.7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6.1)	42.4	(5.8)	32.6	(-0.3)	-9.8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	-	(5.9)	38.0	-	-
건강에 대한 만족	-	-	(7.1)	67.8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2018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가족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7점 만점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84.9%로 나타남

(단위: %)

문항	2018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가족과의 관계	84.9	9.1	5.3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자기 집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34.4%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은 40.6%,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23.1%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통이다’(28.7%), ‘불만족한다’(2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경우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보통이다’(30.2%), ‘불만족한다’(1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문항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만족한다	만족한다	만족한다	만족한다
자기 집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34.4	43.0	48.3	42.7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소득 만족도’와 ‘여가활동 만족 여부’에 대하여 각각 5점 척도와 3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소득 만족도’의 경우 ‘보통’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2.4%). 다음으로는 ‘불만족’(43.5%), ‘만족’(1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가활동 만족 여부’의 경우, ‘보통’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7.0%). 다음으로는 ‘만족’(28.8%), ‘불만족’(24.2%)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문항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소득 만족도	14.1	42.4	43.5
여가활동 만족 여부	28.8	47.0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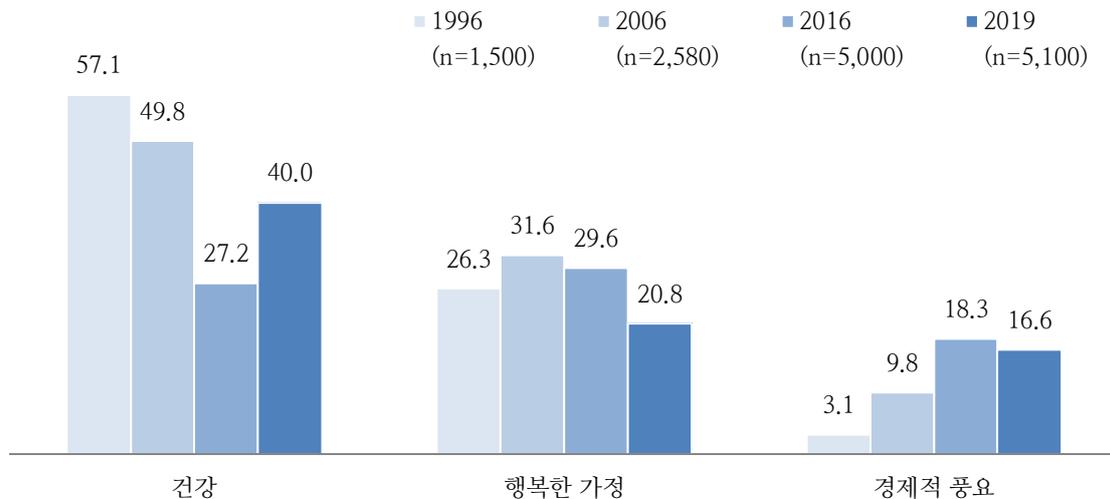
3)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건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40.0%)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건강(40.0%)’ 이었음. 뒤를 이어 ‘행복한 가정(20.8%)’, ‘경제적 풍요(16.6%)’ 순이었음(4위 이하는 생략)
- 약 2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건강’과 ‘행복한 가정’과 같은 항목의 응답비율은 낮아지고, ‘경제적 풍요’의 응답비율은 높아진 경향을 보임(원지코리아에서 2017년에 발간한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연구에 따르면, 2016년 결과에서 ‘건강’이 낮은 이유는 ‘건강/아름다움’으로 보기가 제시되어 가치 희석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그림 2-2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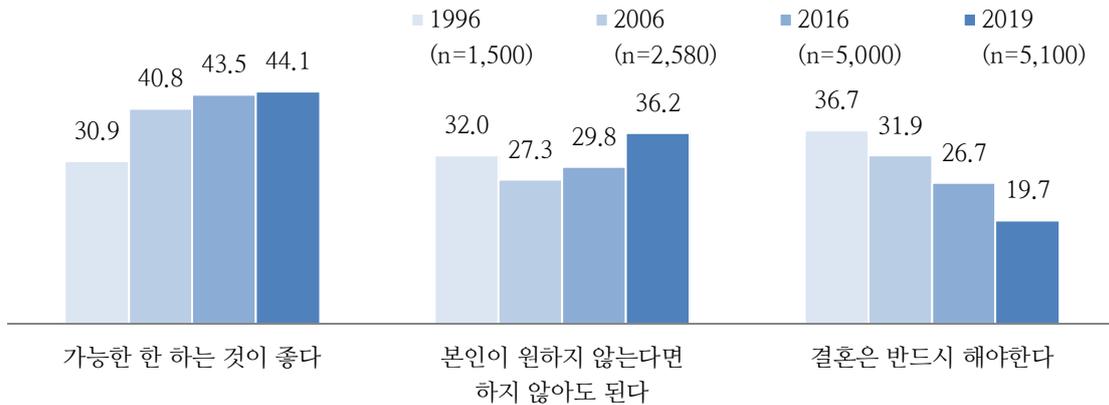
4) 결혼에 대한 인식

점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6년 36.7%에서 2019년 19.7%로 20여년 사이에 17%p 낮아짐.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996년 30.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44.1%로 나타남
- 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2006년 27.3%에서 2019년 36.2%로 8.9%p 상승함

【 그림 2-3 】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11.1%,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비율은 37.0%로 나타남

(단위: %)

(단위: %)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2018년 사회조사 결과	
문항	그렇다	문항	그렇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9.7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11.1
결혼은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44.1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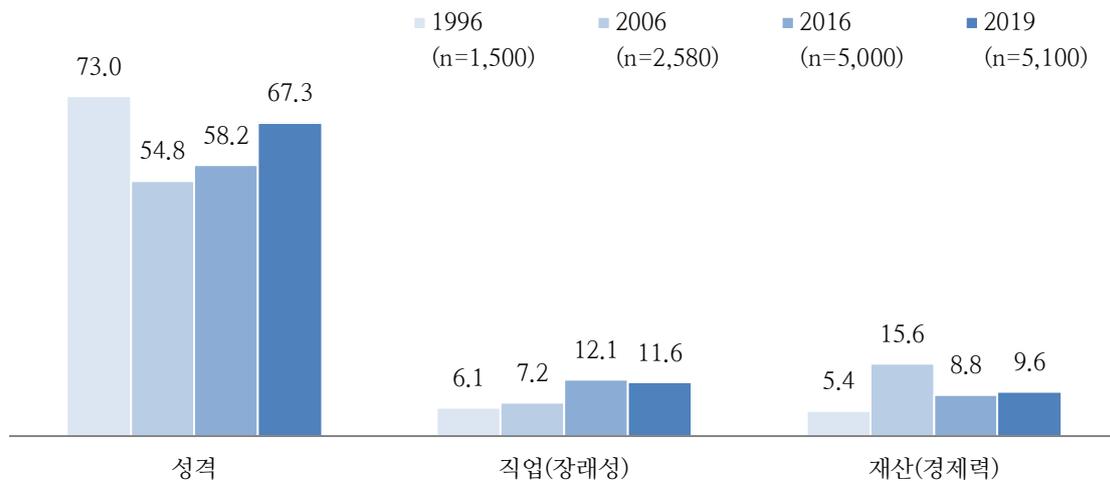
5) 배우자 선택 기준

'성격'이 배우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 '배우자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 '성격'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성격'은 1996년 조사 이래로 지속적으로 응답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항목임
- 한편, '직업(장래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996년에 비해 5.5%p 상승하여 2019년에는 11.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조사 결과인 12.1%와 비슷한 수준임
- '재산(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도 1996년 5.4%에 비해 4.2%p 상승하여 2019년에는 9.6%로 나타남

【 그림 2-4 】 배우자 선택 기준

(단위 : %)



6)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0.1%**가 동의

-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은 약간의 등락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2019년에는 1996년 대비 29.4%p 감소한 47.3%**로 나타남
-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은 **2019년에 2013년 대비 12.1%p 감소하여 46.0%**로 나타남
-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은 **2019년에 2016년 대비 13.3%p 증가하여 63.5%**로 나타남
-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은 **2019년에 2016년 대비 2.2%p 증가하여 10명 중 2명 꼴인 20.1%**로 나타남. 가장 낮은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을 보인 항목임
- ‘낙태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은 1996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1996년에는 45.3%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75.8%로 최고치를 보임.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23.3%p 감소하여 50.0%**로 나타남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은 2006년 이후 감소추세임. **2019년에는 2006년 대비 24.2%p 감소하여 59.9%**로 나타남
-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긍정 응답’(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2019년에는 2006년 대비 24.1%p 감소하여 51.5%**로 나타남

【 표 2-9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의 공감/긍정 응답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공감/긍정 응답비율					
	1996년 (n=1,500)	2006년 (n=2,580)	2008년 (n=2,569)	2013년 (n=2,537)	2016년 (n=5,000)	2019년 (n=5,100)
1)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	79.7	76.0	71.8	62.3	62.6	47.3
2)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	-	-	-	58.1	58.6	46.0
3)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	-	-	-	50.2	63.5
4)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	-	-	-	17.9	20.1
5) 낙태는 해서는 안된다	45.3	56.9	52.1	75.8	73.3	50.0
6)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84.1	86.4	79.9	71.3	59.9
7)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	72.1	75.6	74.9	58.7	59.2	51.5

주.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중 공감/긍정 응답비율은 1. 매우 그렇다와 2.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 비율의 합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동성연애’, ‘낙태’, ‘이혼’, ‘혼전 성관계’ 등의 행위가 ‘항상 정당한지 또는 전혀 정당화 될 수 없는지’를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11.8%가 ‘정당하다’고 응답함. 이외에 ‘낙태’에 대해서는 10.6%, ‘이혼’에 대해서는 23.9%,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22.5%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28.2%가 ‘정당하다’고 응답함. 이외에 ‘낙태’에 대해서는 20.0%, ‘이혼’에 대해서는 37.7%,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42.2%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4.6%가 ‘정당하다’고 응답함. ‘낙태’에 대해서는 8.2%, ‘이혼’에 대해서는 13.6%,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13.8%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문항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정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다
동성연애	11.8	28.2	4.6	16.2
낙태	10.6	20.0	8.2	13.9
이혼	23.9	37.7	13.6	26.7
혼전 성관계	22.5	42.2	13.8	29.4

1) 1996년 조사에서 ‘부모 부양 의무’는 ‘자식들에게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있다’ 또는 ‘없다’ 응답으로만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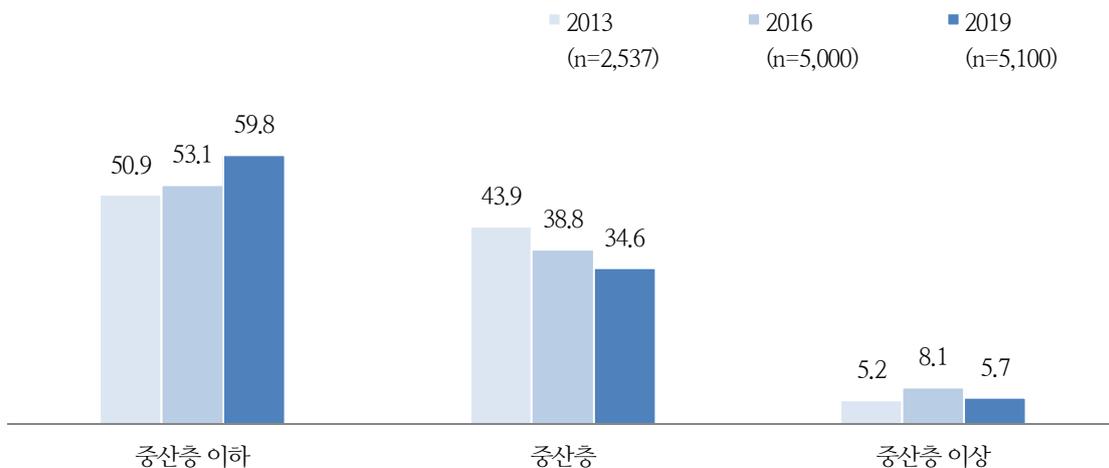
7) 가정 경제 수준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은 '중산층 이하'가 확산되는 추세

- 응답자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산층 이하'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34.6%, '중산층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5.7%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3년에 50.9%였으며, 2019년에는 8.9%p 상승하여 59.8%로 나타남.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3년에 43.9%였으며, 2019년에는 9.3%p 하락하여 34.6%로 나타남

【 그림 2-5 】 가정 경제 수준

(단위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을 6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중하’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7.3%). 다음으로는 ‘하상’(23.4%), ‘중상’(2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상상’의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0.6%)

(단위: %)

문항	2019년 사회조사 결과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	0.6	1.9	21.2	37.3	23.4	15.7

- 성균관 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주관적인 계층의식)’를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5점’ 구간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남(28.5%). 다음으로는 ‘4점’(20.1%), ‘6점’(1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최상층(10점)’에서 응답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0.4%)

(단위: %)

문항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최하층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최상층 10점
주관적인 계층의식	3.8	4.2	13.4	20.1	28.5	16.4	9.6	2.7	0.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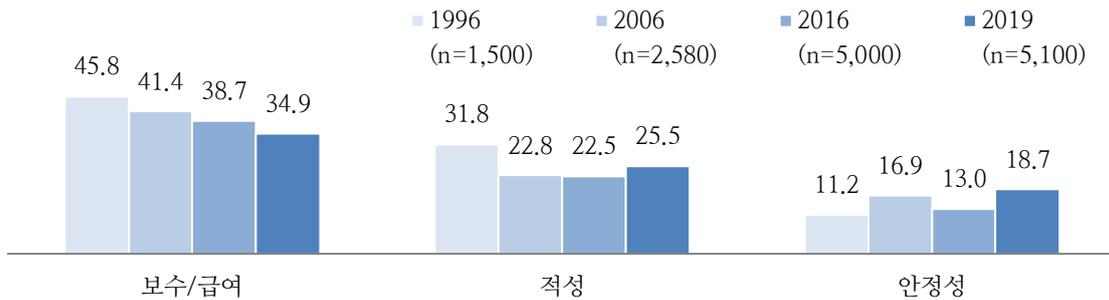
8)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

직업 선택 시, 여전히 '보수/급여'가 가장 중요(34.9%)

-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보수/급여'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적성'(25.5%), '안정성'(1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수/급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96년에는 45.8%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이보다 10.9%p 하락하여 34.9%로 나타남

【 그림 2-6 】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

(단위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수입'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8.8%). 다음으로는 '안정성'(25.6%), '적성/흥미'(1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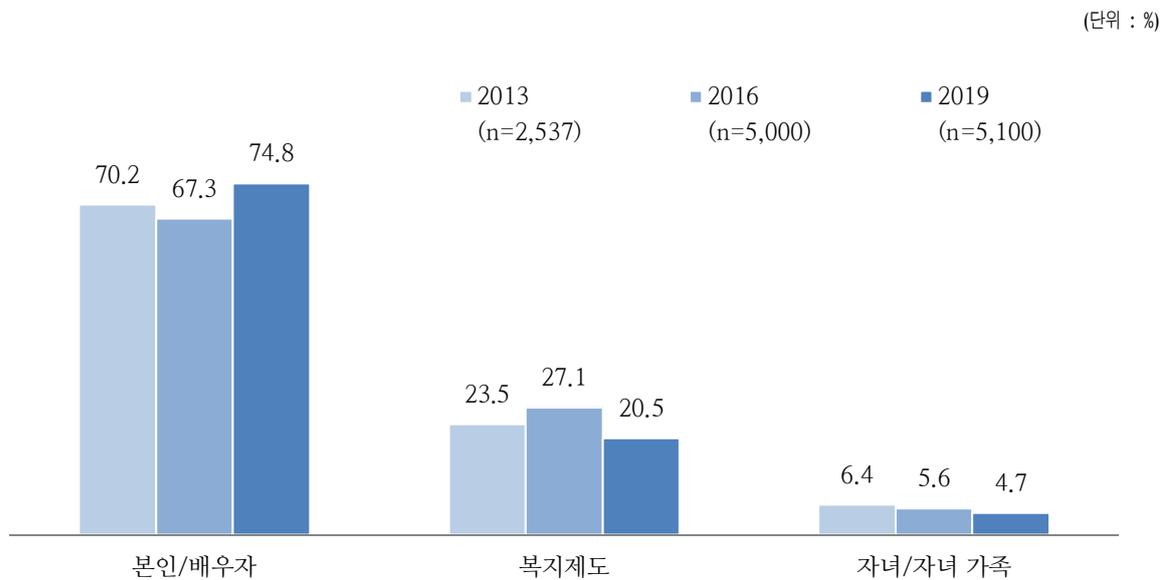
문항	2019 사회조사 결과		
	수입	안정성	적성/흥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38.8	25.6	16.1

9) 노후 부담

노후 생활 준비는 '스스로(본인/배우자)' 74.8%

- 노후 생활 부담이 누구에게 가장 커야 한다고 보는지 대해, '본인/배우자'라는 응답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복지제도'(20.5%), '자녀나 자녀의 가족'(4.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3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본인/배우자'라는 응답은 높아진 반면 (4.6%p ↑), '자녀/자녀 가족'이나 '복지제도'의 응답비율은 낮아졌음(각각 3.0%p ↓, 1.7%p ↓)

【 그림 2-7 】 노후 부담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2016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누가 최우선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정부’에 대한 응답비율은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가족, 친척 또는 친구’(24.1%), ‘비영리단체/자선단체/협동조합’(17.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정부’에 대한 응답비율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가족, 친척 또는 친구’(18.2%), ‘비영리단체/자선단체/협동조합’(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만의 경우 ‘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정부’(36.9%), ‘비영리단체/자선단체/협동조합’(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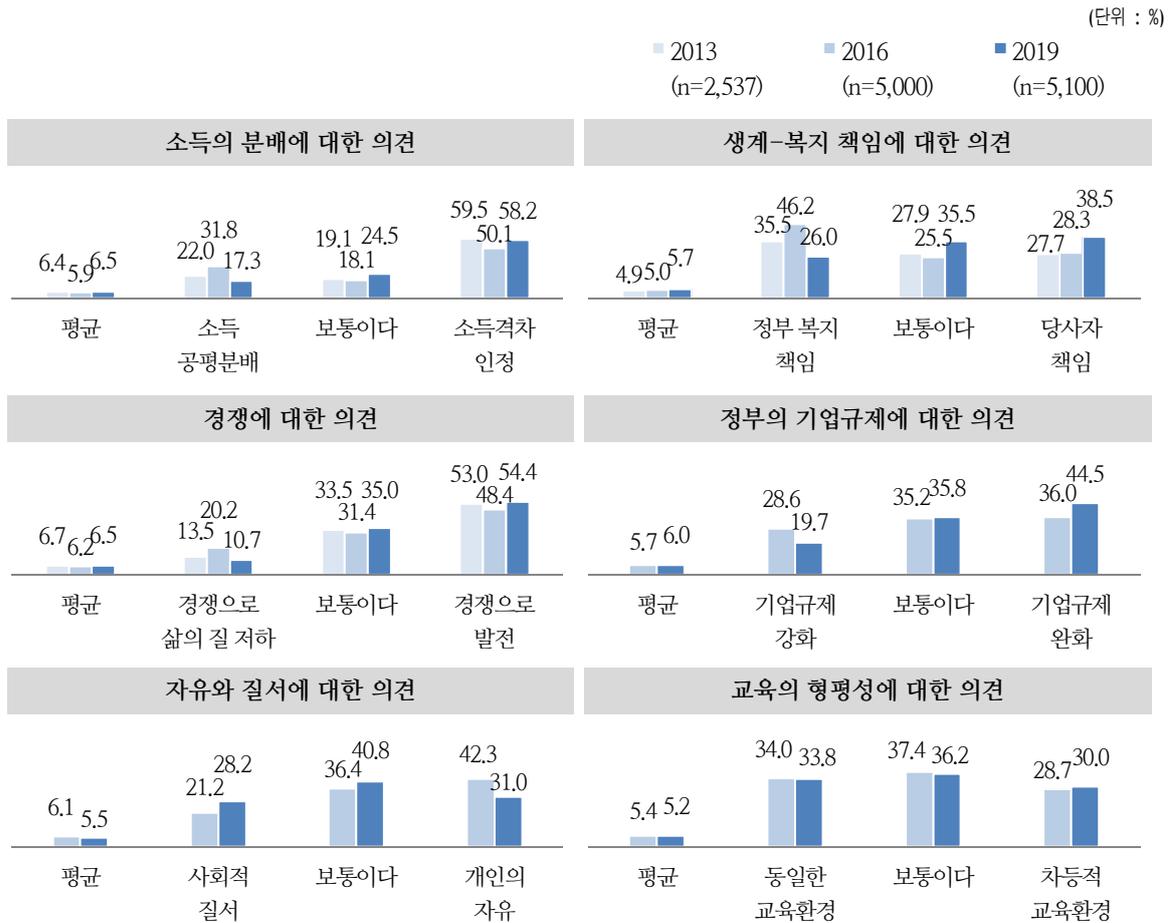
문항	2016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한국	일본	대만
정부	50.5	41.5	36.9
가족, 친척 또는 친구	24.1	18.2	40.2
비영리단체/자선단체 협동조합	17.1	5.8	15.2

10) 한국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중요한 편이나 교육에서는 입장이 팽팽

- 문항별로 보면, ‘소득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생계-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의견, ‘교육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에서는 양쪽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평균이 10점 만점의 중간점수인 5.5점에 근접)
- ‘소득격차’에 대한 의견을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2016년(5.9점) 보다 0.6점 오른 6.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임. 즉, 소득의 재분배 보다는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더 많은 상황
- ‘생계-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을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2013년(4.9점) 대비 1.8점, 2016년(5.0점) 대비 0.7점 높은 5.7점으로 나타남. ‘생계-복지의 책임 주체’에 대한 의견은 점수가 높을수록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임
- ‘경쟁’에 대한 의견을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2013년(6.7점) 대비 0.2점 낮으며, 2016년(6.2점) 대비 0.3 점 높은 6.5점으로 나타남. ‘경쟁’에 대한 의견은 점수가 높을수록 경쟁으로 인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입장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쟁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한다는 입장임
-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의견을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2016년(5.7점) 대비 0.3점 오른 6.0점으로 나타남.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의견은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임
-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의견을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2016년(6.1점) 대비 0.6점 감소한 5.5점으로 나타남.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추이의 경향은 비교적 사회적 질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2016년(5.4점) 대비 0.2점 감소한 5.2점으로 나타남. 항목별 응답을 보면 ‘보통’이 36.2%로 가장 우세하고, ‘똑같은 교육환경’이 33.8%, ‘특별한 교육환경’이 30.0% 으로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

【 그림 2-8 】 한국사회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노력하는 만큼 차이가 나와야 하는지’와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각자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소득이 공평해져야 한다’는 입장은 17.2%,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은 59.3%로 나타남(‘보통이다’는 23.5%)
 -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50.5%, ‘개인이 각자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18.8%로 나타남(‘보통이다’는 30.7%)

(단위: 점)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	a	보통이다	b
소득이 더 공평(a) VS. 노력하는 만큼 차이(b)	17.2	23.5	53.9
정부복지 책임(a) VS. 당사자 책임(b)	50.5	30.7	18.8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와야 하는지’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와 한다’의 응답비율은 58.7%,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23.5%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28.6%,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와한다’의 응답비율은 25.1%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52.7%,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나와한다’의 응답비율은 25.8%로 나타남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72.9%,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2.9%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61.7%,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2.8%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50.1%,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6.3%로 나타남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경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창조성을 높이는지 아니면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하는지’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경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창조성을 높인다’의 응답비율은 63.8%,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의 응답비율은 11.9%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경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창조성을 높인다’의 응답비율은 57.3%,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의 응답비율은 10.2%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경쟁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창조성을 높인다’의 응답비율은 64.3%, ‘경쟁은 인간의 사악함을 조장한다’의 응답비율은 9.2%로 나타남

(단위: %)

문항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a	b	a	b	a	b	a	b
소득 공평분배(a) VS. 소득격차 인정(b)	23.5	58.7	28.6	25.1	52.7	25.8	38.1	17.0
정부 복지책임(a) VS. 당사자 책임(b)	72.9	12.9	61.7	12.8	50.1	26.3	50.5	26.1
경쟁으로 열정과 창조성 증가(a) VS. 경쟁으로 인간의 사악함 증가(b)	63.8	11.9	57.3	10.2	64.3	9.2	59.7	16.3

1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 가장 갈등이 치열한 집단은 '진보와 보수'

- 2019년 최대의 집단 간 갈등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라고 하겠음.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91.8%). 다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85.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81.1%)' 등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에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을 처음으로 조사함('외국인 근로자'로 특정하지 않음). 그 결과,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인식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세대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는 2006년(81.0%) 대비 13.0%p 감소한 68.0%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노사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는 2006년(84.5%) 대비 6.8%p 더 감소한 77.7%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빈부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는 2006년(89.6%) 대비 10.7%p 감소한 78.9%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2006년 66.5%였는데 2013년에 2.9%p 증가하여 68.4%를 보임. 이후 2016년에는 13.0%p 급감한 55.4%p, 2019년에는 다시 6.3%p 증가하여 61.7%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에는 70.2%, 2013년에는 83.4%, 2016년에는 77.3%, 2019년에는 91.8%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06년에 78.2%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 87.2%로 나타나 최고점을 보이고, 2019년에는 81.1%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06년에는 83.3%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90.9%로 나타나 최고점을 보이고 2019년에는 85.3%로 나타남

【 표 2-17 】 집단 간 갈등에서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			
	2006년 (n=2,580)	2013년 (n=2,537)	2016년 (n=5,000)	2019년 (n=5,100)
진보 vs. 보수	70.2	83.4	77.3	91.8
정규직 vs. 비정규직	83.3	-	90.9	85.3
대기업 vs. 중소기업	78.2	-	87.2	81.1
부유층 vs. 서민층	89.6	89.7	85.4	78.9
기업자 vs. 근로자	84.5	85.2	79.7	77.7
기성세대 vs. 젊은세대	81.0	75.7	68.7	68.0
수도권 vs. 지방	66.5	68.4	55.4	61.7
남성 vs. 여성	53.5	46.5	43.1	54.9
한국인 vs. 외국인	-	-	-	49.7

주. 4점 척도(1. 갈등이 매우 크다, 2. 갈등이 큰 편이다, 3. 갈등이 작은 편이다, 4. 갈등이 매우 작다) 중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은 1. 갈등이 매우 크다는 2. 갈등이 큰 편이라는 응답비율의 합

■ 참고: 국내의 유사통계

○ 2009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노동자층과 중산층’,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경영자와 노동자’, ‘최하층과 최상층’ 등의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60.0%가 ‘노동자층과 중산층’의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음. 이외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는 86.8%,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에 대해서는 91.7%, ‘최상층과 최하층’의 갈등에 대해서는 84.0%가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음
- 일본의 경우 ‘노동자층과 중산층’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이 밖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는 29.2%,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에 대해서는 43.6%, ‘최상층과 최하층’의 갈등에 대해서는 37.7%가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음
- 중국의 경우 ‘노동자층과 중산층’의 갈등에 대해서는 37.6%,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는 62.1%,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에 대해서는 48.0%, ‘최상층과 최하층’의 갈등에 대해서는 56.0%가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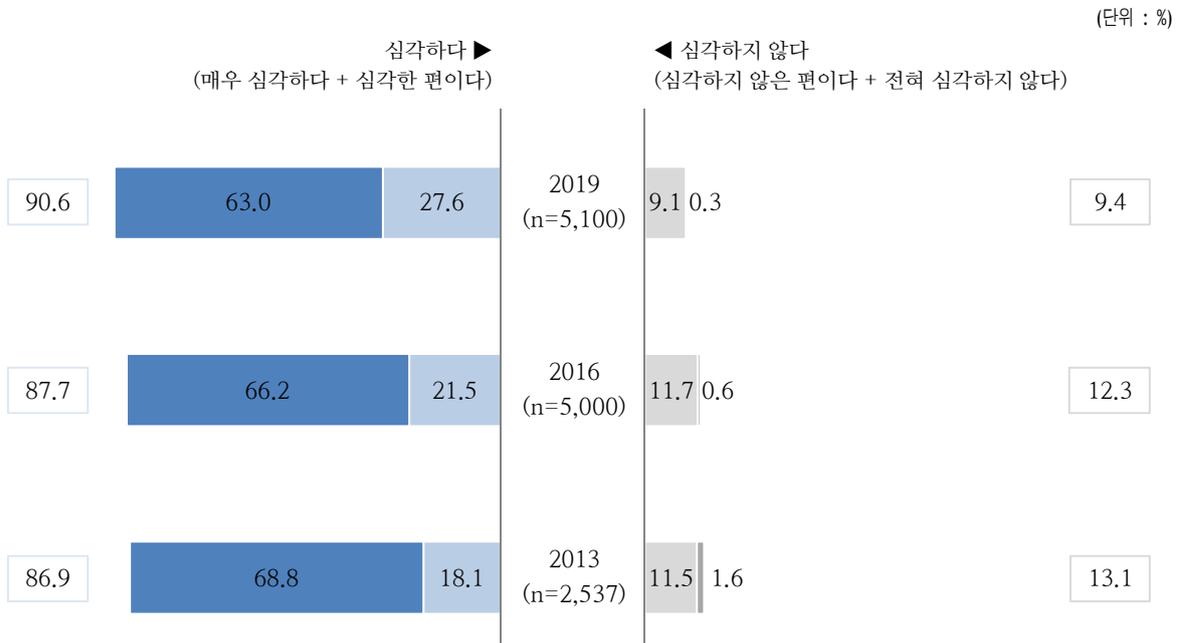
문항	2009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한국	일본	중국
	갈등이 심하다	갈등이 심하다	갈등이 심하다
노동자층과 중산층	60.0	-	37.6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86.8	29.2	62.1
경영자와 노동자	91.7	43.6	48.0
최상층과 최하층	84.0	37.7	56.0

12) 경제적 양극화 인식

10명 중 9명(90.6%)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9명 정도가 (90.6%) '심각하다(매우 27.6% + 심각한 편 63.0%)'고 응답함
- 2013년 이후 '심각하다'(매우 + 심각한 편)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3년에는 86.9%, 2016년에는 87.7%, 2019년에는 90.6%로 나타남

【 그림 2-9 】 경제적 양극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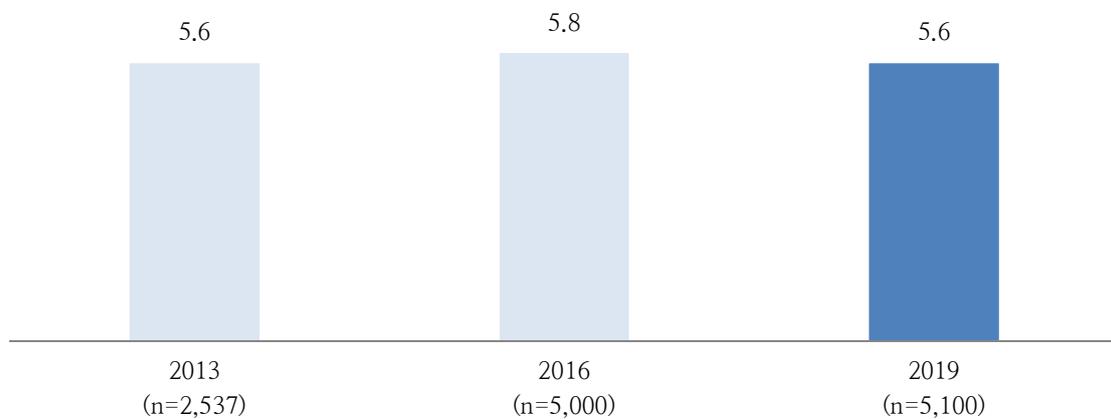
13) 우리 사회 신뢰수준

10명 중 3명(33.6%)만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다"

-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는지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6점으로 나타남. 항목별로 살펴보면, 10명 중 3명(33.6%) 정도만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보통'은 42.8%, '신뢰할 수 없다'는 23.7%임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은 2013년(5.6점)과 동일하며, 2016년(5.8점) 대비 0.2점 낮아진 상황임.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은 '중간'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일수록 1점에 가깝고, '매우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일수록 10점에 가까움)

【 그림 2-10 】 우리 사회 신뢰수준

(단위 : 점)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11점(0점~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37.1%가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믿을 수 있음’의 응답비율은 50.9%로 나타남. 반면, ‘믿을 수 없음’의 응답비율은 49.1%로 나타남

(단위: %)

(단위: %)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문항	믿을 수 있다	보통이다	믿을 수 없음	문항	믿을 수 있음	믿을 수 없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37.1	52.0	11.1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50.9	49.1

- 2014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2%,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4%,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2%로 나타남
 - 대만의 경우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31.2%,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은 67.7%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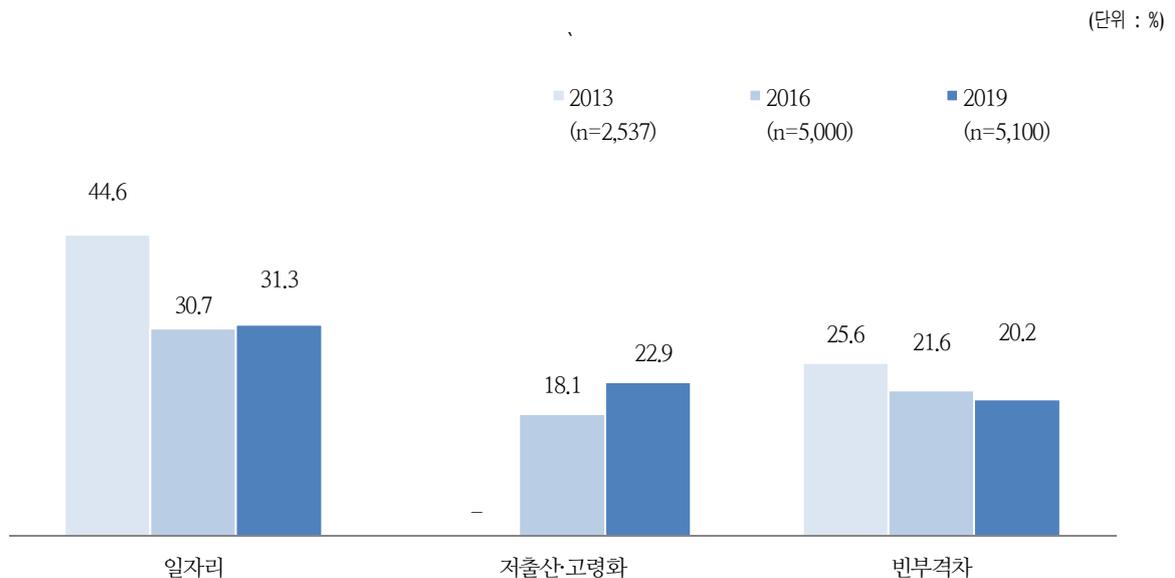
문항	2014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한국		일본		대만	
	신뢰 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신뢰 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신뢰 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50.2	49.8	30.4	59.2	31.2	67.7

14)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일자리', '저출산 노령화', '빈부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

-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일자리(31.3%)'로 나타남. 뒤를 이어 '저출산 고령화(22.9%)', '빈부격차(20.2%)', '정치개혁(8.8%)', '국가안보(대외)(5.3%)', '복지(3.6%)' 순이었음
- 2013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항목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2016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응답이 분산되어 나타남
- 2013년을 제외하고 본다면, 우리 사회의 당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일자리'의 경우 2016년에 비해 0.6%p가 소폭 증가하였고, '저출산 고령화'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8%p 증가하였음. 반면 '빈부격차'의 경우 1.4%p 감소함

【 그림 2-11 】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15)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한국 정신문화 '우수하다' 93.8%,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92.8%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이 '우수하다'고 느끼고 있음(93.3%)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한 자부심은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2008년에는 83.3%, 2013년에는 92.7%, 2016년에 소폭 감소하여 91.0%였다가 2019년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여 93.3%로 나타남
- 한국의 정신문화(충·효·예 및 정(情) 등)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85.3%가 우수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정신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남. 2008년 84.1%, 2013년 85.9%, 2016년 84.6%, 2019년 85.3%로 나타남
-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92.8%가 우수하다고 응답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2008년에는 53.6%, 2013년에는 81.5%,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78.7%였다가 2019년에는 14.1%p 상승한 92.8%로 나타남

【 표 2-21 】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응답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자부심을 느낀다'의 응답비율			
	2008년 (n=2,569)	2013년 (n=2,537)	2016년 (n=5,000)	2019년 (n=5,100)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 (한식, 한복, 한옥, 공예)	83.3	92.7	91.0	93.3
한국의 정신문화 (충·효·예 및 정(情) 등)	84.1	85.9	84.6	85.3
한국의 대중문화 (K-pop, 한국드라마 등)	53.6	81.5	78.7	92.8

주. 4점 척도(1. 매우 우수하다, 2. 대체로 우수하다, 3. 별로 우수하지 않다, 4. 전혀 우수하지 않다) 중 자부심을 느낀다의 응답비율은 1. 매우 우수하다와 2. 대체로 우수하다의 응답비율의 합

▣ 참고: 국내의 유사통계

- 2013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스포츠에서의 성취’와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운지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스포츠에서의 성취’에 대하여 91.0%,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에 대하여서는 72.2%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음
 - 일본의 경우 ‘스포츠에서의 성취’에 대하여 86.6%,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에 대하여서는 84.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음
 - 대만의 경우 ‘스포츠에서의 성취’에 대하여 86.2%,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에 대하여서는 71.5%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음

(단위: %)

문항	2013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한국	일본	대만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스포츠에서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	91.0	86.6	86.2
예술과 문학에서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	72.2	84.6	71.5

16) 한국/한국인의 정체성

한국/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한 자부심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추세

- 한국/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3.9%)이 ‘그렇다’고 응답함.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1996년의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2016년에 75.6%까지 낮아졌다가 2019년에 83.9%로 다시 회복한 모습임
-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1.9%)이 ‘그렇다’고 응답함.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1996년에는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81.9%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69.7%로 크게 낮아졌다가 2019년에 81.9%로 다시 회복한 모습임
-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83.3%)이 ‘그렇다’고 응답함.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1996년의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55.0%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는 77.5%, 2016년에는 76.8%, 2019년에는 83.3%로 나타남

【 표 2-23 】 한국/한국인의 정체성 응답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그렇다’의 응답비율			
	1996년 (n=1,521)	2006년 (n=2,580)	2016년 (n=5,000)	2019년 (n=5,100)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88.0	77.8	75.6	83.9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자부심	81.9	69.7	74.5	81.9
역사에 대한 자부심	55.0	77.5	76.8	83.3

주.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중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1. 매우 그렇다와 2.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의 합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4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이 3.0점으로 나타남. 80.4%가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19.6%가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함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지’를 2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남. 반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은 37.5%로 나타남

(단위: %)

(단위: %)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문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다	80.4	19.6	다시 태어난다면	59.0	37.5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자신의 국적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자신의 국적에 대해 자랑스럽다’의 응답비율은 88.9%, ‘자랑스럽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9.0%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자신의 국적에 대해 자랑스럽다’의 응답비율은 65.3%, ‘자랑스럽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26.0%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자신의 국적에 대해 자랑스럽다’의 응답비율은 78.6%, ‘자랑스럽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9.2%로 나타남

(단위: %)

문항	2010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지 않다
자신의 국적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88.9	9.0	65.3	26.0	78.6	9.2	88.5	8.7

- 2013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에서 ‘역사’에 대해 자랑스러운지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다’의 응답비율은 75.8%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다’의 응답비율은 58.8%로 나타남
 - 대만의 경우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다’의 응답비율은 69.4%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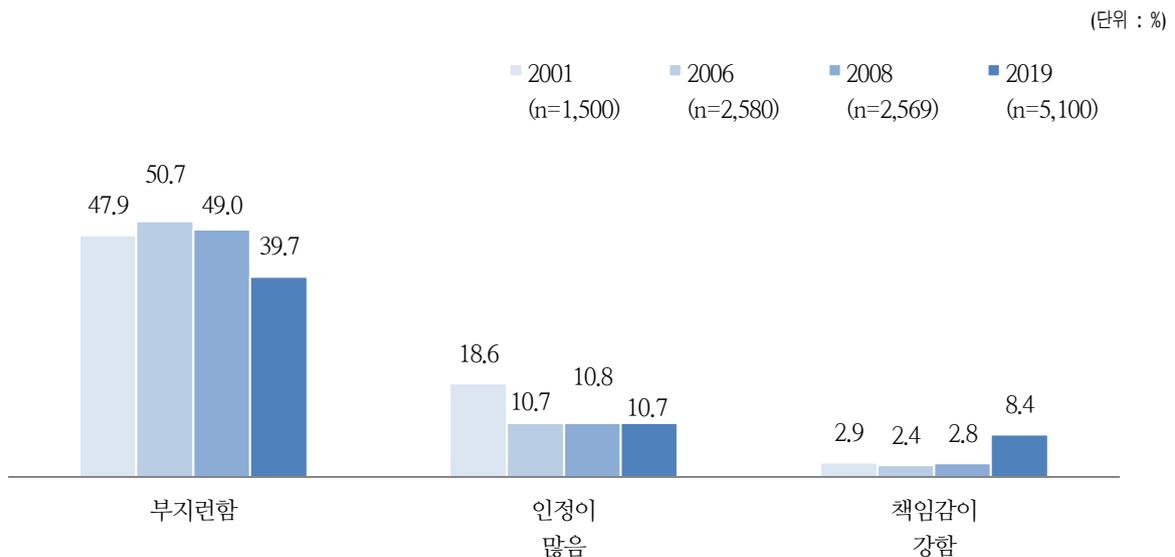
문항	2013년 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		
	한국	일본	대만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역사	75.8	58.8	69.4

17)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은 '부지런함(39.7%)'

-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부지런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39.7%). 뒤를 이어 '인정이 많음'(10.7%), '책임감이 강함'(8.4) 순으로 나타났음(4위 이하는 생략)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부지런함'의 응답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에는 47.9%로 나타났으며, 2006년 2.8%p 증가하여 50.7%로 나타남. 하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는 39.7%로 나타남
- 반면 '책임감이 강함'의 응답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에는 2.9%로 나타났지만, 점차 상승하여 2019년에는 8.4%로 나타남

【 그림 2-12 】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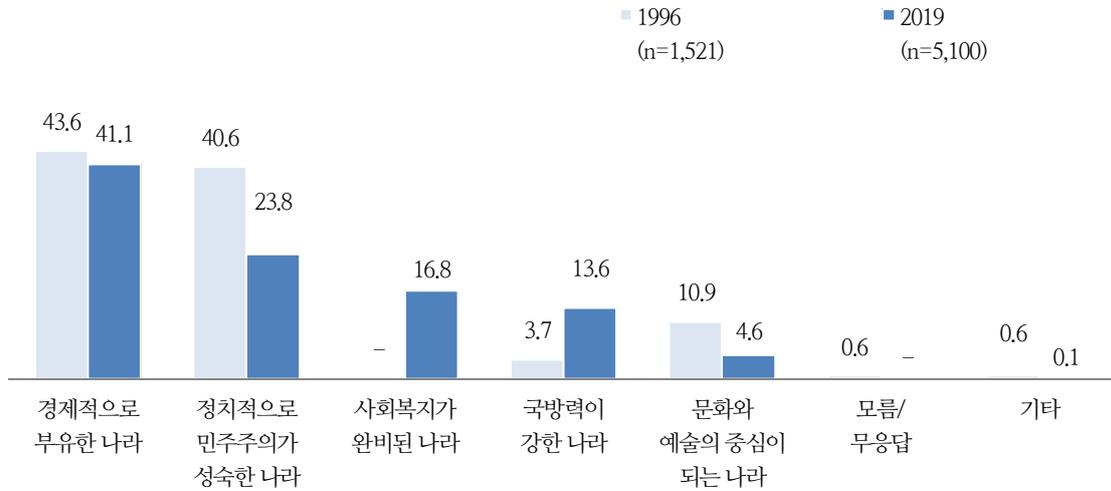
18)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41.1%)'

-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41.1%). 뒤를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3.8%),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16.8%) 순으로 나타났음(4위 이하는 생략)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1996년과 2019년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응답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의 경우 응답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9년에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함에 따라 응답이 분산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 그림 2-13 】 희망하는 우리나라

(단위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향후 10년간 우선적인 국가 목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고도 경제성장’(51.2%), ‘국방강화’(20.1%), ‘직장/지역공동체 참여 및 권한 증대’(19.6%), ‘환경보호’(9.1%)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문항	응답비율 (%)	문항	응답비율 (%)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41.1	고도의 경제성장	51.2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23.8	국방강화	20.1
사회복지가完비된 나라	16.8	직장/지역공동체 참여 및 권한 증대	19.6
국방력이 강한 나라	13.6	환경보호	9.1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향후 10년간 이루어야 할 국가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고도 경제성장’의 응답비율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직장과 사회에서의 참여증대’(28.7%),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일’(14.4%), ‘국방강화’(8.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본의 경우 ‘고도의 경제성장’(56.2%)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직장과 사회에서의 참여증대’(17.6%),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일’(11.4%), ‘국방강화’(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경우 ‘고도의 경제성장’(47.2%)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뒤를 이어 ‘국방강화’(22.8%),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일’(12.3%), ‘직장과 사회에서의 참여증대’(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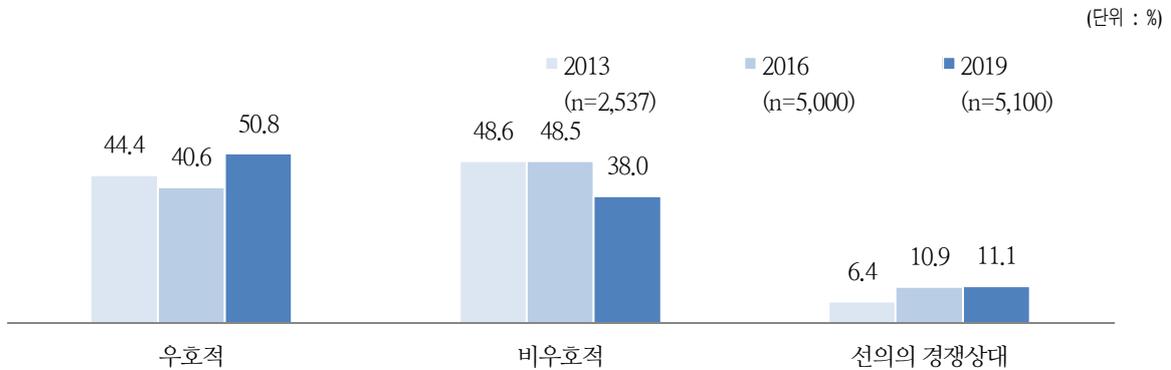
문항	World Value Survey 6th Wave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고도의 경제성장	47.2	56.2	47.2	60.2
직장과 사회에서의 참여증대	28.7	17.6	7.9	17.3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일	14.4	11.4	12.3	6.9
국방강화	8.7	6.8	22.8	13.4

19) 북한에 대한 인식

한국인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우호적'

- 북한/통일 분야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 절반이 우호적인 관계로 인식함(50.8%)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3년에는 '우호적' 응답이 44.4%, 2016년에는 40.6%, 2019년에는 50.8%로 상승함. '비우호적' 응답비율은 2013과 2016년에 48% 수준으로 비슷하였고, 2019년에 10.5%p 낮아진 38.0%로 나타남

【 그림 2-14 】 북한에 대한 인식



주. 우호적 =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다; 선의의 경쟁상대 = 우리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비우호적 =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제대상이다 +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4.3%). 다음으로는 '경계대상'(28.6%), '지원대상'(16.7%), '적대대상'(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	응답비율	문항	응답비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	88	지원대상	16.7
우리과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	420	협력대상	44.3
선의의 경쟁상대	11.1	-	-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제대상	15.7	경계대상	28.6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	22.3	적대대상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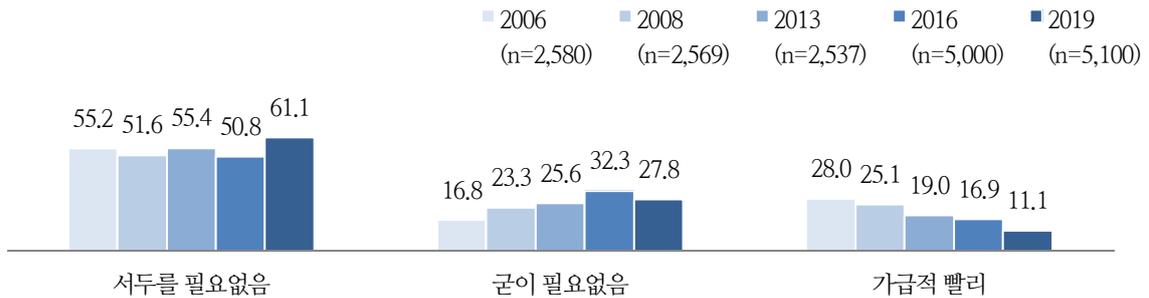
20) 통일 시기

통일은 '서두를 필요 없음'

- 통일 시기를 묻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60.1%)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임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06년의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8.0%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9년에 11.1%로 낮아짐
-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16년 50.8%에서 10.3%p 상승한 61.1%로 나타남

【 그림 2-15 】 통일 시기

(단위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남북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은 73.6%,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5.2%로 나타남

(단위: %)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문항	응답비율	문항	응답비율
가급적 빨리	11.1	매우필요하다	32.3
서두를 필요 없음	61.1	다소필요하다	41.3
-	-	별로 필요하지 않다	20.9
굳이 필요 없음	27.8	전혀 필요하지 않다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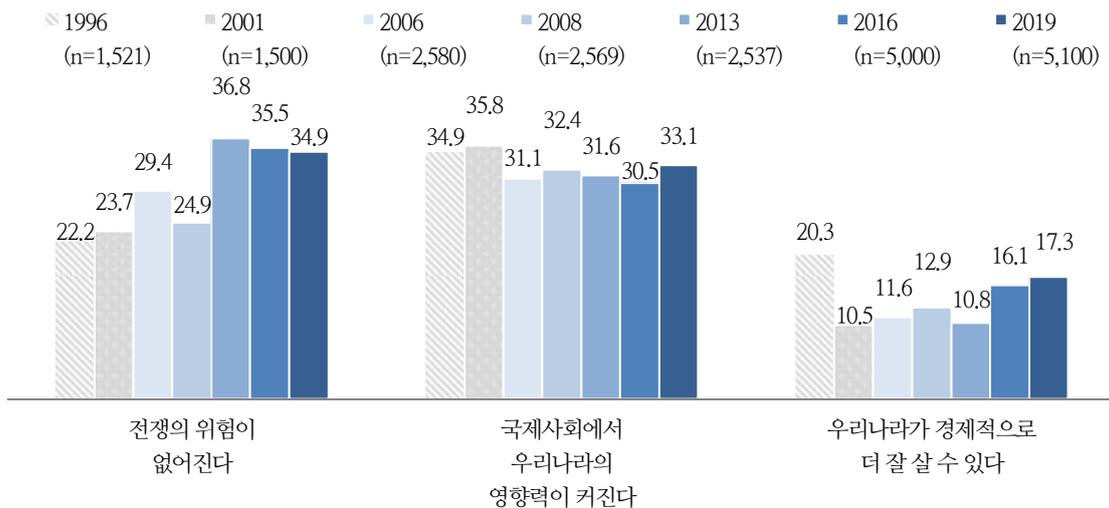
21)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통일 이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34.9%)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고 응답함. 뒤를 이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남(4위 이하는 생략)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의 응답비율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1996년에는 22.2%, 2013년 36.8%로 최고점을 보인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34.9%로 나타남
- 한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의 응답비율은 점차 감소하다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1996년에는 34.9%였지만, 2016년에는 30.5%를 보이고 올해 2019년 들어 2.6%p 반등하여 33.1%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의 응답비율은 2001년에 급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96년에 20.3%로 나타났지만, 2001년에 10.5%로 급락하였고 이후 점차 반등하여 2019년에는 17.3%로 나타남

【 그림 2-16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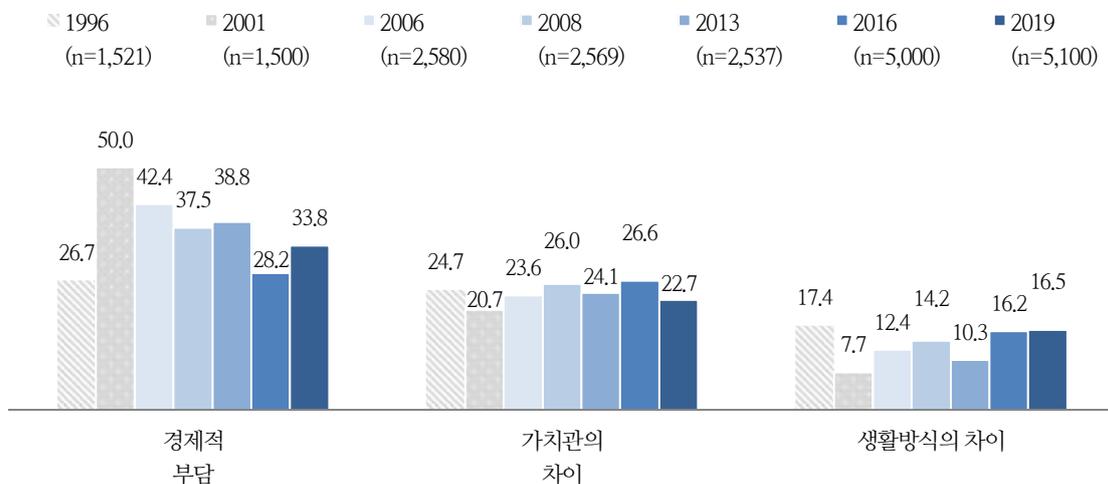
22)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통일 이후 발생할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가장 큰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부담'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3.8%). 뒤를 이어 '가치관의 차이'(22.7%), '생활방식의 차이'(16.5%) 순으로 나타남(4위 이하는 생략)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의 응답비율은 한차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가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1996년 26.7%에서 2001년 50.0%로 23.3%p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9년에는 33.8%로 나타남
- '가치관의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가치관의 차이'는 1996년 24.7%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22.7%로 나타남. '생활방식의 차이'도 1996년에는 17.4%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16.5%로 나타남

【 그림 2-17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단위 : %)



2. 신규 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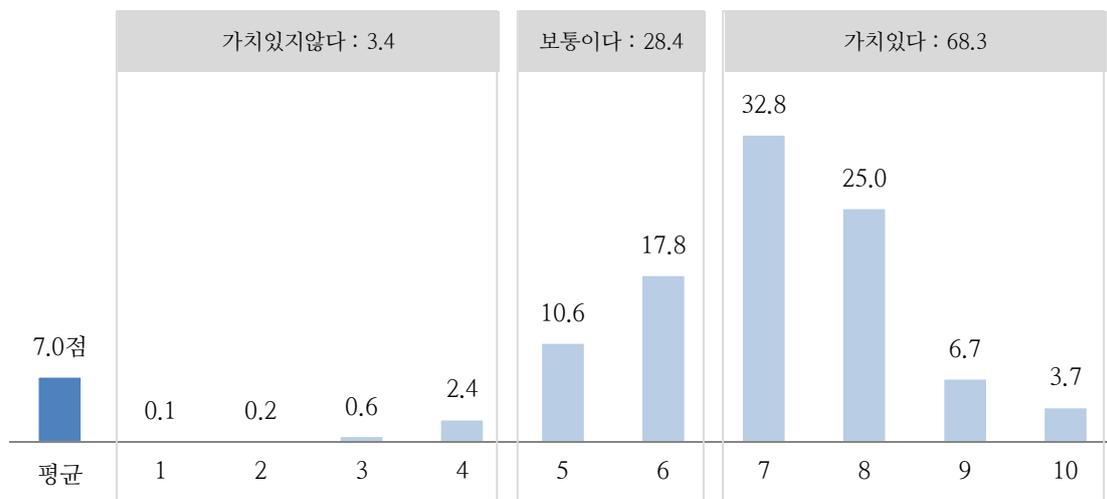
1) 하는 일의 가치

우리나라 국민의 68.3%는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

-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자율성’을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문항을 신규로 조사하게 되었음
-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만점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은 7.0점**으로 ‘중상’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타남
- 구간으로 살펴보면, ‘가치 있다(7~10점)’의 응답비율이 **68.3%**로 나타남

【 그림 2-18 】 하는 일의 가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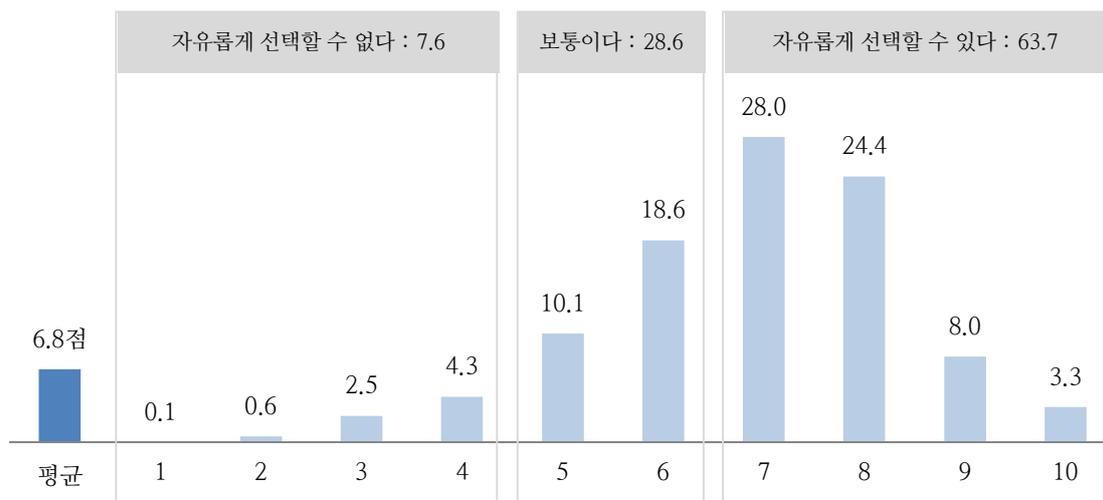
2)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가능하다”, 10점 만점에 6.8점으로 ‘중상’

- 앞서 언급한 행복 측정의 중요 요소로서 ‘자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자신이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추가하였음
- 10점 만점으로 ‘자신이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은 6.8점으로 ‘중상’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였음
- 구간별로 살펴보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의 응답이 63.7%로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약 6명은 ‘자신의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19 】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단위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과 자유스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거의 자유선택이 없는 운명적이라고 느끼는지’를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자유선택이 많다’의 응답비율이 55.1%로 나타남.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은 30.0%, ‘선택이 거의 없다’의 응답비율은 14.7%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9.2%). 뒤를 이어 ‘자유로운 선택이 많다’(34.6%), ‘선택이 거의 없다’(2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자유로운 선택이 많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64.6%). 뒤를 이어 ‘보통이다’(20.9%), ‘선택이 거의 없다’(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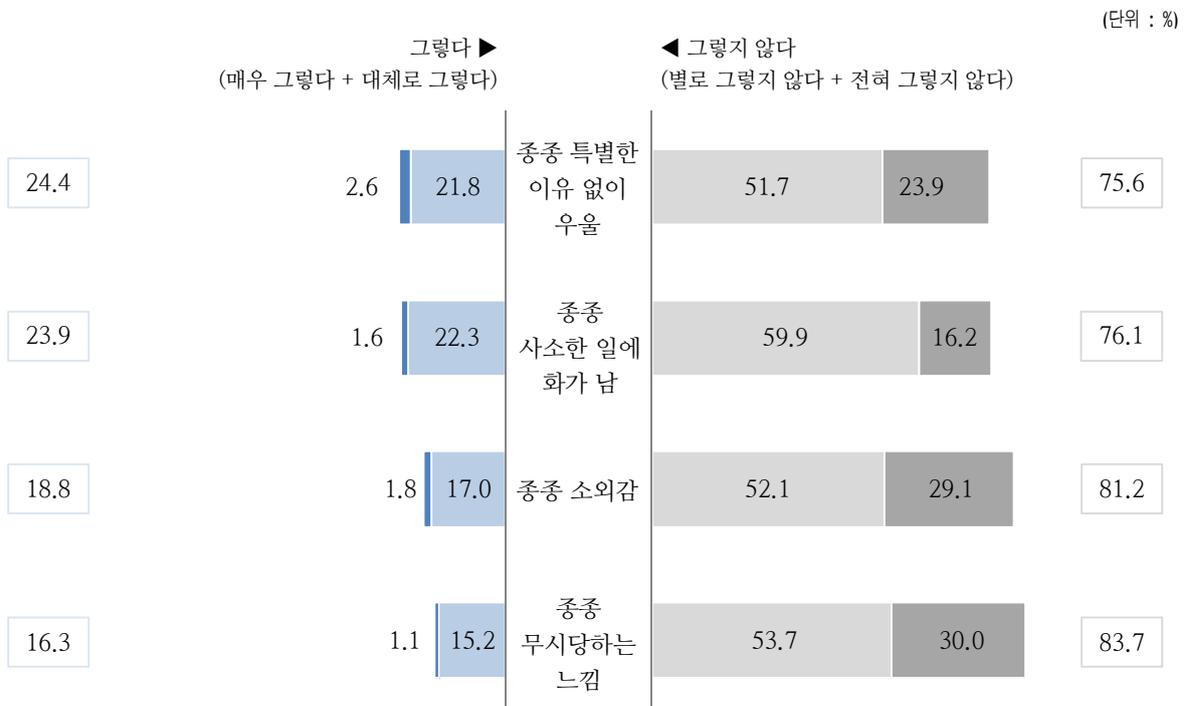
문항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통제력과 자유스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느끼는지	55.1	34.6	64.6	62.5

3) 부정적 감정

한국인의 약 20%가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낌

- '화, 우울, 답답함 등의 부정적 감정을 종종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의 응답비율은 전반적으로 20% 전후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는 응답이 24.4%,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는 응답이 23.9%,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가 18.8%,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가 16.3%로 나타남

【 그림 2-20 】 부정적 감정



주. 사소한 일에 화가 남 = 나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 = 나는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종종 소외감 = 나는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종종 무시당하는 느낌 = 나는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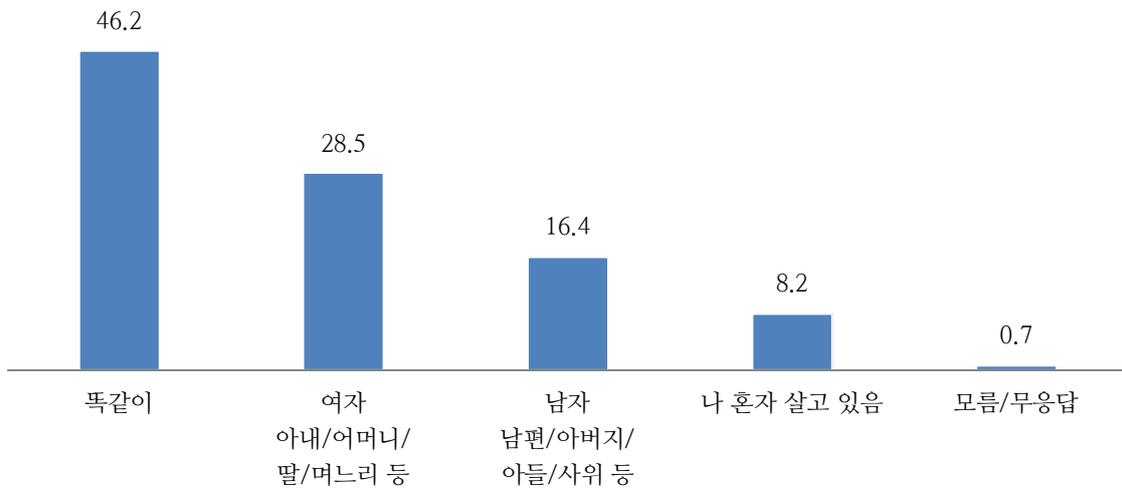
4)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46.2%가 집안일의 의사결정권은 '남녀 똑같이'

- 전기 조사에서는 집안일을 세세하게 분리하여 살펴보았지만,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어 분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어 2019년 조사에서는 '의사결정권'으로 통합하여 조사함
- '다양한 집안일에 대해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본 결과, '똑같이'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6.2%). 뒤를 이어, '여자(28.5%)', '남자(16.4%)' 등 순으로 나타남
- 전기 조사와 측정 문항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치의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는 불가하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반적인 경향(똑같이-여성-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응답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남

【 그림 2-21 】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단위 : %)



※ 참고: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1996, 2006, 2016),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구 분	아버지/남편			어머니/아내			똑같이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생활비	16.6	12.9	9.6	72.1	59.0	67.2	11.2	28.0	23.2
이사	40.9	18.1	16.5	25.4	23.9	31.8	33.2	58.0	51.8
자녀교육	15.6	6.7	6.1	56.9	41.4	55.7	27.2	51.9	38.2
행사/모임	35.7	16.1	11.3	32.1	21.8	35.8	32.0	62.0	52.9
부모봉양	37.0	17.3	12.2	27.3	14.6	28.8	34.2	68.0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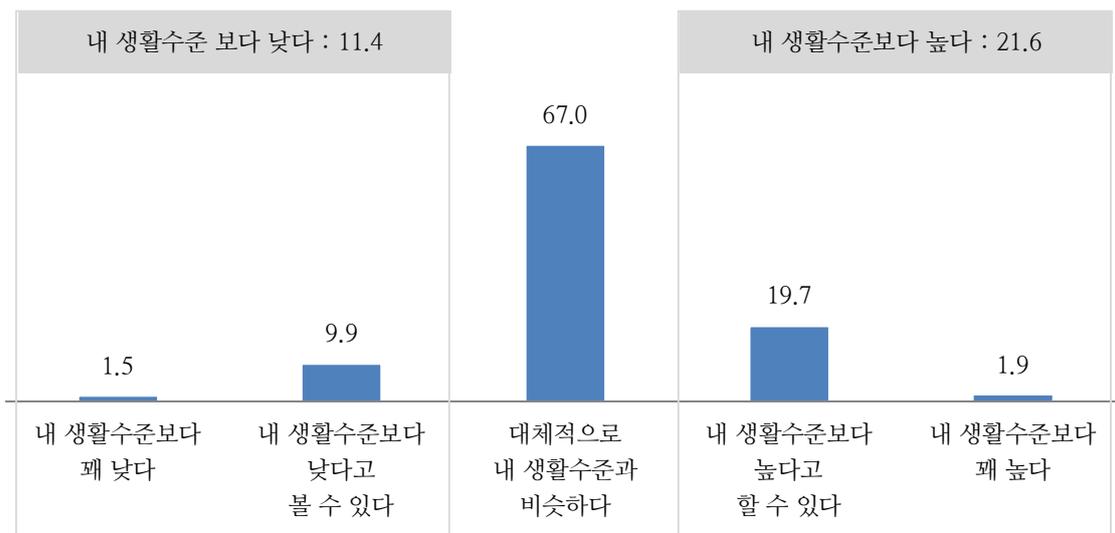
5)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대체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 67.0%

-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의 생활수준보다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의 응답비율은 21.6%로 나타났으며(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19.7% + 내 생활수준보다 꽤 높다 1.9%), ‘내 생활수준 보다 낮다’의 응답비율은 11.4%로 나타남(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9.9% + 내 생활수준보다 꽤 낮다 1.5%)

【 그림 2-22 】 주변과 자신의 경제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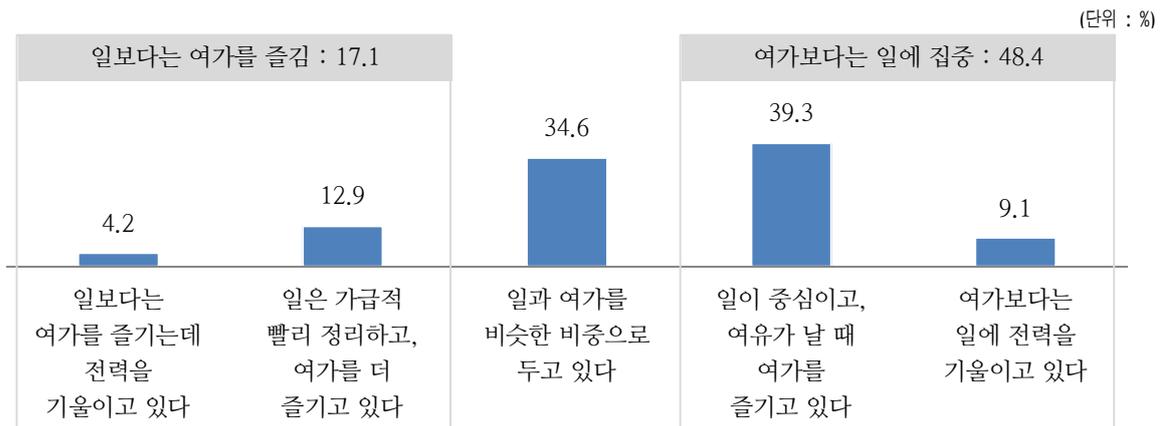


6) 일과 여가

여가에 더 비중 두는 사람은 17.1%, 일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은 48.4%

- 최근 '워라벨(work-life valance)'이 이슈로 부각된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어떤 비중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를 신규로 파악하여 보았음
- 그 결과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긴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비슷한 비중이다'는 응답이 34.6%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보다는 여가를 즐김'은 17.1%(일보다 여가에 전력 4.2% + 일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김 12.9%),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은 48.4%(일이 중심이고 여유 날 때 여가를 즐김 39.3% + 여가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임 9.1%)로, 응답자 절반이 여가보다는 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임

【 그림 2-23 】 일과 여가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둘 다 비슷하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4.2%). 다음으로는 '일을 우선시 한다'(42.1%),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1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 (단위 : %)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2019년 사회조사 결과		
일보다는 여가를 즐김	일과 여가를 비슷하게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	가정생활을 우선	둘 다 비슷하게	일을 우선
17.1	34.6	48.4	13.7	44.2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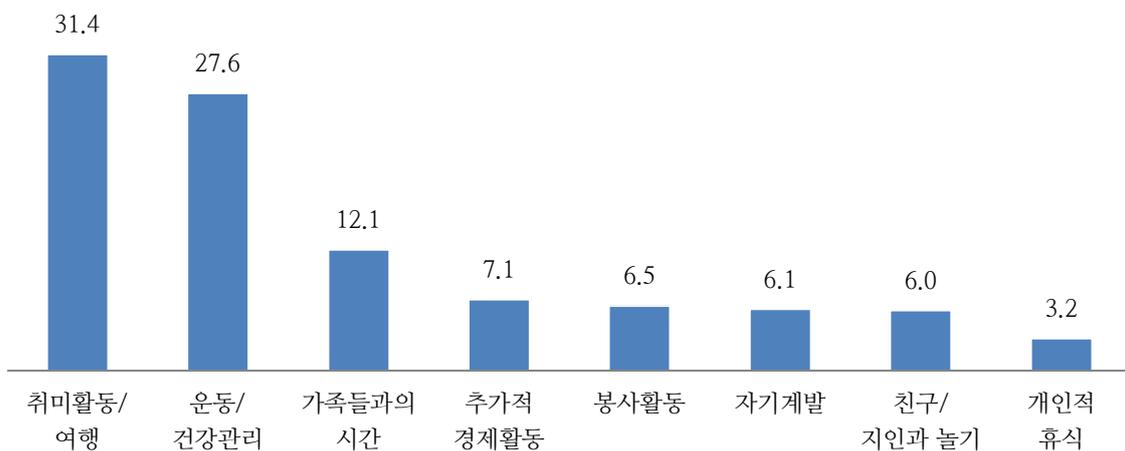
7)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취미활동, 여행 등의 여가활동'

-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을 살펴본 결과,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1.4%)
- 뒤를 이어,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27.6%),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대화, 놀기 등)'(12.1%) 순으로 나타남(4위 이하 생략)

【 그림 2-24 】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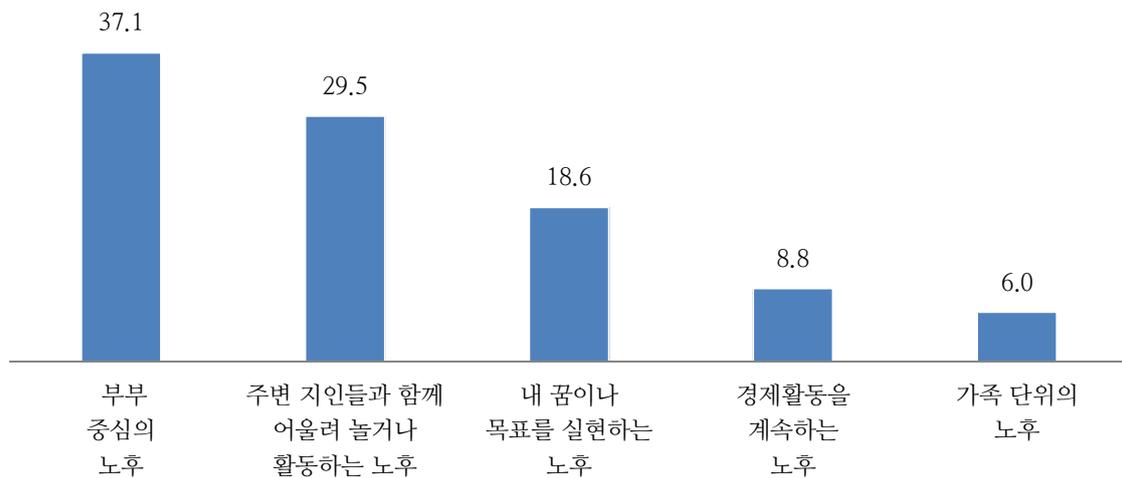
8) 노후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선호하는 노후생활 방식은 '부부 중심의 노후' 37.1%

-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살펴본 결과,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중심으로 노후를 보낼 것이다'(37.1%)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뒤를 이어 '주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를 보낼 것이다'(29.5%), '공부나 취미/봉사활동 등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노후를 보낼 것이다'(18.6%) 순으로 나타남(4위 이하 생략)

【 그림 2-25 】 노후 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단위 : %)



9)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대부분의 문제 발생 시 '가족'을 최우선을 찾음

-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후 가족, 연인, 친구, 이웃, 전문가 등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물음. 그 결과 대부분의 문제 발생 시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찾았으며 이어 친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친구'는 감정적·심리적 문제에서 가족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대상이 되었음
- 과거 조사에서는 '고민'을 세분화 하지 않았음. 그러나 현대인들의 고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 요청 대상도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2019년 조사는 세분화하였음. 앞선 조사들은 '가족/친척'이라고 묶었지만, 올해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은 '가족'을 염두에 두고 응답했을 것으로 추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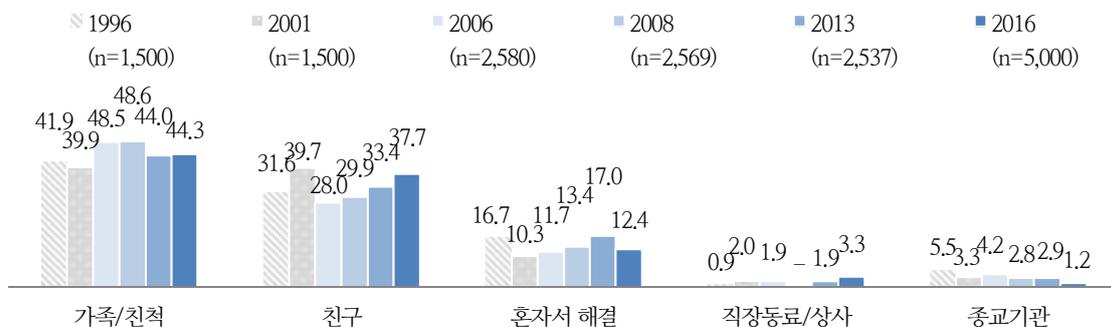
【 표 2-33 】 문제 유형별 도움 요청 대상(2019)

(단위 : %)

구 분	가족	친구	전문가 또는 전문가관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음
감정적·심리적 문제	35.0	34.6	7.3	6.2
건강 문제	48.1	4.9	31.5	2.9
가사 및 돌봄 문제	68.9	3.5	2.9	4.9
금전적 문제	68.4	8.4	4.7	5.3
긴급 혹은 재해 상황	36.9	3.3	13.8	2.8

※ 참고: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조사(1996 ~ 2016), '고민거리가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 참고: 국내의 유사통계

○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집안일, 큰돈을 빌리는 일, 낙심하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일’을 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6%였으며,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수’의 평균은 2.3명으로 나타남
-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1.4%,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수’의 평균은 2.2명으로 나타남
-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수’의 평균은 2.9명으로 나타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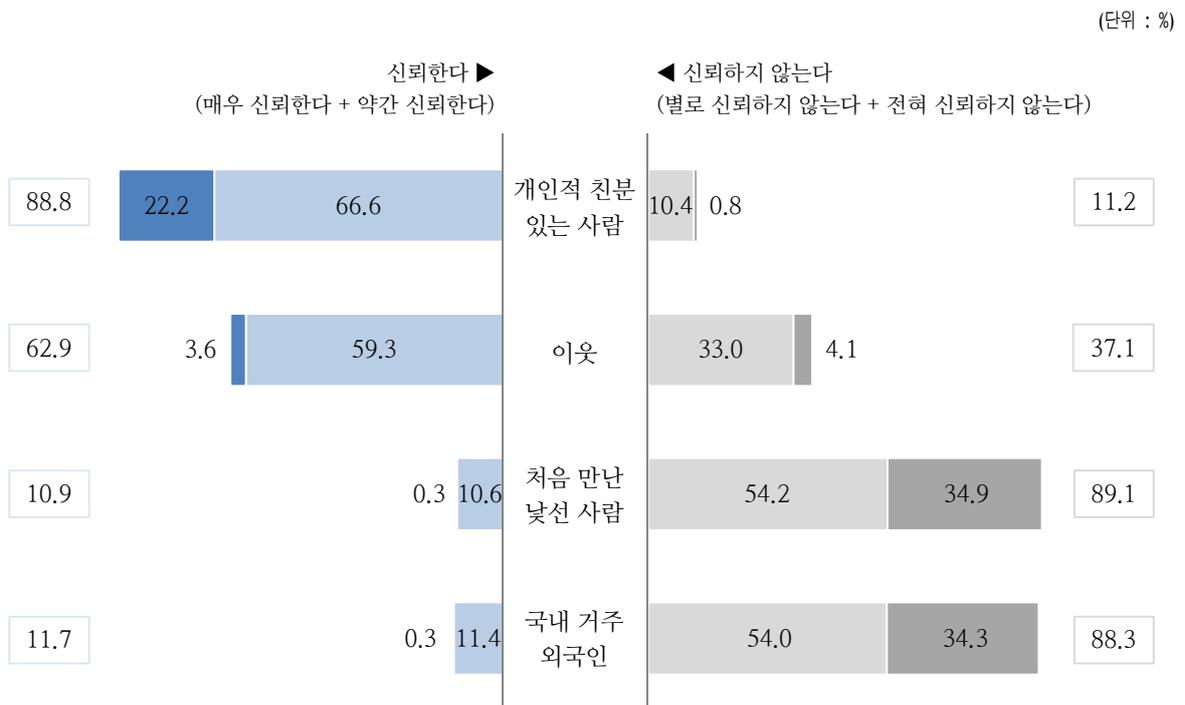
문항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도움 받을 사람 있음	사람 수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79.6	(23)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51.4	(22)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83.3	(29)

10)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한국인 10명 중 약 9명(88.8%),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신뢰해'

- 최근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문항을 추가하였음
-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88.8%)
- 뒤이어 '이웃'(62.9%), '국내 거주 외국인'(11.7%), '처음 만난 낯선 사람'(10.9%)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26 】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주. 개인적 친분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이웃’,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 할 수 있는지’를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이웃’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2.2%로 나타남. 그 밖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80.7%,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19.0%,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31.5%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이웃’에 대해서는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이 56.1%로 나타남. 그 밖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81.0%,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8.8%,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13.6%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이웃’에 대해서는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이 79.0%로 나타남. 그 밖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71.9%,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10.9%,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8.8%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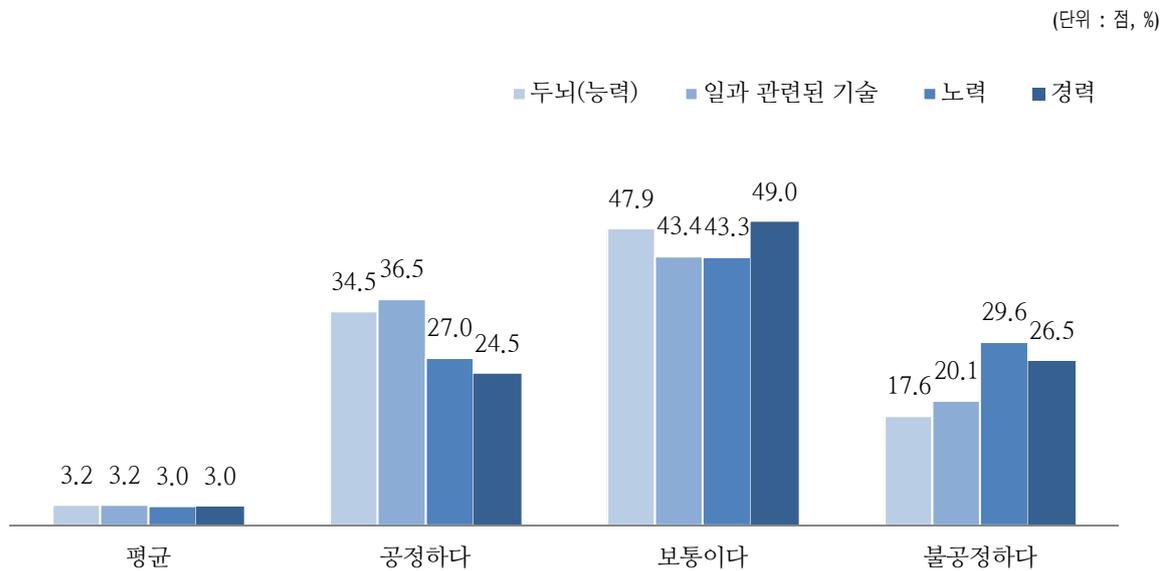
문항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신뢰한다	신뢰한다	신뢰한다	신뢰한다
이웃	72.2	56.1	79.0	70.9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80.7	81.0	71.9	75.0
처음 만난 사람	19.0	8.8	10.9	22.5
다른 나라 사람	31.5	13.6	8.8	34.1

11)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가진 것에 대해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 49.0%가 '보통'

- 공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상승으로 인해 신규로 문항을 추가하였음
- 4개의 항목별로 '한국사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2-27 】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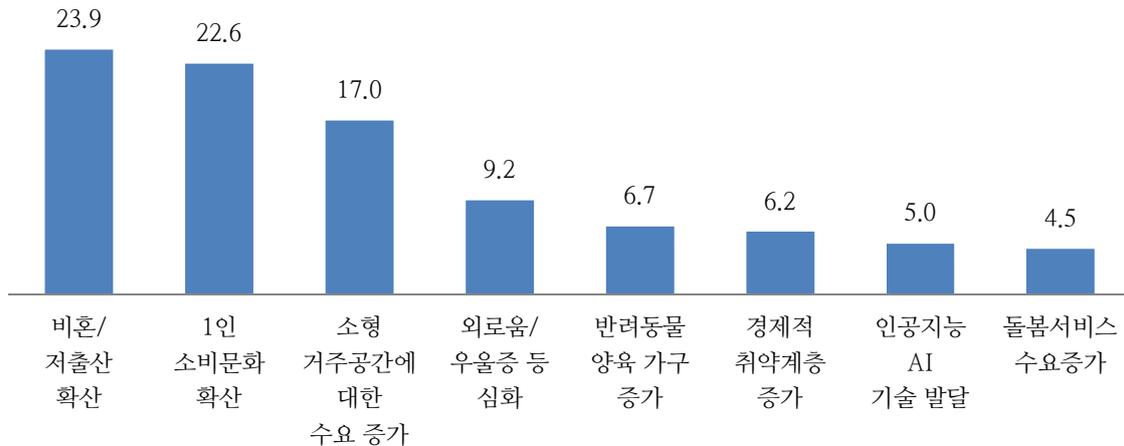
12)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비혼/저출산 확산 현상 심화 될 것' 23.9%, 1인 소비문화 확산 22.6%

- 소득증가 등의 요인, 자유로운 생활 추구 가치관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에 새로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함
- 그 결과,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23.9%)'였음. 뒤를 이어 '혼밥,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22.6%)', '소형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2-28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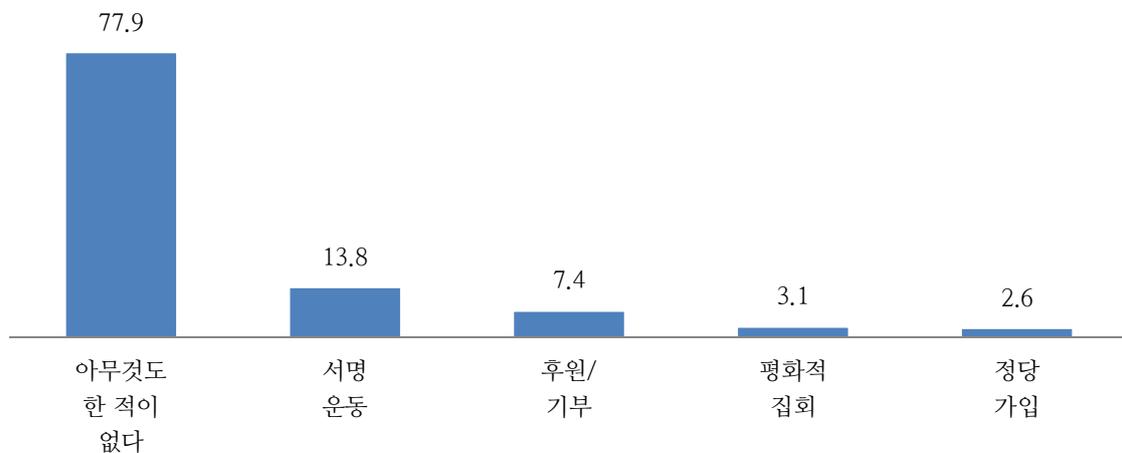
13)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투표를 제외한 정치참여 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서명운동' 13.8%

-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참여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신규 문항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한 적이 있는 행위를 제시된 보기 중에서 **모두 고르게** 함. 그 결과,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뒤를 이어 '서명운동'(13.8%), '후원/기부'(7.4%), '평화적 집회'(3.1%), '정당가입'(2.6%)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기로는 '진정/청원', '평화적 집회', '시위', '서명운동', '후원/기부', '언론투고', '관련 시민단체 등 가입', '공청회 방청단', '공론화조사 시민참여단', '기타(직접 기입)',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등이 제시되었으며, '투표'는 제외되었음

【 그림 2-29 】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단위 : %)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정치참여활동’을 복수선택으로 살펴본 결과,

- 한국의 경우 ‘탄원서 진정서에 서명’에 대해서 26.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외에도 ‘평화적 시위에 참여’에 대한 ‘경험 있음’의 응답비율은 9.5%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였으며,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였음
- 중국의 경우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였으며, ‘평화적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였음

(단위: %)

문항	2010년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일본			중국			참가국 전체		
	있음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할 수 있음	없음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	26.4	42.3	30.3	28.0	35.8	19.2	4.5	37.7	53.4	17.9	27.6	49.0
평화적 시위에 참여	9.5	56.3	32.6	3.6	31.0	41.4	1.7	28.7	65.1	12.5	31.0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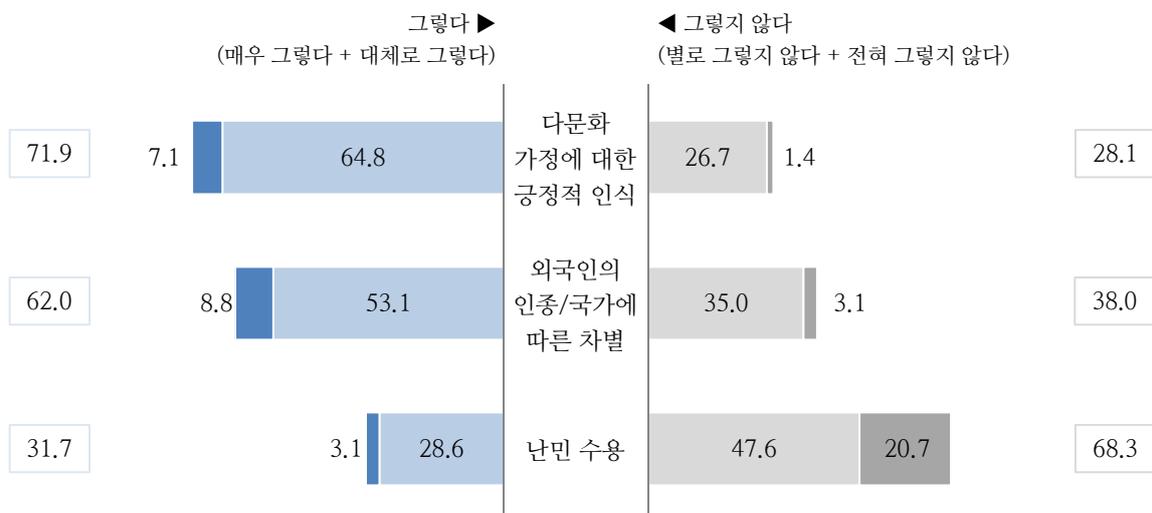
14)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71.9%, 난민 수용 찬성은 31.7%

- 세계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 및 외국인을 접하는 경우는 점차 많아지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봄
-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 10명 중 7명(71.9%)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우리 사회가 같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인종과 국가에 따라 차별하는지' 살펴본 결과,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62.0%). 반면, '난민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0명 중 3명(31.7%)만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그림 2-30 】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단위 : %)



주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외국인의 인종/국가에 대한 차별 = 우리 사회는 같은 외국인이라도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난민 수용 =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

■ 참고: 국내외 유사통계

○ 2018년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 Social Survey, EASS)에서 세계화 및 다문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와 관련하여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감소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감소하기를 바람’의 응답비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변화없기를 바람’(36.9%), ‘증가하기를 바람’(17.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에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이 증가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감소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변화없기를 바람’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1.9%). 다음으로는 ‘감소하기를 바람’(31.7%), ‘증가하기를 바람’(2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

문항	2018 동아시아 사회조사		
	증가 바람	변화없기를 바람	감소 바람
외국인 노동자	17.2	36.9	43.6
외국인 결혼이주 여성	21.5	41.9	31.7

○ 2018년 동아시아 사회조사(East Asia Social Survey, EASS)에서 ‘일본인, 대만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미국/캐나다인, 유럽인 등을 나의 직장동료/동네이웃/가까운 친척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국인에게 ‘예/아니오’ 질문으로 살펴본 결과

-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의 응답비율은 ‘미국/캐나다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5.0%), ‘중국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75.8%)
-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의 응답비율은 ‘미국/캐나다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6.9%), ‘중국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77.9%)
- ‘가까운 친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의 응답비율은 ‘미국/캐나다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5.5%), ‘중국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68.3%)

(단위: %)

문항	2018 동아시아 사회조사					
	미국/캐나다인	유럽인	일본인	대만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
직장동료로 수용	85.0	83.6	83.0	82.1	80.5	75.8
동네이웃으로 수용	86.9	86.4	86.4	86.4	82.7	77.9
가까운 친척으로 수용	75.5	74.8	73.3	72.9	69.9	68.3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1. 개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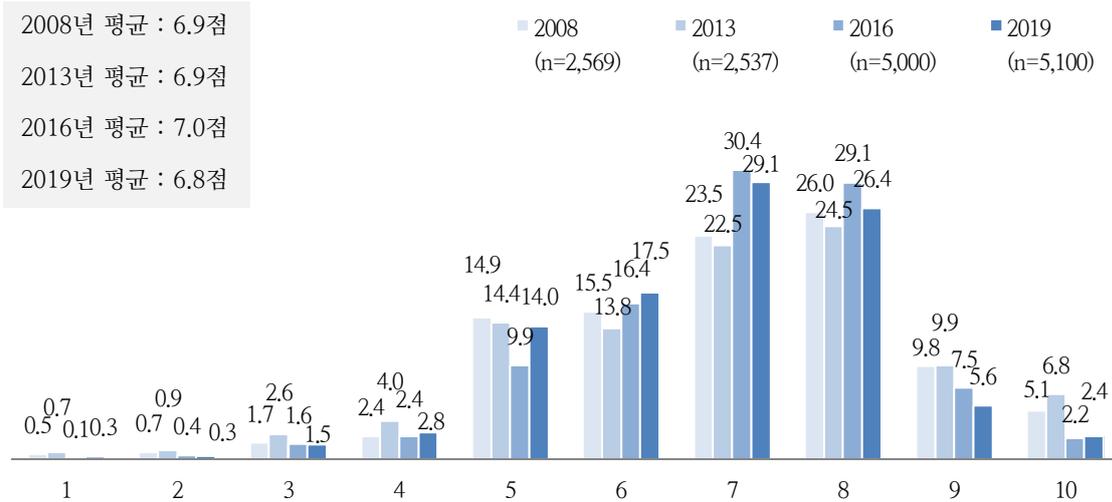
1) 전반적 행복도

-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10점일수록 행복하다는 의미)로 물어본 결과, **평균은 6.8점**으로 나타나, '중상' 수준을 보임
- 과거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8년에는 6.9점, 2013년에는 6.9점, 2016년에는 7.0점, 2019년에는 6.8점으로 평균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상황임

【 그림 3-1 】 전반적 행복도

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불만족한다는 응답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나(남자 5.2%, 여자 4.6%), 보통 수준에서는 남자가(33.2%) 여자보다(29.8%) 약간 더 높고, 만족한다는 응답에서는 남자(61.6%)보다 여자(65.6%)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청년(19~29세) 및 장년(30~45세)층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10명 중 7명 수준이나(68.3%, 68.5%), 중년층(46~60세)의 경우에는 10명 중 6명(63.2%), 노년층(61~79세)의 경우에는 10명 중 5명(53.7%) 수준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가 낮아짐(이하의 기술에서 청년, 장년, 중년, 노년층 구분은 위와 같으며, 별도의 연령구간 표기는 생략함)

【 표 3-1 】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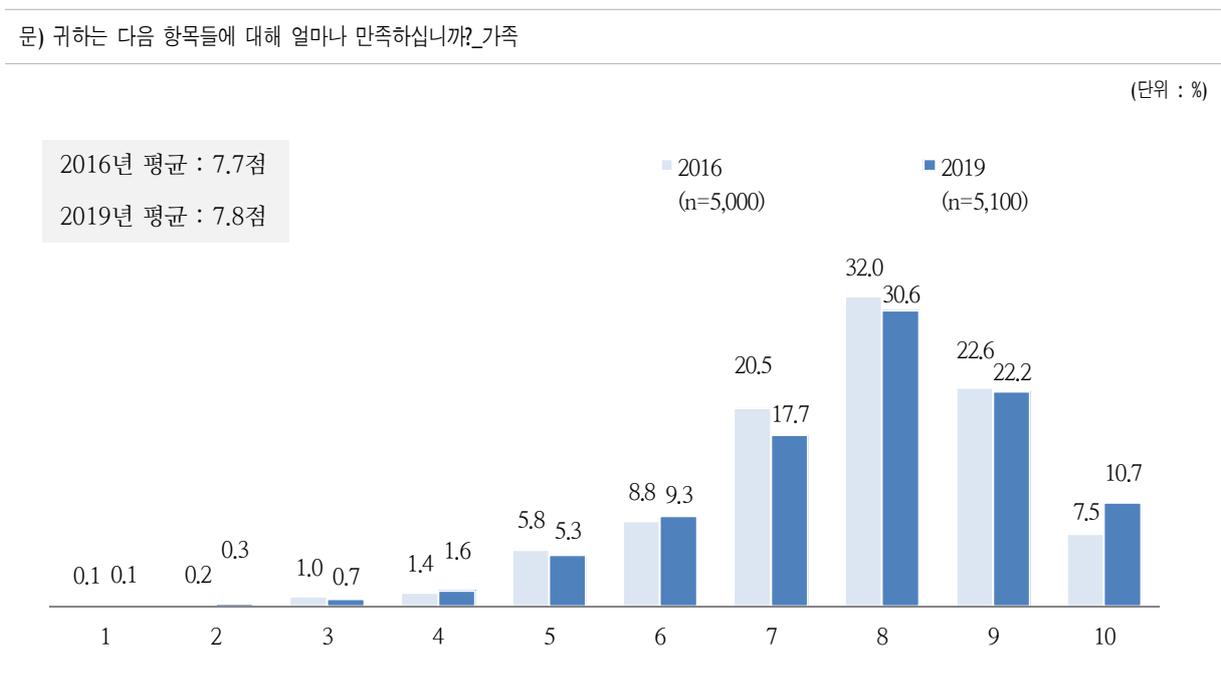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3	0.3	1.5	2.8	4.9	14.0	17.5	31.5	29.1	26.4	5.6	2.4	63.6	100.0	(6.8)	
성별	남자	(2,555)	0.3	0.4	1.7	2.8	5.2	15.2	18.0	33.2	28.7	26.1	4.6	2.2	61.6	100.0	(6.7)
	여자	(2,545)	0.2	0.2	1.3	2.8	4.6	12.7	17.1	29.8	29.6	26.7	6.7	2.6	65.6	100.0	(6.9)
연령	19~29세	(935)	0.0	0.2	1.0	1.9	3.2	11.9	16.6	28.5	28.1	30.2	6.0	4.0	68.3	100.0	(7.0)
	30~45세	(1,451)	0.5	0.2	1.4	1.6	3.6	11.3	16.5	27.9	32.5	28.4	5.8	1.9	68.5	100.0	(6.9)
	46~60세	(1,604)	0.2	0.2	1.5	3.6	5.4	14.3	17.0	31.3	29.4	25.8	6.0	2.1	63.2	100.0	(6.8)
	61~79세	(1,110)	0.4	0.6	2.1	4.1	7.3	18.7	20.3	39.0	25.4	21.5	4.7	2.2	53.7	100.0	(6.5)
지역	서울	(987)	0.7	0.2	1.5	1.9	4.4	13.9	16.3	30.2	29.8	25.6	6.8	3.2	65.4	100.0	(6.9)
	인천/경기	(1,576)	0.0	0.1	2.2	3.1	5.3	15.8	20.4	36.2	32.4	20.4	4.3	1.2	58.4	100.0	(6.6)
	대전/충청/세종	(536)	0.0	0.3	0.9	3.8	4.9	10.8	18.5	29.4	27.5	30.5	6.2	1.4	65.7	100.0	(6.9)
	광주/전라	(497)	0.0	0.8	1.0	3.1	4.8	13.3	15.0	28.3	28.0	28.7	6.0	4.2	66.9	100.0	(6.9)
	대구/경북	(504)	0.8	0.4	1.4	5.0	7.6	16.9	23.4	40.3	28.0	19.6	1.9	2.6	52.1	100.0	(6.5)
	부산/울산/경남	(786)	0.0	0.3	1.0	1.3	2.6	9.6	9.8	19.3	26.2	41.3	8.5	2.1	78.1	100.0	(7.3)
	강원	(151)	1.7	0.9	1.5	3.4	7.4	20.1	19.9	40.0	22.3	19.4	5.0	5.9	52.6	100.0	(6.6)
제주	(64)	0.6	0.0	2.0	0.8	3.4	18.9	19.2	38.2	21.7	21.7	9.5	5.4	58.4	100.0	(6.9)	
결혼상태	미혼	(1,493)	0.1	0.2	1.2	1.8	3.3	13.1	17.0	30.1	29.5	28.5	5.3	3.3	66.6	100.0	(6.9)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3	0.3	1.5	3.0	5.1	13.2	17.6	30.8	29.6	26.6	6.0	1.9	64.1	100.0	(6.8)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0.6	0.7	3.2	6.3	10.8	27.0	19.6	46.6	22.4	13.3	4.1	2.7	42.6	100.0	(6.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0.3	0.6	1.8	4.0	6.8	21.8	17.8	39.5	26.4	20.0	5.0	2.4	53.7	100.0	(6.5)
	1세대 가구	(874)	0.3	0.3	1.5	2.7	4.9	14.6	20.5	35.2	26.5	25.6	5.2	2.7	60.0	100.0	(6.8)
	2세대 가구	(3,393)	0.3	0.2	1.5	2.6	4.6	12.3	16.7	29.1	30.7	27.5	5.9	2.2	66.4	100.0	(6.9)
	3세대 가구	(212)	0.0	0.0	1.3	3.7	5.0	14.7	17.6	32.3	22.6	30.9	5.3	3.9	62.7	100.0	(6.9)
	비친족가구	(5)	0.0	0.0	0.0	0.0	0.0	20.9	3.9	24.8	27.2	25.0	17.7	5.3	75.2	100.0	(7.3)

2) 가족에 대한 만족

- ‘가족에 대한 만족’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1점부터 10점까지로 묻은 결과(10점일수록 가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미), ‘가족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7.8점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남
- 2019년 조사와 2016년 조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각 척도별 응답 경향에서는 7점과 8점 항목에서 다소 낮아지고, 10점 항목에서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임

【 그림 3-2 】 가족에 대한 만족



- 성별에 따른 가족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고령층의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75.9%로 타 연령층의 ‘만족한다’는 응답비율 82~83% 수준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91.1%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상태별로 보면 결혼생활 중인 경우에 84.7%로 가장 높고 결혼을 했다가 현재 사별/이혼/별거 중인 경우에 5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족 구성원별로 보면, 특히 1인 가구에서 가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56.0%로 나타나,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을 보임

【 표 3-2 】 응답자 특성별 가족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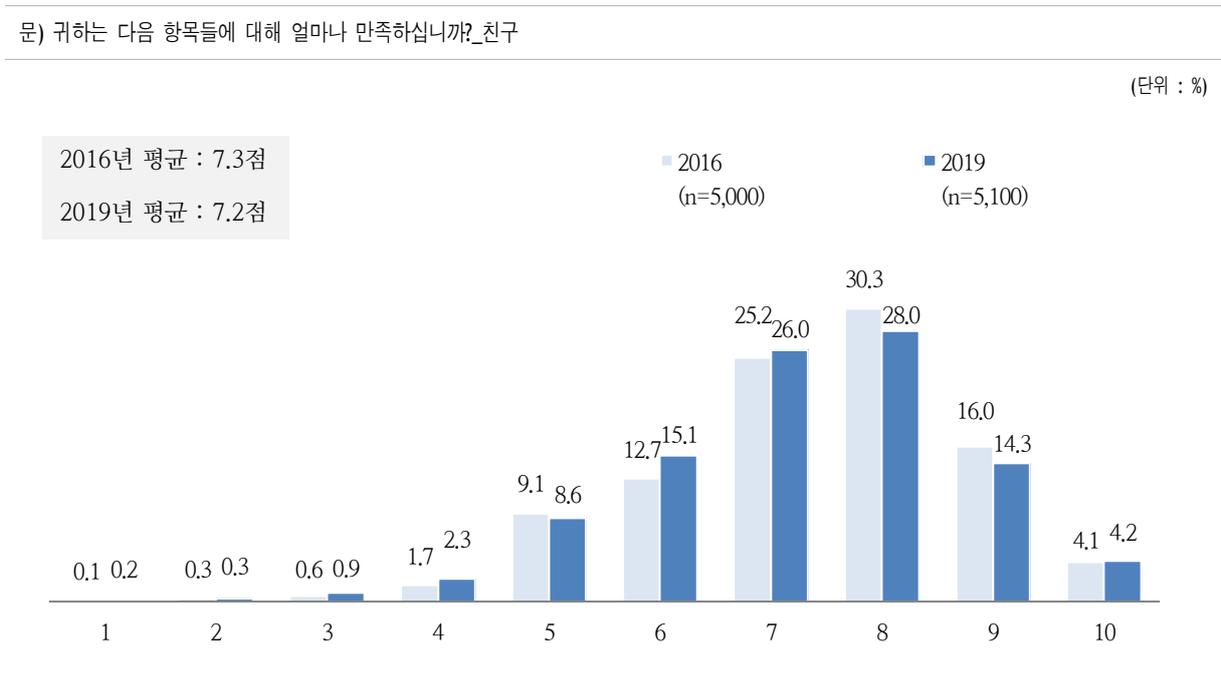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태수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 사항 없음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1	0.3	0.7	1.6	2.8	5.3	9.3	14.6	17.7	30.6	22.2	10.7	81.1	1.5	100.0	(7.8)	
성별	남자	(2,555)	0.1	0.3	0.9	1.5	2.8	5.5	9.8	15.3	18.6	29.9	21.7	10.2	80.4	1.5	100.0	(7.7)
	여자	(2,545)	0.2	0.3	0.6	1.7	2.8	5.1	8.8	13.9	16.8	31.3	22.6	11.1	81.8	1.5	100.0	(7.8)
연령	19~29세	(935)	0.1	0.2	0.8	1.3	2.3	4.2	9.4	13.5	16.9	30.7	21.5	14.0	83.1	1.0	100.0	(7.9)
	30~45세	(1,451)	0.1	0.2	0.9	1.4	2.6	5.1	8.7	13.7	15.8	31.6	23.0	11.8	82.2	1.4	100.0	(7.9)
	46~60세	(1,604)	0.2	0.3	0.4	1.8	2.6	4.5	9.5	14.0	17.8	31.4	24.5	8.8	82.5	0.8	100.0	(7.8)
	61~79세	(1,110)	0.2	0.4	1.0	2.0	3.6	7.7	9.8	17.5	20.6	28.0	18.2	9.0	75.9	3.0	100.0	(7.5)
지역	서울	(987)	0.1	0.6	0.9	1.6	3.3	4.8	7.5	12.3	18.6	27.9	23.0	12.6	82.0	2.4	100.0	(7.8)
	인천/경기	(1,576)	0.0	0.2	0.8	2.2	3.2	6.0	12.9	18.8	16.7	31.2	19.6	9.2	76.8	1.2	100.0	(7.6)
	대전/충청/세종	(536)	0.2	0.1	0.7	1.9	2.9	2.8	9.2	12.0	25.0	27.8	26.6	5.1	84.5	0.6	100.0	(7.7)
	광주/전라	(497)	0.0	0.1	0.5	0.8	1.4	6.9	6.2	13.1	14.4	26.6	23.5	18.0	82.6	2.9	100.0	(8.1)
	대구/경북	(504)	0.3	0.3	0.7	0.8	2.2	6.7	12.7	19.3	21.3	33.0	13.8	8.9	77.0	1.5	100.0	(7.5)
	부산/울산/경남	(786)	0.1	0.0	0.4	1.2	1.7	3.1	3.1	6.2	13.8	39.4	28.8	9.2	91.1	1.0	100.0	(8.1)
	강원	(151)	1.7	0.9	1.3	1.4	5.3	11.0	15.8	26.8	19.7	14.7	19.6	13.1	67.1	0.8	100.0	(7.3)
	제주	(64)	0.0	1.2	1.9	2.5	5.5	8.8	8.1	16.9	5.1	21.6	15.3	35.6	77.6	0.0	100.0	(8.1)
결혼상태	미혼	(1,493)	0.1	0.1	0.6	1.7	2.6	6.0	10.5	16.4	15.7	31.4	19.3	12.2	78.7	2.3	100.0	(7.8)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1	0.2	0.5	1.3	2.2	4.4	8.6	13.0	18.3	31.7	24.5	10.1	84.7	0.1	100.0	(7.9)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0.5	1.7	3.8	4.7	10.6	11.7	11.5	23.2	20.0	13.4	10.7	9.5	53.7	12.6	100.0	(6.9)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0.4	0.8	2.4	3.9	7.5	12.0	13.2	25.1	17.7	19.1	11.0	8.1	56.0	11.3	100.0	(7.0)
	1세대 가구	(874)	0.1	0.2	0.6	1.2	2.1	5.3	10.5	15.8	18.4	30.7	22.8	10.0	81.8	0.3	100.0	(7.8)
	2세대 가구	(3,393)	0.1	0.2	0.5	1.1	1.9	4.3	8.5	12.8	17.8	32.3	23.9	11.1	85.2	0.1	100.0	(7.9)
	3세대 가구	(212)	0.0	0.3	0.6	4.9	5.7	2.8	4.9	7.7	12.9	36.2	23.7	13.7	86.5	0.0	100.0	(8.0)
	비친족가구	(5)	0.0	0.0	3.9	0.0	3.9	0.0	24.6	24.6	13.4	18.1	23.1	17.0	71.6	0.0	100.0	(7.8)

3) 친구에 대한 만족²⁾

- ‘친구에 대한 만족’을 10점 만점으로 살펴본 결과(10점 일수록 만족한다는 의미), ‘친구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7.2점으로 ‘중상’ 정도의 수준을 보임
- 2019년 조사와 2016년 조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평균 점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응답 항목 별로 살펴보면, 보통 수준에 있는 6점 응답비율이 2019년에 다소 증가한 반면, 8점과 9점에 응답한 비율은 2016년 대비 2019년에 소폭 하락한 모습임

【 그림 3-3 】 친구에 대한 만족



2) 2013년 조사에서는 친구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1~3점, 8~10점을 통합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2019년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함

- 성별에 따라서는 친구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없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저연령일수록 친구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남. 청년층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이(84.4%)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노년층의 경우 10명 중 6명(63.0%)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앞서 살펴본 가족에 대한 만족도에서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친구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노년층의 인적 교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타 연령층 대비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음
- 한편,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을 한 경우에 친구에 대한 만족 응답비율이 48.7%에 그쳐 미혼 82.0%보다 크게 낮으며,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7%의 만족 비율을 보여 다른 가구 유형의 70%대 응답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임

【 표 3-3 】 응답자 특성별 친구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2	0.3	0.9	2.3	3.7	8.6	15.1	23.7	26.0	28.0	14.3	4.2	72.6	100.0	(7.2)	
성별	남자	(2,555)	0.2	0.3	1.1	2.1	3.7	8.1	15.7	23.8	26.1	28.0	14.3	4.2	72.5	100.0	(7.2)
	여자	(2,545)	0.2	0.4	0.7	2.6	3.8	9.1	14.4	23.6	26.0	28.1	14.4	4.2	72.6	100.0	(7.2)
연령	19~29세	(935)	0.4	0.2	0.3	1.6	2.5	4.4	8.7	13.1	22.3	33.1	21.5	7.5	84.4	100.0	(7.7)
	30~45세	(1,451)	0.3	0.2	0.7	1.5	2.7	7.8	13.4	21.2	28.2	29.9	14.7	3.3	76.1	100.0	(7.3)
	46~60세	(1,604)	0.1	0.4	1.2	2.5	4.2	9.3	17.3	26.6	26.9	27.1	12.0	3.2	69.2	100.0	(7.1)
	61~79세	(1,110)	0.0	0.4	1.2	3.8	5.4	12.3	19.3	31.6	25.1	22.7	11.1	4.2	63.0	100.0	(7.0)
지역	서울	(987)	0.4	0.4	0.8	2.5	4.2	9.4	15.0	24.4	30.5	27.6	10.5	2.9	71.4	100.0	(7.1)
	인천/경기	(1,576)	0.1	0.2	1.4	2.6	4.2	8.4	17.3	25.7	26.9	25.4	15.3	2.4	70.0	100.0	(7.1)
	대전/충청/세종	(536)	0.1	0.0	0.6	2.2	3.0	7.4	16.5	23.9	24.8	31.6	13.7	3.0	73.1	100.0	(7.3)
	광주/전라	(497)	0.0	0.5	0.6	2.8	3.8	9.5	12.5	22.1	22.7	26.5	16.6	8.3	74.1	100.0	(7.4)
	대구/경북	(504)	0.0	0.3	0.4	2.0	2.7	11.0	18.1	29.1	25.9	28.6	9.4	4.3	68.2	100.0	(7.1)
	부산/울산/경남	(786)	0.3	0.2	0.5	1.2	2.1	5.9	9.2	15.1	23.6	34.7	18.8	5.7	82.8	100.0	(7.6)
	강원	(151)	1.6	2.4	1.5	4.5	9.9	12.5	15.8	28.3	20.0	19.4	15.5	7.0	61.8	100.0	(6.9)
제주	제주	(64)	0.0	0.4	0.0	3.4	3.9	9.1	15.3	24.4	19.4	14.8	15.7	21.9	71.7	100.0	(7.7)
	제주	(64)	0.0	0.4	0.0	3.4	3.9	9.1	15.3	24.4	19.4	14.8	15.7	21.9	71.7	100.0	(7.7)
결혼상태	미혼	(1,493)	0.4	0.2	0.4	1.5	2.5	6.1	9.5	15.6	25.8	31.3	18.9	6.0	82.0	100.0	(7.6)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1	0.2	1.0	2.3	3.7	8.8	17.0	25.8	26.8	27.5	12.8	3.4	70.5	100.0	(7.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0.0	1.7	2.4	6.7	10.8	19.4	21.2	40.5	19.1	17.5	7.8	4.3	48.7	100.0	(6.5)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0.0	0.9	1.7	4.7	7.2	11.8	17.2	29.0	23.4	24.1	11.5	4.8	63.7	100.0	(7.0)
	1세대 가구	(874)	0.1	0.1	0.8	2.8	3.8	10.3	17.4	27.7	25.1	25.3	13.4	4.8	68.5	100.0	(7.2)
	2세대 가구	(3,393)	0.3	0.3	0.8	1.9	3.2	7.5	14.5	22.0	26.9	28.9	15.1	3.9	74.8	100.0	(7.3)
	3세대 가구	(212)	0.0	0.0	0.4	1.2	1.7	10.5	8.3	18.8	25.2	36.9	12.3	5.1	79.5	100.0	(7.4)
	비친족가구	(5)	0.0	0.0	0.0	0.0	0.0	0.0	20.9	20.9	17.2	20.8	35.8	5.3	79.1	100.0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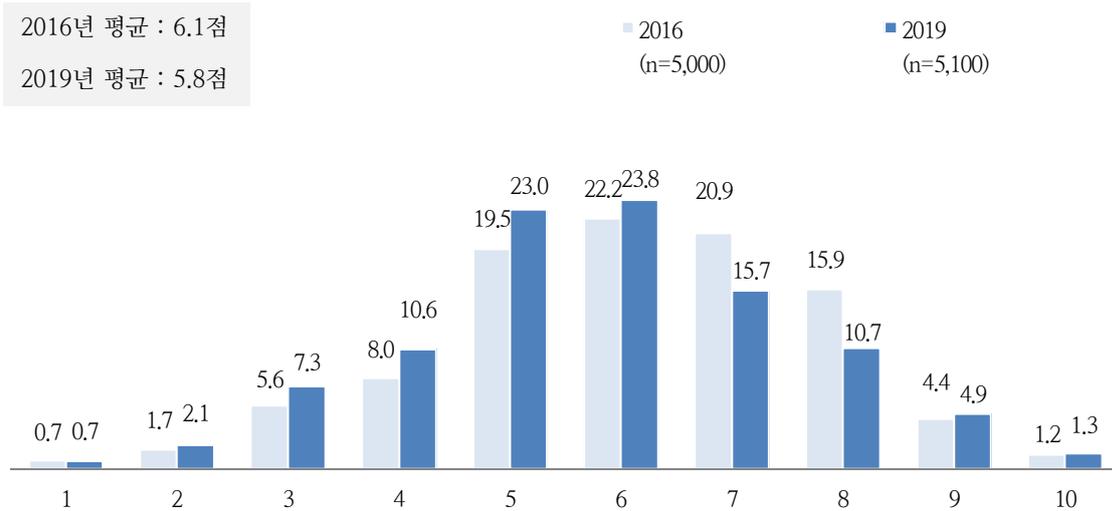
4)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³⁾

-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을 10점 만점(10점일수록 만족한다는 의미)으로 살펴본 결과,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8점으로, ‘중’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함께 제시된 5가지 만족도 항목(가족, 친구, 소득/재산, 문화/여가생활, 건강)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의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5.8점)는 2016년(6.1점) 대비 0.3점 낮아짐. 각 항목별 응답 경향을 보면, 불만족 수준인 2~4점과 보통에 해당하는 5~6점의 응답비율이 높아진 반면, 7~8점에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낮아짐

【 그림 3-4 】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문)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소득/재산

(단위 : %)



3) 2013년 조사에서는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1~3점, 8~10점을 통합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2019년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함

- 성별에 따라서는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도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음
- 연령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청년층, 장년층, 중년층까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노년층에서 불만족이 26%로 다른 연령층의 17~23% 수준보다 높고, 만족은 28.7%로 다른 연령층의 32~34%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국민들의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도가 21.4%로 가장 낮았으며, 가족 구성원 형태에 있어서도 1인 가구의 만족도가 26.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표 3-4 】 응답자 특성별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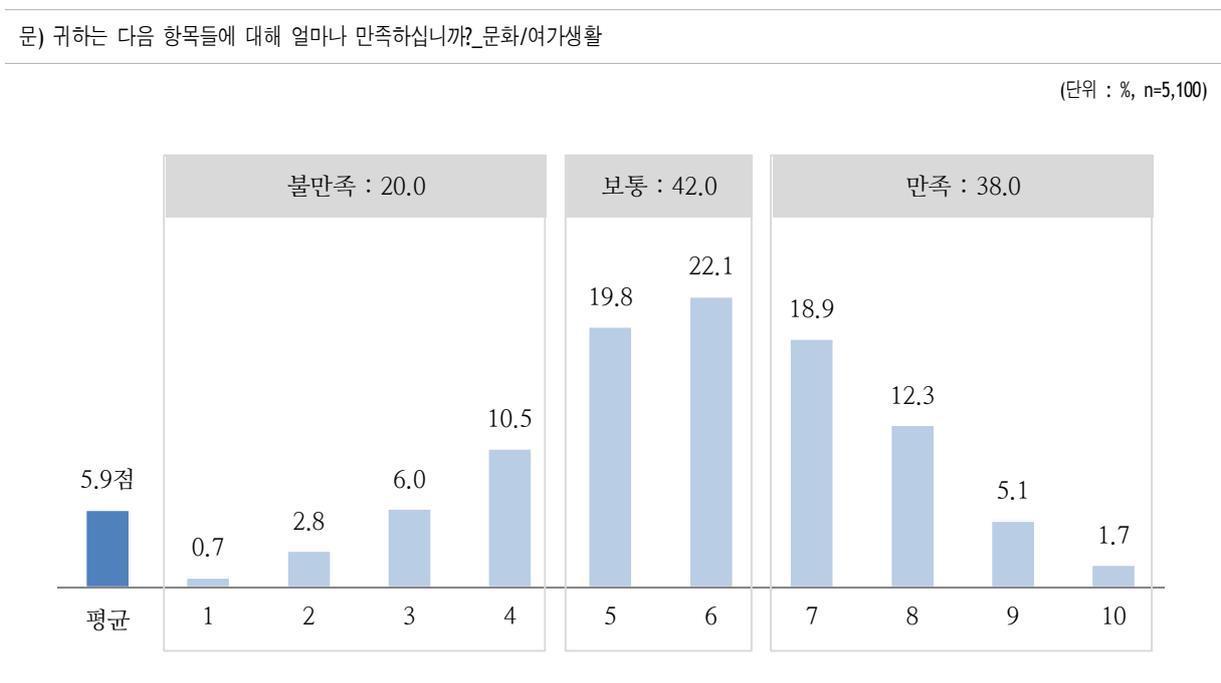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7	2.1	7.3	10.6	20.6	23.0	23.8	46.8	15.7	10.7	4.9	1.3	32.6	100.0	(5.8)	
성별	남자	(2,555)	0.6	2.0	7.3	11.8	21.7	23.9	22.9	46.8	15.4	10.5	4.5	1.1	31.6	100.0	(5.7)
	여자	(2,545)	0.8	2.1	7.3	9.4	19.5	22.1	24.7	46.8	16.1	10.8	5.3	1.5	33.7	100.0	(5.8)
연령	19~29세	(935)	0.6	3.3	8.0	11.2	23.1	22.6	22.0	44.5	15.9	10.2	4.6	1.5	32.3	100.0	(5.7)
	30~45세	(1,451)	0.8	1.4	6.3	10.3	18.9	23.1	23.2	46.3	17.0	12.4	4.2	1.2	34.9	100.0	(5.9)
	46~60세	(1,604)	0.4	1.2	5.8	9.5	17.0	23.4	26.1	49.6	16.7	9.6	6.2	1.0	33.4	100.0	(5.9)
	61~79세	(1,110)	0.9	3.2	9.9	11.9	26.0	22.5	22.9	45.3	12.6	10.4	4.0	1.7	28.7	100.0	(5.6)
지역	서울	(987)	0.7	1.9	8.4	13.3	24.3	23.4	29.0	52.4	13.0	7.2	2.0	1.0	23.3	100.0	(5.5)
	인천/경기	(1,576)	0.2	1.8	8.2	11.3	21.5	25.8	23.8	49.6	13.7	8.5	6.0	0.6	28.9	100.0	(5.7)
	대전/충청/세종	(536)	0.6	1.0	2.3	7.8	11.7	22.8	26.1	48.9	20.8	11.4	6.1	1.0	39.4	100.0	(6.1)
	광주/전라	(497)	0.6	2.0	6.0	9.0	17.7	21.1	18.3	39.5	20.3	16.0	4.8	1.8	42.8	100.0	(6.1)
	대구/경북	(504)	1.8	3.0	10.5	13.1	28.3	21.5	23.8	45.3	13.3	9.4	2.2	1.5	26.4	100.0	(5.4)
	부산/울산/경남	(786)	0.4	3.1	5.4	7.7	16.5	20.1	19.6	39.7	18.0	15.4	7.3	3.0	43.7	100.0	(6.2)
	강원	(151)	3.0	1.4	10.1	8.8	23.3	16.2	26.8	43.0	18.8	10.6	3.6	0.7	33.7	100.0	(5.7)
결혼상태	제주	(64)	2.0	3.6	9.9	5.9	21.4	24.0	11.6	35.5	15.3	20.7	4.0	3.0	43.1	100.0	(5.9)
	미혼	(1,493)	0.6	2.6	8.4	11.3	23.0	23.9	21.8	45.7	15.4	10.3	4.0	1.6	31.3	100.0	(5.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6	1.4	6.3	9.4	17.6	22.8	25.3	48.1	16.5	11.1	5.5	1.1	34.2	100.0	(5.9)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0	6.9	12.6	20.1	41.6	19.3	17.6	36.9	9.5	8.4	1.6	1.9	21.4	100.0	(5.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1	4.5	10.2	18.1	33.9	22.8	17.0	39.8	11.9	9.2	3.4	1.8	26.3	100.0	(5.3)
	1세대 가구	(874)	0.4	1.7	7.0	11.1	20.2	22.3	23.0	45.3	14.6	12.6	5.9	1.4	34.5	100.0	(5.9)
	2세대 가구	(3,393)	0.7	1.7	6.6	8.9	17.9	23.5	25.5	49.0	16.5	10.3	5.0	1.3	33.1	100.0	(5.9)
	3세대 가구	(212)	1.0	2.6	9.8	13.4	26.7	17.5	20.7	38.2	19.6	13.1	1.9	0.4	35.1	100.0	(5.6)
	비친족가구	(5)	0.0	0.0	26.4	3.9	30.2	35.1	3.7	38.7	13.4	0.0	17.7	0.0	31.1	100.0	(5.4)

5)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⁴⁾

-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10점(10점일수록 만족한다는 의미) 만점으로 살펴본 결과,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5.9점으로 ‘중’ 수준에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비율을 살펴본 결과, 응답비율은 ‘보통’ 수준인 5점~6점 항목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42.0%). 그 외에 ‘불만족’(1점~4점)은 20.0%, ‘만족’(7점~10점)은 38.0%으로, ‘만족’의 응답비율이 불만족에 비해 18.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5 】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4) 2013년 조사에서는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1~3점, 8~10점을 통합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2019년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만족 응답비율 35.9%보다 여자의 만족 응답비율이 40.1%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층의 경우 2명 중 1명(50.0%)이 만족한다는 상황이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속 낮아져 노년층의 경우 10명 중 3명(30.2%)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결혼상태에서 있어서는 미혼 상태의 국민들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만족 응답비율이 33.9%로 다른 가구 유형의 만족 응답비율 36~40%수준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표 3-5 】 응답자 특성별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7	2.8	6.0	10.5	20.0	19.8	22.1	42.0	18.9	12.3	5.1	1.7	38.0	100.0	(5.9)	
성별	남자	(2,555)	0.7	2.7	6.0	11.3	20.7	20.9	22.5	43.4	17.7	11.7	5.0	1.4	35.9	100.0	(5.9)
	여자	(2,545)	0.8	2.9	5.9	9.7	19.3	18.7	21.8	40.5	20.1	12.9	5.2	2.0	40.1	100.0	(6.0)
연령	19~29세	(935)	0.4	2.0	2.8	6.3	11.5	15.6	22.8	38.5	25.1	16.4	6.7	1.8	50.0	100.0	(6.4)
	30~45세	(1,451)	1.0	1.8	4.2	9.7	16.7	20.5	23.8	44.4	20.3	12.6	4.4	1.6	38.9	100.0	(6.0)
	46~60세	(1,604)	0.4	3.5	6.3	11.4	21.7	20.8	21.9	42.7	17.4	11.5	5.2	1.5	35.6	100.0	(5.8)
	61~79세	(1,110)	1.2	3.6	10.4	13.9	29.1	20.9	19.7	40.7	14.1	9.6	4.5	2.0	30.2	100.0	(5.5)
지역	서울	(987)	1.4	3.4	5.3	13.3	23.4	20.1	24.6	44.7	18.7	9.2	2.5	1.6	31.9	100.0	(5.7)
	인천/경기	(1,576)	0.3	2.2	6.6	12.8	22.0	22.3	20.5	42.8	17.6	11.8	5.2	0.7	35.2	100.0	(5.8)
	대전/충청/세종	(536)	0.0	0.7	4.5	10.0	15.3	17.6	26.3	43.9	19.4	12.6	6.7	2.1	40.8	100.0	(6.2)
	광주/전라	(497)	0.4	2.3	6.5	7.7	16.9	22.4	22.8	45.2	17.6	14.3	3.9	2.1	37.9	100.0	(6.0)
	대구/경북	(504)	1.2	4.5	8.7	10.0	24.5	17.1	21.2	38.2	22.3	10.6	3.0	1.4	37.3	100.0	(5.7)
	부산/울산/경남	(786)	0.5	3.5	4.1	5.8	13.9	15.7	20.1	35.8	21.6	16.5	9.4	2.8	50.3	100.0	(6.4)
	강원	(151)	4.3	1.6	7.5	8.7	22.1	22.0	22.9	44.9	13.3	14.8	2.3	2.7	33.0	100.0	(5.7)
결혼상태	제주	(64)	1.2	7.1	6.0	4.3	18.6	20.8	14.8	35.6	14.8	15.0	8.2	7.9	45.9	100.0	(6.2)
	미혼	(1,493)	0.6	1.9	3.3	8.1	13.9	18.0	22.9	40.9	22.3	15.0	5.8	2.2	45.2	100.0	(6.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7	2.6	6.7	11.0	21.1	20.7	22.4	43.1	18.0	11.5	4.9	1.4	35.8	100.0	(5.8)
가족 구성원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6	9.0	10.9	18.2	39.7	19.7	14.8	34.5	12.1	7.9	3.3	2.5	25.8	100.0	(5.2)
	1인가구	(617)	1.0	4.6	7.3	15.8	28.7	19.3	18.0	37.3	14.4	12.8	4.5	2.3	33.9	100.0	(5.7)
	1세대 가구	(874)	1.0	2.5	8.5	10.8	22.8	19.9	20.8	40.7	16.2	12.1	6.6	1.7	36.5	100.0	(5.8)
	2세대 가구	(3,393)	0.6	2.5	5.0	9.8	17.9	20.0	23.1	43.1	20.1	12.2	5.1	1.6	39.0	100.0	(6.0)
	3세대 가구	(212)	0.7	3.3	6.9	6.8	17.8	17.4	24.8	42.1	24.3	14.1	0.5	1.3	40.1	100.0	(5.9)
비친족가구	(5)	0.0	5.4	20.9	3.9	30.2	15.3	18.1	33.4	31.1	0.0	0.0	5.3	36.4	100.0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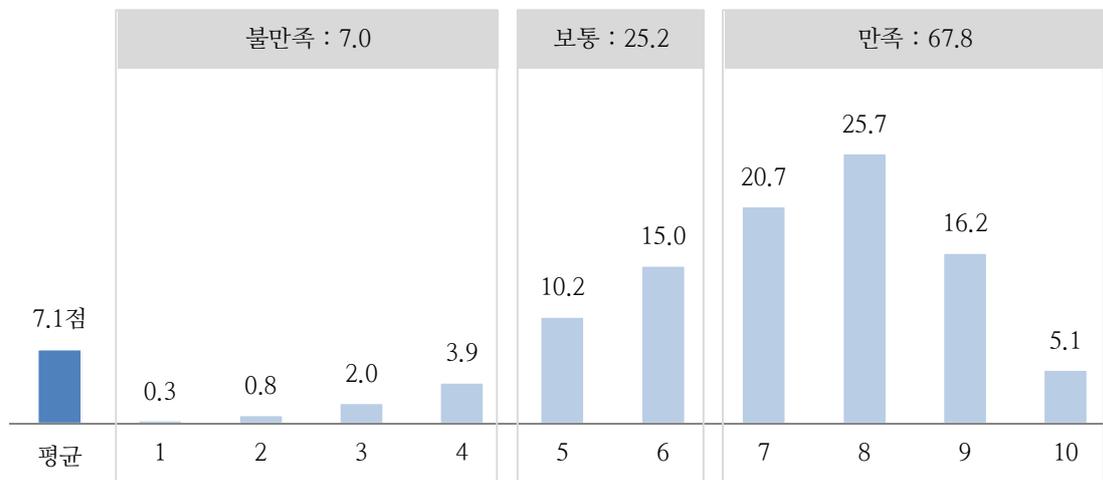
6) 건강에 대한 만족⁵⁾

- ‘건강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로(10점 일수록 만족한다는 의미) 살펴본 결과, ‘건강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7.1점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응답비율을 보면, ‘만족(7점~10점)’은 67.8%, ‘보통(5점~6점)’은 25.2%, ‘불만족(1점~4점)’은 7.0%로 나타남

【 그림 3-6 】 건강에 대한 만족

문)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_건강

(단위 : %, n=5,100)



5) 2013년 조사에서는 건강에 대한 만족을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1~3점, 8~10점을 통합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2019년 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불만족 비율이 낮고(5.8% vs. 8.2%) 만족 비율이 높게(69.7% vs. 65.9%)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경우 10명 중 8명 정도가(82.7%) 건강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노년층의 경우 10명 중 4~5명 정도만(46.1%)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반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자들이 81.1%가 만족한다고 한 반면 사별, 이혼,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에 34.4%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 표 3-6 】 응답자 특성별 건강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3	0.8	2.0	3.9	7.0	10.2	15.0	25.2	20.7	25.7	16.2	5.1	67.8	100.0	(7.1)	
성별	남자	(2,555)	0.1	1.0	1.4	3.3	5.8	9.2	15.4	24.5	21.0	25.5	16.9	6.3	69.7	100.0	(7.2)
	여자	(2,545)	0.4	0.7	2.5	4.6	8.2	11.2	14.7	25.9	20.4	25.9	15.5	4.0	65.9	100.0	(7.0)
연령	19~29세	(935)	0.1	0.7	0.5	2.3	3.5	5.4	8.4	13.7	15.0	25.6	30.0	12.1	82.7	100.0	(7.9)
	30~45세	(1,451)	0.3	0.3	1.6	1.9	4.0	7.9	9.7	17.6	19.8	30.6	21.6	6.3	78.3	100.0	(7.5)
	46~60세	(1,604)	0.1	0.6	1.8	2.9	5.3	10.5	19.7	30.2	24.0	28.2	10.1	2.3	64.6	100.0	(7.0)
	61~79세	(1,110)	0.8	2.0	4.1	9.5	16.4	16.7	20.8	37.5	21.8	16.0	6.4	1.9	46.1	100.0	(6.2)
지역	서울	(987)	0.3	0.5	2.5	3.4	6.7	8.8	16.1	24.9	25.2	21.6	15.4	6.1	68.4	100.0	(7.1)
	인천/경기	(1,576)	0.1	0.5	1.2	4.2	6.0	9.0	15.9	24.9	21.4	28.9	15.3	3.5	69.1	100.0	(7.2)
	대전/충청/세종	(536)	0.1	0.5	1.6	4.1	6.3	11.5	15.7	27.2	20.7	25.8	17.3	2.8	66.6	100.0	(7.1)
	광주/전라	(497)	0.3	0.8	2.9	3.4	7.4	12.7	15.4	28.1	20.3	24.2	13.6	6.4	64.5	100.0	(7.0)
	대구/경북	(504)	0.3	1.4	2.0	3.7	7.4	12.0	16.6	28.6	18.7	24.2	15.0	6.1	64.0	100.0	(7.0)
	부산/울산/경남	(786)	0.4	1.2	2.0	3.6	7.1	6.7	9.0	15.7	17.9	29.4	22.7	7.1	77.2	100.0	(7.5)
	강원	(151)	1.3	3.0	2.9	6.2	13.4	23.3	22.6	45.8	12.6	17.0	7.2	4.0	40.8	100.0	(6.2)
가족 구성원	제주	(64)	1.7	1.4	8.0	8.5	19.6	27.3	11.9	39.2	5.3	10.9	13.7	11.3	41.1	100.0	(6.3)
	미혼	(1,493)	0.2	0.5	0.8	2.6	4.0	6.4	8.6	14.9	15.9	26.1	28.1	11.1	81.1	100.0	(7.8)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3	0.6	2.2	3.6	6.7	11.1	17.4	28.5	23.5	26.8	11.8	2.7	64.8	100.0	(6.9)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0.7	4.6	5.9	13.9	25.2	19.2	21.2	40.4	14.0	12.6	5.5	2.4	34.4	100.0	(5.8)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0.5	2.2	2.5	9.1	14.3	14.2	14.0	28.2	15.2	20.6	14.9	6.8	57.5	100.0	(6.8)
	1세대 가구	(874)	0.3	1.1	3.4	7.4	12.2	15.0	21.1	36.1	20.3	18.8	9.1	3.5	51.7	100.0	(6.5)
	2세대 가구	(3,393)	0.1	0.5	1.6	2.3	4.5	8.2	13.8	22.0	21.9	28.6	17.9	5.0	73.5	100.0	(7.3)
	3세대 가구	(212)	1.6	0.3	1.2	1.3	4.5	10.4	11.4	21.8	18.3	24.4	22.3	8.8	73.7	100.0	(7.4)
	비친족가구	(5)	0.0	3.7	0.0	0.0	3.7	17.1	38.6	55.7	18.1	9.2	0.0	13.4	40.6	100.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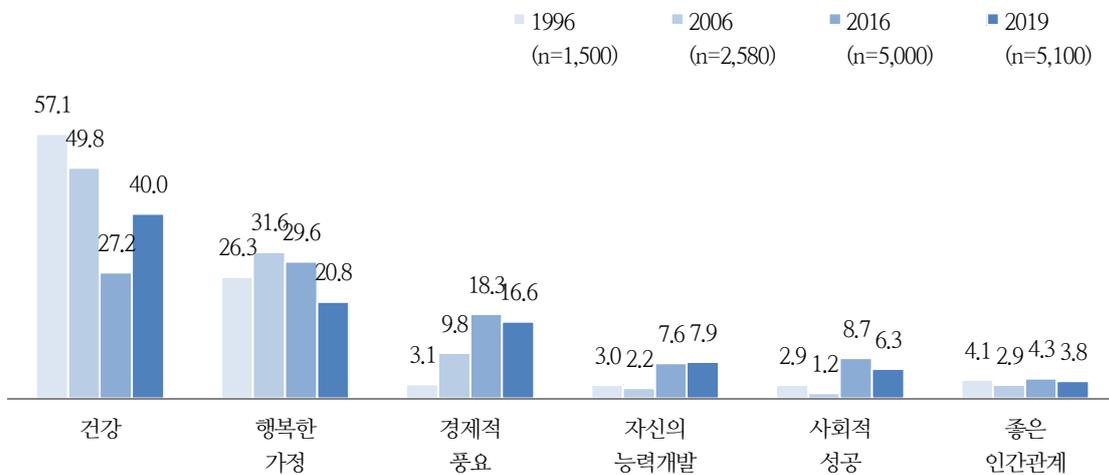
7)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6)

-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응답하게 한 결과, ‘건강(40.0%)’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행복한 가정(20.8%)’, ‘경제적 풍요(16.6%)’, ‘자신의 능력개발(7.9%)’ 등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6년도 조사는 기존의 보기 중 ‘건강’을 ‘건강/아름다움’으로 변경하였음. 이로 인해 가치 희석 효과7)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는 2016년 조사에서 ‘건강/아름다움’의 응답비율이 다른 시기의 조사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원지코리아 컨설팅, 2017). 실제로 2019년 조사에서 2016년의 ‘건강/아름다움’ 선택지를 ‘건강’과 ‘외모’로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 40.0%, 0.3%로 나타남
- 2016년 조사의 시계열 단절을 고려하였을 때, ‘건강’과 ‘행복한 가정’ 응답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경제적 풍요(13.5%p ↑), 자신의 능력개발(4.9%p ↑), 사회적 성공(3.4%p ↑) 등의 응답비율은 1996년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인이 삶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림 3-7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문)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6) 1996/2006년 조사의 보기문항에서 ‘건강’은 2016년 조사에서 ‘건강/아름다움’으로 변경되었음. 그리고 2019년 조사에서 다시 ‘건강’으로 변경되었음

7) 설문조사에서 두 개의 가치를 결합하여 제시하였을 때, 응답자의 반응이 각각의 가치를 더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치의 평균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원지코리아 컨설팅, 2017)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인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행복한 가정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5.7%p),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각각 3.5%p, 3.9%p)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청년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능력개발, 사회적 성공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20.0%, 15.5%). 장년층과 중년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행복한 가정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26.2%, 25.9%), 노년층에서는 건강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71.4%)
- 결혼 상태별로 보면, 미혼의 경우에는 경제적 풍요(20.7%), 자신의 능력개발(19.9%), 건강(18.2%) 등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나, 결혼생활 중인 기혼자의 경우에는 건강(47.2%)과 행복한 가정(23.0%)에 응답이 비교적 쏠려있고, 사별, 이혼 등의 상황인 기혼자인 경우에는 건강(69.7%)에 응답이 쏠려 있음. 가족 구성원 유형에서 1세대 가구에서도 건강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64.2%)

【 표 3-7 】 응답자 특성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단위 : %)

구 분		사례수	건강	행복한 가정	경제적 풍요	자신의 능력 개발	사회적 성공	좋은 인간 관계	취미 생활/ 여가	정신 적인 성숙	남성/ 여성 과의 사랑	자식/ 학식	외모	기타	계
전 체		(5,100)	40.0	20.8	16.6	7.9	6.3	3.8	2.0	0.9	0.8	0.6	0.3	0.1	100.0
성별	남자	(2,555)	38.3	18.0	18.3	8.6	8.3	3.9	2.0	1.0	0.7	0.6	0.3	0.1	100.0
	여자	(2,545)	41.6	23.7	14.8	7.1	4.4	3.8	1.9	0.8	0.8	0.5	0.4	0.1	100.0
연령	19~29세	(935)	14.5	12.8	19.0	20.0	15.5	7.0	4.1	1.8	2.0	1.4	1.8	0.0	100.0
	30~45세	(1,451)	24.6	26.2	23.2	10.4	7.4	3.6	1.9	1.0	1.3	0.4	0.0	0.0	100.0
	46~60세	(1,604)	46.9	25.9	15.3	2.9	3.5	3.1	1.4	0.8	0.0	0.2	0.0	0.1	100.0
	61~79세	(1,110)	71.4	13.2	7.8	1.7	1.4	2.4	1.1	0.3	0.1	0.5	0.0	0.2	100.0
지역	서울	(987)	37.0	20.6	15.8	10.1	7.0	3.9	2.4	0.4	1.5	0.4	0.9	0.1	100.0
	인천/경기	(1,576)	29.8	23.6	18.3	11.4	8.5	3.8	1.6	0.9	0.9	0.8	0.3	0.0	100.0
	대전/충청/세종	(536)	45.5	19.1	15.2	6.3	4.6	4.6	2.4	1.2	0.5	0.6	0.0	0.0	100.0
	광주/전라	(497)	50.7	17.0	14.8	3.3	5.2	4.9	2.2	0.7	0.3	0.7	0.0	0.2	100.0
	대구/경북	(504)	43.9	20.3	18.1	4.8	5.6	3.1	2.3	0.9	0.4	0.1	0.4	0.0	100.0
	부산/울산/경남	(786)	47.5	20.5	16.6	5.1	4.3	2.0	1.5	1.0	0.5	0.6	0.1	0.2	100.0
	강원	(151)	56.0	13.6	12.7	4.1	2.4	6.5	1.9	2.9	0.0	0.0	0.0	0.0	100.0
제주	제주	(64)	45.7	23.5	6.7	3.8	5.7	9.8	1.3	2.8	0.0	0.0	0.0	0.7	100.0
	미혼	(1,493)	18.2	11.1	20.7	19.9	13.3	6.2	3.8	2.1	2.3	1.2	1.1	0.0	100.0
결혼상태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7.2	26.5	14.9	3.0	3.5	2.8	1.2	0.4	0.1	0.3	0.0	0.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68.7	6.7	14.3	2.5	3.5	2.4	0.8	0.5	0.4	0.0	0.0	0.3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8.6	9.3	21.5	13.3	7.5	4.0	2.7	1.6	1.3	0.2	0.0	0.1	100.0
	1세대 가구	(874)	64.2	16.0	10.8	2.6	1.9	2.2	1.1	0.6	0.1	0.3	0.0	0.2	100.0
	2세대 가구	(3,393)	34.6	23.8	17.4	8.0	7.1	4.1	2.0	0.9	0.9	0.6	0.5	0.1	100.0
	3세대 가구	(212)	31.0	26.5	11.5	12.0	8.3	5.0	3.0	0.4	0.0	2.0	0.4	0.0	100.0
	비친족가구	(5)	7.5	17.1	39.6	0.0	0.0	18.1	17.7	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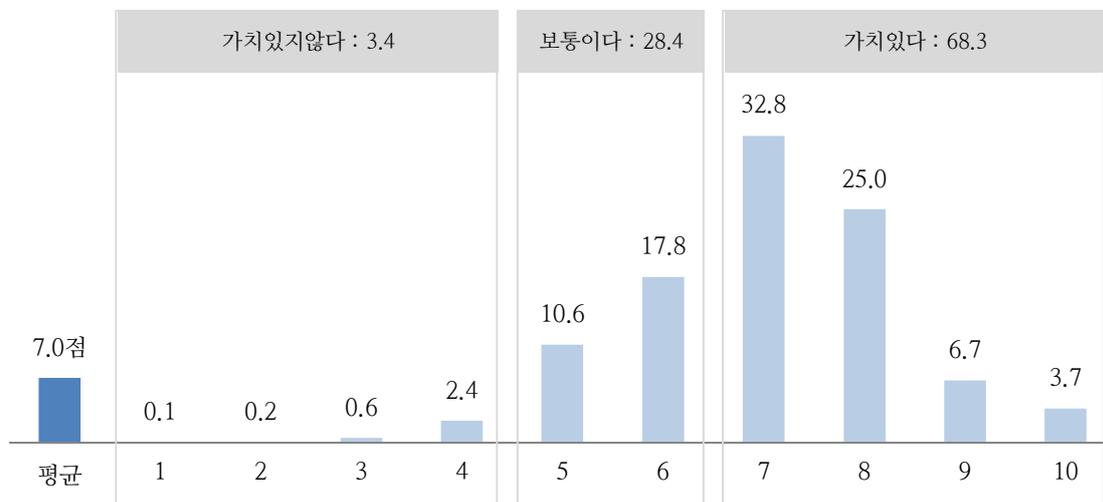
8) 하는 일의 가치

-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평균점수는 7.0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치 있지 않다(1~4점)’는 응답은 3.4%에 그쳤으며, ‘보통이다(5~6점)’는 28.4%, ‘가치 있다(7~10점)’는 응답은 68.3%로 나타남. 즉, 응답자 10명 중 약 7명은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함

【 그림 3-8 】 하는 일의 가치

문) 귀하는 귀하가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저연령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남. 즉 청년 및 장년층의 경우에는 72.9%, 73.7%가 가치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년층의 경우에는 68.8%, 노년층의 경우에는 56.4%가 가치있다고 응답하였음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층이 72.1%로 높은 반면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이 45.2%로 낮게 나타남. 가족 구성원별로도 1인 가구인 경우에 57.1%가 가치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가구 유형의 응답비율 63.5~73.8%보다 낮게 나타남

【 표 3-8 】 응답자 특성별 하는 일의 가치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치있지 않다					보통이다				가치 있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1	0.2	0.6	2.4	3.4	10.6	17.8	28.4	32.8	25.0	6.7	3.7	68.3	100.0	(7.0)	
성별	남자	(2,555)	0.2	0.2	0.7	2.4	3.5	10.9	18.3	29.2	32.4	24.6	7.1	3.1	67.2	100.0	(7.0)
	여자	(2,545)	0.1	0.2	0.5	2.5	3.3	10.3	17.2	27.5	33.2	25.3	6.4	4.3	69.3	100.0	(7.0)
연령	19~29세	(935)	0.1	0.1	0.5	1.8	2.6	7.3	17.3	24.5	29.5	30.5	8.1	4.9	72.9	100.0	(7.2)
	30~45세	(1,451)	0.1	0.3	0.5	1.8	2.6	7.5	16.2	23.7	35.5	27.1	7.5	3.6	73.7	100.0	(7.1)
	46~60세	(1,604)	0.0	0.1	0.6	2.7	3.4	9.4	18.4	27.7	34.4	24.1	6.8	3.6	68.8	100.0	(7.0)
	61~79세	(1,110)	0.4	0.2	0.9	3.5	5.0	19.2	19.4	38.6	29.9	18.8	4.6	3.2	56.4	100.0	(6.6)
지역	서울	(987)	0.3	0.3	0.4	2.6	3.5	10.7	17.1	27.8	32.7	21.4	9.5	5.0	68.6	100.0	(7.0)
	인천/경기	(1,576)	0.0	0.0	0.8	2.9	3.7	12.1	23.1	35.2	36.4	16.8	5.7	2.2	61.1	100.0	(6.8)
	대전/충청/세종	(536)	0.0	0.0	0.3	1.7	2.1	7.9	17.2	25.1	32.1	33.2	5.7	1.8	72.9	100.0	(7.1)
	광주/전라	(497)	0.1	0.7	0.6	1.3	2.6	10.2	12.2	22.4	29.3	30.5	7.5	7.7	74.9	100.0	(7.3)
	대구/경북	(504)	0.6	0.4	1.2	2.4	4.6	10.5	22.6	33.0	33.9	21.3	2.9	4.2	62.3	100.0	(6.8)
	부산/울산/경남	(786)	0.0	0.0	0.1	2.1	2.3	6.9	9.3	16.1	31.2	40.7	7.7	2.0	81.6	100.0	(7.3)
	강원	(151)	0.4	1.0	1.7	5.9	9.0	22.2	17.0	39.2	21.9	18.4	3.9	7.6	51.9	100.0	(6.6)
결혼상태	제주	(64)	0.0	0.0	0.7	0.4	1.2	15.7	12.3	28.0	17.9	18.3	17.5	17.2	70.9	100.0	(7.6)
	미혼	(1,493)	0.1	0.1	0.5	1.9	2.6	7.6	17.7	25.3	32.7	27.5	7.6	4.4	72.1	100.0	(7.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1	0.2	0.6	2.4	3.3	10.5	17.6	28.1	33.8	24.8	6.5	3.5	68.6	100.0	(7.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0.6	0.4	1.1	5.9	8.0	26.7	20.0	46.7	22.6	14.2	5.6	2.9	45.2	100.0	(6.3)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0.3	0.5	0.6	4.0	5.4	17.1	20.4	37.5	28.1	20.0	6.6	2.4	57.1	100.0	(6.7)
	1세대 가구	(874)	0.1	0.4	0.8	2.5	3.9	13.5	19.2	32.6	30.6	24.6	4.3	4.0	63.5	100.0	(6.9)
	2세대 가구	(3,393)	0.1	0.1	0.6	2.2	3.0	8.5	17.3	25.8	34.4	26.1	7.1	3.7	71.3	100.0	(7.1)
	3세대 가구	(212)	0.0	0.0	0.3	1.8	2.2	13.9	11.8	25.7	30.5	22.9	11.7	7.0	72.1	100.0	(7.2)
	비친족가구	(5)	0.0	0.0	0.0	0.0	0.0	0.0	26.2	26.2	48.7	0.0	13.4	11.7	73.8	100.0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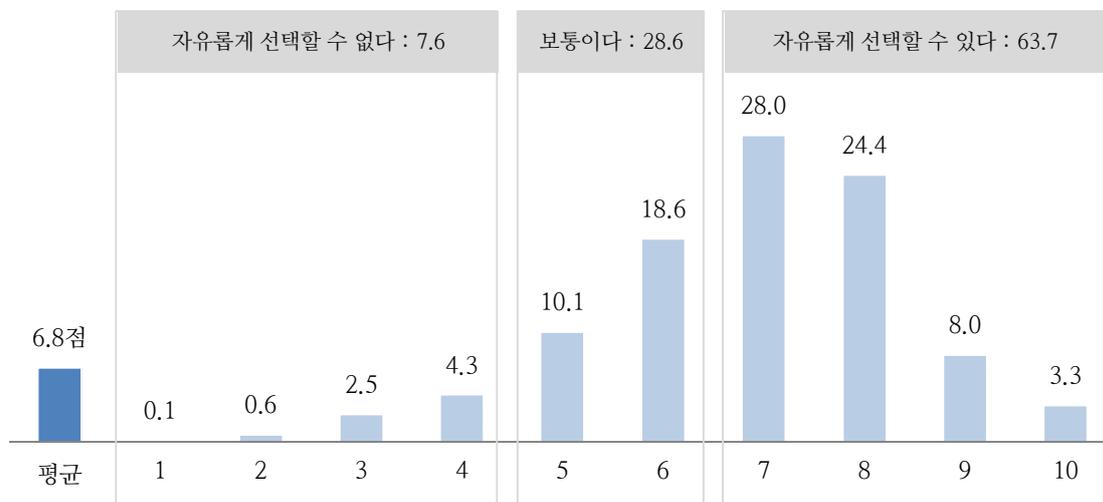
9)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6.8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1점~4점)’의 응답비율은 7.6%에 그쳤으며, ‘보통(5점~6점)’은 28.6%,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7점~10점)’는 63.7%로 나타남

【 그림 3-9 】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문)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가장 가까운 쪽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저연령일수록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즉, 청년층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7명(71.9%) 정도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노년층의 경우 10명 중 5~6명 정도만(56.5%)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택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층에서 자신의 능력 개발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한 앞선 문항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판단됨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층인 경우에 71.5%가, 사별, 이혼, 별거 중인 상태의 기혼층인 경우에 55.4%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응답함

【 표 3-9 】 응답자 특성별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보통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1	0.6	2.5	4.3	7.6	10.1	18.6	28.6	28.0	24.4	8.0	3.3	63.7	100.0	(6.8)	
성별	남자	(2,555)	0.1	0.8	2.3	4.5	7.6	9.9	18.6	28.5	28.5	23.4	8.4	3.5	63.9	100.0	(6.9)
	여자	(2,545)	0.2	0.5	2.8	4.2	7.7	10.2	18.5	28.8	27.5	25.4	7.5	3.1	63.6	100.0	(6.8)
연령	19~29세	(935)	0.2	0.7	0.9	3.3	5.1	8.4	14.6	23.0	29.5	28.1	9.3	5.0	71.9	100.0	(7.1)
	30~45세	(1,451)	0.2	0.5	2.9	4.8	8.5	8.0	17.2	25.2	29.0	26.2	8.0	3.0	66.3	100.0	(6.9)
	46~60세	(1,604)	0.0	0.7	2.8	3.7	7.2	10.9	20.3	31.2	27.2	23.7	8.1	2.6	61.6	100.0	(6.8)
	61~79세	(1,110)	0.2	0.7	3.1	5.3	9.3	12.9	21.3	34.2	26.6	19.9	6.6	3.4	56.5	100.0	(6.6)
지역	서울	(987)	0.2	0.9	2.5	3.5	7.0	8.3	14.2	22.6	25.3	29.9	11.8	3.4	70.4	100.0	(7.1)
	인천/경기	(1,576)	0.0	0.2	3.0	3.6	6.7	9.6	23.2	32.7	29.6	20.4	8.4	2.1	60.5	100.0	(6.8)
	대전/충청/세종	(536)	0.0	0.1	0.9	5.8	6.8	14.0	22.5	36.5	28.8	20.3	5.3	2.2	56.7	100.0	(6.7)
	광주/전라	(497)	0.2	0.8	2.0	3.0	5.9	9.9	17.8	27.8	23.4	26.6	9.2	7.2	66.4	100.0	(7.1)
	대구/경북	(504)	0.2	2.3	4.0	6.6	13.1	14.0	21.2	35.2	29.6	14.8	4.6	2.6	51.7	100.0	(6.3)
	부산/울산/경남	(786)	0.0	0.3	2.0	4.4	6.7	5.6	11.1	16.7	31.6	35.4	6.9	2.7	76.6	100.0	(7.1)
	강원	(151)	1.4	1.6	4.3	6.5	13.8	23.1	18.1	41.3	20.4	13.2	1.9	9.5	45.0	100.0	(6.3)
결혼상태	제주	(64)	1.7	1.7	1.7	8.2	13.3	9.8	17.8	27.5	21.7	22.4	4.1	10.9	59.2	100.0	(6.8)
	미혼	(1,493)	0.1	0.6	0.6	3.4	4.7	9.0	14.7	23.8	30.0	27.3	9.4	4.7	71.5	100.0	(7.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1	0.7	3.3	4.5	8.6	10.4	20.0	30.4	27.8	23.2	7.4	2.4	60.9	100.0	(6.7)
가족 구성원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0.3	0.0	4.3	6.7	11.3	11.6	21.7	33.2	20.1	22.8	6.6	5.9	55.4	100.0	(6.7)
	1인가구	(617)	0.2	0.8	1.8	5.9	8.8	9.3	18.1	27.4	23.5	25.1	8.0	7.2	63.9	100.0	(7.0)
	1세대 가구	(874)	0.2	0.5	2.1	4.1	6.9	13.4	18.8	32.2	28.4	23.0	5.9	3.5	60.9	100.0	(6.8)
	2세대 가구	(3,393)	0.1	0.7	2.7	3.8	7.3	9.3	18.9	28.2	29.0	24.7	8.4	2.4	64.5	100.0	(6.8)
	3세대 가구	(212)	0.0	0.0	3.7	8.7	12.4	10.4	14.0	24.5	24.7	23.2	9.9	5.3	63.1	100.0	(6.8)
비전속가구	(5)	0.0	0.0	0.0	9.1	9.1	32.6	0.0	32.6	21.6	31.4	0.0	5.3	58.3	100.0	(6.5)	

10) 사소한 일에 대한 화

- ‘사소한 일에 대해 종종 답답하거나 화가 나는지’를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2.1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76.1%(전혀 그렇지 않다 16.2% + 별로 그렇지 않다 59.9%),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23.9%(매우 그렇다 1.6% + 대체로 그렇다 22.3%)

【 그림 3-10 】 사소한 일에 대한 화

문) 나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 종종 사소한 일에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는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어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상황을 보여줌
- 연령별로는 고연령일수록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즉 청년층의 경우에는 10명 중 2명 정도(20.6%)가 그렇다는 응답인 반면, 점점 높아져 노년층의 경우에는 10명 중 3명 정도(29.9%)가 그렇다고 응답함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보다 사별, 이혼, 별거 등의 기혼층의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19.0% vs. 39.0%),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는 1인 가구에서서 26.3%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표 3-10 】 응답자 특성별 사소한 일에 대한 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6	22.3	23.9	59.9	16.2	76.1	100.0	(2.1)	
성별	남자	(2,555)	1.6	22.1	23.6	60.2	16.1	76.4	100.0	(2.1)
	여자	(2,545)	1.7	22.6	24.2	59.6	16.2	75.8	100.0	(2.1)
연령	19~29세	(935)	1.4	19.1	20.6	56.7	22.8	79.4	100.0	(2.0)
	30~45세	(1,451)	1.5	18.6	20.1	65.0	15.0	79.9	100.0	(2.1)
	46~60세	(1,604)	1.8	23.5	25.2	61.1	13.7	74.8	100.0	(2.1)
	61~79세	(1,110)	1.7	28.3	29.9	54.2	15.8	70.1	100.0	(2.2)
지역	서울	(987)	1.0	24.9	25.9	60.0	14.1	74.1	100.0	(2.1)
	인천/경기	(1,576)	1.3	21.1	22.3	66.2	11.4	77.7	100.0	(2.1)
	대전/충청/세종	(536)	1.2	18.2	19.4	61.1	19.4	80.6	100.0	(2.0)
	광주/전라	(497)	2.6	23.2	25.9	48.0	26.1	74.1	100.0	(2.0)
	대구/경북	(504)	1.6	25.7	27.3	51.8	20.9	72.7	100.0	(2.1)
	부산/울산/경남	(786)	1.7	21.1	22.8	59.5	17.7	77.2	100.0	(2.1)
	강원	(151)	7.1	26.1	33.2	56.0	10.8	66.8	100.0	(2.3)
제주	(64)	1.4	20.7	22.1	61.1	16.9	77.9	100.0	(2.1)	
결혼상태	미혼	(1,493)	1.1	17.9	19.0	61.8	19.2	81.0	100.0	(2.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5	23.3	24.8	60.2	15.0	75.2	100.0	(2.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5.6	33.3	39.0	46.6	14.5	61.0	100.0	(2.3)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4	26.3	28.7	56.1	15.2	71.3	100.0	(2.2)
	1세대 가구	(874)	1.5	24.1	25.6	58.1	16.3	74.4	100.0	(2.1)
	2세대 가구	(3,393)	1.4	21.1	22.5	61.5	16.0	77.5	100.0	(2.1)
	3세대 가구	(212)	3.1	23.1	26.2	52.6	21.2	73.8	100.0	(2.1)
	비친족가구	(5)	0.0	12.9	12.9	68.4	18.7	87.1	100.0	(1.9)

11) 이유 없는 우울

-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는지’를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2.0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75.6%(전혀 그렇지 않다 23.9% + 별로 그렇지 않다 51.7%),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24.4%로 나타남(매우 그렇다 2.6% + 대체로 그렇다 21.8%)

【 그림 3-11 】 이유 없는 우울

문) 나는 종종 특별한 이유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에는 21.1%가 그렇다고 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27.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는 여자가 우울함을 겪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에 있어서는, 앞선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일수록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도 우울하다’고 응답한 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청년층의 경우 18.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노년층의 경우 32.2%가 ‘그렇다’고 응답함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에 18.9%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사별, 이혼, 별거 중인 경우의 기혼층에서 45.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나타남. 이러한 응답은 1인 가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32.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표 3-11 】 응답자 특성별 이유 없는 우울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6	21.8	24.4	51.7	23.9	75.6	100.0	(2.0)	
성별	남자	(2,555)	2.2	19.0	21.1	52.7	26.2	78.9	100.0	(2.0)
	여자	(2,545)	3.0	24.6	27.6	50.7	21.7	72.4	100.0	(2.1)
연령	19~29세	(935)	2.0	16.8	18.8	50.0	31.2	81.2	100.0	(1.9)
	30~45세	(1,451)	1.9	16.5	18.5	55.1	26.4	81.5	100.0	(1.9)
	46~60세	(1,604)	2.6	25.0	27.5	52.8	19.7	72.5	100.0	(2.1)
	61~79세	(1,110)	4.1	28.2	32.2	47.1	20.7	67.8	100.0	(2.2)
지역	서울	(987)	2.9	25.1	28.1	48.5	23.4	71.9	100.0	(2.1)
	인천/경기	(1,576)	2.4	21.5	23.9	55.7	20.3	76.1	100.0	(2.1)
	대전/충청/세종	(536)	0.8	15.2	16.0	58.6	25.4	84.0	100.0	(1.9)
	광주/전라	(497)	3.1	23.5	26.7	44.6	28.7	73.3	100.0	(2.0)
	대구/경북	(504)	3.0	24.7	27.7	48.9	23.4	72.3	100.0	(2.1)
	부산/울산/경남	(786)	2.6	20.5	23.1	49.3	27.6	76.9	100.0	(2.0)
	강원	(151)	5.8	21.9	27.6	48.1	24.3	72.4	100.0	(2.1)
결혼상태	제주	(64)	1.9	11.3	13.2	58.2	28.6	86.8	100.0	(1.9)
	미혼	(1,493)	1.4	17.5	18.9	50.9	30.3	81.1	100.0	(1.9)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6	22.4	25.0	53.5	21.5	75.0	100.0	(2.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8.8	36.3	45.1	36.0	19.0	54.9	100.0	(2.3)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4.2	27.7	32.0	42.0	26.0	68.0	100.0	(2.1)
	1세대 가구	(874)	2.6	23.7	26.3	52.3	21.4	73.7	100.0	(2.1)
	2세대 가구	(3,393)	2.2	20.5	22.6	53.2	24.2	77.4	100.0	(2.0)
	3세대 가구	(212)	4.6	17.7	22.4	52.7	24.9	77.6	100.0	(2.0)
	비친족가구	(5)	0.0	3.7	3.7	77.7	18.7	96.3	100.0	(1.8)

12) 소외감

- '종종 소외감을 느끼는지'를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 점수는 1.9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81.2%(전혀 그렇지 않다 29.1% + 별로 그렇지 않다 52.1%),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18.8%(매우 그렇다 1.8% + 대체로 그렇다 17.0%)

【 그림 3-12 】 소외감

문) 나는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느끼는 소외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고연령일수록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의 경우 10명 중 1명 정도(12.0%)만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10명 중 3명 가까이(28.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앞선 문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
-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인 경우에 35.7%로 미혼층 13.5%보다 약 2.5배 더 높게 나타남.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는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인 경우에 24.7% 및 24.1%로 타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표 3-12 】 응답자 특성별 소외감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8	17.0	18.8	52.1	29.1	81.2	100.0	(1.9)	
성별	남자	(2,555)	1.9	17.0	18.9	51.7	29.4	81.1	100.0	(1.9)
	여자	(2,545)	1.8	17.1	18.8	52.4	28.8	81.2	100.0	(1.9)
연령	19~29세	(935)	1.4	10.6	12.0	54.3	33.7	88.0	100.0	(1.8)
	30~45세	(1,451)	1.0	13.6	14.6	55.2	30.2	85.4	100.0	(1.9)
	46~60세	(1,604)	2.3	17.5	19.8	51.1	29.1	80.2	100.0	(1.9)
	61~79세	(1,110)	2.5	26.2	28.7	47.5	23.8	71.3	100.0	(2.1)
지역	서울	(987)	1.6	21.1	22.8	50.5	26.7	77.2	100.0	(2.0)
	인천/경기	(1,576)	2.0	16.9	18.8	54.4	26.8	81.2	100.0	(1.9)
	대전/충청/세종	(536)	1.1	15.5	16.6	58.4	25.0	83.4	100.0	(1.9)
	광주/전라	(497)	1.5	15.3	16.8	45.3	37.9	83.2	100.0	(1.8)
	대구/경북	(504)	1.9	14.9	16.8	49.0	34.2	83.2	100.0	(1.8)
	부산/울산/경남	(786)	1.9	16.9	18.8	51.0	30.3	81.2	100.0	(1.9)
	강원	(151)	5.3	14.4	19.7	50.2	30.2	80.3	100.0	(1.9)
제주	(64)	0.0	9.5	9.5	59.1	31.4	90.5	100.0	(1.8)	
결혼상태	미혼	(1,493)	1.2	12.3	13.5	53.4	33.0	86.5	100.0	(1.8)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8	17.9	19.7	52.0	28.3	80.3	100.0	(1.9)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6	31.1	35.7	45.6	18.7	64.3	100.0	(2.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3	22.4	24.7	49.6	25.7	75.3	100.0	(2.0)
	1세대 가구	(874)	2.2	21.9	24.1	47.6	28.2	75.9	100.0	(2.0)
	2세대 가구	(3,393)	1.5	15.1	16.6	53.7	29.7	83.4	100.0	(1.9)
	3세대 가구	(212)	3.3	12.2	15.6	51.4	33.0	84.4	100.0	(1.9)
	비친족가구	(5)	0.0	0.0	0.0	69.6	30.4	100.0	100.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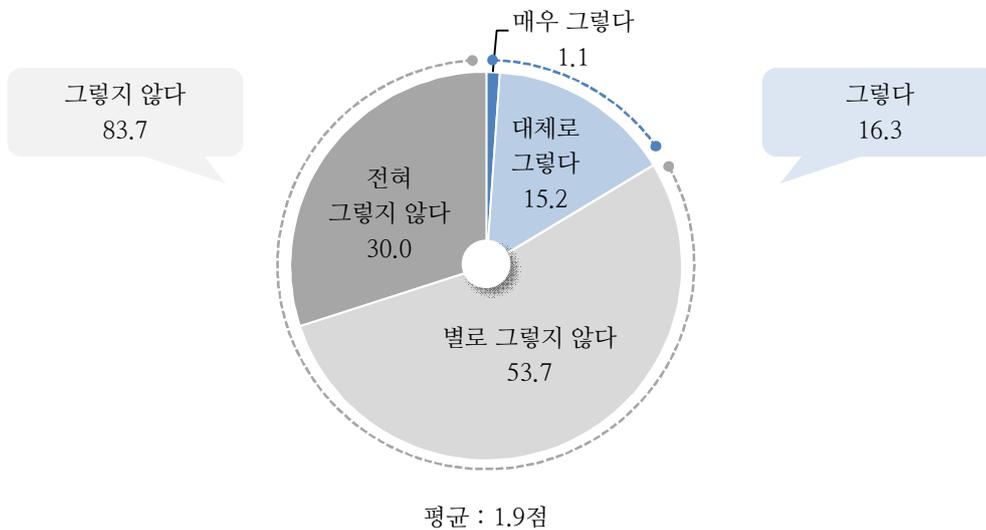
13) 무시당하는 느낌

- 마지막 부정적 감정으로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4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점수는 1.9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83.7%(전혀 그렇지 않다 30.0% + 별로 그렇지 않다 53.7%),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16.3%로 나타남(매우 그렇다 1.1% + 대체로 그렇다 15.2%)

【 그림 3-13 】 무시당하는 느낌

문) 나는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비율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일수록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임. 즉 청년층의 경우 11.7%가 그렇다는 응답이지만, 노년층의 경우 24.3%가 그렇다고 응답함
-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의 29.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층은 11.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약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가족 구성원 유형에 있어서도 1인 가구인 경우에는 21.9%가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13 】 응답자 특성별 무시당하는 느낌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1	15.2	16.3	53.7	30.0	83.7	100.0	(1.9)	
성별	남자	(2,555)	1.2	15.6	16.8	53.2	30.0	83.2	100.0	(1.9)
	여자	(2,545)	1.1	14.7	15.8	54.2	30.0	84.2	100.0	(1.9)
연령	19~29세	(935)	1.3	10.4	11.7	53.3	35.0	88.3	100.0	(1.8)
	30~45세	(1,451)	0.7	11.7	12.4	57.2	30.4	87.6	100.0	(1.8)
	46~60세	(1,604)	1.0	15.9	17.0	54.1	28.9	83.0	100.0	(1.9)
	61~79세	(1,110)	1.7	22.6	24.3	48.7	27.0	75.7	100.0	(2.0)
지역	서울	(987)	0.9	19.9	20.9	53.7	25.5	79.1	100.0	(2.0)
	인천/경기	(1,576)	1.4	16.3	17.7	54.6	27.8	82.3	100.0	(1.9)
	대전/충청/세종	(536)	0.7	9.4	10.2	65.0	24.8	89.8	100.0	(1.9)
	광주/전라	(497)	1.1	11.2	12.3	44.4	43.3	87.7	100.0	(1.7)
	대구/경북	(504)	1.0	13.2	14.2	47.8	38.0	85.8	100.0	(1.8)
	부산/울산/경남	(786)	0.6	15.7	16.3	54.7	29.0	83.7	100.0	(1.9)
	강원	(151)	5.0	13.0	18.0	47.0	35.0	82.0	100.0	(1.9)
	제주	(64)	0.0	7.0	7.0	58.4	34.6	93.0	100.0	(1.7)
결혼상태	미혼	(1,493)	1.0	10.8	11.8	55.2	33.1	88.2	100.0	(1.8)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9	16.2	17.2	53.6	29.3	82.8	100.0	(1.9)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3	25.4	29.7	47.2	23.1	70.3	100.0	(2.1)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6	19.4	21.9	51.5	26.6	78.1	100.0	(2.0)
	1세대 가구	(874)	1.3	17.7	19.0	51.2	29.8	81.0	100.0	(1.9)
	2세대 가구	(3,393)	0.8	13.8	14.6	55.4	30.1	85.4	100.0	(1.9)
	3세대 가구	(212)	1.0	15.9	17.0	42.6	40.4	83.0	100.0	(1.8)
	비친족가구	(5)	0.0	0.0	0.0	81.3	18.7	100.0	100.0	(1.8)

2. 결혼/가족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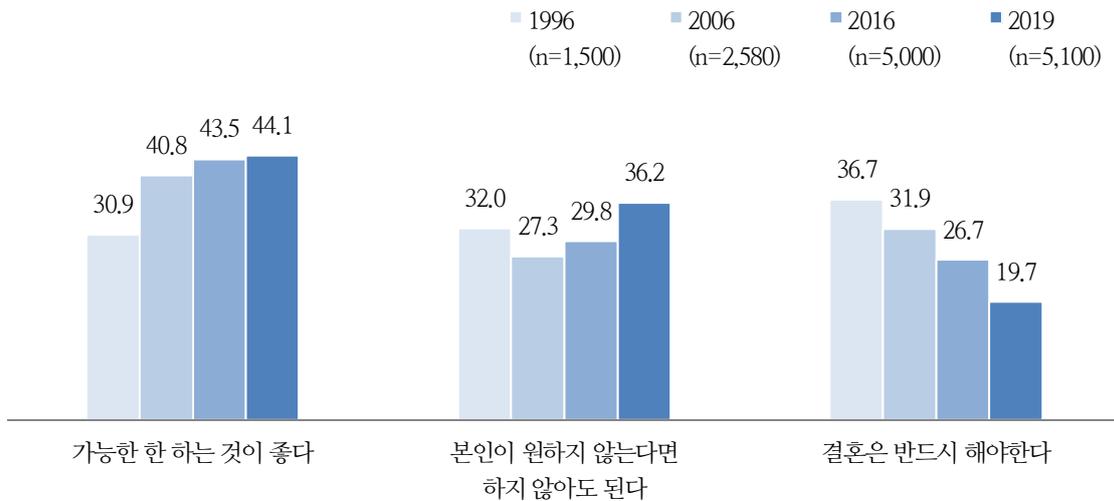
1)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44.1%)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36.2%),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19.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의 응답비율은 1996년 조사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7%p↓) 반면,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비율은 1996년 조사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3.2%p↑)

【 그림 3-14 】 결혼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단위 : %)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반드시 해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남성에서(6.2%p),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비율은 여성에서 높게 나타남(9.2%p)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청년층 7.4% → 노년층 41.9%), 반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노년층 18.9% → 청년층 57.8%)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기혼층(결혼 생활 중 + 사별, 이혼, 별거 등)에서 미혼층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반대로 미혼층에서는 기혼층(결혼 생활 중 + 사별, 이혼, 별거 등)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 3-14 】 응답자 특성별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계
전 체		(5,100)	44.1	36.2	19.7	100.0
성별	남자	(2,555)	45.6	31.6	22.8	100.0
	여자	(2,545)	42.6	40.8	16.6	100.0
연령	19~29세	(935)	34.8	57.8	7.4	100.0
	30~45세	(1,451)	46.7	41.7	11.5	100.0
	46~60세	(1,604)	50.6	30.5	18.8	100.0
	61~79세	(1,110)	39.1	18.9	41.9	100.0
지역	서울	(987)	45.8	33.9	20.3	100.0
	인천/경기	(1,576)	48.0	35.8	16.2	100.0
	대전/충청/세종	(536)	47.8	35.7	16.5	100.0
	광주/전라	(497)	41.0	30.2	28.8	100.0
	대구/경북	(504)	37.2	41.8	21.0	100.0
	부산/울산/경남	(786)	41.7	38.1	20.1	100.0
	강원	(151)	28.1	44.1	27.8	100.0
	제주	(64)	37.3	45.0	17.7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36.6	55.4	8.0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8.1	27.8	24.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7.6	33.4	29.0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8.1	46.4	15.4	100.0
	1세대 가구	(874)	41.2	20.7	38.1	100.0
	2세대 가구	(3,393)	46.3	37.8	15.9	100.0
	3세대 가구	(212)	39.4	44.7	15.9	100.0
	비친족가구	(5)	18.7	66.0	15.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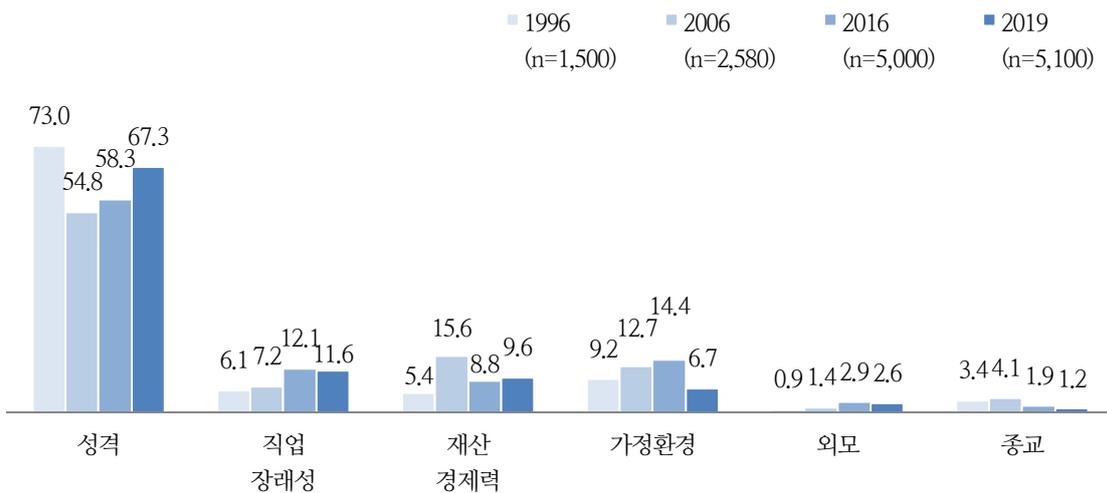
2) 배우자 선택 기준⁸⁾

-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성격’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67.3%). 다음으로는 ‘직업의 장래성’(11.6%), ‘재산/경제력’(9.6%), ‘가정환경’(6.7%)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격’의 응답비율은 1996년 조사 이후, 2006년 조사에서 크게 감소하였다가(18.2%p↓) 이후 조사부터 점차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12.5%p↑)
- 반면, ‘가정환경’의 응답비율은 1996년 조사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조사에서는 2016년 대비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음(7.7%↓)

【 그림 3-15 】 배우자 선택 기준_1순위

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위 : %)



8) 2013년 조사의 경우,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것을 복수 선택 형식으로 살펴보았음. 이에, 다른 연도의 조사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그래프에 2013년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 성별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인 경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보다 성격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6.8%p). 반면 여성에서 남성보다 직업(장래성)과 재산(경제력)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각각 4.6%p, 5.0%p)
- 연령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사별, 이혼, 별거중인 상태의 기혼층에서 미혼 또는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보다 ‘성격’을 꼽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각각 3.6%p 4.6%p)

【 표 3-15 】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선택 기준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성격	직업 (장래성)	재산 (경제력)	가정환경	외모	종교	학력/학벌	취미	기타	계
전 체		(5,100)	67.3	11.6	9.6	6.7	2.6	1.2	0.6	0.2	0.2	100.0
성별	남자	(2,555)	70.7	9.3	7.1	6.8	3.9	0.8	0.9	0.3	0.3	100.0
	여자	(2,545)	63.9	13.9	12.1	6.6	1.4	1.5	0.4	0.1	0.0	100.0
연령	19~29세	(935)	65.8	12.2	8.9	4.7	6.0	1.2	0.5	0.5	0.2	100.0
	30~45세	(1,451)	67.4	11.5	10.8	5.2	2.8	1.6	0.3	0.1	0.1	100.0
	46~60세	(1,604)	69.3	11.1	9.5	6.5	1.4	1.0	0.8	0.1	0.1	100.0
	61~79세	(1,110)	65.4	11.8	8.8	10.6	1.2	0.7	1.0	0.2	0.2	100.0
지역	서울	(987)	69.7	10.0	9.5	6.8	2.3	0.8	0.7	0.1	0.0	100.0
	인천/경기	(1,576)	64.6	14.7	9.1	5.7	3.5	1.5	0.5	0.2	0.1	100.0
	대전/충청/세종	(536)	57.5	15.3	13.1	7.1	4.7	1.2	0.7	0.3	0.1	100.0
	광주/전라	(497)	70.3	9.2	7.3	8.2	1.8	1.2	1.0	0.4	0.5	100.0
	대구/경북	(504)	64.4	8.2	13.6	11.6	0.6	0.4	1.0	0.3	0.0	100.0
	부산/울산/경남	(786)	72.7	9.6	8.3	5.5	1.9	1.0	0.6	0.1	0.3	100.0
	강원	(151)	79.1	9.5	6.2	0.8	2.3	2.1	0.0	0.0	0.0	100.0
제주	(64)	80.3	3.1	6.5	5.3	0.8	3.3	0.0	0.0	0.7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67.7	11.6	8.3	4.7	5.5	1.2	0.5	0.3	0.1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66.7	11.5	10.4	7.5	1.5	1.2	0.8	0.2	0.2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71.3	12.5	8.1	7.3	0.5	0.2	0.0	0.0	0.1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68.8	11.9	8.7	4.7	4.0	1.2	0.4	0.3	0.1	100.0
	1세대 가구	(874)	64.8	12.8	10.8	8.2	1.6	0.7	0.4	0.3	0.4	100.0
	2세대 가구	(3,393)	67.6	11.2	9.6	6.6	2.8	1.3	0.7	0.2	0.1	100.0
	3세대 가구	(212)	67.3	12.4	8.1	9.0	0.6	0.9	1.3	0.4	0.0	100.0
	비친족가구	(5)	86.6	0.0	0.0	0.0	0.0	0.0	0.0	0.0	13.4	100.0

- 성별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 남성은 가정환경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27.5%). 반면 여성은 직업(장래성)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28.9%)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서 살펴 본 결과,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에서 미혼과 결혼 생활 중인 기혼 층보다 직업(장래성)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각각 9.4%p, 10.3%p)

【 표 3-16 】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선택 기준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업 (장래성)	가정환경	재산 (경제력)	성격	외모	종교	학력/학벌	취미	기타	계
전 체		(5,099)	24.3	23.5	20.5	15.1	9.9	2.5	2.1	1.9	0.2	100.0
성별	남자	(2,554)	19.6	27.5	15.6	13.3	16.0	2.5	2.4	2.9	0.3	100.0
	여자	(2,545)	28.9	19.6	25.4	17.0	3.8	2.6	1.8	0.8	0.2	100.0
연령	19~29세	(935)	26.3	13.9	19.5	14.8	17.1	2.4	2.5	3.4	0.1	100.0
	30~45세	(1,450)	21.4	21.8	22.3	14.5	13.0	2.9	2.2	1.9	0.2	100.0
	46~60세	(1,604)	26.1	26.8	20.9	13.7	6.2	2.5	2.1	1.4	0.3	100.0
	61~79세	(1,110)	23.6	29.2	18.2	18.3	5.2	2.4	1.6	1.1	0.3	100.0
지역	서울	(987)	22.0	25.1	21.6	11.7	13.2	2.8	2.6	0.7	0.2	100.0
	인천/경기	(1,576)	23.7	19.9	18.7	15.7	13.0	3.9	2.9	2.1	0.1	100.0
	대전/충청/세종	(535)	26.2	25.8	17.3	19.3	7.1	1.4	1.6	1.2	0.1	100.0
	광주/전라	(497)	26.1	25.0	19.3	17.6	6.3	1.2	0.9	2.9	0.6	100.0
	대구/경북	(504)	23.6	27.8	21.4	16.1	5.7	1.2	1.9	2.0	0.4	100.0
	부산/울산/경남	(786)	26.5	22.0	24.3	14.5	7.1	2.3	1.6	1.6	0.1	100.0
	강원	(151)	23.1	28.9	22.1	10.6	9.0	0.9	0.5	5.0	0.0	100.0
제주	(64)	21.5	32.1	21.8	10.4	4.7	2.3	0.0	5.4	1.8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24.3	17.2	18.4	14.1	17.9	2.8	2.1	3.0	0.2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09)	23.4	26.1	21.3	16.0	6.8	2.5	2.3	1.4	0.2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3.7	26.6	21.6	11.0	4.2	1.6	0.2	0.5	0.6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7.0	21.1	18.8	14.0	12.1	2.5	2.5	1.7	0.3	100.0
	1세대 가구	(874)	23.4	27.9	18.2	18.6	6.3	2.0	2.0	1.4	0.3	100.0
	2세대 가구	(3,392)	24.1	22.9	21.3	14.6	10.2	2.5	2.2	2.0	0.2	100.0
	3세대 가구	(212)	22.3	23.4	20.1	13.4	13.6	5.9	0.0	1.2	0.0	100.0
	비친족가구	(5)	9.2	18.1	38.6	13.4	9.1	0.0	0.0	11.7	0.0	100.0

- 응답 결과를 중복으로 처리한 1 + 2순위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 전반적인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보다 가정환경과 외모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8.1%p, 14.7%p).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직업(장래성)과 재산(경제력)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4.0%p, 14.8%p)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서 살펴 본 결과,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에서 미혼과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보다 직업(장래성)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각각 9.4%p, 10.3%p)

【 표 3-17 】 응답자 특성별 배우자 선택 기준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성격	직업 (장래성)	가정환경	재산 (경제력)	외모	종교	학력/학벌	취미	기타
전 체		(5,100)	82.4	35.8	30.2	30.1	12.5	3.7	2.7	2.1	0.4
성별	남자	(2,555)	84.0	28.9	34.3	22.7	19.9	3.3	3.3	3.2	0.5
	여자	(2,545)	80.8	42.9	26.2	37.5	5.2	4.1	2.2	0.9	0.2
연령	19~29세	(935)	80.7	38.5	18.7	28.4	23.2	3.6	2.9	3.9	0.2
	30~45세	(1,451)	81.9	32.9	26.9	33.1	15.8	4.5	2.6	2.0	0.3
	46~60세	(1,604)	83.0	37.2	33.4	30.5	7.6	3.5	2.9	1.6	0.4
	61~79세	(1,110)	83.7	35.4	39.8	27.1	6.4	3.1	2.6	1.4	0.6
지역	서울	(987)	81.4	32.0	31.9	31.2	15.5	3.6	3.3	0.8	0.2
	인천/경기	(1,576)	80.3	38.4	25.5	27.8	16.5	5.4	3.4	2.3	0.2
	대전/충청/세종	(536)	76.8	41.5	32.8	30.3	11.8	2.5	2.3	1.5	0.2
	광주/전라	(497)	87.9	35.3	33.3	26.7	8.1	2.5	1.9	3.3	1.1
	대구/경북	(504)	80.5	31.8	39.4	34.9	6.3	1.5	2.9	2.3	0.4
	부산/울산/경남	(786)	87.3	36.1	27.5	32.5	9.0	3.3	2.2	1.7	0.4
	강원	(151)	89.7	32.6	29.7	28.3	11.3	3.0	0.5	5.0	0.0
	제주	(64)	90.7	24.7	37.4	28.3	5.5	5.5	0.0	5.4	2.5
결혼상태	미혼	(1,493)	81.8	35.9	22.0	26.8	23.4	3.9	2.5	3.4	0.3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82.7	34.9	33.6	31.6	8.3	3.8	3.1	1.6	0.4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82.3	46.3	33.9	29.7	4.6	1.8	0.2	0.5	0.7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82.8	38.9	25.7	27.6	16.1	3.7	3.0	2.0	0.3
	1세대 가구	(874)	83.4	36.2	36.0	29.0	7.9	2.7	2.5	1.7	0.6
	2세대 가구	(3,393)	82.2	35.3	29.4	30.9	13.0	3.8	2.9	2.2	0.3
	3세대 가구	(212)	80.7	34.7	32.4	28.2	14.2	6.8	1.3	1.6	0.0
	비친족가구	(5)	100.0	9.2	18.1	38.6	9.1	0.0	0.0	11.7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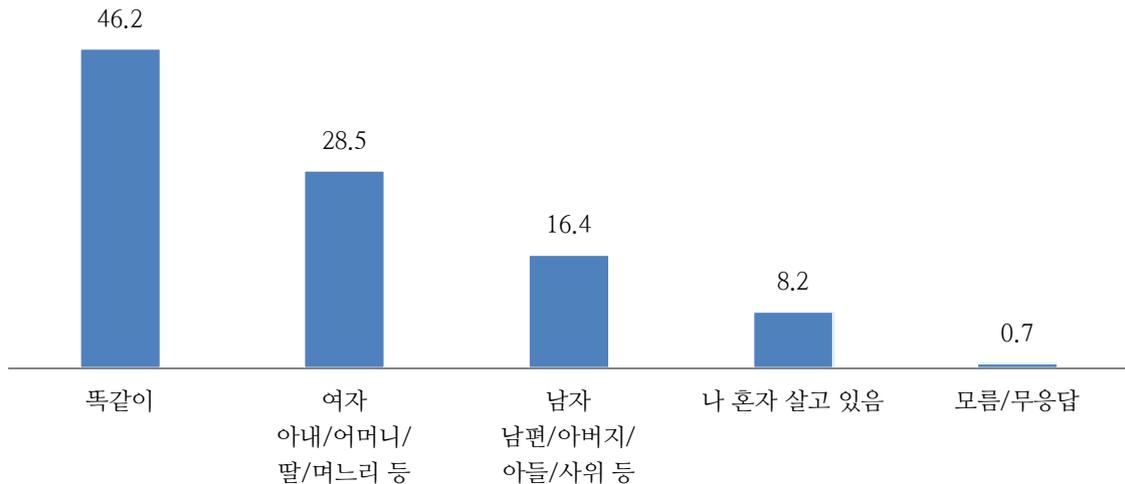
3)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 ‘집안일의 의사결정권을 누가 더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 본 결과, ‘**똑같이**’(46.2%)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여자/아내/어머니/딸/며느리 등**’(28.5%), ‘**남자/남편/아버지/아들/사위 등**’(1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당 문항은 전기 조사에서의 측정 문항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수치의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는 불가함. 하지만 전기 조사에서 발표한 수치와 전반적인 경향성(똑같이-여성-남성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남

【 그림 3-16 】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문) 귀하 가정의 경우 다양한 집안일(생활비 지출, 주거 결정, 자녀 교육, 집안 행사, 부모 봉양 등)에 대해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 n=5,100)



구 분	아버지/남편			어머니/아내			똑같이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생활비	16.6	12.9	9.6	72.1	59.0	67.2	11.2	28.0	23.2
이사	40.9	18.1	16.5	25.4	23.9	31.8	33.2	58.0	51.8
자녀교육	15.6	6.7	6.1	56.9	41.4	55.7	27.2	51.9	38.2
행사 및 모임	35.7	16.1	11.3	32.1	21.8	35.8	32.0	62.0	52.9
부모봉양	37.0	17.3	12.2	27.3	14.6	28.8	34.2	68.0	59.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집안일의 의사결정권이 ‘똑같다’는 항목의 응답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 하지만, ‘남자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의 응답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서(5.8%p), ‘여자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의 응답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6.5%p)

【 표 3-18 】 응답자 특성별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단위 : %)

구 분		사례수	똑같이	여자 (아내/어머니/딸/ 며느리 등)	남자 (남편/아버지/아들/ 사위 등)	나 혼자 살고 있음	모름/무응답	계
전 체		(5,100)	46.2	28.5	16.4	8.2	0.7	100.0
성별	남자	(2,555)	46.0	25.3	19.3	8.7	0.7	100.0
	여자	(2,545)	46.3	31.8	13.5	7.8	0.6	100.0
연령	19~29세	(935)	49.7	26.8	14.8	7.5	1.2	100.0
	30~45세	(1,451)	49.4	26.5	12.6	10.7	0.8	100.0
	46~60세	(1,604)	49.3	29.9	16.6	3.8	0.4	100.0
	61~79세	(1,110)	34.4	30.7	22.5	12.1	0.4	100.0
지역	서울	(987)	44.2	32.4	15.2	7.5	0.7	100.0
	인천/경기	(1,576)	50.2	28.3	14.1	6.7	0.7	100.0
	대전/충청/세종	(536)	41.2	31.2	17.2	9.6	0.7	100.0
	광주/전라	(497)	41.6	21.7	25.8	10.2	0.6	100.0
	대구/경북	(504)	46.7	28.3	15.9	8.4	0.7	100.0
	부산/울산/경남	(786)	50.3	25.9	14.5	8.8	0.6	100.0
	강원	(151)	30.2	34.5	19.4	15.7	0.2	100.0
	제주	(64)	37.4	23.9	31.7	6.0	1.0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43.7	24.9	13.6	16.5	1.2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0.2	31.0	18.3	0.1	0.4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3.1	18.9	9.3	57.3	1.4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3.9	12.4	5.6	68.1	0.0	100.0
	1세대 가구	(874)	43.9	32.1	23.1	0.0	0.9	100.0
	2세대 가구	(3,393)	52.1	30.7	16.4	0.0	0.7	100.0
	3세대 가구	(212)	54.6	25.1	19.3	0.0	1.0	100.0
	비친족가구	(5)	35.2	24.6	26.9	0.0	1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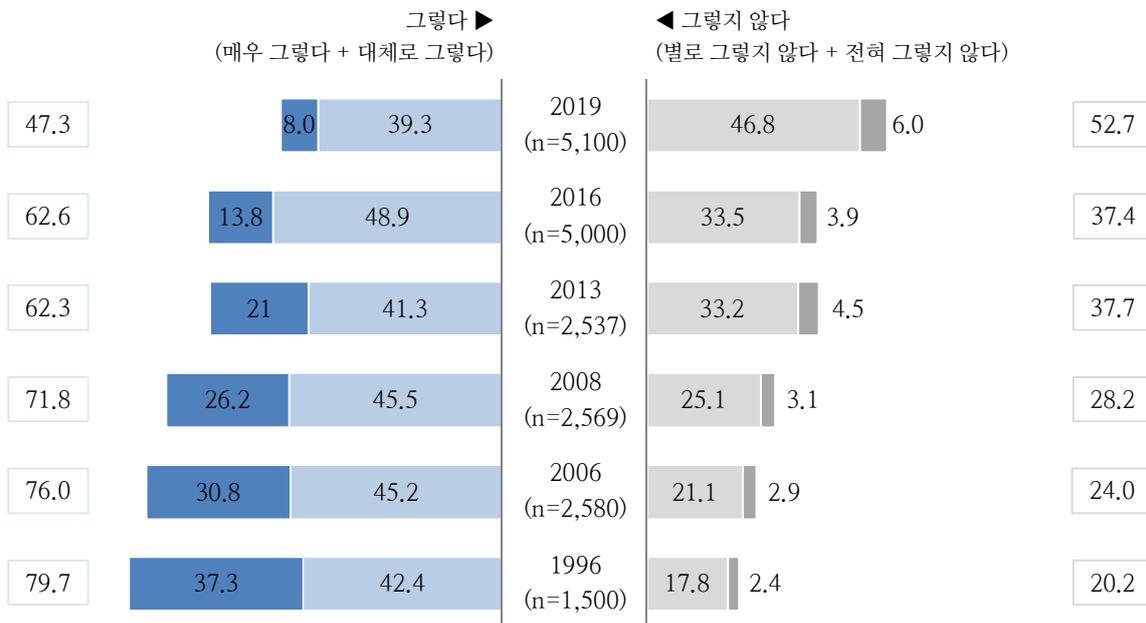
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혼전순결

- ‘혼전순결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52.7%(별로 그렇지 않다 46.8% + 전혀 그렇지 않다 6.0%),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47.3%로 나타남(매우 그렇다 8.0% + 대체로 그렇다 39.3%)
- 1996년 조사 이후,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32.5%p ↑),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 구체적으로, 1996년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와 같은 강력한 의사표시는 줄어들었으며(29.3%p ↓), ‘별로 그렇지 않다’와 같은 비교적 온건한 의사표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9.0%p ↑)

【 그림 3-17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혼전순결

문)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혼전순결에 대한 의견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남자든 여자든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가진 비율이 비슷함
-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남. 즉, 청년층의 경우 26.5%가 지켜야 한다, 73.5%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노년층의 경우 청년층과 완벽한 대칭에 가까운 비율인 27.3%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72.7%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결혼상태별로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에서 지켜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62.0%로 미혼층 26.8%보다 2.3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는 1세대 가구에서 63.4%가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가족구성원 유형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표 3-19 】 응답자 특성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혼전순결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8.0	39.3	47.3	46.8	6.0	52.7	100.0	(2.5)	
성별	남자	(2,555)	8.0	38.5	46.4	47.9	5.7	53.6	100.0	(2.5)
	여자	(2,545)	8.0	40.1	48.1	45.7	6.2	51.9	100.0	(2.5)
연령	19~29세	(935)	3.7	22.8	26.5	60.9	12.6	73.5	100.0	(2.2)
	30~45세	(1,451)	4.3	30.1	34.4	58.4	7.2	65.6	100.0	(2.3)
	46~60세	(1,604)	7.7	45.7	53.4	42.4	4.3	46.6	100.0	(2.6)
	61~79세	(1,110)	17.0	55.7	72.7	26.1	1.2	27.3	100.0	(2.9)
지역	서울	(987)	7.5	39.0	46.5	48.2	5.3	53.5	100.0	(2.5)
	인천/경기	(1,576)	6.0	38.2	44.3	50.9	4.8	55.7	100.0	(2.5)
	대전/충청/세종	(536)	2.3	39.1	41.4	49.9	8.6	58.6	100.0	(2.4)
	광주/전라	(497)	17.5	37.3	54.8	40.4	4.7	45.2	100.0	(2.7)
	대구/경북	(504)	10.0	39.7	49.8	41.5	8.8	50.2	100.0	(2.5)
	부산/울산/경남	(786)	7.3	44.6	51.9	43.4	4.7	48.1	100.0	(2.5)
	강원	(151)	15.1	31.5	46.7	41.9	11.5	53.3	100.0	(2.5)
	제주	(64)	13.3	34.4	47.7	39.8	12.5	52.3	100.0	(2.5)
결혼상태	미혼	(1,493)	4.0	22.9	26.8	61.9	11.2	73.2	100.0	(2.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9.1	46.1	55.2	41.0	3.9	44.8	100.0	(2.6)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6.0	45.9	62.0	35.5	2.5	38.0	100.0	(2.8)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8.2	32.6	40.7	51.1	8.2	59.3	100.0	(2.4)
	1세대 가구	(874)	12.0	51.5	63.4	33.1	3.4	36.6	100.0	(2.7)
	2세대 가구	(3,393)	6.7	37.9	44.5	49.2	6.2	55.5	100.0	(2.4)
	3세대 가구	(212)	12.2	31.8	44.0	51.0	5.0	56.0	100.0	(2.5)
	비친족가구	(5)	18.1	0.0	18.1	55.7	26.2	81.9	100.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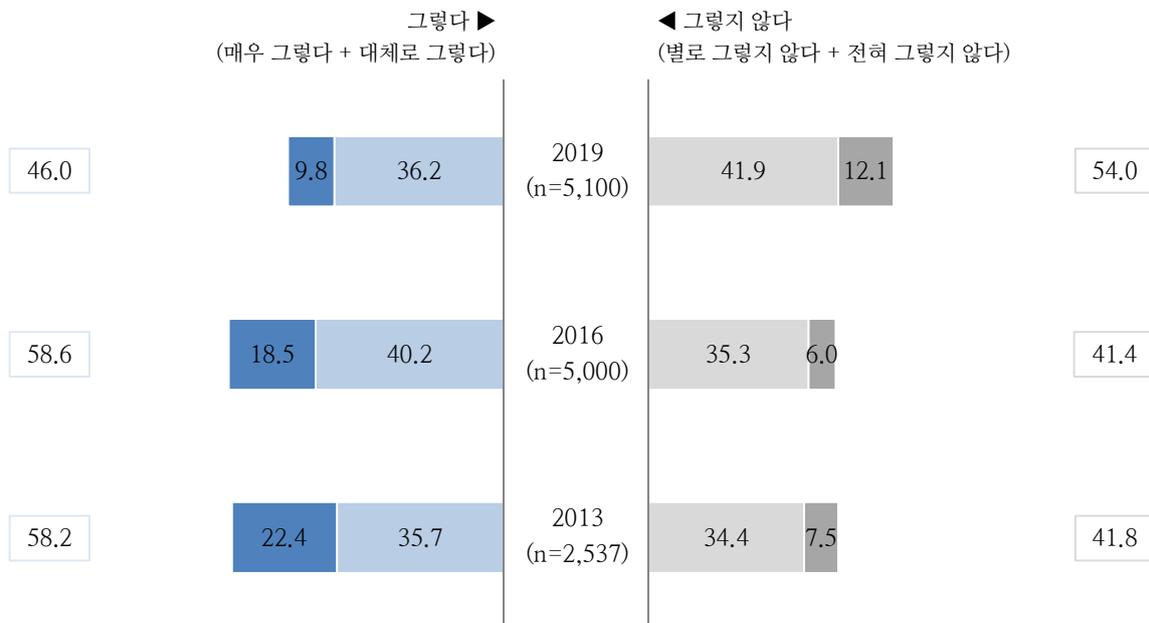
5)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이혼

-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54.0%(별로 그렇지 않다 41.9% + 전혀 그렇지 않다 12.1%),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46.0%로 나타남(매우 그렇다 9.8% + 대체로 그렇다 36.2%)
- 2013/2016년 조사에 비해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혼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각각 12.2%p ↑, 12.6%p ↑)

【 그림 3-18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이혼

문)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에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49.4%로 여자 42.7%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청년층의 경우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26.5%에 그치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68.9%가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함
- 결혼 상태별로 보면, 결혼생활 중인 기혼층과 사별, 이혼, 별거 상태중인 기혼층에서 미혼층에 비해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각각 24.5%p, 23.5%p)

【 표 3-20 】 응답자 특성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이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9.8	36.2	46.0	41.9	12.1	54.0	100.0	(2.4)	
성별	남자	(2,555)	10.6	38.8	49.4	40.6	10.0	50.6	100.0	(2.5)
	여자	(2,545)	9.0	33.6	42.7	43.1	14.2	57.3	100.0	(2.4)
연령	19~29세	(935)	3.9	22.7	26.5	52.5	21.0	73.5	100.0	(2.1)
	30~45세	(1,451)	5.3	31.8	37.1	48.6	14.4	62.9	100.0	(2.3)
	46~60세	(1,604)	9.8	39.9	49.7	40.0	10.3	50.3	100.0	(2.5)
	61~79세	(1,110)	20.7	48.2	68.9	26.8	4.3	31.1	100.0	(2.9)
지역	서울	(987)	8.9	36.0	44.9	41.0	14.1	55.1	100.0	(2.4)
	인천/경기	(1,576)	7.8	35.9	43.7	44.8	11.5	56.3	100.0	(2.4)
	대전/충청/세종	(536)	3.6	37.9	41.5	47.2	11.3	58.5	100.0	(2.3)
	광주/전라	(497)	19.4	36.9	56.3	36.3	7.4	43.7	100.0	(2.7)
	대구/경북	(504)	13.1	38.1	51.2	34.1	14.7	48.8	100.0	(2.5)
	부산/울산/경남	(786)	8.7	38.3	47.0	42.1	10.9	53.0	100.0	(2.4)
	강원	(151)	21.1	18.7	39.7	41.9	18.4	60.3	100.0	(2.4)
제주	(64)	12.6	30.5	43.1	37.5	19.5	56.9	100.0	(2.4)	
결혼상태	미혼	(1,493)	3.8	25.3	29.1	51.0	19.9	70.9	100.0	(2.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1.9	41.2	53.1	38.4	8.5	46.9	100.0	(2.6)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6.4	36.2	52.6	34.5	12.9	47.4	100.0	(2.6)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9.4	31.6	41.0	42.0	17.1	59.0	100.0	(2.3)
	1세대 가구	(874)	16.6	44.0	60.6	32.2	7.2	39.4	100.0	(2.7)
	2세대 가구	(3,393)	7.9	35.5	43.5	44.1	12.5	56.5	100.0	(2.4)
	3세대 가구	(212)	12.9	29.3	42.2	45.8	12.0	57.8	100.0	(2.4)
	비친족가구	(5)	0.0	29.8	29.8	36.5	33.8	70.2	100.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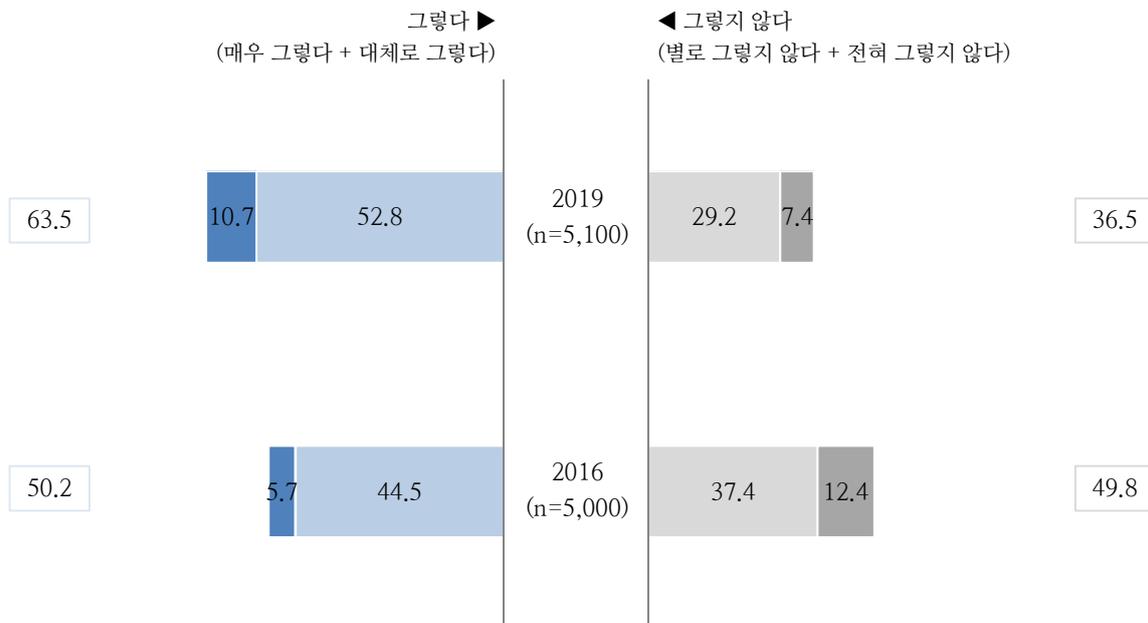
6)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63.5% (매우 그렇다 10.7% + 대체로 그렇다 52.8%),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36.5%로 나타남(별로 그렇지 않다 29.2% + 전혀 그렇지 않다 7.4%)
- 2016년 조사와 2019년 조사를 비교한 결과,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13.3%p 증가하여, 동거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19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문)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는 동거(사실혼)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의견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9.1%로 타 연령층 62~67%보다 더 낮게 나타남. 한 가지 특이한 지점은 청년층의 경우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62.4%로 장년층 67.0%보다 더 낮게 나타난 부분임
-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층(65.1%)이나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63.5%)에서 사별, 이혼, 별거 중인 기혼층(58.4%)보다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표 3-21 】 응답자 특성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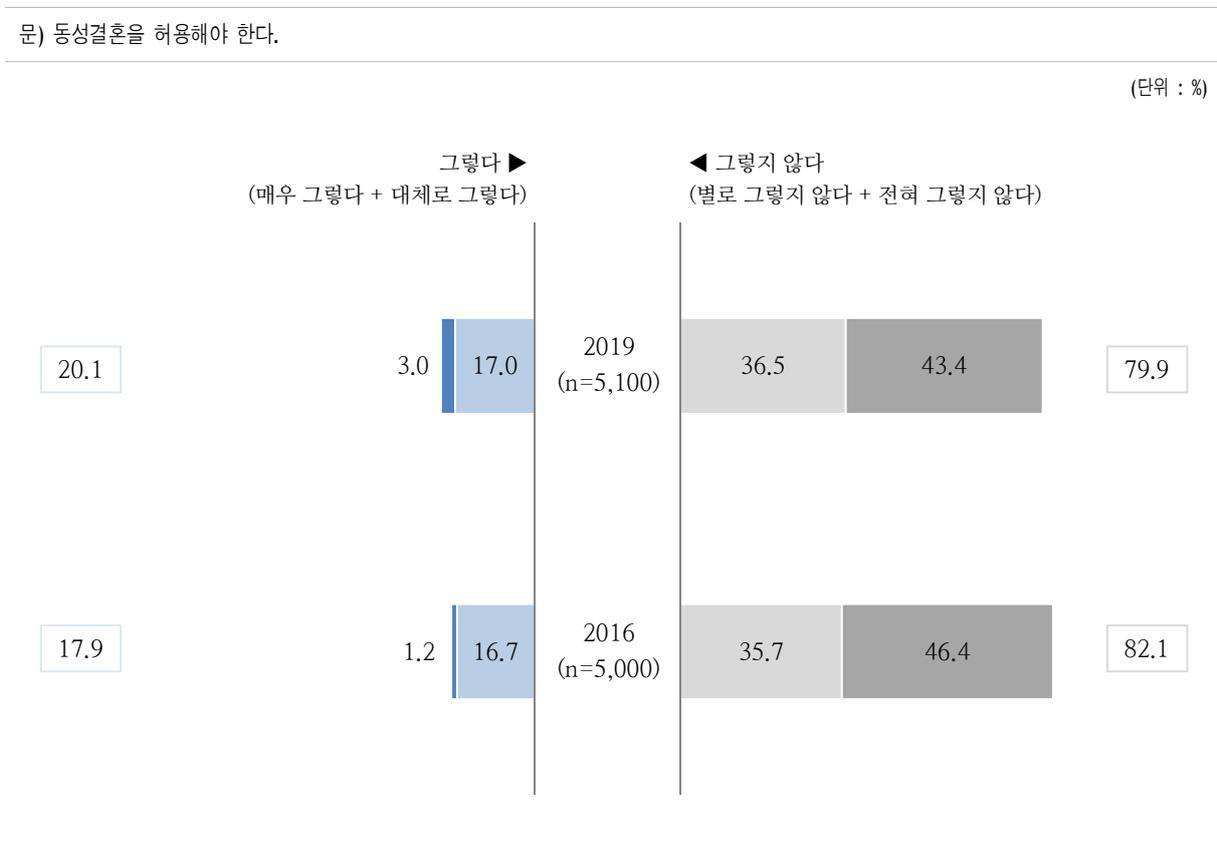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0.7	52.8	63.5	29.2	7.4	36.5	100.0	(2.7)	
성별	남자	(2,555)	10.9	53.8	64.7	28.1	7.2	35.3	100.0	(2.7)
	여자	(2,545)	10.4	51.8	62.3	30.3	7.5	37.7	100.0	(2.7)
연령	19~29세	(935)	8.6	53.8	62.4	29.7	7.9	37.6	100.0	(2.6)
	30~45세	(1,451)	10.1	56.9	67.0	26.0	6.9	33.0	100.0	(2.7)
	46~60세	(1,604)	11.0	52.8	63.9	28.7	7.4	36.1	100.0	(2.7)
	61~79세	(1,110)	12.5	46.6	59.1	33.5	7.4	40.9	100.0	(2.6)
지역	서울	(987)	11.6	45.3	56.9	30.4	12.7	43.1	100.0	(2.6)
	인천/경기	(1,576)	8.2	56.9	65.0	29.7	5.3	35.0	100.0	(2.7)
	대전/충청/세종	(536)	9.8	57.8	67.6	23.0	9.3	32.4	100.0	(2.7)
	광주/전라	(497)	13.7	57.1	70.8	24.6	4.6	29.2	100.0	(2.8)
	대구/경북	(504)	12.2	52.3	64.5	30.4	5.0	35.5	100.0	(2.7)
	부산/울산/경남	(786)	10.9	49.9	60.8	33.4	5.8	39.2	100.0	(2.7)
	강원	(151)	17.1	45.2	62.3	28.2	9.5	37.7	100.0	(2.7)
	제주	(64)	9.2	52.7	61.9	25.7	12.4	38.1	100.0	(2.6)
결혼상태	미혼	(1,493)	9.1	56.0	65.1	27.5	7.4	34.9	100.0	(2.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1.0	52.1	63.2	29.8	7.0	36.8	100.0	(2.7)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3.9	44.5	58.4	30.8	10.8	41.6	100.0	(2.6)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1.7	51.8	63.5	28.9	7.7	36.5	100.0	(2.7)
	1세대 가구	(874)	11.0	49.8	60.8	30.7	8.5	39.2	100.0	(2.6)
	2세대 가구	(3,393)	10.3	54.0	64.3	28.8	6.8	35.7	100.0	(2.7)
	3세대 가구	(212)	10.9	49.4	60.2	29.3	10.5	39.8	100.0	(2.6)
	비친족가구	(5)	18.1	58.8	76.9	23.1	0.0	23.1	100.0	(2.9)

7)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79.9% (별로 그렇지 않다 36.5% + 전혀 그렇지 않다 43.4%),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20.1%로 나타남(매우 그렇다 3.0% + 대체로 그렇다 17.0%)
- 2016년 조사와 2019년 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안된다(=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2016년에는 82.1%, 2019년 조사에서는 79.9%로 유사하게 나타남

【 그림 3-20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 성별에 따라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의견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저연령일수록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노년층 12.8% → 청년층 32.0%)
- 결혼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에서 기혼(결혼 생활 중 + 사별, 이혼, 별거 등)에 비해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2.0%p, 19.4%p)

【 표 3-22 】 응답자 특성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3.0	17.0	20.1	36.5	43.4	79.9	100.0	(1.8)	
성별	남자	(2,555)	2.8	16.9	19.7	37.3	43.1	80.3	100.0	(1.8)
	여자	(2,545)	3.2	17.2	20.5	35.8	43.8	79.5	100.0	(1.8)
연령	19~29세	(935)	4.9	27.1	32.0	35.5	32.5	68.0	100.0	(2.0)
	30~45세	(1,451)	3.2	18.7	21.9	39.4	38.7	78.1	100.0	(1.9)
	46~60세	(1,604)	2.4	14.0	16.5	37.7	45.9	83.5	100.0	(1.7)
	61~79세	(1,110)	2.1	10.7	12.8	31.9	55.3	87.2	100.0	(1.6)
지역	서울	(987)	4.1	21.1	25.2	39.9	34.8	74.8	100.0	(1.9)
	인천/경기	(1,576)	3.1	16.2	19.3	35.6	45.1	80.7	100.0	(1.8)
	대전/충청/세종	(536)	2.2	14.0	16.2	35.4	48.4	83.8	100.0	(1.7)
	광주/전라	(497)	3.1	16.1	19.1	32.0	48.8	80.9	100.0	(1.7)
	대구/경북	(504)	3.5	15.4	18.8	30.0	51.2	81.2	100.0	(1.7)
	부산/울산/경남	(786)	1.9	17.5	19.3	42.5	38.1	80.7	100.0	(1.8)
	강원	(151)	1.2	14.2	15.4	36.3	48.3	84.6	100.0	(1.7)
제주	(64)	4.6	24.4	29.0	28.5	42.6	71.0	100.0	(1.9)	
결혼상태	미혼	(1,493)	4.0	24.9	29.0	37.0	34.0	71.0	100.0	(2.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7	14.2	17.0	36.5	46.5	83.0	100.0	(1.7)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0.9	8.6	9.6	34.1	56.3	90.4	100.0	(1.5)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9	18.7	20.7	33.7	45.6	79.3	100.0	(1.8)
	1세대 가구	(874)	2.7	12.4	15.1	32.6	52.3	84.9	100.0	(1.7)
	2세대 가구	(3,393)	3.4	17.7	21.1	38.3	40.6	78.9	100.0	(1.8)
	3세대 가구	(212)	1.2	21.4	22.6	31.4	45.9	77.4	100.0	(1.8)
	비친족가구	(5)	3.9	26.4	30.2	66.1	3.7	69.8	100.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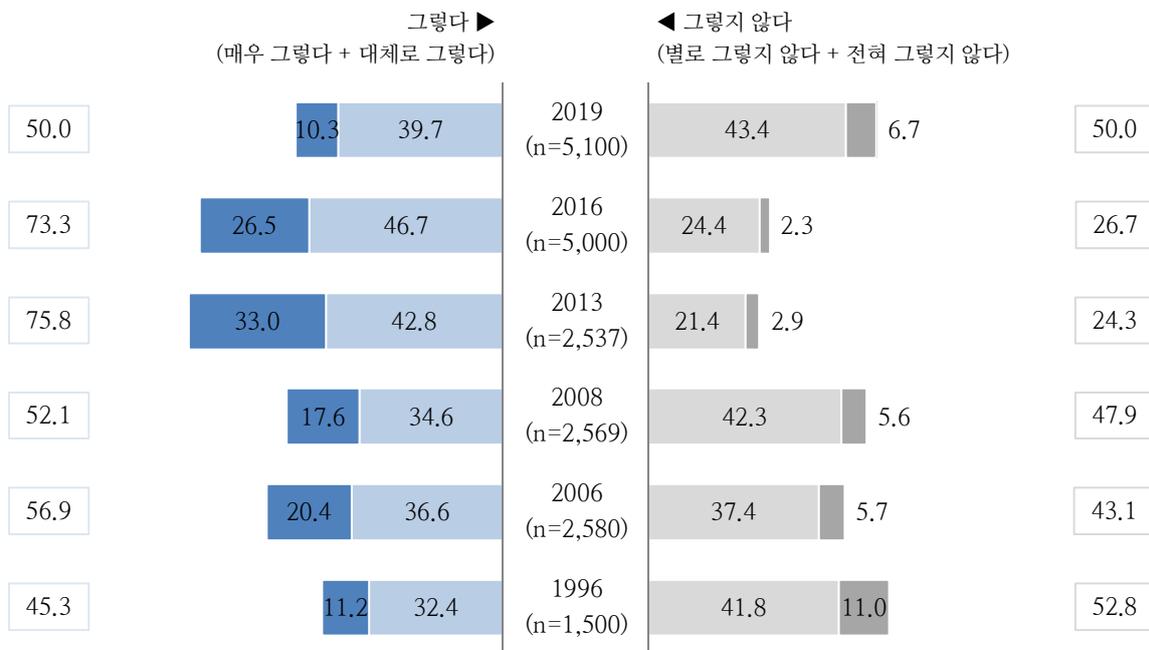
8)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낙태

-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정확하게 반반으로 의견이 갈림. 즉,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50.0%(별로 그렇지 않다 43.4% + 전혀 그렇지 않다 6.7%),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50.0%인 것으로 나타남(매우 그렇다 10.3% + 대체로 그렇다 39.7%)
- 1996년에는 ‘낙태는 해도 된다(=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52.8%), 이후 조사에서는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그렇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남. 그리고 2019년 조사에서는 양쪽의 의견이 동률인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21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낙태

문) 낙태는 해서는 안된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52.5%가, 여자의 경우 47.4%가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남자에서 조금 더 강하였음
- 연령에 따라서는, 고연령일수록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늘어남(청년층 39.5% → 노년층 64.7%)
-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층에서(결혼 생활 중 53.8%, 사별, 이혼, 별거 등 59.8%)에서 미혼층(39.5%)에 비해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각각 14.3%p, 20.3%p). 가족 구성원 유형에서 1인 가구인 경우 46.2%가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1세대 가구에서는 60.1%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임

【 표 3-23 】 응답자 특성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낙태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0.3	39.7	50.0	43.4	6.7	50.0	100.0	(2.5)	
성별	남자	(2,555)	10.9	41.6	52.5	41.9	5.5	47.5	100.0	(2.6)
	여자	(2,545)	9.6	37.8	47.4	44.8	7.8	52.6	100.0	(2.5)
연령	19~29세	(935)	6.5	33.0	39.5	50.3	10.1	60.5	100.0	(2.4)
	30~45세	(1,451)	7.9	34.0	42.0	50.8	7.2	58.0	100.0	(2.4)
	46~60세	(1,604)	10.1	43.0	53.1	40.8	6.1	46.9	100.0	(2.6)
	61~79세	(1,110)	16.7	48.0	64.7	31.4	3.9	35.3	100.0	(2.8)
지역	서울	(987)	9.4	37.0	46.4	47.3	6.3	53.6	100.0	(2.5)
	인천/경기	(1,576)	10.1	41.7	51.8	44.2	4.1	48.2	100.0	(2.6)
	대전/충청/세종	(536)	5.7	44.0	49.7	41.0	9.3	50.3	100.0	(2.5)
	광주/전라	(497)	22.6	38.7	61.3	31.8	7.0	38.7	100.0	(2.8)
	대구/경북	(504)	9.8	35.2	45.0	45.5	9.5	55.0	100.0	(2.5)
	부산/울산/경남	(786)	6.6	42.7	49.3	45.1	5.6	50.7	100.0	(2.5)
	강원	(151)	13.9	29.4	43.2	39.2	17.5	56.8	100.0	(2.4)
제주	(64)	9.1	29.3	38.4	45.0	16.7	61.6	100.0	(2.3)	
결혼상태	미혼	(1,493)	6.6	32.9	39.5	51.4	9.0	60.5	100.0	(2.4)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1.4	42.4	53.8	40.5	5.6	46.2	100.0	(2.6)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5.6	44.2	59.8	34.1	6.1	40.2	100.0	(2.7)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9.6	36.6	46.2	45.9	7.9	53.8	100.0	(2.5)
	1세대 가구	(874)	13.7	46.4	60.1	34.0	5.9	39.9	100.0	(2.7)
	2세대 가구	(3,393)	9.3	39.0	48.3	45.1	6.6	51.7	100.0	(2.5)
	3세대 가구	(212)	13.3	32.2	45.5	47.2	7.3	54.5	100.0	(2.5)
	비친족가구	(5)	0.0	48.5	48.5	42.3	9.2	51.5	10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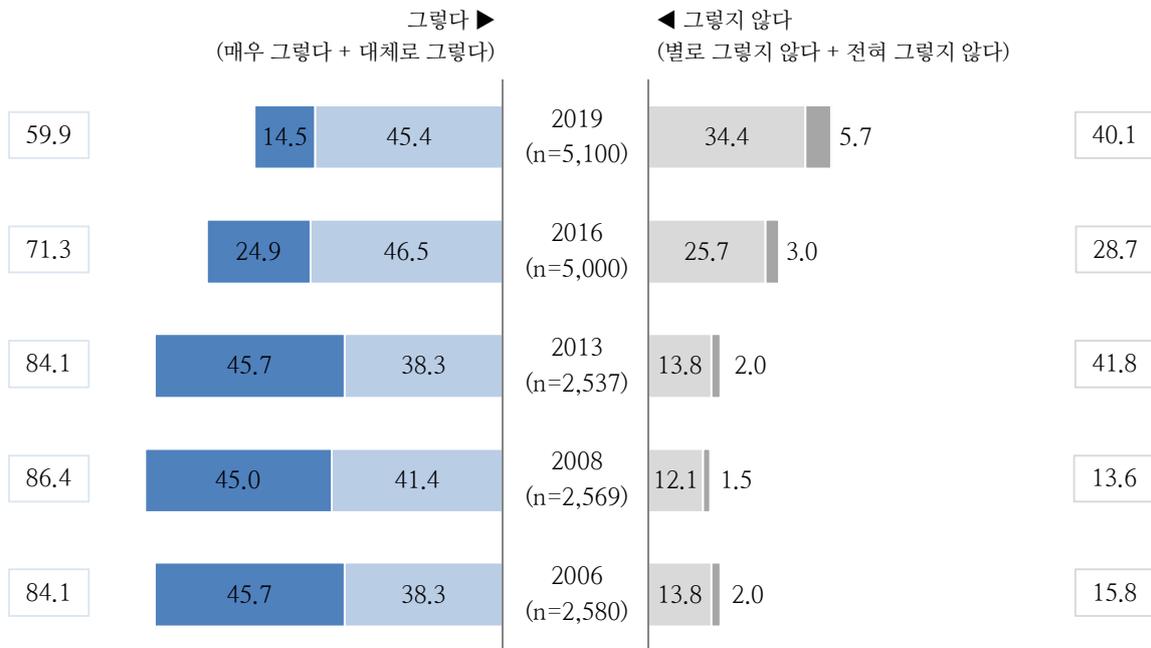
9)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자녀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59.9%(매우 그렇다 14.5% + 대체로 그렇다 45.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0.1%로 나타남(별로 그렇지 않다 34.4% + 전혀 그렇지 않다 5.7%)
- 2006년 조사 이후 여전히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그렇다)’의 응답비율이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두 응답 간 응답비율의 간극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2006년: 68.3%p, 2019년: 19.8%p)

【 그림 3-22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자녀

문)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0%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는, 고연령일수록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짐. 즉 청년층은 32.5%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노년층은 83.7%가 그렇다고 응답해 약 2.5배의 차이를 보임
- 결혼 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기혼층(결혼 생활 중 + 사별, 이혼, 별거 등)에서 미혼층에 비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38.7%p, 40.2%p 더 높게 나타남. 미혼층의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32.4%에 그친 반면, 기혼층은 71~72% 수준임. 가족 구성원 유형에 있어서도 1인 가구는 절반 정도(48.8%)만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세대 가구는 75.6%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 표 3-24 】 응답자 특성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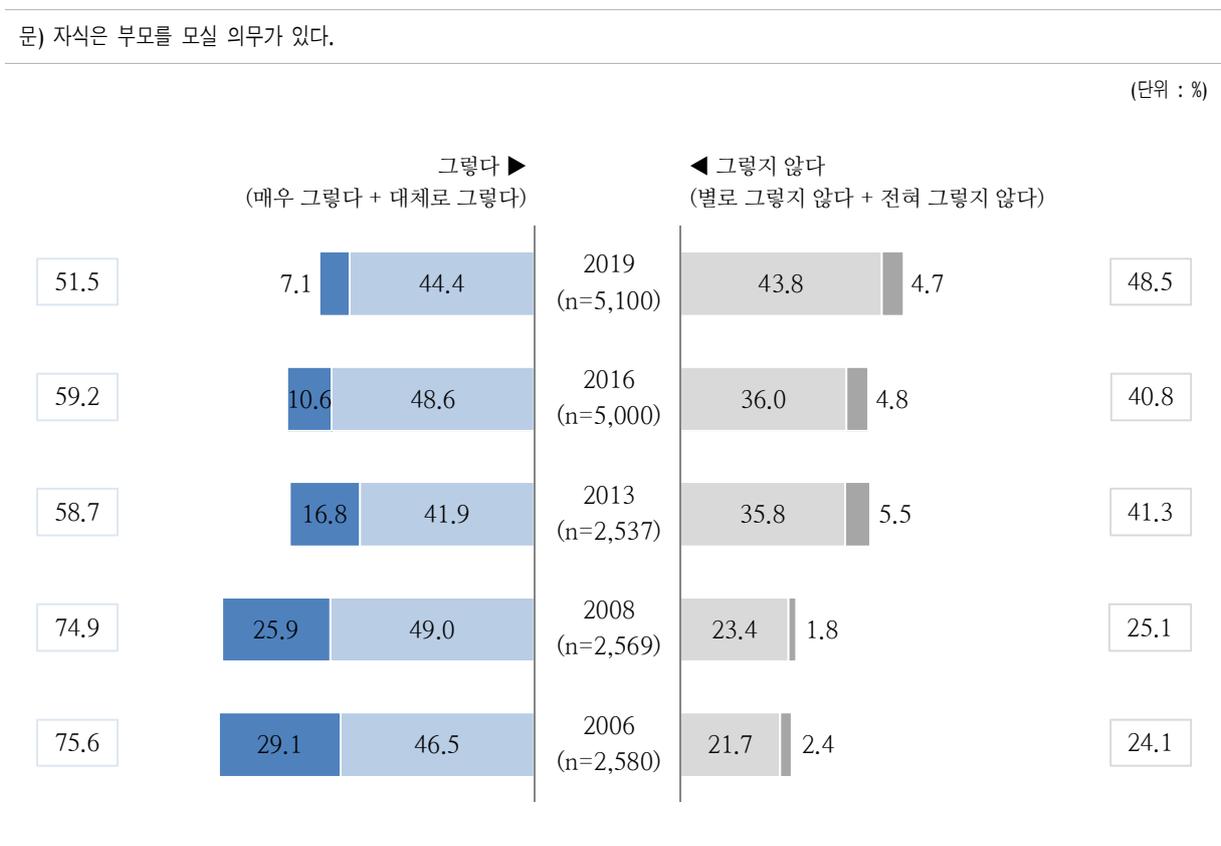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4.5	45.4	59.9	34.4	5.7	40.1	100.0	(2.7)	
성별	남자	(2,555)	14.9	45.6	60.5	34.3	5.3	39.5	100.0	(2.7)
	여자	(2,545)	14.2	45.1	59.3	34.6	6.1	40.7	100.0	(2.7)
연령	19~29세	(935)	3.6	28.8	32.5	55.8	11.7	67.5	100.0	(2.2)
	30~45세	(1,451)	7.7	42.7	50.4	42.4	7.2	49.6	100.0	(2.5)
	46~60세	(1,604)	15.1	52.9	68.0	28.1	4.0	32.0	100.0	(2.8)
	61~79세	(1,110)	31.8	51.9	83.7	15.2	1.1	16.3	100.0	(3.1)
지역	서울	(987)	10.7	46.5	57.2	36.5	6.3	42.8	100.0	(2.6)
	인천/경기	(1,576)	11.4	45.3	56.7	38.8	4.5	43.3	100.0	(2.6)
	대전/충청/세종	(536)	9.3	55.4	64.7	28.6	6.8	35.3	100.0	(2.7)
	광주/전라	(497)	31.2	45.6	76.8	20.1	3.1	23.2	100.0	(3.0)
	대구/경북	(504)	19.6	35.8	55.4	39.5	5.0	44.6	100.0	(2.7)
	부산/울산/경남	(786)	12.8	46.1	59.0	34.4	6.6	41.0	100.0	(2.7)
	강원	(151)	23.9	34.2	58.1	27.2	14.6	41.9	100.0	(2.7)
제주	(64)	22.7	35.9	58.7	31.6	9.7	41.3	100.0	(2.7)	
결혼상태	미혼	(1,493)	4.0	28.4	32.4	55.9	11.6	67.6	100.0	(2.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8.2	52.9	71.1	25.8	3.1	28.9	100.0	(2.9)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6.3	46.3	72.6	22.6	4.8	27.4	100.0	(2.9)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3.1	35.7	48.8	41.2	10.0	51.2	100.0	(2.5)
	1세대 가구	(874)	24.4	51.2	75.6	21.4	2.9	24.4	100.0	(3.0)
	2세대 가구	(3,393)	11.7	45.9	57.6	36.8	5.6	42.4	100.0	(2.6)
	3세대 가구	(212)	22.5	40.9	63.4	30.5	6.1	36.6	100.0	(2.8)
	비친족가구	(5)	29.8	22.6	52.4	42.3	5.3	47.6	100.0	(2.8)

10)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부모 봉양⁹⁾

-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51.5%(매우 그렇다 7.1% + 대체로 그렇다 44.4%),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48.5%로 나타남(별로 그렇지 않다 43.8% + 전혀 그렇지 않다 4.7%)
- 2006년 조사 이후,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그렇다)’의 응답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75.6% → 51.5%, 24.1%p ↓)

【 그림 3-23 】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부모 봉양



9) 1996년 조사에서 ‘부모 봉양 의무’는 4점 척도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모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있다’ 또는 ‘없다’ 응답으로만 조사하였음. 이에 1996년 자료는 그래프에 포함하지 않았음

참고로 1996년 조사에 따르면, 72.1%가 ‘자녀에게 부모 봉양 의무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26.8%가 ‘자녀에게 부모 봉양 의무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에 따라서는 의견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고연령일수록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청년층 42.9% → 노년층 62.3%)
- 결혼 상태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기혼(결혼 생활 중 + 사별, 이혼, 별거 등)에서 미혼에 비해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0.5%p, 5.3%p). 가족 유형별에 있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43.5%가 그렇다고 한 반면, 1세대 가구는 60.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소 차이를 보임

【 표 3-25 】 응답자 특성별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부모 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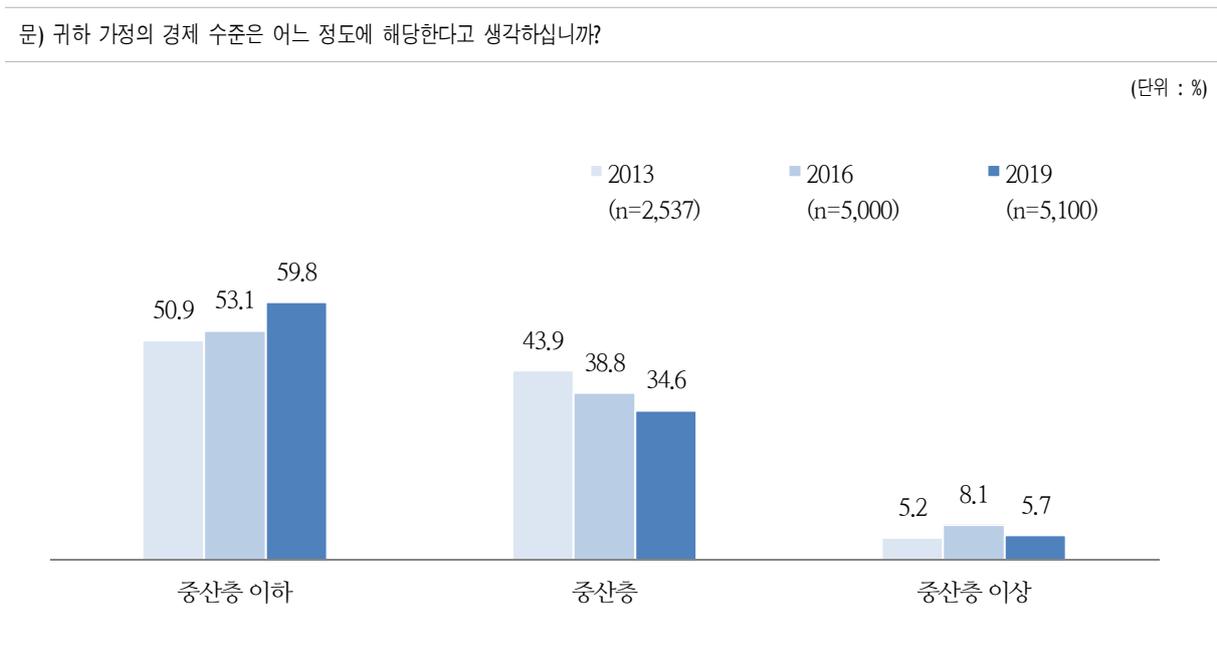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7.1	44.4	51.5	43.8	4.7	48.5	100.0	(2.5)	
성별	남자	(2,555)	8.6	45.6	54.2	42.5	3.3	45.8	100.0	(2.6)
	여자	(2,545)	5.6	43.2	48.8	45.0	6.2	51.2	100.0	(2.5)
연령	19~29세	(935)	5.6	37.3	42.9	51.8	5.3	57.1	100.0	(2.4)
	30~45세	(1,451)	5.0	41.7	46.8	47.6	5.6	53.2	100.0	(2.5)
	46~60세	(1,604)	6.5	46.9	53.4	41.3	5.4	46.6	100.0	(2.5)
	61~79세	(1,110)	12.1	50.2	62.3	35.5	2.1	37.7	100.0	(2.7)
지역	서울	(987)	5.0	43.5	48.5	46.5	5.0	51.5	100.0	(2.5)
	인천/경기	(1,576)	6.6	47.3	53.9	42.4	3.7	46.1	100.0	(2.6)
	대전/충청/세종	(536)	6.2	46.7	52.8	42.2	5.0	47.2	100.0	(2.5)
	광주/전라	(497)	15.9	47.4	63.3	33.7	3.0	36.7	100.0	(2.8)
	대구/경북	(504)	5.8	41.9	47.8	47.5	4.7	52.2	100.0	(2.5)
	부산/울산/경남	(786)	3.9	40.9	44.7	49.3	6.0	55.3	100.0	(2.4)
	강원	(151)	13.7	32.3	46.1	42.4	11.5	53.9	100.0	(2.5)
제주	(64)	27.7	35.2	62.9	31.0	6.1	37.1	100.0	(2.8)	
결혼상태	미혼	(1,493)	5.5	39.0	44.4	50.2	5.4	55.6	100.0	(2.4)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7.6	47.3	54.9	40.6	4.6	45.1	100.0	(2.6)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0.6	39.2	49.7	47.1	3.1	50.3	100.0	(2.6)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9	37.6	43.5	49.7	6.7	56.5	100.0	(2.4)
	1세대 가구	(874)	10.1	49.9	60.0	36.1	3.9	40.0	100.0	(2.7)
	2세대 가구	(3,393)	6.2	44.6	50.8	44.9	4.3	49.2	100.0	(2.5)
	3세대 가구	(212)	13.4	38.9	52.3	39.1	8.6	47.7	100.0	(2.6)
	비친족가구	(5)	11.7	18.8	30.5	69.5	0.0	69.5	100.0	(2.4)

11) 가정 경제 수준

-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중산층보다 낮다’의 응답비율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중산층이다’ 34.6%, ‘중산층보다 높다’ 5.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3년 조사 이후, 스스로를 ‘중산층보다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50.9% → 59.8%, 8.9%p ↑)

【 그림 3-25 】 가정 경제 수준



- 성별에 따라서는 인식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고연령일수록 ‘중산층’의 응답 비율은 줄어들고,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미혼 - 기혼(결혼 생활 중) - 기혼(사별, 이혼, 별거 등) 순으로 ‘중산층이다’의 응답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중산층보다 낮다’의 응답비율은 낮게 나타남. 또한 가족구성원 유형이 1인 가구인 경우에도 74.4%가 중산층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다른 가족 유형보다 더 높은 상황이었음

【 표 3-26 】 응답자 특성별 가정 경제 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중산층보다 낮다	중산층이다	중산층보다 높다	계
전 체		(5,100)	59.8	34.6	5.7	100.0
성별	남자	(2,555)	61.5	32.8	5.7	100.0
	여자	(2,545)	58.1	36.3	5.6	100.0
연령	19~29세	(935)	52.4	40.9	6.7	100.0
	30~45세	(1,451)	58.8	35.6	5.6	100.0
	46~60세	(1,604)	58.3	35.7	5.9	100.0
	61~79세	(1,110)	69.4	26.1	4.5	100.0
지역	서울	(987)	61.4	33.7	4.9	100.0
	인천/경기	(1,576)	65.9	29.6	4.5	100.0
	대전/충청/세종	(536)	58.6	37.2	4.2	100.0
	광주/전라	(497)	43.4	48.1	8.5	100.0
	대구/경북	(504)	61.8	31.3	6.9	100.0
	부산/울산/경남	(786)	57.4	35.9	6.7	100.0
	강원	(151)	56.2	35.6	8.3	100.0
	제주	(64)	42.0	51.2	6.8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56.5	37.3	6.2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9.5	34.8	5.7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79.5	18.4	2.1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74.4	22.7	2.9	100.0
	1세대 가구	(874)	65.2	29.6	5.2	100.0
	2세대 가구	(3,393)	56.1	37.7	6.2	100.0
	3세대 가구	(212)	53.2	40.2	6.6	100.0
	비친족가구	(5)	70.6	11.7	1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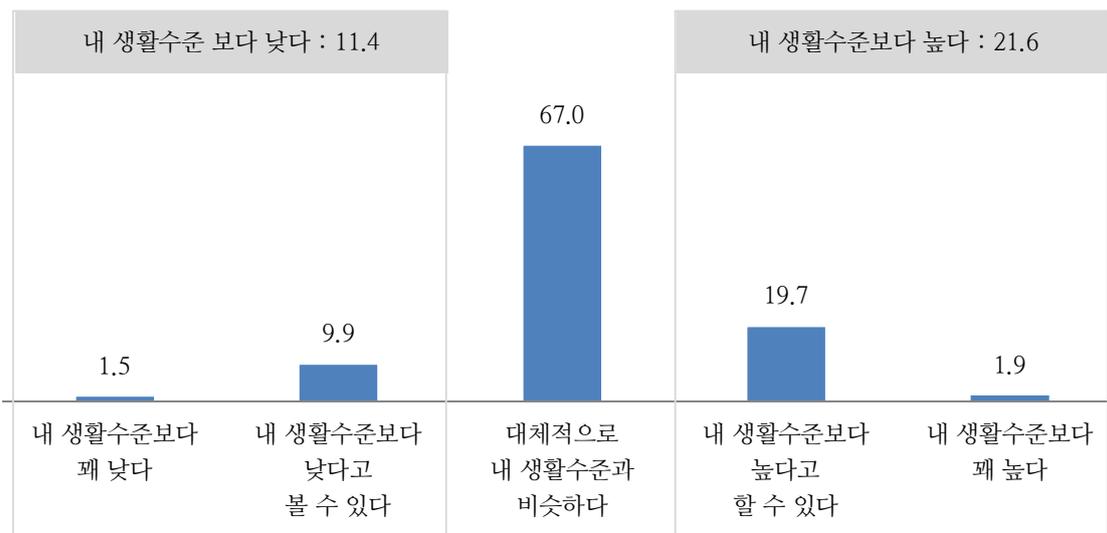
12)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67.0%)
- 다음으로는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19.7%), 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9.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구간으로 살펴보면,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의 응답비율은 21.6%로 나타났으며(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19.7% + 내 생활수준보다 꽤 높다 1.9%), '내 생활수준 보다 낮다'의 응답비율은 11.4%로 나타남(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9.9% + 내 생활수준보다 꽤 낮다 1.5%)

【 그림 3-26 】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문) 귀하는 귀하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귀하의 생활수준보다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비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노년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체적으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58.9%)의 응답비율은 줄어들고, 다른 선택지들의 응답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결혼상태가 사별, 이혼, 별거 등의 기혼층일 경우에 주변이 나보다 더 높다는 응답비율이 38.6%(높다고 할 수 30.2% + 꽤 높다 8.4%)로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도 1인 가구인 경우에 35.3%(높다고 할 수 29.9% + 꽤 높다 5.4%)로 비교적 높음

【 표 3-27 】 응답자 특성별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 생활수준보다 꽤 낮다	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내 생활수준보다 꽤 높다	계
전 체		(5,100)	1.5	9.9	67.0	19.7	1.9	100.0
성별	남자	(2,555)	1.5	10.2	65.6	20.9	1.8	100.0
	여자	(2,545)	1.5	9.7	68.3	18.6	1.9	100.0
연령	19~29세	(935)	1.3	7.8	71.1	18.3	1.5	100.0
	30~45세	(1,451)	1.0	10.9	67.5	18.7	1.9	100.0
	46~60세	(1,604)	1.2	8.8	69.7	18.8	1.4	100.0
	61~79세	(1,110)	2.6	12.0	58.9	23.6	3.0	100.0
지역	서울	(987)	1.5	9.6	63.7	22.3	2.9	100.0
	인천/경기	(1,576)	0.7	13.5	68.8	16.7	0.2	100.0
	대전/충청/세종	(536)	0.7	9.0	66.0	21.6	2.8	100.0
	광주/전라	(497)	2.2	6.8	68.9	20.3	1.7	100.0
	대구/경북	(504)	2.2	5.4	66.9	23.3	2.2	100.0
	부산/울산/경남	(786)	2.5	9.7	67.9	17.7	2.2	100.0
	강원	(151)	1.6	7.8	61.0	24.3	5.4	100.0
제주	(64)	1.5	3.6	66.4	22.5	6.0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1.8	8.4	68.2	19.6	1.9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1	10.9	67.9	18.8	1.3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6	7.5	50.2	30.2	8.4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4.0	7.6	53.1	29.9	5.4	100.0
	1세대 가구	(874)	2.4	12.2	63.6	20.1	1.6	100.0
	2세대 가구	(3,393)	0.8	9.8	70.1	18.0	1.3	100.0
	3세대 가구	(212)	0.0	10.4	70.8	16.0	2.7	100.0
	비친족가구	(5)	20.9	0.0	55.6	23.5	0.0	100.0

3. 일/여가/노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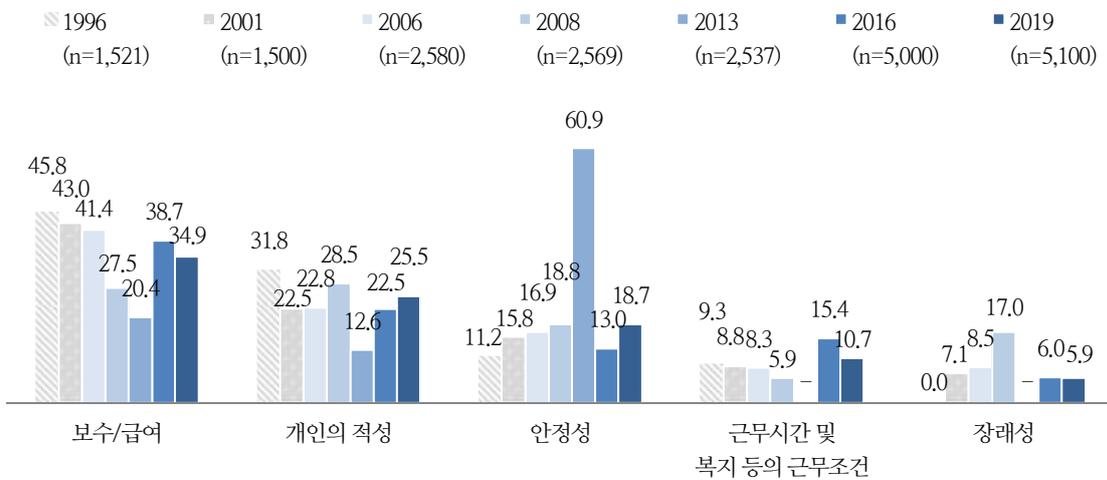
1)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¹⁰⁾

-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보수/급여’(34.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개인의 적성’(25.5%), ‘안정성’(18.7%),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10.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3년 조사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1996년 조사 이후 ‘보수/급여’의 응답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0.9%p↓), ‘안정성’의 응답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7.5%p↑)

【 그림 3-27 】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_1순위

문) 귀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0) 2013년 조사에서는 기존의 ‘안정성’ 선택지를 ‘직업의 안정성’으로 변경하였음

- 성별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직업선택 시 중요한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보수/급여의(각각 36.3%, 33.5%)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직업선택 시 중요한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보수/급여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결혼상태 및 가족구성원 유형에 따라서도 공통적으로 보수/급여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 3-28 】 응답자 특성별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보수/급여	개인의 적성	안정성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장래성	주위의 평가	사회 기여도	지리적 위치	계
전 체		(5,100)	34.9	25.5	18.7	10.7	5.9	3.4	0.6	0.2	100.0
성별	남자	(2,555)	36.3	24.5	18.2	10.6	6.0	3.8	0.5	0.1	100.0
	여자	(2,545)	33.5	26.6	19.3	10.8	5.7	3.0	0.7	0.2	100.0
연령	19~29세	(935)	33.9	29.1	13.9	12.9	5.5	3.9	0.6	0.3	100.0
	30~45세	(1,451)	36.1	25.9	17.6	10.2	6.7	2.8	0.5	0.2	100.0
	46~60세	(1,604)	34.9	25.2	19.1	10.8	5.5	3.8	0.6	0.0	100.0
	61~79세	(1,110)	34.3	22.5	23.7	9.3	5.9	3.4	0.7	0.2	100.0
지역	서울	(987)	37.8	25.5	14.6	11.3	5.1	5.1	0.5	0.1	100.0
	인천/경기	(1,576)	39.8	24.4	14.6	11.1	5.1	4.5	0.3	0.2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7.2	22.2	26.1	12.6	8.4	2.8	0.6	0.1	100.0
	광주/전라	(497)	30.0	28.4	26.7	7.5	4.9	0.6	1.4	0.4	100.0
	대구/경북	(504)	31.1	27.8	17.7	12.4	5.8	3.9	1.2	0.1	100.0
	부산/울산/경남	(786)	31.3	27.1	22.5	9.2	7.6	1.8	0.5	0.1	100.0
	강원	(151)	35.8	23.3	25.0	9.0	5.7	1.2	0.0	0.0	100.0
제주	(64)	45.7	29.4	10.0	9.3	4.7	1.0	0.0	0.0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34.4	28.1	15.5	11.1	6.4	3.6	0.8	0.1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5.2	24.7	19.5	10.6	6.0	3.3	0.5	0.2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4.5	22.2	26.9	9.2	2.4	3.9	0.5	0.5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4.2	24.4	21.3	10.0	4.7	4.5	0.5	0.3	100.0
	1세대 가구	(874)	34.0	24.0	20.9	10.5	5.9	3.4	0.9	0.3	100.0
	2세대 가구	(3,393)	35.6	25.9	17.7	10.7	6.1	3.4	0.5	0.1	100.0
	3세대 가구	(212)	31.1	29.0	18.8	12.6	6.1	1.4	0.9	0.0	100.0
	비친족가구	(5)	18.1	9.3	17.7	29.9	11.7	0.0	13.4	0.0	100.0

- 성별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 직업선택 시 중요한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안정성(각각 25.5%, 25.5%)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과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별로 2순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29 】 응답자 특성별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안정성	보수/급여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개인의 적성	정태성	주위의 평가	사회 기여도	자립적 위치	기타	계
전 체		(5,100)	25.5	20.0	19.4	14.4	14.3	2.8	2.5	1.0	0.0	100.0
성별	남자	(2,555)	25.5	20.7	18.0	15.3	13.8	2.5	3.0	1.1	0.0	100.0
	여자	(2,545)	25.5	19.2	20.8	13.6	14.8	3.2	2.0	0.9	0.0	100.0
연령	19~29세	(935)	22.8	20.9	22.0	15.4	13.5	2.8	1.4	1.2	0.0	100.0
	30~45세	(1,451)	24.4	21.4	21.1	14.4	12.2	2.6	2.6	1.2	0.0	100.0
	46~60세	(1,604)	26.3	19.1	18.5	14.4	16.0	2.5	2.2	1.1	0.0	100.0
	61~79세	(1,110)	28.2	18.7	16.3	13.7	15.3	3.5	3.8	0.5	0.0	100.0
지역	서울	(987)	25.3	23.0	16.5	16.7	14.1	2.0	1.7	0.8	0.0	100.0
	인천/경기	(1,576)	25.1	18.6	21.1	16.4	13.0	2.1	2.9	1.0	0.0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5.4	18.0	22.9	9.7	16.4	2.7	2.7	2.3	0.0	100.0
	광주/전라	(497)	23.6	19.2	18.5	12.7	18.4	2.5	4.4	0.5	0.1	100.0
	대구/경북	(504)	28.9	22.8	19.3	9.6	13.2	3.2	2.3	0.7	0.0	100.0
	부산/울산/경남	(786)	26.9	19.1	15.7	16.0	14.6	5.0	1.5	1.2	0.0	100.0
	강원	(151)	23.3	23.1	23.6	8.2	13.6	4.2	3.6	0.4	0.0	100.0
	제주	(64)	15.9	13.7	36.9	17.1	7.3	3.3	3.9	1.9	0.0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23.2	20.9	21.7	15.3	13.1	2.7	1.7	1.4	0.0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6.5	19.8	18.6	14.5	14.7	2.6	2.6	0.9	0.0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6.4	17.3	17.1	9.5	16.4	6.0	6.1	1.1	0.0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4.7	19.1	21.7	11.8	13.8	3.6	3.7	1.6	0.0	100.0
	1세대 가구	(874)	26.9	17.7	18.4	16.2	14.9	2.8	2.3	0.8	0.0	100.0
	2세대 가구	(3,393)	25.5	20.6	19.1	14.6	14.0	2.7	2.4	1.0	0.0	100.0
	3세대 가구	(212)	22.4	20.9	21.6	11.9	17.6	2.1	2.5	1.0	0.0	100.0
	비친족가구	(5)	9.0	43.6	0.0	17.7	18.1	0.0	0.0	11.7	0.0	100.0

-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중복으로 처리한 결과에서도 성별 및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이 보수/급여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남
- 다만,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에서 기혼(결혼 생활 중 + 사별, 이혼, 별거 등) 보다 개인의 적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4.1%p, 11.5%p), 사별, 이혼, 별거 중인 기혼층에서 미혼층이나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 보다 안정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4.6%p, 7.4%p)

【 표 3-30 】 응답자 특성별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보수/급여	안정성	개인의 적성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장래성	주위의 평가	사회 기여도	자립적 위치	기타
전 체		(5,100)	54.9	44.3	40.0	30.1	20.2	6.2	3.1	1.2	0.0
성별	남자	(2,555)	57.0	43.7	39.7	28.6	19.9	6.3	3.5	1.2	0.0
	여자	(2,545)	52.8	44.8	40.2	31.6	20.5	6.2	2.7	1.2	0.0
연령	19~29세	(935)	54.8	36.7	44.4	34.9	19.0	6.7	2.0	1.5	0.0
	30~45세	(1,451)	57.6	42.0	40.3	31.3	18.9	5.4	3.1	1.4	0.0
	46~60세	(1,604)	53.9	45.4	39.7	29.2	21.4	6.3	2.8	1.2	0.0
	61~79세	(1,110)	53.0	51.9	36.2	25.6	21.2	6.8	4.5	0.8	0.0
지역	서울	(987)	60.7	39.9	42.2	27.8	19.2	7.1	2.2	0.9	0.0
	인천/경기	(1,576)	58.4	39.7	40.7	32.2	18.1	6.6	3.2	1.2	0.0
	대전/충청/세종	(536)	45.2	51.5	31.9	35.4	24.8	5.5	3.3	2.4	0.0
	광주/전라	(497)	49.2	50.3	41.1	26.1	23.3	3.1	5.8	0.9	0.1
	대구/경북	(504)	54.0	46.7	37.5	31.7	18.9	7.0	3.5	0.8	0.0
	부산/울산/경남	(786)	50.4	49.4	43.1	24.9	22.2	6.8	2.0	1.3	0.0
	강원	(151)	58.9	48.3	31.5	32.7	19.2	5.4	3.6	0.4	0.0
	제주	(64)	59.4	25.9	46.5	46.2	11.9	4.3	3.9	1.9	0.0
결혼상태	미혼	(1,493)	55.3	38.7	43.3	32.8	19.4	6.2	2.6	1.5	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5.0	45.9	39.2	29.2	20.7	5.9	3.1	1.0	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51.8	53.3	31.8	26.2	18.7	9.9	6.6	1.7	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3.3	46.0	36.2	31.7	18.4	8.1	4.2	1.9	0.0
	1세대 가구	(874)	51.7	47.8	40.2	29.0	20.8	6.2	3.2	1.1	0.0
	2세대 가구	(3,393)	56.2	43.2	40.5	29.8	20.1	6.1	2.9	1.1	0.0
	3세대 가구	(212)	52.0	41.2	40.9	34.2	23.7	3.5	3.4	1.0	0.0
	비친족가구	(5)	61.6	26.7	27.0	29.9	29.8	0.0	13.4	11.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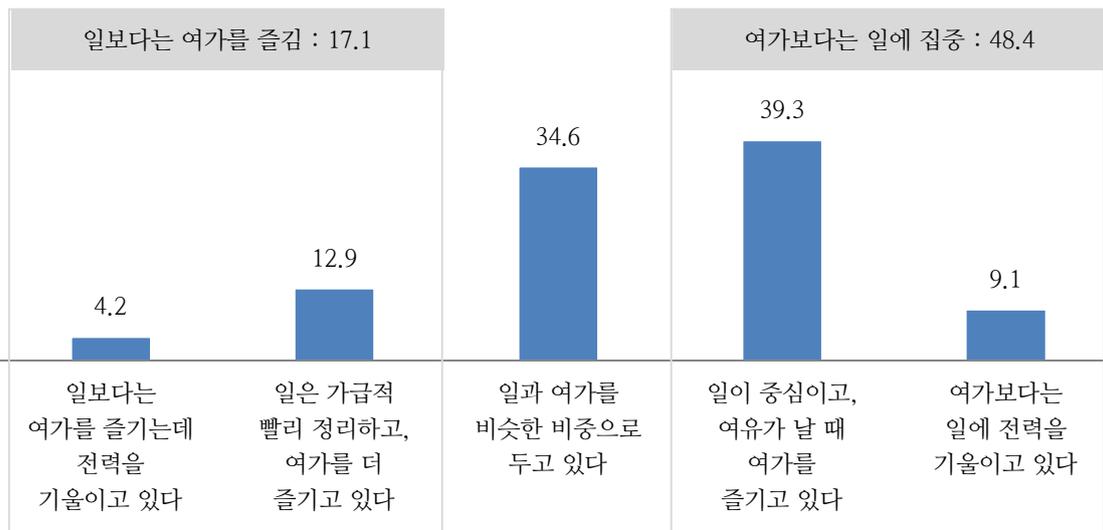
2) 일과 여가

-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어떤 비중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긴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일과 여가를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34.6%), ‘일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기고 있다’(12.9%), ‘여가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보다는 여가를 즐김’은 17.1%(일보다 여가에 전력 4.2% + 일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김 12.9%),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은 48.4%(일이 중심이고 여유 날 때 여가를 즐김 39.3% + 여가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임 9.1%)로 나타남

【 그림 3-28 】 일과 여가

문) 귀하는 일과 여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귀하와 가장 가까운 상황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긴다는 응답비율에서 남자가 41.7%, 여자가 36.9%로 남자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청년층의 경우 ‘일과 여가를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41.8%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경제활동이 활발한 장년층과 중년층의 경우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기고 있다는 응답이 41~42%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노년층의 경우에 ‘비슷한 비중이다’와 ‘일이 중심이다’는 응답이 각각 32.0% 및 33.8%로 비슷해짐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생활 중인 기혼층에서도 40.1%로 일이 중심이라는 응답이 다른 결혼상태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 구성원 유형에서는 2세대 가구인 경우에 일이 중심이라는 응답이 41.0%로 역시 다른 가족 구성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표 3-31 】 응답자 특성별 일과 여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은 기급적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기고 있다	일과 여가를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기고 있다	여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
전 체		(5,100)	4.2	12.9	34.6	39.3	9.1	100.0
성별	남자	(2,555)	3.8	12.2	33.4	41.7	8.9	100.0
	여자	(2,545)	4.6	13.5	35.8	36.9	9.2	100.0
연령	19~29세	(935)	3.1	12.9	41.8	36.5	5.7	100.0
	30~45세	(1,451)	2.4	13.1	35.2	41.5	7.9	100.0
	46~60세	(1,604)	2.0	12.3	31.6	42.8	11.3	100.0
	61~79세	(1,110)	10.6	13.4	32.0	33.8	10.2	100.0
지역	서울	(987)	4.6	9.4	33.5	44.7	7.8	100.0
	인천/경기	(1,576)	3.5	16.8	33.8	36.8	9.0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6	14.6	37.5	38.2	7.2	100.0
	광주/전라	(497)	5.6	7.4	26.3	47.3	13.4	100.0
	대구/경북	(504)	3.4	12.3	38.0	36.4	9.9	100.0
	부산/울산/경남	(786)	4.8	11.8	39.3	35.4	8.7	100.0
	강원	(151)	9.1	12.1	32.9	35.1	10.7	100.0
	제주	(64)	4.4	14.6	29.2	45.8	6.1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2.9	12.8	39.7	38.4	6.2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0	13.0	32.8	40.1	10.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3.2	11.4	28.6	34.8	12.1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7.1	12.8	31.8	38.2	10.1	100.0
	1세대 가구	(874)	7.2	13.6	34.2	34.7	10.3	100.0
	2세대 가구	(3,393)	2.8	13.0	35.0	41.0	8.3	100.0
	3세대 가구	(212)	5.7	7.7	38.0	35.0	13.6	100.0
	비친족가구	(5)	17.7	42.6	0.0	28.0	11.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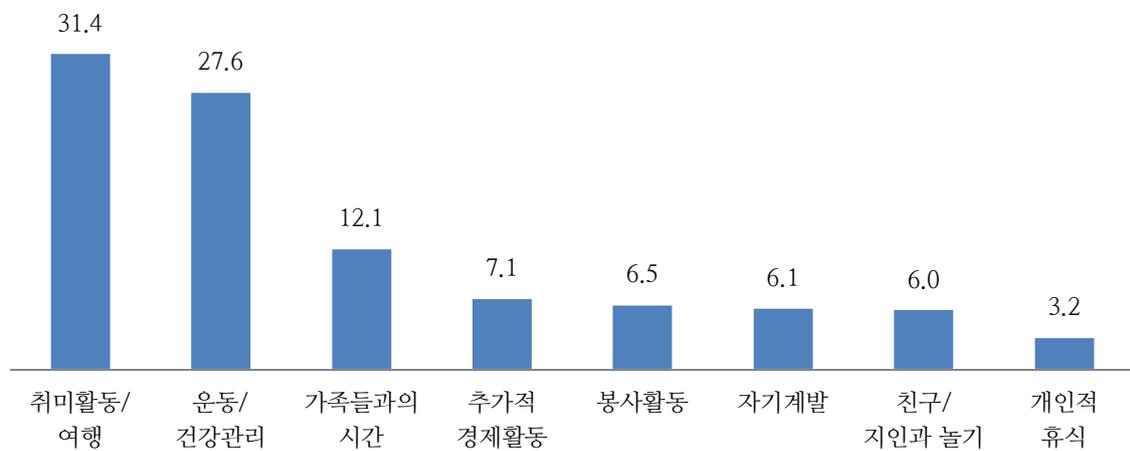
3)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

-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을 살펴본 결과,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1.4%)
- 뒤를 이어,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27.6%),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대화, 놀기 등)’(12.1%)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29 】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1순위

문) 앞으로 지금보다 귀하에게 더 많은 여유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여성은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32.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은 ‘운동 등 건강관리’(30.5%)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노년층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운동 등 건강관리’(35.5%)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노년층에서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건강을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던 앞선 문항의 결과와 연결됨
-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 3-32 】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이 등)	취직이나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다 (파트타임, 투잡 등)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자기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친구/ 지인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이 등)	영상 시청, 게임 등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것이다	계
전 체		(5,100)	31.4	27.6	12.1	7.1	6.5	6.1	6.0	3.2	100.0
성별	남자	(2,555)	30.0	30.5	11.2	7.8	5.7	5.6	5.7	3.5	100.0
	여자	(2,545)	32.9	24.7	12.9	6.4	7.3	6.7	6.2	3.0	100.0
연령	19~29세	(935)	35.3	19.3	5.5	7.9	5.5	14.8	6.5	5.1	100.0
	30~45세	(1,451)	33.9	24.6	13.7	7.4	5.3	6.5	5.2	3.4	100.0
	46~60세	(1,604)	31.4	29.6	12.6	7.0	7.5	3.7	5.7	2.4	100.0
	61~79세	(1,110)	24.9	35.5	14.7	6.1	7.4	1.7	7.1	2.6	100.0
지역	서울	(987)	34.2	22.4	11.9	7.6	6.3	8.5	5.9	3.2	100.0
	인천/경기	(1,576)	30.0	28.6	10.9	6.5	6.8	7.1	6.5	3.6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8.1	30.6	10.5	6.1	8.2	5.2	6.9	4.4	100.0
	광주/전라	(497)	28.2	30.4	16.1	7.4	5.6	4.1	6.2	1.9	100.0
	대구/경북	(504)	33.3	33.4	11.5	7.2	3.5	4.9	4.2	2.1	100.0
	부산/울산/경남	(786)	33.0	26.3	13.3	7.0	7.0	4.3	5.8	3.3	100.0
	강원	(151)	35.6	15.4	15.4	12.9	7.4	2.9	5.6	4.7	100.0
제주	(64)	32.5	31.4	6.6	5.9	8.3	9.9	2.7	2.6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36.3	21.3	6.0	7.6	4.9	12.3	6.8	4.6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0.5	29.7	15.1	6.6	7.0	3.7	5.1	2.5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7.8	35.0	8.9	10.2	9.0	2.4	11.9	4.8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6.8	30.3	7.1	8.5	6.5	7.5	8.6	4.7	100.0
	1세대 가구	(874)	27.4	31.7	13.6	6.9	9.0	2.8	6.0	2.6	100.0
	2세대 가구	(3,393)	33.2	26.0	12.5	7.0	5.8	6.6	5.7	3.2	100.0
	3세대 가구	(212)	33.4	27.5	12.8	6.2	7.5	8.2	2.4	1.8	100.0
	비친족가구	(5)	48.6	13.4	0.0	0.0	0.0	0.0	0.0	38.0	100.0

- 성별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25.8%, 24.3%)
- 연령에 따라서도 2순위 응답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3 】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기 등)	친구/지인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기 등)	영상 시청, 게임 등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것이다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다 (파트타임, 투잡 등)	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자기계발에 투자할 것이다	계
전 체		(5,100)	25.1	22.1	15.9	15.5	7.2	5.2	4.5	4.4	100.0
성별	남자	(2,555)	25.8	22.3	16.2	14.4	8.5	3.9	4.4	4.5	100.0
	여자	(2,545)	24.3	21.9	15.7	16.5	6.0	6.5	4.7	4.3	100.0
연령	19~29세	(935)	24.3	18.2	9.5	20.1	11.5	4.0	4.3	8.2	100.0
	30~45세	(1,451)	24.7	22.9	16.1	13.0	7.8	4.7	4.5	6.3	100.0
	46~60세	(1,604)	26.5	24.2	18.2	12.3	5.9	5.7	4.7	2.5	100.0
	61~79세	(1,110)	24.2	21.2	17.8	19.4	5.0	6.3	4.6	1.5	100.0
지역	서울	(987)	24.3	17.8	17.3	20.4	7.3	5.4	3.3	4.3	100.0
	인천/경기	(1,576)	24.6	20.3	15.8	15.4	9.4	3.8	5.7	5.0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9.6	21.8	11.0	13.1	8.2	8.5	3.6	4.2	100.0
	광주/전라	(497)	19.6	25.2	14.2	16.8	4.2	8.4	6.0	5.6	100.0
	대구/경북	(504)	28.8	25.5	18.7	10.7	5.4	4.6	3.2	3.2	100.0
	부산/울산/경남	(786)	26.5	25.7	17.8	12.5	5.3	3.9	5.2	3.0	100.0
	강원	(151)	17.7	31.2	12.2	21.6	6.5	3.8	2.5	4.4	100.0
	제주	(64)	25.0	15.6	18.0	11.6	8.5	9.3	0.7	11.3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24.7	21.1	8.8	18.4	10.3	4.2	4.0	8.5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5.1	22.4	19.5	13.8	6.1	5.7	4.8	2.7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7.2	23.7	11.9	19.6	4.9	4.9	5.0	2.8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5.3	25.5	8.8	17.0	8.5	5.1	4.3	5.5	100.0
	1세대 가구	(874)	23.2	21.7	20.5	16.2	6.0	5.6	5.0	1.8	100.0
	2세대 가구	(3,393)	25.6	21.5	16.1	14.9	7.4	5.1	4.5	4.9	100.0
	3세대 가구	(212)	24.3	22.8	14.9	16.7	5.1	7.0	4.6	4.5	100.0
	비친족가구	(5)	0.0	35.8	32.6	14.4	13.4	0.0	0.0	3.9	100.0

- 1, 2순위를 중복으로 처리한 결과를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음. 남녀 모두에서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55.8%, 57.2%)
-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에서는 ‘운동 등 건강관리’(56.6%)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운동 등 건강관리’의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남. 노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의 여가활동’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4 】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기 등)	친구/자녀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기 등)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추기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파트타임, 투잡 등)	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자기계발에 투자할 것이다	영상 시청, 게임 등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것이다
전 체		(5,100)	56.5	49.7	28.0	21.5	11.7	11.6	10.5	10.5
성별	남자	(2,555)	55.8	52.8	27.4	20.1	9.6	12.3	10.1	12.0
	여자	(2,545)	57.2	46.5	28.6	22.8	13.8	11.0	11.0	9.0
연령	19~29세	(935)	59.6	37.5	15.0	26.6	9.5	12.2	23.0	16.6
	30~45세	(1,451)	58.6	47.5	29.8	18.2	10.1	11.9	12.8	11.2
	46~60세	(1,604)	57.9	53.9	30.9	17.9	13.1	11.8	6.2	8.3
	61~79세	(1,110)	49.1	56.6	32.5	26.6	13.6	10.7	3.2	7.7
지역	서울	(987)	58.5	40.2	29.2	26.3	11.7	10.9	12.8	10.4
	인천/경기	(1,576)	54.6	49.0	26.7	21.9	10.7	12.2	12.0	13.0
	대전/충청/세종	(536)	57.7	52.5	21.4	20.0	16.7	9.7	9.4	12.6
	광주/전라	(497)	47.9	55.6	30.4	23.0	14.0	13.4	9.7	6.1
	대구/경북	(504)	62.1	58.9	30.2	14.8	8.1	10.3	8.1	7.5
	부산/울산/경남	(786)	59.6	52.1	31.1	18.2	10.9	12.2	7.4	8.6
	강원	(151)	53.3	46.7	27.6	27.2	11.3	15.5	7.3	11.2
제주	(64)	57.5	47.0	24.6	14.3	17.7	6.6	21.2	11.1	
결혼상태	미혼	(1,493)	61.0	42.4	14.8	25.3	9.1	11.7	20.9	14.9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5.5	52.1	34.6	18.8	12.7	11.3	6.3	8.6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5.0	58.7	20.8	31.5	13.8	15.2	5.3	9.7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2.1	55.8	15.9	25.7	11.5	12.8	12.9	13.3
	1세대 가구	(874)	50.6	53.4	34.1	22.3	14.5	11.9	4.6	8.7
	2세대 가구	(3,393)	58.8	47.5	28.6	20.6	10.9	11.4	11.5	10.6
	3세대 가구	(212)	57.8	50.3	27.7	19.1	14.6	10.8	12.8	6.9
	비친족가구	(5)	48.6	49.1	32.6	14.4	0.0	0.0	3.9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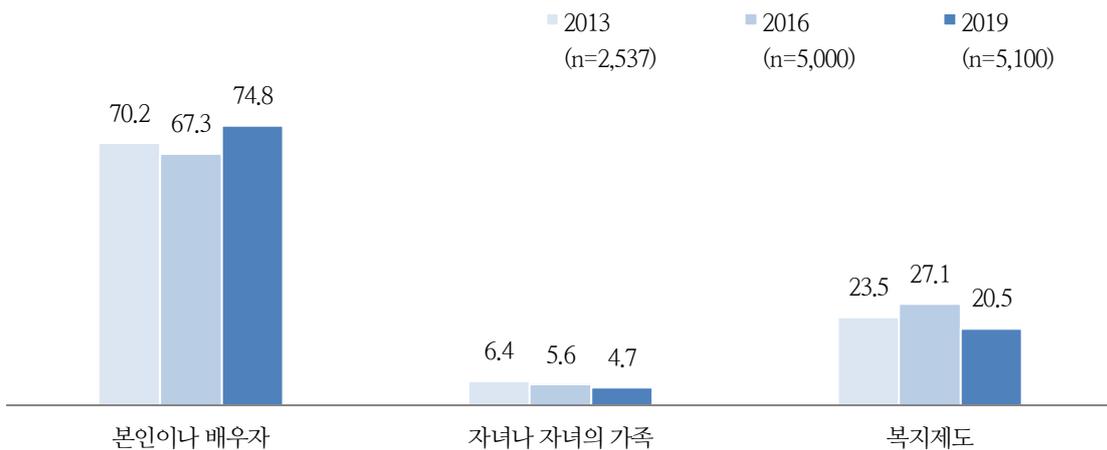
4) 노후 부담

- ‘노후 생활 부담이 누구에게 가장 커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본인/배우자’라는 응답이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복지제도’(20.5), ‘자녀나 자녀의 가족’(4.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3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9년에는 ‘본인/배우자’라는 응답은 높아진 반면 (4.6%p ↑), ‘자녀/자녀 가족’이나 ‘복지제도’의 응답비율은 낮아졌음(각각 3.0%p ↓, 1.7%p ↓)
- 이 같은 2019년의 응답비율의 경향성(본인 및 배우자 - 정부/복지기관이나 단체 - 자녀나 자녀의 가족 순의 응답비율)은 개별 주체별로 노후 생활의 책임을 살펴본 2006년/2008년의 결과와 유사함

【 그림 3-30 】 노후 부담_1순위

문) 귀하는 노후생활에 대해 누구의 부담이 가장 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커야한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구 분		2006년 (n=2,680)	2008년 (n=2,569)
본인이나 배우자	책임이 크다	93.6	93.9
	책임이 없다	6.3	6.0
자녀나 자녀의 가족	책임이 크다	59.8	65.5
	책임이 없다	39.9	34.4
복지기관이나 단체	책임이 크다	82.6	81.2
	책임이 없다	27.4	18.7
정부	책임이 크다	85.0	88.7
	책임이 없다	15.0	11.3

- 성별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노후생활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각각 75.9%, 73.6%)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에 따른 결과에서도 노후생활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만, 청년층의 경우 복지제도를 꼽은 비율이 23.5%로 노년층 17.6%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결혼상태가 미혼 또는 사별, 이혼, 별거 등인인 경우에는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의 응답 19.2%보다 높은 22~24% 수준의 복지제도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1인 가구인 경우에도 25.3%가 복지제도를 꼽아 다른 가족구성원 유형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표 3-35 】 응답자 특성별 노후 부담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본인이나 배우자	복지제도	자녀나 자부의 가족	계
전 체		(5,100)	74.8	20.5	4.7	100.0
성별	남자	(2,555)	75.9	18.8	5.3	100.0
	여자	(2,545)	73.6	22.3	4.1	100.0
연령	19~29세	(935)	71.2	23.5	5.2	100.0
	30~45세	(1,451)	75.0	20.6	4.4	100.0
	46~60세	(1,604)	74.9	20.8	4.3	100.0
	61~79세	(1,110)	77.3	17.6	5.1	100.0
지역	서울	(987)	80.4	16.9	2.7	100.0
	인천/경기	(1,576)	74.8	20.3	4.9	100.0
	대전/충청/세종	(536)	65.2	29.2	5.6	100.0
	광주/전라	(497)	70.0	25.0	5.0	100.0
	대구/경북	(504)	78.7	17.3	4.0	100.0
	부산/울산/경남	(786)	76.8	19.9	3.3	100.0
	강원	(151)	70.2	8.7	21.1	100.0
제주	(64)	60.7	35.7	3.6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72.2	22.8	5.0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76.4	19.2	4.4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69.5	24.0	6.5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69.0	25.3	5.7	100.0
	1세대 가구	(874)	77.9	18.1	4.0	100.0
	2세대 가구	(3,393)	75.1	20.3	4.6	100.0
	3세대 가구	(212)	74.9	20.5	4.6	100.0
	비친족가구	(5)	39.0	37.9	23.0	100.0

- 성별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 노후생활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복지제도(각각 49.2%, 49.4%)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연령 및 결혼상태별로도 같은 상황임

【 표 3-36 】 응답자 특성별 노후 부담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복지제도	자녀나 자녀의 가족	본인이나 배우자	계
전 체		(5,100)	49.3	30.2	20.5	100.0
성별	남자	(2,555)	49.2	31.0	19.8	100.0
	여자	(2,545)	49.4	29.4	21.2	100.0
연령	19~29세	(935)	49.6	26.4	24.0	100.0
	30~45세	(1,451)	51.8	27.0	21.2	100.0
	46~60세	(1,604)	48.8	31.4	19.9	100.0
	61~79세	(1,110)	46.8	35.7	17.5	100.0
지역	서울	(987)	51.9	33.2	14.9	100.0
	인천/경기	(1,576)	50.3	27.1	22.5	100.0
	대전/충청/세종	(536)	45.7	25.1	29.2	100.0
	광주/전라	(497)	43.5	32.0	24.5	100.0
	대구/경북	(504)	44.6	39.5	15.9	100.0
	부산/울산/경남	(786)	52.6	28.0	19.4	100.0
	강원	(151)	55.7	37.1	7.2	100.0
제주	(64)	43.2	23.3	33.5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51.6	25.0	23.4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8.4	32.5	19.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8.0	30.3	21.6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47.5	28.1	24.4	100.0
	1세대 가구	(874)	45.7	36.5	17.8	100.0
	2세대 가구	(3,393)	50.4	29.1	20.4	100.0
	3세대 가구	(212)	53.3	26.5	20.2	100.0
	비친족가구	(5)	9.3	29.8	61.0	100.0

- 성별에 따라 3순위를 살펴 본 결과, 노후생활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자녀나 자녀의 가족(각각 63.7%, 66.6%)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역시 연령 및 결혼상태 등에 따라서도 같은 경향을 보임

【 표 3-37 】 응답자 특성별 노후 부담_3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녀나 자녀의 가족	복지제도	본인이나 배우자	계
전 체		(5,100)	65.1	30.1	4.7	100.0
성별	남자	(2,555)	63.7	32.0	4.3	100.0
	여자	(2,545)	66.6	28.2	5.2	100.0
연령	19~29세	(935)	68.3	26.9	4.8	100.0
	30~45세	(1,451)	68.6	27.7	3.8	100.0
	46~60세	(1,604)	64.3	30.5	5.2	100.0
	61~79세	(1,110)	59.2	35.6	5.2	100.0
지역	서울	(987)	64.2	31.1	4.7	100.0
	인천/경기	(1,576)	67.9	29.4	2.7	100.0
	대전/충청/세종	(536)	69.3	25.1	5.6	100.0
	광주/전라	(497)	63.0	31.5	5.5	100.0
	대구/경북	(504)	56.5	38.1	5.4	100.0
	부산/울산/경남	(786)	68.7	27.5	3.8	100.0
	강원	(151)	41.8	35.5	22.6	100.0
제주	(64)	73.1	21.1	5.8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70.0	25.6	4.4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63.1	32.4	4.5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63.1	28.0	8.9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66.1	27.2	6.6	100.0
	1세대 가구	(874)	59.4	36.2	4.3	100.0
	2세대 가구	(3,393)	66.2	29.3	4.5	100.0
	3세대 가구	(212)	68.9	26.2	4.9	100.0
	비친족가구	(5)	47.2	52.8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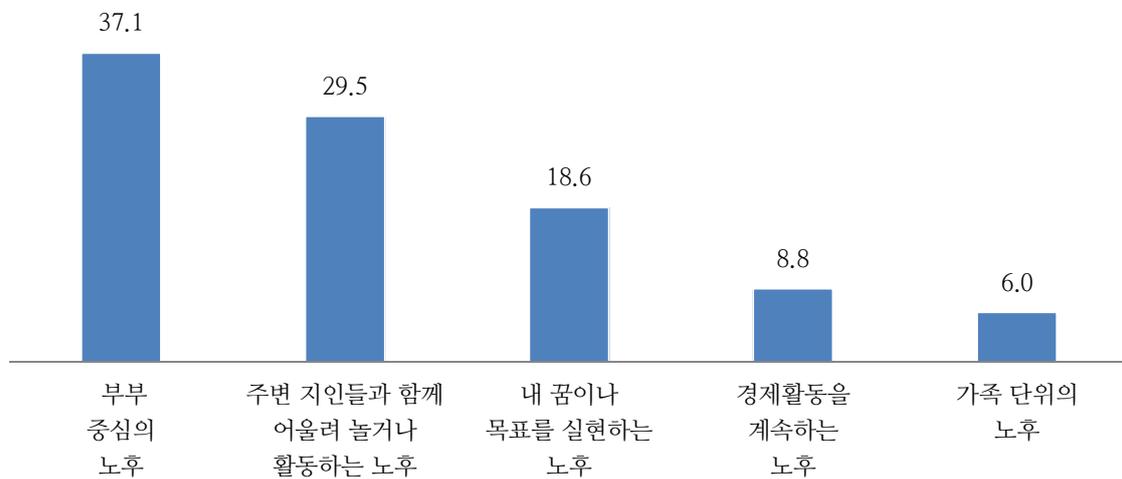
5) 노후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살펴본 결과,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중심으로 노후를 보낼 것이다’(37.1%)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뒤를 이어 ‘주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를 보낼 것이다’(29.5%), ‘공부나 취미/봉사활동 등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노후를 보낼 것이다’(18.6%)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31 】 노후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문) 귀하는 노후를 어떤 방식으로 보낼 예정이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는 앞서 살펴본 순서와 비슷하게 나타남.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층 및 노년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장년층 및 노년층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 중심의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응답으로 다소 쏠려 있는 모습을 보임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에서 다른 결혼상태에 비해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 중심의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8.3%p, 35.0%p)
- 반면, 사별, 이혼, 별거 중인 기혼층은 다른 결혼상태에 비해 주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6.2%p, 23.9%p)

【 표 3-38 】 응답자 특성별 노후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 중심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주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공부나 취미/봉사활동 등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수입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자녀나 손지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	계
전 체		(5,100)	37.1	29.5	18.6	8.8	6.0	100.0
성별	남자	(2,555)	37.6	29.0	17.8	9.5	6.1	100.0
	여자	(2,545)	36.6	30.1	19.4	8.1	5.8	100.0
연령	19~29세	(935)	27.0	32.4	27.3	10.4	2.9	100.0
	30~45세	(1,451)	39.8	27.7	20.3	8.8	3.5	100.0
	46~60세	(1,604)	41.5	26.9	15.8	9.5	6.4	100.0
	61~79세	(1,110)	35.8	33.5	13.0	6.6	11.1	100.0
지역	서울	(987)	38.1	29.5	17.7	9.3	5.4	100.0
	인천/경기	(1,576)	37.7	28.6	21.5	8.3	3.8	100.0
	대전/충청/세종	(536)	32.0	30.0	21.4	11.4	5.2	100.0
	광주/전라	(497)	38.5	24.8	13.4	11.4	11.9	100.0
	대구/경북	(504)	38.6	33.1	15.1	7.8	5.4	100.0
	부산/울산/경남	(786)	35.8	33.3	17.9	5.8	7.1	100.0
	강원	(151)	42.3	25.6	10.5	14.0	7.7	100.0
	제주	(64)	29.8	21.7	32.8	2.9	12.8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26.2	33.6	27.5	10.3	2.3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4.5	25.9	15.0	7.3	7.3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9.5	49.8	13.5	17.5	9.6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7.6	44.8	18.9	15.0	3.7	100.0
	1세대 가구	(874)	47.4	25.5	13.7	4.6	8.8	100.0
	2세대 가구	(3,393)	38.5	27.8	19.7	8.7	5.3	100.0
	3세대 가구	(212)	29.0	29.4	20.0	10.8	10.8	100.0
	비친족가구	(5)	53.5	5.4	41.1	0.0	0.0	100.0

4. 사회적 지지/가치관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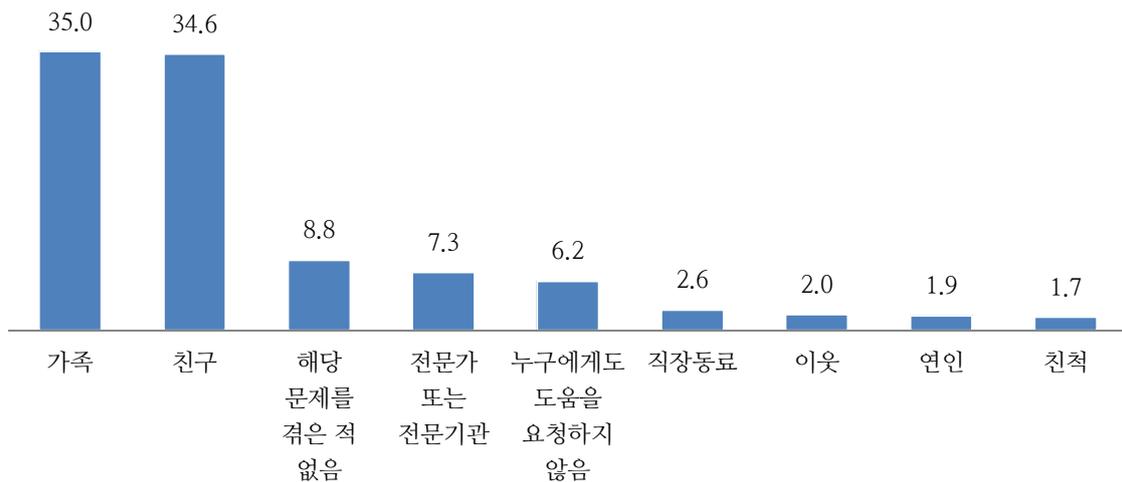
1)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35.0%)
- 다음으로는 ‘친구’(34.6%)의 응답비율이 높고, 이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7.3%) 등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32 】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문) 과거에 귀하에게 발생된 아래의 각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귀하가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_감정적·심리적 문제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감정적 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가족(각각 34.7%, 35.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친구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노년층의 경우 가족(40.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은 친구(48.3%)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미혼인 경우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결혼생활 중인 기혼층은 가족이 43.2%로 가장 높음. 사별, 이혼 등을 한 기혼층은 다시 친구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1인 가구 역시 친구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39 】 응답자 특성별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족	친구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직장동료	이웃	연인	친척	계
전 체		(5,100)	35.0	34.6	8.8	7.3	6.2	2.6	2.0	1.9	1.7	100.0
성별	남자	(2,555)	34.7	33.7	9.6	7.3	6.7	3.5	0.8	1.9	1.8	100.0
	여자	(2,545)	35.3	35.6	8.1	7.2	5.7	1.7	3.2	1.8	1.5	100.0
연령	19~29세	(935)	20.7	48.3	10.2	6.3	5.1	2.2	0.7	5.3	1.3	100.0
	30~45세	(1,451)	33.6	37.9	8.1	7.7	5.1	3.1	0.8	2.0	1.7	100.0
	46~60세	(1,604)	40.5	30.1	9.0	5.5	7.0	2.8	2.6	0.6	1.8	100.0
	61~79세	(1,110)	40.9	25.3	8.4	10.0	7.4	1.8	3.8	0.7	1.8	100.0
지역	서울	(987)	31.4	32.2	12.9	9.3	5.6	3.1	1.1	2.8	1.7	100.0
	인천/경기	(1,576)	34.9	36.5	7.1	7.2	4.7	2.8	2.9	2.0	2.0	100.0
	대전/충청/세종	(536)	32.5	39.6	11.1	1.3	7.7	2.0	3.0	1.2	1.7	100.0
	광주/전라	(497)	37.3	30.2	11.6	4.5	7.7	2.0	2.5	2.6	1.6	100.0
	대구/경북	(504)	32.6	38.9	5.3	12.0	5.5	2.7	1.8	1.0	0.2	100.0
	부산/울산/경남	(786)	42.0	29.4	6.5	8.5	7.9	2.1	0.7	1.3	1.5	100.0
	강원	(151)	31.1	40.1	10.0	5.1	7.0	2.3	0.7	0.6	3.0	100.0
결혼상태	제주	(64)	38.4	35.1	2.3	1.7	12.5	3.5	0.0	3.1	3.3	100.0
	미혼	(1,493)	18.5	49.2	9.2	7.1	5.7	3.4	0.5	4.6	1.7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3.2	28.1	8.9	7.0	5.9	2.2	2.4	0.8	1.6	100.0
가족 구성원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6.7	33.3	6.3	10.9	11.5	2.9	5.0	0.6	2.8	100.0
	1인가구	(617)	18.7	41.0	8.4	10.0	9.6	4.2	2.4	3.0	2.8	100.0
	1세대 가구	(874)	46.7	25.8	7.1	6.6	7.2	2.0	2.3	1.2	1.3	100.0
	2세대 가구	(3,333)	35.2	35.7	9.3	6.9	5.4	2.2	1.8	1.9	1.6	100.0
	3세대 가구	(212)	31.3	35.1	9.7	7.5	5.4	6.1	2.3	1.9	0.6	100.0
	비친족가구	(5)	50.3	18.8	5.3	0.0	0.0	0.0	18.1	7.5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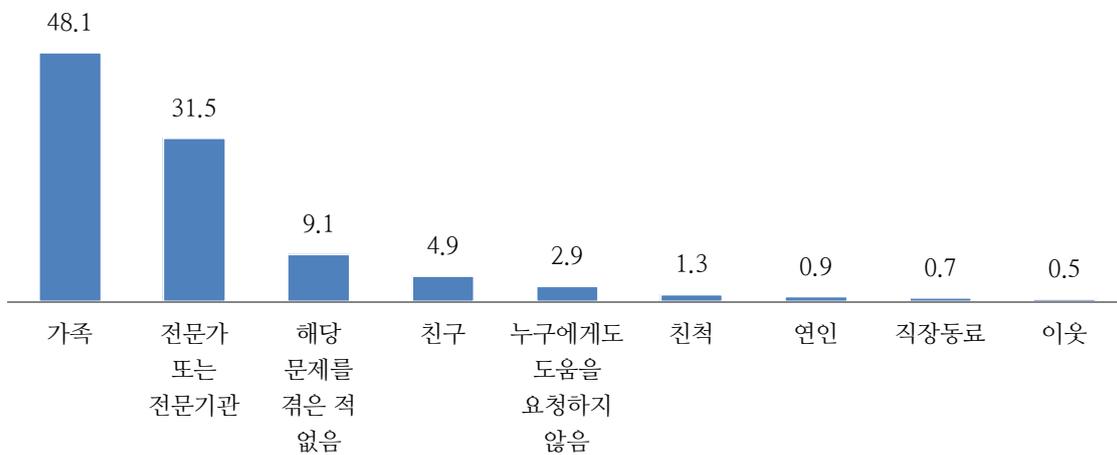
2) 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가족’(48.1%)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31.5%), ‘친구’(4.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3-33 】 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문) 과거에 귀하에게 발생된 아래의 각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귀하가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_건강 문제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가족(각각 47.4%, 48.7%)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38.6%),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42.0%)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응답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해당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40 】 응답자 특성별 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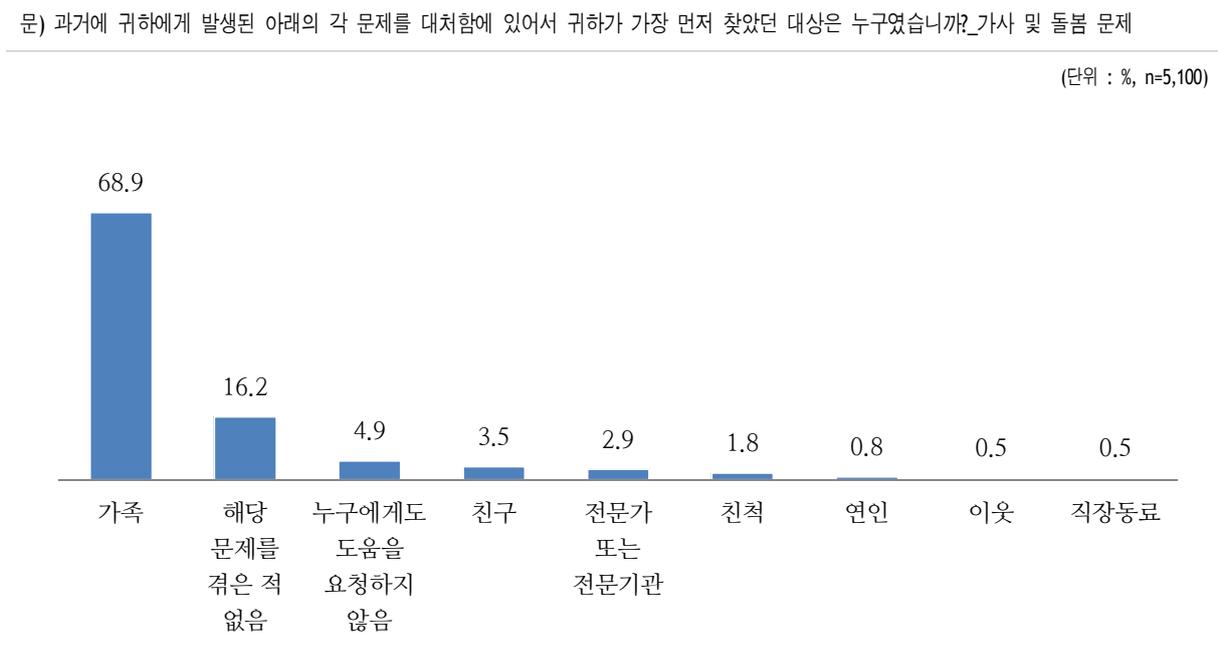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친구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친척	연인	직장동료	이웃	계
전 체		(5,100)	48.1	31.5	9.1	4.9	29	1.3	0.9	0.7	0.5	100.0
성별	남자	(2,555)	47.4	30.6	10.1	5.4	32	1.3	0.9	0.9	0.3	100.0
	여자	(2,545)	48.7	32.4	8.1	4.5	27	1.3	1.0	0.6	0.7	100.0
연령	19~29세	(935)	44.2	25.8	18.3	6.6	22	1.0	1.4	0.4	0.3	100.0
	30~45세	(1,451)	47.8	30.4	10.5	4.6	3.1	1.1	1.2	0.9	0.4	100.0
	46~60세	(1,604)	49.3	33.3	6.4	4.7	27	1.3	0.8	0.9	0.6	100.0
	61~79세	(1,110)	49.9	35.2	3.5	4.3	3.7	1.8	0.4	0.6	0.5	100.0
지역	서울	(987)	38.6	42.0	7.3	5.4	23	1.8	1.1	0.7	0.7	100.0
	인천/경기	(1,576)	47.6	35.0	7.6	4.6	23	0.9	0.9	0.5	0.6	100.0
	대전/충청/세종	(536)	44.4	27.4	12.2	6.4	5.4	2.0	1.1	1.0	0.2	100.0
	광주/전라	(497)	50.9	31.7	11.7	2.7	2.2	0.0	0.5	0.3	0.0	100.0
	대구/경북	(504)	55.5	21.9	11.5	5.9	2.0	1.0	0.7	1.3	0.2	100.0
	부산/울산/경남	(786)	54.2	21.4	10.6	5.0	4.4	2.1	1.1	0.7	0.5	100.0
	강원	(151)	57.0	29.4	4.9	4.4	0.0	1.4	0.7	1.5	0.7	100.0
제주	(64)	57.0	20.8	2.1	4.4	9.8	1.4	1.5	2.7	0.4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39.6	30.4	16.2	7.4	3.0	0.7	1.5	0.9	0.3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2.9	31.7	6.3	3.2	2.8	1.3	0.7	0.6	0.5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6.7	35.2	4.8	11.7	4.7	4.1	0.0	1.4	1.3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2.9	32.4	10.3	13.2	4.9	2.4	1.5	1.6	0.8	100.0
	1세대 가구	(874)	56.1	29.6	5.5	3.1	2.3	1.7	0.8	0.7	0.2	100.0
	2세대 가구	(3,393)	48.5	31.7	10.1	3.9	2.8	1.1	0.9	0.6	0.5	100.0
	3세대 가구	(212)	52.9	33.3	5.8	4.4	2.3	0.0	0.4	0.0	0.9	100.0
	비친족가구	(5)	24.8	47.5	5.3	13.4	0.0	0.0	9.1	0.0	0.0	100.0

3)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가족’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68.9%)
- 다음으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음’(4.9%), ‘친구’(3.5%)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3-34 】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가족(각각 67.3%, 70.6%)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장년 및 중년층에서 청년 및 노년층보다 가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동시에 육아나 가족 행사 등에 많이 노출될 장년 및 중년층에서 가사 및 돌봄의 요청을 가족에게 많이 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됨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에서 미혼이나 사별, 이혼, 별거 중인 기혼층보다 가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20.7%p, 27.7%p). 1인 가구의 경우에도 가족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긴 하나(41.9%), 해당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24.8%로 비교적 높아 이러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임을 드러냄

【 표 3-41 】 응답자 특성별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족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친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친척	연인	이웃	직장동료	계
전 체		(5,100)	68.9	16.2	4.9	3.5	2.9	1.8	0.8	0.5	0.5	100.0
성별	남자	(2,555)	67.3	19.4	4.6	2.7	2.6	1.7	1.0	0.4	0.3	100.0
	여자	(2,545)	70.6	13.0	5.2	4.3	3.2	1.9	0.6	0.6	0.6	100.0
연령	19~29세	(935)	55.8	31.9	3.3	4.0	2.2	0.7	1.2	0.2	0.6	100.0
	30~45세	(1,451)	71.0	13.3	5.0	3.1	3.3	2.4	0.9	0.4	0.7	100.0
	46~60세	(1,604)	74.5	11.6	5.0	3.5	2.5	1.6	0.5	0.3	0.4	100.0
	61~79세	(1,110)	69.3	13.4	6.1	3.5	3.3	2.3	0.7	1.2	0.2	100.0
지역	서울	(987)	69.1	15.1	5.4	2.9	2.6	2.6	0.8	0.8	0.6	100.0
	인천/경기	(1,576)	75.0	14.3	3.0	3.0	1.8	1.5	0.8	0.2	0.3	100.0
	대전/충청/세종	(536)	73.4	12.3	5.2	5.4	0.2	1.7	0.7	0.8	0.3	100.0
	광주/전라	(497)	64.3	20.1	9.7	2.1	1.8	0.5	0.3	0.3	0.8	100.0
	대구/경북	(504)	58.6	18.9	4.5	5.1	9.6	1.4	0.5	0.5	1.0	100.0
	부산/울산/경남	(786)	63.6	20.3	5.7	3.6	2.1	2.4	1.4	0.5	0.2	100.0
	강원	(151)	64.5	16.3	1.5	3.8	9.8	2.5	0.0	1.0	0.7	100.0
제주	(64)	72.6	11.9	5.6	3.3	2.0	1.7	2.1	0.9	0.0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55.9	29.3	4.5	4.7	2.4	0.9	1.3	0.3	0.6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76.6	10.4	4.4	2.3	2.8	2.0	0.5	0.4	0.5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8.9	15.3	13.0	10.0	5.1	3.9	0.9	2.6	0.2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41.9	24.8	11.7	11.2	4.6	2.5	0.9	1.4	1.0	100.0
	1세대 가구	(874)	75.4	11.2	5.2	2.7	2.0	1.5	1.1	0.6	0.5	100.0
	2세대 가구	(3,393)	71.5	16.2	3.9	2.4	2.9	1.8	0.7	0.3	0.4	100.0
	3세대 가구	(212)	81.1	13.3	1.2	2.3	1.0	0.9	0.2	0.0	0.0	100.0
	비친족가구	(5)	34.9	5.3	0.0	0.0	29.8	0.0	3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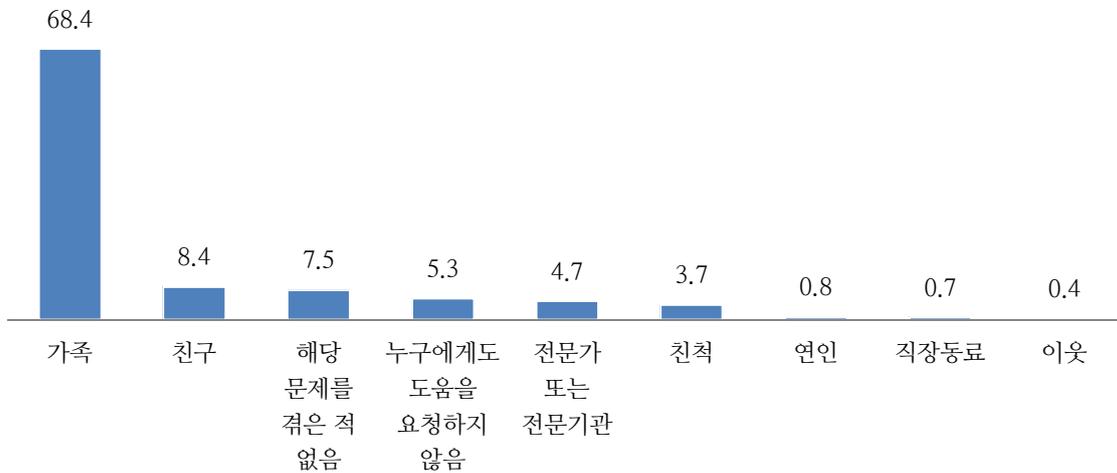
4) 금전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금전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가족’(68.4%)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친구’(8.4%),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5.3%)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3-35 】 금전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문) 과거에 귀하에게 발생된 아래의 각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귀하가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_금전적 문제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여성에서 남성보다 가족(6.8%p)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반면 남성에서는 여성보다 친구(4.1%p)의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연령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과, 1인 가구인 경우에도 가족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다른 경우에 비해 친구를 꼽은 응답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음

【 표 3-42 】 응답자 특성별 금전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족	친구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친척	연인	직장동료	이웃	계
전 체		(5,100)	68.4	8.4	7.5	5.3	4.7	3.7	0.8	0.7	0.4	100.0
성별	남자	(2,555)	65.0	10.4	7.5	5.8	5.8	3.5	0.5	0.9	0.4	100.0
	여자	(2,545)	71.8	6.3	7.5	4.8	3.6	3.9	1.0	0.6	0.5	100.0
연령	19~29세	(935)	65.8	11.5	11.9	3.9	2.9	2.4	0.8	0.7	0.1	100.0
	30~45세	(1,451)	68.3	8.9	6.1	5.3	5.6	3.3	1.2	1.1	0.3	100.0
	46~60세	(1,604)	69.0	7.6	6.5	5.9	4.9	4.7	0.5	0.5	0.3	100.0
	61~79세	(1,110)	70.0	6.1	7.3	5.8	4.8	3.9	0.7	0.6	0.9	100.0
지역	서울	(987)	69.3	8.2	7.4	4.7	3.6	4.8	1.3	0.5	0.2	100.0
	인천/경기	(1,576)	72.2	7.9	4.2	3.8	6.6	3.9	0.8	0.4	0.2	100.0
	대전/충청/세종	(536)	56.9	13.4	14.5	7.2	3.5	3.2	0.5	0.4	0.4	100.0
	광주/전라	(497)	65.5	5.2	11.2	8.2	3.8	3.6	0.5	1.3	0.7	100.0
	대구/경북	(504)	68.4	8.9	5.0	5.5	7.4	3.1	0.2	0.7	0.8	100.0
	부산/울산/경남	(786)	70.4	6.7	9.0	5.7	2.1	3.1	0.8	1.7	0.6	100.0
	강원	(151)	65.9	13.4	9.4	3.4	3.2	1.9	0.5	1.0	1.4	100.0
제주	(64)	64.0	8.1	3.4	12.5	5.9	3.5	2.2	0.0	0.4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63.1	12.3	10.8	5.3	3.5	2.4	1.2	1.1	0.2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72.2	5.9	6.1	4.6	5.2	4.2	0.6	0.6	0.4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52.4	16.1	6.8	13.2	4.9	4.7	0.6	0.5	0.9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49.5	18.7	9.0	11.1	5.4	3.9	0.8	1.0	0.7	100.0
	1세대 가구	(874)	72.9	5.0	8.6	4.1	3.5	3.9	0.6	0.8	0.6	100.0
	2세대 가구	(3,393)	70.8	7.2	7.0	4.6	4.9	3.6	0.9	0.7	0.3	100.0
	3세대 가구	(212)	67.4	10.9	7.7	5.3	4.4	3.5	0.0	0.0	0.9	100.0
	비친족가구	(5)	73.8	0.0	5.3	0.0	0.0	0.0	20.9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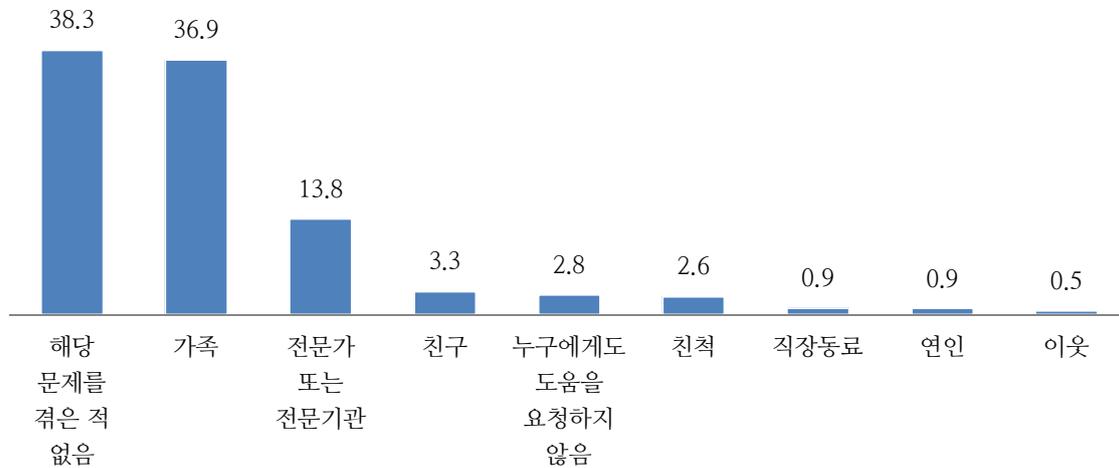
5) 긴급 혹은 재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 긴급 혹은 재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가족’(36.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13.8%), ‘친구’(3.3%)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3-36 】 긴급 혹은 재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문) 과거에 귀하에게 발생된 아래의 각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귀하가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_긴급 혹은 재해 상황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긴급 혹은 재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외하였을 때, 남녀 모두에서 가족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34.6%, 39.2%)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에서도 큰 차이는 없음. 해당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외하였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가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표 3-43 】 응답자 특성별 긴급 혹은 재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해당문제를 겪은 적이 없음	가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친구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친척	직장동료	연인	이웃	계
전 체		(5,100)	38.3	36.9	13.8	3.3	28	26	0.9	0.9	0.5	100.0
성별	남자	(2,555)	39.0	34.6	14.5	4.1	29	27	1.2	0.6	0.4	100.0
	여자	(2,545)	37.6	39.2	13.1	2.5	27	24	0.6	1.1	0.7	100.0
연령	19~29세	(935)	44.9	32.4	11.4	4.5	24	1.8	0.7	1.5	0.3	100.0
	30~45세	(1,451)	38.0	36.8	14.4	3.6	27	2.3	0.9	0.7	0.6	100.0
	46~60세	(1,604)	35.8	38.0	14.3	2.8	3.3	3.4	1.0	0.8	0.5	100.0
	61~79세	(1,110)	36.7	39.1	14.5	2.6	2.5	2.4	0.8	0.7	0.7	100.0
지역	서울	(987)	31.5	44.2	13.2	3.1	2.7	2.8	0.8	1.4	0.1	100.0
	인천/경기	(1,576)	42.4	27.4	18.9	4.1	2.6	2.8	0.4	0.9	0.4	100.0
	대전/충청/세종	(536)	50.6	27.8	11.2	4.1	3.2	1.4	0.7	0.6	0.4	100.0
	광주/전라	(497)	41.2	40.8	8.0	2.2	1.8	3.8	1.2	0.5	0.4	100.0
	대구/경북	(504)	29.3	47.0	11.6	3.5	5.1	0.7	1.2	0.2	1.4	100.0
	부산/울산/경남	(786)	38.7	40.8	10.4	1.8	2.4	2.8	1.4	1.1	0.6	100.0
	강원	(151)	22.0	43.5	22.0	3.5	0.0	4.5	2.1	0.5	1.9	100.0
제주	(64)	21.1	60.0	5.8	3.3	5.5	3.2	0.0	0.7	0.4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43.5	30.6	13.0	5.5	3.1	1.8	0.9	1.3	0.3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6.1	40.2	14.3	1.9	2.5	2.9	0.9	0.7	0.6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6.9	31.7	13.0	8.2	4.7	2.8	0.5	1.0	1.1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8.1	29.4	12.8	9.0	6.0	1.3	1.1	1.6	0.7	100.0
	1세대 가구	(874)	34.6	42.3	14.9	2.0	1.7	2.0	1.5	0.5	0.7	100.0
	2세대 가구	(3,393)	39.7	36.6	13.7	2.6	2.5	2.9	0.8	0.8	0.5	100.0
	3세대 가구	(212)	32.9	40.6	15.5	4.1	2.5	3.9	0.0	0.5	0.0	100.0
	비친족가구	(5)	5.3	64.7	0.0	0.0	0.0	0.0	0.0	3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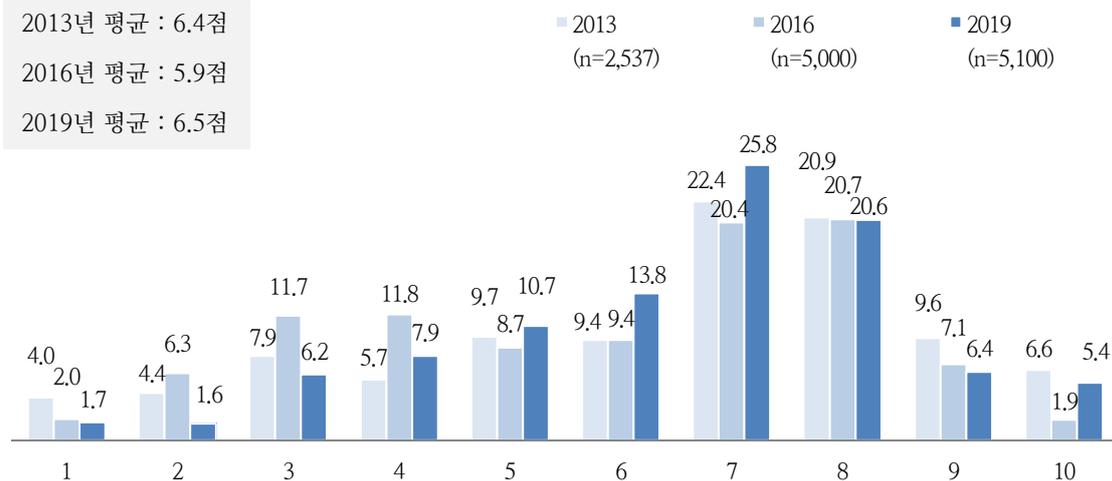
6)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10점 =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6.5점으로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다소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13년과 2016년 조사의 평균은 각각 6.4점, 5.9점으로, 2013년 조사 결과는 2019년과 비슷하지만, 2016년 조사결과는 2019년과 다소 차이를 보임. 2016년 조사에서는 2019년 보다 2점~4점에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고, 6점~7점에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았음

【 그림 3-37 】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소득 공평분배 vs. 소득격차 인정

(단위 : %)



-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결혼상태가 사별, 이혼, 별거 등인 기혼자의 경우 더 공평해져야 한다는 응답이 21.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족 구성원에 따라 살펴보면, 1인 가구인 경우 19.9%로 다른 가족구성원 유형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경향을 보임

【 표 3-44 】 응답자 특성별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보통이다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1.7	1.6	6.2	7.9	17.3	10.7	13.8	24.5	25.8	20.6	6.4	5.4	58.2	100.0	(6.5)	
성별	남자	(2,555)	1.4	1.9	6.1	7.6	17.0	10.2	13.6	23.8	25.4	21.5	6.7	5.7	59.3	100.0	(6.5)
	여자	(2,545)	2.0	1.3	6.2	8.3	17.7	11.2	14.0	25.2	26.2	19.7	6.1	5.0	57.1	100.0	(6.4)
연령	19~29세	(935)	2.0	1.3	5.0	8.0	16.2	10.8	14.1	24.8	25.0	21.4	7.1	5.4	58.9	100.0	(6.5)
	30~45세	(1,451)	1.8	1.4	7.2	7.2	17.6	10.7	12.3	23.0	26.0	21.8	5.9	5.6	59.3	100.0	(6.5)
	46~60세	(1,604)	1.7	1.4	7.0	8.0	18.2	9.5	14.0	23.5	26.6	20.9	5.8	5.1	58.3	100.0	(6.5)
	61~79세	(1,110)	1.1	2.4	4.6	8.6	16.7	12.4	15.1	27.5	25.1	18.1	7.2	5.5	55.8	100.0	(6.5)
지역	서울	(987)	0.7	1.1	4.5	10.0	16.3	12.0	12.8	24.8	24.7	20.3	6.6	7.4	58.8	100.0	(6.6)
	인천/경기	(1,576)	2.6	2.9	7.5	7.2	20.3	11.4	15.7	27.0	29.4	16.3	4.3	2.7	52.7	100.0	(6.1)
	대전/충청/세종	(536)	0.5	1.1	9.8	12.1	23.5	11.1	12.5	23.6	25.2	20.6	5.7	1.3	52.8	100.0	(6.2)
	광주/전라	(497)	2.5	0.6	4.6	4.2	11.9	7.2	9.9	17.1	26.1	26.8	9.7	8.4	71.0	100.0	(7.0)
	대구/경북	(504)	2.1	0.2	5.5	10.9	18.7	12.0	17.5	29.5	17.4	19.0	6.6	8.8	51.8	100.0	(6.5)
	부산/울산/경남	(786)	0.6	1.0	4.5	5.4	11.5	8.6	12.1	20.7	27.1	28.7	7.5	4.4	67.8	100.0	(6.8)
	강원	(151)	2.5	3.6	5.1	5.1	16.3	11.4	13.9	25.3	22.8	13.1	10.5	12.1	58.4	100.0	(6.6)
	제주	(64)	3.6	1.1	7.0	0.7	12.5	12.5	15.0	27.5	14.5	15.7	9.5	20.2	60.0	100.0	(7.0)
결혼상태	미혼	(1,493)	2.1	1.2	6.5	7.7	17.5	10.8	13.3	24.0	25.6	20.8	6.2	5.8	58.5	100.0	(6.5)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4	1.7	6.1	7.8	16.9	10.4	13.9	24.3	26.4	20.7	6.4	5.3	58.8	100.0	(6.5)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2	2.7	5.8	10.6	21.3	14.1	14.7	28.8	20.7	18.8	6.3	4.1	49.9	100.0	(6.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4	1.2	6.7	9.6	19.9	12.3	13.1	25.4	22.9	19.7	5.8	6.4	54.7	100.0	(6.4)
	1세대 가구	(874)	0.6	1.9	5.2	8.0	15.7	11.4	15.3	26.7	25.1	21.0	6.3	5.2	57.7	100.0	(6.5)
	2세대 가구	(3,393)	1.8	1.6	6.4	7.7	17.5	10.0	13.7	23.8	26.6	20.9	6.4	4.9	58.7	100.0	(6.5)
	3세대 가구	(212)	1.9	1.9	4.0	5.9	13.7	13.9	10.8	24.7	24.3	17.6	8.7	11.1	61.6	100.0	(6.7)
	비친족가구	(5)	0.0	3.7	17.7	0.0	21.3	11.7	0.0	11.7	40.7	20.9	0.0	5.3	67.0	100.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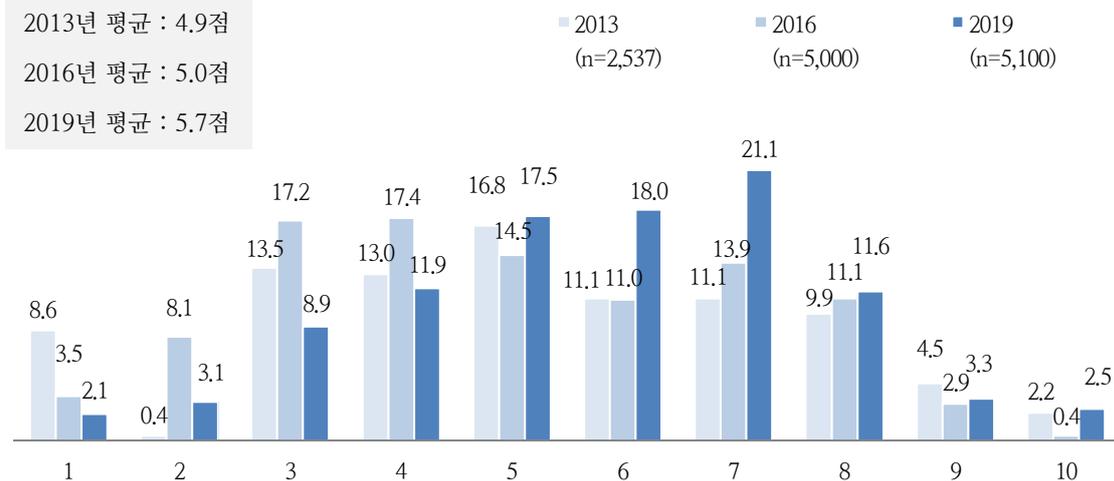
7) 생계-복지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 ‘복지의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 정부가 더 책임을 져야한다, 10점 = 당사자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7점으로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과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과 2016년 조사의 평균은 각각 4.9점, 5.0점으로, 5.5점 보다 낮게 나타나 다소 ‘정부 책임론’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었음. 하지만 2019년 조사 결과에서는 전기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사자 책임론’ 쪽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그림 3-38 】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정부 복지 책임 vs. 당사자 책임

(단위 : %)



- 성별, 연령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음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 있는 기혼층인 경우에는 정부책임론 쪽이 34.6%로 다른 결혼상태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3-45 】 응답자 특성별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보통이다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2.1	3.1	8.9	11.9	26.0	17.5	18.0	35.5	21.1	11.6	3.3	2.5	38.5	100.0	(5.7)	
성별	남자	(2,555)	1.8	3.0	9.3	11.3	25.4	17.3	17.3	34.6	21.5	12.5	3.2	2.8	40.1	100.0	(5.8)
	여자	(2,545)	2.4	3.1	8.6	12.5	26.5	17.7	18.8	36.5	20.7	10.8	3.3	2.2	37.0	100.0	(5.7)
연령	19~29세	(935)	2.3	2.5	9.9	11.1	25.7	17.9	18.1	36.0	23.3	10.1	2.2	2.7	38.3	100.0	(5.7)
	30~45세	(1,451)	2.6	2.9	8.6	11.4	25.4	17.6	17.3	35.0	21.2	12.5	3.2	2.7	39.7	100.0	(5.8)
	46~60세	(1,604)	1.8	3.3	8.5	12.7	26.3	16.3	19.1	35.3	20.5	12.7	3.5	1.8	38.4	100.0	(5.7)
	61~79세	(1,110)	1.7	3.5	9.2	12.0	26.5	18.9	17.3	36.2	20.2	10.2	4.0	2.9	37.3	100.0	(5.7)
지역	서울	(987)	1.8	2.9	8.6	12.2	25.5	19.7	15.3	35.1	22.7	9.4	2.7	4.6	39.5	100.0	(5.8)
	인천/경기	(1,576)	1.9	2.5	8.9	11.4	24.6	17.8	20.0	37.8	24.1	10.2	2.2	1.1	37.5	100.0	(5.7)
	대전/충청/세종	(536)	1.5	2.8	11.1	19.3	34.8	18.5	19.2	37.7	17.4	7.9	1.8	0.4	27.5	100.0	(5.3)
	광주/전라	(497)	2.4	3.8	9.1	9.1	24.5	12.5	17.6	30.2	19.7	15.8	6.5	3.3	45.4	100.0	(6.0)
	대구/경북	(504)	2.8	2.6	9.6	12.6	27.6	19.3	15.9	35.2	16.5	11.2	5.5	4.1	37.2	100.0	(5.7)
	부산/울산/경남	(786)	1.0	3.2	7.3	8.2	19.7	15.7	19.0	34.8	22.1	18.4	3.5	1.6	45.5	100.0	(6.0)
	강원	(151)	7.2	6.0	6.7	14.8	34.7	16.7	17.0	33.7	13.6	9.4	3.7	4.8	31.5	100.0	(5.4)
제주	(64)	12.0	10.2	12.8	11.8	46.8	15.5	10.5	26.1	8.6	7.5	5.6	5.5	27.1	100.0	(4.8)	
결혼상태	미혼	(1,493)	2.5	2.5	9.1	10.8	24.9	18.1	18.1	36.2	21.9	11.4	2.9	2.8	39.0	100.0	(5.8)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8	3.0	8.7	12.1	25.7	16.7	18.3	35.0	21.6	12.0	3.3	2.4	39.3	100.0	(5.8)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3	6.4	10.8	14.1	34.6	23.8	14.3	38.1	11.7	8.7	4.5	2.4	27.2	100.0	(5.3)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9	2.6	10.3	11.6	28.4	19.4	16.9	36.4	15.5	12.0	4.1	3.6	35.2	100.0	(5.6)
	1세대 가구	(874)	1.3	2.7	7.7	12.3	24.0	18.2	18.5	36.7	22.4	11.9	2.4	2.5	39.3	100.0	(5.8)
	2세대 가구	(3,393)	2.0	3.3	9.2	12.0	26.5	17.0	17.8	34.8	22.2	11.2	3.4	2.0	38.7	100.0	(5.7)
	3세대 가구	(212)	1.8	1.4	5.8	9.1	18.0	18.0	22.4	40.3	15.4	16.5	2.5	7.3	41.6	100.0	(6.2)
	비친족가구	(5)	0.0	3.7	0.0	31.1	34.7	11.7	39.0	50.7	9.3	0.0	0.0	5.3	14.6	100.0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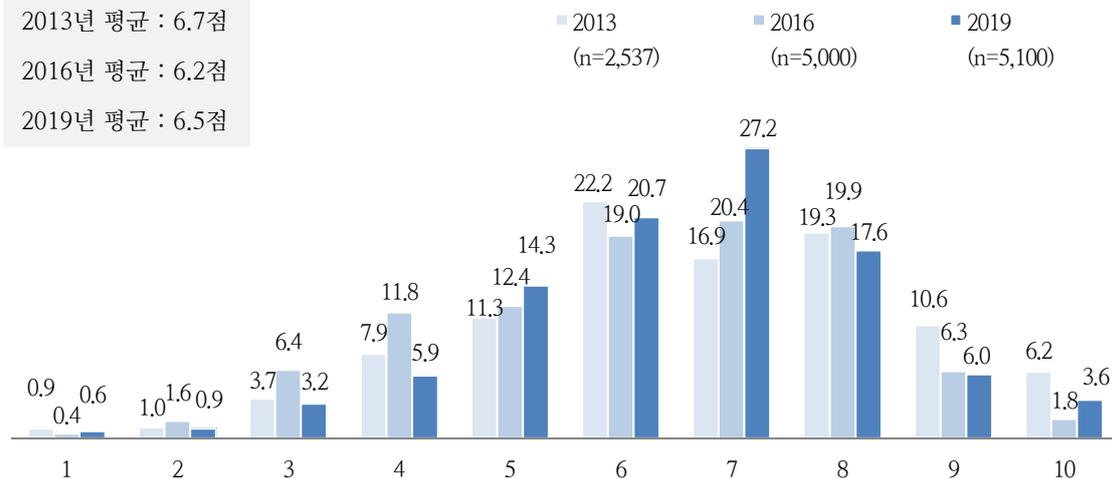
8) 경쟁에 대한 인식

- ‘경쟁’에 대한 의견을 10점 척도(1점 = 경쟁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10점 =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6.5점**으로 ‘경쟁으로 인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다소 기울어짐
- 2013년과 2016년 조사의 평균은 각각 6.7점, 6.2점으로, 2019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과거에 비해 3~5점에 응답한 비율은 다소 줄고 7점에 응답한 비율을 증가하였으며, 8점 및 9점에 응답한 비율은 다시 감소하였음

【 그림 3-39 】 경쟁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경쟁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 vs. 경쟁으로 인해 사회 발전

(단위 : %)



2013년 평균 : 6.7점
2016년 평균 : 6.2점
2019년 평균 : 6.5점

-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로 큰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 다만, 노년층에서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응답비율이 13.1%로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또한 사별, 이혼, 별거 등의 기혼층과 1인 가구층에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응답비율이 16.5% 및 14.0%로 다른 층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표 3-46 】 응답자 특성별 경쟁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보통이다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6	0.9	3.2	5.9	10.7	14.3	20.7	35.0	27.2	17.6	6.0	3.6	54.4	100.0	(6.5)	
성별	남자	(2,555)	0.7	0.9	3.3	5.6	10.5	13.6	20.6	34.2	26.8	18.5	6.2	3.8	55.3	100.0	(6.6)
	여자	(2,545)	0.6	0.9	3.1	6.2	10.8	15.0	20.7	35.8	27.5	16.6	5.8	3.5	53.4	100.0	(6.5)
연령	19~29세	(935)	0.9	1.1	3.0	5.7	10.7	14.9	20.0	35.0	26.0	18.8	5.7	3.8	54.3	100.0	(6.5)
	30~45세	(1,451)	0.5	0.8	2.5	5.8	9.7	15.4	19.3	34.7	27.9	18.0	5.8	4.0	55.6	100.0	(6.6)
	46~60세	(1,604)	0.3	0.5	3.5	5.4	9.8	12.5	21.9	34.4	28.5	17.0	7.0	3.3	55.8	100.0	(6.6)
	61~79세	(1,110)	1.0	1.4	3.9	6.7	13.1	15.0	21.3	36.3	25.3	17.0	4.8	3.5	50.6	100.0	(6.4)
지역	서울	(987)	0.6	0.7	3.0	4.4	8.6	10.8	18.6	29.5	27.3	17.5	10.2	6.9	61.9	100.0	(6.9)
	인천/경기	(1,576)	1.2	0.6	3.1	6.5	11.4	13.7	23.8	37.5	29.9	16.1	2.9	2.3	51.1	100.0	(6.4)
	대전/충청/세종	(536)	0.0	0.7	4.3	10.0	15.0	21.6	19.2	40.8	24.6	18.1	1.4	0.1	44.2	100.0	(6.1)
	광주/전라	(497)	0.8	2.0	2.5	4.4	9.7	8.6	20.2	28.8	23.0	24.1	10.7	3.7	61.5	100.0	(6.8)
	대구/경북	(504)	0.1	0.7	1.8	4.4	7.0	20.6	19.5	40.1	24.7	15.1	7.6	5.6	52.9	100.0	(6.6)
	부산/울산/경남	(786)	0.3	1.2	4.7	6.3	12.5	12.8	20.4	33.2	29.0	19.5	4.5	1.2	54.3	100.0	(6.4)
	강원	(151)	0.0	0.9	1.3	3.9	6.1	21.4	16.6	38.0	23.6	10.1	10.9	11.2	55.8	100.0	(6.8)
제주	(64)	1.4	3.2	5.5	1.8	11.9	19.0	12.3	31.3	19.4	14.6	12.1	10.7	56.8	100.0	(6.7)	
결혼상태	미혼	(1,493)	0.7	1.1	2.7	6.2	10.6	14.4	19.3	33.7	25.9	19.7	5.5	4.5	55.6	100.0	(6.6)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5	0.8	3.4	5.5	10.1	14.0	21.6	35.5	28.4	16.6	6.0	3.4	54.4	100.0	(6.5)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9	1.2	4.7	8.6	16.5	17.8	17.7	35.5	20.7	18.5	7.3	1.5	48.0	100.0	(6.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4	1.4	3.3	7.9	14.0	16.2	18.5	34.7	21.5	19.5	6.3	4.0	51.3	100.0	(6.4)
	1세대 가구	(874)	0.4	0.8	2.6	6.6	10.4	13.7	23.2	36.8	27.3	17.4	5.9	2.1	52.8	100.0	(6.5)
	2세대 가구	(3,393)	0.5	0.8	3.5	5.4	10.2	14.2	20.8	35.0	28.2	17.2	6.0	3.5	54.9	100.0	(6.5)
	3세대 가구	(212)	1.4	2.5	2.0	4.1	10.0	13.9	15.5	29.4	26.9	18.3	4.5	10.9	60.6	100.0	(6.8)
	비친족가구	(5)	0.0	0.0	0.0	3.7	3.7	0.0	0.0	0.0	43.6	47.5	0.0	5.3	96.3	100.0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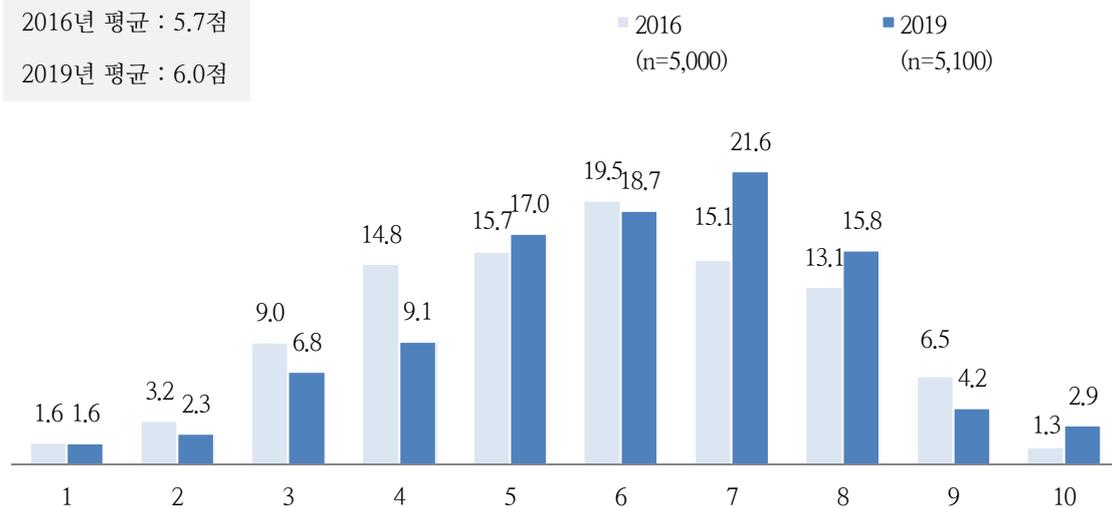
9)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10점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6.0점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약간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조사의 평균은 5.7점으로, 2019년 조사 결과보다 0.3점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항목별 응답 경향을 보면, 2~4점을 꼽은 비율이 낮아지고 7점, 8점을 꼽은 비율이 다소 증가한 상황임

【 그림 3-40 】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기업규제 강화 vs. 기업규제 완화

(단위 : %)



- 성별, 연령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군별로 응답 경향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다만 남자(46.1%), 미혼(45.0%) 및 결혼생활 중인 기혼(44.9%), 2세대 가구(45.5%)층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우세한 경향임

【 표 3-47 】 응답자 특성별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보통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1.6	2.3	6.8	9.1	19.7	17.0	18.7	35.8	21.6	15.8	4.2	2.9	44.5	100.0	(6.0)	
성별	남자	(2,555)	1.7	2.4	6.8	8.9	19.7	15.8	18.4	34.1	22.3	15.9	4.7	3.2	46.1	100.0	(6.1)
	여자	(2,545)	1.4	2.2	6.9	9.3	19.8	18.3	19.1	37.4	21.0	15.7	3.6	2.5	42.8	100.0	(6.0)
연령	19~29세	(935)	2.1	2.1	6.3	8.5	19.0	19.1	17.9	37.0	21.7	16.6	3.2	2.4	44.0	100.0	(6.0)
	30~45세	(1,451)	1.6	2.6	7.1	8.8	20.2	17.2	18.2	35.4	21.7	15.6	4.0	3.1	44.4	100.0	(6.0)
	46~60세	(1,604)	1.0	2.1	7.6	9.6	20.3	15.2	18.9	34.1	21.9	16.0	5.0	2.6	45.6	100.0	(6.1)
	61~79세	(1,110)	1.8	2.2	5.8	9.1	19.0	17.7	19.9	37.6	21.0	15.0	4.0	3.5	43.5	100.0	(6.1)
지역	서울	(987)	0.7	2.7	6.7	10.1	20.1	17.9	16.9	34.8	21.5	15.2	3.8	4.4	45.0	100.0	(6.1)
	인천/경기	(1,576)	1.4	0.4	5.6	6.7	14.2	15.4	20.0	35.4	28.8	17.4	2.2	2.0	50.4	100.0	(6.2)
	대전/충청/세종	(536)	1.8	3.2	5.9	15.6	26.4	19.8	19.5	39.4	20.1	12.1	1.6	0.4	34.2	100.0	(5.6)
	광주/전라	(497)	5.0	6.7	13.8	8.0	33.4	14.3	21.4	35.7	11.8	10.9	5.4	2.7	30.8	100.0	(5.4)
	대구/경북	(504)	0.7	1.1	5.7	11.9	19.4	21.6	17.1	38.7	17.0	14.0	6.0	4.8	41.9	100.0	(6.1)
	부산/울산/경남	(786)	0.8	2.1	6.3	7.0	16.1	16.5	16.9	33.4	19.6	21.2	7.4	2.4	50.5	100.0	(6.3)
	강원	(151)	2.5	4.9	7.8	7.0	22.2	14.1	23.3	37.3	17.3	10.7	7.0	5.4	40.4	100.0	(6.0)
제주	(64)	2.5	4.8	7.9	13.5	28.7	19.1	14.9	34.0	7.3	14.3	9.9	5.8	37.3	100.0	(5.9)	
결혼상태	미혼	(1,493)	2.1	2.1	6.1	8.9	19.1	17.9	18.0	35.9	21.3	16.6	3.8	3.3	45.0	100.0	(6.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3	2.3	7.6	9.2	20.3	15.7	19.1	34.8	22.2	15.4	4.4	2.8	44.9	100.0	(6.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8	3.0	2.6	8.8	16.3	27.0	19.0	46.0	16.6	15.8	3.9	1.4	37.7	100.0	(5.9)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7	3.1	4.3	8.1	18.2	21.3	19.4	40.7	18.3	15.2	4.2	3.5	41.1	100.0	(6.0)
	1세대 가구	(874)	1.3	2.3	4.9	9.4	17.8	17.0	21.9	38.9	21.9	15.1	4.3	1.9	43.3	100.0	(6.1)
	2세대 가구	(3,393)	1.4	2.0	7.9	9.1	20.5	15.9	18.1	34.0	22.7	15.8	4.2	2.8	45.5	100.0	(6.1)
	3세대 가구	(212)	2.0	3.9	5.0	9.5	20.5	22.1	14.4	36.5	13.6	20.6	3.0	5.8	43.0	100.0	(6.0)
	비친족가구	(5)	0.0	0.0	3.7	20.9	24.6	25.0	23.5	48.5	3.9	17.7	0.0	5.3	26.9	100.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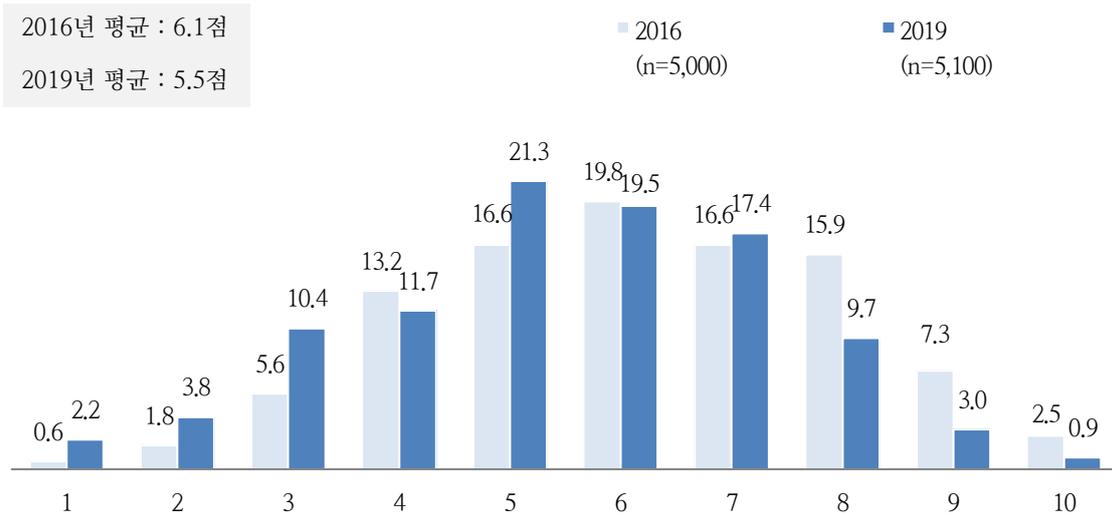
10)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10점 =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적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5점으로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 질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질서를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나타남**
- 2016년 조사의 평균은 6.1점으로, 개인의 자유 쪽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쏠려있던 경향이 있었음. 이후 경향은 변화하여 항목별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2019년도는 1, 2, 3, 5점 응답이 많아지고 8점, 9점, 10점 응답이 줄어든 모습을 보임

【 그림 3-41 】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사회적 질서 우선 vs. 개인의 자유 우선

(단위 : %)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 질서보다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남(노년층 26.8% → 36.7%)
-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서울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40.9%)
- 사별, 이혼, 별거 등의 기혼층, 3세대 가구인 경우에 타 층에 비해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임

【 표 3-48 】 응답자 특성별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보통이다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2.2	3.8	10.4	11.7	28.2	21.3	19.5	40.8	17.4	9.7	3.0	0.9	31.0	100.0	(5.5)	
성별	남자	(2,555)	1.7	4.1	10.2	11.9	27.9	21.4	18.4	39.8	18.4	9.5	3.3	1.1	32.3	100.0	(5.5)
	여자	(2,545)	2.7	3.6	10.6	11.6	28.5	21.3	20.6	41.8	16.4	9.9	2.6	0.7	29.7	100.0	(5.4)
연령	19~29세	(935)	1.7	3.4	8.7	11.1	24.9	20.9	17.5	38.4	19.2	12.5	3.4	1.6	36.7	100.0	(5.7)
	30~45세	(1,451)	2.0	3.8	9.0	12.3	27.2	21.2	19.8	41.1	18.5	9.9	2.7	0.7	31.8	100.0	(5.5)
	46~60세	(1,604)	2.6	4.3	10.9	10.9	28.8	21.1	20.2	41.3	16.5	9.2	3.6	0.7	29.9	100.0	(5.4)
	61~79세	(1,110)	2.3	3.6	12.9	12.6	31.4	22.1	19.7	41.7	15.8	8.0	2.1	0.9	26.8	100.0	(5.3)
지역	서울	(987)	3.7	6.2	15.8	15.3	40.9	22.0	15.9	38.0	12.1	7.0	1.4	0.6	21.1	100.0	(4.9)
	인천/경기	(1,576)	1.9	2.0	10.1	9.9	24.0	18.0	21.0	39.0	21.4	11.5	3.6	0.5	36.9	100.0	(5.7)
	대전/충청/세종	(536)	0.9	1.6	5.7	11.3	19.5	23.8	24.2	47.9	21.1	9.5	1.6	0.4	32.6	100.0	(5.7)
	광주/전라	(497)	2.5	6.3	11.1	12.6	32.6	22.4	20.1	42.5	11.3	6.9	5.0	1.7	24.9	100.0	(5.3)
	대구/경북	(504)	0.8	3.4	6.8	11.4	22.5	28.7	19.0	47.7	15.0	8.1	4.3	2.4	29.8	100.0	(5.6)
	부산/울산/경남	(786)	1.6	4.3	9.9	10.4	26.1	19.9	17.2	37.1	20.9	12.9	2.2	0.7	36.7	100.0	(5.6)
	강원	(151)	6.2	5.4	6.9	13.9	32.3	22.6	20.5	43.1	12.7	7.6	2.6	1.7	24.6	100.0	(5.2)
	제주	(64)	3.2	7.2	10.4	12.7	33.5	19.5	21.2	40.7	7.0	8.3	6.6	3.9	25.8	100.0	(5.4)
결혼상태	미혼	(1,493)	1.9	3.0	8.8	12.1	25.8	22.8	18.6	41.4	17.1	11.2	3.1	1.4	32.8	100.0	(5.6)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4	4.1	10.8	11.6	28.9	20.4	20.0	40.4	17.7	9.2	3.1	0.8	30.7	100.0	(5.4)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1	5.2	14.4	11.8	32.5	24.1	18.3	42.4	16.0	7.8	1.2	0.1	25.1	100.0	(5.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8	2.8	12.6	12.2	29.4	23.6	19.2	42.9	16.0	7.9	2.9	0.9	27.7	100.0	(5.4)
	1세대 가구	(874)	1.8	2.5	10.4	11.3	26.0	22.4	20.4	42.8	18.1	10.3	2.3	0.5	31.3	100.0	(5.5)
	2세대 가구	(3,393)	2.3	4.3	10.1	11.4	28.1	20.3	19.4	39.7	17.9	10.1	3.1	1.1	32.2	100.0	(5.5)
	3세대 가구	(212)	3.9	4.5	8.9	17.6	34.9	25.5	17.6	43.2	11.3	6.8	3.8	0.1	22.0	100.0	(5.1)
	비친족가구	(5)	0.0	3.7	11.7	20.9	36.3	36.7	23.1	59.9	3.9	0.0	0.0	0.0	3.9	100.0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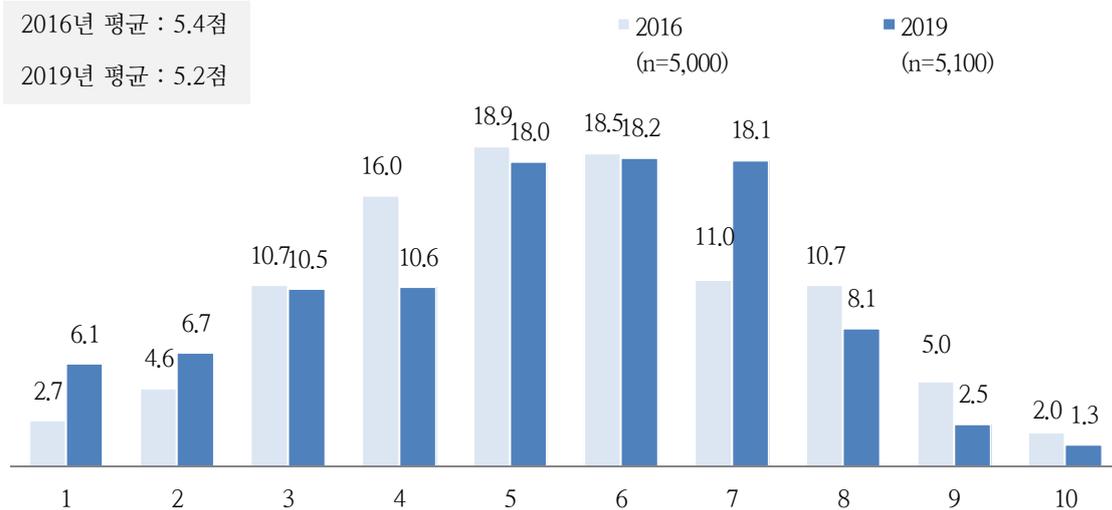
11)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1점 =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10점 =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2점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뛰어난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비등하거나 또는 ‘똑같은 교육환경’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결과를 보임
- 2016년 조사의 평균은 5.4점으로, 2019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그림 3-42 】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_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환경 vs. 뛰어난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환경

(단위 : %)



- 성별, 연령 등 대부분의 응답자 층에서 ‘보통’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더 우세한 수준으로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의 비율이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은 상황임
- ‘보통’을 꼽은 것이 판단을 유보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본 조사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

【 표 3-49 】 응답자 특성별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보통이다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6.1	6.7	10.5	10.6	33.8	18.0	18.2	36.2	18.1	8.1	2.5	1.3	30.0	100.0	(5.2)	
성별	남자	(2,555)	6.1	6.9	10.4	10.0	33.5	18.3	17.6	35.9	17.4	9.2	2.7	1.3	30.6	100.0	(5.2)
	여자	(2,545)	6.1	6.5	10.5	11.2	34.1	17.7	18.9	36.6	18.8	7.0	2.2	1.3	29.3	100.0	(5.2)
연령	19~29세	(935)	8.0	6.7	10.3	9.5	34.6	19.5	16.1	35.6	18.3	8.2	2.0	1.3	29.8	100.0	(5.1)
	30~45세	(1,451)	5.0	6.3	10.8	10.6	32.7	18.5	18.3	36.7	18.6	8.9	1.9	1.2	30.6	100.0	(5.2)
	46~60세	(1,604)	6.4	6.4	10.5	11.0	34.4	17.8	18.8	36.5	17.4	7.7	3.1	0.9	29.1	100.0	(5.2)
	61~79세	(1,110)	5.4	7.6	10.0	10.9	33.9	16.5	19.1	35.6	18.3	7.6	2.7	1.9	30.5	100.0	(5.2)
지역	서울	(987)	5.3	8.6	11.5	13.6	39.0	19.5	16.4	35.8	14.8	7.1	2.2	1.2	25.2	100.0	(5.0)
	인천/경기	(1,576)	4.3	5.8	12.3	13.5	35.9	17.1	19.0	36.1	19.8	7.1	0.7	0.4	28.0	100.0	(5.1)
	대전/충청/세종	(536)	1.5	3.8	9.7	13.1	28.1	25.2	17.7	43.0	19.7	7.3	2.0	0.0	29.0	100.0	(5.4)
	광주/전라	(497)	13.7	7.1	9.2	4.5	34.4	13.4	17.9	31.3	15.3	8.4	7.5	3.0	34.3	100.0	(5.2)
	대구/경북	(504)	9.7	5.1	5.8	5.4	25.9	21.7	16.4	38.2	16.7	12.2	4.3	2.8	35.9	100.0	(5.5)
	부산/울산/경남	(786)	3.5	9.3	10.3	7.3	30.5	14.6	19.8	34.4	22.6	9.0	2.3	1.2	35.1	100.0	(5.4)
	강원	(151)	17.1	3.8	7.5	7.2	35.7	15.3	21.8	37.1	11.8	8.1	2.7	4.6	27.2	100.0	(5.0)
결혼상태	제주	(64)	18.1	7.5	10.0	9.5	45.1	10.6	21.6	32.2	6.2	9.5	2.8	4.2	22.7	100.0	(4.7)
	미혼	(1,493)	6.2	6.5	11.4	9.8	33.9	18.9	17.1	36.0	18.1	8.8	1.8	1.4	30.1	100.0	(5.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9	6.3	10.1	11.0	33.3	17.9	18.6	36.5	18.3	8.0	2.7	1.3	30.3	100.0	(5.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8.2	12.2	9.2	10.1	39.7	15.0	19.6	34.6	15.8	6.2	2.7	1.1	25.7	100.0	(4.9)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4	8.3	11.4	9.6	34.7	16.7	18.0	34.7	17.5	10.1	1.4	1.6	30.6	100.0	(5.2)
	1세대 가구	(874)	4.7	6.3	9.7	11.5	32.1	18.4	18.6	37.0	19.4	6.9	3.2	1.3	30.8	100.0	(5.3)
	2세대 가구	(3,393)	6.4	6.4	10.7	10.5	33.9	18.2	18.4	36.6	18.0	8.1	2.4	1.1	29.6	100.0	(5.2)
	3세대 가구	(212)	9.2	8.4	7.9	11.9	37.5	16.2	15.4	31.7	15.9	7.4	4.1	3.5	30.8	100.0	(5.1)
	비친족가구	(5)	3.7	20.9	11.7	3.9	40.1	41.8	0.0	41.8	18.1	0.0	0.0	0.0	18.1	100.0	(4.3)

5. 갈등/신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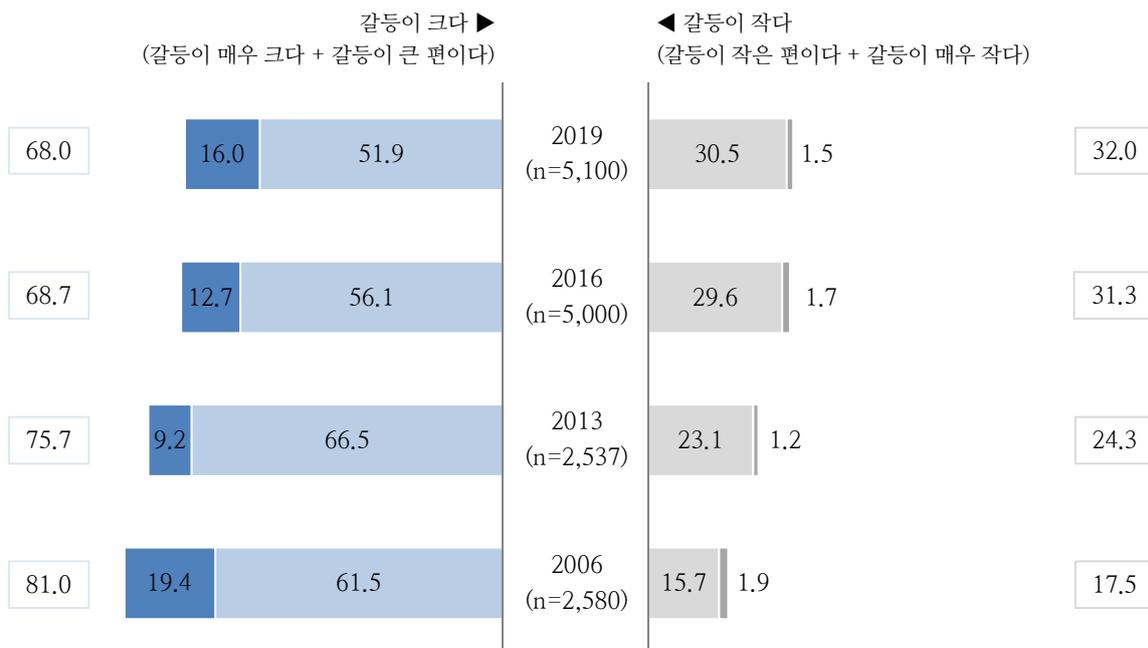
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 젊은세대

-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는 68.0%(매우 16.0% + 큰 편 51.9%), ‘갈등이 작다’는 32.0%(작은 편 30.5% + 매우 1.5%)로 나타남
-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는(매우 + 큰 편) 응답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0%p↓), 2019년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2016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그림 3-43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 젊은세대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 기성세대 vs. 젊은세대

(단위 : %)



○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갈등 크기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별에 따라서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즉,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모든 인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 표 3-50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 젊은세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16.0	51.9	68.0	30.5	1.5	32.0	100.0	(2.8)	
성별	남자	(2,555)	15.5	53.0	68.5	29.8	1.7	31.5	100.0	(2.8)
	여자	(2,545)	16.6	50.9	67.5	31.2	1.3	32.5	100.0	(2.8)
연령	19~29세	(935)	17.5	51.2	68.7	29.3	1.9	31.3	100.0	(2.8)
	30~45세	(1,451)	15.9	53.7	69.6	29.0	1.4	30.4	100.0	(2.8)
	46~60세	(1,604)	16.2	50.4	66.6	31.6	1.8	33.4	100.0	(2.8)
	61~79세	(1,110)	14.8	52.4	67.2	31.9	0.9	32.8	100.0	(2.8)
지역	서울	(987)	16.7	56.5	73.2	26.2	0.6	26.8	100.0	(2.9)
	인천/경기	(1,576)	20.7	47.0	67.6	30.5	1.8	32.4	100.0	(2.9)
	대전/충청/세종	(536)	9.0	57.4	66.4	32.7	0.9	33.6	100.0	(2.7)
	광주/전라	(497)	15.0	53.8	68.8	29.2	2.0	31.2	100.0	(2.8)
	대구/경북	(504)	17.0	45.3	62.3	35.8	2.0	37.7	100.0	(2.8)
	부산/울산/경남	(786)	11.6	55.5	67.0	31.8	1.1	33.0	100.0	(2.8)
	강원	(151)	9.9	54.5	64.4	32.7	2.9	35.6	100.0	(2.7)
제주	(64)	20.4	48.2	68.6	26.0	5.4	31.4	100.0	(2.8)	
결혼상태	미혼	(1,493)	16.2	53.0	69.2	28.9	1.9	30.8	100.0	(2.8)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5.6	51.9	67.5	31.1	1.4	32.5	100.0	(2.8)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0.0	47.2	67.3	32.3	0.4	32.7	100.0	(2.9)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7.9	51.1	69.0	29.6	1.4	31.0	100.0	(2.9)
	1세대 가구	(874)	15.3	54.9	70.2	28.3	1.5	29.8	100.0	(2.8)
	2세대 가구	(3,393)	15.7	51.5	67.2	31.3	1.4	32.8	100.0	(2.8)
	3세대 가구	(212)	18.7	49.0	67.7	29.5	2.8	32.3	100.0	(2.8)
	비친족가구	(5)	27.0	52.0	79.1	20.9	0.0	20.9	10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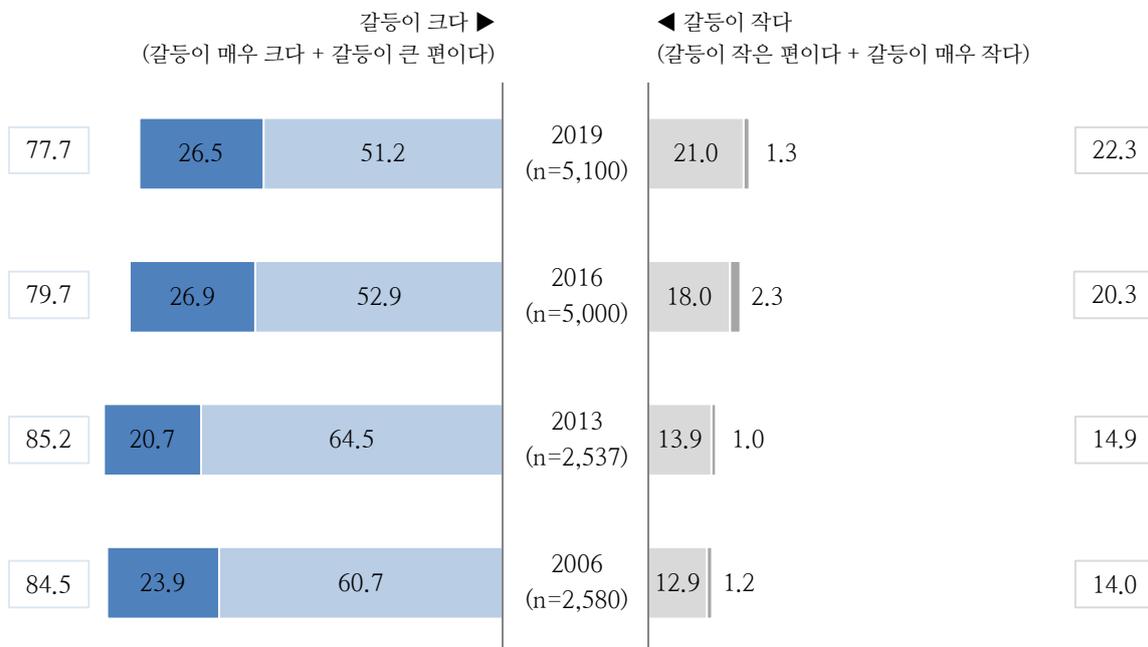
2)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자와 근로자

- 기업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77.7%(매우 26.5% + 큰 편 51.2%),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22.3%(작은 편 21.0% + 매우 1.3%)로 나타남
- 한편,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에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은 줄어들어, 2019년에는 2006년(84.5%)에 비해 6.8%p 낮아진 결과가 나타남

【 그림 3-44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자와 근로자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자 vs. 근로자

(단위 : %)



○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 크기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별에 따라서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즉,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모든 인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 표 3-51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자와 근로자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26.5	51.2	77.7	21.0	1.3	22.3	100.0	(3.0)	
성별	남자	(2,555)	26.6	50.6	77.3	21.6	1.1	22.7	100.0	(3.0)
	여자	(2,545)	26.4	51.8	78.2	20.4	1.4	21.8	100.0	(3.0)
연령	19~29세	(935)	30.7	47.6	78.3	20.3	1.4	21.7	100.0	(3.1)
	30~45세	(1,451)	26.1	51.6	77.7	21.2	1.1	22.3	100.0	(3.0)
	46~60세	(1,604)	26.2	51.6	77.8	20.7	1.5	22.2	100.0	(3.0)
	61~79세	(1,110)	24.0	53.1	77.1	21.7	1.1	22.9	100.0	(3.0)
지역	서울	(987)	29.0	50.4	79.4	19.5	1.1	20.6	100.0	(3.1)
	인천/경기	(1,576)	27.7	47.3	75.0	23.8	1.2	25.0	100.0	(3.0)
	대전/충청/세종	(536)	22.4	48.7	71.1	27.7	1.2	28.9	100.0	(2.9)
	광주/전라	(497)	25.8	56.3	82.1	17.5	0.4	17.9	100.0	(3.1)
	대구/경북	(504)	35.9	44.8	80.7	18.6	0.8	19.3	100.0	(3.2)
	부산/울산/경남	(786)	19.1	60.2	79.3	18.5	2.2	20.7	100.0	(3.0)
	강원	(151)	23.2	57.8	80.9	17.2	1.9	19.1	100.0	(3.0)
제주	(64)	23.5	66.1	89.6	8.0	2.3	10.4	100.0	(3.1)	
결혼상태	미혼	(1,493)	29.1	49.6	78.8	19.8	1.4	21.2	100.0	(3.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5.4	52.2	77.6	21.2	1.3	22.4	100.0	(3.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6.4	48.0	74.3	25.0	0.7	25.7	100.0	(3.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7.0	49.0	76.1	22.5	1.4	23.9	100.0	(3.0)
	1세대 가구	(874)	25.1	53.3	78.5	20.2	1.3	21.5	100.0	(3.0)
	2세대 가구	(3,393)	27.1	50.7	77.8	21.0	1.1	22.2	100.0	(3.0)
	3세대 가구	(212)	21.3	56.4	77.7	19.5	2.8	22.3	100.0	(3.0)
	비친족가구	(5)	14.4	64.7	79.1	20.9	0.0	20.9	10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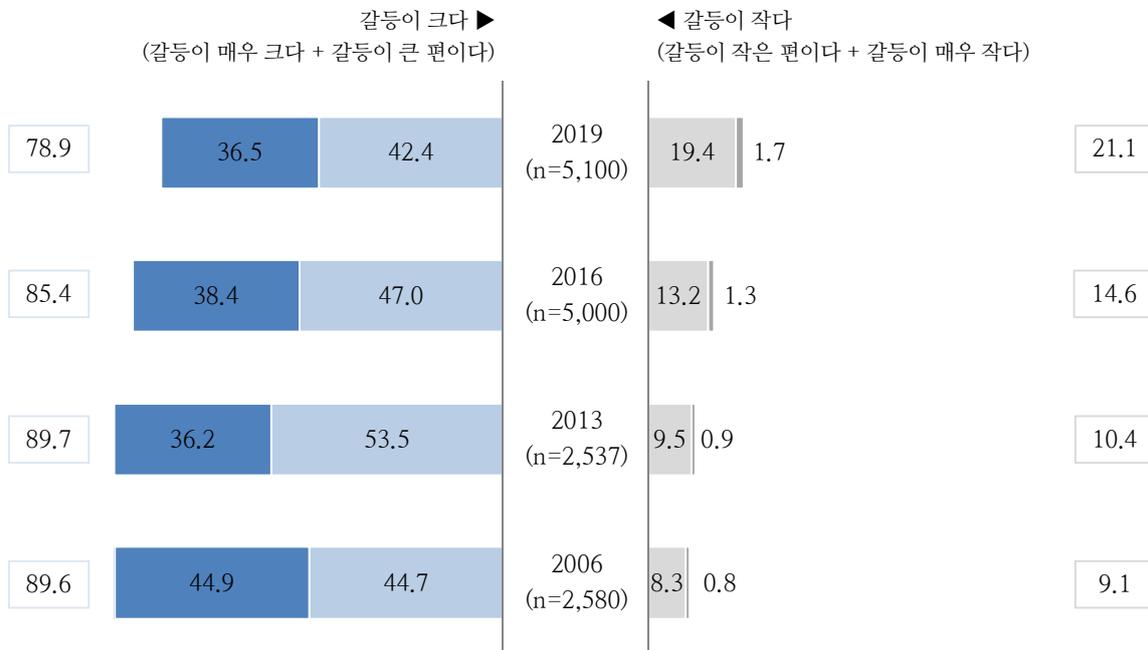
3)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78.9%(매우 36.5% + 큰 편 42.4%),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21.1%(작은 편 19.4% + 매우 1.7%)로 나타남
-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차 줄어들어 2006년 89.6%에 비해 2019년에는 78.9%로 나타남(10.7%p↓)

【 그림 3-45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부유층 vs. 서민층

(단위 : %)



-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의 갈등 크기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별에 따라서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즉,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모든 인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 갈등이 매우 크다는 강한 의견을 가진 응답비율도 거의 대부분 3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음

【 표 3-52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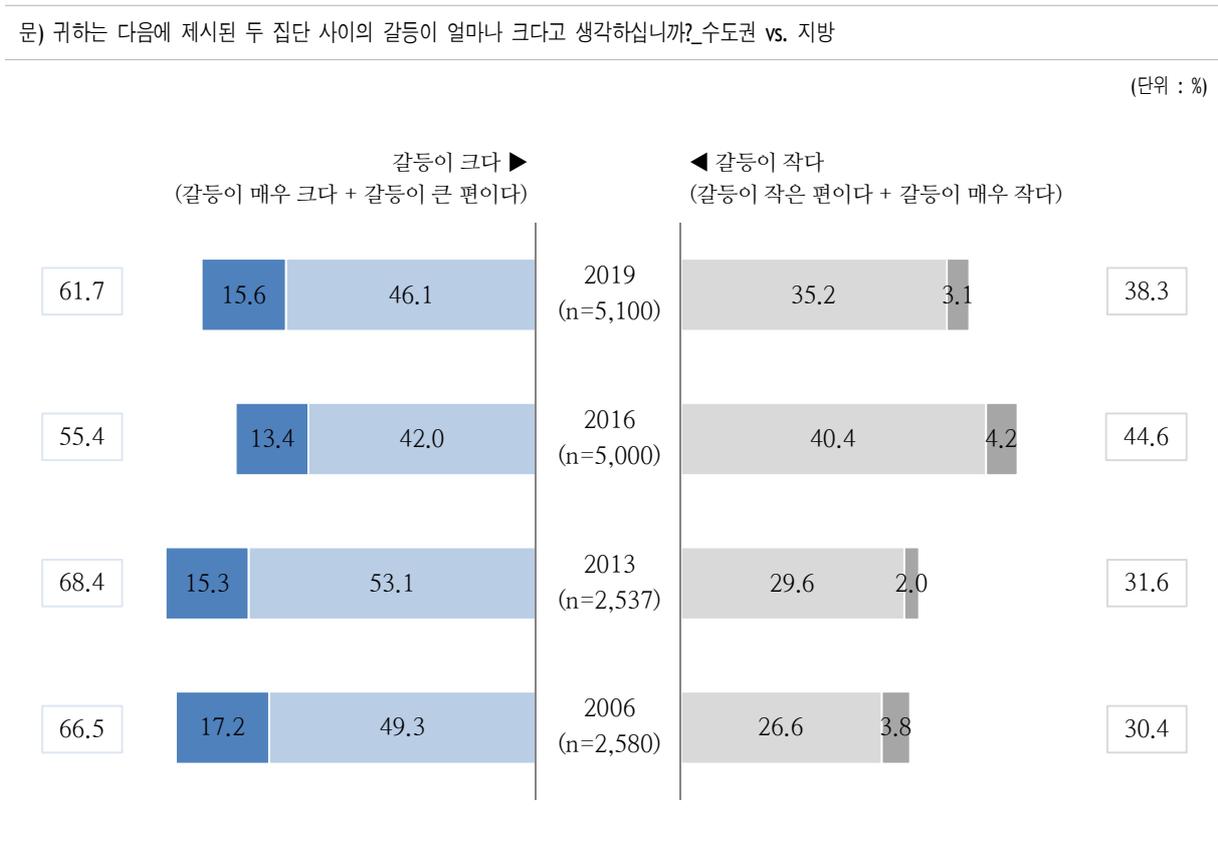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36.5	42.4	78.9	19.4	1.7	21.1	100.0	(3.1)	
성별	남자	(2,555)	36.0	43.2	79.2	19.2	1.6	20.8	100.0	(3.1)
	여자	(2,545)	36.9	41.7	78.6	19.6	1.8	21.4	100.0	(3.1)
연령	19~29세	(935)	37.3	40.0	77.3	20.9	1.8	22.7	100.0	(3.1)
	30~45세	(1,451)	38.3	41.3	79.6	18.7	1.7	20.4	100.0	(3.2)
	46~60세	(1,604)	35.5	43.9	79.4	18.4	2.2	20.6	100.0	(3.1)
	61~79세	(1,110)	34.7	43.8	78.5	20.6	0.9	21.5	100.0	(3.1)
지역	서울	(987)	42.0	34.2	76.2	22.0	1.8	23.8	100.0	(3.2)
	인천/경기	(1,576)	38.8	40.6	79.4	18.2	2.4	20.6	100.0	(3.2)
	대전/충청/세종	(536)	35.6	43.6	79.1	19.9	1.0	20.9	100.0	(3.1)
	광주/전라	(497)	32.9	50.3	83.2	15.1	1.7	16.8	100.0	(3.1)
	대구/경북	(504)	38.9	45.5	84.4	14.6	1.0	15.6	100.0	(3.2)
	부산/울산/경남	(786)	27.6	46.6	74.1	24.7	1.2	25.9	100.0	(3.0)
	강원	(151)	28.8	48.2	77.0	21.1	1.9	23.0	100.0	(3.0)
	제주	(64)	37.2	55.4	92.6	6.5	1.0	7.4	100.0	(3.3)
결혼상태	미혼	(1,493)	37.7	39.8	77.5	20.6	1.9	22.5	100.0	(3.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5.7	43.8	79.6	18.7	1.7	20.4	100.0	(3.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8.4	40.1	78.5	20.7	0.8	21.5	100.0	(3.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8.3	38.7	77.0	21.1	1.9	23.0	100.0	(3.1)
	1세대 가구	(874)	35.6	43.6	79.2	19.4	1.3	20.8	100.0	(3.1)
	2세대 가구	(3,393)	36.6	42.5	79.2	19.0	1.8	20.8	100.0	(3.1)
	3세대 가구	(212)	31.9	46.7	78.7	20.4	1.0	21.3	100.0	(3.1)
	비친족가구	(5)	35.3	54.0	89.2	10.8	0.0	10.8	100.0	(3.2)

4)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에 대해서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61.7%(매우 15.6% + 큰 편 46.1%),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38.3%(작은 편 35.2% + 매우 3.1%)로 나타남
-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하지만,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은 50~60%대 초중반에서 유지되고 있음

【 그림 3-46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 크기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 다만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77.4%)

【 표 3-53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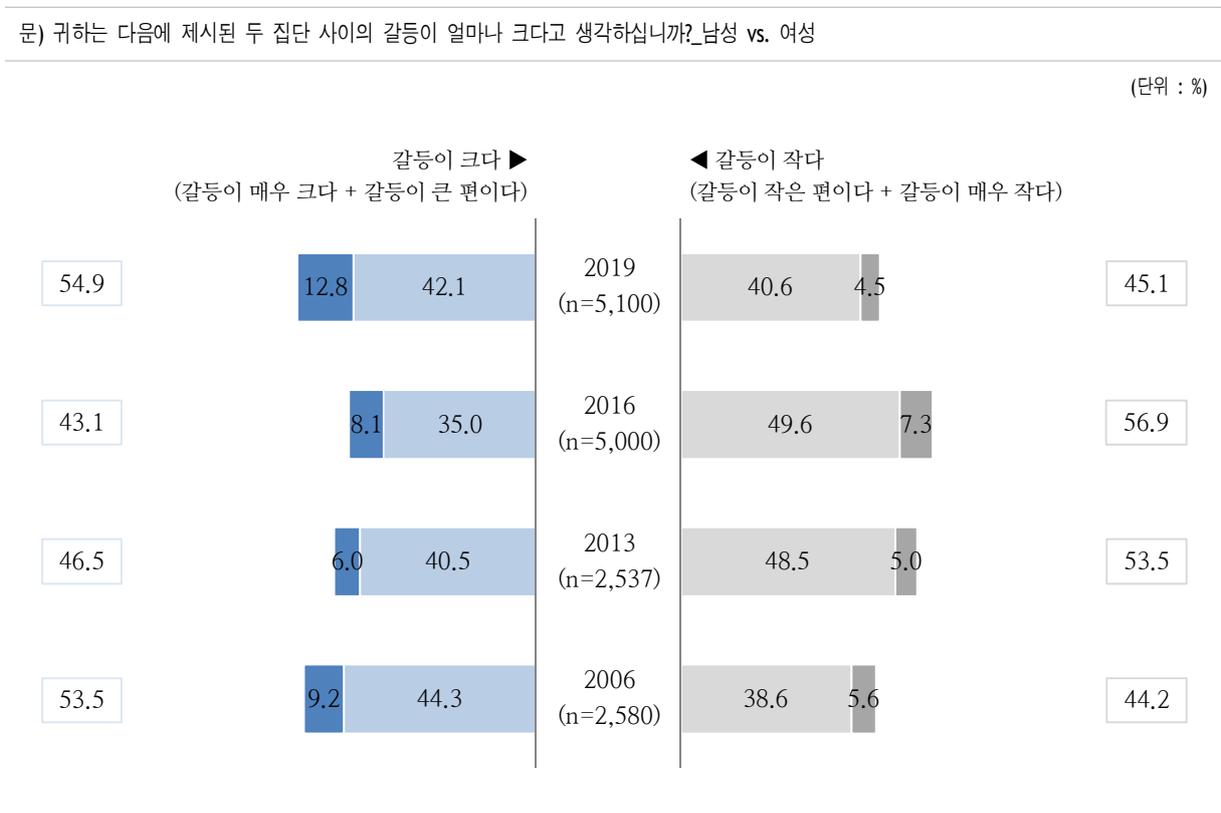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15.6	46.1	61.7	35.2	3.1	38.3	100.0	(2.7)	
성별	남자	(2,555)	15.3	45.5	60.8	35.9	3.3	39.2	100.0	(2.7)
	여자	(2,545)	15.9	46.8	62.7	34.5	2.8	37.3	100.0	(2.8)
연령	19~29세	(935)	14.0	46.2	60.2	35.6	4.2	39.8	100.0	(2.7)
	30~45세	(1,451)	16.5	45.4	61.9	35.1	3.0	38.1	100.0	(2.8)
	46~60세	(1,604)	15.7	47.9	63.6	33.8	2.6	36.4	100.0	(2.8)
	61~79세	(1,110)	15.8	44.5	60.2	36.9	2.8	39.8	100.0	(2.7)
지역	서울	(987)	11.7	47.4	59.1	38.1	2.8	40.9	100.0	(2.7)
	인천/경기	(1,576)	14.0	42.7	56.8	39.4	3.8	43.2	100.0	(2.7)
	대전/충청/세종	(536)	16.6	42.6	59.2	38.8	2.0	40.8	100.0	(2.7)
	광주/전라	(497)	19.2	48.5	67.7	29.5	2.8	32.3	100.0	(2.8)
	대구/경북	(504)	28.4	49.0	77.4	20.3	2.3	22.6	100.0	(3)
	부산/울산/경남	(786)	11.3	50.1	61.4	35.8	2.7	38.6	100.0	(2.7)
	강원	(151)	22.8	43.4	66.2	27.6	6.2	33.8	100.0	(2.8)
제주	(64)	14.7	55.5	70.2	28.9	1.0	29.8	100.0	(2.8)	
결혼상태	미혼	(1,493)	13.9	48.1	62.1	34.6	3.4	37.9	100.0	(2.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6.5	45.2	61.7	35.4	2.9	38.3	100.0	(2.8)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4.1	46.6	60.7	35.7	3.7	39.3	100.0	(2.7)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6.4	46.6	63.0	33.0	4.0	37.0	100.0	(2.8)
	1세대 가구	(874)	16.9	44.1	61.0	35.2	3.8	39.0	100.0	(2.7)
	2세대 가구	(3,393)	15.3	46.2	61.4	36.0	2.6	38.6	100.0	(2.7)
	3세대 가구	(212)	13.6	52.0	65.5	29.7	4.7	34.5	100.0	(2.7)
	비친족가구	(5)	17.7	67.9	85.6	14.4	0.0	14.4	100.0	(3.0)

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54.9%(매우 12.8% + 큰 편 42.1%),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45.1%(작은 편 40.6% + 매우 4.5%)로 나타남
- 2006년 조사 이후, 2019년에 남녀 사이의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최고로 높게 나타남
-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53.5%로 나타났지만, 2013년과 2016년에 들어서는 '갈등이 작다'는 응답이 다소 우세하게 나타남. 그리고 2019년에 들어서 다시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림 3-47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 남녀 사이의 갈등 크기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갈등이 ‘크다’ 노년층 52.9% → 청년층 57.2%), 결혼상태별로는 미혼 층에서 ‘크다’는 응답비율이 57.8%로 기혼층의 53%대 응답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표 3-54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12.8	42.1	54.9	40.6	4.5	45.1	100.0	(2.6)	
성별	남자	(2,555)	12.6	41.3	53.9	41.0	5.1	46.1	100.0	(2.6)
	여자	(2,545)	13.0	42.9	55.9	40.2	3.9	44.1	100.0	(2.7)
연령	19~29세	(935)	17.3	39.9	57.2	38.6	4.2	42.8	100.0	(2.7)
	30~45세	(1,451)	15.2	41.4	56.6	38.9	4.5	43.4	100.0	(2.7)
	46~60세	(1,604)	10.0	43.4	53.5	41.7	4.8	46.5	100.0	(2.6)
	61~79세	(1,110)	10.0	42.9	52.9	42.9	4.3	47.1	100.0	(2.6)
지역	서울	(987)	11.3	49.2	60.5	37.4	2.1	39.5	100.0	(2.7)
	인천/경기	(1,576)	13.7	38.7	52.4	42.2	5.5	47.6	100.0	(2.6)
	대전/충청/세종	(536)	15.1	43.6	58.7	38.5	2.8	41.3	100.0	(2.7)
	광주/전라	(497)	11.5	40.7	52.2	42.6	5.1	47.8	100.0	(2.6)
	대구/경북	(504)	15.3	31.1	46.4	45.2	8.4	53.6	100.0	(2.5)
	부산/울산/경남	(786)	10.6	47.8	58.3	38.3	3.4	41.7	100.0	(2.7)
	강원	(151)	11.0	35.8	46.8	46.4	6.8	53.2	100.0	(2.5)
제주	(64)	19.2	46.9	66.1	30.6	3.3	33.9	100.0	(2.8)	
결혼상태	미혼	(1,493)	16.8	41.0	57.8	37.9	4.3	42.2	100.0	(2.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1.4	42.4	53.8	41.7	4.5	46.2	100.0	(2.6)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8.7	44.2	52.9	42.1	5.0	47.1	100.0	(2.6)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5.3	41.1	56.3	38.7	5.0	43.7	100.0	(2.7)
	1세대 가구	(874)	12.6	43.3	55.9	39.3	4.9	44.1	100.0	(2.6)
	2세대 가구	(3,393)	12.9	41.9	54.8	40.8	4.4	45.2	100.0	(2.6)
	3세대 가구	(212)	5.6	42.4	48.0	49.0	3.0	52.0	100.0	(2.5)
	비친족가구	(5)	40.6	50.3	90.9	9.1	0.0	9.1	100.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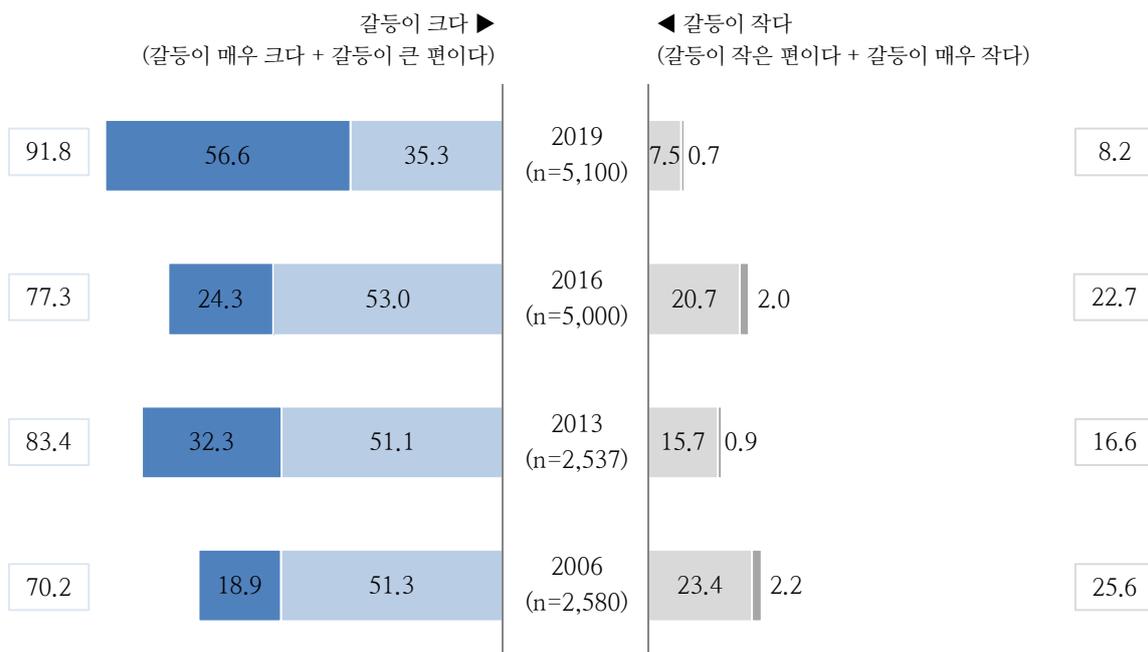
6)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91.8%(매우 56.6% + 큰 편 35.3%)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크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반면,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8.2%(작은 편 7.5% + 매우 0.7%)로 매우 낮음
-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이 70~80%를 오르내리며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조사에서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91.8%) 2006년 대비 21.6%p, 2016년 대비 14.6%p 높은 수치임
- 추가적으로, 2019년 조사에서는 강한 의견인 '매우 크다'는 응답 비중이 56.6%로 나타남. 이는 전기 조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임(2016년 조사 대비 32.3%p ↑)

【 그림 3-48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진보 vs. 보수

(단위 : %)



○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 크기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대부분 갈등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90% 초중반대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55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56.6	35.3	91.8	7.5	0.7	8.2	100.0	(3.5)	
성별	남자	(2,555)	58.0	33.5	91.5	7.7	0.8	8.5	100.0	(3.5)
	여자	(2,545)	55.1	37.1	92.2	7.2	0.6	7.8	100.0	(3.5)
연령	19~29세	(935)	57.6	33.8	91.4	8.2	0.4	8.6	100.0	(3.5)
	30~45세	(1,451)	56.0	34.9	91.0	8.5	0.6	9.0	100.0	(3.5)
	46~60세	(1,604)	57.8	35.5	93.3	6.0	0.7	6.7	100.0	(3.5)
	61~79세	(1,110)	54.7	36.6	91.3	7.8	1.0	8.7	100.0	(3.4)
지역	서울	(987)	59.2	33.7	92.9	6.4	0.6	7.1	100.0	(3.5)
	인천/경기	(1,576)	60.9	30.9	91.9	7.3	0.8	8.1	100.0	(3.5)
	대전/충청/세종	(536)	53.7	38.3	92.0	7.5	0.5	8.0	100.0	(3.5)
	광주/전라	(497)	66.8	27.3	94.1	5.5	0.4	5.9	100.0	(3.6)
	대구/경북	(504)	61.4	32.9	94.3	5.5	0.2	5.7	100.0	(3.6)
	부산/울산/경남	(786)	41.3	48.2	89.5	10.1	0.4	10.5	100.0	(3.3)
	강원	(151)	36.6	44.1	80.7	16.2	3.1	19.3	100.0	(3.1)
	제주	(64)	50.4	41.2	91.7	5.8	2.5	8.3	100.0	(3.4)
결혼상태	미혼	(1,493)	58.3	32.5	90.8	8.6	0.7	9.2	100.0	(3.5)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6.7	35.8	92.5	6.9	0.6	7.5	100.0	(3.5)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6.4	43.5	89.9	8.6	1.5	10.1	100.0	(3.3)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4.5	34.6	89.0	9.7	1.3	11.0	100.0	(3.4)
	1세대 가구	(874)	54.1	37.3	91.4	7.5	1.1	8.6	100.0	(3.4)
	2세대 가구	(3,393)	57.0	35.3	92.3	7.3	0.5	7.7	100.0	(3.5)
	3세대 가구	(212)	67.0	28.3	95.3	4.2	0.5	4.7	100.0	(3.6)
	비친족가구	(5)	40.2	38.8	79.1	20.9	0.0	20.9	100.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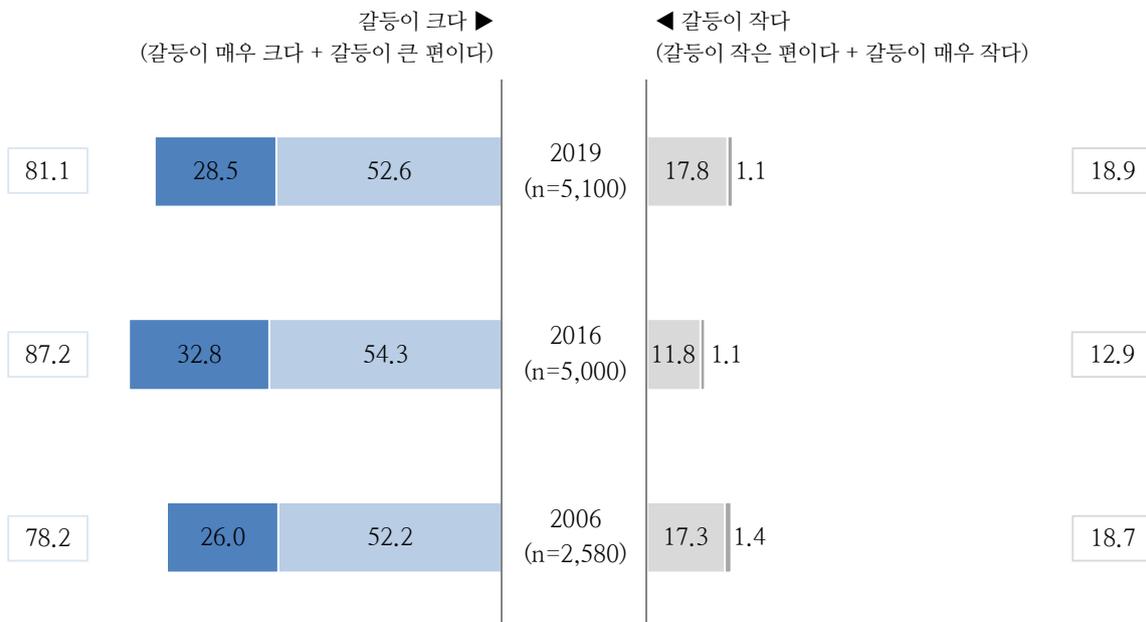
7)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81.1%(매우 28.5% + 큰 편 52.6%),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18.9%(작은 편 17.8% + 매우 1.1%)로 나타남
- 2006년 조사 이후,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은 등락을 한차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2006년 대비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은 2016년에 9.0%p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 다시 6.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49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대기업 vs. 중소기업

(단위 :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크기 역시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거의 대부분 80% 초중반대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56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28.5	52.6	81.1	17.8	1.1	18.9	100.0	(3.1)	
성별	남자	(2,555)	28.8	51.6	80.4	18.5	1.1	19.6	100.0	(3.1)
	여자	(2,545)	28.1	53.7	81.8	17.0	1.2	18.2	100.0	(3.1)
연령	19~29세	(935)	30.2	51.1	81.2	16.9	1.9	18.8	100.0	(3.1)
	30~45세	(1,451)	29.0	52.1	81.1	18.0	1.0	18.9	100.0	(3.1)
	46~60세	(1,604)	28.1	53.1	81.2	17.7	1.1	18.8	100.0	(3.1)
	61~79세	(1,110)	27.0	54.0	81.0	18.3	0.7	19.0	100.0	(3.1)
지역	서울	(987)	28.0	55.3	83.3	15.7	1.0	16.7	100.0	(3.1)
	인천/경기	(1,576)	26.3	53.3	79.6	19.3	1.0	20.4	100.0	(3.0)
	대전/충청/세종	(536)	28.8	46.9	75.7	23.5	0.7	24.3	100.0	(3.0)
	광주/전라	(497)	30.8	54.3	85.1	13.4	1.4	14.9	100.0	(3.1)
	대구/경북	(504)	41.1	45.4	86.5	13.0	0.5	13.5	100.0	(3.3)
	부산/울산/경남	(786)	23.6	55.5	79.1	19.6	1.3	20.9	100.0	(3.0)
	강원	(151)	27.4	51.4	78.7	17.5	3.8	21.3	100.0	(3.0)
제주	(64)	32.3	53.9	86.2	11.4	2.5	13.8	100.0	(3.2)	
결혼상태	미혼	(1,493)	30.6	50.1	80.7	17.6	1.7	19.3	100.0	(3.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8.2	53.3	81.5	17.6	0.9	18.5	100.0	(3.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0.9	57.7	78.6	20.4	0.9	21.4	100.0	(3.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6.3	54.3	80.6	17.4	2.0	19.4	100.0	(3.0)
	1세대 가구	(874)	28.0	51.5	79.5	19.6	0.9	20.5	100.0	(3.1)
	2세대 가구	(3,393)	28.9	52.4	81.3	17.7	1.0	18.7	100.0	(3.1)
	3세대 가구	(212)	30.3	55.9	86.3	11.8	1.9	13.7	100.0	(3.1)
	비친족가구	(5)	18.1	50.3	68.3	31.7	0.0	31.7	10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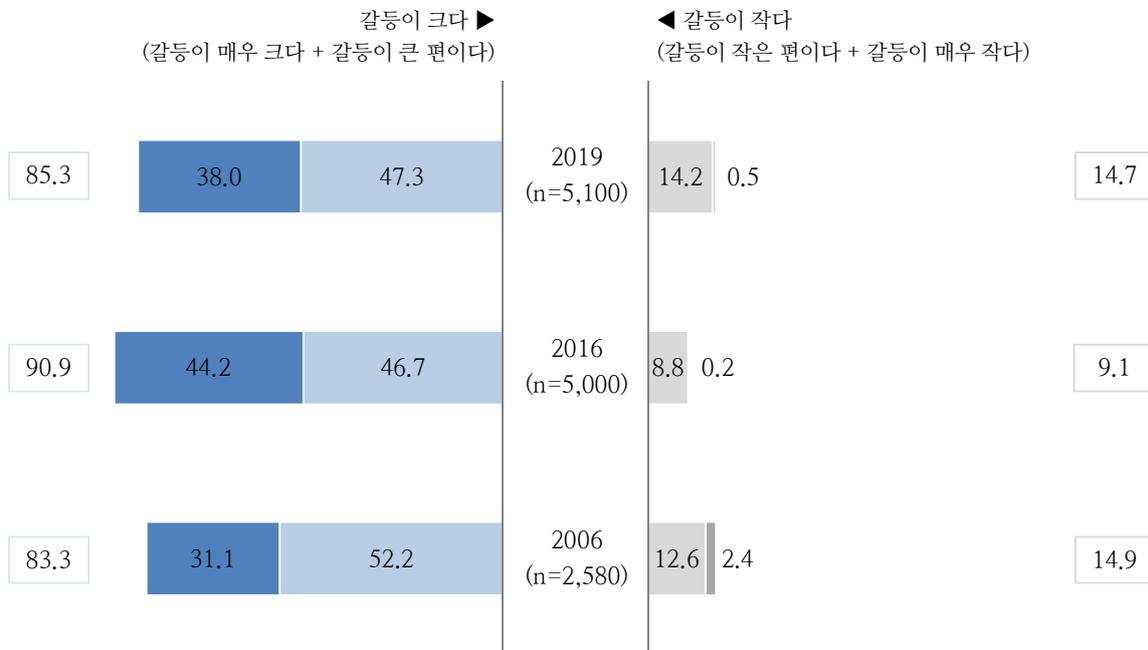
8)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85.3%(매우 38.0% + 큰 편 47.3%),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14.7%(작은 편 14.2% + 매우 0.5%)로 나타남
- 2006년 조사 시, '갈등이 크다'(매우 + 큰 편)의 응답비율은 83.3%였으나 2016년에 7.6%p 오른 90.9%로 집계된 후 2019년에는 다시 4.7%p 감소한 85.3%로 나타남

【 그림 3-50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_정규직 vs. 비정규직

(단위 : %)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크기 역시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거의 대부분 80% 중후반대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57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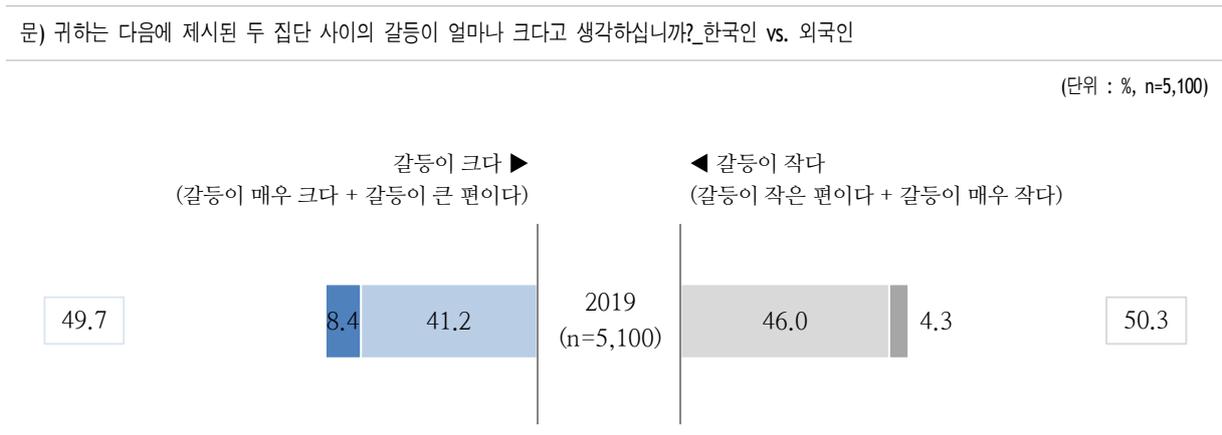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38.0	47.3	85.3	14.2	0.5	14.7	100.0	(3.2)	
성별	남자	(2,555)	37.8	47.2	85.0	14.5	0.5	15.0	100.0	(3.2)
	여자	(2,545)	38.1	47.4	85.5	14.0	0.5	14.5	100.0	(3.2)
연령	19~29세	(935)	38.9	45.7	84.6	14.8	0.6	15.4	100.0	(3.2)
	30~45세	(1,451)	38.2	46.1	84.4	15.3	0.3	15.6	100.0	(3.2)
	46~60세	(1,604)	39.5	47.1	86.6	12.8	0.6	13.4	100.0	(3.3)
	61~79세	(1,110)	34.6	50.5	85.1	14.4	0.5	14.9	100.0	(3.2)
지역	서울	(987)	38.1	48.5	86.6	12.8	0.6	13.4	100.0	(3.2)
	인천/경기	(1,576)	37.6	46.7	84.3	15.5	0.2	15.7	100.0	(3.2)
	대전/충청/세종	(536)	31.9	50.7	82.6	17.0	0.4	17.4	100.0	(3.1)
	광주/전라	(497)	48.1	42.7	90.8	9.1	0.1	9.2	100.0	(3.4)
	대구/경북	(504)	51.4	42.5	93.8	6.2	0.0	6.2	100.0	(3.5)
	부산/울산/경남	(786)	28.5	50.5	79.0	20.3	0.7	21.0	100.0	(3.1)
	강원	(151)	30.4	47.4	77.8	16.8	5.4	22.2	100.0	(3.0)
	제주	(64)	46.4	48.3	94.7	4.3	1.0	5.3	100.0	(3.4)
결혼상태	미혼	(1,493)	38.1	46.5	84.6	14.8	0.6	15.4	100.0	(3.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8.4	47.8	86.2	13.5	0.4	13.8	100.0	(3.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2.9	46.1	79.0	19.7	1.4	21.0	100.0	(3.1)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4.1	47.8	81.9	16.6	1.5	18.1	100.0	(3.1)
	1세대 가구	(874)	34.7	49.9	84.6	14.8	0.6	15.4	100.0	(3.2)
	2세대 가구	(3,393)	39.3	46.5	85.9	13.8	0.3	14.1	100.0	(3.2)
	3세대 가구	(212)	41.0	47.2	88.3	11.5	0.3	11.7	100.0	(3.3)
	비친족가구	(5)	23.5	46.6	70.1	29.9	0.0	29.9	100.0	(2.9)

9)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 2019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크기를 살펴본 결과, ‘갈등이 크다’의 응답비율은 49.7%(매우 8.4% + 큰 편 41.2%), ‘갈등이 작다’의 응답비율은 50.3%(작은 편 46.0% + 매우 4.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그림 3-51 】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크기 역시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거의 대부분 50% 초중반대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58 】 응답자 특성별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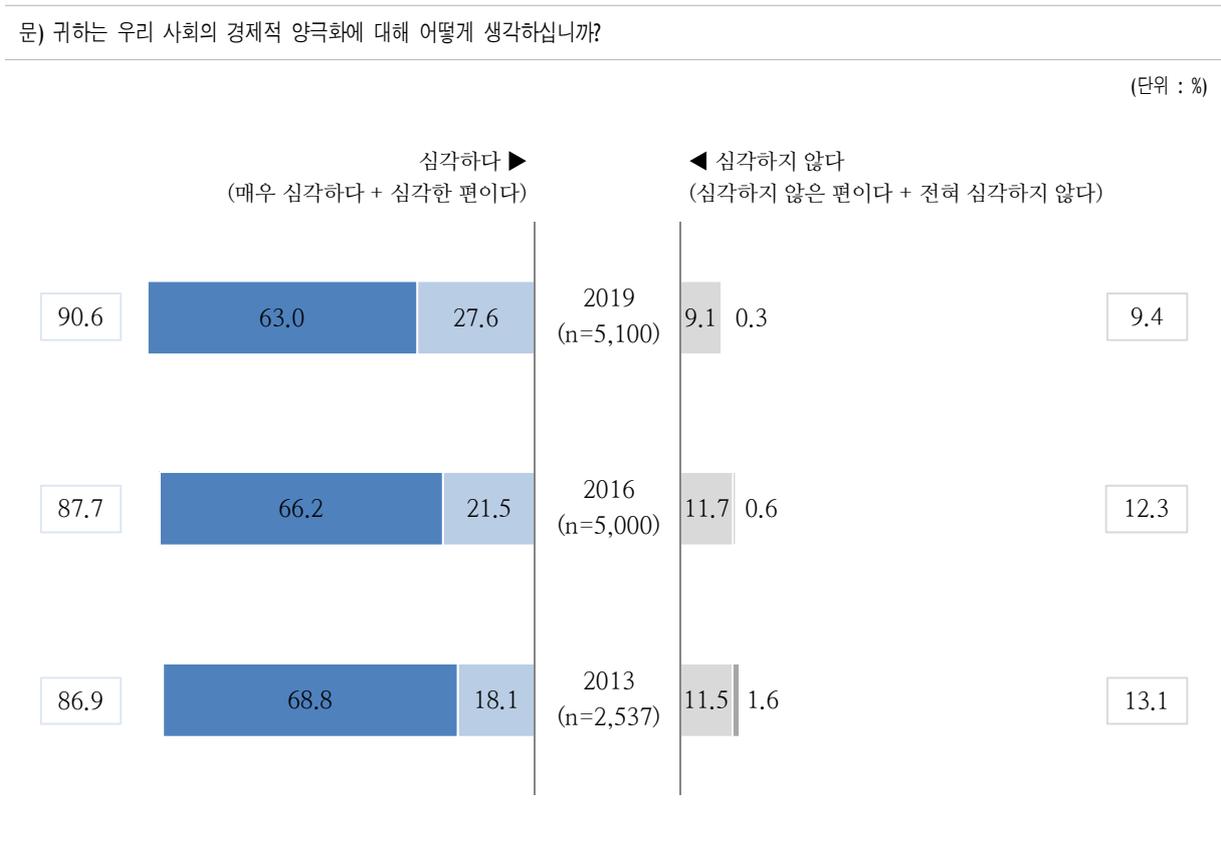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8.4	41.2	49.7	46.0	4.3	50.3	100.0	(2.5)	
성별	남자	(2,555)	7.5	41.9	49.3	45.8	4.8	50.7	100.0	(2.5)
	여자	(2,545)	9.4	40.6	50.0	46.2	3.8	50.0	100.0	(2.6)
연령	19~29세	(935)	7.7	39.9	47.7	46.5	5.8	52.3	100.0	(2.5)
	30~45세	(1,451)	9.0	42.7	51.8	44.7	3.6	48.2	100.0	(2.6)
	46~60세	(1,604)	8.6	38.9	47.4	48.1	4.4	52.6	100.0	(2.5)
	61~79세	(1,110)	8.1	43.8	51.9	44.3	3.8	48.1	100.0	(2.6)
지역	서울	(987)	5.5	41.3	46.8	47.7	5.5	53.2	100.0	(2.5)
	인천/경기	(1,576)	8.5	37.2	45.8	48.7	5.5	54.2	100.0	(2.5)
	대전/충청/세종	(536)	5.2	46.3	51.5	46.2	2.3	48.5	100.0	(2.5)
	광주/전라	(497)	11.2	35.9	47.1	49.7	3.2	52.9	100.0	(2.6)
	대구/경북	(504)	15.9	40.7	56.6	39.3	4.1	43.4	100.0	(2.7)
	부산/울산/경남	(786)	5.3	49.5	54.8	43.1	2.1	45.2	100.0	(2.6)
	강원	(151)	16.7	40.3	56.9	35.5	7.6	43.1	100.0	(2.7)
	제주	(64)	18.9	43.0	61.9	35.2	2.9	38.1	100.0	(2.8)
결혼상태	미혼	(1,493)	7.8	43.1	50.9	44.3	4.9	49.1	100.0	(2.5)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8.5	40.7	49.3	46.7	4.0	50.7	100.0	(2.5)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0.5	38.1	48.5	47.1	4.3	51.5	100.0	(2.5)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8.9	40.2	49.1	46.6	4.3	50.9	100.0	(2.5)
	1세대 가구	(874)	10.4	43.2	53.7	43.1	3.3	46.3	100.0	(2.6)
	2세대 가구	(3,393)	7.9	41.1	48.9	46.6	4.4	51.1	100.0	(2.5)
	3세대 가구	(212)	7.2	39.4	46.6	46.6	6.8	53.4	100.0	(2.5)
	비친족가구	(5)	18.1	34.9	53.0	41.6	5.4	47.0	100.0	(2.7)

10) 경제적 양극화 인식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10명 중 9명 정도가 (90.6%) '심각하다(매우 27.6% + 심각한 편 63.0%)'고 응답함
- 2013년 이후 '심각하다'(매우 + 심각한 편)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3년에는 86.9%, 2016년에는 87.7%, 2019년에는 90.6%로 나타남

【 그림 3-52 】 경제적 양극화 인식



○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 역시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에 있어서 큰 차이 없이 ‘크다’는 응답비율이 모두 80% 후반대 또는 90% 초반대를 보이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59 】 응답자 특성별 경제적 양극화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심각하다			심각하지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심각하다 (4점)	② 심각한 편이다 (3점)		③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점)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7.6	63.0	90.6	9.1	0.3	9.4	100.0	(3.2)	
성별	남자	(2,555)	29.1	61.2	90.3	9.2	0.4	9.7	100.0	(3.2)
	여자	(2,545)	26.0	64.8	90.8	8.9	0.3	9.2	100.0	(3.2)
연령	19~29세	(935)	25.5	64.1	89.6	10.0	0.4	10.4	100.0	(3.1)
	30~45세	(1,451)	29.3	62.2	91.5	8.4	0.1	8.5	100.0	(3.2)
	46~60세	(1,604)	27.6	63.5	91.1	8.7	0.3	8.9	100.0	(3.2)
	61~79세	(1,110)	27.1	62.5	89.6	9.8	0.6	10.4	100.0	(3.2)
지역	서울	(987)	28.2	60.7	88.9	10.9	0.2	11.1	100.0	(3.2)
	인천/경기	(1,576)	30.9	58.0	88.9	10.6	0.5	11.1	100.0	(3.2)
	대전/충청/세종	(536)	18.5	68.9	87.3	12.2	0.5	12.7	100.0	(3.1)
	광주/전라	(497)	20.4	71.2	91.6	8.4	0.0	8.4	100.0	(3.1)
	대구/경북	(504)	41.9	55.2	97.1	2.9	0.0	2.9	100.0	(3.4)
	부산/울산/경남	(786)	22.8	70.5	93.3	6.4	0.3	6.7	100.0	(3.2)
	강원	(151)	20.5	68.7	89.2	8.9	1.9	10.8	100.0	(3.1)
제주	(64)	31.3	63.8	95.2	4.8	0.0	4.8	100.0	(3.3)	
결혼상태	미혼	(1,493)	28.4	61.4	89.8	9.8	0.4	10.2	100.0	(3.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7.5	63.7	91.2	8.5	0.2	8.8	100.0	(3.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4.7	62.9	87.6	11.3	1.1	12.4	100.0	(3.1)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7.5	62.6	90.1	9.2	0.6	9.9	100.0	(3.2)
	1세대 가구	(874)	23.8	66.6	90.4	9.4	0.2	9.6	100.0	(3.1)
	2세대 가구	(3,393)	28.5	62.2	90.7	9.0	0.3	9.3	100.0	(3.2)
	3세대 가구	(212)	28.5	62.8	91.3	8.3	0.4	8.7	100.0	(3.2)
	비친족가구	(5)	21.7	52.0	73.8	26.2	0.0	26.2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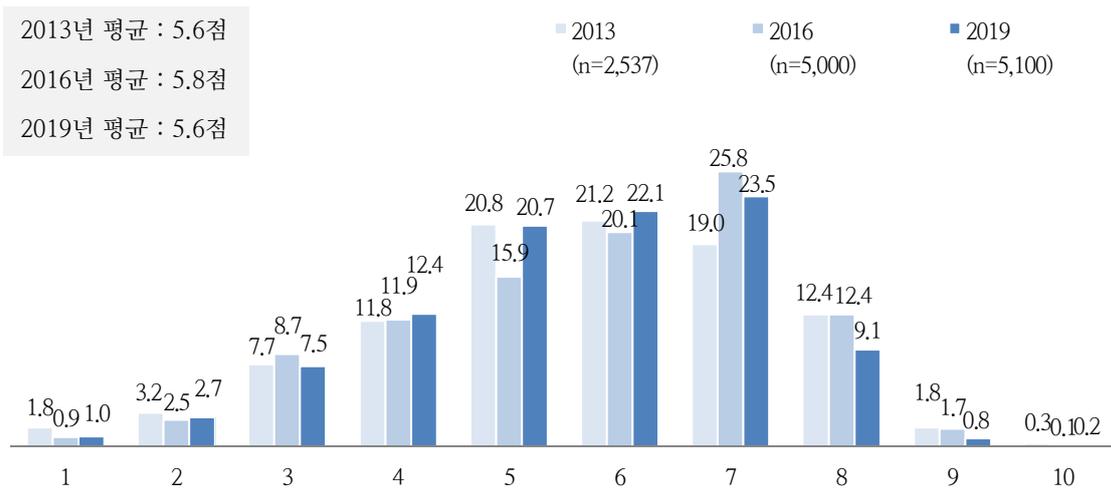
11) 우리 사회 신뢰수준

-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를 10점 척도(1점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10점 = 매우 신뢰할 수 있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5.6**으로 나타남
- 응답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뢰할 수 없다(1점~4점)’는 23.7%, ‘보통(5점~6점)’은 42.8%, ‘신뢰할 수 있다(7점~10점)’는 33.6%로 나타나 ‘신뢰할 수 없다’ 보다는 ‘신뢰할 수 있다’ 쪽의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은 상황임
- 2013년 조사 시 평균 5.6점으로 나타났다가 2016년에 5.8점으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2019년에 다시 5.6점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53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문)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 역시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층일수록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음
- 가족구성원에 따라 살펴보면, 1인 가구인 경우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비율이 29.7%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음

【 표 3-60 】 응답자 특성별 우리 사회 신뢰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할 수 없다				보통이다				신뢰 할 수 있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1.0	2.7	7.5	12.4	23.7	20.7	22.1	42.8	23.5	9.1	0.8	0.2	33.6	100.0	(5.6)	
성별	남자	(2,555)	0.7	3.3	7.8	13.0	24.8	20.5	21.8	42.2	23.2	8.6	1.0	0.1	32.9	100.0	(5.6)
	여자	(2,545)	1.2	2.2	7.2	11.9	22.5	20.9	22.4	43.3	23.7	9.6	0.5	0.3	34.2	100.0	(5.6)
연령	19~29세	(935)	1.0	2.9	7.7	12.8	24.4	18.9	25.6	44.5	21.3	8.6	0.8	0.3	31.1	100.0	(5.6)
	30~45세	(1,451)	1.0	2.5	7.9	12.4	23.8	20.6	22.0	42.6	23.8	8.7	0.9	0.1	33.6	100.0	(5.6)
	46~60세	(1,604)	1.0	2.5	6.4	13.6	23.5	21.8	20.4	42.2	23.6	9.6	0.8	0.2	34.3	100.0	(5.6)
	61~79세	(1,110)	0.8	3.2	8.5	10.5	23.0	20.8	21.6	42.4	24.6	9.3	0.6	0.2	34.6	100.0	(5.6)
지역	서울	(987)	1.1	2.9	7.0	11.6	22.7	26.8	24.4	51.1	21.6	3.8	0.6	0.2	26.2	100.0	(5.4)
	인천/경기	(1,576)	0.2	1.9	9.2	13.6	24.9	21.3	21.0	42.3	27.5	4.8	0.5	0.1	32.9	100.0	(5.5)
	대전/충청/세종	(536)	0.0	1.0	3.3	10.4	14.7	16.5	30.9	47.5	23.4	14.1	0.3	0.0	37.8	100.0	(6.0)
	광주/전라	(497)	0.9	2.0	5.3	8.3	16.6	17.6	22.8	40.4	28.1	13.1	1.2	0.6	43.0	100.0	(6.0)
	대구/경북	(504)	2.2	5.5	11.0	20.1	38.8	17.6	23.7	41.3	15.0	4.4	0.4	0.2	19.9	100.0	(5.0)
	부산/울산/경남	(786)	1.3	2.5	5.4	10.4	19.7	16.4	14.3	30.7	24.4	23.3	1.9	0.1	49.6	100.0	(6.1)
	강원	(151)	3.6	6.3	12.9	11.9	34.8	29.7	21.1	50.8	8.7	4.0	1.1	0.6	14.4	100.0	(4.9)
	제주	(64)	5.4	13.7	12.9	11.1	43.0	28.8	17.8	46.6	8.0	1.7	0.0	0.8	10.4	100.0	(4.4)
결혼상태	미혼	(1,493)	1.0	3.3	8.1	12.4	24.7	20.2	24.5	44.7	21.2	8.1	0.8	0.3	30.5	100.0	(5.5)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9	2.6	7.2	12.6	23.3	20.6	20.6	41.2	25.0	9.6	0.7	0.1	35.5	100.0	(5.6)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1	1.9	8.1	10.5	21.6	24.5	26.4	50.9	17.5	8.4	1.3	0.2	27.5	100.0	(5.6)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7	3.7	9.3	12.0	26.6	22.8	20.9	43.7	19.4	8.3	1.3	0.7	29.7	100.0	(5.5)
	1세대 가구	(874)	1.0	2.5	6.4	11.3	21.3	19.4	22.0	41.4	24.4	11.7	1.0	0.2	37.3	100.0	(5.8)
	2세대 가구	(3,393)	0.9	2.6	7.4	12.7	23.5	20.8	22.5	43.3	23.6	8.8	0.6	0.1	33.1	100.0	(5.6)
	3세대 가구	(212)	0.0	3.6	9.4	13.3	26.3	18.7	19.1	37.8	29.5	5.7	0.7	0.1	35.9	100.0	(5.6)
	비친족가구	(5)	5.3	7.5	0.0	17.7	30.5	46.0	0.0	46.0	5.4	18.1	0.0	0.0	23.5	100.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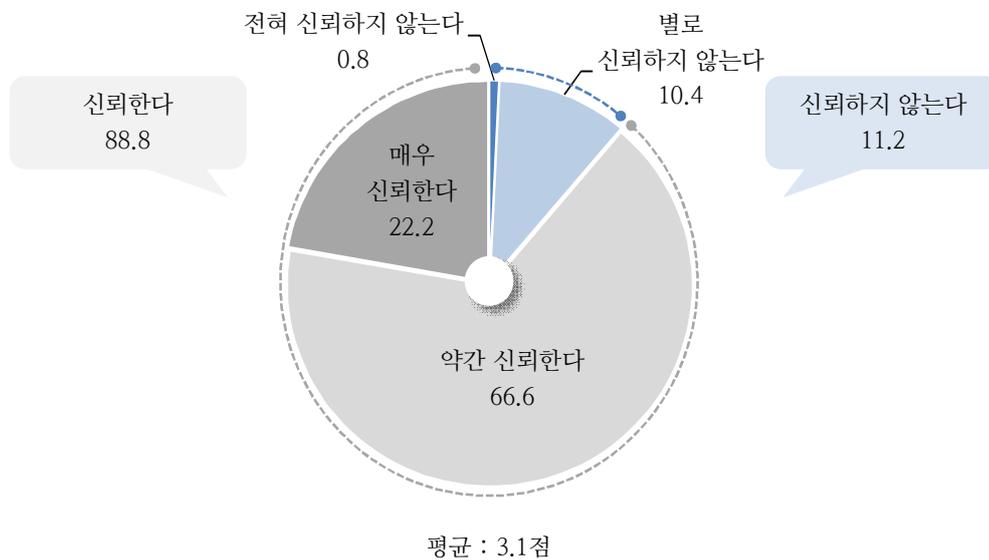
12)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1점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점 = 매우 신뢰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은 88.8%(매우 22.2% + 약간 66.6%),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율은 11.2%(별로 10.4% + 전혀 0.8%)로 나타남

【 그림 3-54 】 사회적 자원 대한 신뢰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문)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_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단위 : %, n=5,100)



○ 집단 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 80%대 후반 ~ 90%대 초반의 응답비율을 보임. 다만 가족구성원 유형에서 3세대 가구인 경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이 97.0%로 매우 높음

【 표 3-61 】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0.8	10.4	11.2	66.6	22.2	88.8	100.0	(3.1)	
성별	남자	(2,555)	0.7	10.3	11.1	67.2	21.8	88.9	100.0	(3.1)
	여자	(2,545)	0.8	10.5	11.3	66.0	22.7	88.7	100.0	(3.1)
연령	19~29세	(935)	0.7	8.5	9.2	66.5	24.3	90.8	100.0	(3.1)
	30~45세	(1,451)	1.0	10.2	11.2	66.3	22.5	88.8	100.0	(3.1)
	46~60세	(1,604)	0.7	11.2	12.0	66.5	21.5	88.0	100.0	(3.1)
	61~79세	(1,110)	0.6	11.1	11.7	67.2	21.1	88.3	100.0	(3.1)
지역	서울	(987)	1.3	8.1	9.4	72.0	18.6	90.6	100.0	(3.1)
	인천/경기	(1,576)	0.5	11.6	12.1	62.5	25.4	87.9	100.0	(3.1)
	대전/충청/세종	(536)	0.3	5.4	5.7	68.3	26.1	94.3	100.0	(3.2)
	광주/전라	(497)	0.9	10.9	11.8	64.5	23.7	88.2	100.0	(3.1)
	대구/경북	(504)	0.9	18.2	19.1	61.0	19.9	80.9	100.0	(3.0)
	부산/울산/경남	(786)	0.3	9.4	9.6	72.3	18.0	90.4	100.0	(3.1)
	강원	(151)	3.7	11.4	15.1	63.1	21.8	84.9	100.0	(3.0)
제주		(64)	0.7	3.2	3.9	68.6	27.5	96.1	100.0	(3.2)
결혼상태	미혼	(1,493)	0.6	8.9	9.5	66.6	23.9	90.5	100.0	(3.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0.7	11.3	11.9	66.4	21.7	88.1	100.0	(3.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9	8.5	11.4	68.6	20.0	88.6	100.0	(3.1)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5	10.6	12.1	66.6	21.3	87.9	100.0	(3.1)
	1세대 가구	(874)	0.5	11.8	12.2	67.8	20.0	87.8	100.0	(3.1)
	2세대 가구	(3,393)	0.8	10.5	11.2	66.3	22.5	88.8	100.0	(3.1)
	3세대 가구	(212)	0.4	2.7	3.0	66.6	30.3	97.0	100.0	(3.3)
	비친족가구	(5)	0.0	13.4	13.4	75.9	10.8	86.6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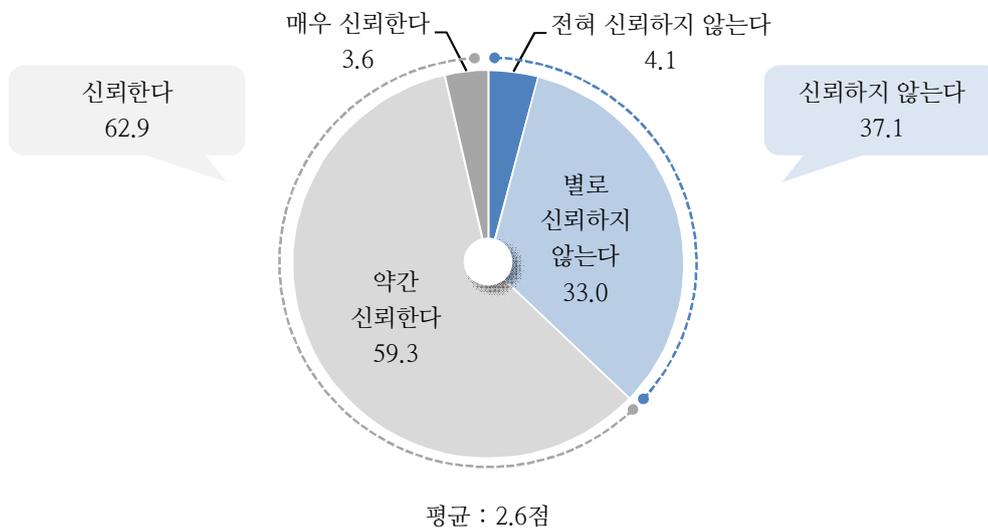
13)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이웃

- ‘이웃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1점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점 = 매우 신뢰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남
- 항목으로 살펴보면,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은 62.9%(매우 3.6% + 약간 59.3%),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율은 37.1%로 나타남(별로 33.0% + 전혀 4.1%)

【 그림 3-55 】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이웃

문)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_이웃

(단위 : %, n=5,1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60.9%)보다는 여자의 경우(64.8%) 이웃에 대한 신뢰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 53.4% → 노년층 69.6%)
- 결혼상태에서 따라서는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에는 53.9%로 기혼자의 신뢰한다는 응답비율 66.3% 및 69.6%보다 더 낮게 나타남
- 지역에 따라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70.2%)
- 가족구성원에 따라서는 1인 가구인 경우에도 이웃을 신뢰한다는 응답비율은 60.2%로, 다른 가족구성원 유형의 응답비율 62~67% 수준보다 낮게 나타남

【 표 3-62 】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이웃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4.1	33.0	37.1	59.3	3.6	62.9	100.0	(2.6)	
성별	남자	(2,555)	4.8	34.3	39.1	58.0	2.9	60.9	100.0	(2.6)
	여자	(2,545)	3.5	31.8	35.2	60.6	4.2	64.8	100.0	(2.7)
연령	19~29세	(935)	6.1	40.4	46.6	51.7	1.7	53.4	100.0	(2.5)
	30~45세	(1,451)	5.3	34.8	40.1	56.7	3.2	59.9	100.0	(2.6)
	46~60세	(1,604)	2.8	30.8	33.7	62.9	3.4	66.3	100.0	(2.7)
	61~79세	(1,110)	2.7	27.7	30.4	63.8	5.8	69.6	100.0	(2.7)
지역	서울	(987)	4.8	36.9	41.6	56.2	2.2	58.4	100.0	(2.6)
	인천/경기	(1,576)	2.0	32.4	34.3	62.6	3.1	65.7	100.0	(2.7)
	대전/충청/세종	(536)	3.2	26.6	29.8	67.1	3.2	70.2	100.0	(2.7)
	광주/전라	(497)	2.5	32.0	34.5	59.5	6.0	65.5	100.0	(2.7)
	대구/경북	(504)	10.8	40.1	50.9	44.6	4.5	49.1	100.0	(2.4)
	부산/울산/경남	(786)	4.6	29.9	34.6	61.5	4.0	65.4	100.0	(2.6)
	강원	(151)	5.5	32.8	38.3	58.6	3.1	61.7	100.0	(2.6)
제주	(64)	5.4	34.6	40.0	52.0	8.0	60.0	100.0	(2.6)	
결혼상태	미혼	(1,493)	5.6	40.5	46.1	51.3	2.5	53.9	100.0	(2.5)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3	30.4	33.7	62.5	3.8	66.3	100.0	(2.7)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5.2	25.2	30.4	63.7	5.9	69.6	100.0	(2.7)
가족구성원	1인가구	(617)	6.3	33.5	39.8	55.8	4.4	60.2	100.0	(2.6)
	1세대 가구	(874)	3.5	29.5	33.0	61.8	5.2	67.0	100.0	(2.7)
	2세대 가구	(3,393)	4.0	33.8	37.8	59.2	3.0	62.2	100.0	(2.6)
	3세대 가구	(212)	2.9	33.2	36.1	60.6	3.3	63.9	100.0	(2.6)
	비친족가구	(5)	3.7	45.7	49.3	50.7	0.0	50.7	100.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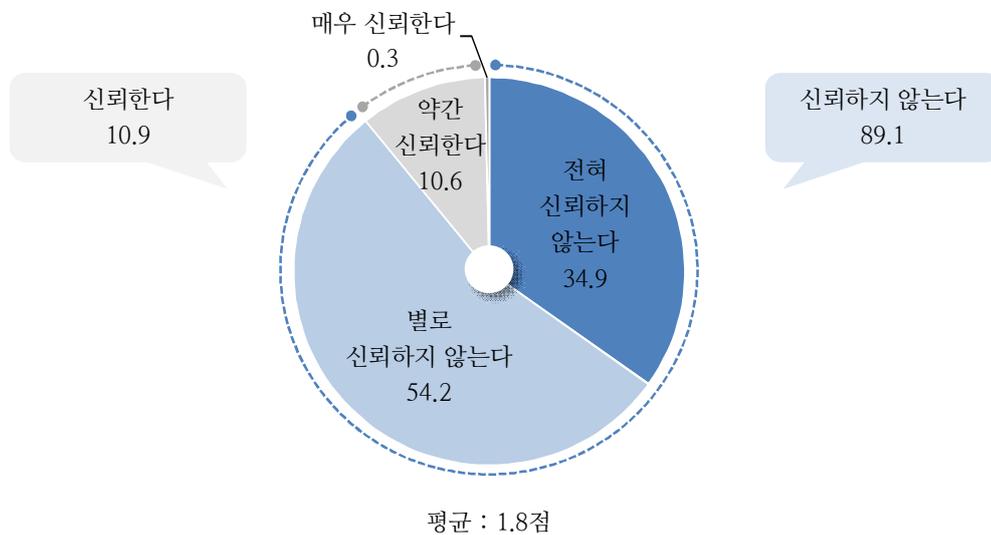
14)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1점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점 = 매우 신뢰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1.8점으로** 나타남
- 항목으로 살펴보면,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율은 89.1%**(전혀 34.9% + 별로 54.2%), ‘신뢰한다’의 **응답비율은 10.9%**로 나타남(약간 10.6% + 매우 0.3%)

【 그림 3-56 】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문)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_처음 만난 낯선 사람

(단위 : %, n=5,100)



○ 집단 중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은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 80%대 후반 ~ 90%대 초반의 응답비율을 보임

【 표 3-63 】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34.9	54.2	89.1	10.6	0.3	10.9	100.0	(1.8)	
성별	남자	(2,555)	35.2	54.0	89.2	10.3	0.5	10.8	100.0	(1.8)
	여자	(2,545)	34.5	54.5	89.0	10.8	0.2	11.0	100.0	(1.8)
연령	19~29세	(935)	39.0	51.5	90.5	9.1	0.4	9.5	100.0	(1.7)
	30~45세	(1,451)	37.9	52.9	90.8	8.7	0.6	9.2	100.0	(1.7)
	46~60세	(1,604)	32.0	55.4	87.4	12.3	0.3	12.6	100.0	(1.8)
	61~79세	(1,110)	31.7	56.6	88.3	11.6	0.1	11.7	100.0	(1.8)
지역	서울	(987)	37.4	53.3	90.7	9.2	0.1	9.3	100.0	(1.7)
	인천/경기	(1,576)	33.9	55.1	89.0	10.8	0.2	11.0	100.0	(1.8)
	대전/충청/세종	(536)	32.1	59.1	91.2	8.3	0.5	8.8	100.0	(1.8)
	광주/전라	(497)	29.7	62.0	91.7	8.0	0.2	8.3	100.0	(1.8)
	대구/경북	(504)	49.6	43.2	92.8	6.6	0.7	7.2	100.0	(1.6)
	부산/울산/경남	(786)	28.3	54.9	83.2	16.3	0.5	16.8	100.0	(1.9)
	강원	(151)	34.1	48.1	82.2	15.9	1.9	17.8	100.0	(1.9)
제주	(64)	51.7	38.1	89.8	10.2	0.0	10.2	100.0	(1.6)	
결혼상태	미혼	(1,493)	40.6	49.9	90.5	8.9	0.6	9.5	100.0	(1.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2.1	56.7	88.8	11.0	0.2	11.2	100.0	(1.8)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7.4	49.0	86.4	13.4	0.2	13.6	100.0	(1.8)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7.5	50.5	88.0	11.7	0.3	12.0	100.0	(1.7)
	1세대 가구	(874)	31.4	57.5	88.9	11.0	0.1	11.1	100.0	(1.8)
	2세대 가구	(3,393)	35.9	53.7	89.6	10.0	0.4	10.4	100.0	(1.7)
	3세대 가구	(212)	26.0	59.9	85.8	14.1	0.1	14.2	100.0	(1.9)
	비친족가구	(5)	36.0	43.1	79.1	20.9	0.0	20.9	100.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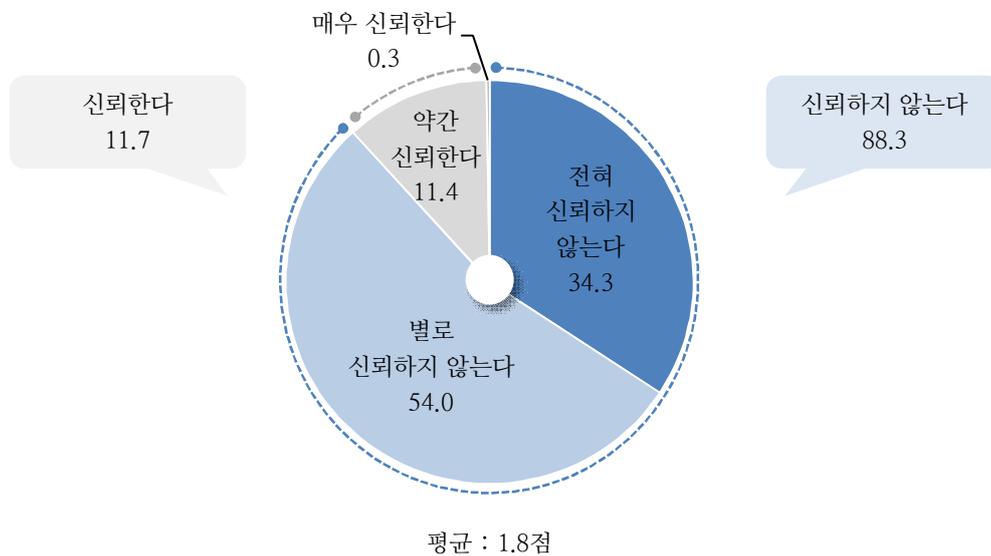
15)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국내 거주 외국인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를 4점 척도(1점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점 = 매우 신뢰한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1.8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율은 88.3%(전혀 34.3% + 별로 54.0%), ‘신뢰한다’의 응답비율 11.7%로 나타남(약간 11.4% + 매우 0.3%)

【 그림 3-57 】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국내 거주 외국인

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_국내 거주 외국인

(단위 : %, n=5,100)



○ 집단 중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은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유형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 80%대 후반의 응답비율을 보임

【 표 3-64 】 응답자 특성별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국내 거주 외국인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34.3	54.0	88.3	11.4	0.3	11.7	100.0	(1.8)	
성별	남자	(2,555)	34.0	53.7	87.7	11.9	0.4	12.3	100.0	(1.8)
	여자	(2,545)	34.5	54.3	88.8	11.0	0.1	11.2	100.0	(1.8)
연령	19~29세	(935)	36.0	53.0	89.0	10.8	0.2	11.0	100.0	(1.8)
	30~45세	(1,451)	36.6	53.1	89.7	9.9	0.4	10.3	100.0	(1.7)
	46~60세	(1,604)	32.2	55.3	87.5	12.2	0.3	12.5	100.0	(1.8)
	61~79세	(1,110)	32.8	54.3	87.0	12.9	0.1	13.0	100.0	(1.8)
지역	서울	(987)	33.1	56.5	89.5	10.5	0.0	10.5	100.0	(1.8)
	인천/경기	(1,576)	37.5	52.6	90.0	9.6	0.3	10.0	100.0	(1.7)
	대전/충청/세종	(536)	30.4	59.6	90.0	9.8	0.2	10.0	100.0	(1.8)
	광주/전라	(497)	25.1	62.7	87.8	11.6	0.6	12.2	100.0	(1.9)
	대구/경북	(504)	48.4	43.5	92.0	7.7	0.4	8.0	100.0	(1.6)
	부산/울산/경남	(786)	28.0	54.5	82.5	17.5	0.0	17.5	100.0	(1.9)
	강원	(151)	35.7	41.2	76.9	21.5	1.6	23.1	100.0	(1.9)
제주	(64)	38.6	46.0	84.5	15.5	0.0	15.5	100.0	(1.8)	
결혼상태	미혼	(1,493)	37.2	52.2	89.4	10.2	0.4	10.6	100.0	(1.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2.4	55.5	87.9	11.9	0.2	12.1	100.0	(1.8)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9.9	46.7	86.6	12.9	0.5	13.4	100.0	(1.7)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8.8	50.7	89.6	10.3	0.1	10.4	100.0	(1.7)
	1세대 가구	(874)	32.6	54.8	87.3	12.4	0.2	12.7	100.0	(1.8)
	2세대 가구	(3,393)	34.3	54.2	88.5	11.2	0.3	11.5	100.0	(1.8)
	3세대 가구	(212)	27.2	58.2	85.4	14.5	0.1	14.6	100.0	(1.9)
	비친족가구	(5)	12.8	66.2	79.1	20.9	0.0	20.9	100.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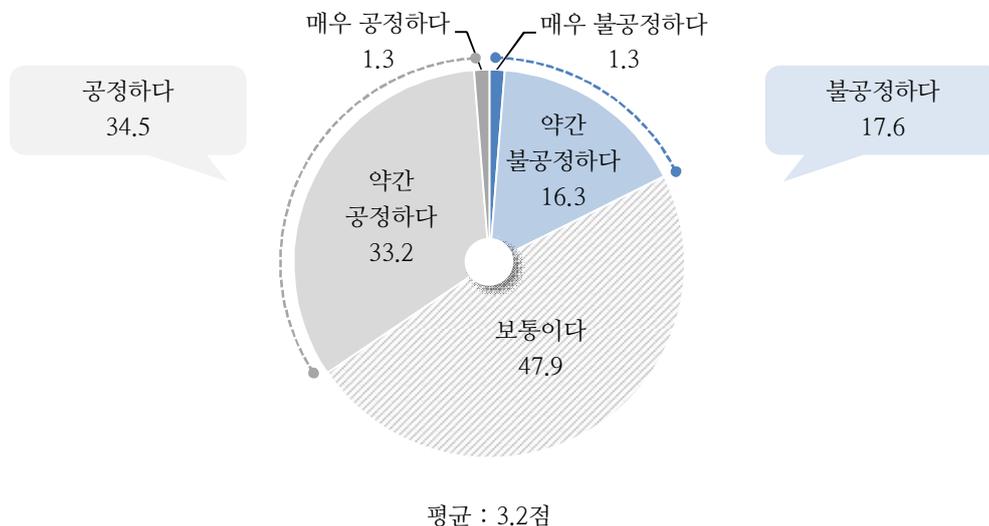
16)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 ‘자신이 가진 두뇌(능력)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 매우 불공정하다, 5점 =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남
- 항목 별로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은 **34.5%**(매우 공정 1.3% + 약간 공정 33.2%),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은 **17.6%**로 나타남(매우 불공정 1.3% + 약간 불공정 16.3%)

【 그림 3-58 】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두뇌(능력)

(단위 : %, n=5,100)



-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자신의 두뇌(능력)만큼 사회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43.2%)

【 표 3-65 】 응답자 특성별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③ 보통이다 (3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1.3	16.3	17.6	47.9	33.2	1.3	34.5	100.0	(3.2)	
성별	남자	(2,555)	1.4	17.4	18.8	47.0	32.9	1.3	34.2	100.0	(3.2)
	여자	(2,545)	1.1	15.3	16.4	48.9	33.6	1.2	34.8	100.0	(3.2)
연령	19~29세	(935)	1.4	15.7	17.0	47.4	34.0	1.6	35.6	100.0	(3.2)
	30~45세	(1,451)	1.3	17.5	18.8	46.3	33.7	1.2	34.9	100.0	(3.2)
	46~60세	(1,604)	1.2	15.8	17.0	48.5	33.4	1.2	34.6	100.0	(3.2)
	61~79세	(1,110)	1.1	16.2	17.3	49.7	31.8	1.2	33.0	100.0	(3.2)
지역	서울	(987)	0.7	18.4	19.1	44.1	35.2	1.6	36.8	100.0	(3.2)
	인천/경기	(1,576)	0.3	16.1	16.4	51.4	31.5	0.7	32.2	100.0	(3.2)
	대전/충청/세종	(536)	1.5	12.9	14.4	51.2	33.7	0.6	34.3	100.0	(3.2)
	광주/전라	(497)	1.9	14.9	16.8	46.4	35.0	1.8	36.8	100.0	(3.2)
	대구/경북	(504)	2.9	20.5	23.4	47.7	27.8	1.1	28.9	100.0	(3.0)
	부산/울산/경남	(786)	1.3	12.4	13.7	43.1	41.8	1.4	43.2	100.0	(3.3)
	강원	(151)	4.3	29.4	33.7	52.3	9.7	4.3	14.0	100.0	(2.8)
제주	(64)	4.5	13.8	18.4	56.7	21.5	3.5	25.0	100.0	(3.1)	
결혼상태	미혼	(1,493)	1.4	17.2	18.5	46.1	33.7	1.7	35.3	100.0	(3.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1	16.1	17.3	48.4	33.5	0.9	34.4	100.0	(3.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8	14.6	16.4	51.7	28.1	3.8	31.9	100.0	(3.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9	17.9	19.9	44.8	32.5	2.8	35.4	100.0	(3.2)
	1세대 가구	(874)	1.4	18.1	19.6	46.9	33.1	0.5	33.6	100.0	(3.1)
	2세대 가구	(3,393)	1.1	16.0	17.1	48.4	33.3	1.2	34.5	100.0	(3.2)
	3세대 가구	(212)	0.6	10.2	10.7	53.4	34.4	1.4	35.8	100.0	(3.3)
	비친족가구	(5)	0.0	24.6	24.6	57.4	18.1	0.0	18.1	10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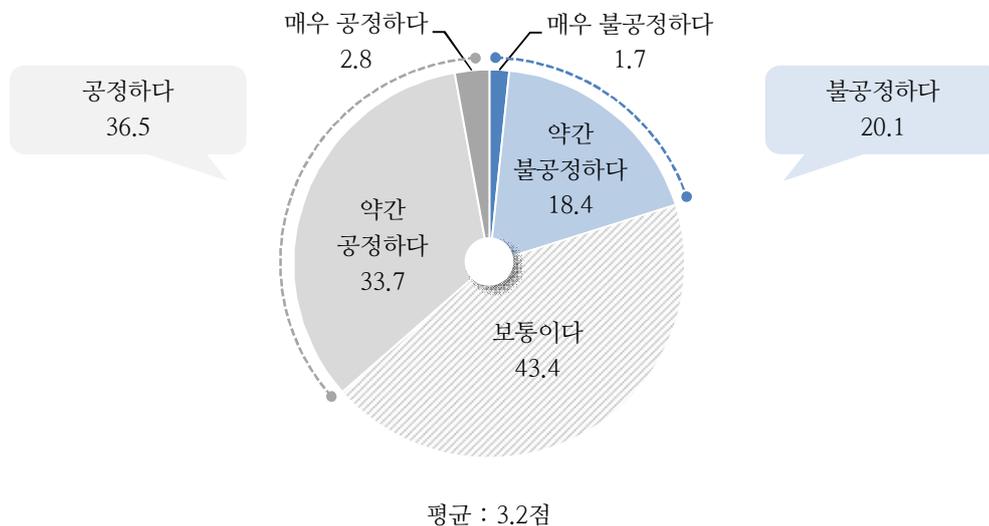
17)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 ‘자신이 가진 일과 관련된 기술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해 5점 척도 (1점 = 매우 불공정하다, 5점 =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남
- 항목 별로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은 36.5%**(매우 공정 2.8% + 약간 공정 33.7%),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은 20.1%**로 나타남(매우 불공정 1.7% + 약간 불공정 18.4%)

【 그림 3-59 】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 일과 관련된 기술

(단위 : %, n=5,100)



-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기술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강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불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37.7%)

【 표 3-66 】 응답자 특성별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③ 보통이다 (3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1.7	18.4	20.1	43.4	33.7	2.8	36.5	100.0	(3.2)	
성별	남자	(2,555)	1.8	19.4	21.2	42.1	34.3	2.4	36.7	100.0	(3.2)
	여자	(2,545)	1.5	17.5	19.0	44.7	33.0	3.3	36.3	100.0	(3.2)
연령	19~29세	(935)	1.5	17.5	19.0	44.0	33.5	3.5	37.0	100.0	(3.2)
	30~45세	(1,451)	1.8	20.5	22.3	41.8	33.5	2.4	36.0	100.0	(3.1)
	46~60세	(1,604)	1.7	19.1	20.7	41.9	34.5	2.8	37.4	100.0	(3.2)
	61~79세	(1,110)	1.6	15.7	17.3	47.1	32.8	2.8	35.6	100.0	(3.2)
지역	서울	(987)	1.1	16.3	17.4	46.0	33.6	3.0	36.6	100.0	(3.2)
	인천/경기	(1,576)	1.0	19.5	20.5	44.2	33.8	1.5	35.3	100.0	(3.2)
	대전/충청/세종	(536)	1.2	19.5	20.8	43.0	31.4	4.8	36.2	100.0	(3.2)
	광주/전라	(497)	2.0	16.9	18.9	39.7	38.8	2.7	41.5	100.0	(3.2)
	대구/경북	(504)	3.8	23.0	26.9	41.1	28.3	3.7	32.1	100.0	(3.1)
	부산/울산/경남	(786)	1.6	13.6	15.2	41.5	39.7	3.5	43.3	100.0	(3.3)
	강원	(151)	4.0	33.7	37.7	44.5	14.6	3.1	17.7	100.0	(2.8)
제주	(64)	4.6	17.7	22.3	52.4	22.7	2.6	25.3	100.0	(3.0)	
결혼상태	미혼	(1,493)	1.3	20.8	22.1	42.4	32.3	3.2	35.5	100.0	(3.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9	17.4	19.2	43.8	34.4	2.6	37.0	100.0	(3.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4	18.2	19.7	44.2	32.6	3.5	36.1	100.0	(3.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1	20.5	22.6	40.0	32.1	5.2	37.4	100.0	(3.2)
	1세대 가구	(874)	1.9	16.9	18.8	46.4	32.8	2.1	34.8	100.0	(3.2)
	2세대 가구	(3,393)	1.6	18.5	20.1	43.2	34.1	2.6	36.7	100.0	(3.2)
	3세대 가구	(212)	0.6	17.2	17.8	44.0	35.0	3.2	38.2	100.0	(3.2)
	비친족가구	(5)	3.9	24.6	28.4	53.5	18.1	0.0	18.1	100.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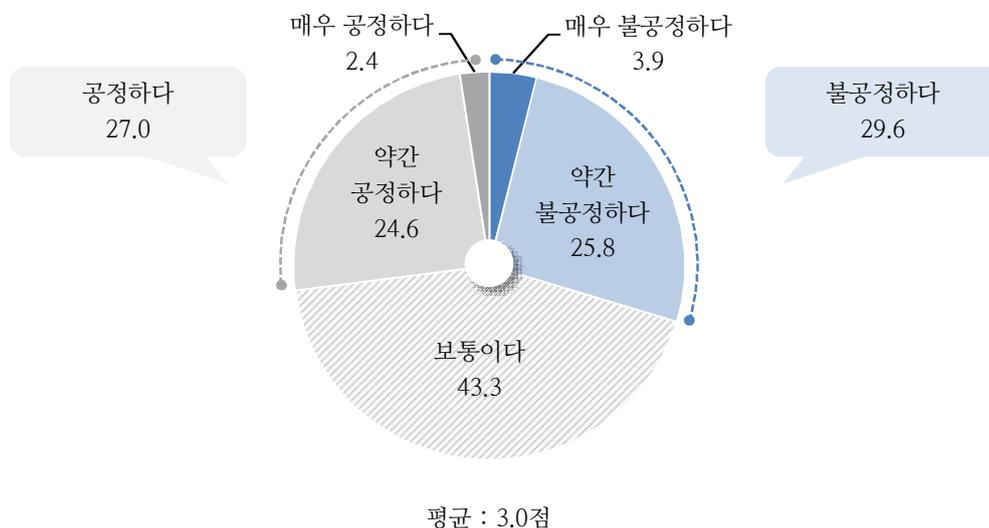
18)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 ‘자신이 가진 노력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 매우 불공정하다, 5점 =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남
- 항목 별로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은 27.0%**(매우 공정 2.4% + 약간 공정 24.6%),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은 29.6%**로 나타남(매우 불공정 3.9% + 약간 불공정 25.8%)

【 그림 3-60 】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노력

(단위 : %, n=5,100)



-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기술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강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불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42.7%)

【 표 3-67 】 응답자 특성별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③ 보통이다 (3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3.9	25.8	29.6	43.3	24.6	2.4	27.0	100.0	(3.0)	
성별	남자	(2,555)	3.8	27.9	31.7	40.4	25.6	2.3	27.9	100.0	(2.9)
	여자	(2,545)	4.0	23.6	27.6	46.3	23.6	2.5	26.2	100.0	(3.0)
연령	19~29세	(935)	4.7	26.0	30.7	43.1	23.4	2.8	26.2	100.0	(2.9)
	30~45세	(1,451)	4.4	25.8	30.2	43.6	23.7	2.5	26.2	100.0	(2.9)
	46~60세	(1,604)	3.7	26.1	29.8	42.3	25.7	2.2	27.9	100.0	(3.0)
	61~79세	(1,110)	2.9	24.9	27.9	44.6	25.4	2.2	27.5	100.0	(3.0)
지역	서울	(987)	2.2	32.0	34.2	38.3	24.8	2.7	27.6	100.0	(2.9)
	인천/경기	(1,576)	3.0	26.2	29.3	46.4	23.1	1.2	24.4	100.0	(2.9)
	대전/충청/세종	(536)	2.5	21.8	24.4	46.5	26.9	2.2	29.1	100.0	(3.0)
	광주/전라	(497)	2.9	26.7	29.5	39.0	29.2	2.3	31.5	100.0	(3.0)
	대구/경북	(504)	10.9	22.6	33.4	40.7	21.0	4.9	25.9	100.0	(2.9)
	부산/울산/경남	(786)	4.5	19.5	24.0	45.1	28.3	2.6	30.9	100.0	(3.1)
	강원	(151)	6.5	36.1	42.7	40.8	13.6	3.0	16.6	100.0	(2.7)
제주	(64)	3.7	19.9	23.6	57.7	15.2	3.5	18.7	100.0	(2.9)	
결혼상태	미혼	(1,493)	4.3	27.6	32.0	42.2	22.7	3.1	25.8	100.0	(2.9)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7	25.2	28.9	43.5	25.6	2.0	27.6	100.0	(3.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4	23.0	26.4	47.0	23.3	3.4	26.6	100.0	(3.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2	25.9	31.2	41.2	23.8	3.9	27.7	100.0	(3.0)
	1세대 가구	(874)	2.7	23.4	26.1	45.6	26.8	1.5	28.4	100.0	(3.0)
	2세대 가구	(3,393)	4.0	26.0	30.1	43.4	24.3	2.2	26.5	100.0	(2.9)
	3세대 가구	(212)	3.0	30.5	33.5	38.6	23.8	4.1	27.9	100.0	(3.0)
	비친족가구	(5)	5.3	24.6	29.9	34.3	35.8	0.0	35.8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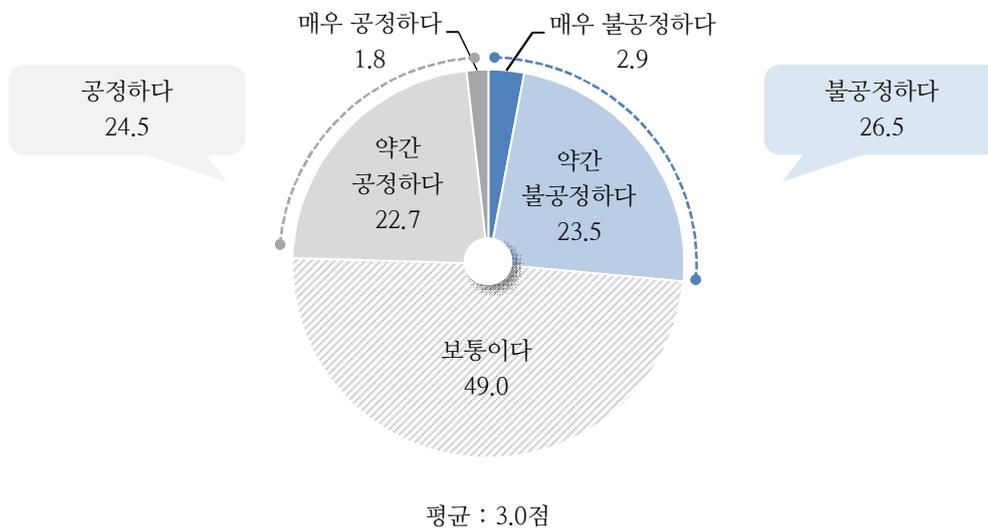
19)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 ‘자신이 가진 경력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어떠한지’에 대해 5점 척도(1점 = 매우 불공정하다, 5점 = 매우 공정하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남
- 항목 별로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은 24.5%(매우 공정 1.8% + 약간 공정 22.7%),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은 26.5%로 나타남(매우 불공정 2.9% + 약간 불공정 23.5%)

【 그림 3-61 】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문)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_경력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력에 비해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공정하다’는 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청년층 24.5% → 노년층 27.5%)
-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강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불공정하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41.3%)
- 또한 사별, 이혼, 별거 중인 경우의 기혼층과 1인 가구인 경우에 다른 층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표 3-68 】 응답자 특성별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③ 보통이다 (3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29	23.5	26.5	49.0	22.7	1.8	24.5	100.0	(3.0)	
성별	남자	(2,555)	3.3	24.9	28.2	46.6	23.3	1.8	25.2	100.0	(3.0)
	여자	(2,545)	2.5	22.1	24.7	51.4	22.1	1.8	23.9	100.0	(3.0)
연령	19~29세	(935)	3.7	20.8	24.5	49.7	23.7	2.2	25.9	100.0	(3.0)
	30~45세	(1,451)	2.7	23.3	26.1	50.1	22.4	1.5	23.9	100.0	(3.0)
	46~60세	(1,604)	2.7	24.6	27.3	48.2	22.5	2.0	24.5	100.0	(3.0)
	61~79세	(1,110)	2.9	24.6	27.5	48.3	22.7	1.5	24.2	100.0	(3.0)
지역	서울	(987)	1.0	33.0	34.0	43.6	20.0	2.4	22.4	100.0	(2.9)
	인천/경기	(1,576)	1.5	26.0	27.5	53.2	18.4	0.9	19.3	100.0	(2.9)
	대전/충청/세종	(536)	1.8	17.4	19.2	54.6	23.7	2.4	26.1	100.0	(3.1)
	광주/전라	(497)	2.3	17.9	20.2	46.5	31.8	1.5	33.3	100.0	(3.1)
	대구/경북	(504)	10.0	18.4	28.4	50.3	17.4	4.0	21.4	100.0	(2.9)
	부산/울산/경남	(786)	3.3	17.0	20.3	45.0	33.5	1.1	34.7	100.0	(3.1)
	강원	(151)	10.9	30.3	41.3	42.3	14.2	2.2	16.4	100.0	(2.7)
제주	(64)	2.9	16.5	19.4	56.8	21.2	2.7	23.8	100.0	(3.0)	
결혼상태	미혼	(1,493)	3.0	22.5	25.5	49.8	22.6	2.0	24.7	100.0	(3.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8	23.7	26.5	49.2	22.6	1.7	24.3	100.0	(3.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3	26.4	30.7	43.0	24.4	1.9	26.3	100.0	(2.9)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8	25.4	29.2	44.8	23.1	3.0	26.1	100.0	(3.0)
	1세대 가구	(874)	2.2	23.0	25.2	51.1	22.3	1.4	23.7	100.0	(3.0)
	2세대 가구	(3,393)	3.1	23.3	26.4	49.5	22.4	1.7	24.1	100.0	(3.0)
	3세대 가구	(212)	0.8	23.5	24.4	45.1	28.3	2.2	30.5	100.0	(3.1)
	비친족가구	(5)	0.0	28.4	28.4	48.2	23.4	0.0	23.4	100.0	(2.9)

6. 사회일반/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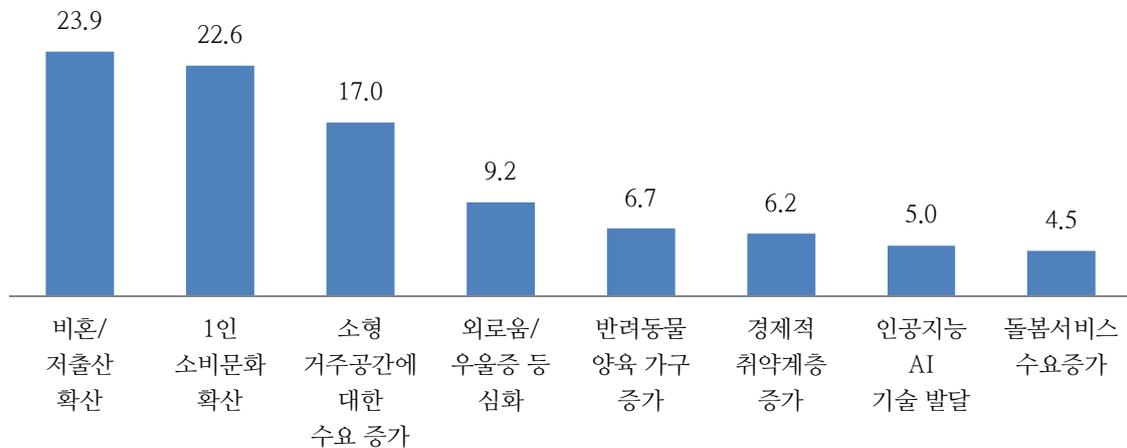
1)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 소득증가 등의 요인, 자유로운 생활 추구 가치관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에 새로운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함
- 그 결과,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23.9%)’였음. 뒤를 이어 ‘혼밥,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22.6%)’, ‘소형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1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3-62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1순위

문) 우리 사회는 학업/취업, 고령화, 소득증가 등과 같은 요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 추구 등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세요.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23.5%, 24.3%)
- 연령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청장년층에서는 1인 소비문화 확산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27.5%, 25.1%). 반면, 중노년층에서는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25.8%, 23.7%)
- 추가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건강관리 및 돌봄 등의 지원 요구 증가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미혼/기혼(사별, 이혼, 별거 등)에서는 1인 소비문화 확산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26.0%, 24.9%). 반면 결혼 생활 중인 기혼층에서는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24.6%)

【 표 3-69 】 응답자 특성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1순위

(단위 : %)

구 분	사태수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	혼합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대화형 로봇 등)	건강관리/돌봄/가사 활동지원 등의 요구 증가	공유/렌탈 서비스 발달	안전시설 확충 요구 증가	계	
전 체	(5,100)	23.9	22.6	17.0	9.2	6.7	6.2	5.0	4.5	3.8	0.9	100.0	
성별	남자	(2,555)	23.5	23.2	17.5	7.8	6.9	6.4	5.4	4.0	4.7	0.6	100.0
	여자	(2,545)	24.3	22.0	16.6	10.7	6.4	6.0	4.7	5.1	3.0	1.2	100.0
연령	19~29세	(935)	21.9	27.5	19.1	6.4	6.0	5.7	5.8	2.8	4.1	0.8	100.0
	30~45세	(1,451)	23.4	25.1	19.6	6.5	7.0	5.4	5.1	3.5	3.3	1.1	100.0
	46~60세	(1,604)	25.8	21.0	15.5	9.6	6.1	5.3	5.8	5.5	4.6	0.8	100.0
	61~79세	(1,110)	23.7	17.6	14.2	14.7	7.7	9.0	3.2	5.8	3.2	0.9	100.0
지역	서울	(987)	24.9	21.0	26.5	7.9	4.0	4.3	3.1	2.8	4.9	0.6	100.0
	인천/경기	(1,576)	24.9	22.5	17.6	8.4	6.2	5.7	7.6	2.4	3.6	1.1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0.2	23.8	9.4	11.9	9.1	7.1	7.0	6.0	3.7	1.7	100.0
	광주/전라	(497)	27.1	26.1	7.4	13.4	6.9	8.2	2.7	6.0	1.5	0.7	100.0
	대구/경북	(504)	25.1	20.7	12.6	11.2	7.6	6.4	4.2	8.2	3.3	0.7	100.0
	부산/울산/경남	(786)	21.6	22.2	18.5	8.2	8.5	5.7	3.9	5.5	4.9	0.9	100.0
	강원	(151)	21.6	22.6	15.6	3.6	8.7	14.1	1.5	9.3	2.9	0.0	100.0
제주	(64)	15.5	32.2	15.3	7.1	3.9	10.1	3.1	4.5	8.2	0.0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22.9	26.0	20.5	6.1	5.7	5.5	5.6	2.9	3.9	0.8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4.6	20.9	16.0	10.1	7.1	6.2	5.1	5.1	3.9	1.0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1.5	24.9	11.1	15.0	7.0	9.8	1.5	6.1	2.6	0.4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9.7	25.2	17.2	12.5	7.2	7.1	3.7	4.3	2.5	0.5	100.0
	1세대 가구	(874)	22.5	20.2	14.3	11.8	8.6	7.4	5.3	5.6	3.5	0.7	100.0
	2세대 가구	(3,393)	25.3	22.6	17.5	7.9	6.2	5.7	5.3	4.3	4.2	1.1	100.0
	3세대 가구	(212)	19.8	24.4	21.1	11.6	5.4	6.7	3.0	4.4	3.5	0.0	100.0
	비친족가구	(5)	14.4	56.7	13.4	0.0	15.5	0.0	0.0	0.0	0.0	0.0	100.0

- 성별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에서도, 큰 차이는 없음. 남녀 모두에서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21.0%, 20.4%)
- 연령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 청년층에서는 1인 소비문화 확산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20.2%).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20.8%, 20.3%, 22.0%)
- 추가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건강관리 및 돌봄 등의 지원 요구 증가 등에 대한 응답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모든 결혼상태에서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70 】 응답자 특성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	혼합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건강관리/돌봄/가사 활동지원 등의 요구 증가	공유/렌탈 서비스 발달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대화형 로봇 등)	안전시설 확충 요구 증가	계
전 체		(5,100)	20.7	15.6	12.9	11.8	11.7	8.3	7.2	4.9	4.8	2.0	100.0
성별	남자	(2,555)	21.0	16.1	12.0	11.4	12.2	8.4	6.9	5.5	4.5	2.0	100.0
	여자	(2,545)	20.4	15.1	13.8	12.2	11.3	8.2	7.5	4.4	5.1	2.0	100.0
연령	19~29세	(935)	19.6	20.2	9.3	13.2	9.4	9.0	5.1	6.1	6.1	1.8	100.0
	30~45세	(1,451)	20.8	17.4	11.2	12.8	9.9	9.0	6.5	5.7	4.9	1.8	100.0
	46~60세	(1,604)	20.3	13.6	14.4	12.7	12.8	7.5	7.5	4.3	4.8	2.1	100.0
	61~79세	(1,110)	22.0	12.4	16.0	8.0	14.5	8.0	9.4	3.8	3.7	2.3	100.0
지역	서울	(987)	24.0	18.3	9.4	9.0	12.6	10.0	4.3	5.7	5.2	1.4	100.0
	인천/경기	(1,576)	19.7	16.4	12.3	11.1	13.1	9.9	6.7	4.8	4.6	1.5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5.0	14.3	10.1	14.5	11.6	4.5	8.5	3.9	5.7	1.9	100.0
	광주/전라	(497)	20.9	16.4	17.5	8.8	11.4	6.8	9.2	3.6	3.2	2.2	100.0
	대구/경북	(504)	17.9	13.0	15.9	14.9	11.0	6.1	9.2	5.2	5.7	1.1	100.0
	부산/울산/경남	(786)	17.0	14.4	15.3	14.9	8.4	8.7	7.7	4.6	4.9	4.2	100.0
	강원	(151)	21.9	10.1	11.8	14.9	13.8	3.9	9.8	7.8	5.1	0.9	100.0
	제주	(64)	20.5	10.8	19.6	4.1	7.8	11.0	9.2	9.0	3.8	4.3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20.5	19.8	10.2	12.9	9.2	8.9	5.2	6.1	5.3	1.8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0.7	14.1	14.2	11.7	12.6	7.9	7.8	4.4	4.6	2.0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1.3	12.6	12.1	7.4	14.2	10.5	9.9	4.6	4.7	2.7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1.4	15.9	11.4	9.5	11.6	9.0	8.0	5.8	4.4	3.1	100.0
	1세대 가구	(874)	22.2	14.1	16.1	10.4	12.0	7.6	8.7	3.8	3.7	1.4	100.0
	2세대 가구	(3,393)	20.1	16.2	12.3	12.6	11.5	8.4	6.7	5.1	5.2	1.9	100.0
	3세대 가구	(212)	21.8	11.8	15.1	10.4	14.9	8.0	6.8	5.0	4.5	1.7	100.0
	비친족가구	(5)	33.6	5.4	0.0	52.0	3.7	0.0	0.0	0.0	0.0	5.3	100.0

- 응답 결과를 중복으로 처리한 결과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44.5%, 44.7%)
- 연령에 따라서는, 청년층에서 1인 소비문화 확산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47.7%),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44.2%, 46.1%, 45.6%)
- 추가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건강관리 및 돌봄 등의 지원 요구 증가 등에 대한 응답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 1+ 2순위를 살펴 본 결과, 미혼에서는 1인 소비문화 확산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7.7%). 반면 기혼(결혼 생활 중)/기혼(사별, 이혼, 별거 등)에서는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45.3%, 42.8%)

【 표 3-71 】 응답자 특성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	혼합,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소형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건강관리/돌봄/가사 활동지원 등의 요구 증가	인공지능 (AI) 기술 발달 (대화형 로봇 등)	공유/렌탈 서비스 발달	안전시설 확충 요구 증가	
전 체	(5,100)	44.6	38.2	25.4	22.2	18.5	17.9	11.7	9.9	8.8	2.9	
성별	남자	(2,555)	44.5	39.4	25.9	19.8	18.3	18.6	10.9	9.9	10.1	2.6
	여자	(2,545)	44.7	37.1	24.8	24.5	18.7	17.3	12.5	9.8	7.4	3.2
연령	19~29세	(935)	41.5	47.7	28.1	15.7	19.1	15.2	7.9	11.9	10.2	2.6
	30~45세	(1,451)	44.2	42.5	28.7	17.7	19.8	15.3	9.9	10.1	9.0	2.9
	46~60세	(1,604)	46.1	34.5	23.0	24.0	18.9	18.1	13.1	10.6	8.9	2.9
	61~79세	(1,110)	45.6	30.0	22.2	30.7	15.7	23.5	15.2	6.8	7.0	3.2
지역	서울	(987)	49.0	39.3	36.5	17.3	13.0	16.9	7.2	8.3	10.6	2.0
	인천/경기	(1,576)	44.6	38.9	27.5	20.7	17.2	18.9	9.1	12.2	8.4	2.6
	대전/충청/세종	(536)	45.2	38.1	14.0	22.0	23.6	18.7	14.6	12.7	7.6	3.6
	광주/전라	(497)	48.0	42.4	14.2	30.9	15.7	19.6	15.2	5.9	5.1	2.9
	대구/경북	(504)	43.0	33.7	18.8	27.2	22.4	17.4	17.4	9.8	8.5	1.8
	부산/울산/경남	(786)	38.6	36.7	27.1	23.5	23.4	14.1	13.2	8.8	9.4	5.0
	강원	(151)	43.5	32.7	19.5	15.4	23.7	27.9	19.1	6.7	10.7	0.9
제주	(64)	36.0	43.0	26.3	26.7	8.0	17.9	13.7	6.9	17.2	4.3	
결혼상태	미혼	(1,493)	43.5	45.7	29.4	16.3	18.7	14.6	8.1	10.9	10.0	2.6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5.3	34.9	23.9	24.3	18.8	18.8	12.9	9.7	8.3	3.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2.8	37.5	21.6	27.1	14.4	24.0	16.0	6.2	7.3	3.1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41.2	41.1	26.2	23.9	16.7	18.7	12.3	8.1	8.3	3.6
	1세대 가구	(874)	44.7	34.4	21.9	27.9	19.1	19.3	14.3	9.0	7.2	2.1
	2세대 가구	(3,393)	45.4	38.8	25.9	20.1	18.7	17.2	11.0	10.6	9.3	3.0
	3세대 가구	(212)	41.5	36.2	29.1	26.7	15.8	21.7	11.3	7.6	8.4	1.7
	비친족가구	(5)	48.0	62.1	13.4	0.0	67.5	3.7	0.0	0.0	0.0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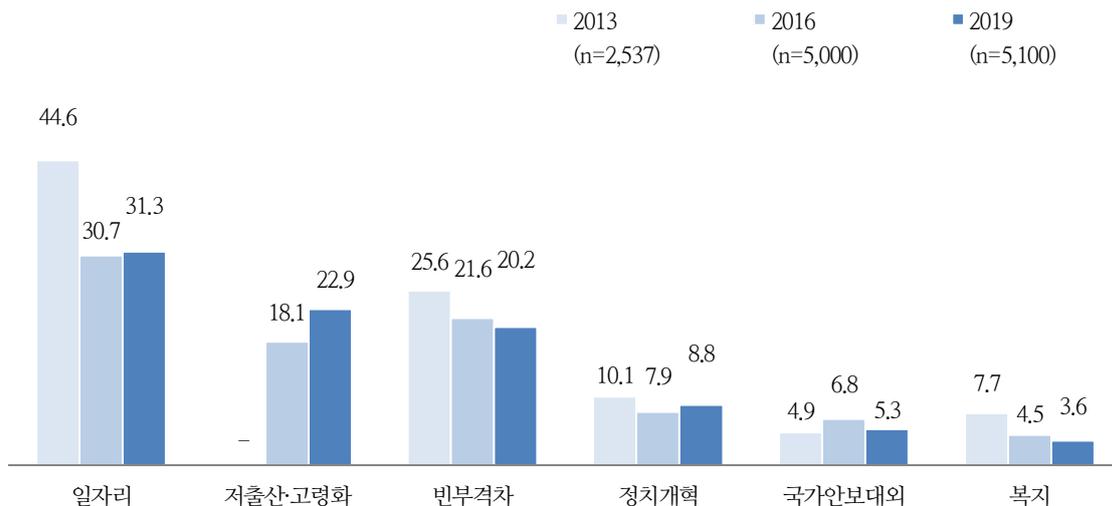
2)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일자리(31.3%)’로 나타남
- 뒤를 이어 ‘저출산 고령화(22.9%)’, ‘빈부격차(20.2%)’, ‘정치개혁’(8.8%), ‘국가안보(대외)’(5.3%), ‘복지’(3.6%) 순이었음
- 2013년 조사는 ‘저출산 고령화’를 선택지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 2016/2019년 조사는 ‘저출산 고령화’를 선택지로 포함하고 있음. 이 같은 차이로, 2016년 및 2019년 조사에서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것으로 판단됨

【 그림 3-63 】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문) 귀하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에 큰 차이가 없음. 남녀 모두에서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32.6%, 30.0%)
-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청년층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3.1%p, 14.6%p, 14.2%p). 이 같은 결과는 모든 연령대가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당장 취업을 앞둔 청년층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자리 문제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 본 결과에서도 큰 차이 없이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미혼에서 기혼층보다 일자리 문제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12.2%p, 12.8%p)

【 표 3-72 】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정치개혁	국민보 (대외)	복지	환경오염	소통	교육	치안(대 내)	기타	계
전 체		(5,100)	31.3	22.9	20.2	8.8	5.3	3.6	2.9	2.8	1.2	0.9	0.1	100.0
성별	남자	(2,555)	32.6	21.2	18.7	9.9	6.4	3.6	2.5	2.8	1.4	0.8	0.1	100.0
	여자	(2,545)	30.0	24.5	21.7	7.7	4.2	3.7	3.3	2.8	1.1	0.9	0.1	100.0
연령	19~29세	(935)	42.6	18.0	17.4	6.5	4.0	3.7	2.7	2.7	1.0	1.1	0.2	100.0
	30~45세	(1,451)	29.8	23.0	21.2	9.5	4.4	3.7	2.7	3.2	1.9	0.6	0.0	100.0
	46~60세	(1,604)	28.0	24.6	20.4	10.0	5.3	3.5	3.0	3.0	1.4	0.8	0.2	100.0
	61~79세	(1,110)	28.4	24.3	21.1	8.3	7.6	3.6	3.2	2.0	0.3	1.1	0.2	100.0
지역	서울	(987)	29.1	20.6	25.1	9.4	4.8	2.3	3.4	2.9	1.9	0.4	0.1	100.0
	인천/경기	(1,576)	31.6	22.2	19.4	9.2	6.8	3.3	3.0	2.3	1.6	0.5	0.0	100.0
	대전/충청/세종	(536)	26.3	25.3	21.2	11.4	5.0	4.3	3.0	1.8	1.4	0.2	0.0	100.0
	광주/전라	(497)	20.2	33.4	15.8	9.9	2.5	6.3	3.6	6.9	0.3	0.8	0.3	100.0
	대구/경북	(504)	38.3	18.6	25.8	4.5	4.2	2.8	1.3	1.8	0.9	1.6	0.3	100.0
	부산/울산/경남	(786)	40.9	23.6	15.1	6.6	4.6	3.5	1.7	2.2	0.4	1.3	0.0	100.0
	강원	(151)	30.2	13.8	16.3	13.3	8.8	6.5	6.5	1.6	1.2	0.0	1.7	100.0
결혼상태	제주	(64)	11.0	16.6	20.6	12.6	8.8	6.4	4.7	6.4	0.0	12.2	0.8	100.0
	미혼	(1,493)	39.9	18.5	18.7	7.3	4.3	3.2	2.9	2.8	1.3	0.9	0.1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7.7	25.0	20.6	9.7	5.7	3.6	2.8	2.7	1.2	0.8	0.1	100.0
가족 구성원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7.1	20.7	23.4	6.8	5.9	5.7	4.0	3.1	0.5	2.0	0.6	100.0
	1인가구	(617)	31.5	22.2	20.7	8.2	5.6	3.7	3.4	2.6	0.8	1.0	0.4	100.0
	1세대 가구	(874)	28.9	23.5	21.0	10.3	6.0	4.0	2.4	1.9	1.1	1.0	0.0	100.0
	2세대 가구	(3,393)	32.0	22.4	20.3	8.7	5.1	3.5	3.0	2.8	1.4	0.7	0.1	100.0
	3세대 가구	(212)	28.6	29.3	15.4	7.8	5.1	4.0	1.2	6.0	1.0	1.7	0.0	100.0
	비친족가구	(5)	40.5	17.0	20.9	3.9	17.7	0.0	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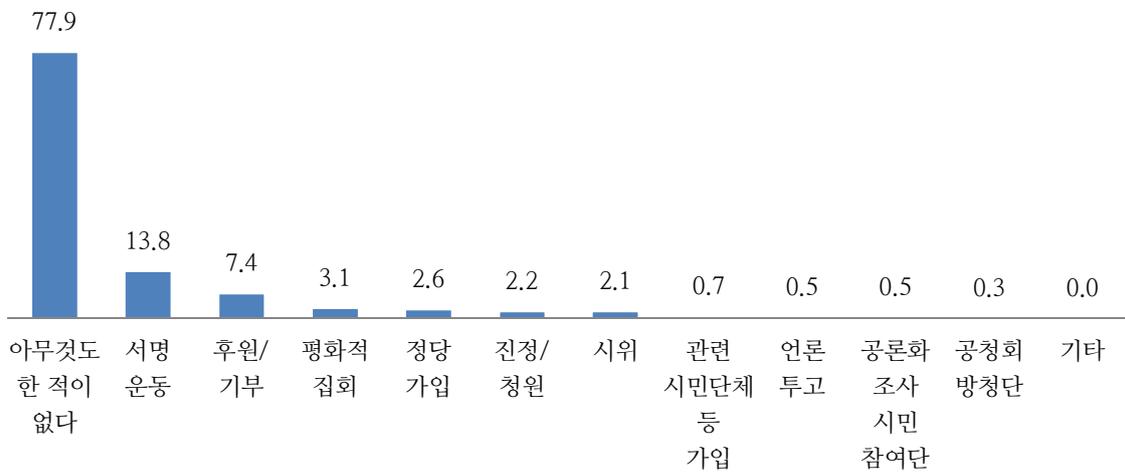
3)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정치활동이나 방식’을 복수선택으로 살펴본 결과,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77.9%)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서명운동’(13.8%), ‘후원/기부’(7.4%), ‘평화적 집회’(3.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림 3-64 】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문) 다음에 제시된 정치참여 활동/방식 중에서, 귀하가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한 적이 있는 행위를 모두 말씀하여 주세요.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에서는 참여 경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외했을 때, 남녀 모두에서 서명운동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14.2%, 13.4%)
- 연령,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에 따라 살펴 본 결과에서도 큰 응답 차이가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서명운동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73 】 응답자 특성별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서명운동	후원/기부	평화적 집회	정당가입	진정/청원	시위	관련 시민단체 등 가입	언론투고	공론화 조사 시민참여단	공청회 병행단	기타
전 체		(5,100)	77.9	13.8	7.4	3.1	2.6	2.2	2.1	0.7	0.5	0.5	0.3	0.0
성별	남자	(2,555)	76.4	14.2	7.5	3.7	2.9	2.2	2.5	0.9	0.8	0.5	0.5	0.0
	여자	(2,545)	79.4	13.4	7.3	2.5	2.3	2.2	1.6	0.4	0.2	0.4	0.1	0.0
연령	19~29세	(935)	74.1	16.8	6.7	3.6	1.8	3.2	4.0	0.7	0.7	0.6	0.2	0.0
	30~45세	(1,451)	76.8	15.2	8.8	3.1	1.5	2.9	2.2	0.6	0.5	0.2	0.2	0.1
	46~60세	(1,604)	75.9	15.7	8.0	3.3	4.1	1.6	1.7	1.0	0.4	0.6	0.4	0.0
	61~79세	(1,110)	85.3	6.8	5.4	2.2	2.7	1.3	0.7	0.1	0.5	0.5	0.3	0.0
지역	서울	(987)	81.2	13.6	7.4	1.8	0.7	1.5	1.9	0.4	0.4	0.1	0.2	0.1
	인천/경기	(1,576)	80.7	11.8	5.6	3.7	1.4	1.8	3.1	0.6	0.3	0.2	0.1	0.0
	대전/충청/세종	(536)	78.4	11.4	9.4	2.6	1.5	3.0	1.9	0.0	0.1	0.0	0.1	0.0
	광주/전라	(497)	70.1	19.5	11.2	3.0	6.0	4.0	0.6	0.7	1.2	2.1	0.5	0.0
	대구/경북	(504)	80.7	10.3	8.2	2.1	3.0	1.5	2.3	1.0	0.2	0.1	0.2	0.0
	부산/울산/경남	(786)	77.7	14.1	5.1	4.0	2.5	2.1	1.6	0.8	0.8	0.6	0.4	0.0
	강원	(151)	57.7	21.2	11.1	5.0	13.0	3.4	0.3	2.3	1.1	0.9	0.9	0.0
	제주	(64)	41.0	49.0	18.7	3.4	17.4	4.7	1.5	3.5	1.8	2.8	3.3	0.0
결혼상태	미혼	(1,493)	72.9	18.5	7.5	4.1	1.2	3.6	4.0	0.8	0.7	0.4	0.3	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79.6	12.1	7.5	2.7	3.1	1.6	1.3	0.6	0.4	0.5	0.3	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82.9	9.1	5.4	2.1	3.9	1.2	0.9	0.4	0.0	0.0	0.5	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76.1	16.2	7.1	3.2	2.3	2.4	3.3	0.7	0.5	0.0	0.4	0.0
	1세대 가구	(874)	84.2	8.8	6.1	2.1	2.7	1.5	0.5	0.6	0.7	0.3	0.3	0.0
	2세대 가구	(3,393)	76.7	14.7	7.7	3.2	2.6	2.2	2.3	0.6	0.4	0.6	0.2	0.0
	3세대 가구	(212)	76.6	11.9	8.3	3.7	2.7	4.1	0.9	1.4	1.1	0.5	0.7	0.0
	비친족가구	(5)	36.7	46.1	27.0	29.4	0.0	17.7	17.7	0.0	0.0	0.0	0.0	0.0

7. 문화/역사/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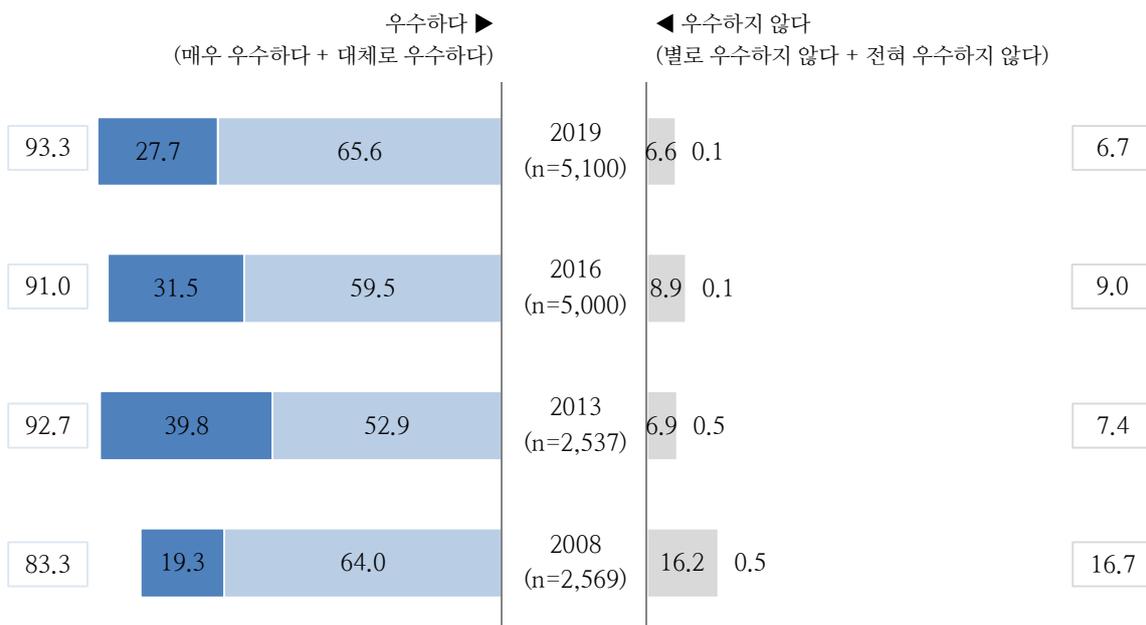
1)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우수하다’(93.3%)는 응답비율이(매우 27.7% + 대체로 65.6%) ‘우수하지 않다’(6.7%)는 응답비율(별로 6.6% + 전혀 0.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 2008년 조사 이후,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한 ‘우수하다’(매우 + 대체로)의 응답비율은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임. 2008년 대비 2019년의 ‘우수하다’(매우 + 대체로)는 응답은 10.0%p 증가하였음

【 그림 3-65 】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_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단위 : %)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한 자부심 수준은 성별이나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 ‘우수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혼 상태가 미혼인 경우(91.4%)보다는 사별, 이혼, 별거 중인 상태의 기혼인 경우에 97.1%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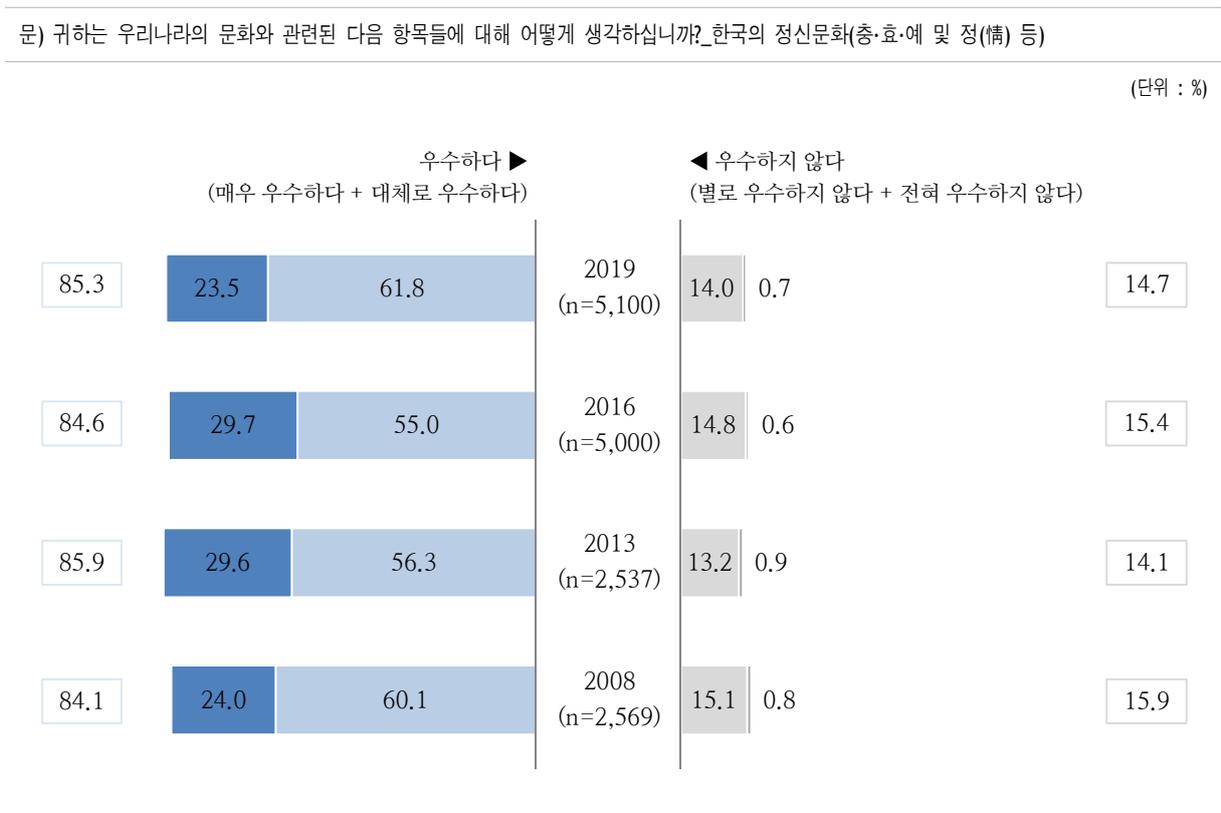
【 표 3-74 】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단위 : %)

구 분	사례수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우수하다 (4점)	② 대체로 우수하다 (3점)	③ 별로 우수하지 않다 (2점)	④ 전혀 우수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7.7	65.6	93.3	6.6	0.1	6.7	100.0	(3.2)	
성별	남자	(2,555)	26.1	66.6	92.6	7.3	0.1	7.4	100.0	(3.2)
	여자	(2,545)	29.3	64.5	93.9	5.9	0.2	6.1	100.0	(3.2)
연령	19~29세	(935)	26.4	65.7	92.1	7.6	0.2	7.9	100.0	(3.2)
	30~45세	(1,451)	26.6	65.6	92.2	7.8	0.0	7.8	100.0	(3.2)
	46~60세	(1,604)	28.3	65.3	93.6	6.1	0.2	6.4	100.0	(3.2)
	61~79세	(1,110)	29.4	65.7	95.1	4.9	0.1	4.9	100.0	(3.2)
지역	서울	(987)	20.2	72.9	93.2	6.4	0.5	6.8	100.0	(3.1)
	인천/경기	(1,576)	30.3	65.2	95.5	4.5	0.0	4.5	100.0	(3.3)
	대전/충청/세종	(536)	24.0	64.9	88.9	11.0	0.1	11.1	100.0	(3.1)
	광주/전라	(497)	47.9	49.1	97.1	2.9	0.0	2.9	100.0	(3.5)
	대구/경북	(504)	25.9	67.1	93.0	7.0	0.0	7.0	100.0	(3.2)
	부산/울산/경남	(786)	19.7	69.6	89.3	10.6	0.1	10.7	100.0	(3.1)
	강원	(151)	37.3	57.0	94.3	5.1	0.7	5.7	100.0	(3.3)
제주	(64)	42.4	53.6	96.0	4.0	0.0	4.0	100.0	(3.4)	
결혼상태	미혼	(1,493)	25.0	66.4	91.4	8.3	0.3	8.6	100.0	(3.2)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8.4	65.4	93.8	6.2	0.1	6.2	100.0	(3.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3.9	63.2	97.1	2.9	0.0	2.9	100.0	(3.3)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4.3	68.0	92.3	7.2	0.5	7.7	100.0	(3.2)
	1세대 가구	(874)	29.0	63.9	92.8	7.0	0.1	7.2	100.0	(3.2)
	2세대 가구	(3,393)	27.1	66.5	93.6	6.3	0.1	6.4	100.0	(3.2)
	3세대 가구	(212)	41.6	50.3	92.0	8.0	0.0	8.0	100.0	(3.3)
	비친족가구	(5)	47.2	52.8	100.0	0.0	0.0	0.0	100.0	(3.5)

2)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총·효·예 및 정(情) 등)

-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우수하다'의 응답비율은 85.3%(매우 23.5% + 대체로 61.8%), '우수하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14.7%(별로 14.0% + 전혀 0.7%)로 나타남
- 2008년 조사 이후,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한 '우수하다'(매우 + 대체로)의 응답비율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80% 중반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 그림 3-66 】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총·효·예 및 정(情) 등)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한 자부심 수준은 성별이나 가족 구성원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연령별로 보면 고연령일수록 ‘우수하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결혼 상태가 미혼인 경우보다는 결혼생활 중인 기혼인 경우에 우수하다는 인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표 3-75 】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총·효·예 및 정(情) 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우수하다 (4점)	② 대체로 우수하다 (3점)	③ 별로 우수하지 않다 (2점)	④ 전혀 우수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3.5	61.8	85.3	14.0	0.7	14.7	100.0	(3.1)	
성별	남자	(2,555)	22.5	62.8	85.4	13.9	0.7	14.6	100.0	(3.1)
	여자	(2,545)	24.5	60.7	85.3	14.1	0.7	14.7	100.0	(3.1)
연령	19~29세	(935)	19.9	61.1	81.0	18.4	0.6	19.0	100.0	(3.0)
	30~45세	(1,451)	21.2	65.0	86.2	13.4	0.4	13.8	100.0	(3.1)
	46~60세	(1,604)	25.0	60.7	85.6	13.4	1.0	14.4	100.0	(3.1)
	61~79세	(1,110)	27.5	59.7	87.3	12.1	0.6	12.7	100.0	(3.1)
지역	서울	(987)	16.8	64.9	81.6	17.8	0.6	18.4	100.0	(3.0)
	인천/경기	(1,576)	24.7	61.7	86.3	13.3	0.4	13.7	100.0	(3.1)
	대전/충청/세종	(536)	22.1	63.6	85.6	14.1	0.2	14.4	100.0	(3.1)
	광주/전라	(497)	36.6	53.5	90.1	8.8	1.1	9.9	100.0	(3.3)
	대구/경북	(504)	24.1	65.3	89.4	10.2	0.4	10.6	100.0	(3.1)
	부산/울산/경남	(786)	20.2	62.0	82.2	17.1	0.6	17.8	100.0	(3.0)
	강원	(151)	33.6	50.3	83.9	9.9	6.2	16.1	100.0	(3.1)
	제주	(64)	22.6	63.5	86.1	13.9	0.0	13.9	100.0	(3.1)
결혼상태	미혼	(1,493)	20.5	62.0	82.6	16.8	0.6	17.4	100.0	(3.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3.8	62.8	86.6	12.8	0.6	13.4	100.0	(3.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5.4	49.7	85.1	13.6	1.3	14.9	100.0	(3.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4.5	58.9	83.5	15.6	1.0	16.5	100.0	(3.1)
	1세대 가구	(874)	24.7	62.6	87.3	12.0	0.6	12.7	100.0	(3.1)
	2세대 가구	(3,393)	22.5	62.6	85.1	14.3	0.6	14.9	100.0	(3.1)
	3세대 가구	(212)	31.5	54.9	86.4	13.4	0.2	13.6	100.0	(3.2)
	비친족가구	(5)	43.4	34.7	78.1	21.9	0.0	21.9	100.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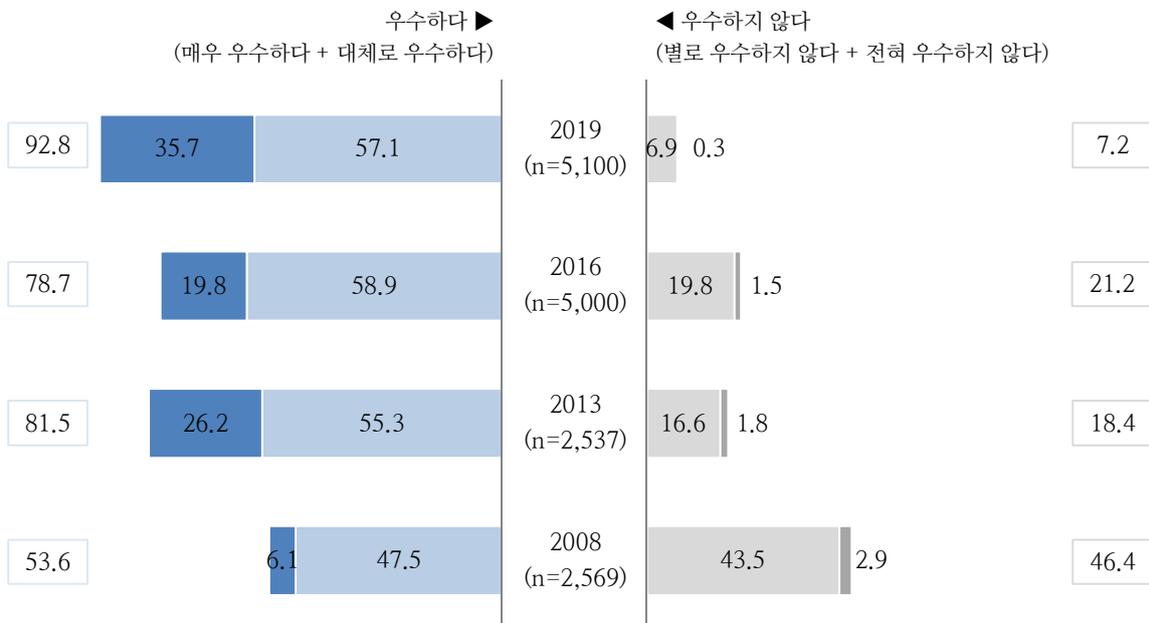
3)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결과, ‘우수하다’의 응답비율은 92.8%(매우 35.7% + 대체로 57.1%), ‘우수하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7.2%(별로 6.9% + 전혀 0.3%)로 나타남
- 2008년 조사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우수하다’의 응답비율은(매우 + 대체로)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9년 ‘우수하다’의 응답비율은(매우 + 대체로) 2008년에 비해 39.2%p 상승한 수치임

【 그림 3-67 】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문) 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_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단위 : %)



-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자부심 수준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족 구성원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 응답자 계층에서 모두 90% 초중반대로 높게 나타남

【 표 3-76 】 응답자 특성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우수하다 (4점)	② 대체로 우수하다 (3점)		③ 별로 우수하지 않다 (2점)	④ 전혀 우수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35.7	57.1	92.8	6.9	0.3	7.2	100.0	(3.3)	
성별	남자	(2,555)	33.6	58.4	92.0	7.7	0.3	8.0	100.0	(3.3)
	여자	(2,545)	37.8	55.8	93.6	6.1	0.3	6.4	100.0	(3.3)
연령	19~29세	(935)	39.7	53.5	93.2	6.5	0.3	6.8	100.0	(3.3)
	30~45세	(1,451)	37.8	55.4	93.3	6.4	0.3	6.7	100.0	(3.3)
	46~60세	(1,604)	34.5	59.1	93.6	6.2	0.2	6.4	100.0	(3.3)
	61~79세	(1,110)	31.1	59.6	90.7	8.9	0.4	9.3	100.0	(3.2)
지역	서울	(987)	33.9	58.8	92.7	6.9	0.4	7.3	100.0	(3.3)
	인천/경기	(1,576)	42.2	52.3	94.5	5.4	0.1	5.5	100.0	(3.4)
	대전/충청/세종	(536)	30.8	59.4	90.2	9.6	0.2	9.8	100.0	(3.2)
	광주/전라	(497)	44.5	49.5	94.0	5.4	0.6	6.0	100.0	(3.4)
	대구/경북	(504)	30.1	59.8	90.0	9.0	1.0	10.0	100.0	(3.2)
	부산/울산/경남	(786)	23.8	67.6	91.5	8.4	0.1	8.5	100.0	(3.2)
	강원	(151)	45.7	50.2	95.9	3.4	0.7	4.1	100.0	(3.4)
제주	(64)	37.4	56.4	93.8	5.4	0.8	6.2	100.0	(3.3)	
결혼상태	미혼	(1,493)	38.5	54.6	93.0	6.4	0.6	7.0	100.0	(3.3)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4.2	58.6	92.7	7.2	0.1	7.3	100.0	(3.3)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8.2	54.0	92.1	6.5	1.4	7.9	100.0	(3.3)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5.8	55.6	91.4	7.2	1.4	8.6	100.0	(3.3)
	1세대 가구	(874)	31.9	58.9	90.8	9.0	0.2	9.2	100.0	(3.2)
	2세대 가구	(3,393)	35.8	57.8	93.6	6.2	0.2	6.4	100.0	(3.3)
	3세대 가구	(212)	48.5	43.5	92.1	7.9	0.0	7.9	100.0	(3.4)
	비친족가구	(5)	60.6	21.3	81.9	18.1	0.0	18.1	100.0	(3.4)

4)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를 4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2.8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71.9%(매우 7.1% + 대체로 64.8%),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28.1%로 나타남(별로 26.7% + 전혀 1.4%)

【 그림 3-68 】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응답 내용이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장년층의 ‘그렇다’는 응답비율 68.7%보다 노년층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75.1%).
-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층보다 기혼층에서, 그리고 1인 가구보다 다인 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표 3-77 】 응답자 특성별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7.1	64.8	71.9	26.7	1.4	28.1	100.0	(2.8)	
성별	남자	(2,555)	7.1	63.3	70.4	28.1	1.5	29.6	100.0	(2.8)
	여자	(2,545)	7.2	66.2	73.4	25.4	1.2	26.6	100.0	(2.8)
연령	19~29세	(935)	5.9	64.5	70.4	28.0	1.6	29.6	100.0	(2.7)
	30~45세	(1,451)	6.9	61.8	68.7	29.8	1.5	31.3	100.0	(2.7)
	46~60세	(1,604)	7.4	66.1	73.5	25.2	1.3	26.5	100.0	(2.8)
	61~79세	(1,110)	8.1	67.0	75.1	23.9	1.0	24.9	100.0	(2.8)
지역	서울	(987)	5.0	64.5	69.5	29.7	0.8	30.5	100.0	(2.7)
	인천/경기	(1,576)	8.1	62.1	70.2	27.7	2.1	29.8	100.0	(2.8)
	대전/충청/세종	(536)	6.5	68.0	74.5	24.7	0.8	25.5	100.0	(2.8)
	광주/전라	(497)	7.3	70.6	78.0	20.5	1.5	22.0	100.0	(2.8)
	대구/경북	(504)	7.2	62.6	69.8	29.0	1.2	30.2	100.0	(2.8)
	부산/울산/경남	(786)	5.8	68.5	74.3	24.5	1.2	25.7	100.0	(2.8)
	강원	(151)	16.2	51.9	68.1	31.9	0.0	31.9	100.0	(2.8)
제주	(64)	15.0	62.9	78.0	21.4	0.6	22.0	100.0	(2.9)	
결혼상태	미혼	(1,493)	6.0	61.7	67.7	30.5	1.8	32.3	100.0	(2.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7.0	66.5	73.6	25.2	1.2	26.4	100.0	(2.8)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4.0	60.5	74.5	24.4	1.1	25.5	100.0	(2.9)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8.5	61.2	69.7	28.1	2.2	30.3	100.0	(2.8)
	1세대 가구	(874)	5.6	66.5	72.2	26.7	1.1	27.8	100.0	(2.8)
	2세대 가구	(3,393)	7.2	64.7	71.9	27.0	1.1	28.1	100.0	(2.8)
	3세대 가구	(212)	7.8	69.6	77.4	18.8	3.8	22.6	100.0	(2.8)
	비친족가구	(5)	26.4	55.6	81.9	18.1	0.0	18.1	10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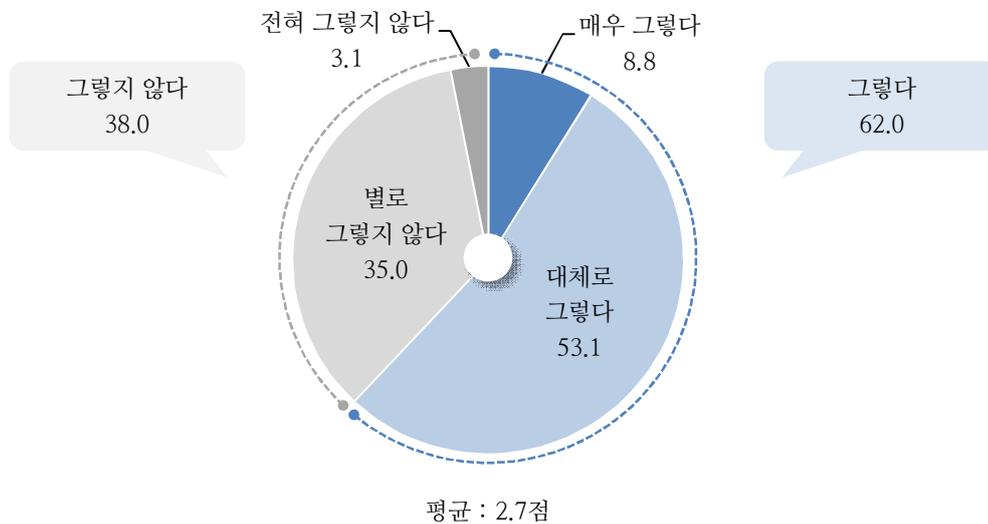
5)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외국인의 인종·국가에 따른 차별

- ‘우리 사회가 같은 외국인이라도 인종이나 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지’를 4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2.7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62.0%**(매우 8.8% + 대체로 53.1%),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38.0%**로 나타남(별로 35.0% + 전혀 3.1%)

【 그림 3-69 】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외국인의 인종·국가에 따른 차별

문) 우리 사회는 같은 외국인이라도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단위 : %, n=5,100)



○ 성별 및 연령층에 따라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응답 내용이 큰 차이가 없음

【 표 3-78 】 응답자 특성별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외국인의 인종·국가에 따른 차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8.8	53.1	62.0	35.0	3.1	38.0	100.0	(2.7)	
성별	남자	(2,555)	8.6	53.6	62.2	34.5	3.3	37.8	100.0	(2.7)
	여자	(2,545)	9.1	52.7	61.7	35.4	2.8	38.3	100.0	(2.7)
연령	19~29세	(935)	10.1	52.7	62.8	33.9	3.3	37.2	100.0	(2.7)
	30~45세	(1,451)	10.1	51.9	62.1	35.0	2.9	37.9	100.0	(2.7)
	46~60세	(1,604)	6.7	55.5	62.2	34.4	3.4	37.8	100.0	(2.7)
	61~79세	(1,110)	9.2	51.7	60.8	36.7	2.5	39.2	100.0	(2.7)
지역	서울	(987)	6.5	53.8	60.4	38.7	0.9	39.6	100.0	(2.7)
	인천/경기	(1,576)	8.9	54.6	63.5	33.6	2.9	36.5	100.0	(2.7)
	대전/충청/세종	(536)	8.9	63.1	72.0	26.0	2.0	28.0	100.0	(2.8)
	광주/전라	(497)	12.8	49.2	61.9	34.3	3.8	38.1	100.0	(2.7)
	대구/경북	(504)	6.3	48.7	55.0	41.3	3.7	45.0	100.0	(2.6)
	부산/울산/경남	(786)	9.0	47.4	56.4	37.9	5.8	43.6	100.0	(2.6)
	강원	(151)	17.2	49.7	66.9	29.8	3.3	33.1	100.0	(2.8)
제주	(64)	11.4	67.8	79.3	16.3	4.4	20.7	100.0	(2.9)	
결혼상태	미혼	(1,493)	10.7	52.5	63.2	33.6	3.2	36.8	100.0	(2.7)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7.6	53.8	61.4	35.5	3.1	38.6	100.0	(2.7)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3.6	48.5	62.1	35.7	2.2	37.9	100.0	(2.7)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2.5	50.4	62.9	34.7	2.4	37.1	100.0	(2.7)
	1세대 가구	(874)	8.5	51.4	59.9	37.2	3.0	40.1	100.0	(2.7)
	2세대 가구	(3,393)	8.3	54.2	62.5	34.4	3.2	37.5	100.0	(2.7)
	3세대 가구	(212)	8.7	51.6	60.3	36.1	3.7	39.7	100.0	(2.7)
	비친족가구	(5)	20.9	42.3	63.3	31.4	5.3	36.7	100.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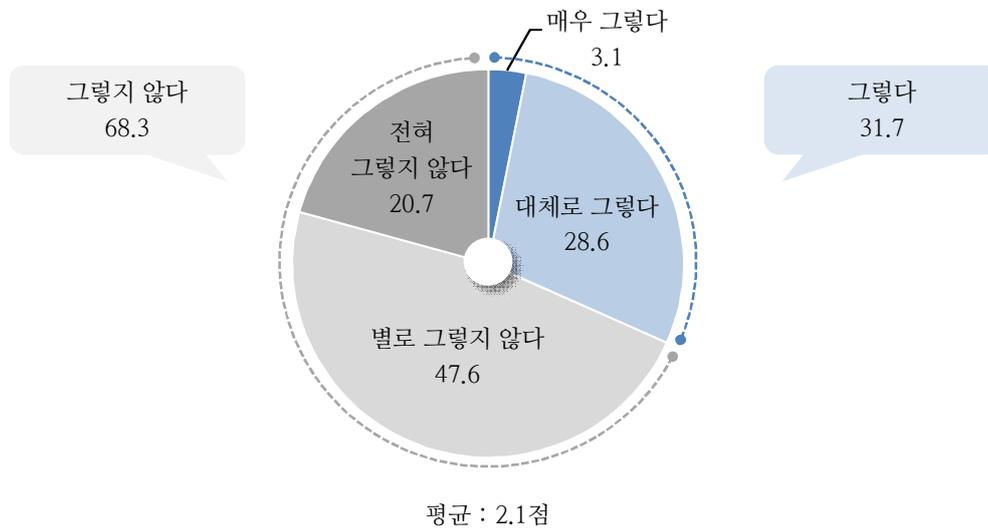
6)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를 4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살펴본 결과, 평균은 2.1점으로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31.7%(매우 3.1% + 대체로 28.6%),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68.3%로 나타남(별로 47.6% + 전혀 20.7%)

【 그림 3-70 】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문)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장년층의 경우에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 비율이 29.7%로 다른 연령층의 30% 초중반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을 보임

【 표 3-79 】 응답자 특성별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3.1	28.6	31.7	47.6	20.7	68.3	100.0	(2.1)	
성별	남자	(2,555)	3.2	29.1	32.2	46.8	21.0	67.8	100.0	(2.1)
	여자	(2,545)	3.1	28.1	31.2	48.3	20.5	68.8	100.0	(2.1)
연령	19~29세	(935)	2.3	29.1	31.4	47.1	21.6	68.6	100.0	(2.1)
	30~45세	(1,451)	2.6	27.1	29.7	48.7	21.6	70.3	100.0	(2.1)
	46~60세	(1,604)	3.3	31.0	34.3	46.2	19.5	65.7	100.0	(2.2)
	61~79세	(1,110)	4.3	26.5	30.8	48.4	20.8	69.2	100.0	(2.1)
지역	서울	(987)	1.5	22.3	23.8	56.1	20.0	76.2	100.0	(2.1)
	인천/경기	(1,576)	4.2	29.7	34.0	45.2	20.8	66.0	100.0	(2.2)
	대전/충청/세종	(536)	1.2	22.7	23.9	54.6	21.6	76.1	100.0	(2.0)
	광주/전라	(497)	3.3	35.1	38.4	40.8	20.8	61.6	100.0	(2.2)
	대구/경북	(504)	2.0	27.2	29.2	49.5	21.3	70.8	100.0	(2.1)
	부산/울산/경남	(786)	3.0	34.8	37.9	44.3	17.9	62.1	100.0	(2.2)
	강원	(151)	10.7	29.9	40.6	31.9	27.5	59.4	100.0	(2.2)
	제주	(64)	8.0	25.6	33.7	30.1	36.2	66.3	100.0	(2.1)
결혼상태	미혼	(1,493)	2.9	26.7	29.7	47.5	22.8	70.3	100.0	(2.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9	29.6	32.5	47.7	19.7	67.5	100.0	(2.2)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6.3	26.7	33.0	45.7	21.3	67.0	100.0	(2.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3	26.2	31.5	46.5	22.0	68.5	100.0	(2.1)
	1세대 가구	(874)	3.3	29.2	32.5	48.9	18.7	67.5	100.0	(2.2)
	2세대 가구	(3,393)	2.6	28.9	31.6	47.6	20.9	68.4	100.0	(2.1)
	3세대 가구	(212)	3.5	28.2	31.7	44.6	23.7	68.3	100.0	(2.1)
	비친족가구	(5)	20.9	0.0	20.9	73.6	5.4	79.1	10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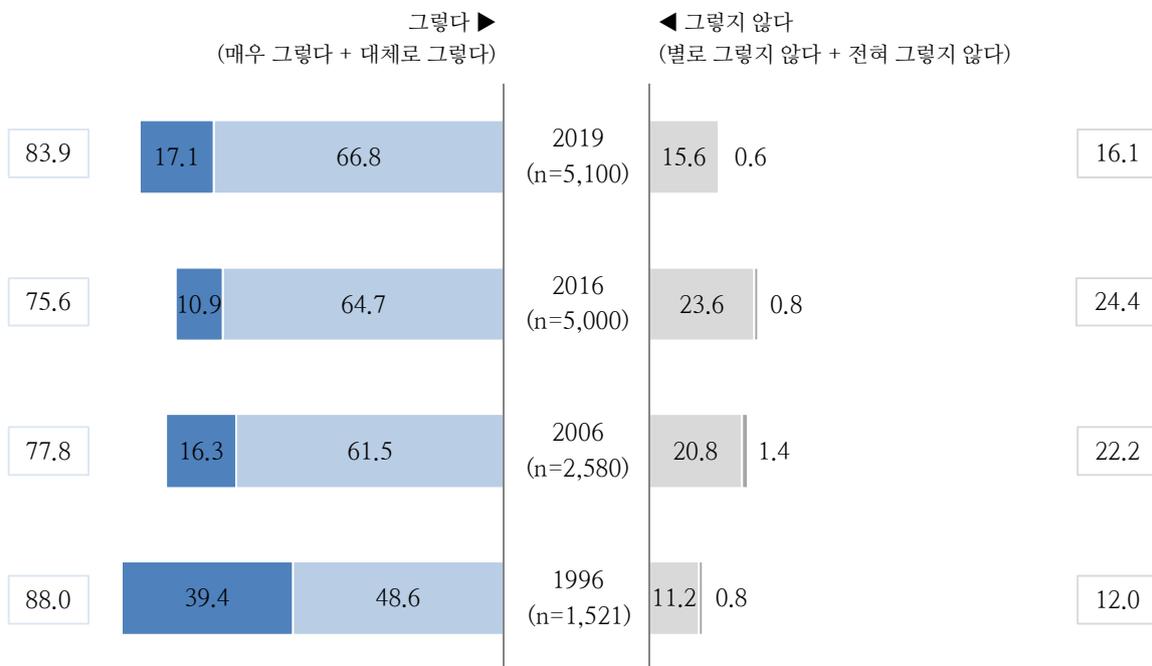
7)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운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3.9%(매우 17.1% + 대체로 66.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6.1%(별로 15.6% + 전혀 0.6%)로 나타남
- 1996년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88.0%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도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2019년 조사에 들어서는 전년도 대비 8.3%p 상승하여 다시 80%대로 나타남

【 그림 3-71 】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문) 나는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 미혼인 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다른 층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표 3-80 】 응답자 특성별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7.1	66.8	83.9	15.6	0.6	16.1	100.0	(3.0)	
성별	남자	(2,555)	17.0	65.1	82.1	17.2	0.7	17.9	100.0	(3.0)
	여자	(2,545)	17.2	68.4	85.6	14.0	0.4	14.4	100.0	(3.0)
연령	19~29세	(935)	15.1	62.7	77.8	21.7	0.5	22.2	100.0	(2.9)
	30~45세	(1,451)	14.9	66.1	81.0	18.4	0.6	19.0	100.0	(3.0)
	46~60세	(1,604)	16.8	69.4	86.2	13.2	0.5	13.8	100.0	(3.0)
	61~79세	(1,110)	22.2	67.1	89.3	10.2	0.5	10.7	100.0	(3.1)
지역	서울	(987)	9.1	73.2	82.3	16.9	0.8	17.7	100.0	(2.9)
	인천/경기	(1,576)	18.4	62.8	81.2	18.2	0.6	18.8	100.0	(3.0)
	대전/충청/세종	(536)	16.8	72.6	89.4	10.4	0.2	10.6	100.0	(3.1)
	광주/전라	(497)	28.8	61.0	89.8	10.2	0.0	10.2	100.0	(3.2)
	대구/경북	(504)	12.2	71.3	83.4	15.7	0.9	16.6	100.0	(2.9)
	부산/울산/경남	(786)	17.6	66.4	84.0	15.7	0.3	16.0	100.0	(3.0)
	강원	(151)	29.6	51.1	80.7	18.3	1.0	19.3	100.0	(3.1)
제주	(64)	23.7	67.5	91.2	7.5	1.2	8.8	100.0	(3.1)	
결혼상태	미혼	(1,493)	14.8	62.7	77.5	21.8	0.6	22.5	100.0	(2.9)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17.3	69.3	86.6	12.8	0.6	13.4	100.0	(3.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26.4	58.7	85.0	15.0	0.0	15.0	100.0	(3.1)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8.1	60.9	79.0	20.5	0.5	21.0	100.0	(3.0)
	1세대 가구	(874)	20.9	69.3	90.3	9.6	0.2	9.7	100.0	(3.1)
	2세대 가구	(3,393)	15.7	67.3	83.0	16.3	0.7	17.0	100.0	(3.0)
	3세대 가구	(212)	20.8	64.2	85.0	15.0	0.0	15.0	100.0	(3.1)
	비친족가구	(5)	17.7	78.7	96.3	3.7	0.0	3.7	10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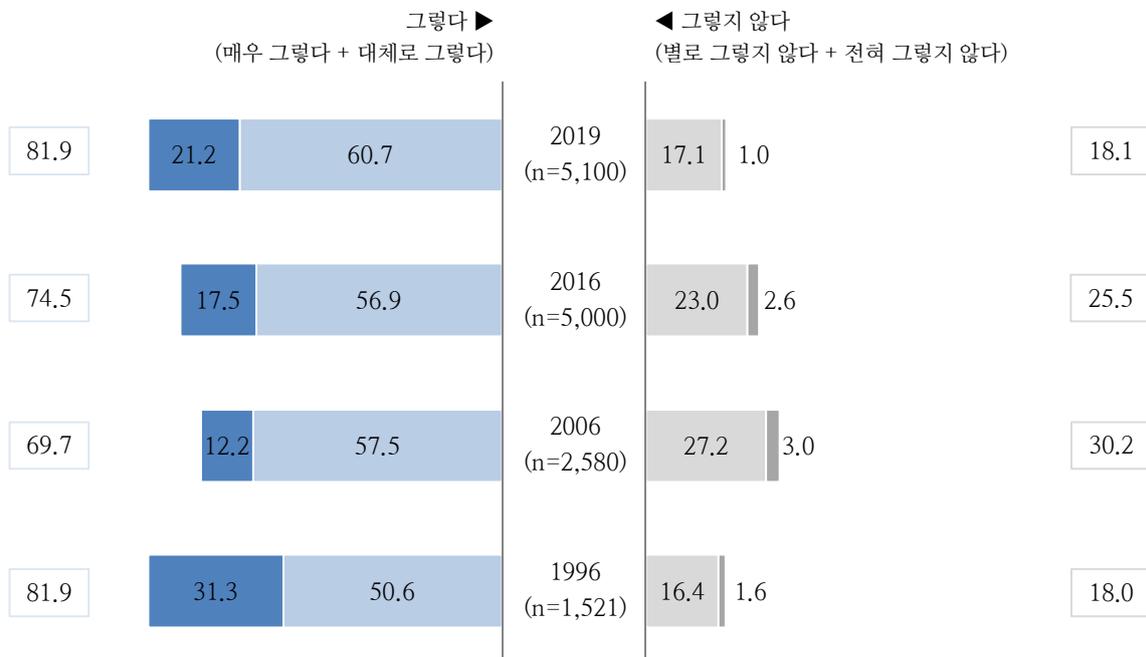
8)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81.9%(매우 21.2% + 대체로 60.7%),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18.1%(별로 17.1% + 전혀 1.0%)로 나타남
- 1996년 조사에는 ‘그렇다’(매우 + 대체로)의 응답비율이 81.9%로 나타났으며, 이후 ‘그렇다’ 응답비율이 2006년에 69.7%로 크게 감소하였음. 2016년에 74.5%,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7.4%p 상승한 81.9%로 나타나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3-72 】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문)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는 큰 응답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저연령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81 】 응답자 특성별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1.2	60.7	81.9	17.1	1.0	18.1	100.0	(3.0)	
성별	남자	(2,555)	19.9	61.1	80.9	18.0	1.0	19.1	100.0	(3.0)
	여자	(2,545)	22.5	60.4	82.9	16.1	1.1	17.1	100.0	(3.0)
연령	19~29세	(935)	17.6	58.5	76.0	21.2	2.7	24.0	100.0	(2.9)
	30~45세	(1,451)	18.0	60.7	78.7	20.6	0.8	21.3	100.0	(3.0)
	46~60세	(1,604)	23.0	60.8	83.8	15.5	0.7	16.2	100.0	(3.1)
	61~79세	(1,110)	25.7	62.6	88.3	11.2	0.5	11.7	100.0	(3.1)
지역	서울	(987)	13.4	62.7	76.0	22.5	1.5	24.0	100.0	(2.9)
	인천/경기	(1,576)	20.9	61.1	81.9	16.9	1.1	18.1	100.0	(3.0)
	대전/충청/세종	(536)	19.2	64.1	83.2	16.0	0.8	16.8	100.0	(3.0)
	광주/전라	(497)	38.0	50.1	88.1	11.5	0.4	11.9	100.0	(3.3)
	대구/경북	(504)	18.0	63.0	81.0	18.1	0.9	19.0	100.0	(3.0)
	부산/울산/경남	(786)	22.2	63.0	85.2	14.3	0.5	14.8	100.0	(3.1)
	강원	(151)	32.5	48.7	81.2	18.2	0.5	18.8	100.0	(3.1)
결혼상태	제주	(64)	20.8	60.2	80.9	12.0	7.1	19.1	100.0	(2.9)
	미혼	(1,493)	18.2	57.7	75.9	22.2	1.9	24.1	100.0	(2.9)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1.6	62.9	84.5	14.7	0.8	15.5	100.0	(3.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1.5	51.2	82.7	17.2	0.1	17.3	100.0	(3.1)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2.3	56.1	78.4	21.0	0.7	21.6	100.0	(3.0)
	1세대 가구	(874)	25.1	62.7	87.8	11.8	0.4	12.2	100.0	(3.1)
	2세대 가구	(3,393)	19.5	61.6	81.2	17.6	1.3	18.8	100.0	(3.0)
	3세대 가구	(212)	27.9	51.2	79.1	19.6	1.3	20.9	100.0	(3.1)
	비친족가구	(5)	17.7	67.9	85.6	14.4	0.0	14.4	100.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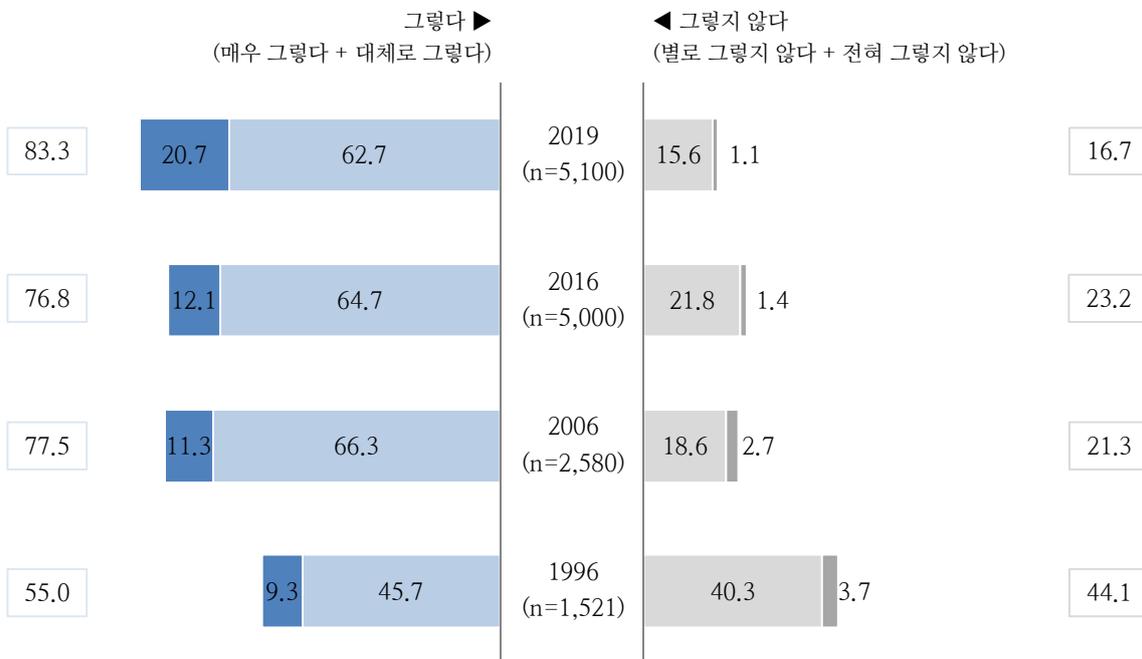
9)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 ‘우리나라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83.3%(매우 20.7% + 대체로 62.7%),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은 16.7%(별로 15.6% + 전혀 1.1%)로 나타남
- 1996년 조사 이래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은(별로 + 전혀)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19년의 ‘그렇다’의 응답비율은(별로 + 전혀) 1996년 대비 28.3%p 증가한 수치를 보임

【 그림 3-73 】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문)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단위 : %)



- 성별에 따라서는 인식에 차이가 없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고연령일수록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미혼이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층보다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표 3-82 】 응답자 특성별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0.7	62.7	83.3	15.6	1.1	16.7	100.0	(3.0)	
성별	남자	(2,555)	19.8	62.5	82.3	16.3	1.4	17.7	100.0	(3.0)
	여자	(2,545)	21.5	62.9	84.4	14.9	0.8	15.6	100.0	(3.1)
연령	19~29세	(935)	19.2	61.1	80.4	18.5	1.2	19.6	100.0	(3.0)
	30~45세	(1,451)	19.6	60.5	80.0	19.0	0.9	20.0	100.0	(3.0)
	46~60세	(1,604)	20.1	65.1	85.2	13.4	1.3	14.8	100.0	(3.0)
	61~79세	(1,110)	24.0	63.5	87.5	11.7	0.8	12.5	100.0	(3.1)
지역	서울	(987)	15.1	63.5	78.6	20.7	0.7	21.4	100.0	(2.9)
	인천/경기	(1,576)	20.2	61.4	81.6	17.6	0.8	18.4	100.0	(3.0)
	대전/충청/세종	(536)	21.2	67.1	88.3	10.5	1.2	11.7	100.0	(3.1)
	광주/전라	(497)	35.2	55.8	91.0	8.8	0.2	9.0	100.0	(3.3)
	대구/경북	(504)	19.6	67.8	87.4	11.3	1.3	12.6	100.0	(3.1)
	부산/울산/경남	(786)	16.2	65.5	81.7	16.9	1.4	18.3	100.0	(3.0)
	강원	(151)	36.0	47.5	83.5	10.2	6.3	16.5	100.0	(3.1)
제주	(64)	28.1	59.9	88.0	11.2	0.8	12.0	100.0	(3.2)	
결혼상태	미혼	(1,493)	19.6	59.7	79.3	19.5	1.2	20.7	100.0	(3.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20.1	64.8	84.9	14.1	1.0	15.1	100.0	(3.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2.2	54.5	86.7	12.5	0.9	13.3	100.0	(3.2)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24.9	56.0	80.9	17.7	1.4	19.1	100.0	(3.0)
	1세대 가구	(874)	21.8	66.0	87.9	11.8	0.4	12.1	100.0	(3.1)
	2세대 가구	(3,393)	18.9	63.6	82.5	16.3	1.2	17.5	100.0	(3.0)
	3세대 가구	(212)	31.1	54.7	85.8	13.5	0.7	14.2	100.0	(3.2)
	비친족가구	(5)	28.5	53.5	81.9	18.1	0.0	18.1	100.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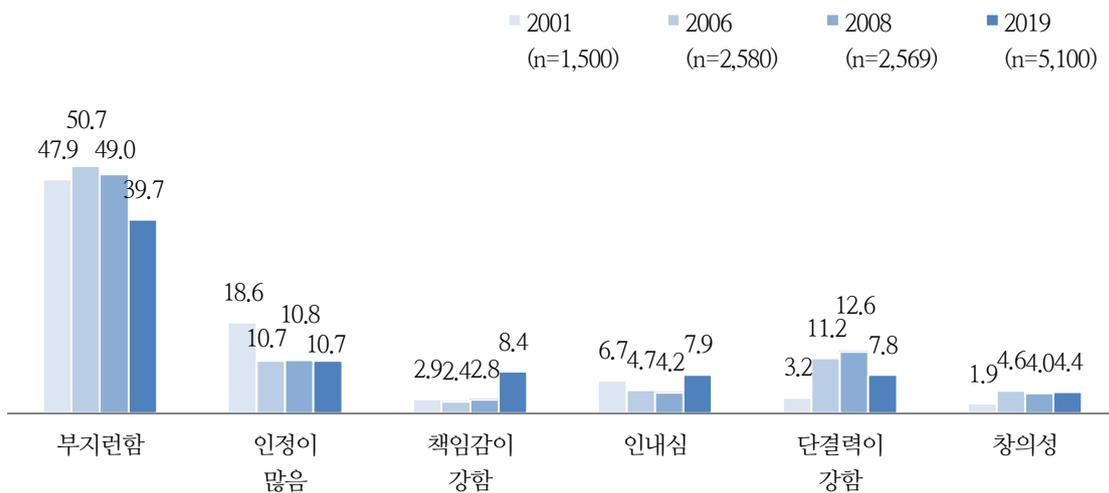
10)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

-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부지런함’(39.7%)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인정이 많음’(10.7%), ‘책임감이 강함’(8.4%), ‘인내심’(7.9%)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01년 조사부터 2019년 조사까지 ‘부지런함’은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되었음.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는 응답이 다소 분산되어 ‘부지런함’의 응답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2001년 조사 대비 8.2%p↓), ‘책임감이 강함’이나 ‘인내심’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임

【 그림 3-74 】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_1순위

문) 귀하는 한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성별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부지런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39.0%, 40.4%)
- 연령에 따라 1순위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부지런함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부지런함의 응답비율은 높게 나타남

【 표 3-83 】 응답자 특성별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지 런함	인정이 많음	책임 감이 강함	안내심	단결 력이 강함	창의성	검소함	예의 비름	약가 있음	어유	불의에 저항	관용 성	장점이 없음	진취적	평화 애호	기타	계
전 체		(5,100)	39.7	10.7	8.4	7.9	7.8	4.4	4.3	4.2	3.6	2.2	2.1	1.8	1.1	0.8	0.8	0.0	100.0
성별	남자	(2,555)	39.0	10.2	8.5	8.3	7.9	4.5	4.7	4.1	3.9	2.0	2.4	1.6	1.0	1.1	0.8	0.0	100.0
	여자	(2,545)	40.4	11.2	8.4	7.6	7.7	4.3	3.9	4.2	3.4	2.5	1.8	1.9	1.3	0.6	0.8	0.1	100.0
연령	19~29세	(935)	33.3	11.4	8.3	8.3	11.6	5.3	3.4	4.3	3.6	3.2	3.1	1.4	1.3	0.6	1.0	0.1	100.0
	30~45세	(1,451)	35.8	10.7	10.0	7.8	9.0	4.9	3.9	3.4	3.7	2.6	2.8	1.8	1.2	1.2	1.1	0.0	100.0
	46~60세	(1,604)	42.9	10.5	7.5	8.0	6.0	4.5	4.3	4.6	4.0	1.7	1.6	2.1	1.2	0.6	0.6	0.1	100.0
	61~79세	(1,110)	45.7	10.5	7.8	7.6	5.8	2.7	5.7	4.5	3.1	1.8	1.1	1.5	0.9	0.9	0.5	0.0	100.0
지역	서울	(987)	42.7	14.6	6.1	8.6	9.1	3.8	2.7	2.5	2.2	2.4	2.2	1.4	0.6	0.3	0.8	0.0	100.0
	인천/경기	(1,576)	35.8	9.6	10.4	8.5	7.5	5.7	4.1	3.8	3.6	4.0	1.9	2.6	0.1	1.1	1.2	0.0	100.0
	대전/충청/세종	(536)	37.4	9.5	9.6	8.5	4.9	3.4	5.2	6.2	5.1	0.9	3.1	1.5	2.7	1.2	0.7	0.0	100.0
	광주/전라	(497)	37.2	7.0	7.3	6.7	14.8	1.9	3.8	9.1	3.5	1.3	2.8	1.1	1.8	1.3	0.4	0.0	100.0
	대구/경북	(504)	41.0	9.5	7.9	7.7	6.0	4.3	7.1	5.0	4.3	1.0	1.4	1.1	2.7	0.1	0.6	0.2	100.0
	부산/울산/경남	(786)	44.8	12.8	7.7	7.0	3.3	5.2	5.3	2.2	4.1	1.2	1.7	1.9	1.4	1.0	0.5	0.0	100.0
	강원	(151)	45.5	8.5	12.0	3.7	16.7	2.1	2.6	1.3	3.3	0.6	2.2	0.0	0.6	0.9	0.0	0.0	100.0
결혼상태	제주	(64)	43.5	6.0	1.0	9.3	11.8	4.2	2.8	6.3	5.0	2.2	3.9	0.0	2.4	0.0	1.7	0.0	100.0
	미혼	(1,493)	35.0	10.7	9.0	7.7	11.3	4.9	3.1	4.0	3.5	2.6	3.4	1.7	1.2	0.8	0.9	0.1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1.2	10.8	8.1	8.3	6.6	4.3	4.4	4.3	3.6	2.2	1.6	1.9	1.2	0.8	0.7	0.0	100.0
가족 구성원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6.4	10.1	9.0	4.9	4.2	2.8	9.1	3.2	4.6	0.7	1.4	0.7	0.6	1.0	1.1	0.0	100.0
	1인가구	(617)	39.8	9.2	10.4	6.2	7.2	2.4	5.4	4.2	4.1	3.3	3.1	1.6	1.0	0.9	1.0	0.2	100.0
	1세대 가구	(874)	41.9	9.4	8.5	7.5	6.8	3.5	5.3	4.1	4.6	2.0	1.7	1.7	1.5	1.1	0.3	0.0	100.0
	2세대 가구	(3,393)	39.1	11.4	7.8	8.5	8.3	4.9	4.0	4.0	3.4	2.2	2.1	1.8	1.0	0.7	0.8	0.0	100.0
	3세대 가구	(212)	39.4	9.9	12.4	5.2	5.5	5.7	3.1	6.5	2.0	1.3	0.8	2.3	2.3	1.3	2.3	0.0	100.0
비친족가구	(5)	64.7	0.0	0.0	0.0	35.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2순위를 살펴 본 결과에서는 응답자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84 】 응답자 특성별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인정이 많음	부지 런함	책임감 이 강함	단결력 이 강함	검소함	인내심	예의 바름	의리가 있음	창의성	불의에 저항	관용성	진취적	여유	평화 애호	기타	계
전 체		(5,041)	17.4	12.5	11.1	10.8	8.5	8.3	7.8	6.2	5.0	4.4	2.7	2.1	1.6	1.5	0.0	100.0
성별	남자	(2,530)	16.7	12.1	11.3	11.1	7.8	8.3	7.5	6.4	4.8	5.1	2.7	2.4	1.9	1.8	0.0	100.0
	여자	(2,512)	18.1	13.0	10.8	10.4	9.2	8.4	8.1	5.9	5.2	3.7	2.7	1.8	1.4	1.3	0.1	100.0
연령	19~29세	(922)	15.9	13.8	10.8	10.1	5.9	7.6	8.6	7.8	6.4	5.0	2.4	2.6	1.3	2.0	0.0	100.0
	30~45세	(1,434)	16.9	12.0	10.1	12.3	5.6	9.2	7.0	6.7	6.1	4.7	3.5	2.6	1.8	1.4	0.1	100.0
	46~60세	(1,585)	18.1	12.0	12.1	10.9	9.7	7.1	6.9	5.8	4.9	4.6	2.6	2.0	1.9	1.5	0.0	100.0
	61~79세	(1,101)	18.3	12.9	11.2	9.2	12.9	9.7	9.5	4.7	2.7	3.1	2.2	1.1	1.4	1.3	0.1	100.0
지역	서울	(981)	18.7	11.3	8.4	10.5	8.1	10.7	9.0	4.8	6.3	4.0	3.2	2.2	1.6	1.3	0.1	100.0
	인천/경기	(1,574)	17.8	13.7	10.1	9.5	8.2	7.5	6.7	6.8	5.9	5.6	3.3	2.5	0.7	1.6	0.0	100.0
	대전/충청/세종	(521)	18.4	10.5	11.7	11.7	8.6	8.2	9.3	7.4	3.2	3.2	2.0	2.1	1.6	1.9	0.0	100.0
	광주/전라	(488)	10.3	14.7	15.2	17.6	6.5	5.7	11.0	3.7	3.8	4.6	2.0	1.8	1.1	2.1	0.0	100.0
	대구/경북	(490)	14.7	14.4	13.7	9.6	12.9	11.8	7.1	6.1	2.5	2.5	0.4	2.0	1.0	1.1	0.0	100.0
	부산/울산/경남	(775)	21.1	11.4	12.4	8.7	8.5	6.8	6.1	8.1	5.1	3.4	3.2	1.5	2.5	1.3	0.0	100.0
	강원	(150)	12.0	10.3	9.3	14.0	6.6	7.3	7.1	1.5	8.3	6.8	2.5	1.6	10.8	2.0	0.0	100.0
제주	(62)	22.8	7.7	7.4	11.6	8.5	10.8	8.1	7.7	0.6	8.0	5.2	0.0	1.6	0.0	0.0	100.0	
결혼상태	미혼	(1,474)	16.1	13.1	10.1	10.5	5.3	8.3	7.9	7.7	6.8	5.3	3.1	2.7	1.5	1.6	0.0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271)	17.6	12.2	11.9	11.2	9.7	8.2	7.6	5.6	4.2	4.0	2.6	1.9	1.7	1.5	0.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6)	20.8	13.5	6.3	7.3	12.1	10.0	9.1	4.7	6.0	3.4	2.0	1.3	2.0	1.4	0.0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1)	16.5	12.6	10.0	9.3	7.6	9.5	7.3	7.0	6.7	5.7	3.3	1.4	1.9	1.2	0.0	100.0
	1세대 가구	(861)	17.9	12.6	11.6	11.1	11.6	9.4	7.4	6.2	2.8	3.1	2.4	1.1	1.2	1.5	0.1	100.0
	2세대 가구	(3,358)	17.4	12.3	11.3	10.8	8.0	8.0	8.1	6.2	5.2	4.2	2.6	2.5	1.8	1.6	0.0	100.0
	3세대 가구	(207)	18.0	15.2	9.0	12.9	7.1	7.0	6.8	3.0	6.6	8.3	4.3	0.7	0.0	0.9	0.0	100.0
	비친족가구	(5)	36.9	26.2	3.7	29.4	0.0	0.0	0.0	0.0	0.0	3.9	0.0	0.0	0.0	0.0	0.0	100.0

- 응답을 중복으로 처리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음. 남녀 모두에서 부지런함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51.0%, 53.3%)
-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지런함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부지런함의 응답비율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앞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나타남

【 표 3-85 】 응답자 특성별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지 런함	안정 이 많음	책임 감 이 강함	단결 력 이 강함	인내 심	검소 함	예의 비름	의리 가 있음	창의 성	불의 에 저항	관용 성	여유	진취 적	평화 애호	장점 이 없음	기타
전 체		(5,100)	52.1	27.9	19.4	18.5	16.2	12.7	11.9	9.7	9.4	6.4	4.4	3.9	2.9	2.3	1.1	0.1
성별	남자	(2,555)	51.0	26.7	19.7	19.0	16.5	12.4	11.5	10.3	9.3	7.4	4.4	3.9	3.4	2.5	1.0	0.0
	여자	(2,545)	53.3	29.1	19.0	17.9	15.9	13.1	12.2	9.2	9.5	5.4	4.5	3.9	2.3	2.1	1.3	0.1
연령	19~29세	(935)	46.9	27.1	18.9	21.5	15.8	9.3	12.7	11.2	11.5	8.0	3.8	4.5	3.1	2.9	1.3	0.1
	30~45세	(1,451)	47.6	27.4	20.0	21.1	16.9	9.4	10.3	10.3	11.0	7.5	5.2	4.4	3.8	2.6	1.2	0.1
	46~60세	(1,604)	54.8	28.4	19.4	16.7	15.0	13.9	11.4	9.7	9.4	6.1	4.6	3.5	2.5	2.1	1.2	0.1
	61~79세	(1,110)	58.5	28.6	18.9	14.8	17.2	18.4	13.9	7.7	5.4	4.1	3.7	3.2	2.0	1.8	0.9	0.1
지역	서울	(987)	53.9	33.1	14.4	19.6	19.2	10.8	11.4	6.9	10.0	6.1	4.6	4.0	2.5	2.0	0.6	0.1
	인천/경기	(1,576)	49.5	27.4	20.5	17.1	16.0	12.2	10.5	10.4	11.6	7.5	5.9	4.7	3.6	2.8	0.1	0.1
	대전/충청/세종	(536)	47.6	27.4	21.0	16.3	16.5	13.6	15.2	12.3	6.6	6.3	3.5	2.5	3.3	2.6	2.7	0.0
	광주/전라	(497)	51.7	17.1	22.1	32.1	12.2	10.2	20.0	7.1	5.6	7.3	3.1	2.4	3.1	2.4	1.8	0.0
	대구/경북	(504)	55.0	23.8	21.2	15.4	19.2	19.7	11.9	10.3	6.7	3.8	1.5	2.0	2.1	1.7	2.7	0.2
	부산/울산/경남	(786)	56.0	33.6	19.8	11.9	13.7	13.6	8.2	12.1	10.2	5.0	5.0	3.7	2.5	1.8	1.4	0.0
	강원	(151)	55.7	20.4	21.3	30.6	10.9	9.1	8.3	4.8	10.3	8.9	2.5	11.3	2.5	1.9	0.6	0.0
결혼상태	제주	(64)	51.0	28.3	8.2	23.1	19.8	11.1	14.3	12.5	4.8	11.7	5.1	3.8	0.0	1.7	2.4	0.0
	미혼	(1,493)	48.0	26.6	19.0	21.7	15.9	8.4	11.8	11.1	11.6	8.6	4.8	4.1	3.5	2.5	1.2	0.1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53.3	28.2	19.9	17.6	16.4	14.0	11.9	9.2	8.4	5.6	4.4	3.9	2.7	2.2	1.2	0.1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59.8	30.8	15.3	11.5	14.8	21.1	12.3	9.2	8.8	4.8	2.7	2.7	2.3	2.5	0.6	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2.3	25.5	20.3	16.4	15.7	13.0	11.4	11.1	9.0	8.7	4.8	5.2	2.3	2.2	1.0	0.2
	1세대 가구	(874)	54.3	27.0	20.0	17.8	16.8	16.7	11.4	10.8	6.3	4.7	4.0	3.2	2.2	1.8	1.5	0.1
	2세대 가구	(3,393)	51.4	28.6	19.0	19.0	16.4	11.9	12.0	9.5	10.1	6.3	4.3	3.9	3.2	2.4	1.0	0.0
	3세대 가구	(212)	54.3	27.5	21.3	18.1	12.1	10.0	13.1	4.9	12.1	9.0	6.4	1.3	1.9	3.2	2.3	0.0
	비친족가구	(5)	90.9	36.9	3.7	64.7	0.0	0.0	0.0	0.0	0.0	3.9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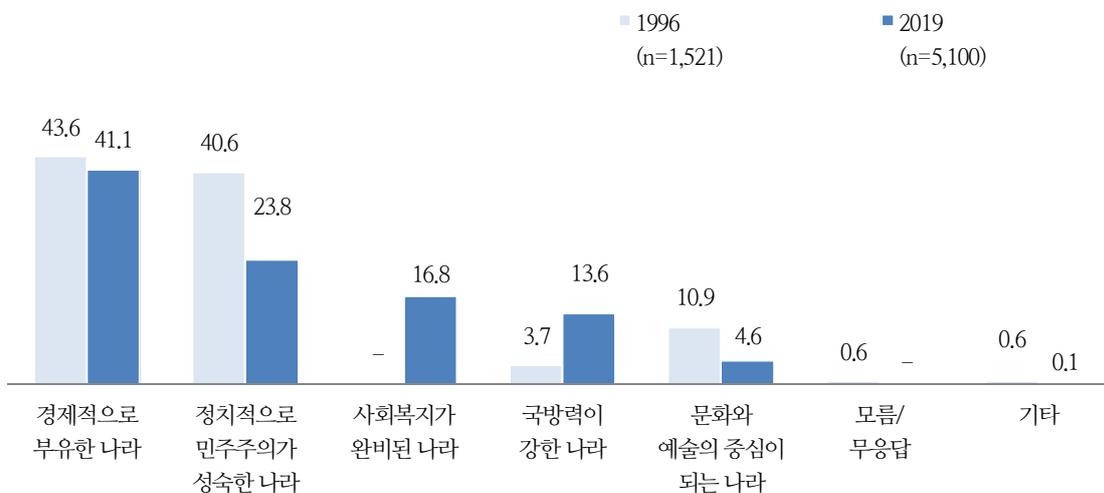
11)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23.8%),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16.8%), ‘국방력이 강한 나라’(13.6%)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996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으며, 응답비율도 2019년과 유사함(43.6%)
- 다만 1996년과 비교하였을 때, 2009년 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의 경우 응답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9년에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함에 따라 응답이 분산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 그림 3-75 】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문) 귀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n=5,100)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경향에 큰 차이가 없고, 연령에 따라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많이 꼽은 것에는 차이가 없음
- 다만, 장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꼽은 비율이 37.8%로 상대적으로 낮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꼽은 비율이 2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국방력이 강한 나라를 꼽은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결혼상태가 미혼인 경우에는 기혼층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표 3-86 】 응답자 특성별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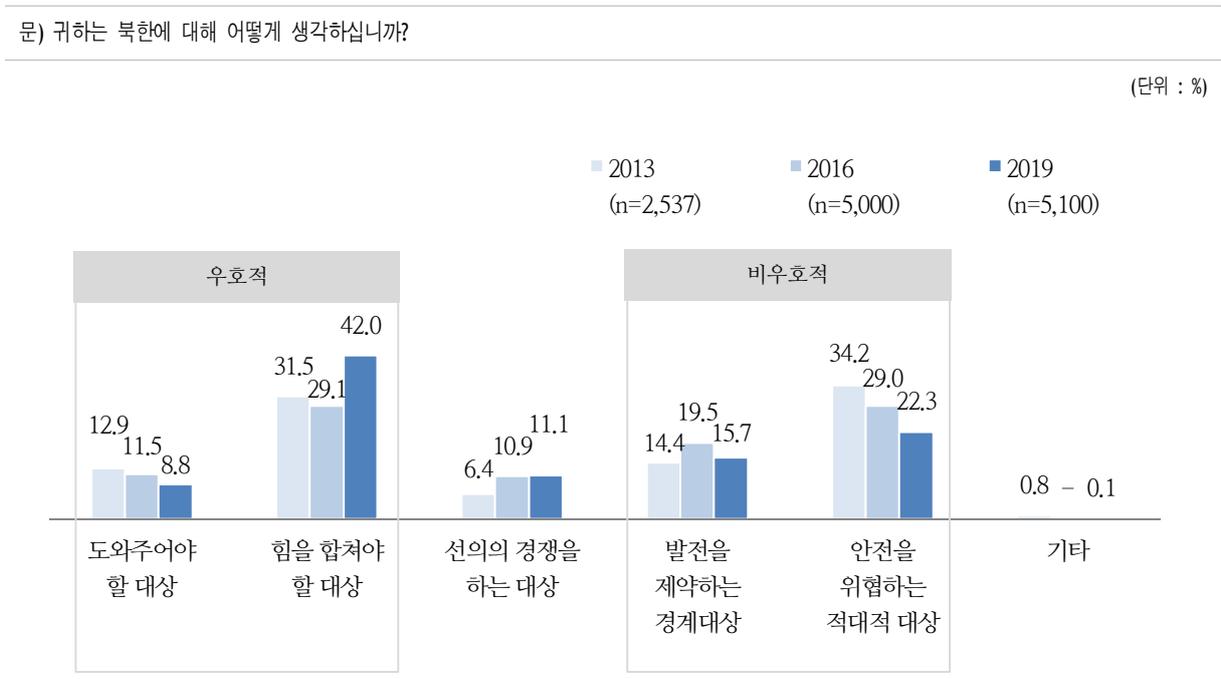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사회복지가完備된 나라	국방력이 강한 나라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되는 나라	기타	계
전 체		(5,100)	41.1	23.8	16.8	13.6	4.6	0.1	100.0
성별	남자	(2,555)	39.9	24.4	16.3	14.2	5.1	0.2	100.0
	여자	(2,545)	42.2	23.2	17.4	13.0	4.1	0.0	100.0
연령	19~29세	(935)	39.9	24.4	17.7	11.3	6.6	0.1	100.0
	30~45세	(1,451)	37.8	26.5	18.4	12.6	4.6	0.1	100.0
	46~60세	(1,604)	44.3	22.9	15.0	13.6	3.9	0.2	100.0
	61~79세	(1,110)	41.6	21.0	16.8	16.8	3.8	0.0	100.0
지역	서울	(987)	35.2	27.3	18.0	14.0	5.5	0.0	100.0
	인천/경기	(1,576)	41.8	24.8	14.0	14.6	4.6	0.2	100.0
	대전/충청/세종	(536)	42.2	18.6	19.0	12.8	7.5	0.0	100.0
	광주/전라	(497)	29.6	33.4	25.4	8.7	2.9	0.0	100.0
	대구/경북	(504)	56.1	14.9	12.8	12.6	3.4	0.2	100.0
	부산/울산/경남	(786)	48.1	19.7	13.6	14.8	3.9	0.0	100.0
	강원	(151)	28.6	23.4	24.4	19.8	2.1	1.7	100.0
	제주	(64)	16.9	36.6	39.7	3.6	3.3	0.0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38.4	26.4	17.5	11.5	6.0	0.2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42.1	22.9	16.5	14.3	4.1	0.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42.5	21.0	17.6	16.2	2.7	0.0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40.8	23.5	17.1	13.7	4.9	0.0	100.0
	1세대 가구	(874)	42.0	21.0	17.2	16.3	3.5	0.0	100.0
	2세대 가구	(3,383)	41.4	24.2	16.5	13.0	4.7	0.2	100.0
	3세대 가구	(212)	33.1	29.0	20.3	11.0	6.6	0.0	100.0
	비친족가구	(5)	23.4	44.0	0.0	32.6	0.0	0.0	100.0

8. 북한/통일

1)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42.0%)
- 다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22.3%),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계 대상이다’(15.7%)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호적’의 응답비율은 50.8%(지원대상 8.8% + 협력대상 42.0%), ‘비우호적’의 응답비율은 38.0%(경계대상 15.7% + 적대적 대상 22.3%)로 나타남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13년에는 ‘우호적’ 응답이 44.4%(지원대상 12.9% + 협력대상 31.5%), 2016년에는 40.6%(지원대상 11.5% + 협력대상 29.1%), 2019년에는 50.8%로 상승함
- 반면, ‘비우호적’ 응답은 2013년에는 48.6%(경계대상 14.4% + 적대적 대상 34.2%), 2016년에는 48.5%(경계대상 19.5% + 적대적 대상 29.0%), 2019년에 이보다 10.5%p 낮아진 38.0%로 나타남

【 그림 3-76 】 북한에 대한 인식



-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에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비율이 38%대로 비슷하며, ‘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비율도 각각 23.5%와 2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장년 및 중년층의 경우에는 협력 대상이라는 비율이 44%에 이르며, 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은 19.9% 및 21.3%임
- 한편, 결혼상태가 사별, 이혼, 별거 등인 기혼자층의 경우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이 19.2%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족 구성원 유형이 3세대인 경우에는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48.3%로 비교적 높음

【 표 3-87 】 응답자 특성별 복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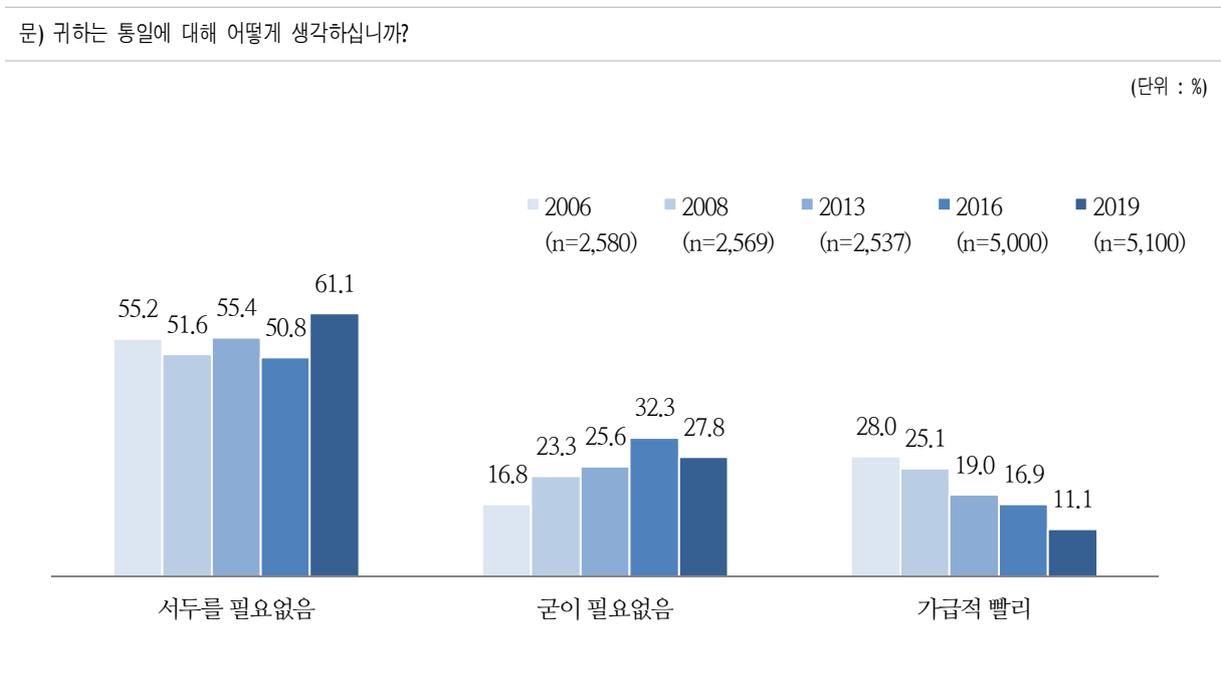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시계수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쟁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	기타	계
전 체		(5,100)	8.8	42.0	11.1	15.7	22.3	0.1	100.0
성별	남자	(2,555)	9.0	42.1	10.5	15.8	22.6	0.1	100.0
	여자	(2,545)	8.6	42.0	11.6	15.6	22.1	0.1	100.0
연령	19~29세	(935)	7.9	38.8	12.4	17.2	23.5	0.2	100.0
	30~45세	(1,451)	7.5	44.3	11.3	16.9	19.9	0.1	100.0
	46~60세	(1,604)	9.4	44.6	10.9	13.9	21.3	0.0	100.0
	61~79세	(1,110)	10.4	38.2	9.9	15.4	26.1	0.0	100.0
지역	서울	(987)	8.6	36.1	9.6	18.3	27.3	0.1	100.0
	인천/경기	(1,576)	7.7	44.2	12.2	16.2	19.6	0.1	100.0
	대전/충청/세종	(536)	11.1	47.9	7.1	14.8	19.1	0.0	100.0
	광주/전라	(497)	15.2	54.2	9.2	6.6	14.6	0.1	100.0
	대구/경북	(504)	5.4	30.2	10.5	20.1	33.8	0.0	100.0
	부산/울산/경남	(786)	8.6	39.2	14.6	17.2	20.4	0.1	100.0
	강원	(151)	5.2	44.0	15.2	8.1	27.5	0.0	100.0
	제주	(64)	6.5	59.8	3.6	6.5	21.8	1.8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7.4	41.9	11.3	16.7	22.5	0.2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8.5	43.1	11.2	15.6	21.6	0.0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19.2	31.1	8.3	11.8	29.6	0.0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13.1	36.5	8.3	15.5	26.6	0.0	100.0
	1세대 가구	(874)	9.7	40.3	11.8	14.4	23.7	0.1	100.0
	2세대 가구	(3,383)	7.9	43.1	11.5	16.4	21.0	0.1	100.0
	3세대 가구	(212)	7.2	48.3	8.1	10.8	25.7	0.0	100.0
	비친족가구	(5)	0.0	40.3	20.9	5.3	33.4	0.0	100.0

2) 통일 시기

- 통일 시기를 묻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60.1%)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임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2006년의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8.0%였으나 점차 줄어들어 2019년에 11.1%로 낮아짐
-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서두를 필요 없다’의 응답비율은 2016년에는 50.8%, 2019년에는 이보다 10.3%p 상승한 61.1%로 나타남

【 그림 3-77 】 통일 시기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에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62.4%, 59.7%)
- 연령에 따라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급적 빨리해야 한다’의 응답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88 】 응답자 특성별 통일 시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점진적 통일, 당분간 관망 등 포함)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계
전 체		(5,100)	61.1	27.8	11.1	100.0
성별	남자	(2,555)	62.4	27.1	10.5	100.0
	여자	(2,545)	59.7	28.5	11.8	100.0
연령	19~29세	(935)	56.6	36.5	6.9	100.0
	30~45세	(1,451)	63.1	26.8	10.1	100.0
	46~60세	(1,604)	63.6	24.6	11.8	100.0
	61~79세	(1,110)	58.6	26.5	14.9	100.0
지역	서울	(987)	61.6	27.1	11.3	100.0
	인천/경기	(1,576)	69.1	23.0	7.9	100.0
	대전/충청/세종	(536)	53.7	34.1	12.2	100.0
	광주/전라	(497)	60.5	15.5	24.0	100.0
	대구/경북	(504)	56.2	37.5	6.3	100.0
	부산/울산/경남	(786)	54.4	35.8	9.8	100.0
	강원	(151)	51.8	29.8	18.4	100.0
제주	(64)	64.0	20.1	15.9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59.4	32.1	8.5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62.7	25.7	11.6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51.8	29.4	18.8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53.9	31.5	14.5	100.0
	1세대 가구	(874)	62.4	24.5	13.1	100.0
	2세대 가구	(3,393)	61.9	28.3	9.8	100.0
	3세대 가구	(212)	63.4	22.8	13.8	100.0
	비친족가구	(5)	54.6	20.7	2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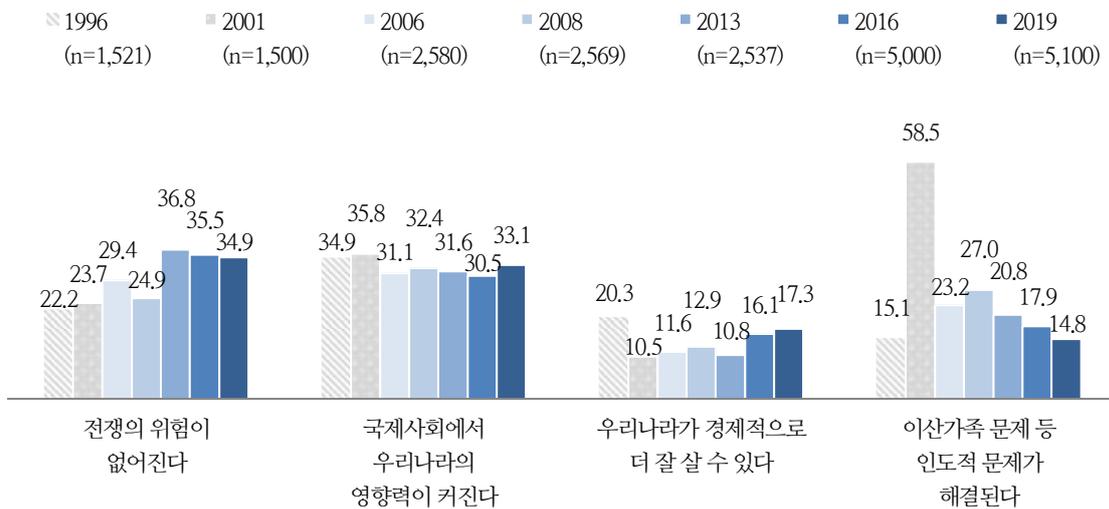
3)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4.9%)
- 다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33.1%),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3-78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단위 : %)



- 성별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여자는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6.2%). 반면 남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4.6%)
-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장년층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8.1%).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결혼상태별로 보면, 미혼층은 기혼층보다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는 응답은 낮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응답은 더 높음

【 표 3-89 】 응답자 특성별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협이 없어진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계
전 체		(5,100)	34.9	33.1	17.3	14.8	100.0
성별	남자	(2,555)	33.6	34.6	18.2	13.6	100.0
	여자	(2,545)	36.2	31.5	16.4	16.0	100.0
연령	19~29세	(935)	35.2	33.1	15.7	16.0	100.0
	30~45세	(1,451)	31.8	38.1	16.5	13.6	100.0
	46~60세	(1,604)	34.3	32.8	17.8	15.1	100.0
	61~79세	(1,110)	39.5	26.8	18.8	14.9	100.0
지역	서울	(987)	36.5	31.5	17.7	14.3	100.0
	인천/경기	(1,576)	36.1	33.1	15.1	15.7	100.0
	대전/충청/세종	(536)	31.0	41.5	16.1	11.4	100.0
	광주/전라	(497)	28.6	36.2	20.6	14.6	100.0
	대구/경북	(504)	43.9	20.5	20.8	14.7	100.0
	부산/울산/경남	(786)	34.1	32.9	18.7	14.4	100.0
	강원	(151)	22.3	41.4	15.2	21.1	100.0
제주	(64)	26.8	44.0	10.3	18.9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31.8	36.6	16.1	15.4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6.1	32.0	17.7	14.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7.1	26.5	18.1	18.3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2.9	31.7	18.1	17.4	100.0
	1세대 가구	(874)	39.1	28.8	19.3	12.9	100.0
	2세대 가구	(3,393)	34.4	34.5	16.3	14.8	100.0
	3세대 가구	(212)	31.3	31.3	22.6	14.8	100.0
	비친족가구	(5)	40.4	24.8	5.4	2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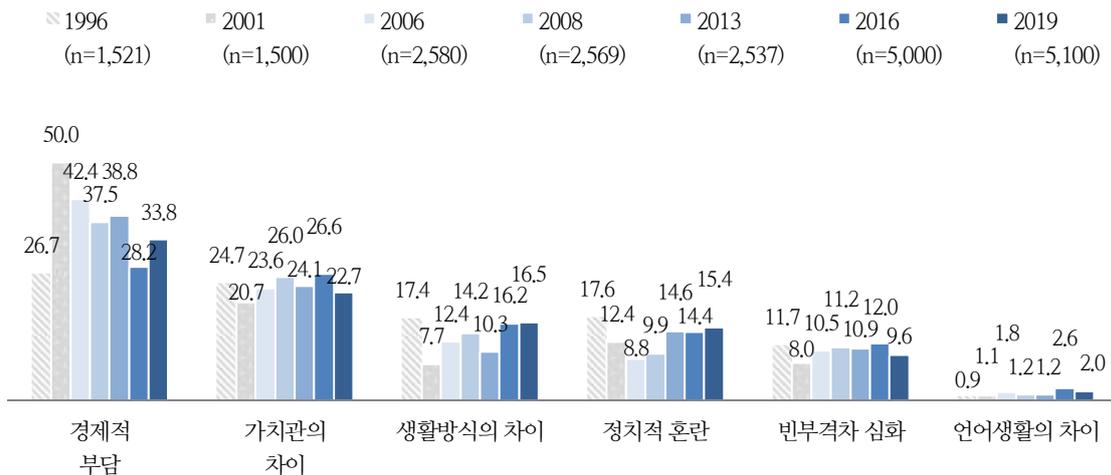
4)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경제적 부담’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33.8%)
- 다음으로는 ‘가치관의 차이’(22.7%), ‘생활방식의 차이’(1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01년 조사 결과부터 ‘경제적 부담’의 응답비율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9년 올해 조사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며, ‘가치관의 차이’는 1996년도부터 20% 중후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함. ‘생활 방식의 차이’,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심화’ 등과 같은 응답들도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폭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그림 3-79 】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문)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살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 3-90 】 응답자 특성별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심화	언어생활의 차이	계
전 체		(5,100)	33.8	22.7	16.5	15.4	9.6	2.0	100.0
성별	남자	(2,555)	34.2	22.9	16.0	16.1	9.4	1.5	100.0
	여자	(2,545)	33.5	22.5	16.9	14.7	9.8	2.5	100.0
연령	19~29세	(935)	33.1	21.9	17.9	15.6	9.5	2.0	100.0
	30~45세	(1,451)	34.1	22.9	15.3	14.7	11.2	1.8	100.0
	46~60세	(1,604)	32.2	24.8	16.2	16.1	8.5	2.2	100.0
	61~79세	(1,110)	36.6	20.1	17.1	15.1	9.0	2.0	100.0
지역	서울	(987)	39.6	12.8	15.0	18.9	11.2	2.4	100.0
	인천/경기	(1,576)	31.2	25.8	16.1	14.7	10.5	1.7	100.0
	대전/충청/세종	(536)	34.6	28.1	14.4	11.8	7.1	4.0	100.0
	광주/전라	(497)	30.3	26.3	15.6	15.9	11.3	0.5	100.0
	대구/경북	(504)	46.4	15.9	16.5	12.1	6.4	2.8	100.0
	부산/울산/경남	(786)	26.7	26.6	22.2	15.0	8.0	1.5	100.0
	강원	(151)	28.2	25.6	13.7	23.7	8.3	0.6	100.0
제주	(64)	34.3	25.1	8.8	15.1	15.5	1.2	100.0	
결혼상태	미혼	(1,493)	33.9	21.2	15.8	16.1	11.5	1.5	100.0
	기혼 - 결혼 생활 중	(3,310)	34.0	23.9	16.9	14.5	8.5	2.1	100.0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298)	31.4	16.6	14.8	22.1	12.3	2.8	100.0
가족 구성원	1인가구	(617)	34.1	16.0	15.9	17.8	14.2	2.0	100.0
	1세대 가구	(874)	31.6	24.2	20.9	13.0	8.2	2.0	100.0
	2세대 가구	(3,393)	34.3	23.8	15.6	15.5	8.7	2.1	100.0
	3세대 가구	(212)	35.6	19.2	13.3	15.4	16.2	0.2	100.0
	비친족가구	(5)	34.2	0.0	39.0	26.8	0.0	0.0	100.0

부록 1

통 계 표

표 1. 전반적 행복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3	0.3	1.5	2.8	4.9	14.0	17.5	31.5	29.1	26.4	5.6	2.4	63.6	100.0	(6.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5	0.3	1.3	3.1	5.2	12.3	18.4	30.7	29.5	25.4	6.8	2.4	64.0	100.0	(6.8)
	중소도시	(2,065)	0.1	0.2	1.9	2.8	5.0	14.1	15.7	29.8	29.4	28.8	4.9	2.1	65.2	100.0	(6.8)
	읍/면	(665)	0.0	0.5	1.1	1.8	3.4	19.5	20.0	39.5	27.1	22.7	4.0	3.3	57.1	100.0	(6.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0.0	1.0	1.5	1.0	3.5	19.6	23.1	42.6	26.3	15.5	6.7	5.4	53.9	100.0	(6.7)
	판매/영업/서비스	(2,146)	0.2	0.5	1.6	2.8	5.0	14.5	17.3	31.8	31.7	25.0	4.8	1.7	63.2	100.0	(6.8)
	생산/기능/노무직	(478)	0.7	0.0	3.0	5.3	9.0	18.9	21.9	40.8	20.9	24.3	3.1	1.9	50.2	100.0	(6.4)
	사무/관리/전문직	(1,067)	0.2	0.1	0.5	1.7	2.5	11.0	14.4	25.4	29.6	31.1	8.5	3.0	72.2	100.0	(7.1)
	주부	(725)	0.1	0.2	1.3	2.9	4.5	12.3	16.9	29.2	31.3	27.7	6.1	1.3	66.3	100.0	(6.9)
	학생	(365)	0.0	0.0	0.6	1.9	2.5	9.7	18.8	28.5	26.7	29.6	6.2	6.4	69.0	100.0	(7.1)
	무직/은퇴/기타	(213)	2.0	0.7	4.6	5.5	12.7	22.9	23.1	46.0	17.7	17.6	3.3	2.6	41.3	100.0	(6.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0.2	0.9	3.1	3.7	7.9	20.3	22.7	43.0	24.1	19.7	3.2	2.1	49.1	100.0	(6.4)
	고등학교 졸업	(2,180)	0.4	0.4	1.6	4.0	6.4	16.6	18.3	34.9	28.8	24.2	3.9	1.8	58.7	100.0	(6.6)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2	0.1	1.0	1.5	2.8	10.2	16.1	26.3	30.7	29.9	7.5	2.8	70.9	100.0	(7.1)
	대학원 졸업	(98)	0.9	0.0	2.1	3.9	6.9	13.4	8.2	21.6	25.8	26.7	11.6	7.4	71.5	100.0	(7.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0.9	0.8	2.9	5.4	10.0	21.4	21.4	42.8	22.8	19.0	2.9	2.4	47.1	100.0	(6.3)
	200만원 ~ 299만원	(814)	0.2	0.6	1.4	3.2	5.5	18.2	17.9	36.1	29.7	22.8	4.1	1.8	58.5	100.0	(6.6)
	300만원 ~ 499만원	(1,949)	0.3	0.1	1.7	2.8	5.0	13.2	17.8	31.0	30.9	25.2	5.7	2.2	64.0	100.0	(6.8)
	500만원 ~ 699만원	(1,366)	0.1	0.2	0.9	2.2	3.4	11.5	16.6	28.1	28.7	31.3	6.5	2.1	68.5	100.0	(7.0)
	700만원 이상	(409)	0.0	0.0	0.6	0.6	1.2	7.5	13.2	20.7	30.0	33.3	9.4	5.3	78.1	100.0	(7.4)
종교	종교 없음	(3,111)	0.3	0.4	1.7	2.7	5.1	14.1	16.7	30.8	29.5	27.7	5.5	1.5	64.1	100.0	(6.8)
	기독교	(921)	0.3	0.2	1.5	2.5	4.6	12.0	18.9	30.8	31.1	24.1	6.4	3.0	64.6	100.0	(6.9)
	불교	(796)	0.3	0.2	0.9	4.0	5.5	15.4	18.6	34.0	25.6	25.5	5.7	3.7	60.4	100.0	(6.8)
	천주교	(263)	0.0	0.0	1.3	1.2	2.5	15.4	18.3	33.7	29.9	22.3	4.9	6.8	63.8	100.0	(6.9)
	기타	(9)	0.0	0.0	0.0	0.0	0.0	0.0	53.0	53.0	15.2	24.4	7.5	0.0	47.0	100.0	(6.9)
이념성향	보수적	(1,500)	0.6	0.3	2.1	4.6	7.7	18.4	18.2	36.6	25.9	22.8	5.3	1.7	55.7	100.0	(6.6)
	중도	(2,262)	0.2	0.3	1.3	2.3	4.1	12.9	18.5	31.4	29.8	26.3	5.6	2.7	64.5	100.0	(6.9)
	진보적	(1,338)	0.0	0.3	1.1	1.8	3.2	10.8	15.1	25.9	31.7	30.6	6.1	2.6	70.9	100.0	(7.0)

표 2. 가족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해당 사항 없음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1	0.3	0.7	1.6	2.8	5.3	9.3	14.6	17.7	30.6	22.2	10.7	81.1	1.5	100.0	(7.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1	0.3	0.5	1.5	2.4	4.8	8.3	13.0	18.4	30.6	22.6	11.4	83.0	1.6	100.0	(7.8)
	중소도시	(2,065)	0.2	0.3	0.9	1.3	2.7	4.9	9.2	14.1	17.1	33.0	21.8	10.1	81.9	1.4	100.0	(7.8)
	읍/면	(665)	0.2	0.4	0.9	3.1	4.6	8.6	13.3	21.8	16.8	23.0	22.0	10.2	72.0	1.6	100.0	(7.5)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3	0.0	0.0	1.3	2.6	11.0	10.8	21.8	14.2	30.1	15.3	15.2	74.7	0.8	100.0	(7.6)
	판매/영업/서비스	(2,146)	0.1	0.3	0.6	1.8	2.8	5.3	9.3	14.6	18.5	30.6	22.0	9.9	81.0	1.6	100.0	(7.8)
	생산/기능/노무직	(478)	0.1	0.5	0.9	2.4	4.0	6.8	11.1	17.9	21.2	30.5	17.7	7.5	76.8	1.3	100.0	(7.5)
	사무/관리/전문직	(1,067)	0.1	0.3	0.6	0.9	1.9	3.4	8.3	11.6	14.8	31.0	25.7	13.4	85.0	1.5	100.0	(8.0)
	주부	(725)	0.0	0.3	0.7	1.3	2.4	4.5	9.4	14.0	17.6	32.9	24.2	7.2	81.9	1.8	100.0	(7.8)
	학생	(365)	0.2	0.0	0.3	1.0	1.5	5.9	7.7	13.6	14.1	30.4	21.0	18.8	84.4	0.4	100.0	(8.0)
	무직/은퇴/기타	(213)	0.0	0.2	4.0	3.6	7.9	10.8	12.1	22.9	23.9	20.9	14.5	8.0	67.3	1.9	100.0	(7.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0.3	0.3	1.2	2.5	4.2	8.1	10.0	18.1	20.3	27.2	15.6	9.4	72.5	5.2	100.0	(7.5)
	고등학교 졸업	(2,180)	0.2	0.4	0.9	2.0	3.4	6.1	10.1	16.2	19.0	31.2	21.9	7.2	79.3	1.1	100.0	(7.6)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1	0.1	0.4	1.1	1.7	4.1	8.7	12.8	15.7	30.9	23.7	14.1	84.4	1.1	100.0	(8.0)
	대학원 졸업	(98)	0.0	0.9	3.8	2.1	6.8	3.2	3.0	6.2	21.9	25.9	24.3	13.3	85.5	1.5	100.0	(7.8)
소득	200만원 미만	(562)	0.0	0.9	2.1	3.1	6.1	9.4	13.2	22.6	19.2	22.8	15.2	7.4	64.6	6.8	100.0	(7.2)
	200만원 ~ 299만원	(814)	0.3	0.4	1.4	1.8	3.9	9.3	10.6	19.9	16.7	29.8	17.9	8.7	73.1	3.1	100.0	(7.5)
	300만원 ~ 499만원	(1,949)	0.2	0.2	0.4	1.4	2.2	4.7	9.8	14.5	18.8	34.4	20.6	9.0	82.8	0.5	100.0	(7.8)
	500만원 ~ 699만원	(1,366)	0.1	0.1	0.4	1.6	2.2	3.0	8.2	11.2	17.0	29.5	27.3	12.5	86.4	0.2	100.0	(8.0)
	700만원 이상	(409)	0.0	0.1	0.4	0.4	1.0	2.4	2.6	4.9	14.2	28.3	30.4	21.2	94.1	0.0	100.0	(8.4)
종교	종교 없음	(3,111)	0.1	0.3	0.6	1.4	2.4	5.0	8.8	13.8	17.0	32.7	22.3	10.3	82.3	1.5	100.0	(7.8)
	기독교	(921)	0.2	0.6	0.8	2.0	3.5	4.9	10.4	15.3	18.7	29.2	21.7	10.9	80.5	0.7	100.0	(7.7)
	불교	(796)	0.4	0.0	1.0	1.9	3.3	5.7	8.8	14.5	19.1	26.1	23.8	11.2	80.2	1.9	100.0	(7.8)
	천주교	(263)	0.0	0.0	1.0	2.0	3.0	9.3	13.1	22.4	18.0	24.1	17.6	12.1	71.8	2.8	100.0	(7.6)
	기타	(9)	0.0	0.0	0.0	0.0	0.0	0.0	3.7	3.7	14.9	34.4	31.1	15.9	96.3	0.0	100.0	(8.4)
이념성향	보수적	(1,500)	0.2	0.4	1.1	2.4	4.1	6.8	10.7	17.5	17.8	28.7	20.9	9.2	76.6	1.8	100.0	(7.6)
	중도	(2,262)	0.1	0.2	0.5	1.6	2.3	5.3	9.6	14.8	17.8	31.2	22.1	10.9	82.0	0.9	100.0	(7.8)
	진보적	(1,338)	0.2	0.3	0.8	0.9	2.2	3.6	7.3	11.0	17.2	31.7	23.7	12.1	84.6	2.2	100.0	(7.9)

표 3. 친구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2	0.3	0.9	2.3	3.7	8.6	15.1	23.7	26.0	28.0	14.3	4.2	72.6	100.0	(7.2)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3	0.3	0.6	1.9	3.1	8.2	13.9	22.1	28.6	28.8	13.1	4.3	74.9	100.0	(7.3)
	중소도시	(2,065)	0.2	0.4	1.3	2.8	4.6	8.3	15.0	23.3	24.4	28.3	16.0	3.4	72.1	100.0	(7.2)
	읍/면	(665)	0.1	0.3	0.8	2.2	3.4	11.0	19.6	30.7	22.1	24.3	13.1	6.4	66.0	100.0	(7.2)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0.0	1.3	2.1	1.7	5.1	15.6	17.4	33.0	19.4	23.6	7.9	10.9	61.8	100.0	(7.0)
	판매/영업/서비스	(2,146)	0.3	0.4	1.2	2.2	4.0	9.3	15.3	24.6	27.6	26.0	14.4	3.5	71.5	100.0	(7.2)
	생산/기능/노무직	(478)	0.0	0.0	0.9	3.5	4.4	11.9	19.6	31.5	23.1	26.7	11.2	3.1	64.1	100.0	(7.0)
	사무/관리/전문직	(1,067)	0.1	0.2	0.2	1.8	2.4	5.6	11.7	17.3	24.3	35.3	16.0	4.7	80.3	100.0	(7.5)
	주부	(725)	0.1	0.4	0.4	2.3	3.2	9.1	17.0	26.1	30.9	25.3	11.9	2.7	70.7	100.0	(7.1)
	학생	(365)	0.2	0.3	0.5	1.1	2.2	4.4	8.9	13.3	20.6	32.2	22.2	9.6	84.6	100.0	(7.8)
	무직/은퇴/기타	(213)	1.0	0.5	2.9	6.1	10.5	11.5	22.7	34.3	21.6	20.1	9.6	4.0	55.2	100.0	(6.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0.0	0.8	2.0	5.8	8.7	11.9	20.0	31.9	21.0	22.4	11.3	4.6	59.4	100.0	(6.9)
	고등학교 졸업	(2,180)	0.3	0.3	1.0	2.4	4.0	10.9	17.5	28.4	25.8	25.7	13.1	3.1	67.6	100.0	(7.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1	0.2	0.6	1.4	2.4	5.8	12.0	17.9	27.4	31.2	16.2	5.0	79.7	100.0	(7.5)
	대학원 졸업	(98)	0.9	0.0	0.0	4.4	5.3	7.6	8.0	15.6	26.0	32.7	11.3	9.1	79.1	100.0	(7.4)
소득	200만원 미만	(562)	0.0	0.3	2.3	6.5	9.1	12.5	19.1	31.6	21.8	21.0	12.0	4.6	59.3	100.0	(6.8)
	200만원 ~ 299만원	(814)	0.0	0.8	0.8	3.0	4.6	12.2	14.9	27.2	22.8	23.1	16.7	5.7	68.3	100.0	(7.2)
	300만원 ~ 499만원	(1,949)	0.2	0.3	0.9	2.0	3.4	8.2	15.8	24.0	27.4	28.5	13.2	3.5	72.6	100.0	(7.2)
	500만원 ~ 699만원	(1,366)	0.3	0.2	0.5	1.3	2.3	6.4	14.0	20.4	28.2	31.9	13.3	3.9	77.3	100.0	(7.3)
	700만원 이상	(409)	0.5	0.0	0.2	0.2	0.9	5.3	10.0	15.3	24.7	32.5	21.6	5.0	83.8	100.0	(7.7)
종교	종교 없음	(3,111)	0.1	0.3	0.9	1.9	3.3	7.5	14.4	21.9	25.8	30.4	14.7	3.9	74.8	100.0	(7.3)
	기독교	(921)	0.3	0.5	0.5	2.8	4.1	9.6	16.0	25.6	28.3	24.4	13.2	4.4	70.4	100.0	(7.1)
	불교	(796)	0.3	0.0	1.1	3.4	4.7	11.3	17.6	28.8	24.5	23.2	14.2	4.5	66.4	100.0	(7.1)
	천주교	(263)	0.5	0.9	1.6	2.4	5.4	10.0	11.8	21.9	26.5	26.4	14.0	5.8	72.7	100.0	(7.2)
	기타	(9)	0.0	0.0	0.0	0.0	0.0	0.0	31.7	31.7	14.9	39.1	6.8	7.5	68.3	100.0	(7.4)
이념성향	보수적	(1,500)	0.3	0.4	1.3	3.0	5.0	11.4	18.8	30.2	25.7	23.7	11.7	3.8	64.9	100.0	(7.0)
	중도	(2,262)	0.1	0.3	0.9	2.0	3.3	8.1	15.1	23.2	25.6	28.1	15.3	4.6	73.6	100.0	(7.3)
	진보적	(1,338)	0.3	0.2	0.4	2.2	3.1	6.3	11.0	17.3	27.3	32.9	15.6	3.9	79.6	100.0	(7.4)

표 4. 소득/재산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7	2.1	7.3	10.6	20.6	23.0	23.8	46.8	15.7	10.7	4.9	1.3	32.6	100.0	(5.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7	1.9	7.7	11.0	21.3	23.4	26.3	49.7	15.2	8.9	3.3	1.7	29.0	100.0	(5.7)
	중소도시	(2,065)	0.8	2.1	7.3	10.1	20.2	21.5	21.5	43.0	17.1	12.7	6.3	0.7	36.8	100.0	(5.9)
	읍/면	(665)	0.5	2.5	5.8	10.7	19.4	26.1	22.0	48.1	13.7	10.7	6.0	2.0	32.5	100.0	(5.8)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0.3	6.6	5.0	12.3	24.2	14.9	24.6	39.5	13.8	17.5	3.2	1.8	36.3	100.0	(5.8)
	판매/영업/서비스	(2,146)	0.6	2.0	8.1	11.1	21.8	22.9	24.7	47.5	13.8	10.3	5.3	1.3	30.6	100.0	(5.7)
	생산/기능/노무직	(478)	0.8	2.9	10.6	11.9	26.2	25.3	22.1	47.5	12.8	8.7	4.2	0.6	26.3	100.0	(5.5)
	사무/관리/전문직	(1,067)	0.6	0.9	3.9	8.1	13.5	24.0	24.5	48.5	19.4	12.4	4.9	1.3	38.0	100.0	(6.1)
	주부	(725)	0.6	1.6	5.1	8.7	16.0	22.5	26.1	48.6	19.0	10.5	4.7	1.0	35.3	100.0	(5.9)
	학생	(365)	1.2	2.7	9.4	11.9	25.2	21.8	17.4	39.2	16.2	11.5	5.5	2.4	35.6	100.0	(5.7)
	무직/은퇴/기타	(213)	0.8	4.9	13.5	18.0	37.2	21.1	18.5	39.6	13.0	6.0	1.8	2.5	23.2	100.0	(5.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0.5	4.5	12.5	14.2	31.7	22.0	20.2	42.1	9.9	9.9	4.5	1.8	26.2	100.0	(5.4)
	고등학교 졸업	(2,180)	0.8	2.2	7.8	12.1	22.8	24.9	23.4	48.3	13.9	9.3	4.9	0.8	28.9	100.0	(5.7)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6	1.6	5.8	8.6	16.6	21.6	24.8	46.4	18.6	11.7	5.0	1.7	37.0	100.0	(6.0)
	대학원 졸업	(98)	2.3	0.0	5.0	4.5	11.8	18.5	26.2	44.8	17.6	20.7	2.6	2.5	43.4	100.0	(6.2)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5	6.6	12.4	16.1	36.6	22.4	19.2	41.6	8.5	8.6	3.1	1.5	21.8	100.0	(5.2)
	200만원 ~ 299만원	(814)	0.9	2.2	8.8	13.0	24.9	22.9	18.8	41.7	14.2	10.7	7.4	1.1	33.4	100.0	(5.7)
	300만원 ~ 499만원	(1,949)	0.6	1.4	6.9	10.3	19.2	24.0	25.0	49.0	15.1	10.9	4.6	1.2	31.8	100.0	(5.8)
	500만원 ~ 699만원	(1,366)	0.5	1.5	6.1	9.1	17.2	22.9	27.3	50.2	17.5	10.0	4.0	1.1	32.6	100.0	(5.9)
	700만원 이상	(409)	0.3	0.8	2.7	4.3	8.0	19.2	22.9	42.1	25.8	14.5	6.5	3.2	49.9	100.0	(6.5)
종교	종교 없음	(3,111)	0.6	2.1	7.1	11.4	21.2	24.1	23.2	47.2	15.2	10.6	4.6	1.2	31.6	100.0	(5.8)
	기독교	(921)	0.6	2.2	7.5	9.0	19.3	21.4	25.1	46.4	17.1	11.1	4.2	1.8	34.3	100.0	(5.9)
	불교	(796)	1.2	1.7	7.8	9.9	20.6	23.9	22.3	46.2	15.6	10.2	6.3	1.0	33.2	100.0	(5.8)
	천주교	(263)	0.6	1.9	6.8	9.4	18.7	11.8	31.5	43.3	18.7	11.2	5.7	2.3	38.0	100.0	(6.1)
	기타	(9)	0.0	0.0	0.0	0.0	0.0	38.1	35.7	73.8	8.4	0.0	17.8	0.0	26.2	100.0	(6.2)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0	3.0	8.0	10.5	22.6	23.8	22.4	46.2	15.8	9.9	4.3	1.2	31.2	100.0	(5.7)
	중도	(2,262)	0.5	1.4	6.6	10.9	19.4	22.8	23.7	46.5	15.0	11.9	5.5	1.6	34.0	100.0	(5.9)
	진보적	(1,338)	0.6	2.1	7.5	10.1	20.4	22.2	25.6	47.8	16.9	9.5	4.4	1.0	31.8	100.0	(5.8)

표 5.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7	2.8	6.0	10.5	20.0	19.8	22.1	42.0	18.9	12.3	5.1	1.7	38.0	100.0	(5.9)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8	3.0	5.6	10.5	20.0	19.6	23.3	42.9	20.8	10.4	4.0	1.9	37.1	100.0	(5.9)
	중소도시	(2,065)	0.6	2.6	5.3	9.3	17.7	19.8	21.1	40.9	18.7	15.0	6.5	1.3	41.4	100.0	(6.1)
	읍/면	(665)	0.9	2.8	9.3	14.5	27.5	20.7	21.2	41.9	12.6	11.0	4.4	2.5	30.6	100.0	(5.6)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5	9.0	13.6	6.8	32.0	14.2	18.6	32.8	14.0	15.0	5.8	0.4	35.2	100.0	(5.5)
	판매/영업/서비스	(2,146)	0.8	3.4	6.4	11.4	22.1	20.9	22.1	43.1	17.5	11.2	4.7	1.4	34.8	100.0	(5.8)
	생산/기능/노무직	(478)	0.6	3.4	9.1	18.5	31.6	21.5	19.1	40.7	12.5	10.5	3.8	1.1	27.7	100.0	(5.5)
	사무/관리/전문직	(1,067)	0.4	1.4	3.6	6.7	12.0	18.3	24.6	42.9	22.1	15.1	5.8	2.0	45.1	100.0	(6.3)
	주부	(725)	0.5	2.7	4.7	9.4	17.3	21.5	23.3	44.8	19.4	11.9	4.8	1.9	37.9	100.0	(6.0)
	학생	(365)	0.6	0.9	2.5	6.1	10.1	15.0	20.7	35.7	27.4	15.6	8.1	3.1	54.3	100.0	(6.5)
	무직/은퇴/기타	(213)	2.3	2.6	12.8	16.4	34.1	17.6	16.9	34.6	17.3	8.1	3.4	2.5	31.3	100.0	(5.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6	6.6	12.7	14.8	35.7	19.4	17.4	36.7	12.8	8.8	4.3	1.7	27.6	100.0	(5.3)
	고등학교 졸업	(2,180)	0.9	3.0	6.9	13.2	24.0	22.3	21.0	43.3	16.2	10.8	4.7	1.0	32.7	100.0	(5.7)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4	1.8	3.8	7.3	13.3	17.7	24.3	42.0	22.6	14.2	5.6	2.2	44.7	100.0	(6.2)
	대학원 졸업	(98)	0.9	1.1	4.1	7.1	13.3	15.9	21.1	37.0	19.0	19.8	6.6	4.2	49.7	100.0	(6.4)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8	5.3	9.6	15.2	31.9	20.1	16.9	37.0	13.8	11.2	4.1	2.0	31.1	100.0	(5.5)
	200만원 ~ 299만원	(814)	0.4	2.3	8.3	11.2	22.3	20.7	18.8	39.5	16.0	13.7	6.6	1.8	38.2	100.0	(5.9)
	300만원 ~ 499만원	(1,949)	0.9	2.5	5.4	10.5	19.2	21.2	23.8	45.0	17.6	11.9	5.0	1.3	35.8	100.0	(5.9)
	500만원 ~ 699만원	(1,366)	0.6	2.9	4.9	8.8	17.2	18.1	24.3	42.4	23.1	11.6	4.4	1.4	40.4	100.0	(6.0)
	700만원 이상	(409)	0.0	1.3	2.7	8.8	12.7	16.9	20.8	37.7	23.6	15.6	6.2	4.2	49.6	100.0	(6.4)
종교	종교 없음	(3,111)	0.8	3.1	5.4	11.0	20.3	20.2	21.6	41.8	19.0	12.2	5.2	1.4	37.9	100.0	(5.9)
	기독교	(921)	0.8	2.5	5.8	8.5	17.7	19.0	24.4	43.4	19.9	12.8	4.3	1.9	38.9	100.0	(6.0)
	불교	(796)	0.7	2.0	8.4	11.2	22.2	20.0	20.2	40.2	17.3	12.3	6.3	1.7	37.6	100.0	(5.9)
	천주교	(263)	0.0	1.5	6.5	9.8	17.8	17.9	26.8	44.7	18.5	12.3	2.8	3.9	37.5	100.0	(6.0)
	기타	(9)	0.0	22.4	5.6	21.3	49.3	11.2	0.0	11.2	13.3	15.2	11.0	0.0	39.5	100.0	(5.2)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4	3.9	8.9	12.1	26.4	18.9	20.4	39.3	17.7	10.6	4.3	1.8	34.3	100.0	(5.7)
	중도	(2,262)	0.5	2.3	5.1	11.5	19.4	20.4	20.2	40.6	18.7	13.9	5.3	2.1	40.0	100.0	(6.0)
	진보적	(1,338)	0.5	2.3	4.1	7.1	14.0	19.9	27.3	47.2	20.6	11.5	5.7	1.0	38.8	100.0	(6.1)

표 6. 건강에 대한 만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3	0.8	2.0	3.9	7.0	10.2	15.0	25.2	20.7	25.7	16.2	5.1	67.8	100.0	(7.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3	0.6	2.2	3.6	6.6	8.8	15.6	24.4	23.2	25.0	14.9	6.0	69.0	100.0	(7.2)	
	중소도시	(2,065)	0.2	1.0	1.7	3.9	6.8	10.2	13.2	23.4	19.2	27.4	18.6	4.5	69.7	100.0	(7.2)	
	읍/면	(665)	0.5	1.2	2.2	5.0	8.9	14.9	18.8	33.7	16.4	23.3	13.6	4.1	57.5	100.0	(6.8)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1	3.2	2.8	8.5	15.6	21.1	23.7	44.9	11.4	12.0	15.4	0.7	39.5	100.0	(6.2)	
	판매/영업/서비스	(2,146)	0.4	0.6	1.9	3.5	6.3	11.0	14.9	25.9	22.7	26.8	14.5	3.8	67.7	100.0	(7.1)	
	생산/기능/노무직	(478)	0.0	1.4	1.9	3.5	6.8	10.2	19.0	29.2	23.7	22.9	12.6	4.8	64.0	100.0	(7.0)	
	사무/관리/전문직	(1,067)	0.0	0.4	1.3	1.9	3.5	6.4	13.7	20.1	18.7	27.0	23.3	7.4	76.4	100.0	(7.6)	
	주부	(725)	0.6	0.4	3.4	6.7	11.0	11.9	15.8	27.7	21.5	28.2	9.2	2.4	61.3	100.0	(6.8)	
	학생	(365)	0.2	0.5	0.5	1.4	2.6	6.0	7.5	13.5	14.4	25.0	30.2	14.4	83.9	100.0	(8.0)	
	무직/은퇴/기타	(213)	0.0	4.9	4.0	12.4	21.2	16.1	20.3	36.4	16.4	15.1	7.4	3.5	42.4	100.0	(6.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1	3.6	4.0	13.6	22.2	18.0	22.3	40.3	17.5	14.1	4.2	1.6	37.5	100.0	(5.9)	
	고등학교 졸업	(2,180)	0.3	0.5	2.3	4.0	7.1	11.6	17.0	28.6	23.2	27.3	11.0	2.8	64.3	100.0	(6.9)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1	0.4	1.2	1.9	3.5	7.2	11.7	18.9	19.3	26.9	23.4	7.9	77.5	100.0	(7.6)	
	대학원 졸업	(98)	0.9	1.9	5.2	2.9	10.8	9.6	13.9	23.5	13.6	21.9	20.0	10.1	65.6	100.0	(7.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0.5	3.5	4.9	12.6	21.5	17.3	17.0	34.3	17.2	14.5	8.0	4.6	44.2	100.0	(6.1)	
	200만원 ~ 299만원	(814)	0.3	0.8	2.5	5.9	9.5	13.3	16.8	30.1	20.5	22.1	13.6	4.2	60.4	100.0	(6.9)	
	300만원 ~ 499만원	(1,949)	0.1	0.5	1.4	2.7	4.7	8.8	15.1	24.0	20.7	30.6	15.9	4.1	71.3	100.0	(7.3)	
	500만원 ~ 699만원	(1,366)	0.5	0.2	1.3	1.3	3.3	8.0	15.4	23.3	21.1	26.6	19.9	5.7	73.4	100.0	(7.4)	
	700만원 이상	(409)	0.0	0.4	2.3	2.8	5.6	8.1	7.0	15.1	24.3	22.5	21.8	10.7	79.3	100.0	(7.6)	
종교	종교 없음	(3,111)	0.2	0.8	1.6	3.3	5.9	9.4	13.7	23.1	21.0	26.9	17.6	5.6	71.0	100.0	(7.2)	
	기독교	(921)	0.1	0.5	1.7	3.2	5.6	10.3	18.0	28.3	22.0	23.9	15.3	5.0	66.2	100.0	(7.1)	
	불교	(796)	0.8	1.2	3.2	6.6	11.7	13.3	15.1	28.4	20.3	24.3	12.1	3.2	59.9	100.0	(6.7)	
	천주교	(263)	0.0	1.3	3.4	6.2	10.9	9.9	20.1	30.0	13.6	22.7	16.5	6.2	59.1	100.0	(7.0)	
	기타	(9)	0.0	0.0	0.0	3.7	3.7	12.3	21.3	33.6	13.3	38.3	11.0	0.0	62.7	100.0	(7.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0.3	1.8	2.7	7.2	11.9	15.2	18.3	33.6	19.0	21.5	9.9	4.1	54.6	100.0	(6.6)	
	중도	(2,262)	0.3	0.4	1.9	3.2	5.8	8.6	15.5	24.0	22.0	27.3	15.3	5.6	70.2	100.0	(7.2)	
	진보적	(1,338)	0.3	0.4	1.4	1.5	3.6	7.2	10.6	17.8	20.3	27.8	24.9	5.6	78.6	100.0	(7.6)	

표 7.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단위 : %)

구 분	사례수	건강	행복한 기정	경제적 풍요	자신의 능력 개발	사회적 성공	좋은 인간 관계	취미 생활/여가	정신 적인 성숙	남성/여성 과의 사랑	자식/학식	외모	기타	계
전 체	(5,100)	40.0	20.8	16.6	7.9	6.3	3.8	2.0	0.9	0.8	0.6	0.3	0.1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1.1	19.3	17.0	8.2	6.4	3.3	1.9	0.7	0.9	0.5	0.5	100.0
	중소도시	(2,065)	37.7	23.0	16.2	8.0	6.2	4.3	2.1	1.0	0.5	0.6	0.3	100.0
	읍/면	(665)	42.7	19.6	16.2	6.4	6.3	4.1	1.6	1.4	1.0	0.6	0.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70.7	13.0	7.6	0.3	4.7	1.6	1.7	0.0	0.0	0.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8.8	22.0	20.1	6.7	6.2	2.3	1.7	0.5	0.8	0.4	0.2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51.8	17.3	13.1	3.9	5.5	6.7	0.9	0.7	0.2	0.0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9.5	20.8	17.5	11.6	7.8	5.6	3.3	1.8	1.2	0.6	0.2	100.0
	주부	(725)	52.0	27.7	11.4	2.8	2.1	2.5	0.7	0.2	0.2	0.3	0.0	100.0
	학생	(365)	14.7	13.1	14.6	23.1	14.8	6.9	3.7	2.2	1.3	3.2	2.5	100.0
	무직/은퇴/기타	(213)	63.8	10.8	9.3	4.9	2.7	3.8	2.4	1.5	0.5	0.0	0.3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75.7	10.9	8.0	1.4	0.8	1.7	1.0	0.0	0.0	0.2	0.0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45.6	22.2	16.0	5.1	4.7	3.2	1.5	0.6	0.4	0.3	0.3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7.1	21.9	18.9	11.7	8.9	4.8	2.7	1.3	1.3	0.9	0.4	100.0
	대학원 졸업	(98)	40.2	13.7	15.7	12.9	9.1	4.4	0.7	3.4	0.0	0.0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63.6	9.5	12.8	5.1	3.2	2.7	1.6	1.1	0.1	0.3	0.0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46.0	16.5	17.2	8.1	5.1	3.1	1.8	1.2	0.6	0.2	0.0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7.5	24.0	17.6	7.5	6.2	3.0	1.9	0.8	0.7	0.5	0.2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2.4	22.7	16.6	8.3	8.1	6.0	2.0	0.9	1.1	0.9	0.8	100.0
	700만원 이상	(409)	32.5	23.3	15.4	11.9	7.6	3.2	2.9	0.8	1.2	0.9	0.3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7.0	19.8	18.1	9.1	7.1	4.0	2.4	0.9	0.9	0.4	0.4	100.0
	기독교	(921)	38.1	25.1	13.3	7.8	5.6	4.2	1.9	1.2	1.0	1.2	0.2	100.0
	불교	(796)	52.1	18.6	15.7	3.6	4.3	3.5	0.6	0.9	0.2	0.4	0.0	100.0
	천주교	(263)	44.4	24.2	13.2	6.7	5.9	1.7	1.5	0.0	0.5	0.8	1.2	100.0
	기타	(9)	44.3	41.0	0.0	0.0	0.0	0.0	8.4	6.4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4.4	19.9	13.2	3.9	3.5	2.0	1.1	0.9	0.5	0.4	0.0	100.0
	중도	(2,262)	37.9	22.8	16.9	8.1	6.4	3.9	2.0	0.7	0.6	0.4	0.2	100.0
	진보적	(1,338)	27.2	18.5	19.7	12.0	9.4	5.6	3.0	1.4	1.4	1.0	0.9	100.0

표 8. 하는 일의 가치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벼워지않다					보통이다			가벼웠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1	0.2	0.6	2.4	3.4	10.6	17.8	28.4	32.8	25.0	6.7	3.7	68.3	100.0	(7.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2	0.2	0.8	2.8	3.9	9.6	16.8	26.5	33.7	24.9	7.8	3.2	69.6	100.0	(7.0)
	중소도시	(2,065)	0.0	0.2	0.5	2.3	3.0	11.1	17.0	28.1	32.4	27.2	6.1	3.2	69.0	100.0	(7.0)
	읍/면	(665)	0.2	0.3	0.4	1.9	2.8	12.2	23.7	35.9	30.8	18.2	5.0	7.2	61.3	100.0	(6.9)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0.0	0.0	0.4	3.2	3.6	13.5	21.6	35.1	30.5	16.8	4.0	10.0	61.3	100.0	(7.0)
	판매/영업/서비스	(2,146)	0.0	0.1	0.5	2.5	3.2	9.9	19.9	29.8	33.8	24.6	5.5	3.1	67.0	100.0	(6.9)
	생산/기능/노무직	(478)	0.4	0.0	0.8	4.0	5.1	17.0	16.1	33.2	28.9	25.1	5.2	2.5	61.7	100.0	(6.8)
	사무/관리/전문직	(1,067)	0.0	0.2	0.2	0.6	1.0	5.3	14.6	20.0	32.6	30.4	10.4	5.6	79.0	100.0	(7.4)
	주부	(725)	0.1	0.2	0.7	2.2	3.2	13.4	17.1	30.5	37.3	20.9	6.0	2.2	66.4	100.0	(6.8)
	학생	(365)	0.0	0.0	0.0	1.8	1.8	7.0	14.5	21.6	30.2	30.3	10.1	6.1	76.7	100.0	(7.3)
	무직/은퇴/기타	(213)	1.7	1.9	4.2	9.2	17.0	24.8	21.3	46.1	23.2	9.6	2.6	1.5	36.9	100.0	(5.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0.2	0.7	1.7	4.2	6.8	20.4	20.3	40.7	27.3	18.4	3.4	3.3	52.4	100.0	(6.5)
	고등학교 졸업	(2,180)	0.2	0.1	0.5	3.4	4.2	13.5	19.3	32.8	35.2	21.3	4.0	2.6	63.0	100.0	(6.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0	0.2	0.5	1.1	1.9	5.7	16.1	21.8	32.3	29.7	9.6	4.7	76.3	100.0	(7.3)
	대학원 졸업	(98)	0.9	0.0	0.0	4.3	5.3	12.6	11.1	23.7	20.5	26.5	16.3	7.7	71.0	100.0	(7.3)
소득	200만원 미만	(562)	0.7	0.9	1.3	4.3	7.2	24.4	21.4	45.7	25.1	15.6	4.0	2.3	47.1	100.0	(6.3)
	200만원 ~ 299만원	(814)	0.1	0.5	1.0	4.6	6.1	13.3	19.7	33.0	31.9	21.3	4.3	3.4	60.9	100.0	(6.7)
	300만원 ~ 499만원	(1,949)	0.1	0.0	0.5	2.3	3.0	9.6	16.9	26.5	35.7	25.0	6.9	2.9	70.5	100.0	(7.0)
	500만원 ~ 699만원	(1,366)	0.1	0.0	0.1	0.9	1.1	6.4	17.8	24.3	34.1	29.9	7.4	3.2	74.6	100.0	(7.2)
	700만원 이상	(409)	0.0	0.0	0.7	1.4	2.1	5.0	12.8	17.8	27.2	28.0	12.7	12.2	80.1	100.0	(7.6)
종교	종교 없음	(3,111)	0.2	0.1	0.5	2.5	3.3	10.3	18.0	28.4	33.0	26.3	6.8	2.3	68.3	100.0	(7.0)
	기독교	(921)	0.0	0.5	0.9	2.0	3.4	9.3	17.5	26.8	36.1	21.3	6.7	5.7	69.8	100.0	(7.0)
	불교	(796)	0.0	0.3	0.9	2.8	3.9	12.8	17.1	29.9	29.1	25.0	6.1	6.0	66.2	100.0	(7.0)
	천주교	(263)	0.0	0.5	0.0	2.0	2.4	11.6	17.7	29.3	30.4	21.8	8.8	7.4	68.3	100.0	(7.1)
	기타	(9)	0.0	0.0	0.0	3.7	3.7	6.4	5.6	12.0	37.3	19.4	13.3	14.3	84.3	100.0	(7.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0.4	0.0	1.0	3.1	4.4	15.4	19.1	34.5	27.6	24.7	4.8	4.1	61.1	100.0	(6.8)
	중도	(2,262)	0.1	0.3	0.4	2.5	3.3	9.9	18.3	28.2	35.3	22.9	6.9	3.4	68.5	100.0	(7.0)
	진보적	(1,338)	0.0	0.3	0.5	1.7	2.5	6.4	15.3	21.7	34.6	28.7	8.6	4.0	75.9	100.0	(7.2)

표 9.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보통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1	0.6	2.5	4.3	7.6	10.1	18.6	28.6	28.0	24.4	8.0	3.3	63.7	100.0	(6.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1	0.6	2.7	4.3	7.8	10.0	16.3	26.3	27.2	26.9	9.1	2.7	65.9	100.0	(6.9)
	중소도시	(2,065)	0.1	0.5	2.6	4.5	7.6	9.9	19.1	29.0	29.7	23.1	7.4	3.3	63.4	100.0	(6.8)
	읍/면	(665)	0.2	1.3	1.9	3.6	7.1	11.1	24.9	36.0	25.5	19.8	6.0	5.6	57.0	100.0	(6.8)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2	2.3	3.8	1.2	8.6	14.9	21.8	36.8	24.7	12.0	7.6	10.3	54.6	100.0	(6.7)
	판매/영업/서비스	(2,146)	0.0	0.7	2.5	3.5	6.6	10.1	19.2	29.3	30.8	23.5	7.0	2.8	64.1	100.0	(6.8)
	생산/기능/노무직	(478)	0.0	0.8	2.3	7.8	10.8	12.6	21.8	34.4	26.2	21.4	4.7	2.5	54.8	100.0	(6.6)
	사무/관리/전문직	(1,067)	0.2	0.1	2.4	4.4	7.1	7.3	16.8	24.1	26.2	27.2	11.0	4.3	68.7	100.0	(7.1)
	주부	(725)	0.3	0.1	3.8	3.2	7.4	11.3	18.8	30.2	26.2	28.2	6.1	1.9	62.4	100.0	(6.8)
	학생	(365)	0.0	0.6	0.4	4.3	5.4	6.9	16.4	23.3	26.1	26.6	13.1	5.6	71.3	100.0	(7.2)
	무직/은퇴/기타	(213)	0.5	3.9	3.4	9.9	17.7	16.6	15.6	32.2	24.2	16.0	7.4	2.5	50.1	100.0	(6.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0.3	1.5	4.4	5.6	11.8	13.3	19.5	32.7	26.8	19.4	4.5	4.7	55.4	100.0	(6.5)
	고등학교 졸업	(2,180)	0.1	0.7	2.2	4.7	7.7	11.7	20.8	32.6	28.9	22.6	5.8	2.5	59.8	100.0	(6.7)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1	0.4	2.3	3.8	6.6	7.7	16.7	24.4	27.8	26.9	10.6	3.7	69.0	100.0	(7.0)
	대학원 졸업	(98)	0.9	1.0	6.7	2.2	10.8	14.5	8.6	23.0	20.3	29.0	11.3	5.6	66.2	100.0	(6.9)
소득	200만원 미만	(562)	0.4	1.8	2.9	7.7	12.8	14.7	16.9	31.6	25.6	18.2	6.2	5.6	55.6	100.0	(6.6)
	200만원 ~ 299만원	(814)	0.3	1.0	2.3	4.8	8.4	13.0	18.5	31.5	27.0	23.9	6.0	3.1	60.1	100.0	(6.7)
	300만원 ~ 499만원	(1,949)	0.1	0.3	3.1	3.8	7.3	9.3	21.3	30.5	29.2	24.4	6.4	2.3	62.2	100.0	(6.8)
	500만원 ~ 699만원	(1,366)	0.1	0.3	2.0	3.7	6.1	8.5	17.4	25.9	29.1	26.7	9.8	2.5	68.0	100.0	(7.0)
	700만원 이상	(409)	0.0	0.9	1.7	3.4	5.9	6.9	12.2	19.0	24.1	26.4	16.1	8.4	75.1	100.0	(7.4)
종교	종교 없음	(3,111)	0.0	0.7	2.6	4.2	7.6	9.6	17.7	27.3	29.0	25.5	7.7	2.9	65.1	100.0	(6.9)
	기독교	(921)	0.4	0.7	2.0	4.0	7.1	10.4	21.5	31.9	25.4	24.1	8.8	2.7	61.0	100.0	(6.8)
	불교	(796)	0.3	0.5	2.5	4.8	8.1	10.8	19.9	30.7	27.3	22.2	6.9	4.8	61.2	100.0	(6.8)
	천주교	(263)	0.0	0.5	3.5	3.8	7.8	12.6	15.2	27.9	28.5	19.1	10.6	6.1	64.3	100.0	(6.9)
	기타	(9)	0.0	0.0	0.0	26.1	26.1	0.0	14.0	14.0	21.3	11.0	27.6	0.0	59.9	100.0	(6.7)
이념성향	보수적	(1,500)	0.2	0.8	3.1	4.7	8.9	12.0	20.2	32.3	28.0	20.0	7.4	3.4	58.8	100.0	(6.7)
	중도	(2,262)	0.1	0.6	2.2	4.4	7.4	10.4	19.2	29.6	27.9	24.5	7.5	3.1	63.0	100.0	(6.8)
	진보적	(1,338)	0.0	0.5	2.4	3.7	6.6	7.3	15.6	22.9	28.3	29.2	9.4	3.6	70.5	100.0	(7.1)

표 10. 사소한 일에 대한 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6	22.3	23.9	59.9	16.2	76.1	100.0	(2.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4	23.0	24.4	58.6	17.0	75.6	100.0	(2.1)
	중소도시	(2,065)	1.6	21.8	23.4	60.6	16.0	76.6	100.0	(2.1)
	읍/면	(665)	2.4	21.3	23.7	62.6	13.7	76.3	100.0	(2.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6	27.3	31.9	53.9	14.1	68.1	100.0	(2.2)
	판매/영업/서비스	(2,146)	1.5	22.1	23.6	61.7	14.8	76.4	100.0	(2.1)
	생산/기능/노무직	(478)	1.5	25.5	27.1	54.9	18.1	72.9	100.0	(2.1)
	사무/관리/전문직	(1,067)	1.4	16.7	18.2	64.7	17.1	81.8	100.0	(2.0)
	주부	(725)	1.6	26.8	28.4	58.1	13.5	71.6	100.0	(2.2)
	학생	(365)	0.7	18.2	19.0	53.0	28.0	81.0	100.0	(1.9)
	무직/은퇴/기타	(213)	4.1	34.7	38.8	50.2	11.0	61.2	100.0	(2.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8	31.1	33.9	52.8	13.3	66.1	100.0	(2.2)
	고등학교 졸업	(2,180)	1.9	24.8	26.7	58.7	14.6	73.3	100.0	(2.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0	18.1	19.2	62.5	18.4	80.8	100.0	(2.0)
	대학원 졸업	(98)	3.9	23.1	26.9	61.3	11.8	73.1	100.0	(2.2)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2	31.9	35.1	52.4	12.5	64.9	100.0	(2.3)
	200만원 ~ 299만원	(814)	2.9	25.0	27.9	58.4	13.7	72.1	100.0	(2.2)
	300만원 ~ 499만원	(1,949)	1.4	23.8	25.2	60.1	14.8	74.8	100.0	(2.1)
	500만원 ~ 699만원	(1,366)	0.8	16.6	17.4	64.1	18.5	82.6	100.0	(2.0)
	700만원 이상	(409)	0.6	15.7	16.4	58.4	25.2	83.6	100.0	(1.9)
종교	종교 없음	(3,111)	1.3	21.7	23.0	60.5	16.4	77.0	100.0	(2.1)
	기독교	(921)	1.5	23.1	24.5	58.4	17.0	75.5	100.0	(2.1)
	불교	(796)	3.0	24.1	27.1	59.2	13.7	72.9	100.0	(2.2)
	천주교	(263)	1.1	22.4	23.5	59.9	16.6	76.5	100.0	(2.1)
	기타	(9)	0.0	0.0	0.0	60.8	39.2	100.0	100.0	(1.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3	27.1	29.5	55.9	14.7	70.5	100.0	(2.2)
	중도	(2,262)	1.1	20.4	21.5	61.6	16.9	78.5	100.0	(2.1)
	진보적	(1,338)	1.6	20.2	21.8	61.6	16.6	78.2	100.0	(2.1)

표 11. 이유 없는 우울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6	21.8	24.4	51.7	23.9	75.6	100.0	(2.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0	24.1	27.1	48.7	24.2	72.9	100.0	(2.1)
	중소도시	(2,065)	2.2	20.1	22.3	52.4	25.4	77.7	100.0	(2.0)
	읍/면	(665)	2.5	18.5	21.0	60.5	18.5	79.0	100.0	(2.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5.8	23.4	29.2	52.0	18.8	70.8	100.0	(2.2)
	판매/영업/서비스	(2,146)	2.2	20.5	22.7	54.0	23.3	77.3	100.0	(2.0)
	생산/기능/노무직	(478)	2.8	25.8	28.5	47.8	23.7	71.5	100.0	(2.1)
	사무/관리/전문직	(1,067)	1.6	16.1	17.7	54.0	28.3	82.3	100.0	(1.9)
	주부	(725)	4.5	30.5	35.1	47.3	17.7	64.9	100.0	(2.2)
	학생	(365)	1.4	14.6	16.0	47.4	36.6	84.0	100.0	(1.8)
	무직/은퇴/기타	(213)	5.8	35.8	41.6	47.4	11.0	58.4	100.0	(2.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8	33.0	37.8	44.5	17.7	62.2	100.0	(2.2)
	고등학교 졸업	(2,180)	3.4	24.5	27.9	52.1	20.0	72.1	100.0	(2.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4	16.9	18.3	52.9	28.8	81.7	100.0	(1.9)
	대학원 졸업	(98)	4.9	19.7	24.6	49.6	25.8	75.4	100.0	(2.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6.1	31.7	37.8	43.4	18.8	62.2	100.0	(2.3)
	200만원 ~ 299만원	(814)	3.6	25.4	28.9	51.3	19.7	71.1	100.0	(2.1)
	300만원 ~ 499만원	(1,949)	2.5	21.7	24.2	53.2	22.5	75.8	100.0	(2.0)
	500만원 ~ 699만원	(1,366)	1.3	18.2	19.5	52.7	27.8	80.5	100.0	(1.9)
	700만원 이상	(409)	0.7	13.1	13.8	53.2	32.9	86.2	100.0	(1.8)
종교	종교 없음	(3,111)	2.4	21.0	23.3	51.5	25.2	76.7	100.0	(2.0)
	기독교	(921)	3.3	21.7	24.9	51.8	23.3	75.1	100.0	(2.0)
	불교	(796)	3.2	24.0	27.3	52.9	19.8	72.7	100.0	(2.1)
	천주교	(263)	1.4	25.4	26.8	49.3	23.8	73.2	100.0	(2.0)
	기타	(9)	0.0	3.7	3.7	83.0	13.3	96.3	100.0	(1.9)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8	26.4	30.1	48.5	21.4	69.9	100.0	(2.1)
	중도	(2,262)	2.1	20.6	22.8	54.7	22.5	77.2	100.0	(2.0)
	진보적	(1,338)	2.1	18.6	20.7	50.2	29.1	79.3	100.0	(1.9)

표 12. 소외감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8	17.0	18.8	52.1	29.1	81.2	100.0	(1.9)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8	18.9	20.7	50.2	29.1	79.3	100.0	(1.9)
	중소도시	(2,065)	1.8	16.5	18.3	52.7	29.0	81.7	100.0	(1.9)
	읍/면	(665)	1.8	12.1	13.9	56.6	29.5	86.1	100.0	(1.9)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0	20.4	23.4	48.2	28.5	76.6	100.0	(2.0)
	판매/영업/서비스	(2,146)	1.9	15.1	17.0	53.8	29.2	83.0	100.0	(1.9)
	생산/기능/노무직	(478)	2.1	24.6	26.7	45.1	28.2	73.3	100.0	(2.0)
	사무/관리/전문직	(1,067)	1.0	12.4	13.5	52.3	34.2	86.5	100.0	(1.8)
	주부	(725)	1.5	23.9	25.5	51.1	23.4	74.5	100.0	(2.0)
	학생	(365)	1.2	7.8	9.0	55.7	35.3	91.0	100.0	(1.7)
	무직/은퇴/기타	(213)	5.8	33.5	39.2	47.5	13.3	60.8	100.0	(2.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9	29.0	32.9	46.0	21.1	67.1	100.0	(2.2)
	고등학교 졸업	(2,180)	2.3	20.2	22.5	50.0	27.5	77.5	100.0	(2.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9	11.6	12.5	55.0	32.5	87.5	100.0	(1.8)
	대학원 졸업	(98)	2.8	15.6	18.4	58.4	23.2	81.6	100.0	(2.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8	31.3	34.2	45.2	20.6	65.8	100.0	(2.2)
	200만원 ~ 299만원	(814)	3.2	20.8	24.0	51.1	24.9	76.0	100.0	(2.0)
	300만원 ~ 499만원	(1,949)	1.7	16.9	18.6	53.6	27.8	81.4	100.0	(1.9)
	500만원 ~ 699만원	(1,366)	1.2	11.1	12.3	53.7	34.0	87.7	100.0	(1.8)
	700만원 이상	(409)	0.5	10.3	10.8	50.3	38.9	89.2	100.0	(1.7)
종교	종교 없음	(3,111)	1.8	16.2	18.0	51.3	30.7	82.0	100.0	(1.9)
	기독교	(921)	0.9	18.4	19.3	53.1	27.6	80.7	100.0	(1.9)
	불교	(796)	3.0	19.5	22.4	51.9	25.7	77.6	100.0	(2.0)
	천주교	(263)	1.5	15.4	16.9	57.9	25.3	83.1	100.0	(1.9)
	기타	(9)	0.0	0.0	0.0	46.5	53.5	100.0	100.0	(1.5)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8	23.2	26.0	48.0	26.0	74.0	100.0	(2.0)
	중도	(2,262)	1.5	15.3	16.8	54.2	29.0	83.2	100.0	(1.9)
	진보적	(1,338)	1.3	13.0	14.4	52.9	32.8	85.6	100.0	(1.8)

표 13. 무시당하는 느낌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1	15.2	16.3	53.7	30.0	83.7	100.0	(1.9)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0	16.2	17.1	52.7	30.2	82.9	100.0	(1.9)
	중소도시	(2,065)	1.4	15.8	17.1	53.7	29.1	82.9	100.0	(1.9)
	읍/면	(665)	1.0	9.9	10.9	57.1	32.0	89.1	100.0	(1.8)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6	14.6	16.2	53.6	30.2	83.8	100.0	(1.9)
	판매/영업/서비스	(2,146)	1.1	16.0	17.1	54.1	28.8	82.9	100.0	(1.9)
	생산/기능/노무직	(478)	1.2	21.0	22.3	49.8	28.0	77.7	100.0	(2.0)
	사무/관리/전문직	(1,067)	0.5	8.2	8.7	54.6	36.7	91.3	100.0	(1.7)
	주부	(725)	0.8	20.1	20.9	54.5	24.6	79.1	100.0	(2.0)
	학생	(365)	1.4	7.2	8.6	52.5	38.9	91.4	100.0	(1.7)
	무직/은퇴/기타	(213)	5.4	25.4	30.8	52.5	16.7	69.2	100.0	(2.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4	25.0	27.4	49.4	23.2	72.6	100.0	(2.1)
	고등학교 졸업	(2,180)	1.2	19.5	20.7	51.9	27.4	79.3	100.0	(1.9)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7	9.2	9.9	56.1	34.0	90.1	100.0	(1.8)
	대학원 졸업	(98)	3.5	13.1	16.6	58.3	25.1	83.4	100.0	(1.9)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3	26.2	28.4	49.3	22.3	71.6	100.0	(2.1)
	200만원 ~ 299만원	(814)	2.2	20.6	22.8	50.6	26.7	77.2	100.0	(2.0)
	300만원 ~ 499만원	(1,949)	0.7	16.5	17.2	54.0	28.8	82.8	100.0	(1.9)
	500만원 ~ 699만원	(1,366)	1.0	8.1	9.1	57.4	33.5	90.9	100.0	(1.8)
	700만원 이상	(409)	0.2	6.4	6.6	52.1	41.4	93.4	100.0	(1.7)
종교	종교 없음	(3,111)	1.1	14.7	15.8	53.7	30.5	84.2	100.0	(1.9)
	기독교	(921)	0.9	16.6	17.5	53.7	28.7	82.5	100.0	(1.9)
	불교	(796)	1.6	15.9	17.5	53.3	29.2	82.5	100.0	(1.9)
	천주교	(263)	0.5	14.5	15.0	54.2	30.8	85.0	100.0	(1.8)
	기타	(9)	0.0	0.0	0.0	46.5	53.5	100.0	100.0	(1.5)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4	19.8	21.1	52.3	26.5	78.9	100.0	(2.0)
	중도	(2,262)	0.9	15.1	16.1	54.2	29.7	83.9	100.0	(1.9)
	진보적	(1,338)	1.2	10.1	11.3	54.3	34.5	88.7	100.0	(1.8)

표 14. 결혼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계
전 체		(5,100)	44.1	36.2	19.7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4.1	35.3	20.6	100.0
	중소도시	(2,065)	45.5	36.3	18.2	100.0
	읍/면	(665)	39.9	39.1	21.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2.8	16.0	51.2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44.9	35.7	19.4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43.9	26.2	29.9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45.2	42.8	12.1	100.0
	주부	(725)	50.5	28.0	21.5	100.0
	학생	(365)	35.1	58.7	6.2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0.7	30.7	38.6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6.2	19.7	44.1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45.7	32.5	21.8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44.5	43.1	12.5	100.0
	대학원 졸업	(98)	39.9	37.8	22.3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3.7	33.2	33.2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41.6	33.8	24.6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46.5	36.6	16.9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47.3	37.8	14.9	100.0
	700만원 이상	(409)	41.3	38.0	20.7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44.6	39.0	16.4	100.0
	기독교	(921)	44.0	31.9	24.1	100.0
	불교	(796)	44.5	28.9	26.7	100.0
	천주교	(263)	39.0	39.5	21.5	100.0
	기타	(9)	6.8	58.8	34.5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44.1	24.4	31.4	100.0
	중도	(2,262)	45.8	37.8	16.4	100.0
	진보적	(1,338)	41.2	46.8	12.0	100.0

표 15. 배우자 선택 기준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성격	직업 (장래성)	재산 (경제력)	가정환경	외모	종교	학력/학벌	취미	기타	계
전 체		(5,100)	67.3	11.6	9.6	6.7	2.6	1.2	0.6	0.2	0.2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70.8	9.3	8.9	7.3	2.2	0.6	0.6	0.1	0.1	100.0
	중소도시	(2,065)	63.6	13.7	10.5	6.1	3.1	1.7	0.8	0.3	0.1	100.0
	읍/면	(665)	66.0	13.0	9.4	6.2	2.7	1.5	0.5	0.2	0.4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59.4	15.2	14.2	8.0	0.4	1.0	0.0	0.0	1.8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66.3	12.6	9.4	7.7	2.0	1.1	0.6	0.2	0.1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70.2	11.6	6.4	5.2	4.1	0.6	1.5	0.2	0.1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71.8	8.8	8.0	5.6	3.0	1.6	0.8	0.3	0.1	100.0
	주부	(725)	63.7	12.8	14.4	6.4	0.6	1.6	0.4	0.1	0.0	100.0
	학생	(365)	67.4	11.9	8.3	4.1	7.2	0.6	0.4	0.1	0.0	100.0
	무직/은퇴/기타	(213)	63.4	9.0	10.5	10.7	4.5	0.5	0.0	0.4	0.9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66.8	13.2	8.6	9.7	0.5	0.2	0.5	0.2	0.3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65.5	12.7	10.1	7.2	2.2	1.2	0.8	0.1	0.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9.3	10.3	9.4	5.6	3.3	1.2	0.5	0.3	0.1	100.0
	대학원 졸업	(98)	60.8	11.0	9.8	6.3	5.5	5.3	1.3	0.0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69.6	12.6	8.9	5.3	2.2	0.4	0.5	0.4	0.1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63.9	14.1	10.1	7.3	2.3	2.0	0.1	0.1	0.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66.3	10.8	10.9	6.6	3.2	1.0	1.0	0.2	0.1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68.3	11.4	8.6	6.8	2.5	1.5	0.6	0.3	0.0	100.0
	700만원 이상	(409)	72.0	9.8	7.0	7.7	1.8	0.3	0.3	0.4	0.8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69.3	11.3	9.0	6.3	2.9	0.4	0.5	0.1	0.2	100.0
	기독교	(921)	61.7	12.3	10.4	7.3	3.0	3.8	0.8	0.6	0.1	100.0
	불교	(796)	65.8	11.9	11.8	7.7	0.7	0.6	1.0	0.1	0.3	100.0
	천주교	(263)	67.8	11.6	8.4	5.3	3.9	2.0	0.7	0.2	0.0	100.0
	기타	(9)	60.6	13.3	3.7	22.4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66.5	11.9	9.6	7.5	1.9	1.2	1.2	0.2	0.1	100.0
	중도	(2,262)	65.4	11.8	10.7	7.3	2.6	1.1	0.6	0.3	0.2	100.0
	진보적	(1,338)	71.3	10.8	8.0	4.7	3.5	1.2	0.2	0.1	0.2	100.0

표 16. 배우자 선택 기준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직업 (장래성)	가정환경	재산 (경제력)	성격	외모	종교	학력/학벌	취미	기타	계
전 체		(5,099)	24.3	23.5	20.5	15.1	9.9	2.5	2.1	1.9	0.2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5.0	24.0	21.5	13.6	10.1	2.4	2.0	1.1	0.2	100.0
	중소도시	(2,064)	23.2	23.0	19.5	16.6	10.1	2.8	2.3	2.2	0.2	100.0
	읍/면	(665)	24.8	23.5	19.4	15.8	8.8	2.3	1.7	3.3	0.3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2.3	30.5	17.8	20.9	4.0	1.2	0.0	3.3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24.4	22.8	21.3	14.6	8.9	3.3	2.5	1.9	0.2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23.0	30.7	17.0	14.8	9.0	1.3	1.8	1.8	0.6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2.5	24.0	19.5	12.4	15.2	2.0	2.1	2.2	0.2	100.0
	주부	(725)	27.4	22.3	23.6	20.4	2.4	1.5	1.8	0.5	0.1	100.0
	학생	(365)	22.0	15.5	20.3	13.9	19.2	4.0	2.3	2.7	0.0	100.0
	무직/은퇴/기타	(213)	27.9	27.4	15.3	15.5	8.9	1.9	0.0	2.4	0.7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3.9	27.8	20.4	18.7	3.6	2.7	1.6	1.1	0.1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25.3	23.5	21.5	16.0	6.9	2.7	2.4	1.5	0.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3)	23.7	22.4	19.8	13.2	14.2	2.4	1.8	2.3	0.2	100.0
	대학원 졸업	(98)	16.6	31.4	12.7	22.3	5.5	2.8	3.7	3.9	1.1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7.0	24.2	23.1	14.2	5.3	2.2	1.2	2.0	0.8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3.5	21.6	18.8	17.0	9.7	4.1	3.3	1.8	0.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22.2	24.2	21.5	15.9	9.6	2.4	2.3	1.7	0.2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5)	26.0	22.7	19.6	14.2	11.9	1.8	1.6	2.0	0.1	100.0
	700만원 이상	(409)	26.1	26.3	17.9	11.9	11.5	3.1	1.4	1.7	0.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25.5	22.3	20.3	14.3	12.1	1.6	1.7	1.9	0.3	100.0
	기독교	(921)	21.7	21.0	20.5	17.5	8.3	6.3	2.8	1.9	0.1	100.0
	불교	(796)	22.6	30.4	19.6	15.9	5.0	2.5	2.3	1.6	0.1	100.0
	천주교	(263)	24.1	26.8	23.4	13.7	5.0	0.7	3.3	2.2	0.8	100.0
	기타	(9)	10.5	19.4	47.7	22.4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4.0	28.3	19.7	15.6	6.4	2.5	2.1	1.4	0.1	100.0
	중도	(2,262)	24.7	23.0	20.0	16.2	9.1	2.8	2.3	1.6	0.3	100.0
	진보적	(1,337)	23.7	19.2	21.9	12.9	15.3	2.2	1.7	2.7	0.3	100.0

표 17. 배우자 선택 기준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성격	직업 (장태성)	기정환경	재산 (경제력)	외모	종교	학력/학벌	취미	기타
전 체		(5,100)	82.4	35.8	30.2	30.1	12.5	3.7	2.7	2.1	0.4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84.5	34.3	31.4	30.4	12.3	3.0	2.6	1.2	0.3
	중소도시	(2,065)	80.2	36.9	29.1	30.1	13.2	4.5	3.1	2.6	0.3
	읍/면	(665)	81.8	37.9	29.7	28.8	11.4	3.8	2.2	3.5	0.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80.3	37.5	38.6	31.9	4.4	2.2	0.0	3.3	1.8
	판매/영업/서비스	(2,146)	81.0	37.0	30.4	30.7	10.8	4.4	3.2	2.1	0.3
	생산/기능/노무직	(478)	85.1	34.6	35.9	23.4	13.1	1.9	3.3	2.0	0.7
	사무/관리/전문직	(1,067)	84.2	31.4	29.6	27.5	18.1	3.6	2.9	2.5	0.3
	주부	(725)	84.1	40.2	28.7	38.0	3.0	3.1	2.2	0.6	0.1
	학생	(365)	81.4	33.9	19.6	28.6	26.4	4.6	2.7	2.9	0.0
	무직/은퇴/기타	(213)	78.9	36.9	38.2	25.8	13.4	2.5	0.0	2.8	1.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85.5	37.0	37.6	29.0	4.1	2.9	2.1	1.3	0.4
	고등학교 졸업	(2,180)	81.5	37.9	30.7	31.5	9.2	3.8	3.3	1.6	0.4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82.5	34.0	27.9	29.2	17.5	3.6	2.3	2.6	0.3
	대학원 졸업	(98)	83.1	27.6	37.7	22.5	10.9	8.2	5.1	3.9	1.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83.9	39.6	29.5	32.0	7.4	2.6	1.7	2.4	1.0
	200만원 ~ 299만원	(814)	80.9	37.7	28.9	28.9	12.0	6.1	3.4	1.9	0.3
	300만원 ~ 499만원	(1,949)	82.2	32.9	30.8	32.4	12.8	3.4	3.4	1.9	0.3
	500만원 ~ 699만원	(1,366)	82.5	37.3	29.5	28.3	14.4	3.3	2.2	2.3	0.2
	700만원 이상	(409)	83.9	35.9	34.0	24.9	13.2	3.4	1.8	2.1	0.8
종교	종교 없음	(3,111)	83.6	36.8	28.6	29.3	15.0	2.1	2.2	2.0	0.4
	기독교	(921)	79.2	34.1	28.3	30.9	11.3	10.0	3.6	2.6	0.1
	불교	(796)	81.7	34.5	38.1	31.4	5.8	3.1	3.3	1.7	0.4
	천주교	(263)	81.5	35.7	32.1	31.8	8.9	2.7	4.0	2.4	0.8
	기타	(9)	83.0	23.8	41.9	51.4	0.0	0.0	0.0	0.0	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82.0	35.9	35.8	29.3	8.3	3.7	3.2	1.6	0.2
	중도	(2,262)	81.6	36.6	30.3	30.7	11.7	3.9	2.9	1.9	0.5
	진보적	(1,338)	84.2	34.5	23.9	29.9	18.8	3.4	1.9	2.8	0.5

표 18. 집안일의 의사결정권

(단위 : %)

구 분		사례수	독같이	여자 (아내/어머니/딸 며느리 등)	남자 (남편/아버지/아들 /사위 등)	나 혼자 살고 있음	모름/무응답	계
전 체		(5,100)	46.2	28.5	16.4	8.2	0.7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8.1	28.5	14.7	8.0	0.7	100.0
	중소도시	(2,065)	45.2	29.3	17.3	7.7	0.4	100.0
	읍/면	(665)	42.0	26.3	19.6	10.8	1.2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8.4	18.3	36.1	16.1	1.2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47.2	29.4	14.5	8.3	0.6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9.9	26.1	23.4	10.3	0.3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50.7	25.6	14.2	8.6	1.0	100.0
	주부	(725)	45.1	33.4	16.4	4.4	0.7	100.0
	학생	(365)	52.4	28.0	16.1	2.7	0.9	100.0
	무직/은퇴/기타	(213)	28.7	29.2	21.8	19.9	0.3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9.2	32.0	18.7	19.1	1.0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44.8	30.6	17.3	6.9	0.4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51.2	25.8	15.0	7.1	0.9	100.0
	대학원 졸업	(98)	40.5	30.9	17.4	11.3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2.8	22.2	17.1	36.8	1.1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35.8	28.8	17.4	17.5	0.5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50.5	30.2	15.8	2.9	0.6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54.9	27.5	15.9	0.7	0.9	100.0
	700만원 이상	(409)	49.1	31.9	17.7	1.2	0.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47.2	27.6	15.1	9.1	0.9	100.0
	기독교	(921)	46.8	30.1	17.5	5.2	0.4	100.0
	불교	(796)	41.9	29.7	20.0	8.3	0.2	100.0
	천주교	(263)	44.3	29.6	16.9	8.7	0.5	100.0
	기타	(9)	58.1	35.1	6.8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8.9	29.1	22.8	8.8	0.5	100.0
	중도	(2,262)	49.8	27.9	14.3	7.2	0.8	100.0
	진보적	(1,338)	48.1	29.0	12.8	9.5	0.6	100.0

표 19.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혼전순결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8.0	39.3	47.3	46.8	6.0	52.7	100.0	(2.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8.4	40.2	48.6	46.6	4.8	51.4	100.0	(2.5)
	중소도시	(2,065)	7.1	39.6	46.7	46.9	6.4	53.3	100.0	(2.5)
	읍/면	(665)	9.3	34.9	44.2	47.0	8.9	55.8	100.0	(2.4)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0.2	48.8	69.0	29.4	1.5	31.0	100.0	(2.9)
	판매/영업/서비스	(2,146)	8.0	39.5	47.6	47.3	5.1	52.4	100.0	(2.5)
	생산/기능/노무직	(478)	8.4	44.9	53.3	43.2	3.5	46.7	100.0	(2.6)
	사무/관리/전문직	(1,067)	4.4	32.6	37.0	54.4	8.6	63.0	100.0	(2.3)
	주부	(725)	10.3	49.2	59.5	37.3	3.1	40.5	100.0	(2.7)
	학생	(365)	5.1	22.4	27.5	60.0	12.4	72.5	100.0	(2.2)
	무직/은퇴/기타	(213)	15.6	47.5	63.1	29.5	7.5	36.9	100.0	(2.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6.0	55.2	71.2	28.3	0.5	28.8	100.0	(2.9)
	고등학교 졸업	(2,180)	9.1	44.2	53.4	42.4	4.2	46.6	100.0	(2.6)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5.5	31.1	36.6	54.8	8.6	63.4	100.0	(2.3)
	대학원 졸업	(98)	2.9	43.4	46.3	44.4	9.3	53.7	100.0	(2.4)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4.7	47.5	62.2	32.6	5.2	37.8	100.0	(2.7)
	200만원 ~ 299만원	(814)	7.1	39.2	46.3	48.1	5.5	53.7	100.0	(2.5)
	300만원 ~ 499만원	(1,949)	7.2	39.6	46.8	47.1	6.2	53.2	100.0	(2.5)
	500만원 ~ 699만원	(1,366)	7.0	38.3	45.3	49.2	5.5	54.7	100.0	(2.5)
	700만원 이상	(409)	7.6	29.8	37.4	54.1	8.4	62.6	100.0	(2.4)
종교	종교 없음	(3,111)	6.1	35.2	41.2	51.8	7.0	58.8	100.0	(2.4)
	기독교	(921)	9.4	45.3	54.6	41.1	4.2	45.4	100.0	(2.6)
	불교	(796)	13.6	44.8	58.4	37.7	3.9	41.6	100.0	(2.7)
	천주교	(263)	8.9	49.8	58.8	35.1	6.1	41.2	100.0	(2.6)
	기타	(9)	7.5	48.5	56.1	37.6	6.4	43.9	100.0	(2.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4.5	49.2	63.8	33.3	2.9	36.2	100.0	(2.8)
	중도	(2,262)	4.8	37.4	42.2	51.5	6.2	57.8	100.0	(2.4)
	진보적	(1,338)	6.1	31.2	37.3	53.9	8.9	62.7	100.0	(2.3)

표 20.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이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9.8	36.2	46.0	41.9	12.1	54.0	100.0	(2.4)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0.1	37.1	47.2	40.9	11.9	52.8	100.0	(2.5)
	중소도시	(2,065)	8.3	36.8	45.2	43.4	11.5	54.8	100.0	(2.4)
	읍/면	(665)	13.4	31.2	44.6	40.5	14.9	55.4	100.0	(2.4)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2.2	41.9	64.1	31.6	4.3	35.9	100.0	(2.8)
	판매/영업/서비스	(2,146)	9.8	38.7	48.5	40.8	10.7	51.5	100.0	(2.5)
	생산/기능/노무직	(478)	12.5	38.0	50.5	38.8	10.6	49.5	100.0	(2.5)
	사무/관리/전문직	(1,067)	6.5	30.7	37.2	45.5	17.3	62.8	100.0	(2.3)
	주부	(725)	11.3	40.7	52.1	39.9	8.0	47.9	100.0	(2.6)
	학생	(365)	5.1	22.8	27.9	54.8	17.4	72.1	100.0	(2.2)
	무직/은퇴/기타	(213)	16.9	39.8	56.8	30.7	12.5	43.2	100.0	(2.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7.7	49.8	67.5	28.9	3.6	32.5	100.0	(2.8)
	고등학교 졸업	(2,180)	11.8	39.7	51.5	38.5	9.9	48.5	100.0	(2.5)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2	30.6	36.8	47.4	15.7	63.2	100.0	(2.3)
	대학원 졸업	(98)	10.4	25.7	36.1	47.4	16.5	63.9	100.0	(2.3)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6.4	40.5	56.9	32.3	10.8	43.1	100.0	(2.6)
	200만원 ~ 299만원	(814)	9.3	37.6	46.8	41.4	11.8	53.2	100.0	(2.4)
	300만원 ~ 499만원	(1,949)	8.4	37.0	45.4	43.4	11.3	54.6	100.0	(2.4)
	500만원 ~ 699만원	(1,366)	8.8	35.0	43.8	44.0	12.3	56.2	100.0	(2.4)
	700만원 이상	(409)	12.0	28.3	40.3	41.6	18.1	59.7	100.0	(2.3)
종교	종교 없음	(3,111)	7.0	35.1	42.0	44.4	13.6	58.0	100.0	(2.4)
	기독교	(921)	12.8	37.3	50.1	39.7	10.2	49.9	100.0	(2.5)
	불교	(796)	15.7	39.7	55.4	36.2	8.5	44.6	100.0	(2.6)
	천주교	(263)	14.9	35.6	50.5	38.1	11.4	49.5	100.0	(2.5)
	기타	(9)	18.6	45.9	64.5	6.8	28.8	35.5	100.0	(2.5)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6.2	44.1	60.4	32.1	7.5	39.6	100.0	(2.7)
	중도	(2,262)	7.3	36.2	43.6	44.8	11.7	56.4	100.0	(2.4)
	진보적	(1,338)	6.7	27.4	34.2	47.9	18.0	65.8	100.0	(2.2)

표 21.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거(사실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0.7	52.8	63.5	29.2	7.4	36.5	100.0	(2.7)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1.1	52.6	63.7	28.6	7.7	36.3	100.0	(2.7)
	중소도시	(2,065)	10.0	54.0	63.9	29.0	7.1	36.1	100.0	(2.7)
	읍/면	(665)	11.3	49.9	61.2	31.6	7.2	38.8	100.0	(2.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2.0	45.4	57.4	35.4	7.3	42.6	100.0	(2.6)
	판매/영업/서비스	(2,146)	11.2	53.8	65.1	27.7	7.2	34.9	100.0	(2.7)
	생산/기능/노무직	(478)	14.7	44.9	59.6	32.1	8.3	40.4	100.0	(2.7)
	사무/관리/전문직	(1,067)	10.1	56.3	66.5	26.9	6.6	33.5	100.0	(2.7)
	주부	(725)	8.5	51.5	60.0	33.1	6.9	40.0	100.0	(2.6)
	학생	(365)	6.8	53.7	60.5	30.4	9.1	39.5	100.0	(2.6)
	무직/은퇴/기타	(213)	11.4	49.3	60.7	30.3	9.0	39.3	100.0	(2.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1.8	49.5	61.3	31.9	6.8	38.7	100.0	(2.7)
	고등학교 졸업	(2,180)	11.3	50.0	61.3	31.3	7.4	38.7	100.0	(2.7)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9.8	55.9	65.7	26.8	7.6	34.3	100.0	(2.7)
	대학원 졸업	(98)	10.6	60.6	71.2	24.7	4.1	28.8	100.0	(2.8)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1.5	49.2	60.7	32.2	7.1	39.3	100.0	(2.7)
	200만원 ~ 299만원	(814)	12.6	48.2	60.8	31.4	7.8	39.2	100.0	(2.7)
	300만원 ~ 499만원	(1,949)	9.8	52.6	62.4	30.0	7.5	37.6	100.0	(2.6)
	500만원 ~ 699만원	(1,366)	9.6	56.7	66.2	27.0	6.8	33.8	100.0	(2.7)
	700만원 이상	(409)	13.2	55.1	68.3	23.9	7.8	31.7	100.0	(2.7)
종교	종교 없음	(3,111)	10.0	54.1	64.1	28.8	7.1	35.9	100.0	(2.7)
	기독교	(921)	10.8	50.8	61.6	28.5	9.9	38.4	100.0	(2.6)
	불교	(796)	12.9	49.4	62.2	32.0	5.8	37.8	100.0	(2.7)
	천주교	(263)	11.3	54.9	66.2	27.6	6.2	33.8	100.0	(2.7)
	기타	(9)	7.5	56.0	63.5	28.1	8.4	36.5	100.0	(2.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2.6	48.9	61.6	30.5	8.0	38.4	100.0	(2.7)
	중도	(2,262)	8.1	53.9	62.0	30.7	7.3	38.0	100.0	(2.6)
	진보적	(1,338)	12.7	55.4	68.1	25.1	6.8	31.9	100.0	(2.7)

표 22.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동성결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3.0	17.0	20.1	36.5	43.4	79.9	100.0	(1.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9	17.0	20.0	39.7	40.3	80.0	100.0	(1.8)
	중소도시	(2,065)	3.6	19.4	23.0	35.4	41.6	77.0	100.0	(1.9)
	읍/면	(665)	1.5	9.8	11.3	28.6	60.1	88.7	100.0	(1.5)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0.2	8.9	9.1	24.0	66.9	90.9	100.0	(1.4)
	판매/영업/서비스	(2,146)	2.5	17.2	19.7	35.3	45.0	80.3	100.0	(1.8)
	생산/기능/노무직	(478)	1.7	12.6	14.3	35.7	50.0	85.7	100.0	(1.7)
	사무/관리/전문직	(1,067)	4.1	20.1	24.2	37.2	38.6	75.8	100.0	(1.9)
	주부	(725)	2.0	12.4	14.4	41.1	44.5	85.6	100.0	(1.7)
	학생	(365)	6.8	26.4	33.2	35.6	31.2	66.8	100.0	(2.1)
	무직/은퇴/기타	(213)	4.6	13.6	18.2	39.3	42.5	81.8	100.0	(1.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2	8.0	9.3	33.4	57.3	90.7	100.0	(1.5)
	고등학교 졸업	(2,180)	2.4	14.3	16.7	36.7	46.6	83.3	100.0	(1.7)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9	21.5	25.4	37.0	37.6	74.6	100.0	(1.9)
	대학원 졸업	(98)	5.0	15.8	20.8	36.1	43.2	79.2	100.0	(1.8)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6	15.1	18.7	33.4	47.9	81.3	100.0	(1.7)
	200만원 ~ 299만원	(814)	2.2	14.7	16.9	33.5	49.6	83.1	100.0	(1.7)
	300만원 ~ 499만원	(1,949)	3.2	18.0	21.2	38.3	40.5	78.8	100.0	(1.8)
	500만원 ~ 699만원	(1,366)	3.2	17.6	20.9	37.4	41.8	79.1	100.0	(1.8)
	700만원 이상	(409)	2.2	17.9	20.2	35.2	44.6	79.8	100.0	(1.8)
종교	종교 없음	(3,111)	3.4	18.3	21.7	38.0	40.3	78.3	100.0	(1.8)
	기독교	(921)	2.1	14.9	17.0	33.5	49.6	83.0	100.0	(1.7)
	불교	(796)	2.4	14.8	17.1	35.9	47.0	82.9	100.0	(1.7)
	천주교	(263)	3.8	16.8	20.6	31.5	47.9	79.4	100.0	(1.8)
	기타	(9)	0.0	15.2	15.2	33.4	51.4	84.8	100.0	(1.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7	11.8	14.5	36.9	48.7	85.5	100.0	(1.7)
	중도	(2,262)	2.5	16.7	19.2	37.4	43.4	80.8	100.0	(1.8)
	진보적	(1,338)	4.2	23.5	27.7	34.7	37.6	72.3	100.0	(1.9)

표 23.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낙태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0.3	39.7	50.0	43.4	6.7	50.0	100.0	(2.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9.7	39.0	48.7	45.7	5.5	51.3	100.0	(2.5)
	중소도시	(2,065)	10.3	39.6	49.9	42.3	7.8	50.1	100.0	(2.5)
	읍/면	(665)	11.9	42.8	54.8	38.1	7.1	45.2	100.0	(2.6)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2.9	45.0	57.8	35.7	6.5	42.2	100.0	(2.6)
	판매/영업/서비스	(2,146)	10.2	42.2	52.5	42.5	5.0	47.5	100.0	(2.6)
	생산/기능/노무직	(478)	10.4	42.1	52.5	41.0	6.5	47.5	100.0	(2.6)
	사무/관리/전문직	(1,067)	7.1	34.7	41.8	48.8	9.4	58.2	100.0	(2.4)
	주부	(725)	12.7	40.3	53.1	41.1	5.8	46.9	100.0	(2.6)
	학생	(365)	7.2	34.7	41.8	50.1	8.1	58.2	100.0	(2.4)
	무직/은퇴/기타	(213)	21.7	38.2	59.9	30.0	10.1	40.1	100.0	(2.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3.9	49.1	63.1	33.4	3.6	36.9	100.0	(2.7)
	고등학교 졸업	(2,180)	11.9	42.7	54.6	40.3	5.0	45.4	100.0	(2.6)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8.0	35.3	43.3	48.2	8.5	56.7	100.0	(2.4)
	대학원 졸업	(98)	9.9	30.9	40.8	44.8	14.4	59.2	100.0	(2.4)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4.5	41.8	56.4	36.0	7.7	43.6	100.0	(2.6)
	200만원 ~ 299만원	(814)	9.8	40.1	49.8	43.7	6.4	50.2	100.0	(2.5)
	300만원 ~ 499만원	(1,949)	9.8	41.8	51.5	41.4	7.0	48.5	100.0	(2.5)
	500만원 ~ 699만원	(1,366)	9.6	39.0	48.6	46.6	4.9	51.4	100.0	(2.5)
	700만원 이상	(409)	9.9	28.8	38.8	51.3	9.9	61.2	100.0	(2.4)
종교	종교 없음	(3,111)	7.7	38.5	46.2	46.4	7.4	53.8	100.0	(2.5)
	기독교	(921)	15.5	42.1	57.7	36.3	6.0	42.3	100.0	(2.7)
	불교	(796)	11.2	42.5	53.7	41.1	5.2	46.3	100.0	(2.6)
	천주교	(263)	18.9	37.2	56.1	38.8	5.1	43.9	100.0	(2.7)
	기타	(9)	14.3	39.9	54.2	45.8	0.0	45.8	100.0	(2.7)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5.1	43.0	58.1	35.9	6.0	41.9	100.0	(2.7)
	중도	(2,262)	7.8	41.0	48.8	45.0	6.2	51.2	100.0	(2.5)
	진보적	(1,338)	9.0	33.9	42.9	48.9	8.2	57.1	100.0	(2.4)

표 24.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자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4.5	45.4	59.9	34.4	5.7	40.1	100.0	(2.7)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4.7	47.4	62.1	32.7	5.2	37.9	100.0	(2.7)
	중소도시	(2,065)	13.2	43.2	56.5	37.3	6.2	43.5	100.0	(2.6)
	읍/면	(665)	18.0	44.5	62.5	31.6	5.9	37.5	100.0	(2.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3.8	48.4	82.2	14.4	3.4	17.8	100.0	(3.1)
	판매/영업/서비스	(2,146)	14.3	47.7	61.9	33.8	4.3	38.1	100.0	(2.7)
	생산/기능/노무직	(478)	19.3	50.6	69.9	25.4	4.7	30.1	100.0	(2.8)
	사무/관리/전문직	(1,067)	9.3	37.5	46.9	44.6	8.5	53.1	100.0	(2.5)
	주부	(725)	18.7	55.3	74.0	22.5	3.5	26.0	100.0	(2.9)
	학생	(365)	3.5	26.8	30.3	58.0	11.8	69.7	100.0	(2.2)
	무직/은퇴/기타	(213)	27.6	45.8	73.3	20.1	6.5	26.7	100.0	(2.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4.9	48.9	83.8	15.4	0.8	16.2	100.0	(3.2)
	고등학교 졸업	(2,180)	15.3	51.4	66.8	29.6	3.6	33.2	100.0	(2.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9.4	39.2	48.6	42.9	8.5	51.4	100.0	(2.5)
	대학원 졸업	(98)	15.4	39.8	55.2	35.5	9.2	44.8	100.0	(2.6)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3.9	45.2	69.2	25.3	5.6	30.8	100.0	(2.9)
	200만원 ~ 299만원	(814)	16.4	43.2	59.7	34.5	5.9	40.3	100.0	(2.7)
	300만원 ~ 499만원	(1,949)	13.0	48.4	61.3	33.2	5.5	38.7	100.0	(2.7)
	500만원 ~ 699만원	(1,366)	11.3	45.5	56.7	37.9	5.4	43.3	100.0	(2.6)
	700만원 이상	(409)	16.1	35.1	51.2	41.0	7.8	48.8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111)	11.4	44.1	55.5	38.3	6.2	44.5	100.0	(2.6)
	기독교	(921)	17.4	46.3	63.7	31.4	4.9	36.3	100.0	(2.8)
	불교	(796)	21.9	48.1	70.0	25.5	4.5	30.0	100.0	(2.9)
	천주교	(263)	18.5	48.4	66.9	26.4	6.7	33.1	100.0	(2.8)
	기타	(9)	25.3	54.3	79.6	20.4	0.0	20.4	100.0	(3.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2.0	52.0	74.0	22.8	3.2	26.0	100.0	(2.9)
	중도	(2,262)	11.5	45.3	56.8	37.6	5.5	43.2	100.0	(2.6)
	진보적	(1,338)	11.3	37.9	49.2	42.1	8.8	50.8	100.0	(2.5)

표 25.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 부모 봉양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7.1	44.4	51.5	43.8	4.7	48.5	100.0	(2.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6.9	46.5	53.4	42.0	4.6	46.6	100.0	(2.6)
	중소도시	(2,065)	6.8	43.3	50.1	44.8	5.1	49.9	100.0	(2.5)
	읍/면	(665)	9.0	40.2	49.2	46.9	3.8	50.8	100.0	(2.5)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4.3	42.6	56.9	39.4	3.8	43.1	100.0	(2.7)
	판매/영업/서비스	(2,146)	6.2	44.6	50.8	44.6	4.6	49.2	100.0	(2.5)
	생산/기능/노무직	(478)	7.3	46.2	53.5	41.9	4.6	46.5	100.0	(2.6)
	사무/관리/전문직	(1,067)	7.6	41.3	48.9	45.8	5.3	51.1	100.0	(2.5)
	주부	(725)	6.1	49.8	55.9	39.3	4.8	44.1	100.0	(2.6)
	학생	(365)	7.3	36.2	43.5	52.8	3.7	56.5	100.0	(2.5)
	무직/은퇴/기타	(213)	13.5	49.9	63.4	31.2	5.5	36.6	100.0	(2.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0.2	51.2	61.4	37.1	1.4	38.6	100.0	(2.7)
	고등학교 졸업	(2,180)	6.4	45.6	52.0	43.5	4.6	48.0	100.0	(2.5)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7.2	41.9	49.1	45.6	5.4	50.9	100.0	(2.5)
	대학원 졸업	(98)	7.9	42.3	50.3	40.5	9.3	49.7	100.0	(2.5)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0.1	45.0	55.1	40.4	4.5	44.9	100.0	(2.6)
	200만원 ~ 299만원	(814)	7.0	44.1	51.1	43.2	5.7	48.9	100.0	(2.5)
	300만원 ~ 499만원	(1,949)	7.0	43.4	50.4	44.8	4.8	49.6	100.0	(2.5)
	500만원 ~ 699만원	(1,366)	5.5	46.3	51.8	44.4	3.8	48.2	100.0	(2.5)
	700만원 이상	(409)	9.5	42.0	51.6	42.4	6.0	48.4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111)	6.4	43.8	50.2	44.7	5.1	49.8	100.0	(2.5)
	기독교	(921)	7.7	47.7	55.4	40.7	3.9	44.6	100.0	(2.6)
	불교	(796)	9.4	43.9	53.3	41.9	4.8	46.7	100.0	(2.6)
	천주교	(263)	7.3	40.5	47.9	48.8	3.4	52.1	100.0	(2.5)
	기타	(9)	0.0	56.7	56.7	43.3	0.0	43.3	100.0	(2.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9.9	48.2	58.1	38.2	3.7	41.9	100.0	(2.6)
	중도	(2,262)	5.8	45.5	51.3	43.4	5.3	48.7	100.0	(2.5)
	진보적	(1,338)	6.3	38.3	44.6	50.6	4.9	55.4	100.0	(2.5)

표 26. 가정 경제 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중산층보다 낮다	중산층이다	중산층보다 높다	계
전 체		(5,100)	59.8	34.6	5.7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56.9	37.8	5.3	100.0
	중소도시	(2,065)	64.0	30.3	5.7	100.0
	읍/면	(665)	57.2	36.3	6.5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61.3	28.3	10.4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66.0	29.4	4.6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75.8	21.5	2.8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44.3	48.6	7.2	100.0
	주부	(725)	57.7	36.6	5.7	100.0
	학생	(365)	45.3	44.1	10.6	100.0
	무직/은퇴/기타	(213)	70.7	24.9	4.4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82.7	14.0	3.3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68.6	27.3	4.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48.0	45.1	6.9	100.0
	대학원 졸업	(98)	30.0	49.4	20.6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82.0	16.4	1.5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71.4	25.5	3.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63.2	32.2	4.6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48.5	44.3	7.2	100.0
	700만원 이상	(409)	27.5	56.5	16.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62.0	32.9	5.1	100.0
	기독교	(921)	56.7	36.7	6.6	100.0
	불교	(796)	58.2	35.8	6.1	100.0
	천주교	(263)	49.9	42.4	7.8	100.0
	기타	(9)	48.3	51.7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62.3	32.1	5.5	100.0
	중도	(2,262)	58.8	35.2	6.0	100.0
	진보적	(1,338)	58.6	36.2	5.2	100.0

표 27. 주변과 자신의 생활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내 생활수준보다 꽤 낮다	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내 생활수준보다 꽤 높다	계	
전 체	(5,100)	1.5	9.9	67.0	19.7	1.9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9	10.3	64.5	21.2	2.1	100.0
	중소도시	(2,065)	1.0	10.2	68.2	19.0	1.7	100.0
	읍/면	(665)	1.5	8.1	71.9	17.0	1.5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0	6.0	66.7	21.8	3.5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1.1	9.9	67.4	20.0	1.6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1.7	13.4	58.2	23.4	3.3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1.2	8.5	71.7	17.4	1.2	100.0
	주부	(725)	1.5	10.5	65.7	20.4	1.9	100.0
	학생	(365)	1.4	7.4	76.4	13.5	1.4	100.0
	무직/은퇴/기타	(213)	5.8	14.2	46.4	28.4	5.2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9	8.8	55.2	27.2	4.9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1.3	11.7	64.3	20.9	1.8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2	8.2	72.5	17.0	1.2	100.0
	대학원 졸업	(98)	1.6	17.6	54.0	22.0	4.7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1	7.1	52.2	31.0	4.6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1.5	12.9	58.1	24.7	2.8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1.1	9.3	68.7	19.6	1.3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0.4	10.2	73.6	14.4	1.4	100.0
	700만원 이상	(409)	1.9	10.3	74.5	12.8	0.5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1.5	10.4	67.1	19.5	1.6	100.0
	기독교	(921)	1.6	9.8	65.5	20.9	2.2	100.0
	불교	(796)	1.5	8.6	68.2	18.9	2.8	100.0
	천주교	(263)	1.0	9.7	66.0	21.2	2.0	100.0
	기타	(9)	3.7	0.0	79.7	16.6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9	10.0	63.5	22.2	2.4	100.0
	중도	(2,262)	1.5	10.5	70.1	16.5	1.5	100.0
	진보적	(1,338)	1.0	9.0	65.6	22.5	2.0	100.0

표 28.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보수/급여	개인의 적성	안정성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장래성	주위의 평가	사회 기여도	지리적 위치	계
전 체		(5,100)	34.9	25.5	18.7	10.7	5.9	3.4	0.6	0.2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5.3	26.3	18.1	11.0	5.4	3.1	0.6	0.1	100.0
	중소도시	(2,065)	33.8	26.2	18.5	11.1	6.0	3.4	0.7	0.2	100.0
	읍/면	(665)	36.9	20.7	21.7	8.3	7.1	4.4	0.3	0.6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0.1	21.2	30.1	6.0	7.3	0.4	3.5	1.4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5.9	25.0	18.0	10.1	5.9	4.6	0.5	0.1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6.2	21.6	21.1	9.0	7.1	4.6	0.0	0.3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2.5	28.1	18.3	13.0	4.6	2.3	1.1	0.2	100.0
	주부	(725)	36.6	22.5	20.8	11.0	6.4	2.3	0.3	0.1	100.0
	학생	(365)	33.9	35.0	11.9	9.9	6.4	2.1	0.8	0.0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3.0	23.4	22.8	11.7	7.0	2.1	0.0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1.9	19.8	27.6	8.8	6.9	3.8	0.8	0.5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9.0	21.2	19.2	10.4	5.0	4.5	0.5	0.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1.9	30.3	16.8	11.4	6.4	2.5	0.7	0.1	100.0
	대학원 졸업	(98)	30.5	38.6	11.2	9.1	8.1	0.0	1.5	1.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3.1	23.7	21.7	10.5	6.2	4.1	0.3	0.4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37.3	22.7	19.0	9.7	4.8	5.7	0.6	0.2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6.5	23.2	19.7	10.5	6.1	3.2	0.7	0.1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3.5	28.7	17.3	11.2	6.3	2.7	0.3	0.1	100.0
	700만원 이상	(409)	30.2	34.4	14.5	12.3	5.2	1.7	1.3	0.4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5.5	25.2	18.2	10.7	6.2	3.5	0.5	0.1	100.0
	기독교	(921)	32.3	26.5	20.2	10.5	5.2	4.2	1.0	0.2	100.0
	불교	(796)	35.6	25.5	20.0	9.6	6.0	2.6	0.6	0.2	100.0
	천주교	(263)	35.7	25.7	15.3	15.0	4.3	2.6	0.8	0.5	100.0
	기타	(9)	26.4	35.7	37.9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4.7	26.0	19.2	10.4	6.0	3.2	0.4	0.1	100.0
	중도	(2,262)	37.0	24.6	18.2	10.3	4.8	4.3	0.6	0.2	100.0
	진보적	(1,338)	31.7	26.5	19.1	11.8	7.7	2.2	0.9	0.2	100.0

표 29.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안정성	보수/급여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개인의 적성	정래성	주위의 평가	사회 기여도	자리적 위치	기타	계
전 체		(5,100)	25.5	20.0	19.4	14.4	14.3	2.8	2.5	1.0	0.0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5.0	21.9	17.2	14.8	16.6	2.1	1.6	0.9	0.0	100.0
	중소도시	(2,065)	24.8	19.5	21.7	14.1	12.4	3.3	3.0	1.3	0.0	100.0
	읍/면	(665)	29.5	14.8	20.3	14.1	12.0	4.0	4.4	0.9	0.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3.8	18.0	18.4	11.8	18.2	6.1	2.3	1.4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26.7	19.5	19.2	14.7	14.3	2.3	2.0	1.3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25.2	21.5	22.0	14.2	9.5	2.4	4.3	0.8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3.1	20.8	21.4	14.4	13.2	2.7	3.3	1.1	0.0	100.0
	주부	(725)	26.9	19.2	15.4	14.3	16.7	4.2	3.0	0.3	0.0	100.0
	학생	(365)	22.3	21.4	20.4	15.2	15.5	3.2	0.8	1.2	0.0	100.0
	무직/은퇴/기타	(213)	27.4	18.6	18.4	12.6	19.1	1.9	1.5	0.5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9.2	18.8	15.3	13.6	14.9	5.2	2.6	0.5	0.0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27.9	17.9	18.7	14.8	13.8	2.8	3.0	1.0	0.0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2.9	21.9	20.9	14.4	14.8	2.3	1.8	1.0	0.0	100.0
	대학원 졸업	(98)	16.3	26.7	17.5	10.6	11.2	3.9	8.9	4.7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9.0	18.1	17.2	13.5	14.9	4.5	2.3	0.5	0.1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5.2	19.5	23.1	12.9	11.8	2.6	3.5	1.4	0.0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25.0	20.0	18.7	15.9	13.9	2.7	2.5	1.3	0.0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26.0	21.3	18.1	13.7	16.0	2.2	1.9	0.8	0.0	100.0
	700만원 이상	(409)	22.0	19.2	22.6	14.5	14.5	3.4	3.0	0.7	0.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26.9	20.6	18.9	15.4	13.0	2.4	1.8	1.1	0.0	100.0
	기독교	(921)	21.3	21.4	20.3	11.0	17.3	3.5	4.3	1.0	0.0	100.0
	불교	(796)	26.2	17.1	19.2	13.7	16.1	4.0	3.3	0.6	0.0	100.0
	천주교	(263)	22.2	16.6	22.2	17.4	14.9	2.3	2.8	1.7	0.0	100.0
	기타	(9)	29.9	21.3	29.9	18.9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6.3	20.2	18.3	13.5	14.5	3.6	2.5	1.2	0.0	100.0
	중도	(2,262)	27.7	18.2	19.6	14.7	14.0	2.6	2.5	0.9	0.0	100.0
	진보적	(1,338)	21.0	22.8	20.3	15.1	14.6	2.4	2.6	1.2	0.0	100.0

표 30. 직업 선택시 중요 요소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보수/급여	안정성	개인의 적성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장래성	주위의 평가	사회 기여도	지리적 위치	기타
전 체		(5,100)	54.9	44.3	40.0	30.1	20.2	6.2	3.1	1.2	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57.2	43.2	41.1	28.2	22.0	5.2	2.2	0.9	0.0
	중소도시	(2,065)	53.3	43.3	40.3	32.7	18.4	6.7	3.7	1.4	0.0
	읍/면	(665)	51.7	51.2	34.8	28.6	19.1	8.4	4.7	1.5	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8.1	53.9	33.0	24.4	25.4	6.6	5.8	2.8	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55.4	44.7	39.6	29.2	20.1	6.9	2.5	1.4	0.0
	생산/기능/노무직	(478)	57.7	46.3	35.9	31.1	16.6	7.0	4.3	1.2	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53.3	41.3	42.5	34.4	17.7	5.0	4.4	1.4	0.0
	주부	(725)	55.7	47.7	36.9	26.3	23.0	6.6	3.3	0.4	0.0
	학생	(365)	55.3	34.2	50.3	30.3	21.9	5.2	1.7	1.2	0.0
	무직/은퇴/기타	(213)	51.6	50.1	36.0	30.1	26.1	4.1	1.5	0.5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50.7	56.8	33.4	24.1	21.8	9.0	3.3	1.0	0.0
	고등학교 졸업	(2,180)	57.0	47.2	36.0	29.2	18.8	7.3	3.5	1.2	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53.8	39.6	44.7	32.3	21.2	4.8	2.5	1.1	0.0
	대학원 졸업	(98)	57.2	27.5	49.2	26.7	19.4	3.9	10.4	5.7	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1.2	50.7	37.2	27.6	21.1	8.7	2.6	0.8	0.1
	200만원 ~ 299만원	(814)	56.8	44.2	35.6	32.8	16.6	8.3	4.1	1.6	0.0
	300만원 ~ 499만원	(1,949)	56.4	44.7	39.0	29.2	20.0	5.9	3.3	1.4	0.0
	500만원 ~ 699만원	(1,366)	54.8	43.3	42.4	29.2	22.3	4.8	2.2	0.9	0.0
	700만원 이상	(409)	49.4	36.5	48.9	35.0	19.7	5.0	4.3	1.2	0.0
종교	종교 없음	(3,111)	56.1	45.1	40.6	29.6	19.2	5.9	2.3	1.3	0.0
	기독교	(921)	53.7	41.4	37.5	30.8	22.5	7.7	5.2	1.1	0.0
	불교	(796)	52.6	46.2	39.2	28.8	22.0	6.6	3.9	0.8	0.0
	천주교	(263)	52.3	37.5	43.1	37.2	19.2	4.9	3.6	2.2	0.0
	기타	(9)	47.7	67.8	54.6	29.9	0.0	0.0	0.0	0.0	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5.0	45.5	39.5	28.6	20.5	6.8	2.9	1.3	0.0
	중도	(2,262)	55.1	45.9	39.3	29.8	18.7	6.9	3.2	1.0	0.0
	진보적	(1,338)	54.5	40.1	41.6	32.1	22.3	4.6	3.4	1.4	0.0

표 31. 일과 여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기고 있다	일과 여가를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	일이 중상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기고 있다	여기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계	
전 체	(5,100)	4.2	12.9	34.6	39.3	9.1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8	10.8	34.3	41.5	8.6	100.0
	중소도시	(2,065)	3.4	13.9	36.5	36.5	9.6	100.0
	읍/면	(665)	4.4	16.8	29.4	40.4	9.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8	17.4	30.8	38.1	1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1.8	11.8	34.5	39.6	12.3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0	12.3	30.1	41.5	13.1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1.6	13.3	33.6	46.4	5.1	100.0
	주부	(725)	10.0	13.8	35.3	35.3	5.5	100.0
	학생	(365)	3.8	13.5	45.2	31.8	5.8	100.0
	무직/은퇴/기타	(213)	25.2	15.9	31.2	22.8	4.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4.3	14.3	30.3	30.1	10.9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4	13.3	33.6	39.6	10.0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8	12.1	36.0	41.4	7.7	100.0
	대학원 졸업	(98)	5.6	12.2	43.4	28.7	10.2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0.4	12.9	32.9	33.8	10.0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5.7	15.0	35.5	35.4	8.5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0	11.7	33.8	42.1	9.4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2.4	12.8	34.7	41.1	9.0	100.0
	700만원 이상	(409)	4.5	14.0	38.6	35.4	7.5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0	13.3	33.1	41.7	8.9	100.0
	기독교	(921)	4.3	13.9	39.7	34.5	7.5	100.0
	불교	(796)	7.8	10.7	33.9	36.8	10.9	100.0
	천주교	(263)	6.7	11.0	35.7	34.8	11.7	100.0
	기타	(9)	3.7	0.0	35.0	61.3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6.9	13.4	31.5	37.2	11.0	100.0
	중도	(2,262)	3.3	14.4	36.3	37.9	8.0	100.0
	진보적	(1,338)	2.7	9.7	35.1	43.9	8.6	100.0

표 32.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이 등)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다 (파트타임, 투잡 등)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자기계발에 투자할 것이다	친구/ 지인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이 등)	영상 시청, 게임 등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것이다	계	
전 체	(5,100)	31.4	27.6	12.1	7.1	6.5	6.1	6.0	3.2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2.6	27.5	11.4	7.9	5.4	6.3	5.5	3.4	100.0
	중소도시	(2,065)	31.3	27.7	12.3	6.2	7.3	6.6	5.6	2.9	100.0
	읍/면	(665)	27.7	27.3	13.6	6.7	7.8	4.2	8.9	3.8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7.2	29.2	12.3	9.5	7.9	2.6	9.6	1.6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0.0	28.3	13.4	7.5	8.0	3.8	5.6	3.4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27.2	31.3	11.5	11.1	3.7	5.0	6.8	3.4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5.7	25.7	12.4	4.5	5.3	7.8	5.5	3.1	100.0
	주부	(725)	34.9	28.2	12.4	5.9	6.9	3.8	6.1	1.8	100.0
	학생	(365)	31.2	19.4	5.6	7.5	4.4	21.2	5.6	5.1	100.0
	무직/은퇴/기타	(213)	24.9	32.6	7.6	9.4	4.1	8.0	9.3	4.1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2.5	35.0	15.3	6.6	9.0	1.6	8.4	1.6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29.8	28.8	12.8	7.7	7.4	3.3	6.6	3.5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4.8	25.2	10.8	6.4	5.1	9.3	4.9	3.4	100.0
	대학원 졸업	(98)	31.0	18.1	10.7	12.3	6.7	14.9	5.7	0.5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8.1	29.7	11.6	7.8	7.8	4.1	8.2	2.7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8.7	30.2	8.8	8.0	10.4	4.5	4.3	5.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1.5	28.1	13.1	7.0	6.1	5.1	6.0	3.0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4.5	25.0	12.3	6.4	4.6	7.7	6.9	2.6	100.0
	700만원 이상	(409)	31.2	25.3	13.2	7.1	5.0	11.7	3.1	3.4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3.5	26.5	11.5	6.7	6.1	5.8	6.5	3.3	100.0
	기독교	(921)	26.6	25.6	14.2	8.3	8.2	8.8	4.7	3.6	100.0
	불교	(796)	31.0	30.7	12.6	7.2	6.1	3.9	6.1	2.5	100.0
	천주교	(263)	24.3	37.4	9.9	7.0	6.2	7.1	4.5	3.6	100.0
	기타	(9)	50.5	42.0	0.0	0.0	7.5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0.2	30.6	13.3	6.8	5.6	5.2	5.9	2.5	100.0
	중도	(2,262)	29.9	28.4	11.5	7.0	8.1	6.1	5.6	3.5	100.0
	진보적	(1,338)	35.4	22.9	11.7	7.7	4.7	7.2	6.8	3.6	100.0

표 33.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이 등)	친구/ 지인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이 등)	영상 시청, 게임 등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것이다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다 (파트타임, 투잡 등)	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자기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계	
전 체	(5,100)	25.1	22.1	15.9	15.5	7.2	5.2	4.5	4.4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6.0	22.2	15.6	16.1	6.3	4.9	4.9	100.0	
	중소도시	(2,065)	24.1	22.1	16.5	14.0	8.1	5.5	4.4	100.0	
	읍/면	(665)	24.9	21.6	15.4	17.6	8.0	5.5	4.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0.9	32.1	14.0	14.4	4.9	5.8	4.4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24.7	23.0	15.7	15.3	8.4	4.6	4.8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25.5	23.1	18.6	17.3	5.4	2.1	5.8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7.6	20.5	15.3	12.7	6.8	6.2	3.5	100.0	
	주부	(725)	23.2	22.0	21.0	16.3	4.0	6.4	5.3	100.0	
	학생	(365)	23.6	17.0	8.8	21.9	9.0	5.8	4.2	9.8	100.0
	무직/은퇴/기타	(213)	26.2	22.4	11.9	14.0	11.3	7.9	3.1	3.3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2.8	23.8	15.8	21.2	6.8	4.4	4.4	0.8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24.2	21.2	18.4	16.4	7.5	4.8	5.2	2.4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6.2	22.5	13.8	13.8	7.3	5.6	4.1	6.8	100.0
	대학원 졸업	(98)	29.5	24.6	13.8	5.3	1.8	11.3	1.7	12.1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2.2	26.8	12.1	18.9	8.0	4.9	4.6	2.6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2.5	21.6	19.5	14.2	8.9	4.5	5.1	3.7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25.5	22.4	17.0	14.8	7.4	4.5	4.9	3.6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25.8	21.1	14.9	16.5	5.9	6.2	4.4	5.2	100.0
	700만원 이상	(409)	29.9	18.6	12.7	13.1	6.7	7.0	2.6	9.3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24.7	21.5	15.8	16.7	7.8	4.1	5.1	4.3	100.0
	기독교	(921)	24.6	22.8	14.6	12.9	7.2	9.6	3.8	4.6	100.0
	불교	(796)	24.9	25.3	19.0	13.3	5.6	4.6	3.8	3.5	100.0
	천주교	(263)	31.7	17.1	12.1	17.0	6.0	5.2	3.3	7.5	100.0
	기타	(9)	31.5	13.9	35.7	10.5	0.0	0.0	0.0	8.4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4.8	25.5	15.8	14.1	6.2	5.4	4.9	3.3	100.0
	중도	(2,262)	25.2	20.6	16.3	15.9	8.1	5.4	4.5	4.1	100.0
	진보적	(1,338)	25.3	20.7	15.5	16.4	7.0	4.7	4.2	6.3	100.0

표 34. 희망하는 여가시간 사용방법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기 등)	친구/지인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 (대화, 놀기 등)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추기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파트타임, 투잡 등)	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자기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영상 시청, 게임 등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것이다
전 체		(5,100)	56.5	49.7	28.0	21.5	11.7	11.6	10.5	10.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58.5	49.8	27.0	21.6	10.3	12.8	10.3	9.7
	중소도시	(2,065)	55.5	49.8	28.9	19.7	12.8	10.6	11.9	11.0
	읍/면	(665)	52.6	48.9	29.0	26.5	13.3	10.7	7.2	11.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8.1	61.3	26.3	24.0	13.7	13.9	6.1	6.5
	판매/영업/서비스	(2,146)	54.7	51.3	29.1	20.9	12.7	12.2	7.3	11.8
	생산/기능/노무직	(478)	52.8	54.4	30.1	24.1	5.8	16.9	7.1	8.8
	사무/관리/전문직	(1,067)	63.3	46.2	27.7	18.2	11.5	8.0	15.2	9.9
	주부	(725)	58.0	50.2	33.4	22.4	13.4	11.3	5.6	5.8
	학생	(365)	54.7	36.4	14.5	27.5	10.2	11.7	31.0	14.0
	무직/은퇴/기타	(213)	51.2	55.0	19.5	23.3	12.0	12.4	11.2	15.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5.4	58.8	31.1	29.6	13.5	11.0	2.3	8.4
	고등학교 졸업	(2,180)	54.0	50.0	31.1	23.0	12.2	12.8	5.7	11.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1.0	47.7	24.6	18.7	10.6	10.6	16.1	10.7
	대학원 졸업	(98)	60.5	42.7	24.5	11.0	18.0	13.9	27.0	2.3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0.3	56.4	23.7	27.1	12.7	12.4	6.7	10.7
	200만원 ~ 299만원	(814)	51.2	51.7	28.3	18.5	14.9	13.0	8.3	14.1
	300만원 ~ 499만원	(1,949)	56.9	50.5	30.1	20.8	10.6	11.9	8.8	10.4
	500만원 ~ 699만원	(1,366)	60.3	46.1	27.3	23.4	10.8	10.7	12.8	8.6
	700만원 이상	(409)	61.2	43.9	25.9	16.2	12.0	9.7	21.0	10.2
종교	종교 없음	(3,111)	58.2	48.0	27.4	23.2	10.2	11.8	10.1	11.1
	기독교	(921)	51.2	48.3	28.7	17.6	17.7	12.1	13.5	10.8
	불교	(796)	55.9	56.0	31.6	19.4	10.7	11.0	7.4	8.0
	천주교	(263)	56.0	54.5	22.0	21.5	11.4	10.3	14.6	9.6
	기타	(9)	82.0	55.9	35.7	10.5	7.5	0.0	8.4	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4.9	56.1	29.0	20.0	11.0	11.7	8.5	8.7
	중도	(2,262)	55.1	48.9	27.8	21.4	13.5	11.5	10.2	11.6
	진보적	(1,338)	60.7	43.6	27.1	23.2	9.4	11.8	13.5	10.6

표 35. 노후 부담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본인이나 배우자	복지제도	자녀나 자녀의 가족	계
전 체		(5,100)	74.8	20.5	4.7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80.7	16.9	2.4	100.0
	중소도시	(2,065)	68.8	24.0	7.1	100.0
	읍/면	(665)	72.3	22.5	5.2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75.2	19.8	5.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76.4	18.5	5.1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74.2	21.3	4.5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74.0	22.1	3.9	100.0
	주부	(725)	74.8	19.9	5.3	100.0
	학생	(365)	70.8	25.5	3.7	100.0
	무직/은퇴/기타	(213)	70.5	25.5	4.1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74.2	20.1	5.7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74.5	19.9	5.5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75.0	21.3	3.7	100.0
	대학원 졸업	(98)	77.8	17.6	4.6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69.9	24.6	5.5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73.5	18.4	8.0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73.7	21.9	4.3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77.6	18.6	3.9	100.0
	700만원 이상	(409)	79.6	19.0	1.4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75.5	20.0	4.5	100.0
	기독교	(921)	72.9	22.4	4.7	100.0
	불교	(796)	74.3	20.5	5.2	100.0
	천주교	(263)	74.0	21.1	4.9	100.0
	기타	(9)	88.0	12.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73.1	20.6	6.3	100.0
	중도	(2,262)	76.3	19.3	4.4	100.0
	진보적	(1,338)	74.1	22.5	3.4	100.0

표 36. 노후 부담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복지제도	자녀나 자녀의 가족	본인이나 배우자	계
전 체		(5,100)	49.3	30.2	20.5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9.9	34.7	15.4	100.0
	중소도시	(2,065)	48.6	25.3	26.1	100.0
	읍/면	(665)	49.5	29.1	21.3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3.0	37.6	19.4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47.3	33.9	18.7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49.0	29.9	21.1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55.0	22.5	22.5	100.0
	주부	(725)	49.8	31.0	19.2	100.0
	학생	(365)	49.3	26.2	24.5	100.0
	무직/은퇴/기타	(213)	43.8	31.5	24.7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3.6	35.8	20.6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46.8	32.9	20.3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52.9	26.3	20.8	100.0
	대학원 졸업	(98)	51.0	32.0	17.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4.5	31.2	24.3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46.4	34.2	19.4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47.3	30.4	22.4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54.5	27.4	18.1	100.0
	700만원 이상	(409)	54.4	28.9	16.6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51.5	28.6	19.9	100.0
	기독교	(921)	46.5	31.4	22.1	100.0
	불교	(796)	45.4	34.0	20.7	100.0
	천주교	(263)	45.9	32.7	21.4	100.0
	기타	(9)	58.4	29.7	12.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47.2	32.0	20.9	100.0
	중도	(2,262)	49.8	30.8	19.4	100.0
	진보적	(1,338)	51.0	27.1	21.9	100.0

표 37. 노후 부담_3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녀나 자녀의 가족	복지제도	본인이나 배우자	계
전 체		(5,100)	65.1	30.1	4.7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62.9	33.2	4.0	100.0
	중소도시	(2,065)	67.6	27.4	5.1	100.0
	읍/면	(665)	65.7	27.9	6.4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57.4	37.2	5.4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60.9	34.2	4.8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65.6	29.7	4.7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73.6	22.8	3.5	100.0
	주부	(725)	63.7	30.3	6.0	100.0
	학생	(365)	70.1	25.2	4.7	100.0
	무직/은퇴/기타	(213)	64.4	30.7	4.9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58.5	36.4	5.1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61.5	33.3	5.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70.0	25.8	4.2	100.0
	대학원 졸업	(98)	63.4	31.4	5.2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63.3	30.9	5.8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57.7	35.2	7.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65.3	30.8	3.9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68.7	26.9	4.3	100.0
	700만원 이상	(409)	69.7	26.5	3.7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66.8	28.6	4.6	100.0
	기독교	(921)	63.9	31.1	5.0	100.0
	불교	(796)	60.8	34.2	5.0	100.0
	천주교	(263)	62.4	32.9	4.7	100.0
	기타	(9)	70.3	29.7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61.8	32.2	6.0	100.0
	중도	(2,262)	64.9	30.9	4.3	100.0
	진보적	(1,338)	69.4	26.5	4.0	100.0

표 38. 노후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단위 : %)

구 분	사례수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 중심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주변 자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공부나 취미/봉사활동 등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수입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	자녀나 손지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	계	
전 체	(5,100)	37.1	29.5	18.6	8.8	6.0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6.3	28.9	19.0	9.8	6.0	100.0
	중소도시	(2,065)	36.8	30.2	19.5	8.1	5.4	100.0
	읍/면	(665)	41.0	29.8	14.3	7.3	7.6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6.9	25.7	9.5	10.7	7.1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6.5	28.9	17.2	11.0	6.4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3.4	33.6	14.8	10.6	7.5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9.3	27.3	22.4	6.7	4.3	100.0
	주부	(725)	43.5	29.5	15.6	3.9	7.6	100.0
	학생	(365)	25.1	33.3	29.6	9.3	2.7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4.6	34.3	18.3	7.6	5.2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8.5	33.9	10.8	6.3	10.4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7.5	30.3	15.9	9.3	7.0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6.2	28.5	22.7	8.7	4.0	100.0
	대학원 졸업	(98)	43.1	17.3	21.8	11.9	5.9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9.5	36.0	16.7	10.7	7.1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35.8	31.8	18.6	7.0	6.8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9.3	29.1	17.3	8.0	6.2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6.5	27.8	20.8	9.7	5.2	100.0
	700만원 이상	(409)	41.6	24.2	19.8	10.3	4.1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6.9	30.9	19.1	8.5	4.6	100.0
	기독교	(921)	38.3	24.9	20.8	8.4	7.7	100.0
	불교	(796)	36.5	30.6	14.7	9.3	9.0	100.0
	천주교	(263)	36.2	26.9	17.2	13.1	6.7	100.0
	기타	(9)	61.0	10.1	14.9	0.0	14.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9.1	31.1	14.4	8.0	7.4	100.0
	중도	(2,262)	36.9	28.4	19.9	9.5	5.4	100.0
	진보적	(1,338)	35.2	29.7	21.2	8.5	5.4	100.0

표 39. 감정적·심리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족	친구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전문가 또는 전문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직장동료	이웃	연인	친척	계
전 체		(5,100)	35.0	34.6	8.8	7.3	6.2	2.6	2.0	1.9	1.7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4.4	35.0	9.2	7.5	5.1	3.2	2.0	1.9	1.7	100.0
	중소도시	(2,065)	35.4	34.0	7.9	8.3	6.7	2.1	2.3	1.7	1.7	100.0
	읍/면	(665)	35.6	35.3	10.6	3.4	8.7	1.9	0.9	2.3	1.2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6.8	20.4	5.3	9.8	13.8	1.0	1.9	1.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6.8	32.0	9.0	7.6	6.6	2.3	2.5	1.4	1.7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7.9	33.6	7.4	9.6	4.7	3.7	0.6	1.1	1.4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0.4	39.0	8.5	6.3	5.5	5.1	0.8	3.3	1.1	100.0
	주부	(725)	40.2	30.2	10.6	6.7	4.4	0.7	4.2	0.8	2.1	100.0
	학생	(365)	18.0	55.1	7.6	5.3	6.1	0.9	0.8	4.5	1.5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8.2	28.0	9.4	7.8	11.0	0.6	1.0	0.6	3.5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6.9	22.9	7.0	7.3	6.6	1.2	5.3	0.3	2.5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6.3	31.9	10.8	7.5	5.9	2.1	2.8	1.0	1.7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1.4	39.7	7.6	6.9	6.2	3.3	0.5	2.9	1.5	100.0
	대학원 졸업	(98)	32.7	32.5	3.4	10.1	11.0	2.9	1.4	4.2	1.9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5.6	29.7	7.4	7.6	10.1	2.5	3.7	1.4	2.0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39.9	30.6	5.7	7.3	7.8	2.4	2.5	1.9	1.9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5.5	32.6	11.1	8.5	5.0	2.1	1.9	1.4	1.8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0.8	41.1	8.4	6.2	5.3	2.9	1.7	2.0	1.5	100.0
	700만원 이상	(409)	35.9	37.0	7.4	4.3	6.1	4.0	0.4	4.3	0.5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2.1	36.9	9.8	6.5	6.5	2.7	1.9	1.8	1.7	100.0
	기독교	(921)	35.7	30.3	9.7	10.2	4.1	2.8	2.2	2.9	2.1	100.0
	불교	(796)	43.4	31.8	5.0	6.0	7.7	1.6	2.9	0.6	1.0	100.0
	천주교	(263)	39.8	30.8	6.3	9.6	5.5	3.5	0.4	2.5	1.7	100.0
	기타	(9)	57.2	34.4	0.0	0.0	0.0	0.0	0.0	8.4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7.8	29.8	7.6	7.0	8.0	2.8	2.7	1.5	2.7	100.0
	중도	(2,262)	37.1	35.1	8.4	6.9	4.9	2.6	2.2	1.5	1.3	100.0
	진보적	(1,338)	28.1	39.1	10.9	8.2	6.4	2.2	1.0	3.0	1.1	100.0

표 40. 건강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분	사례수	가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친구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친척	연인	직장동료	이웃	계
전체	(5,100)	48.1	31.5	9.1	4.9	2.9	1.3	0.9	0.7	0.5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8.0	33.6	7.9	4.9	2.2	1.6	1.0	0.5	100.0
	중소도시	(2,065)	47.2	29.6	9.9	5.7	3.8	1.3	1.0	0.9	100.0
	읍/면	(665)	51.2	29.9	11.0	2.6	2.9	0.3	0.6	0.8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64.0	22.5	2.9	4.6	1.9	2.7	0.4	1.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49.0	30.9	8.3	5.1	3.7	1.3	0.5	0.5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46.3	29.4	9.8	6.2	3.8	2.0	0.8	1.1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45.3	33.5	9.4	5.1	2.1	0.9	1.9	1.5	100.0
	주부	(725)	48.1	38.1	4.7	3.2	2.5	1.2	1.1	0.4	100.0
	학생	(365)	45.9	21.9	23.2	5.3	1.7	0.6	0.7	0.2	100.0
	무직/은퇴/기타	(213)	51.9	31.2	7.9	4.5	1.7	2.0	0.6	0.4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53.2	32.0	4.0	4.6	1.5	2.8	0.7	0.6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48.2	33.4	7.5	4.3	3.4	1.2	0.6	0.7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46.8	29.7	11.8	5.5	2.8	1.1	1.3	0.8	100.0
	대학원 졸업	(98)	49.1	29.7	6.3	6.6	3.6	0.0	0.3	3.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4.7	31.0	6.5	7.2	6.2	2.1	1.1	0.7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51.8	25.8	7.6	7.6	2.6	2.0	1.2	1.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47.5	32.4	10.3	3.7	2.7	1.3	0.9	0.6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46.6	34.5	10.1	4.2	2.1	0.8	0.6	0.8	100.0
	700만원 이상	(409)	52.9	29.5	7.0	4.9	2.9	0.6	1.3	0.5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45.1	33.3	10.6	5.2	2.8	1.1	0.8	0.6	100.0
	기독교	(921)	48.1	32.4	8.1	4.7	2.5	1.7	1.0	1.4	100.0
	불교	(796)	57.6	25.0	5.7	5.0	3.5	1.8	0.6	0.5	100.0
	천주교	(263)	53.0	27.3	6.7	2.5	4.8	1.1	3.1	0.9	100.0
	기타	(9)	71.2	22.4	0.0	6.4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1.1	30.7	6.2	4.6	3.0	2.2	0.7	0.9	100.0
	중도	(2,262)	49.8	30.3	8.9	5.3	2.4	1.0	1.1	0.7	100.0
	진보적	(1,338)	41.7	34.4	12.7	4.7	3.7	0.8	0.9	0.6	100.0

표 41.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족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친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친척	연인	이웃	직장동료	계	
전 체	(5,100)	68.9	16.2	4.9	3.5	2.9	1.8	0.8	0.5	0.5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68.3	16.4	4.8	3.7	2.8	2.2	0.9	0.5	0.6	100.0
	중소도시	(2,065)	68.7	16.1	4.9	3.4	3.3	1.7	0.9	0.5	0.4	100.0
	읍/면	(665)	72.0	16.0	5.3	3.1	1.8	0.8	0.2	0.4	0.3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75.1	6.0	4.5	1.4	9.7	0.4	0.4	2.5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71.2	14.6	5.7	3.5	2.2	1.6	0.5	0.4	0.3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66.5	21.2	3.7	2.6	2.6	1.9	1.1	0.4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67.6	16.5	4.7	3.8	2.6	1.9	1.4	0.3	1.0	100.0
	주부	(725)	73.5	9.2	4.6	4.6	3.6	2.7	0.7	0.7	0.3	100.0
	학생	(365)	55.1	35.3	2.9	2.3	2.2	0.5	1.0	0.2	0.6	100.0
	무직/은퇴/기타	(213)	63.5	16.2	5.9	2.7	5.9	2.9	0.6	1.5	0.7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70.5	11.9	6.3	3.3	3.2	2.6	0.4	1.6	0.2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70.7	14.9	5.3	3.5	3.0	1.1	0.6	0.5	0.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7.1	18.6	4.3	3.5	2.6	2.0	1.1	0.1	0.7	100.0
	대학원 졸업	(98)	66.7	10.7	4.2	4.5	3.6	7.0	0.0	1.8	1.6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7.9	15.9	11.4	6.5	3.7	2.2	0.6	1.5	0.2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66.3	15.0	5.7	4.9	3.5	2.0	1.2	0.7	0.7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69.4	16.6	4.7	2.8	2.5	2.3	1.0	0.5	0.3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73.0	16.4	2.3	3.0	2.6	1.2	0.6	0.1	0.7	100.0
	700만원 이상	(409)	73.7	16.7	4.4	1.1	3.2	0.4	0.1	0.0	0.4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68.7	17.6	4.6	3.1	2.6	1.7	0.8	0.5	0.6	100.0
	기독교	(921)	68.5	14.3	5.5	4.4	3.1	2.2	1.1	0.5	0.5	100.0
	불교	(796)	69.7	13.7	5.9	4.5	3.6	1.5	0.5	0.4	0.1	100.0
	천주교	(263)	70.7	15.4	3.9	1.9	3.1	2.4	1.2	1.0	0.3	100.0
	기타	(9)	91.6	8.4	0.0	0.0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70.1	12.7	5.3	3.6	3.9	2.2	0.9	1.0	0.2	100.0
	중도	(2,262)	70.0	16.0	4.1	3.8	2.5	1.7	0.9	0.3	0.7	100.0
	진보적	(1,338)	65.9	20.6	5.8	2.8	2.2	1.5	0.6	0.2	0.4	100.0

표 42. 금전적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가족	친구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친척	연인	직장동료	이웃	계
전 체		(5,100)	68.4	8.4	7.5	5.3	4.7	3.7	0.8	0.7	0.4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69.5	7.9	6.3	5.2	5.6	3.7	0.8	0.8	0.3	100.0
	중소도시	(2,065)	68.1	8.2	7.6	5.4	4.1	4.2	0.9	0.8	0.6	100.0
	읍/면	(665)	65.6	10.5	11.9	5.7	3.4	1.9	0.3	0.5	0.2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71.5	5.3	5.6	7.5	4.2	3.1	0.4	0.0	2.5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68.3	8.8	6.5	6.2	4.5	4.1	0.6	0.7	0.3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62.3	9.0	8.7	5.7	6.6	5.6	0.6	0.9	0.6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64.8	11.1	6.9	5.1	6.5	3.0	1.0	1.2	0.4	100.0
	주부	(725)	74.4	4.3	7.1	4.0	3.7	4.3	1.4	0.5	0.2	100.0
	학생	(365)	71.8	7.2	15.5	1.6	1.6	1.6	0.5	0.2	0.1	100.0
	무직/은퇴/기타	(213)	74.3	6.0	6.7	6.6	2.8	1.4	0.6	0.5	1.1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73.7	3.8	7.7	6.5	2.9	3.1	0.4	0.9	1.1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69.0	8.7	7.2	5.1	4.0	4.4	0.6	0.7	0.4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7.1	8.9	7.9	5.2	5.5	3.3	1.1	0.8	0.3	100.0
	대학원 졸업	(98)	61.0	10.9	6.5	6.9	11.2	0.6	0.0	1.8	1.1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62.8	10.4	7.7	10.4	3.8	2.8	0.7	0.7	0.8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66.8	9.0	6.6	5.8	5.3	4.4	0.8	0.9	0.5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68.2	8.3	7.6	4.5	4.8	4.6	0.8	0.9	0.3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69.9	7.9	7.2	4.9	4.8	3.5	0.8	0.7	0.3	100.0
	700만원 이상	(409)	75.7	6.0	9.9	2.7	4.1	0.1	0.8	0.2	0.4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69.2	8.6	7.2	5.0	4.5	3.5	0.7	0.9	0.4	100.0
	기독교	(921)	66.4	7.9	8.7	5.1	5.0	4.9	1.0	0.6	0.4	100.0
	불교	(796)	68.2	8.8	8.4	6.5	4.1	2.6	0.2	0.6	0.6	100.0
	천주교	(263)	67.2	6.4	4.4	6.0	8.4	4.7	2.4	0.5	0.0	100.0
	기타	(9)	76.7	0.0	8.4	14.9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68.2	8.1	6.7	6.1	4.5	4.0	1.0	0.7	0.7	100.0
	중도	(2,262)	69.9	8.2	7.7	4.5	4.5	3.6	0.5	0.9	0.3	100.0
	진보적	(1,338)	66.1	8.8	8.2	5.9	5.4	3.5	1.1	0.7	0.3	100.0

표 43. 긴급 혹은 재해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해당문제를 겪은 적 없음	가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친구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친척	직장동료	연인	이웃	계	
전 체	(5,100)	38.3	36.9	13.8	3.3	28	2.6	0.9	0.9	0.5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5.3	41.0	13.1	3.0	29	2.7	0.8	0.9	0.2	100.0
	중소도시	(2,065)	37.7	34.3	15.7	3.8	25	3.1	1.1	0.9	0.9	100.0
	읍/면	(665)	50.7	30.5	10.7	3.0	33	0.4	0.3	0.4	0.6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9.7	30.0	14.8	3.0	8.3	2.1	0.0	0.4	1.7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8.1	37.6	13.9	3.5	2.5	2.4	0.7	1.0	0.2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3.1	35.7	17.8	4.0	3.5	3.8	1.4	0.2	0.5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9.1	35.1	13.5	3.2	2.7	2.8	1.6	1.2	0.8	100.0
	주부	(725)	36.9	39.1	14.8	2.1	2.2	3.0	0.2	1.1	0.6	100.0
	학생	(365)	50.5	32.6	7.9	4.1	2.6	0.7	0.6	0.5	0.6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0.9	44.6	12.1	2.8	4.4	2.7	1.3	0.0	1.1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7.1	38.9	14.1	2.9	2.9	1.5	1.1	0.3	1.3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6.2	37.2	15.6	2.9	2.8	3.2	0.8	0.8	0.5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40.9	35.9	12.0	3.7	2.7	2.3	1.0	1.0	0.4	100.0
	대학원 졸업	(98)	27.9	43.6	17.3	5.0	4.3	0.0	0.0	1.2	0.8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7.1	35.8	14.2	4.3	4.7	1.3	1.0	0.8	0.8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9.8	38.7	18.1	6.3	2.3	1.7	1.3	0.9	1.0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40.2	36.1	12.4	2.5	3.1	3.4	0.9	1.1	0.4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42.4	34.4	13.2	2.5	2.6	2.9	0.8	0.6	0.4	100.0
	700만원 이상	(409)	34.0	47.0	13.5	2.5	0.4	1.4	0.4	0.6	0.2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40.0	34.1	14.7	3.7	2.9	2.2	1.2	0.8	0.4	100.0
	기독교	(921)	39.0	37.2	12.6	3.2	2.5	3.0	0.4	1.5	0.7	100.0
	불교	(796)	33.3	44.8	13.0	2.1	2.9	2.3	0.2	0.4	1.0	100.0
	천주교	(263)	30.9	43.6	11.3	2.5	2.3	6.5	1.1	1.2	0.5	100.0
	기타	(9)	39.3	60.7	0.0	0.0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4.0	38.4	15.0	3.5	2.8	3.9	0.8	1.1	0.6	100.0
	중도	(2,262)	37.9	38.5	13.7	3.4	2.3	1.8	0.9	0.8	0.6	100.0
	진보적	(1,338)	43.9	32.4	12.8	2.9	3.6	2.4	0.9	0.8	0.5	100.0

표 44.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보통이다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1.7	1.6	6.2	7.9	17.3	10.7	13.8	24.5	25.8	20.6	6.4	5.4	58.2	100.0	(6.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8	1.4	5.6	8.4	17.1	10.4	14.1	24.5	26.5	19.5	6.7	5.8	58.4	100.0	(6.5)
	중소도시	(2,065)	1.4	2.2	8.0	7.7	19.3	10.1	11.9	22.0	25.7	23.0	5.8	4.3	58.8	100.0	(6.4)
	읍/면	(665)	2.1	0.4	2.7	6.9	12.1	13.6	18.8	32.4	23.9	17.4	7.1	7.1	55.5	100.0	(6.6)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5.7	1.3	5.1	5.0	17.1	10.2	25.3	35.6	16.1	14.1	9.3	7.8	47.3	100.0	(6.3)
	판매/영업/서비스	(2,146)	1.3	1.1	5.5	7.4	15.3	10.7	13.6	24.3	26.6	21.3	6.5	6.0	60.4	100.0	(6.6)
	생산/기능/노무직	(478)	1.6	2.2	7.6	8.8	20.2	12.0	13.6	25.6	25.3	19.4	4.5	5.0	54.1	100.0	(6.3)
	사무/관리/전문직	(1,067)	1.8	2.0	8.4	7.3	19.5	9.6	12.3	21.9	25.9	20.5	6.7	5.5	58.6	100.0	(6.4)
	주부	(725)	1.7	2.0	5.8	11.0	20.6	12.6	12.2	24.8	26.9	19.3	5.4	3.0	54.6	100.0	(6.3)
	학생	(365)	1.5	0.2	3.2	7.7	12.6	8.5	20.1	28.7	21.8	22.9	8.4	5.7	58.8	100.0	(6.7)
	무직/은퇴/기타	(213)	2.6	4.4	4.8	5.6	17.4	11.1	12.1	23.2	27.1	21.2	6.2	5.0	59.4	100.0	(6.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5	0.9	5.5	10.3	18.1	13.5	14.2	27.7	25.5	15.5	7.9	5.3	54.2	100.0	(6.4)
	고등학교 졸업	(2,180)	1.6	2.0	6.2	7.7	17.5	10.1	13.7	23.7	27.1	21.6	5.8	4.3	58.8	100.0	(6.4)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8	1.4	6.0	7.9	17.0	10.8	14.1	24.9	24.8	20.6	6.6	6.0	58.1	100.0	(6.5)
	대학원 졸업	(98)	1.5	1.7	12.0	1.6	16.9	9.7	6.5	16.2	22.0	24.8	5.5	14.7	67.0	100.0	(6.8)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9	1.7	5.8	9.2	19.6	13.5	14.5	28.0	22.3	19.8	5.3	5.0	52.4	100.0	(6.3)
	200만원 ~ 299만원	(814)	2.2	1.7	6.6	8.1	18.7	11.8	12.8	24.6	27.8	18.4	5.9	4.6	56.8	100.0	(6.3)
	300만원 ~ 499만원	(1,949)	1.0	1.2	5.5	7.7	15.5	10.2	14.4	24.5	26.7	22.7	6.5	4.0	60.0	100.0	(6.6)
	500만원 ~ 699만원	(1,366)	1.6	2.1	6.5	8.2	18.4	10.4	13.7	24.1	25.1	19.9	7.1	5.4	57.5	100.0	(6.5)
	700만원 이상	(409)	2.1	1.3	7.6	5.8	16.8	8.3	12.2	20.5	24.7	18.5	5.7	13.8	62.7	100.0	(6.8)
종교	종교 없음	(3,111)	1.7	1.6	6.9	8.3	18.4	10.8	13.0	23.8	26.3	21.7	5.7	4.2	57.8	100.0	(6.4)
	기독교	(921)	1.6	1.5	5.0	7.9	16.0	11.7	15.6	27.3	25.8	18.7	5.3	7.0	56.7	100.0	(6.5)
	불교	(796)	1.5	1.6	5.0	6.8	15.0	9.5	14.5	24.0	25.0	19.0	9.2	7.9	61.0	100.0	(6.7)
	천주교	(263)	2.3	1.8	4.8	6.9	15.8	9.9	14.9	24.8	23.5	20.3	9.5	6.1	59.4	100.0	(6.6)
	기타	(9)	0.0	0.0	0.0	21.3	21.3	26.1	5.6	31.7	21.7	14.3	11.0	0.0	47.0	100.0	(6.1)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6	2.3	6.3	7.9	18.2	12.4	14.7	27.0	23.7	18.2	5.6	7.2	54.8	100.0	(6.4)
	중도	(2,262)	1.4	1.0	5.7	7.9	15.9	9.9	13.7	23.7	28.0	21.1	6.6	4.7	60.4	100.0	(6.6)
	진보적	(1,338)	2.2	1.8	6.8	8.0	18.8	10.1	12.9	23.1	24.5	22.5	6.8	4.3	58.2	100.0	(6.4)

표 45. 생계-복지 책임 주체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지어한다					보통이다			당사자가 각자의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지어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2.1	3.1	8.9	11.9	26.0	17.5	18.0	35.5	21.1	11.6	3.3	2.5	38.5	100.0	(5.7)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2	2.4	7.6	10.7	23.0	19.2	17.9	37.1	22.1	11.5	3.3	2.9	39.9	100.0	(5.8)
	중소도시	(2,065)	2.1	4.1	10.7	13.6	30.5	16.3	15.4	31.7	20.1	12.8	3.1	1.7	37.7	100.0	(5.6)
	읍/면	(665)	1.8	1.9	7.8	10.8	22.3	15.1	26.5	41.7	20.6	8.4	3.6	3.5	36.0	100.0	(5.9)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6.1	0.7	6.0	17.2	30.1	17.4	12.9	30.4	19.7	9.3	5.7	4.9	39.6	100.0	(5.7)
	판매/영업/서비스	(2,146)	1.5	3.0	7.6	11.6	23.6	16.9	19.2	36.1	21.8	11.9	3.7	2.8	40.3	100.0	(5.9)
	생산/기능/노무직	(478)	2.4	3.1	8.9	11.4	25.8	17.4	17.2	34.6	22.6	12.7	2.7	1.5	39.6	100.0	(5.7)
	사무/관리/전문직	(1,067)	3.0	3.6	9.8	11.9	28.3	18.3	16.4	34.7	19.6	12.1	2.9	2.4	37.1	100.0	(5.6)
	주부	(725)	1.3	2.7	9.3	12.8	26.0	17.1	18.8	36.0	21.7	11.3	3.1	1.9	38.0	100.0	(5.7)
	학생	(365)	2.4	2.2	11.7	10.2	26.4	19.1	18.5	37.6	21.7	9.7	2.1	2.5	36.0	100.0	(5.6)
	무직/은퇴/기타	(213)	4.0	4.9	13.0	13.3	35.2	18.5	15.2	33.7	16.1	9.4	3.3	2.4	31.1	100.0	(5.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5	3.7	8.4	16.2	29.8	19.7	17.6	37.3	18.2	8.9	3.4	2.4	32.9	100.0	(5.6)
	고등학교 졸업	(2,180)	2.2	2.7	8.4	11.0	24.3	17.0	18.6	35.7	23.2	11.7	2.9	2.1	40.1	100.0	(5.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2	3.2	9.5	11.7	26.6	17.7	17.7	35.4	19.9	12.0	3.5	2.5	38.0	100.0	(5.7)
	대학원 졸업	(98)	2.2	3.7	8.1	13.6	27.5	12.6	14.7	27.3	17.3	13.2	6.1	8.6	45.2	100.0	(6.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2	3.3	9.7	13.7	31.0	19.3	18.1	37.3	16.9	9.4	2.8	2.6	31.7	100.0	(5.4)
	200만원 ~ 299만원	(814)	3.6	3.5	8.4	11.8	27.3	16.8	15.7	32.4	23.1	11.7	3.0	2.4	40.3	100.0	(5.7)
	300만원 ~ 499만원	(1,949)	1.3	3.3	9.0	12.5	26.2	17.2	18.7	35.9	21.7	11.0	3.4	1.8	37.9	100.0	(5.7)
	500만원 ~ 699만원	(1,366)	1.3	2.4	8.9	10.8	23.5	18.2	18.6	36.8	21.3	13.2	3.2	2.2	39.8	100.0	(5.8)
	700만원 이상	(409)	2.5	2.9	8.2	10.0	23.6	15.6	17.5	33.2	19.6	12.8	4.2	6.7	43.3	100.0	(6.0)
종교	종교 없음	(3,111)	1.8	2.9	9.3	11.9	26.0	16.6	18.2	34.9	22.0	11.9	3.1	2.1	39.2	100.0	(5.7)
	기독교	(921)	2.8	2.9	7.7	13.3	26.6	20.2	18.3	38.5	19.6	9.7	2.8	2.9	34.9	100.0	(5.6)
	불교	(796)	2.3	3.6	8.9	10.4	25.1	19.7	17.0	36.7	17.7	12.7	4.5	3.3	38.1	100.0	(5.8)
	천주교	(263)	2.9	3.7	8.3	11.6	26.6	11.8	16.8	28.7	26.2	12.0	3.1	3.4	44.8	100.0	(5.8)
	기타	(9)	0.0	0.0	8.4	6.4	14.8	16.1	37.3	53.3	13.3	18.6	0.0	0.0	31.9	100.0	(6.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9	3.4	9.9	12.5	27.6	18.8	14.8	33.7	20.4	11.5	3.0	3.9	38.8	100.0	(5.7)
	중도	(2,262)	1.9	2.8	8.0	12.0	24.7	16.2	21.7	37.8	20.9	11.2	3.6	1.8	37.5	100.0	(5.8)
	진보적	(1,338)	2.7	3.1	9.4	11.1	26.3	18.3	15.4	33.7	22.2	12.6	3.0	2.1	40.0	100.0	(5.7)

표 46. 경쟁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보통이다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0.6	0.9	3.2	5.9	10.7	14.3	20.7	35.0	27.2	17.6	6.0	3.6	54.4	100.0	(6.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8	1.0	3.1	4.8	9.6	13.6	20.7	34.3	28.3	16.6	7.2	4.0	56.0	100.0	(6.6)
	중소도시	(2,065)	0.7	1.0	3.9	7.6	13.3	14.8	18.0	32.9	27.0	19.1	4.8	3.0	53.8	100.0	(6.4)
	읍/면	(665)	0.0	0.3	1.7	4.2	6.2	15.0	28.8	43.8	23.7	16.5	5.4	4.4	50.0	100.0	(6.6)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6	1.1	3.2	10.0	15.8	18.0	23.7	41.8	14.7	19.4	7.0	1.3	42.4	100.0	(6.2)
	판매/영업/서비스	(2,146)	0.4	0.8	3.3	5.0	9.6	14.0	21.8	35.8	27.7	17.1	5.4	4.4	54.6	100.0	(6.6)
	생산/기능/노무직	(478)	0.3	0.5	4.3	7.1	12.3	17.9	19.6	37.5	26.4	17.4	4.3	2.1	50.2	100.0	(6.3)
	사무/관리/전문직	(1,067)	0.9	1.0	2.4	6.2	10.5	12.5	18.8	31.3	28.3	17.5	8.2	4.2	58.2	100.0	(6.6)
	주부	(725)	0.7	0.7	3.8	5.6	10.7	11.7	21.9	33.7	29.6	18.8	5.5	1.8	55.6	100.0	(6.5)
	학생	(365)	0.6	1.0	3.6	5.9	11.1	17.5	19.0	36.5	23.1	20.6	4.5	4.2	52.4	100.0	(6.5)
	무직/은퇴/기타	(213)	1.5	2.5	2.1	8.9	15.1	19.6	18.1	37.7	23.4	13.0	8.6	2.3	47.2	100.0	(6.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0	0.9	2.5	7.0	11.6	14.9	25.8	40.7	23.8	15.7	6.8	1.3	47.7	100.0	(6.4)
	고등학교 졸업	(2,180)	0.5	0.8	3.7	6.1	11.1	14.2	22.0	36.2	27.3	17.8	4.8	2.9	52.7	100.0	(6.5)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7	1.0	2.9	5.6	10.1	14.4	18.7	33.1	27.7	17.7	6.7	4.6	56.8	100.0	(6.6)
	대학원 졸업	(98)	0.6	2.6	4.4	2.7	10.3	10.8	12.3	23.1	29.9	19.2	9.9	7.6	66.6	100.0	(6.9)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9	1.1	4.7	8.0	15.7	18.5	21.3	39.9	21.4	17.0	4.2	1.8	44.4	100.0	(6.1)
	200만원 ~ 299만원	(814)	0.7	0.9	1.7	6.2	9.5	12.5	23.8	36.3	28.3	17.7	5.8	2.3	54.2	100.0	(6.5)
	300만원 ~ 499만원	(1,949)	0.5	0.7	3.1	5.9	10.2	15.5	20.5	36.0	28.8	17.2	5.3	2.5	53.8	100.0	(6.5)
	500만원 ~ 699만원	(1,366)	0.3	0.8	3.6	5.7	10.4	12.9	20.8	33.6	26.8	17.9	7.2	4.0	56.0	100.0	(6.6)
	700만원 이상	(409)	0.8	2.0	3.6	2.8	9.2	11.1	14.3	25.5	26.2	18.6	7.9	12.6	65.4	100.0	(7.0)
종교	종교 없음	(3,111)	0.7	0.9	3.4	5.9	10.9	14.1	20.1	34.1	28.6	18.0	5.5	2.9	55.0	100.0	(6.5)
	기독교	(921)	0.5	0.6	2.5	5.9	9.5	14.1	20.9	35.0	27.6	16.7	6.2	5.0	55.5	100.0	(6.6)
	불교	(796)	0.1	1.1	3.6	6.1	11.0	14.4	22.0	36.4	23.2	16.8	7.5	5.1	52.6	100.0	(6.6)
	천주교	(263)	1.9	1.1	3.0	4.9	11.0	17.2	23.3	40.5	20.8	18.1	6.6	3.0	48.5	100.0	(6.4)
	기타	(9)	0.0	0.0	8.4	0.0	8.4	24.2	13.1	37.3	24.4	29.9	0.0	0.0	54.3	100.0	(6.3)
이념성향	보수적	(1,500)	0.3	0.8	3.5	6.6	11.3	14.9	21.3	36.2	24.4	17.5	5.0	5.6	52.5	100.0	(6.5)
	중도	(2,262)	0.8	0.8	2.9	5.4	10.0	15.0	20.8	35.8	28.6	17.2	5.8	2.6	54.2	100.0	(6.5)
	진보적	(1,338)	0.8	1.1	3.4	5.8	11.1	12.4	19.8	32.2	27.9	18.4	7.3	3.1	56.7	100.0	(6.6)

표 47. 정부의 기업규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태수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보통이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1.6	2.3	6.8	9.1	19.7	17.0	18.7	35.8	21.6	15.8	4.2	2.9	44.5	100.0	(6.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8	1.9	6.6	7.8	18.2	16.8	18.9	35.7	21.5	17.3	4.3	3.0	46.1	100.0	(6.1)
	중소도시	(2,065)	1.5	2.4	7.7	10.7	22.2	16.2	17.1	33.3	22.2	15.2	4.2	2.8	44.5	100.0	(6.0)
	읍/면	(665)	0.7	3.2	5.2	8.6	17.6	20.3	23.6	43.8	20.0	12.4	3.7	2.4	38.5	100.0	(6.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7	4.7	2.0	8.3	16.7	19.1	23.3	42.4	19.6	16.6	2.5	2.2	40.9	100.0	(6.0)
	판매/영업/서비스	(2,146)	1.4	1.9	6.9	9.5	19.7	16.5	18.6	35.0	22.2	15.5	4.4	3.2	45.3	100.0	(6.1)
	생산/기능/노무직	(478)	2.1	2.0	8.7	8.6	21.5	19.1	18.3	37.4	20.9	12.6	5.1	2.6	41.2	100.0	(5.9)
	사무/관리/전문직	(1,067)	1.9	3.6	7.1	9.8	22.3	16.2	16.6	32.8	20.8	16.3	4.5	3.3	44.9	100.0	(6.0)
	주부	(725)	0.7	1.2	7.5	8.5	17.9	15.7	21.5	37.2	23.7	15.8	3.7	1.7	44.9	100.0	(6.1)
	학생	(365)	1.6	2.7	5.7	6.7	16.8	19.2	19.3	38.5	18.6	20.4	3.2	2.5	44.7	100.0	(6.1)
	무직/은퇴/기타	(213)	3.4	1.9	3.2	8.1	16.7	21.7	20.0	41.7	21.5	14.6	2.7	2.9	41.6	100.0	(6.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4	2.6	2.1	8.2	14.3	20.8	23.8	44.6	22.1	14.3	3.0	1.6	41.0	100.0	(6.1)
	고등학교 졸업	(2,180)	1.3	1.8	8.2	9.6	20.9	16.9	19.0	35.9	22.7	14.5	3.6	2.5	43.2	100.0	(6.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8	2.4	6.7	8.9	19.9	16.4	17.6	34.0	20.6	17.4	4.7	3.3	46.1	100.0	(6.1)
	대학원 졸업	(98)	0.6	5.8	4.7	5.0	16.1	16.3	14.9	31.1	21.2	13.9	10.1	7.5	52.8	100.0	(6.4)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8	2.6	2.3	10.0	17.7	23.5	23.6	47.0	17.2	14.4	2.3	1.5	35.3	100.0	(5.8)
	200만원 ~ 299만원	(814)	2.5	2.0	5.5	7.5	17.5	16.9	20.4	37.3	24.8	14.0	3.7	2.7	45.2	100.0	(6.1)
	300만원 ~ 499만원	(1,949)	1.4	2.8	7.2	8.8	20.2	16.9	18.1	35.0	21.4	16.6	4.8	1.9	44.7	100.0	(6.0)
	500만원 ~ 699만원	(1,366)	0.5	1.6	8.6	10.3	21.1	14.6	18.5	33.1	22.2	15.6	4.8	3.3	45.8	100.0	(6.1)
	700만원 이상	(409)	2.1	1.9	8.3	7.8	20.2	17.0	12.8	29.8	20.6	18.3	2.6	8.5	50.0	100.0	(6.2)
종교	종교 없음	(3,111)	1.7	2.1	7.2	9.4	20.3	17.4	18.7	36.1	21.9	15.5	4.0	2.2	43.6	100.0	(6.0)
	기독교	(921)	0.8	2.5	5.6	9.0	17.9	16.4	21.0	37.3	21.8	16.0	3.3	3.6	44.8	100.0	(6.1)
	불교	(796)	1.4	2.6	6.9	8.5	19.4	17.9	16.2	34.0	19.7	16.7	5.7	4.5	46.5	100.0	(6.1)
	천주교	(263)	2.9	2.8	6.7	7.9	20.2	11.9	19.6	31.5	24.2	16.3	4.9	2.9	48.3	100.0	(6.1)
	기타	(9)	0.0	0.0	11.0	0.0	11.0	32.9	21.3	54.2	13.3	13.1	0.0	8.4	34.8	100.0	(6.1)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0	1.8	6.4	9.8	19.0	15.1	18.4	33.5	21.3	16.2	5.1	4.9	47.5	100.0	(6.2)
	중도	(2,262)	1.5	2.2	7.5	8.7	19.9	18.3	20.4	38.7	22.1	13.6	3.2	2.4	41.3	100.0	(5.9)
	진보적	(1,338)	2.3	2.9	6.3	8.8	20.3	17.0	16.3	33.3	21.2	19.0	4.8	1.4	46.4	100.0	(6.0)

표 48. 자유와 질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보통이다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2.2	3.8	10.4	11.7	28.2	21.3	19.5	40.8	17.4	9.7	3.0	0.9	31.0	100.0	(5.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9	3.8	9.7	11.5	27.0	23.3	18.9	42.2	16.4	10.3	2.9	1.3	30.8	100.0	(5.5)
	중소도시	(2,065)	2.8	4.0	12.1	12.7	31.6	18.7	17.3	36.0	18.1	10.2	3.5	0.6	32.4	100.0	(5.4)
	읍/면	(665)	1.1	3.6	7.4	9.8	21.9	22.7	28.0	50.7	19.0	6.2	1.6	0.6	27.4	100.0	(5.5)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2	4.0	11.6	11.8	28.5	22.8	22.7	45.5	19.0	6.4	0.0	0.6	26.0	100.0	(5.3)
	판매/영업/서비스	(2,146)	2.7	3.7	10.2	10.8	27.3	20.4	20.0	40.4	18.3	9.9	3.2	0.9	32.3	100.0	(5.5)
	생산/기능/노무직	(478)	0.9	5.8	12.3	12.5	31.5	22.6	20.4	43.0	15.5	7.2	1.4	1.2	25.4	100.0	(5.3)
	사무/관리/전문직	(1,067)	2.7	4.5	11.0	12.6	30.7	22.7	17.2	39.9	15.6	9.4	4.0	0.5	29.4	100.0	(5.4)
	주부	(725)	1.9	2.7	10.7	12.7	27.9	19.7	22.9	42.6	17.3	9.8	1.5	0.8	29.5	100.0	(5.5)
	학생	(365)	1.3	3.6	6.2	10.6	21.7	21.2	15.4	36.6	19.8	14.3	5.4	2.1	41.6	100.0	(5.9)
	무직/은퇴/기타	(213)	1.1	2.8	10.9	13.6	28.3	25.9	17.5	43.4	17.9	8.6	0.9	0.9	28.3	100.0	(5.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1	3.2	10.1	11.6	26.0	22.6	21.3	44.0	20.6	6.9	2.0	0.5	30.0	100.0	(5.5)
	고등학교 졸업	(2,180)	2.1	3.7	11.9	10.9	28.5	21.5	20.0	41.4	18.1	8.9	2.4	0.6	30.0	100.0	(5.4)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5	4.1	9.3	12.5	28.4	20.9	18.7	39.6	16.3	11.1	3.4	1.2	32.0	100.0	(5.5)
	대학원 졸업	(98)	2.5	5.5	6.4	13.2	27.6	21.7	17.1	38.8	12.5	8.8	10.5	1.8	33.6	100.0	(5.7)
소득	200만원 미만	(562)	0.9	3.1	11.4	10.8	26.2	23.9	21.5	45.5	16.8	7.7	2.9	0.9	28.4	100.0	(5.5)
	200만원 ~ 299만원	(814)	1.7	2.4	10.3	12.3	26.7	21.2	19.4	40.6	20.2	8.8	2.6	1.0	32.6	100.0	(5.5)
	300만원 ~ 499만원	(1,949)	1.4	4.3	9.7	11.7	27.1	20.8	20.8	41.6	18.3	9.0	2.9	1.0	31.3	100.0	(5.5)
	500만원 ~ 699만원	(1,366)	2.6	3.7	11.0	11.4	28.8	20.9	18.4	39.3	14.3	13.1	3.8	0.7	31.9	100.0	(5.5)
	700만원 이상	(409)	7.5	6.2	10.2	13.3	37.2	21.6	14.0	35.7	19.1	6.1	1.3	0.7	27.2	100.0	(5.0)
종교	종교 없음	(3,111)	1.8	3.9	10.9	12.1	28.8	20.6	19.0	39.6	18.4	9.8	2.7	0.7	31.6	100.0	(5.5)
	기독교	(921)	2.7	3.2	8.9	10.0	24.8	22.2	21.8	44.0	17.9	9.8	2.4	1.1	31.3	100.0	(5.5)
	불교	(796)	2.8	5.4	10.9	11.2	30.3	21.5	18.5	40.0	14.8	9.3	4.5	1.0	29.7	100.0	(5.4)
	천주교	(263)	3.3	0.5	8.1	14.6	26.6	25.5	20.0	45.4	13.2	10.5	2.8	1.5	28.0	100.0	(5.5)
	기타	(9)	0.0	0.0	18.6	22.4	41.0	37.5	13.1	50.6	0.0	0.0	8.4	0.0	8.4	100.0	(4.9)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5	4.0	11.2	11.3	30.0	22.1	18.9	41.0	17.5	8.6	1.9	1.1	29.1	100.0	(5.3)
	중도	(2,262)	1.5	3.8	10.6	11.1	27.0	21.6	20.7	42.3	18.1	9.1	2.8	0.7	30.7	100.0	(5.5)
	진보적	(1,338)	1.9	3.8	9.1	13.4	28.2	20.0	18.0	38.1	16.3	12.0	4.5	0.9	33.7	100.0	(5.6)

표 49. 교육의 차등과 형평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사태수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보통이다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6.1	6.7	10.5	10.6	33.8	18.0	18.2	36.2	18.1	8.1	2.5	1.3	30.0	100.0	(5.2)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5.9	6.8	9.3	9.4	31.5	18.1	17.7	35.9	19.5	8.5	3.1	1.5	32.7	100.0	(5.3)
	중소도시	(2,065)	6.1	7.1	13.1	12.0	38.3	19.0	16.8	35.8	16.1	7.5	1.6	0.7	25.9	100.0	(5.0)
	읍/면	(665)	6.5	4.9	6.3	10.5	28.3	14.5	24.3	38.8	19.0	8.8	2.9	2.3	32.9	100.0	(5.5)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3.9	9.6	4.5	10.7	38.7	18.7	12.5	31.2	17.4	8.2	2.2	2.3	30.1	100.0	(4.9)
	판매/영업/서비스	(2,146)	5.5	5.9	9.8	10.7	31.9	19.1	17.4	36.5	19.4	8.2	2.7	1.3	31.6	100.0	(5.3)
	생산/기능/노무직	(478)	6.8	6.4	12.5	9.7	35.4	17.7	21.9	39.6	15.8	6.6	1.6	1.2	25.0	100.0	(5.0)
	사무/관리/전문직	(1,067)	7.2	8.1	11.0	9.3	35.5	15.4	17.3	32.8	16.7	10.7	2.9	1.4	31.7	100.0	(5.2)
	주부	(725)	3.8	6.1	11.4	12.7	34.1	16.6	22.5	39.0	18.9	5.2	2.0	0.8	26.9	100.0	(5.2)
	학생	(365)	7.9	7.1	11.0	11.0	37.0	19.9	12.8	32.7	16.9	9.0	2.8	1.6	30.2	100.0	(5.1)
	무직/은퇴/기타	(213)	5.3	7.7	8.7	10.7	32.4	21.4	20.3	41.7	16.4	6.4	0.9	2.2	25.9	100.0	(5.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4	5.9	8.6	10.4	29.3	18.2	20.8	39.0	21.5	5.8	2.9	1.4	31.6	100.0	(5.4)
	고등학교 졸업	(2,180)	5.8	6.9	11.4	11.5	35.6	18.1	19.2	37.3	18.1	6.9	1.5	0.6	27.1	100.0	(5.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8	6.6	10.1	10.2	33.7	17.9	16.7	34.6	17.7	9.4	3.0	1.7	31.7	100.0	(5.2)
	대학원 졸업	(98)	4.6	7.0	6.6	2.3	20.5	17.4	19.4	36.7	10.7	16.9	9.3	5.8	42.7	100.0	(6.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6.8	7.8	11.6	9.0	35.2	17.8	21.0	38.8	17.2	6.3	1.4	1.1	26.0	100.0	(5.0)
	200만원 ~ 299만원	(814)	5.9	7.4	10.4	10.1	33.8	15.3	17.3	32.6	21.7	7.4	2.9	1.6	33.7	100.0	(5.3)
	300만원 ~ 499만원	(1,949)	5.4	5.7	10.6	11.2	32.9	17.0	19.9	36.9	18.9	8.0	2.1	1.2	30.2	100.0	(5.3)
	500만원 ~ 699만원	(1,366)	5.6	6.9	9.9	11.5	33.9	20.2	16.9	37.0	15.3	9.8	2.9	1.0	29.0	100.0	(5.2)
	700만원 이상	(409)	10.1	7.9	10.0	8.1	36.1	21.3	12.8	34.1	17.2	7.4	3.1	2.1	29.8	100.0	(5.0)
종교	종교 없음	(3,111)	6.0	6.9	11.3	10.9	35.1	17.9	17.5	35.4	18.1	8.3	2.0	1.0	29.5	100.0	(5.1)
	기독교	(921)	6.4	4.6	9.7	10.4	31.0	18.3	20.7	39.0	18.9	6.6	3.0	1.5	29.9	100.0	(5.3)
	불교	(796)	5.4	7.8	8.3	10.5	32.0	18.7	19.2	37.9	16.3	8.5	3.4	1.9	30.1	100.0	(5.3)
	천주교	(263)	8.3	7.0	9.3	8.4	33.0	16.1	15.4	31.5	20.9	9.3	3.3	2.1	35.5	100.0	(5.3)
	기타	(9)	13.3	37.2	0.0	0.0	50.5	3.7	21.7	25.4	7.5	16.6	0.0	0.0	24.1	100.0	(4.2)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5	6.5	10.3	9.6	31.9	19.3	16.9	36.3	18.4	9.5	2.2	1.7	31.8	100.0	(5.3)
	중도	(2,262)	6.1	6.8	9.2	10.2	32.2	18.5	21.3	39.7	18.4	6.9	1.7	1.1	28.0	100.0	(5.2)
	진보적	(1,338)	6.7	6.7	12.7	12.5	38.6	15.7	14.5	30.2	17.1	8.7	4.1	1.3	31.2	100.0	(5.1)

표 50.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성세대 젊은세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크다			갈등이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16.0	51.9	68.0	30.5	1.5	32.0	100.0	(2.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4.7	54.2	68.9	29.9	1.2	31.1	100.0	(2.8)
	중소도시	(2,065)	18.3	50.0	68.3	30.0	1.6	31.7	100.0	(2.8)
	읍/면	(665)	13.8	49.7	63.5	34.3	2.2	36.5	100.0	(2.8)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5.1	57.7	72.8	25.4	1.8	27.2	100.0	(2.9)
	판매/영업/서비스	(2,146)	18.1	50.6	68.7	29.5	1.8	31.3	100.0	(2.8)
	생산/기능/노무직	(478)	12.0	54.1	66.1	32.3	1.6	33.9	100.0	(2.8)
	사무/관리/전문직	(1,067)	14.6	53.9	68.5	30.1	1.4	31.5	100.0	(2.8)
	주부	(725)	15.2	51.6	66.8	32.4	0.8	33.2	100.0	(2.8)
	학생	(365)	16.4	51.2	67.7	31.8	0.5	32.3	100.0	(2.8)
	무직/은퇴/기타	(213)	14.7	50.1	64.8	33.1	2.2	35.2	100.0	(2.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8.2	49.2	67.4	31.8	0.8	32.6	100.0	(2.8)
	고등학교 졸업	(2,180)	17.7	50.0	67.6	30.8	1.6	32.4	100.0	(2.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4.1	54.2	68.4	30.1	1.5	31.6	100.0	(2.8)
	대학원 졸업	(98)	14.2	55.2	69.4	27.5	3.2	30.6	100.0	(2.8)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5.5	55.3	70.8	27.8	1.5	29.2	100.0	(2.8)
	200만원 ~ 299만원	(814)	22.4	50.2	72.7	26.2	1.1	27.3	100.0	(2.9)
	300만원 ~ 499만원	(1,949)	15.2	52.0	67.2	31.3	1.5	32.8	100.0	(2.8)
	500만원 ~ 699만원	(1,366)	14.9	50.6	65.5	32.6	1.9	34.5	100.0	(2.8)
	700만원 이상	(409)	11.7	55.3	67.0	31.8	1.2	33.0	100.0	(2.8)
종교	종교 없음	(3,111)	17.5	53.0	70.5	28.2	1.3	29.5	100.0	(2.9)
	기독교	(921)	14.2	53.1	67.3	31.0	1.7	32.7	100.0	(2.8)
	불교	(796)	12.8	47.5	60.3	38.1	1.6	39.7	100.0	(2.7)
	천주교	(263)	15.1	48.5	63.7	33.5	2.8	36.3	100.0	(2.8)
	기타	(9)	7.5	62.8	70.3	29.7	0.0	29.7	100.0	(2.8)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6.2	52.7	68.9	29.5	1.6	31.1	100.0	(2.8)
	중도	(2,262)	16.4	49.8	66.2	32.4	1.4	33.8	100.0	(2.8)
	진보적	(1,338)	15.3	54.7	69.9	28.5	1.5	30.1	100.0	(2.8)

표 5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기업자와 근로자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크다			갈등이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26.5	51.2	77.7	21.0	1.3	22.3	100.0	(3.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6.3	52.5	78.8	19.9	1.3	21.2	100.0	(3.0)
	중소도시	(2,065)	27.4	50.1	77.4	21.6	1.0	22.6	100.0	(3.0)
	읍/면	(665)	24.8	50.0	74.9	23.3	1.9	25.1	100.0	(3.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4.7	57.2	81.9	17.7	0.4	18.1	100.0	(3.1)
	판매/영업/서비스	(2,146)	28.5	50.3	78.8	19.9	1.3	21.2	100.0	(3.1)
	생산/기능/노무직	(478)	28.3	48.1	76.4	21.8	1.8	23.6	100.0	(3.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4.8	53.9	78.7	20.3	1.0	21.3	100.0	(3.0)
	주부	(725)	20.6	53.6	74.2	24.4	1.4	25.8	100.0	(2.9)
	학생	(365)	33.4	43.7	77.1	22.1	0.8	22.9	100.0	(3.1)
	무직/은퇴/기타	(213)	20.6	55.1	75.7	22.2	2.1	24.3	100.0	(2.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6.7	51.7	78.4	21.2	0.4	21.6	100.0	(3.0)
	고등학교 졸업	(2,180)	27.6	49.6	77.2	21.2	1.6	22.8	100.0	(3.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5.5	52.8	78.3	20.6	1.2	21.7	100.0	(3.0)
	대학원 졸업	(98)	26.2	47.8	74.0	25.4	0.6	26.0	100.0	(3.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6.2	50.7	76.9	21.8	1.3	23.1	100.0	(3.0)
	200만원 ~ 299만원	(814)	31.3	49.6	80.8	18.1	1.1	19.2	100.0	(3.1)
	300만원 ~ 499만원	(1,949)	26.7	51.3	78.0	21.0	1.1	22.0	100.0	(3.0)
	500만원 ~ 699만원	(1,366)	25.2	51.2	76.4	22.2	1.3	23.6	100.0	(3.0)
	700만원 이상	(409)	21.0	54.9	75.9	21.9	2.3	24.1	100.0	(2.9)
종교	종교 없음	(3,111)	28.2	51.4	79.6	19.5	0.9	20.4	100.0	(3.1)
	기독교	(921)	25.6	48.9	74.5	23.1	2.4	25.5	100.0	(3.0)
	불교	(796)	22.0	51.9	73.9	24.6	1.5	26.1	100.0	(2.9)
	천주교	(263)	22.6	55.2	77.8	21.2	1.0	22.2	100.0	(3.0)
	기타	(9)	44.8	51.5	96.3	3.7	0.0	3.7	100.0	(3.4)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4.0	51.2	75.2	23.3	1.5	24.8	100.0	(3.0)
	중도	(2,262)	26.4	50.9	77.3	21.3	1.4	22.7	100.0	(3.0)
	진보적	(1,338)	29.5	51.8	81.3	17.8	0.8	18.7	100.0	(3.1)

표 52.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부유층과 서민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크다			갈등이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36.5	42.4	78.9	19.4	1.7	21.1	100.0	(3.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6.7	42.6	79.3	18.9	1.9	20.7	100.0	(3.1)
	중소도시	(2,065)	36.1	42.8	78.8	19.8	1.4	21.2	100.0	(3.1)
	읍/면	(665)	36.9	40.8	77.7	20.2	2.1	22.3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2.6	48.4	81.0	18.6	0.4	19.0	100.0	(3.1)
	판매/영업/서비스	(2,146)	37.7	42.2	79.9	17.9	2.2	20.1	100.0	(3.2)
	생산/기능/노무직	(478)	33.8	42.9	76.7	21.5	1.8	23.3	100.0	(3.1)
	사무/관리/전문직	(1,067)	38.2	40.9	79.1	19.9	1.0	20.9	100.0	(3.2)
	주부	(725)	35.5	41.5	77.0	21.7	1.3	23.0	100.0	(3.1)
	학생	(365)	33.3	42.5	75.8	22.6	1.7	24.2	100.0	(3.1)
	무직/은퇴/기타	(213)	31.5	52.1	83.6	14.7	1.7	16.4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9.6	43.0	82.6	16.9	0.5	17.4	100.0	(3.2)
	고등학교 졸업	(2,180)	37.5	41.5	79.0	19.1	1.8	21.0	100.0	(3.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4.8	43.3	78.0	20.1	1.8	22.0	100.0	(3.1)
	대학원 졸업	(98)	37.5	39.6	77.1	20.1	2.7	22.9	100.0	(3.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9.0	41.8	80.8	18.3	0.9	19.2	100.0	(3.2)
	200만원 ~ 299만원	(814)	39.5	41.7	81.1	18.1	0.8	18.9	100.0	(3.2)
	300만원 ~ 499만원	(1,949)	35.8	43.8	79.5	19.0	1.4	20.5	100.0	(3.1)
	500만원 ~ 699만원	(1,366)	35.2	42.6	77.8	19.8	2.4	22.2	100.0	(3.1)
	700만원 이상	(409)	34.6	37.9	72.5	24.0	3.6	27.5	100.0	(3.0)
종교	종교 없음	(3,111)	39.6	41.4	81.0	17.5	1.5	19.0	100.0	(3.2)
	기독교	(921)	33.1	45.1	78.1	19.7	2.1	21.9	100.0	(3.1)
	불교	(796)	29.9	43.5	73.3	24.7	1.9	26.7	100.0	(3.0)
	천주교	(263)	31.0	42.5	73.5	24.1	2.4	26.5	100.0	(3.0)
	기타	(9)	45.1	26.9	71.9	28.1	0.0	28.1	100.0	(3.2)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3.4	44.1	77.5	21.2	1.3	22.5	100.0	(3.1)
	중도	(2,262)	37.7	40.9	78.5	19.4	2.0	21.5	100.0	(3.1)
	진보적	(1,338)	37.8	43.2	81.0	17.3	1.6	19.0	100.0	(3.2)

표 53.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수도권과 지방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크다			갈등이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15.6	46.1	61.7	35.2	3.1	38.3	100.0	(2.7)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2.3	48.0	60.3	36.2	3.5	39.7	100.0	(2.7)
	중소도시	(2,065)	18.0	44.0	61.9	35.4	2.7	38.1	100.0	(2.8)
	읍/면	(665)	20.4	46.0	66.4	31.0	2.6	33.6	100.0	(2.8)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6.5	43.5	69.9	28.3	1.8	30.1	100.0	(2.9)
	판매/영업/서비스	(2,146)	18.0	46.4	64.4	32.9	2.6	35.6	100.0	(2.8)
	생산/기능/노무직	(478)	12.4	44.7	57.1	39.6	3.2	42.9	100.0	(2.7)
	사무/관리/전문직	(1,067)	14.3	47.1	61.4	35.4	3.1	38.6	100.0	(2.7)
	주부	(725)	13.0	46.5	59.5	38.0	2.5	40.5	100.0	(2.7)
	학생	(365)	12.8	47.4	60.2	34.7	5.2	39.8	100.0	(2.7)
	무직/은퇴/기타	(213)	13.6	39.2	52.8	41.9	5.2	47.2	100.0	(2.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8.5	45.4	63.9	33.6	2.5	36.1	100.0	(2.8)
	고등학교 졸업	(2,180)	16.0	46.7	62.7	34.9	2.4	37.3	100.0	(2.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4.4	45.8	60.2	36.1	3.7	39.8	100.0	(2.7)
	대학원 졸업	(98)	23.2	43.2	66.3	28.6	5.0	33.7	100.0	(2.8)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5.9	47.9	63.8	32.2	4.0	36.2	100.0	(2.8)
	200만원 ~ 299만원	(814)	22.4	44.1	66.5	31.0	2.5	33.5	100.0	(2.9)
	300만원 ~ 499만원	(1,949)	14.6	47.3	61.9	35.5	2.6	38.1	100.0	(2.7)
	500만원 ~ 699만원	(1,366)	12.4	46.4	58.7	37.9	3.3	41.3	100.0	(2.7)
	700만원 이상	(409)	17.4	41.2	58.6	37.4	4.0	41.4	100.0	(2.7)
종교	종교 없음	(3,111)	15.6	47.7	63.2	34.1	2.7	36.8	100.0	(2.8)
	기독교	(921)	16.5	43.9	60.4	36.4	3.2	39.6	100.0	(2.7)
	불교	(796)	15.2	42.5	57.8	38.5	3.7	42.2	100.0	(2.7)
	천주교	(263)	14.7	46.1	60.7	34.6	4.7	39.3	100.0	(2.7)
	기타	(9)	15.9	56.0	71.9	17.0	11.0	28.1	100.0	(2.8)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5.3	41.5	56.8	40.0	3.2	43.2	100.0	(2.7)
	중도	(2,262)	16.8	48.4	65.2	31.7	3.1	34.8	100.0	(2.8)
	진보적	(1,338)	14.0	47.4	61.4	35.7	2.8	38.6	100.0	(2.7)

표 54.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남성과 여성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크다			갈등이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12.8	42.1	54.9	40.6	4.5	45.1	100.0	(2.6)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1.8	43.1	55.0	40.9	4.1	45.0	100.0	(2.6)
	중소도시	(2,065)	14.0	41.5	55.5	39.9	4.5	44.5	100.0	(2.7)
	읍/면	(665)	12.6	40.2	52.8	41.5	5.7	47.2	100.0	(2.6)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4.2	41.2	55.4	40.1	4.5	44.6	100.0	(2.7)
	판매/영업/서비스	(2,146)	14.7	41.4	56.1	39.7	4.2	43.9	100.0	(2.7)
	생산/기능/노무직	(478)	10.3	39.5	49.8	45.0	5.1	50.2	100.0	(2.6)
	사무/관리/전문직	(1,067)	10.5	45.7	56.2	38.7	5.2	43.8	100.0	(2.6)
	주부	(725)	9.6	44.1	53.7	42.4	3.9	46.3	100.0	(2.6)
	학생	(365)	18.5	36.5	55.0	41.8	3.2	45.0	100.0	(2.7)
	무직/은퇴/기타	(213)	11.6	40.0	51.7	41.5	6.8	48.3	100.0	(2.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1.4	46.6	58.0	37.5	4.5	42.0	100.0	(2.6)
	고등학교 졸업	(2,180)	13.0	42.3	55.3	40.9	3.8	44.7	100.0	(2.6)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2.8	41.3	54.1	40.9	5.0	45.9	100.0	(2.6)
	대학원 졸업	(98)	16.6	34.7	51.3	41.6	7.1	48.7	100.0	(2.6)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1.9	45.7	57.6	38.9	3.5	42.4	100.0	(2.7)
	200만원 ~ 299만원	(814)	20.4	41.0	61.4	34.2	4.4	38.6	100.0	(2.8)
	300만원 ~ 499만원	(1,949)	11.6	44.7	56.3	40.1	3.6	43.7	100.0	(2.6)
	500만원 ~ 699만원	(1,366)	10.8	39.1	49.9	44.4	5.7	50.1	100.0	(2.6)
	700만원 이상	(409)	11.8	36.8	48.7	45.3	6.0	51.3	100.0	(2.5)
종교	종교 없음	(3,111)	14.0	42.3	56.3	39.9	3.8	43.7	100.0	(2.7)
	기독교	(921)	12.1	41.5	53.7	41.9	4.5	46.3	100.0	(2.6)
	불교	(796)	9.9	42.2	52.1	41.1	6.8	47.9	100.0	(2.6)
	천주교	(263)	10.4	42.0	52.4	42.5	5.1	47.6	100.0	(2.6)
	기타	(9)	7.5	29.2	36.7	63.3	0.0	63.3	100.0	(2.4)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0.2	43.0	53.2	42.7	4.2	46.8	100.0	(2.6)
	중도	(2,262)	14.2	40.4	54.6	40.0	5.5	45.4	100.0	(2.6)
	진보적	(1,338)	13.4	44.1	57.5	39.3	3.2	42.5	100.0	(2.7)

표 5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진보와 보수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크다			갈등이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56.6	35.3	91.8	7.5	0.7	8.2	100.0	(3.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56.7	35.7	92.4	7.1	0.5	7.6	100.0	(3.5)
	중소도시	(2,065)	56.9	34.6	91.5	7.8	0.7	8.5	100.0	(3.5)
	읍/면	(665)	55.2	35.6	90.8	8.0	1.2	9.2	100.0	(3.4)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7.9	46.9	94.8	4.8	0.4	5.2	100.0	(3.4)
	판매/영업/서비스	(2,146)	56.4	36.2	92.5	6.8	0.6	7.5	100.0	(3.5)
	생산/기능/노무직	(478)	60.3	31.3	91.6	7.7	0.8	8.4	100.0	(3.5)
	사무/관리/전문직	(1,067)	58.6	33.1	91.7	7.9	0.4	8.3	100.0	(3.5)
	주부	(725)	54.0	36.6	90.6	9.1	0.3	9.4	100.0	(3.4)
	학생	(365)	59.9	33.3	93.2	6.4	0.4	6.8	100.0	(3.5)
	무직/은퇴/기타	(213)	47.9	39.1	87.0	9.0	4.0	13.0	100.0	(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55.3	34.4	89.7	9.0	1.2	10.3	100.0	(3.4)
	고등학교 졸업	(2,180)	55.5	36.3	91.8	7.4	0.8	8.2	100.0	(3.5)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57.9	34.4	92.3	7.2	0.4	7.7	100.0	(3.5)
	대학원 졸업	(98)	55.6	37.1	92.7	7.3	0.0	7.3	100.0	(3.5)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8.4	40.7	89.1	9.5	1.4	10.9	100.0	(3.4)
	200만원 ~ 299만원	(814)	57.0	34.3	91.2	7.6	1.2	8.8	100.0	(3.5)
	300만원 ~ 499만원	(1,949)	56.8	34.7	91.5	8.1	0.4	8.5	100.0	(3.5)
	500만원 ~ 699만원	(1,366)	56.7	36.0	92.7	6.6	0.7	7.3	100.0	(3.5)
	700만원 이상	(409)	65.6	29.9	95.5	4.5	0.0	4.5	100.0	(3.6)
종교	종교 없음	(3,111)	58.0	34.4	92.4	7.0	0.6	7.6	100.0	(3.5)
	기독교	(921)	55.1	35.1	90.1	8.8	1.0	9.9	100.0	(3.4)
	불교	(796)	53.2	38.7	91.8	7.7	0.5	8.2	100.0	(3.4)
	천주교	(263)	54.8	36.6	91.4	7.4	1.1	8.6	100.0	(3.5)
	기타	(9)	72.9	16.1	89.0	11.0	0.0	11.0	100.0	(3.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4.5	36.9	91.4	7.9	0.7	8.6	100.0	(3.5)
	중도	(2,262)	55.9	35.6	91.5	7.9	0.6	8.5	100.0	(3.5)
	진보적	(1,338)	60.0	32.9	92.9	6.4	0.6	7.1	100.0	(3.5)

표 56.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 크다			갈등이 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28.5	52.6	81.1	17.8	1.1	18.9	100.0	(3.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7.8	55.2	83.0	16.1	0.9	17.0	100.0	(3.1)
	중소도시	(2,065)	28.8	50.1	78.9	20.0	1.1	21.1	100.0	(3.1)
	읍/면	(665)	29.9	51.3	81.2	16.7	2.1	18.8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8.0	56.8	84.8	14.8	0.4	15.2	100.0	(3.1)
	판매/영업/서비스	(2,146)	31.3	51.5	82.8	16.3	0.9	17.2	100.0	(3.1)
	생산/기능/노무직	(478)	28.0	51.3	79.3	20.0	0.7	20.7	100.0	(3.1)
	사무/관리/전문직	(1,067)	28.1	52.4	80.5	17.6	1.9	19.5	100.0	(3.1)
	주부	(725)	21.7	57.8	79.6	20.0	0.4	20.4	100.0	(3.0)
	학생	(365)	32.3	48.7	81.0	17.2	1.8	19.0	100.0	(3.1)
	무직/은퇴/기타	(213)	20.0	55.1	75.1	22.4	2.5	24.9	100.0	(2.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9.9	52.2	82.1	16.9	1.0	17.9	100.0	(3.1)
	고등학교 졸업	(2,180)	28.9	52.2	81.0	17.6	1.4	19.0	100.0	(3.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7.7	53.3	81.1	18.0	0.9	18.9	100.0	(3.1)
	대학원 졸업	(98)	31.0	48.0	79.0	20.0	1.0	21.0	100.0	(3.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8.3	51.6	79.9	19.0	1.1	20.1	100.0	(3.1)
	200만원 ~ 299만원	(814)	29.7	51.2	80.9	18.0	1.1	19.1	100.0	(3.1)
	300만원 ~ 499만원	(1,949)	29.5	53.1	82.6	16.2	1.2	17.4	100.0	(3.1)
	500만원 ~ 699만원	(1,366)	27.5	52.8	80.3	18.5	1.2	19.7	100.0	(3.1)
	700만원 이상	(409)	24.9	54.1	79.0	20.3	0.7	21.0	100.0	(3.0)
종교	종교 없음	(3,111)	29.7	52.1	81.8	17.2	1.0	18.2	100.0	(3.1)
	기독교	(921)	27.8	52.7	80.6	17.8	1.6	19.4	100.0	(3.1)
	불교	(796)	26.3	52.4	78.6	19.9	1.4	21.4	100.0	(3.0)
	천주교	(263)	23.9	57.9	81.7	17.9	0.4	18.3	100.0	(3.1)
	기타	(9)	7.5	81.4	89.0	11.0	0.0	11.0	100.0	(3.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6.3	50.9	77.1	22.0	0.9	22.9	100.0	(3.0)
	중도	(2,262)	28.4	53.2	81.6	17.2	1.2	18.4	100.0	(3.1)
	진보적	(1,338)	31.2	53.5	84.7	14.0	1.3	15.3	100.0	(3.1)

표 57.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갈등이크다			갈등이작다			계	(평균)	
		① 갈등이 매우 크다 (4점)	② 갈등이 큰 편이다 (3점)		③ 갈등이 작은 편이다 (2점)	④ 갈등이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38.0	47.3	85.3	14.2	0.5	14.7	100.0	(3.2)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7.7	49.6	87.3	12.2	0.5	12.7	100.0	(3.2)
	중소도시	(2,065)	38.8	44.6	83.4	16.1	0.5	16.6	100.0	(3.2)
	읍/면	(665)	36.3	47.6	83.9	15.6	0.5	16.1	100.0	(3.2)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0.8	43.5	84.3	15.3	0.4	15.7	100.0	(3.2)
	판매/영업/서비스	(2,146)	40.0	46.4	86.3	13.3	0.4	13.7	100.0	(3.3)
	생산/기능/노무직	(478)	39.5	43.8	83.3	16.0	0.7	16.7	100.0	(3.2)
	사무/관리/전문직	(1,067)	37.4	47.8	85.2	14.2	0.6	14.8	100.0	(3.2)
	주부	(725)	34.7	50.1	84.7	15.1	0.2	15.3	100.0	(3.2)
	학생	(365)	36.6	47.4	84.0	15.6	0.4	16.0	100.0	(3.2)
	무직/은퇴/기타	(213)	29.4	54.4	83.8	14.4	1.8	16.2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8.3	48.6	86.9	12.4	0.8	13.1	100.0	(3.2)
	고등학교 졸업	(2,180)	39.1	46.5	85.6	13.9	0.5	14.4	100.0	(3.2)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7.1	47.6	84.6	14.9	0.4	15.4	100.0	(3.2)
	대학원 졸업	(98)	33.4	51.5	84.9	14.5	0.6	15.1	100.0	(3.2)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5.1	49.3	84.5	14.6	1.0	15.5	100.0	(3.2)
	200만원 ~ 299만원	(814)	39.5	46.8	86.3	12.7	1.0	13.7	100.0	(3.2)
	300만원 ~ 499만원	(1,949)	40.0	45.6	85.6	14.1	0.3	14.4	100.0	(3.3)
	500만원 ~ 699만원	(1,366)	38.0	46.1	84.1	15.4	0.5	15.9	100.0	(3.2)
	700만원 이상	(409)	28.9	57.5	86.4	13.5	0.1	13.6	100.0	(3.2)
종교	종교 없음	(3,111)	39.0	47.5	86.5	13.2	0.3	13.5	100.0	(3.3)
	기독교	(921)	37.4	46.1	83.5	15.6	0.9	16.5	100.0	(3.2)
	불교	(796)	34.1	48.9	83.0	16.2	0.8	17.0	100.0	(3.2)
	천주교	(263)	39.4	44.2	83.6	16.0	0.5	16.4	100.0	(3.2)
	기타	(9)	29.9	59.0	89.0	11.0	0.0	11.0	100.0	(3.2)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5.2	49.5	84.7	14.6	0.7	15.3	100.0	(3.2)
	중도	(2,262)	37.9	48.1	86.0	13.6	0.4	14.0	100.0	(3.2)
	진보적	(1,338)	41.1	43.5	84.6	14.9	0.4	15.4	100.0	(3.3)

표 58.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인식 - 한국인과 외국인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계	(평균)		
		① 같거나 매우 크다 (4점)	② 같거나 큰 편이다 (3점)	③ 같거나 작은 편이다 (2점)	④ 같거나 매우 작다 (1점)					
전 체	(5,100)	8.4	41.2	49.7	46.0	4.3	50.3	100.0	(2.5)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6.9	41.2	48.1	47.8	4.1	51.9	100.0	(2.5)
	중소도시	(2,065)	9.3	41.2	50.5	44.8	4.7	49.5	100.0	(2.6)
	읍/면	(665)	11.1	41.6	52.7	43.3	4.0	47.3	100.0	(2.6)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3.2	43.5	66.7	32.2	1.2	33.3	100.0	(2.9)
	판매/영업/서비스	(2,146)	10.1	43.4	53.5	42.3	4.2	46.5	100.0	(2.6)
	생산/기능/노무직	(478)	5.7	40.4	46.1	49.5	4.4	53.9	100.0	(2.5)
	사무/관리/전문직	(1,067)	6.6	40.3	47.0	48.2	4.9	53.0	100.0	(2.5)
	주부	(725)	6.2	37.7	44.0	53.3	2.7	56.0	100.0	(2.5)
	학생	(365)	6.6	42.5	49.1	44.9	6.0	50.9	100.0	(2.5)
	무직/은퇴/기타	(213)	9.8	35.1	44.9	49.0	6.2	55.1	100.0	(2.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2.5	45.0	57.5	40.0	2.5	42.5	100.0	(2.7)
	고등학교 졸업	(2,180)	9.3	40.7	50.0	45.6	4.4	50.0	100.0	(2.5)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8	41.0	47.8	47.6	4.7	52.2	100.0	(2.5)
	대학원 졸업	(98)	8.1	40.9	49.0	47.9	3.2	51.0	100.0	(2.5)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2.6	42.5	55.1	40.9	4.0	44.9	100.0	(2.6)
	200만원 ~ 299만원	(814)	13.1	44.1	57.2	38.8	3.9	42.8	100.0	(2.7)
	300만원 ~ 499만원	(1,949)	8.1	40.2	48.3	47.7	4.0	51.7	100.0	(2.5)
	500만원 ~ 699만원	(1,366)	5.1	41.4	46.5	48.9	4.6	53.5	100.0	(2.5)
	700만원 이상	(409)	6.1	38.4	44.5	49.7	5.8	55.5	100.0	(2.4)
종교	종교 없음	(3,111)	8.7	41.8	50.5	45.5	4.0	49.5	100.0	(2.6)
	기독교	(921)	7.7	40.1	47.9	46.9	5.2	52.1	100.0	(2.5)
	불교	(796)	9.4	40.3	49.6	45.8	4.6	50.4	100.0	(2.5)
	천주교	(263)	5.1	41.9	47.0	49.8	3.2	53.0	100.0	(2.5)
	기타	(9)	0.0	40.4	40.4	53.2	6.4	59.6	100.0	(2.3)
이념성향	보수적	(1,500)	8.0	40.0	48.0	47.6	4.4	52.0	100.0	(2.5)
	중도	(2,262)	10.1	40.3	50.4	45.3	4.3	49.6	100.0	(2.6)
	진보적	(1,338)	6.1	44.2	50.3	45.5	4.2	49.7	100.0	(2.5)

표 59. 경제적 양극화 인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심각하다			심각하지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심각하다 (4점)	② 심각한 편이다 (3점)		③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점)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7.6	63.0	90.6	9.1	0.3	9.4	100.0	(3.2)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0.0	62.1	92.1	7.6	0.3	7.9	100.0	(3.2)
	중소도시	(2,065)	25.3	64.1	89.4	10.3	0.3	10.6	100.0	(3.1)
	읍/면	(665)	26.2	62.7	88.9	10.6	0.5	11.1	100.0	(3.1)
직업	농림수산업축산업	(106)	30.8	61.7	92.4	6.8	0.7	7.6	100.0	(3.2)
	판매/영업/서비스	(2,146)	27.7	63.0	90.7	9.0	0.3	9.3	100.0	(3.2)
	생산/기능/노무직	(478)	25.6	66.9	92.5	7.1	0.4	7.5	100.0	(3.2)
	사무/관리/전문직	(1,067)	29.7	60.9	90.6	9.1	0.3	9.4	100.0	(3.2)
	주부	(725)	25.3	65.3	90.5	9.5	0.0	9.5	100.0	(3.2)
	학생	(365)	26.4	61.1	87.5	12.5	0.0	12.5	100.0	(3.1)
	무직/은퇴/기타	(213)	29.5	60.5	90.0	8.3	1.6	10.0	100.0	(3.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5.5	65.4	90.9	8.9	0.3	9.1	100.0	(3.2)
	고등학교 졸업	(2,180)	27.2	63.1	90.2	9.3	0.4	9.8	100.0	(3.2)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8.3	62.5	90.8	8.9	0.3	9.2	100.0	(3.2)
	대학원 졸업	(98)	30.3	60.6	90.9	9.1	0.0	9.1	100.0	(3.2)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8.0	64.8	92.7	6.8	0.5	7.3	100.0	(3.2)
	200만원 ~ 299만원	(814)	19.3	69.8	89.1	10.6	0.2	10.9	100.0	(3.1)
	300만원 ~ 499만원	(1,949)	28.5	62.2	90.6	9.0	0.3	9.4	100.0	(3.2)
	500만원 ~ 699만원	(1,366)	31.9	58.8	90.7	8.8	0.5	9.3	100.0	(3.2)
	700만원 이상	(409)	25.0	64.9	89.9	10.1	0.0	10.1	100.0	(3.1)
종교	종교 없음	(3,111)	28.5	62.9	91.4	8.3	0.3	8.6	100.0	(3.2)
	기독교	(921)	26.3	63.4	89.7	9.9	0.3	10.3	100.0	(3.2)
	불교	(796)	25.5	64.4	89.9	9.8	0.2	10.1	100.0	(3.2)
	천주교	(263)	26.1	59.9	86.0	13.3	0.7	14.0	100.0	(3.1)
	기타	(9)	60.0	40.0	100.0	0.0	0.0	0.0	100.0	(3.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8.1	60.2	88.3	11.0	0.7	11.7	100.0	(3.2)
	중도	(2,262)	25.5	65.4	90.9	8.9	0.2	9.1	100.0	(3.2)
	진보적	(1,338)	30.5	62.1	92.7	7.2	0.1	7.3	100.0	(3.2)

표 60. 우리 사회 신뢰수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할 수 없다					보통이다			신뢰 할 수 있다					계	(평균)	
		1	2	3	4		5	6		7	8	9	10				
전 체	(5,100)	1.0	2.7	7.5	12.4	23.7	20.7	22.1	42.8	23.5	9.1	0.8	0.2	33.6	100.0	(5.6)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4	3.1	7.9	12.1	24.5	21.3	21.7	43.0	22.7	8.5	1.1	0.2	32.6	100.0	(5.6)
	중소도시	(2,065)	0.6	2.1	8.1	13.5	24.2	19.8	18.9	38.7	26.1	10.1	0.5	0.3	37.0	100.0	(5.7)
	읍/면	(665)	0.7	3.3	4.5	10.4	19.0	21.4	33.4	54.8	17.8	8.0	0.4	0.0	26.2	100.0	(5.6)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2	4.2	7.4	5.3	19.1	24.3	28.2	52.5	20.4	6.9	0.7	0.4	28.4	100.0	(5.5)
	판매/영업/서비스	(2,146)	1.1	3.0	7.5	13.4	25.1	20.8	19.6	40.4	25.1	8.7	0.5	0.2	34.5	100.0	(5.6)
	생산/기능/노무직	(478)	0.6	2.8	8.3	12.6	24.2	21.3	20.4	41.7	21.6	11.8	0.4	0.3	34.1	100.0	(5.6)
	사무/관리/전문직	(1,067)	0.4	2.6	7.1	13.4	23.4	19.3	24.3	43.6	22.2	9.2	1.5	0.1	33.0	100.0	(5.7)
	주부	(725)	1.1	1.7	6.4	10.3	19.5	22.2	22.7	44.9	25.5	9.4	0.5	0.1	35.6	100.0	(5.7)
	학생	(365)	1.9	2.4	8.1	11.2	23.6	20.8	28.1	48.8	17.1	9.7	0.7	0.0	27.5	100.0	(5.5)
	무직/은퇴/기타	(213)	0.3	3.9	11.2	10.1	25.6	18.7	24.2	42.9	22.7	6.2	2.3	0.3	31.6	100.0	(5.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0	1.8	7.4	9.5	19.8	18.6	24.4	43.0	26.9	9.0	0.9	0.5	37.3	100.0	(5.8)
	고등학교 졸업	(2,180)	0.8	3.0	7.2	13.0	24.0	21.3	20.7	42.0	24.4	8.8	0.5	0.2	34.0	100.0	(5.6)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9	2.6	7.8	12.6	24.0	20.5	22.9	43.4	22.3	9.3	0.9	0.1	32.6	100.0	(5.6)
	대학원 졸업	(98)	4.5	6.7	7.7	8.4	27.3	23.4	20.9	44.4	12.4	13.2	2.3	0.5	28.3	100.0	(5.3)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4	3.4	7.7	11.5	24.0	20.1	22.6	42.7	21.2	11.0	0.8	0.5	33.4	100.0	(5.6)
	200만원 ~ 299만원	(814)	1.1	3.7	7.5	10.9	23.2	22.0	20.1	42.1	25.6	8.3	0.8	0.0	34.7	100.0	(5.6)
	300만원 ~ 499만원	(1,949)	1.0	2.2	7.9	13.0	24.1	20.0	22.3	42.3	23.5	9.1	0.8	0.3	33.6	100.0	(5.6)
	500만원 ~ 699만원	(1,366)	0.7	2.6	6.6	13.9	23.8	20.7	22.8	43.5	23.3	8.6	0.8	0.1	32.8	100.0	(5.6)
	700만원 이상	(409)	0.8	2.9	8.8	9.2	21.6	22.6	21.8	44.4	22.9	10.2	0.9	0.1	34.0	100.0	(5.6)
종교	종교 없음	(3,111)	0.5	2.3	7.6	12.8	23.3	20.8	21.8	42.5	23.7	9.4	0.8	0.1	34.1	100.0	(5.6)
	기독교	(921)	1.3	2.3	7.0	10.9	21.5	22.1	24.6	46.7	23.5	7.6	0.4	0.3	31.8	100.0	(5.6)
	불교	(796)	2.2	4.5	7.0	12.1	25.9	20.5	19.9	40.3	21.9	10.4	1.1	0.3	33.8	100.0	(5.5)
	천주교	(263)	0.8	3.7	8.8	14.1	27.4	16.6	23.5	40.1	25.0	7.2	0.0	0.3	32.5	100.0	(5.5)
	기타	(9)	0.0	0.0	28.8	8.4	37.2	5.6	28.2	33.8	10.5	11.0	7.5	0.0	29.0	100.0	(5.5)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3	3.4	8.7	12.6	26.1	20.0	19.9	39.9	23.5	9.5	0.8	0.2	34.0	100.0	(5.5)
	중도	(2,262)	0.6	2.2	7.0	12.6	22.4	21.4	23.3	44.7	23.4	8.6	0.7	0.2	32.9	100.0	(5.6)
	진보적	(1,338)	1.1	2.9	7.1	12.0	23.1	20.4	22.4	42.8	23.5	9.6	0.8	0.2	34.1	100.0	(5.6)

표 61.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0.8	10.4	11.2	66.6	22.2	88.8	100.0	(3.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0.8	8.8	9.5	68.0	22.5	90.5	100.0	(3.1)
	중소도시	(2,065)	0.8	12.3	13.1	66.5	20.4	86.9	100.0	(3.1)
	읍/면	(665)	0.8	10.3	11.1	62.2	26.7	88.9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9	14.4	17.3	59.2	23.4	82.7	100.0	(3.0)
	판매/영업/서비스	(2,146)	0.8	12.6	13.4	67.7	18.9	86.6	100.0	(3.0)
	생산/기능/노무직	(478)	0.3	9.4	9.7	71.7	18.6	90.3	100.0	(3.1)
	사무/관리/전문직	(1,067)	0.7	7.6	8.3	65.3	26.5	91.7	100.0	(3.2)
	주부	(725)	0.8	10.2	11.1	65.2	23.8	88.9	100.0	(3.1)
	학생	(365)	0.3	7.2	7.5	64.3	28.3	92.5	100.0	(3.2)
	무직/은퇴/기타	(213)	1.5	9.1	10.6	63.4	26.1	89.4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9	12.8	14.7	63.9	21.3	85.3	100.0	(3.0)
	고등학교 졸업	(2,180)	0.8	13.0	13.8	67.3	18.9	86.2	100.0	(3.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0.5	7.2	7.7	67.0	25.3	92.3	100.0	(3.2)
	대학원 졸업	(98)	1.1	18.1	19.2	53.0	27.8	80.8	100.0	(3.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5	11.0	12.6	66.7	20.7	87.4	100.0	(3.1)
	200만원 ~ 299만원	(814)	1.0	15.8	16.7	62.7	20.6	83.3	100.0	(3.0)
	300만원 ~ 499만원	(1,949)	0.7	11.4	12.2	66.5	21.3	87.8	100.0	(3.1)
	500만원 ~ 699만원	(1,366)	0.6	6.4	7.1	69.9	23.1	92.9	100.0	(3.2)
	700만원 이상	(409)	0.0	7.2	7.2	63.7	29.1	92.8	100.0	(3.2)
종교	종교 없음	(3,111)	0.3	10.5	10.9	68.4	20.7	89.1	100.0	(3.1)
	기독교	(921)	1.8	11.2	13.0	62.8	24.2	87.0	100.0	(3.1)
	불교	(796)	1.2	9.0	10.1	65.8	24.0	89.9	100.0	(3.1)
	천주교	(263)	1.2	9.7	10.9	61.2	27.9	89.1	100.0	(3.2)
	기타	(9)	0.0	21.3	21.3	60.2	18.6	78.7	100.0	(3.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0	10.5	11.5	64.6	23.9	88.5	100.0	(3.1)
	중도	(2,262)	0.8	12.9	13.7	65.6	20.7	86.3	100.0	(3.1)
	진보적	(1,338)	0.4	6.1	6.5	70.6	22.9	93.5	100.0	(3.2)

표 62.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이웃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4.1	33.0	37.1	59.3	3.6	62.9	100.0	(2.6)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8	33.8	38.6	58.2	3.2	61.4	100.0	(2.6)
	중소도시	(2,065)	3.8	32.1	35.9	60.9	3.2	64.1	100.0	(2.6)
	읍/면	(665)	2.6	33.1	35.7	58.6	5.8	64.3	100.0	(2.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6.0	26.3	32.3	52.2	15.5	67.7	100.0	(2.8)
	판매/영업/서비스	(2,146)	3.7	34.0	37.7	59.8	2.5	62.3	100.0	(2.6)
	생산/기능/노무직	(478)	2.9	30.9	33.8	62.0	4.2	66.2	100.0	(2.7)
	사무/관리/전문직	(1,067)	4.3	35.7	39.9	56.6	3.5	60.1	100.0	(2.6)
	주부	(725)	3.2	27.5	30.7	65.6	3.7	69.3	100.0	(2.7)
	학생	(365)	8.4	39.1	47.5	49.7	2.8	52.5	100.0	(2.5)
	무직/은퇴/기타	(213)	5.1	26.5	31.6	60.5	7.8	68.4	100.0	(2.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1	28.3	31.4	61.3	7.3	68.6	100.0	(2.7)
	고등학교 졸업	(2,180)	3.9	30.9	34.8	62.0	3.1	65.2	100.0	(2.6)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4.3	35.8	40.1	56.7	3.2	59.9	100.0	(2.6)
	대학원 졸업	(98)	7.9	37.7	45.6	51.1	3.3	54.4	100.0	(2.5)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8	31.2	35.1	59.3	5.6	64.9	100.0	(2.7)
	200만원 ~ 299만원	(814)	5.7	34.1	39.8	55.9	4.3	60.2	100.0	(2.6)
	300만원 ~ 499만원	(1,949)	4.0	33.0	37.0	60.2	2.8	63.0	100.0	(2.6)
	500만원 ~ 699만원	(1,366)	3.7	32.7	36.4	60.8	2.8	63.6	100.0	(2.6)
	700만원 이상	(409)	3.2	34.6	37.8	56.9	5.3	62.2	100.0	(2.6)
종교	종교 없음	(3,111)	4.6	34.7	39.3	58.0	2.6	60.7	100.0	(2.6)
	기독교	(921)	2.7	31.0	33.6	61.3	5.1	66.4	100.0	(2.7)
	불교	(796)	3.5	30.1	33.6	61.2	5.2	66.4	100.0	(2.7)
	천주교	(263)	4.7	28.8	33.5	62.7	3.8	66.5	100.0	(2.7)
	기타	(9)	14.9	43.9	58.8	33.6	7.5	41.2	100.0	(2.3)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1	29.0	32.2	62.9	4.9	67.8	100.0	(2.7)
	중도	(2,262)	4.7	34.4	39.1	57.4	3.5	60.9	100.0	(2.6)
	진보적	(1,338)	4.2	35.2	39.4	58.5	2.1	60.6	100.0	(2.6)

표 63.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처음 만난 낯선 사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34.9	54.2	89.1	10.6	0.3	109.9	100.0	(1.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3.3	57.0	90.4	9.4	0.3	9.6	100.0	(1.8)
	중소도시	(2,065)	34.0	53.2	87.2	12.5	0.3	12.8	100.0	(1.8)
	읍/면	(665)	43.1	47.4	90.5	8.9	0.6	9.5	100.0	(1.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6.8	41.0	87.7	12.3	0.0	12.3	100.0	(1.7)
	판매/영업/서비스	(2,146)	34.3	55.1	89.3	10.2	0.4	10.7	100.0	(1.8)
	생산/기능/노무직	(478)	35.7	51.3	87.0	12.8	0.2	13.0	100.0	(1.8)
	사무/관리/전문직	(1,067)	34.5	55.5	90.1	9.4	0.5	9.9	100.0	(1.8)
	주부	(725)	33.7	54.9	88.6	11.3	0.1	11.4	100.0	(1.8)
	학생	(365)	43.5	47.7	91.2	8.6	0.2	8.8	100.0	(1.7)
	무직/은퇴/기타	(213)	24.3	61.5	85.8	14.2	0.0	14.2	100.0	(1.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2.9	51.7	84.6	15.3	0.1	15.4	100.0	(1.8)
	고등학교 졸업	(2,180)	33.0	55.5	88.5	11.2	0.3	11.5	100.0	(1.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7.2	53.4	90.6	8.9	0.5	9.4	100.0	(1.7)
	대학원 졸업	(98)	30.8	58.5	89.4	10.6	0.0	10.6	100.0	(1.8)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3.1	52.7	85.9	13.9	0.3	14.1	100.0	(1.8)
	200만원 ~ 299만원	(814)	35.2	53.5	88.7	10.9	0.4	11.3	100.0	(1.8)
	300만원 ~ 499만원	(1,949)	37.6	51.7	89.2	10.5	0.3	10.8	100.0	(1.7)
	500만원 ~ 699만원	(1,366)	33.2	58.0	91.2	8.4	0.4	8.8	100.0	(1.8)
	700만원 이상	(409)	29.4	57.4	86.8	12.9	0.2	13.2	100.0	(1.8)
종교	종교 없음	(3,111)	36.1	53.4	89.5	10.1	0.4	10.5	100.0	(1.7)
	기독교	(921)	31.6	57.2	88.7	10.9	0.4	11.3	100.0	(1.8)
	불교	(796)	33.8	54.3	88.1	11.8	0.2	11.9	100.0	(1.8)
	천주교	(263)	35.8	52.5	88.3	11.5	0.2	11.7	100.0	(1.8)
	기타	(9)	23.3	76.7	100.0	0.0	0.0	0.0	100.0	(1.8)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1.9	56.0	87.9	11.7	0.4	12.1	100.0	(1.8)
	중도	(2,262)	35.4	54.1	89.5	10.4	0.1	10.5	100.0	(1.8)
	진보적	(1,338)	37.3	52.5	89.8	9.5	0.7	10.2	100.0	(1.7)

표 64. 사회적 자원에 대한 신뢰 - 국내 거주 외국인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계	(평균)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점)	②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점)		③ 약간 신뢰한다 (3점)	④ 매우 신뢰한다 (4점)				
전 체	(5,100)	34.3	54.0	88.3	11.4	0.3	11.7	100.0	(1.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2.6	56.3	88.9	10.9	0.2	11.1	100.0	(1.8)
	중소도시	(2,065)	34.4	53.2	87.6	12.2	0.2	12.4	100.0	(1.8)
	읍/면	(665)	39.9	48.3	88.2	11.1	0.7	11.8	100.0	(1.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9.6	48.3	87.9	12.1	0.0	12.1	100.0	(1.7)
	판매/영업/서비스	(2,146)	35.8	53.8	89.5	10.3	0.2	10.5	100.0	(1.7)
	생산/기능/노무직	(478)	36.1	51.3	87.4	12.2	0.4	12.6	100.0	(1.8)
	사무/관리/전문직	(1,067)	31.2	55.8	87.0	12.4	0.6	13.0	100.0	(1.8)
	주부	(725)	34.8	54.6	89.4	10.6	0.0	10.6	100.0	(1.8)
	학생	(365)	36.4	53.6	90.1	9.9	0.0	9.9	100.0	(1.7)
	무직/은퇴/기타	(213)	22.1	55.7	77.8	22.2	0.0	22.2	100.0	(2.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5.1	50.5	85.6	14.1	0.3	14.4	100.0	(1.8)
	고등학교 졸업	(2,180)	35.6	53.6	89.2	10.5	0.3	10.8	100.0	(1.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3.2	55.0	88.2	11.6	0.2	11.8	100.0	(1.8)
	대학원 졸업	(98)	24.5	59.3	83.7	16.3	0.0	16.3	100.0	(1.9)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4.5	50.2	84.7	15.2	0.2	15.3	100.0	(1.8)
	200만원 ~ 299만원	(814)	37.1	52.7	89.8	9.8	0.4	10.2	100.0	(1.7)
	300만원 ~ 499만원	(1,949)	36.8	51.8	88.6	11.1	0.3	11.4	100.0	(1.7)
	500만원 ~ 699만원	(1,366)	32.7	56.2	89.0	10.8	0.3	11.0	100.0	(1.8)
	700만원 이상	(409)	21.1	65.4	86.5	13.5	0.0	13.5	100.0	(1.9)
종교	종교 없음	(3,111)	34.9	54.0	88.9	10.9	0.2	11.1	100.0	(1.8)
	기독교	(921)	34.3	53.6	87.9	12.0	0.1	12.1	100.0	(1.8)
	불교	(796)	32.9	53.8	86.7	12.7	0.6	13.3	100.0	(1.8)
	천주교	(263)	29.5	57.4	87.0	12.6	0.4	13.0	100.0	(1.8)
	기타	(9)	50.6	43.8	94.4	5.6	0.0	5.6	100.0	(1.5)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3.4	53.8	87.2	12.6	0.2	12.8	100.0	(1.8)
	중도	(2,262)	35.4	54.4	89.8	10.0	0.2	10.2	100.0	(1.8)
	진보적	(1,338)	33.3	53.6	86.9	12.7	0.4	13.1	100.0	(1.8)

표 65.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두뇌(능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3점)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1.3	16.3	17.6	47.9	33.2	1.3	34.5	100.0	(3.2)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0	15.4	16.3	47.9	34.3	1.5	35.7	100.0	(3.2)
	중소도시	(2,065)	1.4	16.0	17.5	47.1	34.3	1.1	35.5	100.0	(3.2)
	읍/면	(665)	1.7	20.7	22.4	50.5	26.1	1.0	27.1	100.0	(3.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7	22.4	24.2	55.7	19.7	0.4	20.1	100.0	(2.9)
	판매/영업/서비스	(2,146)	1.2	16.5	17.7	48.7	32.2	1.4	33.6	100.0	(3.2)
	생산/기능/노무직	(478)	1.2	15.9	17.1	50.6	31.8	0.6	32.3	100.0	(3.1)
	사무/관리/전문직	(1,067)	0.8	17.3	18.1	44.7	35.8	1.4	37.2	100.0	(3.2)
	주부	(725)	1.3	13.9	15.2	49.5	34.6	0.7	35.3	100.0	(3.2)
	학생	(365)	1.5	17.2	18.7	43.5	35.9	1.9	37.8	100.0	(3.2)
	무직/은퇴/기타	(213)	3.9	14.3	18.2	47.8	31.6	2.4	34.0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0	18.4	20.4	47.3	30.7	1.5	32.3	100.0	(3.1)
	고등학교 졸업	(2,180)	1.1	16.6	17.7	51.9	29.3	1.2	30.5	100.0	(3.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1	15.6	16.8	44.7	37.3	1.3	38.6	100.0	(3.2)
	대학원 졸업	(98)	4.5	17.0	21.5	40.7	36.7	1.1	37.8	100.0	(3.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7	17.1	19.7	50.4	28.6	1.3	29.8	100.0	(3.1)
	200만원 ~ 299만원	(814)	1.3	20.3	21.5	48.7	28.7	1.1	29.8	100.0	(3.1)
	300만원 ~ 499만원	(1,949)	1.4	15.7	17.0	49.2	32.3	1.5	33.7	100.0	(3.2)
	500만원 ~ 699만원	(1,366)	0.7	14.9	15.6	45.9	37.4	1.1	38.5	100.0	(3.2)
	700만원 이상	(409)	0.5	15.5	16.0	43.4	39.3	1.3	40.6	100.0	(3.3)
종교	종교 없음	(3,111)	1.2	16.8	18.0	47.6	33.4	1.0	34.4	100.0	(3.2)
	기독교	(921)	1.3	15.4	16.7	48.9	33.2	1.1	34.4	100.0	(3.2)
	불교	(796)	1.1	16.6	17.7	48.2	32.0	2.1	34.1	100.0	(3.2)
	천주교	(263)	2.1	12.8	14.9	47.9	34.6	2.6	37.2	100.0	(3.2)
	기타	(9)	0.0	29.2	29.2	33.7	37.2	0.0	37.2	100.0	(3.1)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5	16.6	18.1	47.4	32.9	1.5	34.5	100.0	(3.2)
	중도	(2,262)	1.0	16.4	17.4	50.0	31.8	0.9	32.7	100.0	(3.2)
	진보적	(1,338)	1.4	16.0	17.4	45.0	36.1	1.5	37.6	100.0	(3.2)

표 66.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일과 관련된 기술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3점)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1.7	18.4	20.1	43.4	33.7	2.8	36.5	100.0	(3.2)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6	18.1	19.7	44.1	33.6	2.6	36.2	100.0	(3.2)
	중소도시	(2,065)	1.9	17.5	19.4	42.4	35.2	3.0	38.2	100.0	(3.2)
	읍/면	(665)	1.1	22.7	23.8	43.9	29.1	3.1	32.2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0.7	24.2	24.9	52.1	22.5	0.4	23.0	100.0	(3.0)
	판매/영업/서비스	(2,146)	1.4	17.9	19.3	43.7	34.1	2.9	37.0	100.0	(3.2)
	생산/기능/노무직	(478)	1.4	20.8	22.2	39.8	35.7	2.3	38.0	100.0	(3.2)
	사무/관리/전문직	(1,067)	1.6	20.4	22.0	40.7	34.2	3.1	37.3	100.0	(3.2)
	주부	(725)	2.0	14.5	16.6	47.5	32.6	3.4	36.0	100.0	(3.2)
	학생	(365)	2.0	18.2	20.2	45.3	32.2	2.2	34.4	100.0	(3.1)
	무직/은퇴/기타	(213)	3.3	20.1	23.4	40.5	34.0	2.1	36.1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4	18.4	20.8	45.0	31.2	3.0	34.2	100.0	(3.1)
	고등학교 졸업	(2,180)	1.5	17.9	19.4	44.6	32.8	3.2	36.0	100.0	(3.2)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6	18.7	20.4	42.3	34.8	2.6	37.3	100.0	(3.2)
	대학원 졸업	(98)	3.0	23.1	26.1	33.1	39.8	1.0	40.8	100.0	(3.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9	18.1	21.0	44.4	31.0	3.6	34.6	100.0	(3.1)
	200만원 ~ 299만원	(814)	1.3	19.2	20.5	45.7	30.8	3.0	33.8	100.0	(3.1)
	300만원 ~ 499만원	(1,949)	2.0	19.9	21.8	41.6	33.9	2.7	36.6	100.0	(3.2)
	500만원 ~ 699만원	(1,366)	1.1	16.9	17.9	44.7	34.6	2.7	37.3	100.0	(3.2)
	700만원 이상	(409)	1.1	16.2	17.3	41.3	39.2	2.3	41.4	100.0	(3.3)
종교	종교 없음	(3,111)	1.7	19.3	21.0	42.9	33.5	2.6	36.1	100.0	(3.2)
	기독교	(921)	1.7	17.5	19.2	43.6	33.9	3.3	37.2	100.0	(3.2)
	불교	(796)	1.5	16.9	18.4	43.5	34.8	3.3	38.1	100.0	(3.2)
	천주교	(263)	1.5	16.5	18.0	47.3	32.4	2.4	34.7	100.0	(3.2)
	기타	(9)	6.8	8.4	15.2	73.6	11.2	0.0	11.2	100.0	(2.9)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0	19.3	21.3	43.7	32.2	2.8	35.1	100.0	(3.1)
	중도	(2,262)	1.4	18.2	19.6	45.5	32.0	3.0	35.0	100.0	(3.2)
	진보적	(1,338)	1.8	18.0	19.7	39.6	38.2	2.5	40.7	100.0	(3.2)

표 67.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노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3점)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3.9	25.8	29.6	43.3	24.6	2.4	27.0	100.0	(3.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1	28.5	32.6	39.7	25.1	2.6	27.8	100.0	(2.9)
	중소도시	(2,065)	3.3	23.6	26.9	46.2	24.8	2.1	26.9	100.0	(3.0)
	읍/면	(665)	5.0	22.7	27.7	47.5	22.3	2.5	24.8	100.0	(2.9)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2	30.1	33.3	51.9	11.2	3.6	14.8	100.0	(2.8)
	판매/영업/서비스	(2,146)	3.9	26.2	30.1	43.3	24.3	2.2	26.6	100.0	(2.9)
	생산/기능/노무직	(478)	3.0	24.6	27.6	44.4	27.1	0.9	28.0	100.0	(3.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8	25.9	29.8	41.6	26.0	2.7	28.6	100.0	(3.0)
	주부	(725)	3.7	23.8	27.5	44.9	25.1	2.5	27.6	100.0	(3.0)
	학생	(365)	4.8	25.3	30.1	44.3	22.4	3.2	25.6	100.0	(2.9)
	무직/은퇴/기타	(213)	6.0	28.3	34.3	37.7	24.5	3.5	28.0	100.0	(2.9)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9	23.3	26.2	46.7	24.6	2.5	27.1	100.0	(3.0)
	고등학교 졸업	(2,180)	4.0	26.5	30.4	44.7	22.7	2.1	24.9	100.0	(2.9)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9	25.8	29.6	41.8	26.0	2.6	28.6	100.0	(3.0)
	대학원 졸업	(98)	8.2	22.4	30.7	32.4	33.8	3.1	36.9	100.0	(3.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6	22.0	27.6	47.1	22.2	3.2	25.3	100.0	(3.0)
	200만원 ~ 299만원	(814)	4.2	25.9	30.1	42.5	25.3	2.0	27.3	100.0	(2.9)
	300만원 ~ 499만원	(1,949)	4.0	27.5	31.5	43.6	22.5	2.4	24.9	100.0	(2.9)
	500만원 ~ 699만원	(1,366)	2.7	25.5	28.2	43.1	26.6	2.0	28.6	100.0	(3.0)
	700만원 이상	(409)	4.6	22.8	27.4	39.0	30.4	3.2	33.6	100.0	(3.0)
종교	종교 없음	(3,111)	4.3	27.0	31.3	42.7	23.5	2.5	26.0	100.0	(2.9)
	기독교	(921)	2.9	24.0	26.9	43.4	27.3	2.4	29.7	100.0	(3.0)
	불교	(796)	4.1	23.5	27.6	45.8	24.6	2.0	26.6	100.0	(3.0)
	천주교	(263)	1.9	23.6	25.5	43.3	29.1	2.1	31.2	100.0	(3.1)
	기타	(9)	6.8	44.1	50.9	30.6	18.6	0.0	18.6	100.0	(2.6)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7	25.8	29.4	43.0	24.3	3.3	27.6	100.0	(3.0)
	중도	(2,262)	4.6	24.9	29.4	44.1	24.3	2.1	26.5	100.0	(2.9)
	진보적	(1,338)	3.0	27.2	30.3	42.4	25.6	1.8	27.4	100.0	(3.0)

표 68. 가진 것에 대한 사회의 공정한 대우 - 경력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불공정하다			③ 보통이다 (3점)	공정하다		계	(평균)		
		① 매우 불공정하다 (1점)	② 약간 불공정하다 (2점)	④ 약간 공정하다 (4점)		⑤ 매우 공정하다 (5점)					
전 체	(5,100)	29	23.5	26.5	49.0	22.7	1.8	24.5	100.0	(3.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9	25.3	27.3	48.5	22.5	1.7	24.2	100.0	(3.0)
	중소도시	(2,065)	3.6	22.6	26.2	48.7	23.5	1.7	25.1	100.0	(3.0)
	읍/면	(665)	4.6	19.9	24.5	51.7	21.2	2.6	23.8	100.0	(3.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1	26.6	28.7	55.6	15.3	0.4	15.7	100.0	(2.9)
	판매/영업/서비스	(2,146)	2.7	24.9	27.6	49.8	20.6	1.9	22.5	100.0	(2.9)
	생산/기능/노무직	(478)	3.0	27.2	30.1	42.2	26.1	1.6	27.6	100.0	(3.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9	22.2	25.2	47.3	25.6	2.0	27.5	100.0	(3.0)
	주부	(725)	2.0	20.9	22.8	52.8	22.9	1.4	24.4	100.0	(3.0)
	학생	(365)	4.8	21.5	26.2	47.9	23.6	2.3	25.9	100.0	(3.0)
	무직/은퇴/기타	(213)	5.9	18.5	24.4	50.6	24.0	1.1	25.1	100.0	(3.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3	23.5	26.8	51.0	20.3	1.9	22.2	100.0	(2.9)
	고등학교 졸업	(2,180)	3.0	25.6	28.5	50.3	19.3	1.9	21.2	100.0	(2.9)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8	21.8	24.6	47.5	26.3	1.6	28.0	100.0	(3.0)
	대학원 졸업	(98)	4.3	19.5	23.8	48.8	24.5	3.0	27.4	100.0	(3.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3	21.6	25.9	48.4	23.7	2.0	25.7	100.0	(3.0)
	200만원 ~ 299만원	(814)	2.7	26.3	29.0	48.4	20.5	2.2	22.7	100.0	(2.9)
	300만원 ~ 499만원	(1,949)	3.4	24.7	28.1	48.3	21.8	1.8	23.6	100.0	(2.9)
	500만원 ~ 699만원	(1,366)	2.2	21.7	23.9	50.3	24.4	1.4	25.8	100.0	(3.0)
	700만원 이상	(409)	1.9	21.2	23.1	50.3	24.6	2.0	26.6	100.0	(3.0)
종교	종교 없음	(3,111)	3.1	25.0	28.1	49.1	21.2	1.7	22.8	100.0	(2.9)
	기독교	(921)	2.4	22.0	24.5	49.9	23.3	2.3	25.6	100.0	(3.0)
	불교	(796)	3.1	19.6	22.6	48.5	27.4	1.5	28.8	100.0	(3.0)
	천주교	(263)	2.5	22.4	24.9	47.2	25.2	2.6	27.9	100.0	(3.0)
	기타	(9)	6.8	35.7	42.5	37.9	19.6	0.0	19.6	100.0	(2.7)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5	22.4	25.9	47.6	24.5	2.0	26.4	100.0	(3.0)
	중도	(2,262)	2.9	24.0	26.9	50.7	20.5	1.9	22.4	100.0	(2.9)
	진보적	(1,338)	2.3	24.1	26.4	47.7	24.5	1.4	25.9	100.0	(3.0)

표 69.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1순위

(단위 : %)

구 분	사태수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	혼합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외로움/ 우울증 등 심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인공지능 (AI) 기술 발달 (대학형 로봇 등)	건강관리/ 돌봄/가사 활동지원 등의 요구 증가	공유/렌탈 서비스 발달	안전시설 확충 요구 증가	계	
전 체	(5,100)	23.9	22.6	17.0	9.2	6.7	6.2	5.0	4.5	3.8	0.9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2.5	22.6	19.5	8.5	7.3	6.1	4.3	4.0	4.2	0.9	100.0
	중소도시	(2,065)	24.1	22.0	16.3	10.1	6.0	6.2	5.8	4.7	3.8	1.1	100.0
	읍/면	(665)	28.4	24.4	10.7	9.1	6.8	6.6	5.1	5.8	2.7	0.3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9.3	15.4	11.7	14.3	6.8	7.8	1.7	11.2	1.3	0.6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22.4	22.4	18.6	9.1	6.9	5.6	5.6	3.7	4.9	0.8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20.9	25.1	13.4	12.5	7.3	6.2	6.0	4.0	3.7	1.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6.6	24.0	16.1	7.3	6.6	6.0	4.8	4.6	3.3	0.6	100.0
	주부	(725)	27.1	19.9	16.5	11.5	5.5	6.6	3.8	5.6	2.0	1.5	100.0
	학생	(365)	24.8	25.3	19.6	5.8	6.1	5.0	5.3	2.5	4.2	1.2	100.0
	무직/은퇴/기타	(213)	17.2	20.7	14.5	8.8	8.0	13.1	3.9	9.8	3.1	0.8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3.2	15.0	12.8	17.2	9.1	8.6	3.4	7.3	2.7	0.6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23.5	21.8	16.6	10.5	6.8	6.0	5.8	4.3	3.7	1.0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4.7	25.0	18.2	6.5	6.2	5.8	4.7	4.0	4.0	0.9	100.0
	대학원 졸업	(98)	19.7	18.9	20.9	5.5	4.4	6.6	4.9	8.2	9.0	1.8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0.5	21.3	13.4	14.9	8.4	7.7	3.3	7.0	2.7	0.8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19.7	20.5	18.7	10.1	6.8	7.3	6.2	4.3	5.5	0.9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23.1	24.5	16.9	9.5	6.8	5.6	4.9	4.5	3.5	0.6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28.3	23.0	15.3	7.0	5.8	6.0	5.2	3.8	4.1	1.4	100.0
	700만원 이상	(409)	26.3	18.2	25.0	6.3	6.3	5.4	5.0	3.8	2.8	1.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24.7	23.1	17.4	9.1	7.4	5.7	4.6	3.6	3.8	0.7	100.0
	기독교	(921)	21.2	22.5	17.4	11.2	5.9	6.8	6.1	4.0	4.2	0.9	100.0
	불교	(796)	23.8	21.9	16.5	7.6	5.9	7.3	5.2	6.9	3.3	1.6	100.0
	천주교	(263)	23.4	19.4	13.9	9.6	4.1	7.1	6.8	10.6	3.9	1.1	100.0
	기타	(9)	45.8	8.4	0.0	12.3	0.0	11.0	0.0	0.0	22.4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4.7	20.9	16.7	10.1	6.7	5.9	5.1	5.3	3.9	0.8	100.0
	중도	(2,262)	21.9	22.8	17.1	9.9	6.4	6.9	5.0	4.4	4.5	1.1	100.0
	진보적	(1,338)	26.5	24.2	17.3	7.2	7.1	5.4	5.1	3.9	2.7	0.7	100.0

표 70.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2순위

(단위 : %)

구 분	사태수	비혼/ 저출산 현상 심화	혼합,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외로움/ 우울증 등 심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소형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건강관리/ 돌봄/가사 활동지원 등의 요구 증가	공유/렌탈 서비스 발달	인공지능 (AI) 기술 발달 (대화형 로봇 등)	인문사실 확충 요구 증가	계	
전 체	(5,100)	20.7	15.6	12.9	11.8	11.7	8.3	7.2	4.9	4.8	2.0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0.5	15.8	12.0	11.7	9.9	9.6	6.3	6.0	5.7	2.4	100.0
	중소도시	(2,065)	19.9	15.2	14.0	13.1	13.3	7.0	7.1	4.6	4.1	1.8	100.0
	읍/면	(665)	23.7	16.2	12.9	8.1	13.3	8.0	10.6	2.1	3.9	1.3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1.6	16.2	15.7	3.2	18.9	1.5	11.7	5.1	4.3	1.7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21.1	15.6	13.7	11.7	10.2	8.6	7.3	4.8	5.4	1.6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16.1	16.3	13.4	14.7	13.0	8.3	9.3	3.5	2.3	3.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2.7	15.4	10.0	10.4	11.7	9.0	6.7	6.1	5.6	2.3	100.0
	주부	(725)	20.3	12.2	15.5	12.9	15.4	8.4	7.7	3.0	2.8	1.8	100.0
	학생	(365)	15.7	21.8	8.8	15.5	9.8	7.5	4.6	7.9	6.1	2.2	100.0
	무직/은퇴/기타	(213)	26.6	16.7	15.0	7.0	10.8	6.6	4.3	4.9	6.4	1.7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1.7	12.8	16.0	6.9	15.3	9.8	9.5	3.6	2.5	2.1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20.7	14.0	15.0	12.2	12.4	7.2	8.1	3.6	5.0	1.8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0.5	17.5	10.6	12.5	10.4	9.4	5.6	6.3	5.3	2.1	100.0
	대학원 졸업	(98)	20.6	21.8	7.6	8.9	9.7	1.9	13.0	9.3	3.3	3.9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9.9	11.8	15.7	9.9	14.5	7.2	9.0	4.7	4.7	2.6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1.3	17.6	14.4	11.6	9.9	7.2	8.0	4.2	4.5	1.4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20.6	14.5	12.4	14.2	11.4	8.3	7.5	4.4	4.9	1.8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21.4	16.8	13.0	10.8	11.6	8.8	6.1	5.5	4.1	1.9	100.0
	700만원 이상	(409)	18.7	18.8	8.4	6.4	13.4	10.4	5.2	7.5	7.8	3.5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20.6	15.8	12.5	12.6	12.0	8.5	6.8	4.7	4.8	1.8	100.0
	기독교	(921)	21.8	16.7	11.3	9.6	11.4	8.5	7.8	6.0	4.7	2.0	100.0
	불교	(796)	17.9	15.0	17.8	11.8	10.3	7.2	6.9	5.0	5.1	3.0	100.0
	천주교	(263)	26.8	12.3	8.9	9.8	13.9	8.3	9.3	4.3	5.0	1.4	100.0
	기타	(9)	5.6	3.7	14.9	6.4	13.3	8.4	40.2	7.5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0.4	13.7	15.1	10.6	14.0	7.5	7.1	4.5	4.6	2.5	100.0
	중도	(2,262)	20.5	15.8	12.7	12.5	10.8	7.7	7.9	4.7	5.5	1.9	100.0
	진보적	(1,338)	21.3	17.6	10.7	12.0	10.7	10.3	6.0	5.9	4.0	1.5	100.0

표 71.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혼/ 저출산 현상 심화	혼반,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소형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외로움/ 우울증 등 심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건강관리/ 돌봄/가사 활동지원 등의 요구 증가	인공지능 (AI) 기술 발달 (대화형 로봇 등)	공유/렌탈 서비스 발달	안전시설 확충 요구 증가	
전 체	(5,100)	44.6	38.2	25.4	22.2	18.5	17.9	11.7	9.9	8.8	2.9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3.1	38.4	29.1	20.5	19.0	16.0	10.3	10.1	10.3	3.3
	중소도시	(2,065)	44.0	37.3	23.2	24.1	19.0	19.5	11.8	9.9	8.4	2.9
	읍/면	(665)	52.1	40.5	18.7	22.0	15.0	19.9	16.4	9.0	4.8	1.5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50.9	31.6	13.3	30.0	10.0	26.7	22.8	6.1	6.4	2.3
	판매/영업/서비스	(2,146)	43.5	37.9	27.2	22.8	18.6	15.8	11.0	11.0	9.7	2.4
	생산/기능/노무직	(478)	36.9	41.4	21.7	25.9	22.0	19.3	13.4	8.3	7.2	4.0
	사무/관리/전문직	(1,067)	49.3	39.4	25.1	17.4	17.1	17.8	11.3	10.3	9.5	2.9
	주부	(725)	47.4	32.1	24.8	27.0	18.4	22.1	13.3	6.6	5.0	3.3
	학생	(365)	40.6	47.1	27.2	14.5	21.6	14.9	7.2	11.4	12.1	3.4
	무직/은퇴/기타	(213)	43.8	37.4	21.1	23.8	14.9	23.9	14.1	10.4	7.9	2.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4.9	27.8	22.5	33.2	16.0	23.9	16.8	5.9	6.3	2.6
	고등학교 졸업	(2,180)	44.2	35.9	23.8	25.5	19.0	18.5	12.4	10.8	7.3	2.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45.1	42.5	27.5	17.1	18.7	16.2	9.6	9.9	10.3	2.9
	대학원 졸업	(98)	40.3	40.8	22.9	13.1	13.3	16.3	21.2	8.3	18.2	5.6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0.4	33.2	20.6	30.6	18.3	22.2	16.0	8.1	7.4	3.3
	200만원 ~ 299만원	(814)	41.1	38.1	25.9	24.4	18.4	17.3	12.2	10.7	9.6	2.3
	300만원 ~ 499만원	(1,949)	43.7	38.9	25.3	21.9	21.1	17.0	12.0	9.8	7.9	2.4
	500만원 ~ 699만원	(1,366)	49.7	39.8	24.1	20.0	16.6	17.6	10.0	9.3	9.6	3.3
	700만원 이상	(409)	45.0	37.0	35.5	14.6	12.7	18.8	8.9	12.8	10.2	4.5
종교	종교 없음	(3,111)	45.3	38.9	25.9	21.5	20.0	17.6	10.3	9.4	8.5	2.5
	기독교	(921)	43.0	39.2	25.9	22.5	15.5	18.2	11.8	10.7	10.1	2.9
	불교	(796)	41.8	36.9	23.7	25.3	17.7	17.7	13.9	10.3	8.2	4.5
	천주교	(263)	50.3	31.7	22.1	18.5	13.9	21.0	19.9	11.8	8.2	2.5
	기타	(9)	51.4	12.1	8.4	27.2	6.4	24.4	40.2	0.0	29.9	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45.0	34.6	24.2	25.2	17.3	19.9	12.5	9.7	8.4	3.3
	중도	(2,262)	42.4	38.5	24.8	22.6	18.9	17.7	12.3	10.5	9.2	3.0
	진보적	(1,338)	47.9	41.8	27.5	17.9	19.1	16.0	9.9	9.1	8.6	2.2

표 72.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정치개혁	국민안전(대외)	복지	환경오염	소통	교육	치안(대내)	기타	계
전 체		(5,100)	31.3	22.9	20.2	8.8	5.3	3.6	2.9	2.8	1.2	0.9	0.1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3.3	21.8	21.7	7.0	5.1	3.5	2.2	3.0	1.7	0.6	0.1	100.0
	중소도시	(2,065)	32.2	23.9	17.4	9.8	5.1	3.7	3.5	2.5	0.8	0.9	0.2	100.0
	읍/면	(665)	21.2	23.5	23.8	12.7	6.6	3.7	3.3	2.8	0.7	1.4	0.3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0.8	33.0	14.6	4.4	5.3	3.9	3.3	1.4	0.4	1.5	1.3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29.8	22.1	20.9	10.6	5.9	3.5	2.1	2.6	1.1	1.1	0.1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5.9	20.1	18.7	8.6	7.5	4.2	2.1	2.4	0.3	0.3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9.5	23.4	20.7	8.6	4.1	4.1	3.5	3.5	2.0	0.7	0.0	100.0
	주부	(725)	27.4	27.9	21.9	7.6	2.8	3.2	4.5	2.9	1.0	0.8	0.0	100.0
	학생	(365)	47.1	16.6	16.2	5.1	3.8	2.0	3.0	3.6	1.4	0.6	0.6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1.0	22.0	18.5	5.5	11.8	5.0	3.4	1.0	1.4	0.4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6.1	25.3	23.5	7.4	7.6	3.9	3.3	1.3	0.1	1.0	0.4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0.6	21.5	21.8	9.4	5.9	3.2	2.9	2.6	0.9	0.9	0.1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3.5	23.5	18.1	8.2	4.1	4.1	2.9	3.2	1.5	0.8	0.1	100.0
	대학원 졸업	(98)	18.4	23.7	18.3	17.0	9.4	1.1	0.0	4.0	7.4	0.7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4.7	20.8	21.6	7.6	5.9	3.6	3.0	1.3	0.3	1.1	0.1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8.2	20.2	20.0	12.5	7.5	4.3	3.9	1.6	1.0	0.6	0.2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2.4	22.7	21.5	8.7	4.2	3.1	2.5	2.9	1.2	0.7	0.1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0.9	25.8	19.3	6.9	4.6	3.5	3.0	3.0	1.4	1.2	0.2	100.0
	700만원 이상	(409)	28.2	21.9	15.8	10.6	8.0	5.2	2.1	5.5	2.3	0.3	0.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3.2	21.6	20.9	8.5	5.3	3.2	2.8	2.6	1.0	0.9	0.0	100.0
	기독교	(921)	28.1	22.8	18.6	9.5	6.0	5.9	3.2	3.2	2.0	0.5	0.2	100.0
	불교	(796)	30.4	24.8	20.7	8.6	4.5	2.8	3.4	2.6	0.6	1.2	0.3	100.0
	천주교	(263)	21.1	32.7	16.5	11.2	6.2	3.6	1.1	3.6	2.7	0.7	0.5	100.0
	기타	(9)	47.6	18.7	22.4	3.7	0.0	0.0	7.5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1.4	23.7	18.4	8.3	7.7	3.1	2.6	2.4	1.4	1.0	0.0	100.0
	중도	(2,262)	30.3	21.7	21.7	9.3	5.2	4.2	2.9	2.8	1.0	0.7	0.2	100.0
	진보적	(1,338)	32.7	23.8	19.9	8.6	2.9	3.3	3.2	3.2	1.4	0.9	0.2	100.0

표 73. 최근 3년 이내 정치참여 활동/방식

(단위 : %)

구 분		사례수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서명운동	후원/ 기부	평화적 집회	정당가입	간접/ 청원	시위	관련 시민단체 등 가입	언론투고	공론화 조사 시민참여 단	공청회 방향단	기타
전 체		(5,100)	77.9	13.8	7.4	3.1	2.6	2.2	2.1	0.7	0.5	0.5	0.3	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78.8	13.0	7.2	2.9	1.8	2.0	1.5	0.5	0.3	0.5	0.2	0.0
	중소도시	(2,065)	78.5	14.0	6.3	3.2	3.0	2.5	3.1	0.7	0.6	0.3	0.2	0.0
	읍/면	(665)	72.6	16.0	11.4	3.2	4.1	1.7	0.7	1.2	0.9	1.0	0.8	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81.1	8.5	3.7	2.5	4.6	0.0	2.0	0.4	0.6	2.0	1.3	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80.4	12.5	6.1	2.4	3.0	1.4	1.6	0.6	0.3	0.4	0.1	0.0
	생산/기능/노무직	(478)	80.0	10.6	5.6	3.3	2.9	1.6	1.4	1.1	0.4	0.0	0.1	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67.2	21.1	13.3	5.2	3.2	3.8	3.0	0.8	1.1	0.4	0.7	0.0
	주부	(725)	86.0	9.0	4.7	1.3	1.1	1.0	0.7	0.3	0.0	0.2	0.1	0.1
	학생	(365)	72.3	18.7	6.8	3.4	0.6	4.5	6.1	0.9	0.7	1.1	0.1	0.0
	무직/은퇴/기타	(213)	81.3	8.4	7.2	4.8	2.7	4.2	1.5	0.9	1.3	1.3	1.0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92.0	3.8	1.5	1.0	2.3	0.6	0.2	0.1	0.2	0.5	0.0	0.0
	고등학교 졸업	(2,180)	82.8	10.4	5.1	2.0	2.6	1.1	0.8	0.3	0.4	0.3	0.1	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71.3	18.8	10.3	4.2	2.5	3.5	3.7	1.0	0.5	0.7	0.5	0.0
	대학원 졸업	(98)	55.6	21.6	18.7	9.5	5.6	3.9	1.3	2.4	2.0	0.0	1.8	1.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85.5	8.6	4.3	1.9	2.4	1.9	1.5	0.6	0.4	0.4	0.3	0.0
	200만원 ~ 299만원	(814)	79.7	12.1	6.5	2.6	1.9	1.5	1.3	0.4	0.5	0.4	0.5	0.0
	300만원 ~ 499만원	(1,949)	78.8	13.8	5.7	2.8	2.2	2.0	1.5	0.4	0.4	0.3	0.2	0.0
	500만원 ~ 699만원	(1,366)	77.0	14.3	8.6	3.0	2.7	2.2	2.5	0.9	0.3	0.5	0.3	0.0
	700만원 이상	(409)	62.2	22.8	17.3	7.0	6.3	4.5	5.6	1.5	1.8	1.5	0.6	0.2
종교	종교 없음	(3,111)	80.8	12.3	6.0	3.0	2.0	2.0	2.0	0.4	0.4	0.4	0.1	0.0
	기독교	(921)	75.1	14.7	9.9	3.2	3.0	2.5	1.6	0.6	0.8	0.8	0.7	0.0
	불교	(796)	73.4	16.4	8.0	2.9	4.5	2.1	2.1	1.7	0.3	0.4	0.6	0.0
	천주교	(263)	67.0	20.5	14.3	3.9	3.1	2.9	4.7	0.4	1.3	0.0	0.0	0.4
	기타	(9)	76.4	12.3	0.0	3.7	5.6	0.0	0.0	0.0	0.0	7.5	0.0	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79.2	12.3	6.5	3.3	3.4	1.6	1.8	0.9	0.6	0.4	0.4	0.1
	중도	(2,262)	80.8	11.6	7.2	2.3	2.0	2.0	1.8	0.3	0.5	0.6	0.3	0.0
	진보적	(1,338)	71.4	19.3	8.8	4.1	2.7	3.2	2.9	1.1	0.4	0.4	0.2	0.0

표 74.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단위 : %)

구 분	사례수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우수하다 (4점)	② 대체로 우수하다 (3점)		③ 별로 우수하지 않다 (2점)	④ 전혀 우수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7.7	65.6	93.3	6.6	0.1	6.7	100.0	(3.2)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4.8	68.5	93.3	6.4	0.2	6.7	100.0	(3.2)
	중소도시	(2,065)	29.7	64.1	93.8	6.1	0.1	6.2	100.0	(3.2)
	읍/면	(665)	31.8	59.6	91.4	8.6	0.0	8.6	100.0	(3.2)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0.5	60.9	91.4	8.6	0.0	8.6	100.0	(3.2)
	판매/영업/서비스	(2,146)	24.7	69.1	93.8	6.0	0.1	6.2	100.0	(3.2)
	생산/기능/노무직	(478)	27.6	63.5	91.1	8.6	0.3	8.9	100.0	(3.2)
	사무/관리/전문직	(1,067)	30.4	62.8	93.2	6.7	0.1	6.8	100.0	(3.2)
	주부	(725)	29.5	64.6	94.0	6.0	0.0	6.0	100.0	(3.2)
	학생	(365)	30.0	62.3	92.3	7.6	0.2	7.7	100.0	(3.2)
	무직/은퇴/기타	(213)	32.9	60.1	93.1	6.5	0.5	6.9	100.0	(3.3)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1.7	63.7	95.4	4.4	0.2	4.6	100.0	(3.3)
	고등학교 졸업	(2,180)	25.3	67.8	93.1	6.9	0.1	6.9	100.0	(3.2)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9.1	63.9	93.0	6.8	0.2	7.0	100.0	(3.2)
	대학원 졸업	(98)	27.8	65.1	92.9	7.1	0.0	7.1	100.0	(3.2)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8.0	65.2	93.2	6.8	0.0	6.8	100.0	(3.2)
	200만원 ~ 299만원	(814)	24.1	68.3	92.4	7.4	0.2	7.6	100.0	(3.2)
	300만원 ~ 499만원	(1,949)	28.3	65.7	94.0	5.8	0.2	6.0	100.0	(3.2)
	500만원 ~ 699만원	(1,366)	27.9	65.5	93.3	6.6	0.1	6.7	100.0	(3.2)
	700만원 이상	(409)	31.0	60.2	91.1	8.6	0.2	8.9	100.0	(3.2)
종교	종교 없음	(3,111)	25.2	67.4	92.6	7.4	0.1	7.4	100.0	(3.2)
	기독교	(921)	29.6	64.7	94.2	5.3	0.4	5.8	100.0	(3.2)
	불교	(796)	32.0	62.1	94.1	5.7	0.2	5.9	100.0	(3.3)
	천주교	(263)	37.6	57.6	95.2	4.8	0.0	4.8	100.0	(3.3)
	기타	(9)	29.1	65.4	94.4	5.6	0.0	5.6	100.0	(3.2)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7.9	66.2	94.1	5.9	0.0	5.9	100.0	(3.2)
	중도	(2,262)	26.8	66.0	92.8	7.0	0.2	7.2	100.0	(3.2)
	진보적	(1,338)	29.0	64.1	93.1	6.7	0.2	6.9	100.0	(3.2)

표 75.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정신문화(총·효·예 및 정(情) 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우수하다 (4점)	② 대체로 우수하다 (3점)		③ 별로 우수하지 않다 (2점)	④ 전혀 우수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3.5	61.8	85.3	14.0	0.7	14.7	100.0	(3.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3.5	61.3	84.8	14.8	0.4	15.2	100.0	(3.1)
	중소도시	(2,065)	23.7	61.6	85.3	13.7	1.0	14.7	100.0	(3.1)
	읍/면	(665)	23.0	64.0	87.0	12.3	0.7	13.0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5.1	65.8	90.9	9.1	0.0	9.1	100.0	(3.2)
	판매/영업/서비스	(2,146)	21.4	62.7	84.1	15.1	0.7	15.9	100.0	(3.0)
	생산/기능/노무직	(478)	24.4	62.6	87.0	12.7	0.3	13.0	100.0	(3.1)
	사무/관리/전문직	(1,067)	26.2	61.3	87.5	11.9	0.6	12.5	100.0	(3.1)
	주부	(725)	25.1	60.8	85.9	13.3	0.8	14.1	100.0	(3.1)
	학생	(365)	20.5	59.6	80.1	19.1	0.9	19.9	100.0	(3.0)
	무직/은퇴/기타	(213)	29.2	57.9	87.0	12.5	0.5	13.0	100.0	(3.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9.0	61.6	90.6	8.8	0.7	9.4	100.0	(3.2)
	고등학교 졸업	(2,180)	21.5	63.5	85.0	14.3	0.8	15.0	100.0	(3.1)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4.3	60.2	84.5	15.0	0.5	15.5	100.0	(3.1)
	대학원 졸업	(98)	22.7	63.5	86.3	12.0	1.8	13.7	100.0	(3.1)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4.0	61.5	85.4	14.0	0.6	14.6	100.0	(3.1)
	200만원 ~ 299만원	(814)	24.6	62.1	86.7	12.6	0.7	13.3	100.0	(3.1)
	300만원 ~ 499만원	(1,949)	23.0	61.7	84.6	14.3	1.0	15.4	100.0	(3.1)
	500만원 ~ 699만원	(1,366)	23.5	62.3	85.8	13.8	0.4	14.2	100.0	(3.1)
	700만원 이상	(409)	23.4	60.6	83.9	16.1	0.0	16.1	100.0	(3.1)
종교	종교 없음	(3,111)	22.1	63.7	85.8	13.6	0.7	14.2	100.0	(3.1)
	기독교	(921)	23.4	60.7	84.1	15.2	0.7	15.9	100.0	(3.1)
	불교	(796)	27.7	59.0	86.7	12.5	0.8	13.3	100.0	(3.1)
	천주교	(263)	27.7	51.9	79.6	20.2	0.2	20.4	100.0	(3.1)
	기타	(9)	34.0	60.4	94.4	5.6	0.0	5.6	100.0	(3.3)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6.4	57.4	83.8	15.1	1.1	16.2	100.0	(3.1)
	중도	(2,262)	22.0	65.2	87.2	12.4	0.4	12.8	100.0	(3.1)
	진보적	(1,338)	22.9	61.0	83.9	15.6	0.6	16.1	100.0	(3.1)

표 76.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 -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단위 : %)

구 분	사례수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우수하다 (4점)	② 대체로 우수하다 (3점)		③ 별로 우수하지 않다 (2점)	④ 전혀 우수하지 않다 (1점)				
전 체	(5,100)	35.7	57.1	92.8	6.9	0.3	7.2	100.0	(3.3)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7.4	55.5	92.9	6.7	0.4	7.1	100.0	(3.3)
	중소도시	(2,065)	33.7	59.0	92.7	7.1	0.2	7.3	100.0	(3.3)
	읍/면	(665)	35.6	57.2	92.8	7.1	0.1	7.2	100.0	(3.3)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4.8	67.4	92.2	7.8	0.0	7.8	100.0	(3.2)
	판매/영업/서비스	(2,146)	33.8	59.0	92.7	7.0	0.3	7.3	100.0	(3.3)
	생산/기능/노무직	(478)	32.5	59.3	91.9	7.9	0.2	8.1	100.0	(3.2)
	사무/관리/전문직	(1,067)	39.1	54.3	93.4	6.3	0.3	6.6	100.0	(3.3)
	주부	(725)	35.5	56.7	92.2	7.4	0.4	7.8	100.0	(3.3)
	학생	(365)	43.6	50.2	93.7	5.7	0.6	6.3	100.0	(3.4)
학력	무직/은퇴/기타	(213)	36.9	55.9	92.8	6.4	0.8	7.2	100.0	(3.3)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2.4	60.1	92.5	6.8	0.7	7.5	100.0	(3.2)
	고등학교 졸업	(2,180)	33.2	59.2	92.4	7.5	0.1	7.6	100.0	(3.3)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8.8	54.4	93.2	6.4	0.4	6.8	100.0	(3.3)
소득	대학원 졸업	(98)	31.8	60.9	92.6	6.3	1.1	7.4	100.0	(3.2)
	200만원 미만	(562)	33.2	58.9	92.1	7.2	0.6	7.9	100.0	(3.2)
	200만원 ~ 299만원	(814)	31.6	60.4	92.0	7.6	0.4	8.0	100.0	(3.2)
	300만원 ~ 499만원	(1,949)	34.5	57.1	91.5	8.1	0.4	8.5	100.0	(3.3)
	500만원 ~ 699만원	(1,366)	39.0	55.5	94.5	5.5	0.0	5.5	100.0	(3.3)
700만원 이상	(409)	41.6	54.0	95.6	4.2	0.2	4.4	100.0	(3.4)	
종교	종교 없음	(3,111)	35.6	57.1	92.7	7.1	0.2	7.3	100.0	(3.3)
	기독교	(921)	35.7	57.3	93.0	6.3	0.7	7.0	100.0	(3.3)
	불교	(796)	33.9	59.0	92.9	6.8	0.3	7.1	100.0	(3.3)
	천주교	(263)	40.5	52.5	93.0	6.7	0.3	7.0	100.0	(3.3)
	기타	(9)	57.2	37.2	94.4	5.6	0.0	5.6	100.0	(3.5)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3.3	57.9	91.2	8.3	0.5	8.8	100.0	(3.2)
	중도	(2,262)	34.9	58.1	92.9	6.8	0.3	7.1	100.0	(3.3)
	진보적	(1,338)	39.7	54.7	94.4	5.6	0.1	5.6	100.0	(3.3)

표 77.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다문화 가정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7.1	64.8	71.9	26.7	1.4	28.1	100.0	(2.8)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5.9	67.2	73.1	26.0	1.0	26.9	100.0	(2.8)
	중소도시	(2,065)	9.0	63.8	72.9	25.5	1.6	27.1	100.0	(2.8)
	읍/면	(665)	5.8	58.9	64.7	33.3	2.0	35.3	100.0	(2.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8.9	65.9	74.9	25.1	0.0	25.1	100.0	(2.8)
	판매/영업/서비스	(2,146)	7.4	66.2	73.6	25.4	1.0	26.4	100.0	(2.8)
	생산/기능/노무직	(478)	5.9	66.4	72.3	25.0	2.8	27.7	100.0	(2.8)
	사무/관리/전문직	(1,067)	6.9	60.1	67.0	31.2	1.7	33.0	100.0	(2.7)
	주부	(725)	6.8	68.0	74.8	24.4	0.8	25.2	100.0	(2.8)
	학생	(365)	7.4	62.4	69.8	28.6	1.6	30.2	100.0	(2.8)
	무직/은퇴/기타	(213)	8.1	62.7	70.8	27.4	1.8	29.2	100.0	(2.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1.4	63.3	74.7	25.0	0.3	25.3	100.0	(2.9)
	고등학교 졸업	(2,180)	6.3	68.0	74.3	24.7	1.0	25.7	100.0	(2.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7.2	62.3	69.5	28.8	1.8	30.5	100.0	(2.7)
	대학원 졸업	(98)	3.5	59.0	62.5	33.1	4.4	37.5	100.0	(2.6)
소득	200만원 미만	(562)	7.1	64.2	71.3	27.8	0.9	28.7	100.0	(2.8)
	200만원 ~ 299만원	(814)	9.1	65.1	74.2	24.4	1.4	25.8	100.0	(2.8)
	300만원 ~ 499만원	(1,949)	7.6	64.7	72.4	26.5	1.2	27.6	100.0	(2.8)
	500만원 ~ 699만원	(1,366)	6.1	65.7	71.8	26.4	1.8	28.2	100.0	(2.8)
	700만원 이상	(409)	4.2	62.1	66.3	32.3	1.4	33.7	100.0	(2.7)
종교	종교 없음	(3,111)	6.6	64.2	70.9	28.2	0.9	29.1	100.0	(2.8)
	기독교	(921)	7.4	66.7	74.1	24.2	1.8	25.9	100.0	(2.8)
	불교	(796)	8.2	64.8	73.1	24.8	2.2	26.9	100.0	(2.8)
	천주교	(263)	9.2	63.6	72.8	25.0	2.2	27.2	100.0	(2.8)
	기타	(9)	0.0	79.5	79.5	20.5	0.0	20.5	100.0	(2.8)
이념성향	보수적	(1,500)	6.7	65.9	72.6	25.8	1.6	27.4	100.0	(2.8)
	중도	(2,262)	6.8	65.5	72.4	26.2	1.4	27.6	100.0	(2.8)
	진보적	(1,338)	8.1	62.2	70.4	28.7	1.0	29.6	100.0	(2.8)

표 78.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외국인 인종·국가에 따른 차별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8.8	53.1	62.0	35.0	3.1	38.0	100.0	(2.7)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7.8	51.9	59.7	36.8	3.5	40.3	100.0	(2.6)
	중소도시	(2,065)	9.5	55.5	65.0	32.5	2.5	35.0	100.0	(2.7)
	읍/면	(665)	10.4	50.4	60.8	35.9	3.3	39.2	100.0	(2.7)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9.0	59.2	68.1	27.3	4.5	31.9	100.0	(2.7)
	판매/영업/서비스	(2,146)	8.9	53.7	62.6	35.0	2.4	37.4	100.0	(2.7)
	생산/기능/노무직	(478)	7.6	52.0	59.6	37.0	3.4	40.4	100.0	(2.6)
	사무/관리/전문직	(1,067)	10.5	50.5	61.1	35.3	3.7	38.9	100.0	(2.7)
	주부	(725)	6.2	53.7	59.9	36.2	3.9	40.1	100.0	(2.6)
	학생	(365)	11.0	54.3	65.3	31.9	2.8	34.7	100.0	(2.7)
	무직/은퇴/기타	(213)	7.9	56.4	64.3	32.6	3.1	35.7	100.0	(2.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8.9	53.7	62.7	35.4	1.9	37.3	100.0	(2.7)
	고등학교 졸업	(2,180)	8.3	54.3	62.6	34.6	2.7	37.4	100.0	(2.7)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9.3	51.8	61.1	35.3	3.6	38.9	100.0	(2.7)
	대학원 졸업	(98)	7.8	56.1	63.9	32.7	3.4	36.1	100.0	(2.7)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0.3	50.9	61.2	35.5	3.3	38.8	100.0	(2.7)
	200만원 ~ 299만원	(814)	10.5	54.0	64.5	32.7	2.7	35.5	100.0	(2.7)
	300만원 ~ 499만원	(1,949)	8.7	54.8	63.5	33.0	3.5	36.5	100.0	(2.7)
	500만원 ~ 699만원	(1,366)	7.5	49.5	57.0	40.2	2.8	43.0	100.0	(2.6)
	700만원 이상	(409)	8.8	58.6	67.4	30.2	2.4	32.6	100.0	(2.7)
종교	종교 없음	(3,111)	8.5	53.8	62.3	34.4	3.3	37.7	100.0	(2.7)
	기독교	(921)	8.3	53.2	61.5	35.7	2.8	38.5	100.0	(2.7)
	불교	(796)	9.9	51.6	61.5	35.7	2.8	38.5	100.0	(2.7)
	천주교	(263)	10.9	49.8	60.7	37.1	2.3	39.3	100.0	(2.7)
	기타	(9)	11.0	62.8	73.9	26.1	0.0	26.1	100.0	(2.8)
이념성향	보수적	(1,500)	7.3	51.1	58.5	38.5	3.0	41.5	100.0	(2.6)
	중도	(2,262)	8.7	54.2	63.0	33.8	3.2	37.0	100.0	(2.7)
	진보적	(1,338)	10.7	53.5	64.3	32.9	2.8	35.7	100.0	(2.7)

표 79.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의견 - 난민 수용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3.1	28.6	31.7	47.6	20.7	68.3	100.0	(2.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0	25.5	27.4	50.0	22.6	72.6	100.0	(2.1)
	중소도시	(2,065)	4.0	30.3	34.3	48.1	17.6	65.7	100.0	(2.2)
	읍/면	(665)	4.6	34.4	39.0	37.0	24.0	61.0	100.0	(2.2)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8	37.9	42.7	32.7	24.7	57.3	100.0	(2.2)
	판매/영업/서비스	(2,146)	3.4	28.6	32.0	48.5	19.5	68.0	100.0	(2.2)
	생산/기능/노무직	(478)	2.9	25.4	28.2	50.5	21.2	71.8	100.0	(2.1)
	사무/관리/전문직	(1,067)	2.9	26.3	29.2	49.5	21.3	70.8	100.0	(2.1)
	주부	(725)	2.4	30.2	32.6	45.4	22.0	67.4	100.0	(2.1)
	학생	(365)	2.1	35.0	37.2	41.2	21.7	62.8	100.0	(2.2)
	무직/은퇴/기타	(213)	4.7	26.0	30.6	47.8	21.6	69.4	100.0	(2.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5.8	27.9	33.7	47.4	19.0	66.3	100.0	(2.2)
	고등학교 졸업	(2,180)	2.7	30.2	32.9	46.7	20.4	67.1	100.0	(2.2)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8	27.1	29.9	48.5	21.6	70.1	100.0	(2.1)
	대학원 졸업	(98)	6.9	31.2	38.1	46.0	15.9	61.9	100.0	(2.3)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0	27.9	33.0	46.7	20.4	67.0	100.0	(2.2)
	200만원 ~ 299만원	(814)	5.3	33.9	39.2	42.6	18.2	60.8	100.0	(2.3)
	300만원 ~ 499만원	(1,949)	2.6	28.5	31.0	47.5	21.4	69.0	100.0	(2.1)
	500만원 ~ 699만원	(1,366)	1.7	24.6	26.4	51.0	22.7	73.6	100.0	(2.1)
	700만원 이상	(409)	3.5	32.7	36.2	47.4	16.4	63.8	100.0	(2.2)
종교	종교 없음	(3,111)	2.7	27.4	30.2	49.0	20.9	69.8	100.0	(2.1)
	기독교	(921)	3.4	31.6	35.0	46.3	18.6	65.0	100.0	(2.2)
	불교	(796)	3.7	30.1	33.7	44.6	21.7	66.3	100.0	(2.2)
	천주교	(263)	4.6	27.7	32.3	44.3	23.4	67.7	100.0	(2.1)
	기타	(9)	11.0	14.3	25.3	51.4	23.3	74.7	100.0	(2.1)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6	25.3	27.9	49.4	22.7	72.1	100.0	(2.1)
	중도	(2,262)	2.9	30.4	33.3	46.2	20.5	66.7	100.0	(2.2)
	진보적	(1,338)	3.9	29.3	33.2	47.9	18.9	66.8	100.0	(2.2)

표 80. 한국인의 정체성 -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한 자부심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17.1	66.8	83.9	15.6	0.6	16.1	100.0	(3.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5.2	67.2	82.4	17.1	0.6	17.6	100.0	(3.0)
	중소도시	(2,065)	17.7	66.5	84.2	15.2	0.6	15.8	100.0	(3.0)
	읍/면	(665)	22.2	66.0	88.2	11.4	0.4	11.8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9.7	62.1	91.8	7.9	0.3	8.2	100.0	(3.2)
	판매/영업/서비스	(2,146)	15.9	67.9	83.8	15.7	0.5	16.2	100.0	(3.0)
	생산/기능/노무직	(478)	16.9	66.3	83.2	14.9	1.9	16.8	100.0	(3.0)
	사무/관리/전문직	(1,067)	16.8	66.0	82.8	16.9	0.4	17.2	100.0	(3.0)
	주부	(725)	15.9	71.9	87.8	12.1	0.1	12.2	100.0	(3.0)
	학생	(365)	17.7	60.2	77.9	21.8	0.3	22.1	100.0	(3.0)
	무직/은퇴/기타	(213)	28.1	56.6	84.7	14.6	0.7	15.3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4.3	65.6	89.9	10.1	0.0	10.1	100.0	(3.1)
	고등학교 졸업	(2,180)	16.0	70.8	86.8	12.4	0.8	13.2	100.0	(3.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16.6	63.5	80.1	19.5	0.5	19.9	100.0	(3.0)
	대학원 졸업	(98)	19.2	59.8	79.1	20.9	0.0	20.9	100.0	(3.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3.0	62.2	85.2	14.0	0.8	14.8	100.0	(3.1)
	200만원 ~ 299만원	(814)	18.2	65.2	83.5	16.1	0.4	16.5	100.0	(3.0)
	300만원 ~ 499만원	(1,949)	16.9	67.5	84.4	15.1	0.6	15.6	100.0	(3.0)
	500만원 ~ 699만원	(1,366)	15.3	68.5	83.8	15.9	0.3	16.2	100.0	(3.0)
	700만원 이상	(409)	13.9	66.7	80.6	18.0	1.4	19.4	100.0	(2.9)
종교	종교 없음	(3,111)	14.9	67.2	82.1	17.3	0.6	17.9	100.0	(3.0)
	기독교	(921)	19.2	66.6	85.7	14.0	0.2	14.3	100.0	(3.0)
	불교	(796)	22.1	66.2	88.3	10.8	0.8	11.7	100.0	(3.1)
	천주교	(263)	20.7	63.9	84.6	15.1	0.3	15.4	100.0	(3.0)
	기타	(9)	25.3	74.7	100.0	0.0	0.0	0.0	100.0	(3.3)
이념성향	보수적	(1,500)	18.1	68.1	86.2	13.0	0.7	13.8	100.0	(3.0)
	중도	(2,262)	17.3	67.3	84.6	15.1	0.3	15.4	100.0	(3.0)
	진보적	(1,338)	15.7	64.3	80.0	19.2	0.8	20.0	100.0	(2.9)

표 81. 한국인의 정체성 - 살기 좋은 우리나라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1.2	60.7	81.9	17.1	1.0	18.1	100.0	(3.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19.7	59.2	78.9	19.7	1.4	21.1	100.0	(3.0)
	중소도시	(2,065)	21.7	62.3	84.0	15.4	0.6	16.0	100.0	(3.1)
	읍/면	(665)	24.6	61.2	85.8	13.0	1.3	14.2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31.8	56.1	88.0	9.9	2.1	12.0	100.0	(3.2)
	판매/영업/서비스	(2,146)	19.8	61.8	81.5	17.8	0.7	18.5	100.0	(3.0)
	생산/기능/노무직	(478)	21.2	64.0	85.2	14.2	0.6	14.8	100.0	(3.1)
	사무/관리/전문직	(1,067)	21.2	60.3	81.5	17.4	1.1	18.5	100.0	(3.0)
	주부	(725)	24.0	60.0	84.0	15.0	0.9	16.0	100.0	(3.1)
	학생	(365)	17.1	56.7	73.9	22.7	3.5	26.1	100.0	(2.9)
	무직/은퇴/기타	(213)	27.1	56.7	83.8	15.3	0.9	16.2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8.1	62.4	90.5	9.5	0.0	9.5	100.0	(3.2)
	고등학교 졸업	(2,180)	21.0	63.1	84.1	15.0	1.0	15.9	100.0	(3.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0.1	58.3	78.3	20.4	1.3	21.7	100.0	(3.0)
	대학원 졸업	(98)	16.4	58.4	74.8	22.3	2.9	25.2	100.0	(2.9)
소득	200만원 미만	(562)	24.3	59.8	84.1	15.0	0.9	15.9	100.0	(3.1)
	200만원 ~ 299만원	(814)	20.7	61.5	82.3	17.1	0.6	17.7	100.0	(3.0)
	300만원 ~ 499만원	(1,949)	21.2	60.8	82.0	17.1	0.9	18.0	100.0	(3.0)
	500만원 ~ 699만원	(1,366)	21.0	60.4	81.4	17.2	1.4	18.6	100.0	(3.0)
	700만원 이상	(409)	18.2	61.2	79.4	18.9	1.7	20.6	100.0	(3.0)
종교	종교 없음	(3,111)	19.5	62.0	81.6	17.5	0.9	18.4	100.0	(3.0)
	기독교	(921)	22.0	57.7	79.7	19.2	1.1	20.3	100.0	(3.0)
	불교	(796)	24.8	60.1	85.0	13.8	1.2	15.0	100.0	(3.1)
	천주교	(263)	27.0	57.2	84.2	14.1	1.7	15.8	100.0	(3.1)
	기타	(9)	14.3	72.4	86.7	13.3	0.0	13.3	100.0	(3.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2.9	60.6	83.5	15.4	1.1	16.5	100.0	(3.1)
	중도	(2,262)	20.2	62.6	82.8	16.5	0.8	17.2	100.0	(3.0)
	진보적	(1,338)	20.9	57.7	78.6	20.0	1.4	21.4	100.0	(3.0)

표 82. 한국인의 정체성 - 역사에 대한 자부심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평균)	
		① 매우 그렇다 (4점)	② 대체로 그렇다 (3점)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전 체	(5,100)	20.7	62.7	83.3	15.6	1.1	16.7	100.0	(3.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20.7	61.2	82.0	17.2	0.9	18.0	100.0	(3.0)
	중소도시	(2,065)	19.0	64.1	83.1	15.5	1.4	16.9	100.0	(3.0)
	읍/면	(665)	25.6	63.5	89.1	10.1	0.8	10.9	100.0	(3.1)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26.5	61.8	88.3	10.1	1.6	11.7	100.0	(3.1)
	판매/영업/서비스	(2,146)	18.6	65.2	83.8	15.0	1.2	16.2	100.0	(3.0)
	생산/기능/노무직	(478)	20.9	64.2	85.1	12.8	2.1	14.9	100.0	(3.0)
	사무/관리/전문직	(1,067)	22.8	59.4	82.3	17.1	0.6	17.7	100.0	(3.0)
	주부	(725)	20.7	63.1	83.8	15.4	0.8	16.2	100.0	(3.0)
	학생	(365)	20.5	58.7	79.2	19.6	1.2	20.8	100.0	(3.0)
	무직/은퇴/기타	(213)	27.0	56.3	83.3	16.0	0.7	16.7	100.0	(3.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25.3	64.5	89.8	9.2	1.0	10.2	100.0	(3.1)
	고등학교 졸업	(2,180)	19.2	66.6	85.8	13.1	1.1	14.2	100.0	(3.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21.1	58.7	79.8	19.2	1.0	20.2	100.0	(3.0)
	대학원 졸업	(98)	19.2	61.9	81.1	16.4	2.5	18.9	100.0	(3.0)
전체 가구원 수	1명	(562)	25.6	61.3	86.9	11.3	1.8	13.1	100.0	(3.1)
	2명	(814)	22.2	61.8	84.0	15.2	0.8	16.0	100.0	(3.1)
	3명	(1,949)	19.4	63.3	82.6	16.2	1.1	17.4	100.0	(3.0)
	4명	(1,366)	19.8	63.7	83.4	15.8	0.8	16.6	100.0	(3.0)
	6명 이상	(409)	19.9	60.4	80.3	18.3	1.4	19.7	100.0	(3.0)
종교	종교 없음	(3,111)	18.4	63.5	81.9	16.8	1.3	18.1	100.0	(3.0)
	기독교	(921)	22.5	61.8	84.4	14.6	1.0	15.6	100.0	(3.1)
	불교	(796)	25.8	61.2	87.0	12.4	0.6	13.0	100.0	(3.1)
	천주교	(263)	24.0	61.2	85.2	14.8	0.0	14.8	100.0	(3.1)
	기타	(9)	47.0	53.0	100.0	0.0	0.0	0.0	100.0	(3.5)
이념성향	보수적	(1,500)	22.3	61.5	83.8	14.7	1.4	16.2	100.0	(3.0)
	중도	(2,262)	20.4	63.8	84.2	15.1	0.6	15.8	100.0	(3.0)
	진보적	(1,338)	19.2	62.2	81.4	17.2	1.4	18.6	100.0	(3.0)

표 83.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_1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지 런함	인정이 많음	책임 감이 강함	인내심	단결 력이 강함	창의성	검소함	예의 비름	약가 있음	어유	불의에 저항	관용 성	장점이 없음	진취적	평화 애호	기타	계
전 체		(5,100)	39.7	10.7	8.4	7.9	7.8	4.4	4.3	4.2	3.6	2.2	2.1	1.8	1.1	0.8	0.8	0.0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1.4	11.2	7.5	8.0	7.8	3.7	4.7	4.9	2.8	1.7	1.8	1.8	1.2	0.8	0.6	0.1	100.0
	중소도시	(2,065)	39.4	10.5	9.2	7.5	7.6	4.6	4.3	3.6	4.1	2.5	2.4	1.8	0.7	0.9	0.9	0.0	100.0
	읍/면	(665)	34.8	9.6	9.5	8.5	8.5	6.3	3.2	3.4	5.1	3.2	2.2	1.3	2.5	0.8	1.0	0.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55.2	8.3	4.2	6.3	4.8	0.0	9.8	2.5	2.9	0.0	0.5	0.6	3.2	1.6	0.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7.5	10.0	9.2	8.8	6.8	5.4	4.5	4.4	3.8	3.2	1.8	1.8	1.2	0.8	0.8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44.2	11.4	7.9	6.7	7.4	1.9	3.6	4.2	5.4	1.1	2.7	0.9	0.9	1.1	0.7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9.2	12.0	8.0	8.6	9.1	3.9	2.9	3.8	3.5	1.1	2.3	2.3	1.1	1.0	1.3	0.0	100.0
	주부	(725)	42.4	12.2	8.7	6.8	7.8	4.2	4.3	4.0	2.4	2.7	1.2	2.0	0.6	0.1	0.5	0.0	100.0
	학생	(365)	36.3	9.1	8.3	5.7	10.7	5.7	4.4	5.2	2.5	1.6	5.2	1.4	2.1	1.0	0.6	0.2	100.0
	무직/은퇴/기타	(213)	44.2	8.0	6.2	6.7	9.1	2.3	8.2	2.6	5.5	1.8	1.5	0.6	1.3	1.4	0.7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7.1	9.4	7.6	6.8	5.3	3.2	6.9	4.0	3.6	2.9	1.0	0.6	0.7	0.7	0.1	0.0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8.2	10.4	8.4	8.5	7.5	4.7	4.7	4.3	4.1	2.9	1.7	2.0	1.4	0.8	0.5	0.0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8.9	11.6	8.8	7.6	8.8	4.4	3.5	4.2	3.3	1.5	2.6	1.8	1.0	0.9	1.2	0.1	100.0
	대학원 졸업	(98)	57.9	3.9	4.9	7.1	3.7	4.8	4.2	1.2	3.1	1.6	3.3	0.0	1.9	1.4	1.0	0.0	100.0
전체 가구원 수	1명	(562)	41.1	9.3	7.8	5.1	6.8	3.4	6.7	3.9	5.1	3.9	2.7	1.1	1.8	0.5	0.9	0.0	100.0
	2명	(814)	37.9	8.7	8.7	8.2	7.0	5.5	4.0	3.8	4.5	3.7	2.2	2.7	1.3	1.0	0.9	0.0	100.0
	3명	(1,949)	38.5	10.7	9.4	7.6	8.9	3.8	5.1	4.1	3.4	2.2	1.9	1.8	0.9	0.8	0.8	0.1	100.0
	4명	(1,366)	39.3	12.7	7.8	8.9	7.7	4.9	2.9	4.9	3.4	1.2	2.4	1.5	1.0	0.8	0.5	0.0	100.0
	6명 이상	(409)	48.4	10.2	6.8	8.9	6.3	4.3	3.0	2.8	2.0	1.1	1.2	1.3	1.5	0.8	1.6	0.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7.7	10.5	9.6	7.7	7.6	4.5	4.8	4.4	3.6	2.3	2.3	1.9	1.5	0.7	0.8	0.0	100.0
	기독교	(921)	39.9	10.7	6.1	7.9	9.9	4.9	3.6	3.8	3.4	3.4	1.8	2.0	0.7	1.1	0.7	0.0	100.0
	불교	(796)	46.1	11.4	7.8	8.2	5.7	3.8	4.2	3.4	4.0	1.1	1.9	0.9	0.4	1.0	0.3	0.1	100.0
	천주교	(263)	43.3	11.0	5.6	9.6	9.8	3.4	1.8	4.3	3.9	0.5	1.1	2.0	0.9	0.9	2.1	0.0	100.0
	기타	(9)	53.3	0.0	0.0	0.0	0.0	0.0	0.0	20.8	11.0	0.0	8.4	0.0	0.0	6.4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44.9	10.7	6.9	7.8	6.0	3.9	3.9	5.1	3.6	1.6	1.2	1.9	1.2	1.0	0.3	0.0	100.0
	중도	(2,262)	37.8	10.7	8.8	7.7	8.0	5.0	4.8	3.9	3.4	3.5	2.2	1.7	1.3	0.4	0.7	0.0	100.0
	진보적	(1,338)	37.1	10.8	9.6	8.4	9.4	3.9	4.0	3.6	4.2	0.7	3.0	1.7	0.9	1.4	1.4	0.0	100.0

표 84.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_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인정이 많음	부지런 함	책임감 이 강함	단결력 이 강함	검소함	인내심	예의바 림	약가가 있음	창의성	불의에 저항	관용성	진취적	여유	평화 애호	기타	계
전 체		(5,041)	17.4	12.5	11.1	10.8	8.5	8.3	7.8	6.2	5.0	4.4	2.7	2.1	1.6	1.5	0.0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43)	16.4	12.9	9.7	10.1	9.2	10.0	8.6	5.2	5.7	3.8	2.3	2.6	1.6	1.7	0.1	100.0
	중소도시	(2,050)	18.4	11.7	12.0	10.5	7.5	6.6	7.8	7.1	4.8	5.4	3.0	1.8	1.9	1.4	0.0	100.0
	읍/면	(648)	17.9	13.9	13.2	13.8	9.2	7.8	4.7	6.7	3.3	3.2	3.0	1.3	1.0	1.0	0.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3)	15.5	12.6	21.3	5.6	17.7	8.1	5.8	3.2	4.2	2.2	1.0	1.4	1.4	0.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21)	16.4	12.2	10.4	10.7	9.3	9.1	7.5	6.5	4.8	4.7	3.4	1.5	2.1	1.5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4)	18.7	12.2	13.6	12.4	6.9	7.9	7.5	4.9	4.5	2.9	2.0	2.6	1.1	2.8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55)	18.6	13.2	9.3	12.3	5.6	7.4	8.0	6.8	6.7	4.7	2.1	2.8	1.1	1.4	0.1	100.0
	주부	(721)	19.7	12.0	12.3	9.3	11.4	8.0	7.4	5.3	4.4	3.0	2.5	2.7	1.3	0.6	0.1	100.0
	학생	(357)	13.1	13.3	11.7	11.4	5.9	6.7	9.3	7.5	5.2	6.3	2.7	2.1	2.2	2.6	0.0	100.0
	무직/은퇴/기타	(213)	18.8	14.3	10.2	6.8	9.8	10.9	10.2	4.6	2.3	5.4	2.5	1.4	1.3	1.5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5)	19.4	13.0	11.9	7.9	14.4	9.1	10.0	5.3	2.2	2.0	1.9	0.7	1.2	1.0	0.1	100.0
	고등학교 졸업	(2,150)	15.8	12.5	12.6	10.3	9.2	8.9	7.4	6.4	4.5	4.1	3.0	1.9	2.0	1.3	0.0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10)	18.9	12.9	9.4	11.9	6.2	7.6	7.7	6.3	5.9	5.0	2.5	2.4	1.4	1.9	0.0	100.0
	대학원 졸업	(96)	7.9	4.0	11.5	9.7	17.6	9.0	7.6	3.4	10.6	7.1	5.4	4.1	0.9	0.0	1.3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52)	18.3	14.2	10.4	7.3	10.4	11.4	8.4	5.5	4.4	3.2	2.9	1.1	1.1	1.4	0.0	100.0
	200만원 ~ 299만원	(804)	14.8	12.1	12.9	11.0	8.8	9.6	6.8	8.1	3.1	4.4	3.3	1.3	2.4	1.4	0.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32)	17.8	11.8	11.4	12.7	6.8	7.8	7.6	6.4	4.6	4.8	2.8	2.1	1.9	1.4	0.0	100.0
	500만원 ~ 699만원	(1,352)	18.5	12.0	10.1	9.4	9.7	8.1	8.4	5.5	5.8	4.4	2.1	2.6	1.4	1.8	0.1	100.0
	700만원 이상	(402)	15.4	16.5	10.0	10.3	9.8	5.2	7.7	4.3	9.4	3.3	2.7	3.2	0.8	1.5	0.0	100.0
종교	종교 없음	(3,065)	17.8	12.6	10.2	10.9	7.9	8.7	7.5	7.0	4.6	4.3	3.1	1.9	1.8	1.7	0.0	100.0
	기독교	(914)	16.8	12.2	12.9	10.5	6.2	7.8	8.7	5.4	6.0	4.7	2.9	3.1	1.1	1.6	0.0	100.0
	불교	(793)	16.3	11.8	12.9	10.7	13.1	7.6	7.1	5.3	5.4	3.8	1.4	1.7	2.0	0.9	0.0	100.0
	천주교	(260)	15.7	15.0	9.2	10.7	10.5	9.1	10.5	2.7	5.0	5.6	1.2	2.1	0.6	1.3	0.7	100.0
	기타	(9)	64.6	7.5	0.0	0.0	10.5	0.0	0.0	0.0	17.4	0.0	0.0	0.0	0.0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482)	19.0	10.5	10.4	10.0	11.9	8.6	8.5	5.3	4.7	3.7	2.0	2.3	1.6	1.4	0.0	100.0
	중도	(2,233)	15.4	13.0	10.8	11.4	8.1	8.2	7.6	7.0	5.2	4.8	3.2	2.0	1.7	1.6	0.1	100.0
	진보적	(1,326)	19.0	14.0	12.3	10.6	5.4	8.2	7.4	5.7	5.2	4.4	2.7	1.9	1.6	1.4	0.0	100.0

표 85.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_1 + 2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지런 함	안정이 많음	책임감이 강함	단결력이 강함	인내심	검소함	예의바름	의리가 있음	청의성	불의에 저항	관용성	여유	진취적	평화 애호	장점이 없음	기타	
전 체	(5,100)	52.1	27.9	19.4	18.5	16.2	12.7	11.9	9.7	9.4	6.4	4.4	3.9	2.9	2.3	1.1	0.1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54.1	27.4	17.1	17.8	18.0	13.8	13.5	8.0	9.3	5.5	4.1	3.3	3.3	2.4	1.2	0.1
	중소도시	(2,065)	51.1	28.7	21.1	18.0	14.1	11.7	11.3	11.1	9.4	7.8	4.8	4.4	2.7	2.3	0.7	0.0
	읍/면	(665)	48.4	27.1	22.3	22.0	16.2	12.1	7.9	11.6	9.5	5.3	4.2	4.2	2.1	2.0	2.5	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67.4	23.4	24.8	10.2	14.1	27.0	8.0	6.0	4.1	2.6	1.6	1.3	2.9	0.0	3.2	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49.6	26.3	19.5	17.4	17.7	13.7	11.8	10.2	10.2	6.4	5.1	5.3	2.3	2.2	1.2	0.0
	생산기능/노무직	(478)	56.2	29.9	21.3	19.6	14.5	10.4	11.7	10.3	6.4	5.6	2.9	2.2	3.7	3.5	0.9	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52.2	30.4	17.2	21.2	15.9	8.4	11.7	10.3	10.5	6.9	4.4	2.2	3.8	2.6	1.1	0.1
	주부	(725)	54.3	31.8	20.9	17.1	14.8	15.6	11.4	7.7	8.6	4.1	4.5	3.9	2.8	1.1	0.6	0.1
	학생	(365)	49.3	22.0	19.8	21.9	12.3	10.2	14.3	9.8	10.8	11.3	4.1	3.8	3.0	3.1	2.1	0.2
	무직/은퇴/기타	(213)	58.2	26.5	16.3	15.8	17.4	17.9	12.6	10.1	4.6	6.8	3.1	3.1	2.8	2.2	1.3	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60.0	28.7	19.4	13.2	15.8	21.2	13.8	8.8	5.3	3.0	2.5	4.2	1.4	1.1	0.7	0.1
	고등학교 졸업	(2,180)	50.5	26.0	20.9	17.6	17.3	13.8	11.6	10.4	9.1	5.7	5.0	4.9	2.7	1.8	1.4	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51.6	30.2	18.1	20.6	15.2	9.6	11.8	9.5	10.2	7.6	4.3	2.9	3.3	3.1	1.0	0.1
	대학원 졸업	(98)	61.9	11.7	16.1	13.1	15.9	21.5	8.7	6.4	15.1	10.3	5.3	2.4	5.4	1.0	1.9	1.2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5.0	27.4	18.0	13.9	16.3	16.9	12.2	10.5	7.7	5.9	3.9	4.9	1.6	2.2	1.8	0.0
	200만원 ~ 299만원	(814)	49.9	23.3	21.4	17.8	17.7	12.7	10.5	12.5	8.5	6.5	5.9	6.0	2.3	2.3	1.3	0.1
	300만원 ~ 499만원	(1,949)	50.2	28.3	20.7	21.4	15.3	11.8	11.7	9.8	8.4	6.7	4.6	4.0	3.0	2.2	0.9	0.1
	500만원 ~ 699만원	(1,366)	51.2	31.0	17.7	17.1	17.0	12.4	13.2	8.8	10.7	6.8	3.7	2.5	3.4	2.3	1.0	0.1
	700만원 이상	(409)	64.7	25.4	16.6	16.4	14.0	12.6	10.4	6.3	13.6	4.4	3.9	1.8	3.9	3.1	1.5	0.0
종교	종교 없음	(3,111)	50.1	28.1	19.7	18.3	16.2	12.5	11.8	10.5	9.1	6.6	5.0	4.1	2.5	2.5	1.5	0.0
	기독교	(921)	52.1	27.4	18.9	20.3	15.7	9.7	12.4	8.7	10.8	6.5	4.9	4.5	4.2	2.3	0.7	0.0
	불교	(796)	57.8	27.7	20.6	16.3	15.8	17.3	10.5	9.2	9.1	5.6	2.3	3.1	2.7	1.2	0.4	0.1
	천주교	(263)	58.2	26.6	14.7	20.4	18.6	12.2	14.7	6.5	8.3	6.7	3.2	1.2	3.0	3.4	0.9	0.7
	기타	(9)	60.9	64.6	0.0	0.0	0.0	10.5	20.8	11.0	17.4	8.4	0.0	0.0	6.4	0.0	0.0	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5.3	29.4	17.2	15.9	16.3	15.7	13.5	8.8	8.5	4.8	3.9	3.2	3.3	1.7	1.2	0.1
	중도	(2,262)	50.7	25.9	19.4	19.3	15.8	12.8	11.4	10.2	10.1	6.9	4.9	5.2	2.4	2.3	1.3	0.1
	진보적	(1,338)	51.1	29.6	21.7	20.0	16.5	9.3	10.9	9.9	9.0	7.4	4.3	2.3	3.3	2.9	0.9	0.0

표 86.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단위 : %)

구 분		시계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사회복지가完備된 나라	국방력이 강한 나라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되는 나라	기타	계
전 체		(5,100)	41.1	23.8	16.8	13.6	4.6	0.1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42.3	23.6	17.7	12.5	3.9	0.1	100.0
	중소도시	(2,065)	40.2	24.2	15.0	14.6	5.8	0.2	100.0
	읍/면	(665)	39.1	23.4	19.8	14.4	3.4	0.0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3.3	18.6	15.1	19.2	3.8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44.1	20.8	14.7	16.0	4.2	0.2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40.6	24.0	17.9	14.3	3.2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6.2	30.4	19.1	8.7	5.5	0.0	100.0
	주부	(725)	42.6	21.6	18.1	12.6	5.2	0.0	100.0
	학생	(365)	37.6	28.0	17.9	10.3	5.8	0.4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5.1	23.7	19.1	18.5	3.7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8.1	18.1	15.6	16.0	2.2	0.0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42.0	21.4	16.2	15.7	4.5	0.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9.0	26.9	17.8	11.3	4.9	0.1	100.0
	대학원 졸업	(98)	33.7	32.2	14.0	8.6	11.5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0.8	21.1	20.8	14.4	2.9	0.0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43.8	18.7	14.8	17.9	4.9	0.0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41.7	24.2	16.5	13.0	4.5	0.2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9.7	26.4	16.4	12.0	5.4	0.2	100.0
	700만원 이상	(409)	37.4	27.1	18.8	12.1	4.4	0.2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41.2	23.9	17.4	13.2	4.3	0.0	100.0
	기독교	(921)	37.6	25.1	16.4	14.8	6.0	0.1	100.0
	불교	(796)	45.3	19.4	15.1	16.1	3.8	0.3	100.0
	천주교	(263)	38.5	29.7	18.3	7.0	6.0	0.5	100.0
	기타	(9)	32.8	56.7	6.8	3.7	0.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43.3	19.7	15.7	16.4	4.9	0.0	100.0
	중도	(2,262)	43.1	23.5	16.0	12.5	4.6	0.2	100.0
	진보적	(1,338)	35.0	28.9	19.6	12.2	4.3	0.1	100.0

표 87.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 분	시계수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다	우리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제대상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	기타	계	
전 체	(5,100)	8.8	42.0	11.1	15.7	22.3	0.1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8.6	38.2	9.5	18.3	25.4	0.0	100.0
	중소도시	(2,065)	7.1	45.9	13.7	13.6	19.6	0.1	100.0
	읍/면	(665)	14.9	43.4	8.5	13.1	20.0	0.1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18.2	39.0	5.1	15.0	22.7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8.9	43.6	10.8	13.9	22.7	0.1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11.1	40.5	11.3	15.3	21.8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7.3	44.5	10.7	16.3	21.1	0.1	100.0
	주부	(725)	8.2	35.4	14.1	19.6	22.7	0.0	100.0
	학생	(365)	7.8	43.6	10.8	16.7	20.6	0.5	100.0
	무직/은퇴/기타	(213)	9.4	38.3	7.9	17.1	27.3	0.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11.9	39.3	8.6	15.9	24.4	0.0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9.5	41.4	11.7	15.1	22.4	0.0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7.6	43.1	11.1	16.3	21.7	0.2	100.0
	대학원 졸업	(98)	6.7	44.0	8.0	14.4	26.9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11.8	33.7	9.4	16.7	28.2	0.2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10.7	45.8	11.6	13.4	18.5	0.0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7.7	41.8	11.8	17.1	21.5	0.0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9.1	40.5	11.7	16.3	22.2	0.1	100.0
	700만원 이상	(409)	4.9	52.0	6.6	10.2	26.3	0.0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7.9	41.7	11.1	17.0	22.3	0.1	100.0
	기독교	(921)	12.2	43.5	10.9	13.2	20.2	0.1	100.0
	불교	(796)	8.0	40.7	11.4	13.2	26.7	0.0	100.0
	천주교	(263)	10.1	45.1	10.4	17.1	17.0	0.3	100.0
	기타	(9)	7.5	26.5	19.4	14.9	31.7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8.0	35.2	10.2	15.3	31.3	0.0	100.0
	중도	(2,262)	9.1	45.3	12.3	14.9	18.3	0.1	100.0
	진보적	(1,338)	9.1	44.2	9.9	17.4	19.2	0.1	100.0

표 88. 통일 시기

(단위 : %)

구 분		사례수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점진적 통일, 당분간 관망 등 포함)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기급적 빨리 해야 한다	계
전 체		(5,100)	61.1	27.8	11.1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60.2	29.0	10.7	100.0
	중소도시	(2,065)	61.9	28.2	9.9	100.0
	읍/면	(665)	61.5	22.0	16.5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0.7	35.3	24.1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62.2	27.9	9.9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59.5	28.8	11.7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62.2	25.2	12.6	100.0
	주부	(725)	63.7	25.9	10.4	100.0
	학생	(365)	55.7	38.5	5.8	100.0
	무직/은퇴/기타	(213)	58.0	22.5	19.6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55.6	26.5	18.0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61.5	27.7	10.8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62.1	28.4	9.5	100.0
	대학원 졸업	(98)	55.5	20.7	23.8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53.0	29.2	17.7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59.5	27.4	13.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63.0	28.2	8.8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62.3	26.9	10.8	100.0
	700만원 이상	(409)	62.1	27.7	10.2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62.6	28.8	8.5	100.0
	기독교	(921)	59.7	24.5	15.8	100.0
	불교	(796)	55.1	30.5	14.4	100.0
	천주교	(263)	65.0	19.5	15.4	100.0
	기타	(9)	80.1	5.6	14.3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58.2	30.5	11.3	100.0
	중도	(2,262)	63.3	27.1	9.6	100.0
	진보적	(1,338)	60.5	26.0	13.5	100.0

표 89.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변화

(단위 : %)

구 분	사례수	통일이 되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계	
전 체	(5,100)	34.9	33.1	17.3	14.8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7.2	29.9	17.1	15.9	100.0
	중소도시	(2,066)	34.7	34.5	16.9	13.9	100.0
	읍/면	(665)	27.3	39.7	19.3	13.6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6.3	23.3	15.6	14.7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4.6	32.9	17.8	14.7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7.0	33.1	19.0	10.9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1.2	37.4	16.8	14.6	100.0
	주부	(725)	38.4	29.2	16.0	16.5	100.0
	학생	(365)	31.6	35.6	17.0	15.8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9.0	27.0	16.4	17.6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45.0	25.2	17.6	12.3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6.6	30.9	17.4	15.2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1.5	36.3	17.4	14.8	100.0
	대학원 졸업	(98)	26.8	42.5	12.4	18.3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42.1	25.8	15.4	16.7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36.5	32.2	19.1	12.1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4.6	34.8	17.3	13.3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3.5	33.4	17.1	16.0	100.0
	700만원 이상	(409)	27.5	35.6	16.8	20.1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5.5	33.7	17.1	13.7	100.0
	기독교	(921)	33.4	33.8	18.6	14.2	100.0
	불교	(796)	36.4	28.1	16.7	18.8	100.0
	천주교	(263)	28.8	37.6	16.3	17.3	100.0
	기타	(9)	17.8	35.3	43.2	3.7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9.4	27.2	16.1	17.2	100.0
	중도	(2,262)	35.3	32.5	17.0	15.2	100.0
	진보적	(1,338)	29.0	40.5	19.2	11.3	100.0

표 90.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어려움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심화	언어생활의 차이	계
전 체		(5,100)	33.8	22.7	16.5	15.4	9.6	2.0	100.0
거주지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2,370)	37.3	21.3	14.0	15.9	9.6	2.0	100.0
	중소도시	(2,065)	31.7	23.4	18.9	14.5	9.4	2.2	100.0
	읍/면	(665)	28.5	25.6	17.7	16.6	10.3	1.3	100.0
직업	농업·수산업·축산업	(106)	44.4	16.8	12.7	16.8	8.4	0.9	100.0
	판매/영업/서비스	(2,146)	31.6	23.1	17.8	15.5	9.7	2.3	100.0
	생산/기능/노무직	(478)	35.1	22.5	18.0	15.1	8.1	1.2	100.0
	사무/관리/전문직	(1,067)	35.9	21.8	15.0	16.0	9.4	1.8	100.0
	주부	(725)	34.2	24.1	15.8	13.5	10.0	2.4	100.0
	학생	(365)	34.0	22.2	16.3	15.6	11.0	0.9	100.0
	무직/은퇴/기타	(213)	36.0	22.5	12.1	17.7	9.6	2.0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89)	39.1	20.1	16.4	13.9	8.0	2.6	100.0
	고등학교 졸업	(2,180)	31.1	23.9	18.3	15.0	9.7	2.1	100.0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2,334)	35.0	22.3	14.9	15.9	10.0	1.9	100.0
	대학원 졸업	(98)	43.0	17.7	14.2	20.4	4.7	0.0	100.0
소득	200만원 미만	(562)	34.8	18.6	17.4	15.1	10.6	3.5	100.0
	200만원 ~ 299만원	(814)	29.3	23.2	21.1	14.3	10.5	1.5	100.0
	300만원 ~ 499만원	(1,949)	32.9	24.8	15.6	15.5	9.0	2.2	100.0
	500만원 ~ 699만원	(1,366)	35.9	20.8	15.3	16.3	10.1	1.6	100.0
	700만원 이상	(409)	39.2	23.8	14.1	14.6	7.3	1.1	100.0
종교	종교 없음	(3,111)	33.4	22.6	16.8	15.8	9.4	2.0	100.0
	기독교	(921)	33.9	23.5	15.1	14.9	10.3	2.2	100.0
	불교	(796)	34.8	20.9	17.4	14.9	10.2	1.7	100.0
	천주교	(263)	35.2	26.8	15.1	15.1	6.0	1.9	100.0
	기타	(9)	56.4	18.6	0.0	0.0	25.0	0.0	100.0
이념성향	보수적	(1,500)	35.5	21.1	15.6	16.1	9.3	2.4	100.0
	중도	(2,262)	34.8	23.5	16.5	14.2	9.0	2.0	100.0
	진보적	(1,338)	30.5	23.2	17.4	16.6	10.9	1.4	100.0

부록 2

조사표

Gallup 2019-07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원 000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2019년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됩니다.

본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의 생각대로 대답해주시면 되며, 응답해주신 내용은 “우리 국민 중 몇 %가 이렇게 응답했다” 라는 식으로만 활용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8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박재형
 담당연구원 김민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전화번호 02-3702-2158



응답자 특성

선문1) 응답자 거주지역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

선문1-1) 거주지 크기 구분

- | | | |
|------------------|---------|--------|
| 1.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 2. 중소도시 | 3. 읍/면 |
|------------------|---------|--------|

선문2) 성별

- | | |
|-------|-------|
| 1. 남자 | 2. 여자 |
|-------|-------|

선문3) 올해 귀하의 만 연령

만 _____세 ☞ (만19세 - 만79세까지만 응답 = 1940년~2000년 출생자까지만 응답)

[개인 생활]

문 1)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 보통 —————→								매우 만족
1	2	3	4	5	6	7	8	9	10	

문 2)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항목	←————— 보통 —————→										매우 만족	해당 없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가족	1	2	3	4	5	6	7	8	9	10	99	
2) 친구	1	2	3	4	5	6	7	8	9	10		
3) 소득/재산	1	2	3	4	5	6	7	8	9	10		
4) 문화/여가생활	1	2	3	4	5	6	7	8	9	10		
5) 건강	1	2	3	4	5	6	7	8	9	10		

문 3)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건강
2. 행복한 가정
3. 자신의 능력개발
4. 경제적 풍요
5. 사회적 성공
6. 정신적인 성숙
7. 취미생활/여가
8. 지식/학식
9. 남성/여성과의 사랑
10. 좋은 인간관계
11. 외모
12.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귀하는 귀하가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 있지 않다		←————— 보통 —————→								매우 가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문 5)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가장 가까운 쪽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 보통 —————→						매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문 6)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귀하의 상황과 더 가깝다고 느끼는 쪽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종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	1	2	3	4
2) 나는 종종 특별한 이유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	1	2	3	4
3) 나는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1	2	3	4
4) 나는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결혼/가족 생활]

문 7)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들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1.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
2.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3.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문 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호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1. 성격 | 2. 재산(경제력) |
| 3. 직업(장래성) | 4. 가정환경 |
| 5. 종교 | 6. 외모 |
| 7. 학력/학벌 | 8. 취미 |
| 9.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9) 귀하 가정의 경우 다양한 집안일(생활비 지출, 주거 결정, 자녀 교육, 집안 행사, 부모 봉양 등)에 대해 누가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남자(남편/아버지/아들/사위 등)
2. 여자(아내/어머니/딸/며느리 등)
3. 똑같이
-
98. 나 혼자 살고 있음

문 10) 귀하는 결혼 및 자녀와 관련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혼전순결은 지켜야 한다	1	2	3	4
2)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	1	2	3	4
3)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	1	2	3	4
4)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1	2	3	4
5) 낙태는 해서는 안된다	1	2	3	4
6)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2	3	4
7) 자식은 부모를 모실 의무가 있다	1	2	3	4

문 11) 귀하 가정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산층이다
2. 중산층보다 높다
3. 중산층보다 낮다

문 12) 귀하는 귀하 주위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귀하의 생활수준보다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내 생활수준보다 꽤 낮다 | 2. 내 생활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
| 3. 대체적으로 내 생활수준과 비슷하다 | 4. 내 생활수준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
| 5. 내 생활수준보다 꽤 높다 | |

[일 /여가 /노후 생활]

문 13) 귀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1. 보수/급여 | 2. 주위의 평가 |
| 3. 개인의 적성 | 4.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 |
| 5. 안정성 | 6. 사회 기여도 |
| 7. 장래성 | 8. 지리적 위치 |
| 9.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14) 귀하는 일과 여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귀하와 가장 가까운 상황을 하나만 말씀해 해주세요.

- | | |
|------------------------------|---------------------------------|
| 1.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일은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기고 있다 |
| 3. 일과 여가를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 | 4.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기고 있다 |
| 5. 여가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

문 15) 앞으로 지금보다 귀하에게 더 많은 여유시간이 생긴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선호하는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파트타임, 투잡 등) | 2. 어학, 전문분야 공부 등 자기계발에 투자할 것이다 |
| 3. 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할 것이다 | 4.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
| 5. 취미활동이나 여행 등 여가활동을 할 것이다 | 6. 영상시청, 게임 등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것이다 |
| 7. 가족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대화, 놀기 등) | 8. 친구/지인들과 더 어울릴 것이다(대화, 놀기 등) |
| 9.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16) 귀하는 노후생활에 대해 누구의 부담이 가장 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담이 커야한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1. 본인이나 배우자 | 2. 자녀나 자녀의 가족 | 3. 복지제도 |
|-------------|---------------|---------|

문 17) 귀하는 노후를 어떤 방식으로 보낼 예정이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자녀나 손자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로 노후를 보낼 것이다
2.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하는 부부 중심으로 노후를 보낼 것이다
3. 공부나 취미/봉사활동 등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노후를 보낼 것이다
4. 주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를 보낼 것이다
5. 수입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노후를 보낼 것이다

[사회적 지지 / 가치관 일반]

문 18)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경로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귀하에게 발생된 아래의 각 문제를 대처함에 있어서, 귀하가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	가족	친척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음	해당 문제를 겪은 적 없음
1) 감정적·심리적 문제	1	2	3	4	5	6	7	8	9
2) 건강 문제	1	2	3	4	5	6	7	8	9
3) 가사 및 돌봄 문제	1	2	3	4	5	6	7	8	9
4) 금전적 문제	1	2	3	4	5	6	7	8	9
5) 긴급 혹은 재해 상황	1	2	3	4	5	6	7	8	9

문 19)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1)

소득이 더 공평해져야 한다			← 보통 →				노력하는 만큼 소득에 차이가 더 나야한다		
1	2	3	4	5	6	7	8	9	10

(2)

정부가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 보통 →				당사자가 각각의 생계·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1	2	3	4	5	6	7	8	9	10

(3)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 보통 →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킨다		
1	2	3	4	5	6	7	8	9	10

(4)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보통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5)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질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보통 →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6)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 보통 →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환경이 있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0

[갈등 / 신뢰 / 공정]

문 20)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갈등이 매우 크다	갈등이 큰 편이다	갈등이 작은 편이다	갈등이 매우 작다
1)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1	2	3	4
2) 기업가와 근로자	1	2	3	4
3) 부유층과 서민층	1	2	3	4
4) 수도권과 지방	1	2	3	4
5) 남성과 여성	1	2	3	4
6) 진보와 보수	1	2	3	4
7) 대기업과 중소기업	1	2	3	4
8) 정규직과 비정규직	1	2	3	4
9) 한국인과 외국인	1	2	3	4

문 21) 귀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심각하다 | 2. 심각한 편이다 |
| 3.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4.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문 22)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보통						매우 신뢰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문 23) 귀하는 다음 집단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동료 등)	1	2	3	4
2) 이웃	1	2	3	4
3) 처음 만난 낯선 사람	1	2	3	4
4) 국내 거주 외국인	1	2	3	4

문 24) 아래 보기의 귀하가 가진 것들에 비해 한국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항목	매우 불공정하다	약간 불공정하다	보통이다	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두뇌(능력)	1	2	3	4	5
2) 일과 관련된 기술	1	2	3	4	5
3) 노력	1	2	3	4	5
4) 경력	1	2	3	4	5

[사회일반 / 참여]

문 25) 우리 사회는 학업/취업, 고령화, 소득증가 등과 같은 요인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 추구 등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고,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소형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 2. 공유/렌탈 서비스 발달 |
| 3. 혼밥, 혼술 등 1인 소비문화 확산 | 4.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대화형 로봇 등) |
| 5.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 6. 외로움/우울증 등 심화 |
| 7. 건강관리/돌봄/가사활동지원 등의 요구 증가 | 8. 비혼/저출산 현상 심화 |
| 9.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 | 10. 안전시설 확충 요구 증가 |
| 11. 기타(적을 것: _____) | |

문 26) 귀하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 | |
|----------------------|------------|
| 1. 빈부격차 | 2. 일자리 |
| 3. 국가안보(대외) | 4. 정치개혁 |
| 5. 복지 | 6. 교육 |
| 7. 소통 | 8. 저출산·고령화 |
| 9. 치안(대내) | 10. 환경오염 |
| 11.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27) 다음에 제시된 정치참여 활동/방식 중에서, 귀하가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한 적이 있는 행위를 모두 말씀하여 주세요.

- | | |
|----------------------|------------------|
| 1. 정당가입 | 2. 진정/청원 |
| 3. 평화적 집회 | 4. 시위 |
| 5. 서명운동 | 6. 후원/기부 |
| 7. 언론투고 | 8. 관련 시민단체 등 가입 |
| 9. 공청회 방청단 | 10. 공론화 조사 시민참여단 |
| 11. 기타(적을 것 : _____) | |
| ----- | |
| 12.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 |

[문화 / 역사 / 정체성]

문 28) 귀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우수하다	대체로 우수하다	별로 우수하지 않다	전혀 우수하지 않다
1) 한국의 전통 문화 및 유물(한식, 한복, 한옥, 공예)	1	2	3	4
2) 한국의 정신문화(충·효·예 및 정(情) 등)	1	2	3	4
3) 한국의 대중문화(K-pop, 한국드라마 등)	1	2	3	4

문 29) 귀하는 다문화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1	2	3	4
2) 우리 사회는 같은 외국인이라도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1	2	3	4
3)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	1	2	3	4

문 30) 귀하는 한국 또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2) 나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문 31) 귀하는 한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 1. 부지런함 | 2. 검소함 |
| 3. 여유 | 4. 창의성 |
| 5. 인내심 | 6. 관용성 |
| 7. 의리가 있음 | 8. 인정이 많음 |
| 9. 책임감이 강함 | 10. 단결력이 강함 |
| 11. 불의에 저항 | 12. 예의바름 |
| 13. 평화애호 | 14. 진취적 |
| 15. 기타(적을 것 : _____) | |

98. 장점이 없음

문 32) 귀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2.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3. 국방력이 강한 나라
4. 문화와 예술의 중심이 되는 나라
5.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
6. 기타(적을 것 : _____)

[북한 / 통일]

문 33) 이제부터는 북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야 할 협력 대상이다
3. 우리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의 발전을 제약하는 경계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이다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4) 귀하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통일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2.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점진적 통일, 당분간 관망 등 포함)
3.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문 35) 귀하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다음에 제시된 보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변화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
2.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다
3.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진다
4.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문 36)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에 발생하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경제적 부담
2. 가치관의 차이
3. 생활방식의 차이
4. 언어생활의 차이
5. 정치적 혼란
6. 빈부격차 심화

응답자 특성

후문 1) 현재 귀하의 가장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사)
3. 판매직·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공·숙련공 (중장비·트럭 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장치·기계 조립 조작 등)
5. 일반직업직 (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 노동 등)
6. 사무직·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직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회계사,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고소득 프리랜서 등)
9. 전업주부
10.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11. 무직
12. 은퇴
13. 기타(적을 것 : _____)

후문 2) 실례지만,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 | |
|-------------------|------------|
| 1. 중학교 졸업 이하 | 2. 고등학교 졸업 |
| 3.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 4. 대학원 졸업 |

후문 3) 실례지만,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1. 미혼
2. 기혼 - 결혼 생활 중
3. 기혼 - 사별, 이혼, 별거 등

후문 4) 귀 닥의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가구원이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어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친척, 친구, 종업원 등이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1. 전체 가구원 수: _____명
2. 만 19세-만79세 가구원 수: _____명

후문 5) 현재 귀댁에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관계는 귀하가 기준이며, 아래 보기 중에서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 | | |
|----------|--------------------|
| 1. 혼자 | 2. 배우자 |
| 3. 자녀 | 4. 부모 |
| 5. 조부모 | 6. 손자/손녀 |
| 7. 형제/자매 | 8. 기타(적을 것: _____) |

후문 6) 귀 닥의 한 달 총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구 전체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 | | |
|------------------|-------------------|
| 1. 100만원 미만 | 2. 100만원 ~ 149만원 |
| 3. 150만원 ~ 199만원 | 4. 200만원 ~ 249만원 |
| 5. 250만원 ~ 299만원 | 6. 300만원 ~ 399만원 |
| 7. 400만원 ~ 499만원 | 8. 500만원 ~ 599만원 |
| 9. 600만원 ~ 699만원 | 10. 700만원 ~ 799만원 |
| 11. 800만원 이상 | |

후문 7) 귀하는 현재 어느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 | | |
|----------|--------------------|
| 1. 종교 없음 | 2. 기독교 |
| 3. 불교 | 4. 천주교 |
| 5. 원불교 | 6. 기타(적을 것: _____) |

후문 8) 귀하는 자신의 이념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보수적 | 2. 다소 보수적 |
| 3. 중도 | 4. 다소 진보적 |
| 5. 매우 진보적 | |

♠ 긴 시간 동안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통계 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19년 12월 18일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여론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044-203-2924

조사수행 :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 02-3702-2100

